

2020년 제29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 자 료 집

총회 회순

의장 : 이명숙 이사장

[illegible]

자료 쪽번호

| | |
|---------------------------|-----------|
| [부록]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관 | 282 |
| | |
| 29차 정기총회 정회원 | 004 |
| 28차 정기총회 회의록 | 005 |
| 사업감사 보고서 | 200 |
| 회계감사 보고서 상담소 / 열림터 | 213 / 221 |
| 2019년 팀, 부설기관 활동보고 | 009 |
| 2019년 상담통계 | 032 |
| 인권침해 및 평등문화 증진 1년 운영 보고 | 154 |
| 발간자료 | 161 |
| 블로그 "똥다! 상담소" 포스트 | 162 |
| 유튜브 '한국성폭력상담소' 영상 | 167 |
| 입장, 논평, 성명 | 169 |
| 외부 강의 활동 | 174 |
| 외부 자문 및 정부위원회 참여 | 179 |
| 발제, 발표, 토론, 사회 | 185 |
| 집필 원고 | 187 |
| 언론에 난 상담소 | 188 |
| 상근활동가 소개 | 199 |
| 2019년 상담소 수입지출결산 | 202 |
| 열림터 수입지출결산 | 214 |
|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목표 | 222 |
| 팀 부설기관 활동계획 | 224 |
| 2020년 상담소 예산안 | 202 / 274 |
| 열림터 예산안 | 214 |
| 임원 후보 및 퇴임 임원 소개 | 278 |
| | |
| 2019년 공로상 / 감사패 / 안젤라어워드 | 279 |
| [부록] 2019년 성명, 논평, 입장 55선 | 287 |

2020년 29차 총회 정회원

| No. | 이름 | 비고 | No. | 이름 | 비고 | No. | 이름 | 비고 |
|-----|-----|--------|-----|--------|--------|-----|-----|--------|
| 1 | 강남식 | 신규 정회원 | 28 | 박아름(앞) | | 55 | 장광미 | 신규 정회원 |
| 2 | 강보길 | 신규 정회원 | 29 | 박은진 | 신규 정회원 | 56 | 장수경 | 신규 정회원 |
| 3 | 곽옥미 | | 30 | 박윤숙 | | 57 | 장윤경 | |
| 4 | 권지연 | 신규 정회원 | 31 | 박지희 | | 58 | 장운정 | |
| 5 | 김강자 | | 32 | 배순희 | | 59 | 장주리 | |
| 6 | 김다미 | | 33 | 백미순 | | 60 | 장철우 | |
| 7 | 김두나 | | 34 | 변혜정 | | 61 | 전순유 | |
| 8 | 김보화 | | 35 | 서민자 | | 62 | 전혜영 | |
| 9 | 김복연 | 신규 정회원 | 36 | 신은재 | | 63 | 정정희 | |
| 10 | 김신아 | | 37 | 안분순 | | 64 | 정지은 | |
| 11 | 김연정 | | 38 | 안효선 | | 65 | 조소연 | |
| 12 | 김윤희 | | 39 | 양현경 | | 66 | 조은희 | |
| 13 | 김은아 | | 40 | 유미란 | 신규 정회원 | 67 | 조인섭 | |
| 14 | 김주아 | 신규 정회원 | 41 | 유승진 | 신규 정회원 | 68 | 조인옥 | |
| 15 | 김혜경 | | 42 | 유호정 | | 69 | 조중신 | |
| 16 | 김혜정 | | 43 | 이경환 | | 70 | 천정환 | |
| 17 | 김호진 | | 44 | 이나영 | 신규 정회원 | 71 | 최란 | |
| 18 | 나선영 | | 45 | 이명선 | | 72 | 최보원 | |
| 19 | 노선이 | | 46 | 이명숙 | | 73 | 최지나 | |
| 20 | 노주희 | | 47 | 이미경 | | 74 | 탁수경 | 신규 정회원 |
| 21 | 류수민 | 신규 정회원 | 48 | 이어진 | | 75 | 한소망 | 신규 정회원 |
| 22 | 문미라 | 신규 정회원 | 49 | 이영희 | | 76 | 한희정 | 신규 정회원 |
| 23 | 문숙영 | | 50 | 이유정 | | 77 | 허복옥 | |
| 24 | 문호진 | | 51 | 이윤상 | | 78 | 홍순기 | |
| 25 | 박미숙 | | 52 | 이향심 | | 79 | 황지성 | |
| 26 | 박무진 | | 53 | 이혜정 | | | | |
| 27 | 박아름 | | 54 | 임순영 | | | | |

※ 후원회원 전환 (2020.1.21 이사회 의결) _ 김미랑, 김정희, 김지현, 박소라, 권주희, 이덕화, 정유석 (7명)

※ 정회원 전환 (2020.1.21. 이사회 의결) _ 강남식, 강보길, 권지연, 김복연, 김주아, 류수민, 문미라, 박은진, 유미란, 유승진, 이나영, 장수경, 장광미, 탁수경, 한소망, 한희정 (16명)

2019년 제28차 정기총회 의사록

1. 회의의 종류: 정기총회
2. 개최 연월일: 2019년 1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3. 개최장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지하1층 이안젤라홀
4. 총회원수 및 출석회원 수 : 총 70명 중 45명 출석 (참석 27명, 위임 18명)

이명숙 이사장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인사말을 하다. 이미경 소장이 인사말을 하다. 사무국 김연정 활동가가 정회원 70명 중 출석 27명 위임 18명으로 과반수 이상 45명 출석하였음을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다. 화면의 회순대로 진행할 것을 의장이 제안하여 조중신 회원이 동의하고 노선이 회원이 재청하다. 의장이 서기를 선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정정희 활동가가 장주리 활동가를 서기로 추천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서기로 선정하다.

제27차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2018년 제27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김보화 책임연구원이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승인여부를 묻자, 조중신 회원이 동의하고 임순영 회원이 재청하여 승인하다.

2018년 감사보고

제16조 (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김미순 감사가 사업감사를 보고하다. 배자하 감사가 회계감사를 보고하다.

2018년 활동보고

이명숙 의장이 2018년 활동보고 영상을 시청할 것을 말하여 다함께 시청하다. 시청 후 각 팀별로 의미 있는 활동 소개를 들어볼 것을 제안하다. 사무국 김연정 활동가가 오랜회원 감사의 밤을 소개하다. 성문화운동팀 노선이 활동가가 자기방어캠프를 소개하다. 여성주의상담팀 유호정 활동가가 작은말하기 송년파티를 소개하다. 열림터 전순유 활동가가 즉흥연극발표회를 소개하다. 울림 장주리 연구원이 '한치 앞을 모르는' 연구일정 중의 순간을 소개하다.

제1호의 안 2018년 결산 승인

사무국 안선민 활동가가 2018년 결산안을 보고하고, 열림터 박지희 활동가가 열림터의 2018년 결산을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결산 관련 질문이 있는지 묻는다. 사무국 안선민 활동가가 보고 중 누락한 정기에 금/정기적금 관련 설명을 부가해 설명하다. 이명숙 의장이 동의여부를 묻자 이영희 회원이 동의하고 최보원 회원이 재청하여 의결하다.

제2호의 안 2019년 사업계획 승인

여성주의상담팀 최란 활동가가 2019년 전체 활동목표 및 활동계획을 발표하다. 활동목표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장벽밀기,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 함께 높이기, 더 많은 주체들과 연대하고 성장하기, 평등한 공간, 조직, 사회와 좋은 삶을 만들어가기를 소개하다. 활동계획 중 사건지원 및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및 '보통의 경험' 개편판 준비, 집단프로그램, 재충전 및 소진예방(여성주의상담팀), 의실에서 지지로 및 성·재 생산 건강과 권리운동, 반차별운동, 여성주의 관점의 이슈 성명 및 논평, 회원참여프로그램(성문화운동팀), 25주년 기념 포럼 및 관련법 개정 제안, 성인권교육, 생활인과 만드는 운영규칙(열림터), 성폭력피해 상담 일지분석 및 자원과정 분석 연구 포럼 및 KSVRC 활동가 역량 '뽀뽀' 프로그램, '보라! 페미니즘 책방' 운영, KSVRC 발간 및 참여활동 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토대다지기(연구소), 강간죄 개정 및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중앙·지방정부 정책 감시 및 제안 개선 활동, 오픈포럼 반성폭력 '운동·장', 인권규정 도입 및 평등문화 정책 시행을 주요 사업으로 소개하다. 이명숙 의장이 질문이 있는지 묻다. 이미경 소장이 자료집 206쪽 오타 279조를 297조로 정정하다. 김혜정 부소장이 2019년 연감계획 일람 내용 중 열림터와 연구소가 뒤바뀔을 정정하다. 기타 수정사항은 수정 후 최종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다.

이운상 회원이 열림터 25주년 기념 포럼에 대한 상세계획을 묻다. 정정희 원장이 그동안의 운영 내역을 정리하고, 쉽다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열림터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것인가 찾는 계획임을 말하다. 이운상 회원이 퇴소생활인에 대한 연구 관련해 질문하다. 정정희 원장이 퇴소자 정례모임 계획 및 25주년 포럼 반영 계획을 소개하다. 이명숙 의장이 현수막 사진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 여성주의 상담팀 최란 활동가가 장자연 사건 재수사 기자회견, 의실에서 지지로 연구포럼 등을 소개하다. 이명숙 의장이 2019년 활동계획 동의 여부를 묻고 이운상 회원이 동의하고, 배순희 회원이 재청하여 승인되다.

제3호의 안 2019년 예산 승인의 안

사무국 안선민 활동가가 2019년 예산을 보고하고 열림터 박지희 활동가가 열림터의 2019년 예산을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예산 관련 질문이 있는지 묻는다. 동의여부를 확인하자 이혜정 회원이 동의하고 김신아 회원이 재청하여 승인하다.

제4호의 안 중임, 신임 임원선출의 안

정관 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0조(임원의 자격), 11조(임원의 선임)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이운상 KBS 성평등센터장가 임순영 서울특별시 젠더특보를 신임 이사에 추천하고, 제11조 (임원의 선임)과 제14조 (임원의 임기 등)의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이경환 이사의 연임을 추천하다. 이사장이 중임이사의 임기 만료는 2018년 2월 15일이나 예선기로 논의하고, 신임이사도 날짜를 맞추어 예선할 것을 제안하여 승인을 구하자 45명 찬성, 0명 반대로 다음과 같이 승인되다.

| 다 | | | 음 |
|---|---|----------------------|-----------------|
| 이 | 사 | 이 경 환 (781130-*****) | 2019년 2월 16일 연임 |
| 이 | 사 | 이 윤 상 (700407-*****) | 2019년 2월 16일 취임 |
| 이 | 사 | 임 순 영 (650411-*****) | 2019년 2월 16일 취임 |

이경환 이사가 인사말을 하다. 임순영 이사가 인사말을 하다. 이운상 이사가 인사말을 하다. 이명숙 의장이

이 중 신입 임원은 현직 직장 내 규정에 따라 외부기관 임원 가부 심사를 거쳐하고, 심사에서 부동의될 경우 이사 선임은 취소될 수 있다고 하며 이후 과정을 이사회에 위임해줄 것을 당부하다. 조중신 회원이 동의하고 조은희 회원이 재청하다.

제5호의 안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에 대한 규정의 안

성문화운동팀 박아름 활동가가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에 대한 규정'의 안을 소개하다. 2018년 총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진행하였음을 밝히다. 이명숙 의장이 궁금한 점, 보완점이 있는지 묻다. 박아름 활동가가 관련해 처우규정도 관련해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음을 밝히고 해당 내용을 소개하다. 신은재 회원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시 방안에 대해 묻다. 박아름 활동가가 권고로 명기한 이유를 설명하다. 김혜정 부소장이 권고를 해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논의했던 것을 설명하며, 9조 4항 등 신고인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피신고인이 된 상근활동가가 전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한다는 조항을 넣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음을 밝히다. 이명숙 의장이 해임에 관한 징계안이 있는지 묻다. 박아름 활동가가 징계안이 있음을 답하다. 조중신 회원이 규정의 제정 목적이 서로 조심하자는 목적임을 이야기하고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을 제안하다. 박아름 활동가가 4조 정의를 소개하고 특정할 경우의 우려점을 소개하고 넓게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을 통한 합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하다. 김다미 회원이 해임 감봉 등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하다. 박아름 활동가가 토론이 필요하며, 조사위 권고안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하다. 이경환 회원이 해당 안을 자문하였음을 밝히며 여성가족부 성희롱 사안 판단 및 징계에서도 행위 내용에 따른 징계양정 표준안이 없어서 향후 과제라고 말하다. 여성주의상담팀 최란 활동가가 처분의 이행주체, 기관, 확인책임자 등 권고 이행에 관한 책임자를 명시하여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시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을 설명하다. 이명숙 의장이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하다. 김혜정 부소장이 오타 중 13조 3항을 4항으로, 4항을 5항으로 바꾸고, 9조에 4항 '조직은'을 '상담소는'으로 바꾼 수정안을 제안하다. 이미경 회원이 동의하고, 정정희 회원이 재청하여 수정동의안을 상정하고 이명숙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자 최보원 회원이 동의하고, 임순영 회원이 재청하여 승인하다.

공로상 및 감사패 시상

여성주의상담팀 조은희, 유호정 활동가가 공로상, 감사패, 회원상, 용감한 반성폭력 운동상 등 시상을 진행한다.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공로상을 이정선 변호사, 이호연님에게 최보원 이사가 시상하다. 이호연님이 수상소감을 말하다. 이정선 변호사가 수상소감을 말하다. 회원참여상으로 정지은 회원에게 배순희 이사가 시상하다. 용감한 반성폭력 운동상 수상자 김지은님이 불참하였으나, 의미를 나누고자 조은희 활동가가 문구를 읽다. 정지은 회원이 수상소감을 말하다. 감사패 수상자 최영애 이사, 유한회사 체리츠의 불참으로 문구를 조은희 활동가가 읽고 이후 감사패를 따로 전달할 것을 밝히다. 공로상 수상자 단단의 불참을 밝히고, 문구를 읽다.

소감 나눔 및 폐회 선언

이명숙 의장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경환 이사, 이미경 소장, 김미순 감사 중 김미순 감사에 국방부에게 활동 이야기를 요청하다. 김미순 감사가 국방부라는 조직에서 기반 및 체계를 잘 만들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고민을 말하며 군대와 국방부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다.

이명숙 의장이 여성주의상담팀 최란 활동가에 상담팀에서 피해자와 만나고 의료지원 연결하는 것에 대해 지난 1년의 소감과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할 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청하다. 최란 활동가가 의료비 국고지원도 증가했지만,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임을 인지하는 것도 증가한 것을 체감함을 말하며, 가해자 변호하는 전문변호사의 문제(보복성 역고소, 기횡고소의 문제 등) 등을 이야기하다.

이명숙 의장이 공대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김혜정 부소장에게 요청함. 미투 이전에 이미경 소장을 중심으로 상담소가 7개 이상의 공대위 활동을 했음을 소개하며, 1인 셀럽의 시대에 많은 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대위의 활동에 대해 전하다.

이명숙 의장이 공지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자, 김혜정 부소장이 29일 11시 해군대위성폭력사건 기자회견, 오후 2시 연구포럼, 2월 1일 안희정성폭력사건 방청연대 및 집회, 및 총회 뒷풀이에 대해 공지하다.

이명숙 의장이 최보원 전임 이사장에게 인사말을 요청하고, 최보원 이사가 2019년에 다양한 활동계획이 있는 만큼 결실도 풍성한 한해이길 바란다고 인사하다.

이 회의록의 공증에 대한 위임은 45명의 찬성(위임 18명 포함)으로 승인되다. 의장 이명숙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의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 오후 9시 36분)

서 기 2019년 1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

| | | |
|----|-----|------------|
| 의장 | 이사장 | 이 명 숙 (법인) |
| | 이사 | 배 순 희 (개인) |
| | 이사 | 이 경 환 (개인) |
| | 이사 | 이 미 경 (개인) |
| | 이사 | 최 보 원 (개인) |

2019년 팀 · 부설기관 활동보고

2019년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조직가가 되자
상담소 활동 내용과 자료들, 연구결과를 잘 정리하고 알리고 활용하자
상담소/시설 협의회와 함께 피해생존자 권리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하자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여성주의 활동을 만들고, 후기를 공유하자
여성주의 쉼터로서 열림터의 역사와 의제를 널리 알리자
직접 후원 외에 강의 참여, 온라인 모금함 등 상담소와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하게 활용하자
상담소 외부에 다닐 때마다 상담소가 지금, 오늘, 이번 주에! 하는 일을 열심히 알리자
회의, 기획단, 위원회를 열 때 새로운 참여자 비율을 꼭 보장하자

지속가능한 운동 만들기

상근활동가가 역량을 강화하는 해, 장기적인 활동을 도모하는 해로 만들자
상근활동가가 정시퇴근하고, 휴가 잘 쓰는 캠페인을 통해 나 자신과 서로를 돌보자
피해생존자가 여성주의와 만나는 접점을 확장함으로써 당사자로서 운동하는 장을 넓히자
쉼터 운영규칙을 만들 때 생활인이 함께 참여하여, 생활에 대한 만족을 높이자
집중목표 사업을 중심에 두고 업무를 가지치기 하자
집중목표 사업에 대한 평가, 성장, 참여를 선순환하여 중·단기 목표를 이루자

총평

-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라는 문구를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활동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공유한 후, 각 사업과 활동에서 목표, 방법, 결과의 방향 등에서 좌표가 될 수 있었음
- 활동가 교육 뽀뽀 등을 통해 상담소 내 정보, 자원활용, 교육 등에서 대중과의 만남 기술과 역량 등을 고르게 성장하고, 구체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었음
- 상근활동가들의 재충전과 휴식, 주 3-4일 근무 등 다양한 업무 및 휴식 형태를 고려하여 일하면서 규정 정비와 구체적인 실행에서의 조정 등을 하게 되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연말 팀간 이동을 시도하여, 다양한 업무에 도전하고 배움과 훈련,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조직 내 탄력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함.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목표

| | ■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장벽밀기 | ■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 함께 높이기 |
|--------------|--|--|
| 여성주의 상담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부스 운영 - 상담일지 개선 및 통계 - 사건지원 및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개별프로그램 (일상 회복 프로젝트 '생존키트', 의료비지원, 개별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 슈퍼비전 - 사례회의 - 종결사례 포럼 - 보통의 경험 단행본 준비 작업 |
| 성문화 운동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운영, 대중캠페인, 연속집담회)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운동 - 반차별운동 - 성폭력생존자의 말하기와 #미투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연구 및 확산 - 여성주의 관점의 이슈 성명 및 논평 - 여성인권연대활동(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3.8 세계여성 의 날) - 다양한 연대활동 |
| 부설 연구소 울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 개정 제안(보호시설에 대한 제한적 친권 부여/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 지원통계 신규양식 개발 - 홍보, 후원관리, 대외활동 - 25주년 기념 포럼 |
| 부설 열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 상담일지분석 연구포럼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3호 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동향 분석 - 상담일지 분석 - 여성주의 연구활동 연대 |
| 사무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형법 279조 강간죄 개정! -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 반성폭력 성평등 정책 생산 활동 - 중앙·지방정부 정책 감시 및 제안 개선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포럼 반성폭력 '운동-장' - 성평등한 반성폭력 시선과 목소리 : 외부 교육, 자문, 언론 대응 - 성평등 / 반성폭력 상시 연대 활동 - 반성폭력, 성평등 국제 연대 협력 활동 |

| ■ 더 많은 주체들과 연대하고 성장하기 | ■ 평등한 공간, 조직, 사회와 좋은 삶을 만들어가기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요법률상담 - 자문위원회 - 로스쿨 실무수습 - 집단 프로그램(작은말하기, 집단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충전 및 소진 예방 | 여성주의 상담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 온라인 소통 - 이메일소식지 발행 - 회원소식지 나눔터 발간 - 회원참여프로그램(KSVRC회원놀이터, 회원소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활동가 소통 및 연계 - 한해보내기 | 성문화 운동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권교육 - 치료회복프로그램(성교육/자기방어훈련/심신회복캠프) - 퇴소자모임 -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및 소진예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 일상생활지원 - 퇴소자 지원 - 생활인과 만드는 운영규칙 - 환경식생활안전교육 | 부설 연구소 울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VRC 활동가 역량 ‘뽀뽀’ 프로그램 - 연구소 자문위원 & 객원연구원 재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VRC ‘보라! 페미니즘 책방’ 운영 - KSVRC 발간 및 참여활동 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토대 다지기 | 부설 열림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 자원활동가 운영 - 후원회원 확대, 예우 및 소통 시스템 - 이사회, 자문위원, 회원 총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규정 도입 및 평등문화 정책 시행 - 일하기 좋은 조직 만들기 - 사무 업무 총괄 | 사무국 |

2019 여성주의 상담팀 활동 보고

| 활동목표 | | | |
|---|---|--|---|
|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장벽 밀기 |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 함께 높이기 | 더 많은 주체들과 연대하고 성장하기 | 평등한 공간, 조직, 사회 와 좋은 삶 만들어가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부스 운영 - 상담일지 개선 및 통 계 - 사건지원 및 공동대책 위원회 활동 - 개별프로그램 (일상 회 복 프로젝트 ‘생존키 트’, 의료비지원, 개별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전문상담원 기 본교육 - 슈퍼비전 - 사례회의 - 종결사례 포럼 - 보통의 경험 단행본 준비 작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요법률상담 - 자문위원회 - 로스쿨 실무수습 - 집단 프로그램(작은말 하기, 집단상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충전 및 소진 예방 |
| 2019년 우리의 움직임 | | | |
|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 | 지속가능한 운동 만들기 | |
| 피해생존자와 함께 성장하는 활동 모델 구축 | | 상담팀 활동가 전체 역량 강화 활동가 소진 예방을 통한 장기 활동 도모 | |

총평

- 상담일지와 통계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사건파악의 효율성을 제고함
- 각 활동가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폭력 의제화에 기여하였음
- 일상회복 프로젝트, 개별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풀을 넓혀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였음
- 상담부스 안정화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함
- 수요가 높았던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여 반성폭력 운동의 참여 기반을 넓힘
- 동료 슈퍼비전 및 종결사례 포럼을 통해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음
- 보통의 경험 단행본을 준비할 여건이 안 됨
- 월요법률상담에 기존 변호사와 신규 변호사를 배석시켜 신규 변호사를 성장시키고 사건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을 발굴함
- 작은 말하기 및 집단상담 참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성폭력 피해생존자와 반성폭력 운동에 함께 연대하고
참여하였음
- 하반기 팀 내 인력 구성 변동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지 못해 재충전 및 소진 예방의 기회를 만
들지 못했음
-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피해생존자를 반성폭력 운동으로 연결하여 함께 성장함. 과거 말하기대회에 참
여자가 집단상담의 코리더로 함께 하였고, 내담자와 작은말하기 참여자들이 집회에 적극 참가, 발언함
- 집단프로그램 내 생존자들 간 연대와 긍정적인 역동으로 피해생존자의 역량이 강화되었음
- 강의와 사례 슈퍼비전에 참여하여 상담 및 사건지원 역량을 강화하였음
- 단기적으로 쌓인 일을 처리하느라 장기 활동을 도모할 물리적 여건이 안 됨

목표1.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장벽 밀기

1-1. 상담 부스 운영

- 배경/필요성:
 - 2018년 하반기에 변경된 상담 부스 운영 방식을 시도하면서 파악한 장단점을 바탕으로 상담활동가 1명을 추가하기로 논의하였음
- 목표: 안정적인 상담 부스 운영 체계 정립
- 방법 및 계획:
 - 상담부스 운영계획
 - : 상담팀 2일~2.5일 + 상담활동가 1.5일~2일 + 상근활동가 1일
 - : 상근활동가 매주 금요일 2타임 (10:00~12:30 / 1:30~16:00)
 - 상담 끝난 후 일일수퍼비전 통해 상담 및 사건지원의 질 향상
- 진행내용:
 - 상담부스 운영 : 상담팀 2일 + 상담활동가 (1월~2월 중회, 3월~현재 이산) 2일+ 상근활동가 1일 진행
 - 상담현황 (2019.1.1.~12.31) (*별첨)
 - : 총 1419회, 1028건 이 중 총 912건의 성폭력상담 진행 (세부내용 2019년 상담통계 참조)
 - 사건지원현황
 - : 총 100건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총계 | 의견서 제출 |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사업 신청 | 연계의뢰서 제출 |
|-------|-----|--------|------------|-------------|----------|
| 지원 건수 | 100 | 12 | 21 | 26 | 41 |

- 평가:
 - : 활동가별 적극적으로 공대위 활동 등에 참여하여 운동적 의제화에 적극 참여함
 - : 하반기 팀 내부 인력 구성의 변화로 상담 부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했음. 팀 내 변동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상담 부스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함

1-2. 상담일지 개선 및 통계

- 배경/필요성: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다른 지역의 상담소와 비교하여 다양한 초기상담의 건수가 많다는 본 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의 연구가 있었음. 그만큼 상담소의 상담일지와 통계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최근의 성폭력 유형과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
- 목표: 상담일지와 상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외화
- 진행내용:
 - 상담일지 및 통계 개선
 - : 1/9 상근활동가 전체 대상 변경된 상담일지 작성법 공유
 - : 1/20 대표 피해 유형 수정 포함 최종 수정 상담일지 버전 확인
 - : 6/4 연구 목적 활용 표기 등 수정 관련 회의 진행 (상담팀+물개)
 - : 6/10 상담일지 활용 동의 여부 확인란 신설

- : 10/25 상담일지 활용 동의 여부 확인란 반영 통계표 수정
- 상담일지 읽기 모임
- : 진행하지 못함
- 상담통계 분석
- : 2월 말, 2018년 한 해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미투 상담”,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 “억고소”를 키워드로 세부 통계를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도 자료를 발송함
- : 5월,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요청, 폭행협박 없는 강간피해 상담일지 분석 (2019년 1월~3월)
- : 6/5 폭행협박 없는 강간피해 세부 상담내용 상근활동가 공유
- : 6/20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비공개 간담회, “임신중지” 관련 상담 및 지원 사례 분석 내용 공유함
- 평가:
- 상담일지 개선을 통해 ①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에 맞춘 피해 유형 정리 ②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유형 간소화 ③ 세부 법적 절차 진행 상황 및 억고소 상황 표기 ④ 피해 정도 상세화 등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일지를 1월부터 사용함. 또한, 8월부터는 연구 목적으로 상담일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유선상으로 직접 구하고 이를 상담일지 및 통계표에 반영하여 상담 윤리 원칙을 준수하였음
- 수정된 일지 양식에 따라 법적 진행 절차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 파악의 효율성을 높임
- 상담일지 읽기 모임은 팀 내 업무 부담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 강간죄 개정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폭행·협박 없는 강간피해를 유형화(직접/간접/무)하여 세부 통계를 분석하여 상담소에서 이뤄지는 피해상담의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총 2차례의 상담일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담통계 연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내년 초 상담통계 작업 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1-3. 사건지원 및 공동대책위원회

- 배경/필요성:
- 개별 사건지원을 넘어 반성폭력 운동의 의제를 도출하고 법정책 제언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
- 사건지원의 내실을 통해 사건지원의 체계를 공고히 하고 활동가별 지원 경험을 축적하고 확대
- 타 단위와의 공동대응 경험을 통해 다각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건지원자로서의 역량강화
- 목표: 상담 및 사건지원의 내실화를 통한 사건지원의 경험 축적, 확대
- 방법 및 계획:
- 개별 사건지원을 통한 반성폭력 운동의 의제 도출
- : 개별 사건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결되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개별 사안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의제 및 효과에 대해 지원 여부 논의 시 함께 검토
- 사건지원의 내실화
- : 사건지원은 매주 1회 팀 업무회의를 통해 사례 공유 후, 지원에 대해 결정하고 논의함
- : 사건지원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지원을 종결, 현재 지원 중인 사례에 보다 집중하도록 함
- : 활동가별 총 10사례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연계
- : 상담팀 외 활동가들도 사안에 따라 사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
-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활성화
- :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단위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할 사안의 경우, 팀 회의 및 상근활동가회의를 통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지원 전략 논의

: 활동가별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다각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와 연대활동을 경험

• 진행내용:

- 개별 사건지원을 통한 반성폭력 운동의 의제 도출
- : 매 업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지원 논의 시, 무고, 가해자 변호, 2차 피해, 공동체 내 사건 해결 등 특정 의제와 관련한 의견 나눔
- 사건지원의 내실화
- : 업무회의를 통해 사건지원 여부 논의 결정
- : 활동가별 총 10사례 이상 지원하지 않도록 조율 및 타기관 적극 연계 (타 기관 연계 사례 11건, 연계의뢰서 발송 기준)
-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활성화

| 공대위 | 활동내용 |
|------------------------------------|--|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대위 | <p>1월: 공대위 구성 (군인권센터, 녹색당,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군포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총 11개 단체) 민변 여성위원회, 공공감, 희망법 공익변론 제안. 최종적으로 민변 여성위원회 공익변론 수임/ 총 6인 변호인단 구성, 피해자분 심리치료기관 연계, 공대위 회의 (1/8, 1/18), 대법원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 (1/29)</p> <p>2월: 공대위회의 (2/7), 고등군사법원최악의판결, 대법원은 어떤판결을 해야하는가 토론회 (2/19)</p> <p>3월: 공대위회의 (3/5), 쟁점간담회 1차 (3/14)</p> <p>4월: 공대위회의 (4/12)</p> <p>5월: 서울함공원방문 (5/10), 쟁점간담회 2차 (5/13)</p> <p>6월: 공대위회의 (6/14), 쟁점간담회 3차 (6/14)</p> <p>7월: 공대위회의 (7/2, 7/23), 쟁점간담회 4차 (7/23),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7/31)</p> <p>8월: 공대위회의 (8/9), 오마이뉴스 연속 기고 (8/8, 8/14, 8/20)</p> <p>9월: 공대위회의 (9/19), 쟁점간담회 5차 (9/3),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9/6, 9/12, 9/19)</p> <p>10월: 공대위회의 (10/15), 카드뉴스 발행 (10/30)</p> <p>11월: 워크숍 계획 회의 (11/1), 판결문 다시 쓰기 워크숍 <벌써 1년,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 (11/15), 카드뉴스 발행(11/8)</p> <p>12월: 공대위회의 (12/11)</p> |
| 이운택 연극연출가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공대위 | 사무국 활동 보고 참조 |
| 김기덕 영화감독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공대위 | 사무국 활동 보고 참조 |

• 평가

- 활동가별 1인 공대위 활동을 참여함으로써 타 단위와의 공동대응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됨
- 여러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원 체계를 운용함으로써 지원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경험을 축적함

- 해군 성폭력 사건 공대위의 경우 상담팀에서 사무국을 담당하여 피해자 지원, 법률지원, 공대위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음. 사건이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공대위 참여 단위의 동력이 다소 유실되고 있어 공대위 운영에 실무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대중 홍보가 부족하였음. 향후 사건 진행 과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중 참여 사업 및 공론화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1-4. 개별프로그램

1) 일상회복프로젝트 생존키트

- 배경/필요성:
 - 피해 경험 이후 일상을 다시 살아가고 삶을 기획하기 위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음.
 -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는 법률, 의료 분야로만 한정되어 있음
 - 법률, 의료 외에도 일상의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여 피해생존자의 회복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는 피해생존자의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연결될 수 있음
- 목표: 일상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피해생존자의 일상회복을 도모
- 방법 및 계획: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일상회복에 필요한 교육비, 문화비, 주거비, 체력단련비 등을 지원
 - (1월) 홈페이지 및 SNS 홍보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
 - : 피해생존자가 직접 일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의 규모와 지출계획을 스스로 기획하여 실행계획서를 작성
 - : 계획의 적합성, 지속성,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및 내용을 확정
 - (1월 말~2월 초) 사전 워크숍 ‘성폭력 피해, 마주하고 재해석하기’
 - (2월~5월) 일상회복 프로젝트 실행
 - (6월 초) 공유 워크숍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 함께 나누기’
 - : 프로젝트 진행 후 프로젝트 평가 및 일상의 변화에 대해 공유
- 진행내용:
 - : 1/17~1/31 홈페이지와 SNS에 홍보 및 모집 시작
 - : 2/11 사전 워크숍 진행 - 상담소 소개 및 사업 집행 방법 안내,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 3개월 후의 “나” 상상해서 그리기
 - : 2월~5월 일상회복프로젝트 실행
 - : 6/14 사후워크숍 진행 - 활동 후기 공유, 성폭력 피해자 일상의 조건 이야기하기, 상담소 행사 안내
 - 2019 일상회복프로젝트 진행 내용

| | 내용 | 지원금 |
|---|----------------------------------|---------|
| 1 | 외국어 교육, 공연 관람 | 300,000 |
| 2 | 의류, 식비, 반려동물 용품 | 674,400 |
| 3 | 의류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 (신청 당시, 영수증 미수령) | 650,000 |
| 4 | 여행비 | 300,000 |
| 5 | 식비, 여행비 | 600,000 |
| 6 |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 700,000 |
| 7 | 월세 | 700,000 |
| 8 | 월세, 식비, 통신비 | 700,000 |
| 9 | 여행비, 운동비 | 586,800 |

| | | |
|----|-------------|---------|
| 10 | 운동비, 독서실 이용 | 420,000 |
| 11 | 침구류, 운동비 | 700,000 |
| 12 | 식비 | 700,000 |

• 평가

- 한국여성재단 기금으로 예산을 확대하였으나 신청자가 많아 부득이하게 선정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음.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이 필요할지 논의 필요
- 참여자 사후 평가에서 활동 중간에 참여자들 간 모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한국여성재단과의 소통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었음

2)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배경/필요성:

- 성폭력피해자 건강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의 우울증 경험률 26%인데 반해 성폭력 피해 경험자는 69.8%, 자살 생각 경험은 일반인이 23.9%, 피해 경험자는 63.5%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 성폭력은 여성의 건강권과 연결됨. 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제안이 필요

• 목표: 치료비 지원을 통한 성폭력 생존자의 의료적, 심리적 안정 도모

• 방법 및 계획:

- 1인 6개월 이내 300만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
- 팀 내 상시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결정
- 업무 부담, 지원 범위 등 의료 지원에 관한 정책 고민 및 제안
-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 및 상담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례를 충실히 관리

• 진행내용 및 결산 (12월 31일 기준):

- 신규 및 추가 지원 시 상시적으로 팀 내부에서 논의하여 지원 결정을 하였음
- 의료기관의 지원체계 변경 시 내담자에게 연락하여 안내하였음
- 외부 인력을 섭외해 치료비 엑셀 통계표를 체계적으로 개정하였음
- 타 기관과 소통하여 남은 의료비를 예산이 부족한 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음
- 2019 의료비 지원 현황

| | 의료기관 | 건수 | 금액 |
|----|--------------|-----|-----------|
| 1 | 국립○○센터 | 18 | 1,001,500 |
| 2 | ○○병원 | 7 | 2,038,430 |
| 3 | ○○○그룹 | 52 | 7,930,000 |
| 4 | ○○○약국 | 5 | 15,300 |
| 5 | ○○○○상담센터 | 35 | 3,660,000 |
| 6 | ○○○○○약국 | 17 | 314,630 |
| 7 | ○○임상심리연구소 | 4 | 240,000 |
| 8 | ○○○신경정신과 | 4 | 100,200 |
| 9 | ○○○약국 | 1 | 4,100 |
| 10 | 사회적협동조합 ○○○○ | 45 | 4,880,000 |
| 11 | ○○서울병원 | 16 | 657,200 |
| 12 | ○○인지감성연구소 | 145 | 9,000,000 |

| | | | |
|----|---------------|-----|------------|
| 13 | ○○병원 | 29 | 1,310,580 |
| 14 | 서울○○병원 | 3 | 36,600 |
| 15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4 | 32,800 |
| 16 | ○○○가족상담센터 | 15 | 2,150,000 |
| 17 | ○○○○○의료원 | 8 | 825,800 |
| 18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 533,900 |
| 19 | ○○○○○상담센터 | 3 | 1,020,000 |
| 20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1 | 468,000 |
| 21 | ○○○정신건강의원 | 1 | 5,300 |
| 22 | ○약국 | 6 | 28,500 |
| 23 | ○○의원 | 13 | 220,500 |
| 24 | ○○○○심리상담센터 | 14 | 1,680,000 |
| 25 |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1 | 1,256,990 |
| 26 | ○○약국 | 5 | 20,400 |
| 27 | ○○○약국 | 3 | 68,700 |
| 28 | ○○○○○○○○연구소 | 25 | 1,750,000 |
| 29 | ○○심리클리닉 | 32 | 3,500,000 |
| 30 | ○○○○○○연구교육원 | 16 | 1,870,000 |
| 31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173 | 1,350,770 |
| 32 | ○○약국 | 4 | 24,300 |
| 33 | ○○○○○○○○의원 | 26 | 1,951,200 |
| 34 | ○○○약국 | 7 | 45,100 |
| 35 | ○○○○○정신과 | 1 | 9,200 |
| 총계 | | 739 | 50,000,000 |

| 의료기관 분류 | | 지급 건수 | 지급액 |
|----------|------|-------|------------|
| 산부인과 | 일반진료 | 6 | 1,084,030 |
| | 임신중절 | 1 | 954,400 |
| 일반진료기관 | | - | - |
| 약국 | | 48 | 521,030 |
| 신경정신과/의원 | | 267 | 9,285,420 |
| 심리치료 | | 417 | 38,155,120 |
| 총 개 기관 | | 739 | 50,000,000 |

• 평가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연계로 심리상담 치료 지원 풀을 넓힘
- 치료비 통계 프로그램 수정·보완으로 행정 업무가 줄고 편리해졌음
- 하반기에 의료비가 남아서 타 기관과 소통하여 조율하였음. 수시로 의료비 수입·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의료비 신청과 지급 업무를 한 사람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개별상담 (복권기금)

- 배경/필요: 미투운동 등 피해생존자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호소는 증가하였으나 의료, 법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기존 의료비 지원 기준으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피해생존자들에게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목표: 피해생존자로서 공식적인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예외적인 치유과정이 필요한 내담자를 지원
- 방법 및 계획
 - 전화 상담을 통해 수시 지원자 확보.
 - 정신분석센터 ○○와 ○○○마인드 두 기관에 5명씩 총 10명을 지원
 - 1인당 10회 9,580,000원 지원
- 진행내용
 - 2019 복권기금 개별상담 지원 현황

| 기관 | 내역 |
|-----------|-----------------------|
| ○○○마인드 | 6건 진행 / 5건 종료 / 1건 중지 |
| 정신분석센터 ○○ | 6건 진행 / 5건 종료 / 1건 중지 |
| 계 | 10건 |

- 평가
 - 각 기관이 기존 연계의료기관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내담자에게보다 적합한 기관에 연계할 수 있었음.
 - 의료비 예산 조절에 따른 지원의 공백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지원의 기회를 제공함.
 - 다양한 의료기관 확보와 연대의 기회가 됨

목표2.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 함께 높이기

2-1.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 배경/필요성:
 -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입할 수 있는 더 많은 사건지원자 양성 필요
 - 반성폭력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 및 관련 법, 체계, 지원내용의 대중적 확산의 필요
 - 너무나 많은 기본교육 실시에 대한 수요
- 목표: 성폭력 전문 상담원 기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건지원자양성
- 방법 및 계획:
 - 성폭력 전문 상담원 기본교육 실시
 - : 연구소 협업으로 7~8월 내에 주중 (10시-5시) 100시간 진행
 - : 세부 커리큘럼 및 진행 관련한 기획은 기획팀에서 추후 논의하되, 이후 상담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까지 함께 고려 (사건지원자 활동, 추후 워크샵 등)
- 진행내용:
 - 주요 추진 일정

| 일 정 | 주 요 내 용 | 세 부 추 진 내 용 |
|-------|-----------|--|
| 3월~4월 | 기획 및 강사섭외 | 커리큘럼 등 전체 기획(기획팀 구성-란, 주리, 수수, 달별) 커리큘럼에 맞춰 강사 섭외 진행 |
| 5월~6월 | 수강생 모집 | 홍보물 제작 (달별) 5월 수강생 모집 사전 안내문 공지 6/3 수강생 모집 (하루만에 신청 마감) |

| | | |
|----|-------|---|
| 6월 | 사전 준비 | 교재 제작 및 강의안 검토 강의평가서 검토 및 수정 입금자 및 대기자 명단 확인, 최종 수강생 확정 교육장(이안젤라홀) 점검, 간식 준비 등 사전 준비 진행 마포구청 교육진행 계획 보고 |
| 7월 | 교육진행 | 7/8~7/30 교육 진행 |
| 8월 | 후속작업 | 8/21 소모임 진행 (법정지원, 여성주의독서모임, 등산모임 총 3개 제안) 강의평가서 피드백 및 교육진행 실적 구청 보고 |

- 최종 강의 프로그램 및 일정

| 차 | 월일 | 시간 | 교육내용 | 강사 |
|---|-----------|----------|---------------------------------|------------------------------------|
| 1 | 7/8 월 | 10-10:30 | 오리엔테이션 | |
| | | 10:30-1 | 여성인권운동과 반성폭력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 | | 2-5 | 여성주의 영화보기 | 기획팀 |
| 2 | 7/9 화 | 10-1 | 섹슈얼리티와 여성의 몸 | 김백애라 여성학자 |
| | | 2-5 | 남성성과 문화 | 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여성학자 |
| 3 | 7/10 수 | 10-1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과 무고 | 김보화(파이)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울림 책임연구원 |
| | | 2-5 | 반성폭력 운동의 개념과 쟁점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 4 | 7/11 목 | 10-1 | ©사건지원자로서 통념깨기 |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 | | 2-5 | 법과 젠더 |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 5 | 7/12 금 | 10-1 | 인권과 페미니즘 |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
| | | 2-5 |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및 피해자 권리보장제도 | 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
| 6 | 7/15 월 | 10-12 | 성폭력 상담소의 역할 및 지원 체계 | 김미순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 | | 1-3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 및 지원 체계 | 정경희(사자)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
| | | 3-6 |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지원과 주변인의 역할 | 서재선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상담팀장 |
| 7 | 7/16 화 | 10-1 | 10대 성문화와 성폭력 가해 상담 이해 | 박현이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 | | 2-5 |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및 동성간 성폭력에 대한 지원 | 한채운 비온뒤무지개재단 상임이사 |
| 7 | 7/17 수 | 10-1 | 직장내 성희롱 피해 이해와 지원 |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
| | | 2-5 | 성매매의 구조와 성폭력 상담 지원 | 이혜정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

| | | | | |
|---------|-----------|-------|---------------------------|-------------------------------|
| 8 | 7/18 목 | 10-1 |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폭력피해 지원 |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
| | | 2-5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이해와 지원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 9 | 7/19 금 | 10-1 | 이주여성인권과 젠더폭력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상임대표 |
| | | 2-4 | 친족성폭력에 대한 이해 | 전혜영(백목련)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
| | | 4-6 | 전시성폭력에 대한 이해 |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 10 | 7/22 월 | 10-1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 리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
| | | 2-5 | 성폭력생존자의 심리치유의 이해 | 채송희 더트리그룹 소장 |
| 11 | 7/23 화 | 10-1 |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 미투운동을 중심으로 | 노선이(감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팀장 |
| | | 2-5 | ☺법원방문 참관 | |
| 12 | 7/24 수 | 10-1 | 공동체와 가해자 |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
| | | 2-5 | 성폭력 생존자의 산부인과적 지원과 재생산권 | 윤정원 녹색병원 산부인과 의사 |
| 13 | 7/25 목 | 10-1 | 여성주의의 이해 | 정희진 여성학자 |
| | | 2-5 |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 및 실제 | 김은아 여성주의상담연구회 이사 |
| 15 | 7/26 금 | 10-1 | ☺성폭력 문화에 맞서는 자기방어훈련 | 김혜경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 | | 2-5 | 사건지원자의 태도와 역할 |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팀장 |
| 16 | 7/29 월 | 10-1 | ☺성폭력 상담 실습 I |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
| | | 2-5 | ☺성폭력 상담 실습 II |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
| 17 | 7/30 화 | 10-12 | ☺팀 발표 및 수료식 | |
| 총 100시간 | | | | |

1) 총평

- 정원 35명(일상회복프로젝트 1인 포함)과 상근활동가 3명 총 38명이 수강하였고, 이중 총 36명이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을 수료함
- 상근활동가 총 4명이 실무를 분담하여 일정 진행상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음
- 상근활동가 3명이 상담원 교육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상담소 및 부설기관 상근활동가 전체가 상담원자격을 수료하게 되었음
- 격년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어서 수강생 모집 하루 만에 정원모집이 완료되어 수요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교육내용

- 17년도와 비교하여 유형별 상담에 대한 배치를 늘리고 (전시성폭력, 이주여성), 내부 강사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실무역량 및 현장에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음

- 인권과 페미니즘 등 새로운 내용을 배치하여 반성폭력운동의 영역을 확장하였고 만족도가 높았음
-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 및 실재는 강의시간이 다소 부족하여 차후에는 추가 시간 배치가 필요함
- 성폭력 생존자의 산부인과적 지원과 재생산권의 경우 시간 대비 소화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아쉬움
- 자극적인 영상의 경우 교육주제에 맞춘 적절한 시청각 자료 활용에 대해 사전에 소통할 필요가 있음

3) 준비과정

- 상근활동가 4명이 사전, 교육진행 과정 등에서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여 사전준비 및 진행과정이 원활하였음
- 17년도 진행과정 평가를 바탕으로 사전에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음

4) 진행과정

- 오리엔테이션부터 교육공간 곳곳에 ‘이 공간의 약속’ 등을 부착하고 비건 간식으로 다과를 구성하였으며 오픈채팅방 개설로 수강생들과 즉각적인 소통을 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였음
- 화이트보드가 너무 작았고 장시간 교육으로 공기순환의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함
- 영상 재생 시 하단 자막이 삽입된 경우 잘 보이지 않았고 인터넷이 불안정하여 보완이 필요함
- 교육 진행 과정에 참여한 4명의 활동가가 교육실무에 도움을 주었고 그 외 상근활동가들도 도움을 주어 원활이 진행됨
- 수료증에 직인이 누락되어 후속으로 우편 배송 또는 직접방문 수령하도록 안내하였음
- 교육 종료 전 블로그 후기 작성 및 소모임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2명이 후기작성을, 총 15명이 소모임 활동을 신청하는 성과가 있었음

5) 예결산

- 강사섭외 과정에서 소득세 상승대비 강사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는 외부강사의 조언에 따라 3시간 기준 350,000원, 2시간 기준 250,000원으로 강의료를 향상하여 예산보다 강의비 지출이 늘어남
- 자료집 비교견적과 다과비용등 다른 프로젝트 비용활용하여 지출을 줄일 수 있었음

6) 기타

- 페미시국광장 참여시 1회에 한해 1강의 (3시간)의 출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소의 반성폭력운동에도 참여 기회를 만들
-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특성상 피해생존자의 참여가 높은 만큼 강사에게 사전에 수강생 정보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음

2-2. 사건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배경/필요성:

- 지원단체별 사건지원원의 체계 운용의 방식과 지원 전략이 상이함. 타 상담소와의 슈퍼비전을 통해 지원단체별 지원 방식의 경험을 나누고 유대적 활동을 통해 연계망을 확대
- 지원자 간의 고충을 나눔으로써 지속가능한 활동 토대를 마련

•목표: 사건 지원 방식의 경험을 나누고 사건지원자 역량을 강화

•방법 및 계획:

- 타 지원단체와의 슈퍼비전 및 통합적 점검 슈퍼비전 포함 총 4회 격월(3, 6, 9, 11월)로 진행
- 타 지원단체와의 동료 슈퍼비전 진행 (총 2회)
- : 서울 내 타 지원 단체와의 동료 슈퍼비전 진행 (1회)
- : 타 지역 단체와의 동료 슈퍼비전 진행 (1회)
- 내담지 지원과 관련한 통합적 점검 (총 2회, 상하반기 각 1회)
- : 사례에 따라 적절한 슈퍼바이저(여성주의상담, 정신분석학, 사건지원역량 등)를 섭외하여 총 2회 슈퍼비전

진행

• 진행내용:

- 내담자 지원과 관련한 통합적 점검

: 4/15 여성주의상담 슈퍼비전 진행 (강사: 김은아, 참석: 란, 유랑, 은희, 백목련, 박지희, 주리)

- 전문가 슈퍼비전 내용

| 사례 | 슈퍼비전 내용 |
|---------------------------|--|
| 전데이트 상대로부터의 준강간 (란) | : 문제해결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처를 미리 안내할 필요. 먼저 고민하고 상상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할수 있도록 조력. : 내담자의 가진 리더십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해결해나갈 건지에 대한 조언은 지원자가 주어야 함. |
| 회사상사에 의한 성희롱 (은희) | : 내담자와 지원자가 평등한 관계를 지향할 때 내담자가 지원자의 전문성(전체를 조망하면서 지원하는)을 존중해야하는데 그런 태도가 아닐 때에는 평등한 관계가 아님. : 가능하지 않은 것들, 상담소 지원의 한계를 안내하는 것도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태도. : 지원자가 무력감을 느끼는 지점에 대한 평가 필요, 내담자의 욕구 목표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같이 공유하고 시기별 평가 필요. |
| 친구의 친구에 의한 준강간 (유랑) | : 내담자의 변화에서 내담자 스스로의 요인이 80% 이상. 지원자와의 관계는 변화과정의 영향력이 13% 정도. :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지원자의 문제라고 여기기보다는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 필요. |

- 서울 내 타 지원단체와의 동료 슈퍼비전 진행

: 10/29 여성주의상담팀 동료 슈퍼비전 진행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선희, 남성아, 강은진,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은희)

: 동료 슈퍼비전 내용

| 사례 | 슈퍼비전 내용 |
|---------------------------------------|--|
|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과잉으로 의존할 때 내담자 지원 | : 상담기관과 상담자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상담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여성주의상담의 목표에 맞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평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함. |
| 직장내 성희롱 민사지원 | : 상담원 소진예방을 위한 상담자 보호 필요함. 지원의 목표와 한계를 재설정하고 미래비전에 대해 초점을 가져가는 것이 내담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것임. |

• 평가

: 사건지원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할과 한계, 평등한 관계 등 여성주의 상담 원칙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점검
하는 계기로 삼음

: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원자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함

: 열림터, 울림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체 활동가들의 사건지원 역량을 강화함

: 동료 슈퍼비전을 통해 기관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타 기관과 친목 도모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음

: 계획에 미치지 못하게 진행되었으며 현실성 있는 계획이 필요함

2-3. 반성폭력의제 확산을 위한 사례회의

•배경 및 필요성

- 전화 상담과 사건지원을 통해 마주하는 사례는 반성폭력운동의 의제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 상근활동가 전체가 함께 검토하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 정책 제언 및 의제 확산을 위한 쟁점을 도출할 수 있음
- 개별 사례에 머물지 않고 운동적 차원의 의제를 고민하는 과정 필요

•목표:

- 지원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원 전략 및 의제 확산을 위한 쟁점 도출

•방법 및 계획:

- 지원 사례에 대한 집중 토론 시간 마련
- : 사안에 따라 상근자 회의에서 안건논의로 진행
- : 상근활동가 외에 전문가 포함 논의가 필요할 시 적절하게 섭외하여 진행
- 상담팀 외에 활동가 지원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례회의를 통한 소진 예방
- : 상담팀으로 접수되는 사례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되는 사례 등도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함께 나누고 활동가별 소진을 예방함

•진행내용:

일시 : 2018. 6. 5
 사례 : 군인 등 간강치상 건
 내용 : 상근활동가 회의 시간 활용, 사건 관련 사례 나눔 및 지원전략 논의 진행

•평가

-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눔으로써 통합적 지원체계의 작동과정을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 지원자로서의 어려움을 나누고 소진을 예방함

2-4. 종결 사례 포럼

•배경/필요성:

- 개별 사안 초기부터 지원 종결 시까지의 지원 과정 및 체계 대한 공유 및 평가를 통해 이후 지원에 있어 서의 시사점을 확인
- 종결 사례 포럼을 통해 상담소 지원의 경험을 공유 확대

•목표: 사건 지원 전반적인 흐름을 평가, 공유하고 이후 지원에 대한 전략 나눔

•방법 및 계획:

- 종결사례 포럼 진행 (반기별 1회)
- : 열림터 지원의 경험 공유를 위해 상반기 상담팀 1회(6월), 하반기 열림터 1회로 진행(11월)
- : 전체 상근활동가 참여로 사건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청취

•진행내용:

- 종결사례 포럼 내용

| 날짜 | 내용 | 참석자 |
|--------------|--|---|
| 7/3 (상담팀) | 1. 신뢰감이 형성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내담자 지원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작동하여 무죄평결 되는 경우가 많은 점등이 이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 상담소 내 여러 활동가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때 지원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공감함 - 내담자가 지원자를 존중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진행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때 지원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조직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의 | 앞, 주리, 달별, 유랑, 사자, 목련, 은희, 란, 신아, 지희, 오매, 수수, 지리산 |

| | | |
|----------------|--|--|
| | 필요성을 공유함 - 사건 진행 과정 중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을 때 지원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나눔 | 실무수습(4명) |
| | 2. 직장 내 상사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지원 - 학내 또는 직장 내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고소 진행 건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학내 또는 직장 사건은 고소 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의견 제시가 필요함 - 형사 이후 민사 진행 등 오랜 기간 동안 고소 절차를 진행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지원자의 판단이 다를 경우 지원자로서의 판단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 나눔 | 오매, 사자, 목련, 지희, 주리, 달별, 수수, 은희, 감이, 선민, 앓, 유랑 |
| 11/27 (열린터) | 친족성폭력 피해를 입은 탈가정 청소년 지원 - 가족관계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피해자 본인의 문제에 집중하기 - 또래 및 연애 관계에 대한 상담 필요 - 어머니 상담이 필요해 보이거나 어머니 본인의 준비시간이 필요해 보임 | 오매, 지리산, 목련, 지희, 사자, 순유, 수수, 주리, 달별, 신아, 앓, 은희, 감이, 유랑 |

• 평가:

- 상담소활동가들과 친분이 있는 내담자의 경우 지원자가 중심이 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내담자와의 소통과 인을 단일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활동가들이 상담팀과 열린터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내담자 지원에 있어 혼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지원과제를 함께 나누었음

2-5. 보통의 경험 단행본 개정판 제작 준비사업

- 상담팀 활동가 1인의 예정보다 이른 휴직으로 인한 사업 미진행

목표3. 더 많은 주체들과 연대하고 성장하기

3-1. 집단프로그램

1) 작은말하기 (복권기금)

• 배경/필요성:

- 상담소에는 ‘생존자말하기대회’와 구별하여 더욱 가까운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인 성폭력피해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가 있음
- 최근에는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말하기(speak out)의 힘과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음. 작은 말하기는 본인의 피해 경험을 재해석하고 피해자 간 연대가 가능한 일상적인 말하기 공간으로서 중요성을 가짐

• 목표: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피해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을 마련한다

• 방법 및 계획:

-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회 성폭력 피해생존자 자조 모임 진행
- : 매달 참가신청을 받아 모집

: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장소를 대관하여 자유로운 말하기 진행

: 12월에는 한 해 모임을 마무리하는 행사 진행

• 진행내용:

- 매달 작은말하기 참여자를 모집하는 홍보물을 홈페이지 및 다음 카페에 게시하였음
- 모임이 끝난 뒤 참여자의 후기를 정리하여 홈페이지 및 다음 카페에 게시하였음

| 회 | 날일 | 진행자 | 참여자 | 주제 |
|----|-------|-------------|-----|--|
| 1 | 3/27 | 유호정 | 13명 | 자기 소개, 현재의 감정 및 상황 알아차리기 |
| 2 | 4/24 | 유호정,조은희 | 12명 | 신체화 현상, 친족 내 성폭력 경험 이후 대응, 태도 |
| 3 | 5/29 | 유호정,조은희 | 16명 | 현재의 고민과 감정들 |
| 4 | 6/26 | 유호정,조은희 | 10명 | 성폭력 피해자 '치유'의 의미 |
| 5 | 7/31 | 유호정,조은희 | 12명 | 주변인에게 피해를 말했을 때의 경험 |
| 6 | 8/28 | 유호정,조은희 | 19명 | 가족과의 관계 및 피해와 가해의 경험 |
| 7 | 9/25 | 유호정,조은희 | 13명 | 강간죄 구성요건(폭행 및 협박)에 대한 부당함 |
| 8 | 10/23 | 유호정,조은희 | 6명 | 기분과 감정 돌아보기 / 나의 일상과 주변인 |
| 9 | 11/27 | 유호정,조은희 | 16명 | 기분과 감정 돌아보기 / 성폭력 가해자 |
| 10 | 12/19 | 유호정,조은희,노선이 | 13명 | 송년파티(공폐단단 활동 소개, 한해 마무리 이야기 나눔, 선물교환식) |

• 평가:

- 올해는 새로운 장소에서 모임 진행하였음. 찾기 불편하지만, 장소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줌. 제공되는 다과도 맛이 좋음
- 기존 참여자가 신규 참여자를 환대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에서 모임이 진행됨. 참여자가 직접 진행하며 말하기 주제를 던지거나 토크스탁을 도입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말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시도하였음
- 성별 관계없이 다양한 성폭력 피해생존자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 위해 작은말하기는 '한국성폭력 상담소 이 공간의 약속'을 지향하는 모임임을 공지함
- 참가 인원이 많을 경우, 장소가 좁고 말하기에 제약이 생김. 이에 참가 인원을 얼마나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집단상담

• 배경/필요성:

-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현재 자신을 확인하고 성폭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원을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

• 목표: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회복과 일상생활의 적응을 원활하게 함

• 방법 및 계획:

- 3월 중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 지원자모집
- : 사건 개별 인터뷰 및 상담 진행, 집단상담 참여자 적절 여부 판단
- 4~6월 총 10회기 집단상담 진행
- : 회기 종료 후, 개별 후속상담 진행 안정적인 일상 적응 지원

• 진행내용:

| 회기 | 일시 | 진행자 | 참여자 | 활동내역 |
|----|----|-----|-----|------|
|----|----|-----|-----|------|

| | | | | |
|------|---------------|------------|----|---|
| 사전상담 | 5/13, 5/14 | 라다 | 7명 | |
| 1회 | 5/21 | 라다, 가영, 란 | 6명 | 소개 및 신뢰감 형성, 프로그램 신청 동기 및 욕구 두려움 탐색, 타로카드로 알아보는 나의 심리 |
| 2회 | 5/28 | 라다, 은희 | 5명 | 자신의 내·외적 자원찾기와 삶을 돌아보며 중요한 사건을 적어보고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분류하고 얘기하기 |
| 3회 | 6/4 | 라다, 가영, 은희 | 7명 | 성폭력 피해 경험 만나기, “지금 여기”에 미치는 영향 |
| 4회 | 6/11 | 라다, 가영, 은희 | 5명 | 안전하게 말하기 : 피해경험과 관련한 감정, 인식 및 표현 |
| 5회 | 6/18 | 라다, 가영, 은희 | 7명 | 안전하게 말하기 : 피해경험과 관련한 감정, 인식 및 표현 |
| 6회 | 6/25 | 라다, 가영, 은희 | 6명 | 4회,5회에 이어 1인의 안전하게 말하기를 진행 |
| 7회 | 7/4 | 라다, 가영, 은희 | 6명 | 권력분석 |
| 8회 | 7/9 | 라다, 가영, 은희 | 6명 | 정서표현하기 |
| 9회 | 7/16 | 라다, 가영, 은희 | 5명 | 변화와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권력 찾기 |
| 10회 | 7/23 | 라다, 가영, 은희 | 5명 | 집단상담 목표와 현재의 나, 평가 |
| 사후상담 | 8/14 | 라다 | 6명 | 1명이 6회기부터 출석하지 않아 종결까지 함께 하지 못함. 6명이 종결하였고 추수상담 1회기씩 진행함. 참가자중 추가 상담이 필요한 1인에게 3회기의 상담을 추가 지원함. |

• 평가:

- 웹자보 준비가 늦어지고, 기본교육 일정과의 중복 등으로 모집 기간을 짧게 잡고 진행했다가 모집이 되지 않아 모집 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함
- 사전 사후 개별상담을 진행하여 집단상담 전 참여자들의 욕구파악과 친밀감 형성 등으로 집단상담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집단원의 공통과제를 찾아서 효율적인 진행을 할 수 있었음
- 생존자이기도 한 코리더가 참여하여 집단상담 사전준비와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고 생존자의 역량강화와 연대에도 도움이 됨

3-2. 월요법률상담

- 배경/필요성: 최근 무고와 역고소, 명예훼손 등 피해자들의 법적대응을 움츠러들게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음. 피해자들이 사건해결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법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상담소에서도 법률 자문을 위한 변호사들과의 유대감 확장 및 연대의 필요성이 절실함
- 목표: 월요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생존자들에게 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체계적인 법적지원을 제공함
- 방법 및 계획
 - 2월: 홈페이지 홍보 및 지원자 확인.
 - 신규 변호사의 경우 기존 변호사와 매칭하여 실습 후 진행
 - 3월~11월: 월2회 1회당 2건의 상담 진행(18회)
- 진행내용

| 회기 | 일정 | 변호사/배석활동가 | 진행 건수 |
|----|--------|-----------|-------|
| 1 | 3월 11일 | 신수경/ 조은희 | 2건 진행 |

| | | | |
|----|---------|-----------------------|--------|
| 2 | 3월 25일 | 안지희/ 유량 | 2건 진행 |
| 3 | 4월 8일 | 원민경 | 신청자 없음 |
| 4 | 4월 29일 | 지여서/ 란 (배우미 배석) | 1건진행 |
| 5 | 5월 13일 | 천정환 | 신청자 없음 |
| 6 | 5월 27일 | 최여진/ 유량 | 2건 진행 |
| 7 | 6월 10일 | 서정문/ 조은희 | 2건 진행 |
| 8 | 6월 24일 | 권정 /최란 (여진아 배석) | 2건 진행 |
| 9 | 7월 3일 | 천정아/상담팀(로스쿨 실무수습생 참관) | 1건 진행 |
| 10 | 7월 8일 | 원민경 / 유량 | 2건 진행 |
| 11 | 7월 22일 | 안지희/ 유량 | 2건 진행 |
| 12 | 8월 12일 | 권정/ 란 | 2건 진행 |
| 13 | 8월 26일 | 배우미/ 조은희 | 3건 진행 |
| 14 | 9월 9일 | 김연수(태평양)/ 유량 | 2건 진행 |
| 15 | 9월 23일 | 천정환/ 유량 | 1건 진행 |
| 16 | 10월 15일 | 이소정/ 조은희 | 2건 진행 |
| 17 | 10월 28일 | 여진아/ 유량 | 2건 진행 |
| 18 | 11월 11일 | 윤정노/ 유량 | 2건 진행 |
| 19 | 11월 25일 | 김수현/ 조은희 | 신청자 없음 |

• 평가:

- 상반기 변호사들의 일정 변경이 많은 관계로 진행 시 유동성이 많았으나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음
- 신규 월법 진행 변호사를 위한 사전 배석을 유도하여 2회 배석 진행하였고 시간상 배석이 어려웠던 변호사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월법 진행과 변호사의 윤리 등을 나눔
- 로스쿨 실무수습생들도 월법상담에 배석하여 진행 과정을 볼 수 있었고 담당변호사와 미팅하는 시간으로 활용함

3-3. 자문위원회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들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상담팀 활동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 자문위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배가할 수 있음. 피해지원자로서 법률, 의료, 심리적인 자문뿐 아니라 상담소의 나아갈 방향도 함께 도모함
- 목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며 자문위원들의 상담소에 대한 연대를 활성화함
- 방법 및 계획
 - 4월에 진행
 - 자문위원 위촉 기간에 맞추어 재위촉
 - 공식적인 자리 및 친목 도모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대를 활성화함
- 진행내용
 - 일시 : 2019.04.30. 19시
 - 장소 : 상담소 1층
 - 참석 : 조중신, 최지나, 김두나, 천정환, 이미경, 김혜정, 유호정, 최란, 조은희

- 4/12 자문회의 안내 메일 발송
- 일주일 전 개별 자문회의 재확인 전화 및 문자 발송
- 평가
- 당일 불참위원 3명, 다음날 휴일의 문제 등 적극적인 참석이 되지 않는 부분, 앞으로 최대한 참여 가능한 날로 조정필요
-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자문위원들(의료자문위원 등)의 재위촉 고려 필요함
- 자문위원의 적절한 활용으로 자문위원회 활성화 필요함
- 이전 활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함께하여 좋았음
- 상담소 행사에 자문위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 있었음

3-4. 로스쿨 실무수습

- 사무국 진행

3-5. 상담원 소모임

- 배경 및 필요성: 전화상담원 제도가 중단되면서 상담원들과의 친목도모와 연대를 지속할 수 있는 통로이자 후원자로서 상담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상담소 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상담소 활동의 지지자 및 후원자로 함께 연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방법 및 계획
- 3월 진행
- 1년간 정기적으로 진행
- 가벼운 모임으로 참여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진행내용
- 2월 20일 상담원 소모임 안내 문자발송
- 2월 25일 12시 이안젤라홀

| 일시 | 내용 | 참여자 |
|--------|--|----------------------------------|
| 2월 25일 | *다큐멘터리“임브레이스(Embrace”, 2016, 86분) (감독) 타린 브럼핏을 함께 보고 나의 몸의 진정한 소유자이자 동반자가 아닌 타인에게 보여지는 몸에 관한 이야기와 여성인권 대한 생각들을 나눔 모임의 회기와 일정 확정함. (분기별1회로 년4회 진행 4/4분기는 한해보내기로 대체) | 미소, 김혜경, 행복, 로라, 지리산, 유랑, 란, 조은희 |
| 5월 27일 | *여성영화 “거룩한 분노” 코믹하면서도 여성의참정권을 찾아가는 영화. 유럽 국가임에도 71년에야 참정권을 쟁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람과 함께 우리나라는 어떻게 참정권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었음. | 미소, 김혜경, 닉스, 지리산, 유랑, 란, 조은희 |
| 9월 30일 | *여성영화 “틀리” 육아 노동으로 소진된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 | 미소, 닉스, 김혜경. 은희. 유랑. 지리산 |

- 평가
-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참여자들은 만족하는 시간이었음
-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성영화 상영으로 여성인권 운동에 대한 역량강화의 기회가 되었음
- 상담원 선생님들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게 하는 동기를 제시해주지 못해서 참여 인원이 적고 제한적이었음

목표4. 평등한 공간, 조직, 사회와 좋은 삶 만들어가기

4-1. 재충전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조직에서는 상담 및 사건지원으로 개별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도록 1년차, 3년차에 재충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하고 있음
- 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활동 지원을 위해 1년차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담팀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 예방을 진행함
- 목표 :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지원
- 방법 및 계획
- 1년 차 활동에 해당하는 2인의 활동가가 상하반기 나누어 재충전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
- : 방법, 시기 등은 개별 활동가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되, 상근자 회의를 통해 사전 공유
- 진행내용:
- 5월: 판도 (감정의 리더) 10회기 교육프로그램 신청
- 5월~7월: 10회기 진행

| | |
|-------|--|
| 일정 | 5/16~8/1(10강) |
| 주요 내용 | 1강_감정을 지닌 서투른 존재의 아름다움 2강_리더, 현실과 이상 3강_Special Healing Program for Leaders 1 : 부정적 감정 씻어 내리기 4강_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감 : 타인을 해치는 감정의 특성 5강_감추어진 내 안의 RISK : 모욕감, 수치심 그리고 격노 6강_Special Healing Program for Leaders : 조직내의 소통온도 높이기 7강_남의 것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내 것을 지키는 방법 : 나와 타인의 감정 사이에 존재하는 '무엇' 8강_Responsibility : 수용, 인정 그리고 존중 9강_Special Healing Program for Leaders 3 : 우리의 자존감 강화하기 10강_Graduation Party |

- 평가
- 일정상 초반 3회기에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웠음
- 이른 아침 8시30분에 진행되어 재충전의 의미가 다소 떨어짐
-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음
- 자신이 현실에서 보여주는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차리고 수용하여 존중하는 방법을 깨닫고 자신의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 2인이 계획되었으나 여건상 1명만 진행되어 소진예방에 아쉬움이 있음

2019년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29년 동안 총 85,225회의 상담을 해왔다. 2019년 전체상담은 1,419회(1,028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294회(912건)으로 전체상담건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88.7%이다.

1. 연도별 상담현황

〈표 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건(%)〉

| 연도 | 상담회수 | 상담건수(A) | 성폭력상담건수(B) | 성폭력상담비율(B/A) |
|---------|--------|---------|------------|--------------|
| 1991.92 | 2,834 | 2,028 | 1,349 | 66.5 |
| 1993 | 1,765 | 1,182 | 841 | 71.1 |
| 1994 | 2,553 | 1,723 | 1,356 | 78.7 |
| 1995 | 2,050 | 1,238 | 1,021 | 82.5 |
| 1996 | 3,459 | 2,138 | 1,779 | 83.2 |
| 1997 | 3,424 | 2,295 | 1,647 | 71.8 |
| 1998 | 4,285 | 2,948 | 2,085 | 70.7 |
| 1999 | 5,397 | 3,692 | 2,564 | 69.4 |
| 2000 | 4,164 | 2,873 | 2,309 | 80.4 |
| 2001 | 4,995 | 3,593 | 2,869 | 79.8 |
| 2002 | 4,877 | 3,533 | 2,961 | 83.8 |
| 2003 | 4,871 | 3,135 | 2,839 | 90.6 |
| 2004 | 3,870 | 2,505 | 2,362 | 94.3 |
| 2005 | 3,979 | 2,348 | 2,151 | 91.6 |
| 2006 | 4,246 | 2,468 | 2,317 | 93.8 |
| 2007 | 3,330 | 2,101 | 1,948 | 92.7 |
| 2008 | 2,237 | 1,548 | 1,430 | 92.4 |
| 2009 | 2,305 | 1,481 | 1,338 | 90.3 |
| 2010 | 2,227 | 1,474 | 1,312 | 89.0 |
| 2011 | 1,764 | 1,238 | 1,151 | 92.9 |
| 2012 | 2,390 | 1,437 | 1,321 | 91.9 |
| 2013 | 2,253 | 1,531 | 1,418 | 92.6 |
| 2014 | 2,185 | 1,602 | 1,450 | 90.5 |
| 2015 | 2,064 | 1,422 | 1,308 | 91.9 |
| 2016 | 2,224 | 1,501 | 1,353 | 90.1 |
| 2017 | 2,118 | 1,414 | 1,260 | 89.1 |
| 2018 | 1,940 | 1,359 | 1,189 | 87.5 |
| 2019 | 1,419 | 1,028 | 912 | 88.7 |
| 총 | 85,225 | 56,835 | 47,840 | 84.2 |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2.1%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8%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912건 중 840건(92.1%)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640건(70.2%)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피해는 2018년 6.5%에서 2019년 62건(6.8%)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 연령대 성별 | 고령 | 성인 (20세 이상) | 청소년 (19세-14세) | 어린이 (13세-8세) | 유아 (7세 이하) | 미상 | 총계 |
|-----------|------------|----------------|------------------|-----------------|---------------|-------------|----------------|
| 여 | 5 (0.5) | 640 (70.2) | 90 (9.9) | 56 (6.1) | 22 (2.4) | 27 (3) | 840 (92.1) |
| 남 | 0 (0.0) | 46 (5.0) | 11 (1.2) | 5 (0.5) | 0 (0.0) | 0 (0.0) | 62 (6.8) |
| 미상 | 0 (0.0) | 5 (0.5) | 1 (0.1) | 1 (0.1) | 0 (0.0) | 3 (0.3) | 10 (1.1) |
| 총계 | 5 (0.5) | 691 (75.8) | 102 (11.2) | 62 (6.8) | 22 (2.4) | 30 (3.3) | 912 (100.0) |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1.6%가 남성, 이중 성인은 76.5%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912건 중 835건(91.6%)을 차지하였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698건(76.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 연령대 성별 | 고령 | 성인 (20세 이상) | 청소년 (19세-14세) | 어린이 (13세-8세) | 유아 (7세 이하) | 미상 | 총계 |
|-----------|-------------|----------------|------------------|-----------------|---------------|-------------|----------------|
| 여 | 0 (0.0) | 40 (4.4) | 1 (0.1) | 2 (0.2) | 0 (0.0) | 0 (0.0) | 43 (4.7) |
| 남 | 19 (2.1) | 698 (76.5) | 58 (6.4) | 16 (1.8) | 0 (0.0) | 44 (4.8) | 835 (91.6) |
| 미상 | 0 (0.0) | 12 (1.3) | 1 (0.1) | 1 (0.1) | 0 (0.0) | 20 (2.2) | 34 (3.7) |
| 총계 | 19 (2.1) | 750 (82.2) | 60 (6.6) | 19 (2.1) | 0 (0.0) | 64 (7.0) | 912 (100.0) |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전체 상담 중 61.6%가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36.3%가 대리인이 상담 의뢰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912건 중 562건으로 전

체의 61.6%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331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다. 대리인 상담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이웃·친구가 뒤를 이었다.

2015년 전만 해도 본인이 직접 상담한 비율이 매해 50% 초중반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조금씩 커져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하였고, 올해도 60%대의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이 스스로 상담소를 찾아 성폭력을 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증가했음을 뜻한다. 이는 성폭력 생존자가 스스로 성폭력을 고발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미투(#Me_Too)운동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단위: 건(%)〉

| 전체상담 건수 | 본인 | 대리인 331(36.3) | | | | | | | | | | 본인/ 대리인 (함께 상담) | 미상 |
|----------------|---------------|----------------|-------------|---------------|-------------|---------------|----------------|---------------|--------------|------------|-------------|--------------------------|------------|
| | | 가족 · 친인척 | 데이트 상대 | 이웃 · 친구 | 직장 | 학교 · 학원 | 사회 복지 기관 | 기관 · 단체 | 공공 및 유관기관 | 시민사 회단체 | 기타 | | |
| 912 (100.0) | 562 (61.6) | 155 (17.0) | 27 (3.0) | 45 (4.9) | 28 (3.1) | 26 (2.9) | 2 (0.2) | 3 (0.3) | 16 (1.8) | 8 (0.9) | 21 (2.3) | 10 (1.1) | 9 (1.0) |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피해가 340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284건(31.1%), 성희롱 130건(14.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전년도와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고령(65세 이상), 성인(20세 이상),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19세~14세), 유아(7세 이하)일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가 강제추행보다 약간 더 많았다.

〈표 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 피해유형 | | 피 해 자 연 령 | | | | | | 계 | |
|---------------------|----------------|------------|---------------|-------------|-------------|-------------|------------|---------------|---------------|
| | | 고령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미상 | | |
| 강간 및 강간 미수 | 특수강간 | - | 7 (0.8) | 2 (0.2) | - | - | - | 9 (1.0) | 284 (31.1) |
| | 강간 (유사강간포함) | 1 (0.1) | 124 (13.6) | 37 (4.1) | 18 (2.0) | 12 (1.3) | 7 (0.8) | 199 (21.8) | |
| | 준강간 | - | 52 (5.7) | - | - | - | 1 (0.1) | 53 (5.8) | |
| | 강간미수 | - | 19 (2.1) | 3 (0.3) | - | - | 1 (0.1) | 23 (2.5) | |
| 강제 추행 | 강제추행 | 2 (0.2) | 251 (27.5) | 37 (4.1) | 26 (2.9) | 9 (1.0) | 5 (0.5) | 330 (36.2) | 350 (38.4) |
| | 준강제 추행 | - | 17 (1.9) | 1 (0.1) | 2 (0.2) | - | - | 20 (2.2) | |
| 성희롱 | | 1 | 113 | 9 | 6 | - | 1 | 130 | |

| | | | | | | | |
|----------------------|------------|---------------|---------------|-------------|-------------|-------------|----------------|
| | (0.1) | (12.4) | (1.0) | (0.7) | | (0.1) | (14.3) |
| 통신매체이용음란 | - | 13 (1.4) | 4 (0.4) | - | - | - | 17 (1.9) |
| 카메라이용촬영 | 1 (0.1) | 35 (3.8) | 3 (0.3) | 1 (0.1) | - | 1 (0.1) | 41 (4.5) |
| 스토킹 | - | 29 (3.2) | 1 (0.1) | - | - | - | 30 (3.3) |
|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 - | 2 (0.2) | - | 1 (0.1) | - | - | 3 (0.3) |
| 미상 | - | 29 (3.2) | 5 (0.5) | 8 (0.9) | 1 (0.1) | 14 (1.5) | 57 (6.3) |
| 성폭력 계 | 5 (0.5) | 691 (75.8) | 102 (11.2) | 62 (6.8) | 22 (2.4) | 30 (3.3) | 912 (100.0) |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2.5%

〈표6. 가해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인 가해자가 752명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 현황〉

〈단위: 건(%)〉

| 피해유형 | | 가 해 자 연 령 | | | | | | 계 | |
|------------------|----------------|-------------|---------------|-------------|------------|----|-------------|---------------|---------------|
| | | 고령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미상 | | |
| 강간 및 강간 미수 | 특수강간 | - | 7 (0.8) | 1 (0.1) | - | - | 1 (0.1) | 9 (1.0) | 284 (31.1) |
| | 강간 (유사강간포함) | 2 (0.2) | 155 (17.0) | 21 (2.3) | 3 (0.3) | - | 18 (2.0) | 199 (21.8) | |
| | 준강간 | - | 47 (5.2) | 1 (0.1) | - | - | 5 (0.5) | 53 (5.8) | |
| | 강간미수 | 1 (0.1) | 21 (2.3) | - | - | - | 1 (0.1) | 23 (2.5) | |
| 강제 추행 | 강제추행 | 15 (1.6) | 272 (29.8) | 22 (2.4) | 9 (1.0) | - | 12 (1.3) | 330 (36.2) | 350 (38.4) |
| | 준강제 추행 | - | 17 (1.9) | 3 (0.3) | - | - | - | 20 (2.2) | |
| 성희롱 | | - | 116 (12.7) | 5 (0.5) | 5 (0.5) | - | 4 (0.4) | 130 (14.3)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 - | 14 (1.5) | 1 (0.1) | 1 (0.1) | - | 1 (0.1) | 17 (1.9) | |
| 카메라이용촬영 | | - | 33 (3.6) | 2 (0.2) | 1 (0.1) | - | 5 (0.5) | 41 (4.5) | |
| 스토킹 | | - | 30 (3.3) | - | - | - | - | 30 (3.3) | |
| 성적목적을 위한 | | - | 2 | - | - | - | 1 | 3 | |

| | | | | | | | |
|----------|-------------|---------------|-------------|-------------|---|-------------|----------------|
| 다중이용장소침입 | | (0.2) | | | | (0.1) | (0.3) |
| 미상 | 1 (0.1) | 38 (4.2) | 2 (0.2) | - | - | 16 (1.8) | 57 (6.3) |
| 성폭력 계 | 19 (2.1) | 752 (82.5) | 58 (6.4) | 19 (2.1) | - | 64 (7.0) | 912 (100.0) |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7.6%

〈표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99건(87.6%)으로 85%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73건(39.5%)으로 성인 피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에 의한 피해가 두 번째로 많았던 작년과 달리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80건(11.6%)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청소년은 학교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4건(23.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에 의한 피해가 15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28건(45.2%), 16건(7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 계 | 유형 | 아는 사람 799(87.6) | | | | | | | | | | | 모르는 사람 | 미상 | 총계 | |
|------------------|----|--------------------------|-------------|---------------|---------------|-------------|--------------|-------------|---------------|--------------|----------------|-------------|-------------|--------------|--------------|------------------|
| | | 친족, 친족외 인척 88(9.6) | | 직장 | 친밀한 관계 | 인터넷 | 동네 사람 | 서비스 제공자 | 학교 | 유치원 /학원 | 주변인 의 지인 | 동호회 | | | | 기타 |
| | | 친족 | 친족외 인척 | | | | | | | | | | | | | |
| 2016년 | | 118 (8.7) | 19 (1.4) | 368 (27.2) | 141 (10.4) | 43 (3.2) | 63 (4.7) | 78 (5.8) | 160 (11.8) | 35 (2.6) | 102 (7.5) | 11 (0.8) | 40 (3.0) | 101 (7.5) | 74 (5.5) | 1,353 (100.0) |
| 2017년 | | 121 (9.6) | 22 (1.7) | 375 (29.8) | 116 (9.2) | 40 (3.2) | 60 (4.8) | 66 (5.2) | 121 (9.6) | 40 (3.2) | 73 (5.8) | 19 (1.5) | 45 (3.6) | 103 (8.2) | 59 (4.7) | 1,260 (100.0) |
| 2018년 | | 64 (5.4) | 66 (5.6) | 353 (29.7) | 86 (7.2) | 41 (3.4) | 65 (5.5) | 60 (5.0) | 136 (11.4) | 39 (3.3) | 66 (5.6) | 13 (1.1) | 40 (3.4) | 73 (6.1) | 87 (97.3) | 1189 (100.0) |
| 2019년 | | 78 (8.6) | 10 (1.1) | 275 (30.2) | 94 (10.3) | 24 (2.6) | 92 (10.1) | 41 (4.5) | 87 (9.5) | 33 (3.6) | 28 (3.1) | 31 (3.4) | 6 (0.7) | 43 (4.7) | 70 (7.7) | 912 (100.0) |
| 고령 | | - | - | 2 (40) | - | - | 1 (20) | - | - | - | 1 (20) | - | 1 (20) | - | - | 5 (100) |
| 성인 (20세 이상) | | 12 (1.7) | 5 (0.7) | 273 (39.5) | 80 (11.6) | 16 (2.3) | 62 (9.0) | 37 (5.4) | 53 (7.7) | 17 (2.5) | 21 (3.0) | 29 (4.2) | 5 (0.7) | 36 (5.2) | 45 (6.5) | 691 (100.0) |
| 청소년 (19세~14세) | | 15 (14.7) | 3 (2.9) | - | 11 (10.8) | 5 (4.9) | 14 (13.7) | 3 (2.9) | 24 (23.5) | 11 (10.8) | 3 (2.9) | 1 (1.0) | - | 3 (2.9) | 9 (8.8) | 102 (100.0) |
| 어린이 (13세~8세) | | 28 (45.2) | 1 (1.6) | - | - | 2 (3.2) | 10 (16.1) | - | 10 (16.1) | 4 (6.5) | 2 (3.2) | - | - | 4 (6.5) | 1 (1.6) | 62 (100.0) |
| 유아 (7세 이하) | | 16 (72.7) | 1 (4.5) | - | - | - | 2 (9.1) | - | - | 1 (4.5) | 1 (4.5) | - | - | - | 1 (4.5) | 22 (100.0) |
| 미상 | | 7 (23.3) | - | - | 3 (10.0) | 1 (3.3) | 3 (10.0) | 1 (3.3) | - | - | - | 1 (3.3) | - | - | 14 (46.7) | 30 (100.0) |

8. 피해자 지원내용

〈표8. 피해자 지원내용〉은 본 상담소가 2019년 상담을 의뢰해온 피해자를 상담소가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중복표기 하였으며 심리·정서 지원이 5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법적 지원이 466건으로 많았다.

법적 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의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 및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로 이루어진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전화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며 기타는 피해자를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단체로 연계하거나 기타 치유프로그램 등의 참여를 권한 경우이다.

〈표 8. 피해자 지원내용(중복)〉

〈단위: 건(%)〉

| 전체지원수 | 법적지원 | 의료지원 | | 심리·정서 지원 | 쉼터연계 | 기타 |
|----------------|---------------|---------------|----------------|---------------|------------|-------------|
| | | 의료기관 연계·동행 | 의료비지원 관련 상담 | | | |
| 912 (100.0) | 466 (51.1) | 32 (3.5) | 29 (3.2) | 518 (56.8) | 3 (0.3) | 45 (4.9) |
| | | 61 (6.7) | | | | |

2019 성문화운동팀 활동 보고

| 활동목표 | | | |
|---|---|---|--|
|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장벽 밀기 |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 함께 높이기 | 더 많은 주체들과 연대하고 성장하기 | 평등한 공간, 조직, 사회 와 좋은 삶 만들어가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에서 지지로 (피해와 생계 사이 연속 집담회/연속 기고,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교육, 적극적 합의 캠페인 부스, 보통의 연대 릴레이 인터뷰, 보통의 연대 워크숍)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운동 - 반차별운동 - 성폭력생존자의 말하기와 #미투운동 -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텀블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연구 및 확산 - 여성주의 관점의 이슈 성명 및 논평 - 여성인권연대활동(일본 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3.8 세계여성의 날) - 다양한 연대활동 - 영화 <생존자의 자리> 배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 온라인 소통 - 이메일소식지 발행 - 회원소식지 나눔터 발간 - 회원 참여 프로그램 (KSVRC회원놀이터, 회원소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활동가 소통 및 연계 - 한해보내기 |
| 2019년 우리의 움직임 | | | |
|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 | 지속가능한 운동 만들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는 조직가가 되어 반성폭력운동의 지지층을 확대한다. - 상담소 활동 내용과 자료들을 잘 기록/정리하여 외화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킹)라(이프)벨(런스)을 맞추기 위해 정시퇴근과 휴가 잘 쓰기 캠페인으로 나 자신과 서로를 잘 돌본다. | |

총평

- ‘피해와생계사이’ 연속집담회, ‘생존자의 목소리’ 나눔터 게재 및 여성신문 연재, 다양한 집회 당사자 발언 연계 등을 통해 생존자들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창구를 넓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 생존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기여함
- 적극적 합의 명함, 보통의 연대 체크리스트, 단톡방 십계명, <피해와 생계 사이> 자료집, 보통의 연대 인터뷰 연재, 단톡방 불편냥, 보통의 연대 워크숍 워크시트,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자료집 등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고 예쁘고 재미있는 양질의 자료를 생산하여 대중과 공감대를 넓혀감
- 당초 기획에 비해 세부 사업이 추가되거나 사업 규모가 확장된 사업이 많았음 그 자체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남겼고 보람도 느꼈지만, 활동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계획되지 않은 예산 지출이 발생하는 문제점

이 있었고 이슈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짐. 이후에는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슈 대응 활동을 보완하도록 노력.

- 성폭력의 권력 구조를 세밀하게 밝히는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적극적 합의 개념을 알리는 캠페인 부스운영 및 홍보명함 4,000부 배포, 성폭력 주변인을 인터뷰하여 성폭력과 일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리는 ‘보통의 연대’ 등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 담론과 실천의 확장을 모색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등 연대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특히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운동은 올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냄

목표1.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장벽 밀기

1-1. 의심에서 지지로

- 배경/필요성
 - : 2018년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말하기로 성폭력을 고발하는 #METOO 운동이 활발하게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 대중 사이에서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고 개개인의 인식 차이가 크게 부딪치는 한해였다. 또한 성폭력 통념과 피해자다움에 근거한 백래시가 피해자의 목소리와 성폭력 문제해결을 가로막아, 이에 대응하는 한 해이기도 했다.
 - : 오늘날 대중은 언론·방송, SNS,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청원 등 다양한 경로로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법 또는 전문가의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목표 :
 -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과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 언어를 확산함으로써 해소한다.
 - 성폭력을 바라보는 대중 인식을 개선하여 피해자에게 향하는 의심의 방향을 가해자에게 되돌리고, 피해자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망을 형성한다.
- 담당 : 앎 / 신아
- 방법 및 계획 :
 - 당사자의 관점으로 성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권력 구조를 분석·비판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맥락을 대중적으로 알리며, 당사자 간 소통을 통한 지지·연대망을 형성하는 ‘피해와 생계 사이’ 연속집담회를 진행한다.
 - 연속집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속기고를 진행하여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언론 기사를 생산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 시민 대상으로 캠페인단을 모집·구성하고, 교육, 토론, 캠페인 기획 및 실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에 주체적 역할을 하는 성평등 촉진자로 역량강화한다.
 - 각종 행사 및 축제 부스, 게릴라 캠페인 등을 통해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성폭력 통념을 깨는 자료(소책자 <의심에서 지지로 Q&A> 등) 및 홍보물 배포, 서명운동, 참여 부스 등을 진행하고,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 성평등 촉진자로서 1년 간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 활동을 함께 해 온 캠페인단이 직접 본인들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활동 보고회를 진행한다.

• 진행내용

1)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 〈피해와 생계 사이〉 집담회 5회 진행 |
|---|
| <p>- 1회 <노동은 비정규, 성희롱은 정규?> 일시 : 2019년 5월 9일(목) 오후 7시~9시 30분 장소 : 오네긴하우스 사회 :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패널 : 김태임(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 활동가), 도명화(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 톨게이트 노동자), 진진(불꽃페미액션, 구직중), 차소영(출판노조 출판노동자) 참여 : 신청(52명) 참석(28명), 신청자 대비 53% 참석 내용: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형태가 만들어내는 일터 내 권력 관계와 성폭력 구조 알아보기</p> <p>- 2회 <지도받을 권리, 지배받지 않을 권리> 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오후 7시~9시 30분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사회 : 얍(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패널 : 김수희(극단 미인 대표), 문아영(동덕여대 H교수 성폭력사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양지혜(페미니스트 청소년 모임 위티 준비위원장), 함은주(문화연대 집행위원) 참여 : 신청(39명) 참석(23명), 신청자 대비 58% 참석 내용: 스포츠계, 극단, 학교 등 노동의 영역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위계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교육훈련과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p> <p>- 3회 <성폭력, 말할 수 있을까?> 일시 : 2019년 8월 8일(목) 오후 7시~9시 30분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사회 :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패널 : 리나(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차차(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최현진(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참여 : 신청(43명) 참석(28명), 신청자 대비 65% 참석 내용: 성매매 여성, 이주 여성, 트랜스젠더, 미투운동으로도 가시화되지 않는 소수자들의 성폭력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p> <p>- 4회 <성폭력과 싸우는 데 내가 들인 비용> 일시 : 2019년 9월 19일(목) 오후 7시~9시 30분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사회 :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패널 : 노유다 ('코끼리 가면' 작가, 움직씨 출판사 공동대표), 이나연 (영화감독), 판이 (타로 읽는 이,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참여 : 신청(40명) 참석(19명), 신청자 대비 47% 참석 내용: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로 인해 빼앗기거나 잃은 것부터, 사건을 해결하고 생존을 위해 들이는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노력을 '비용'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 모색하기</p> <p>- 5회 <성폭력 이후, 나의 일상 찾기>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후 7시~9시 30분</p> |

| <p>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p> <p>사회 : 감이(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p> <p>패널 : AIS(웹툰 '27-10' 작가), 가영(춤추는 치료사), 단단(시각예술가)</p> <p>참여 : 신청(46명) 참석(30명), 신청자 대비 65% 참석</p> <p>내용 : 중요한 것은 잘 살아가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과 회복에 대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나누며 연대와 힘 나누기</p> |
|--|
| 언론 기고 (여성주의저널 일다) (7건) |
| <p>- 1회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은 그냥 회복되지 않는다 부제: “피해와 생계 사이” 연속 집담회를 시작하며 발행일: 2019/04/26 / 작성: 김신아 링크: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8448</p> <p>- 2회 ‘생계 걱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해야죠’ 부제: <피해와 생계 사이>① “노동은 비정규, 성희롱은 정규?” 발행일: 2019/05/26 / 작성: 나랑 링크: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8472</p> <p>- 3회 ‘지도’를 받고 ‘지배’는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부제: <피해와 생계 사이>② 스포츠, 연극계, 교육 현장의 ‘미투’ 이후 발행일: 2019/07/10 / 작성: 나랑 링크: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8502</p> <p>- 4회 성폭력을 겪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부제: <피해와 생계 사이>③ 보호받기는커녕 비난받는 소수자들 발행일: 2019/08/26 / 작성: 나랑 링크: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8533</p> <p>- 5회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 부제: <피해와 생계 사이>④ 성폭력과 싸우는 데 내가 들인 비용 발행일: 2019/10/17 / 작성: 나랑 링크: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8572</p> <p>- 6회 ‘평생의 고통’도 ‘완전한 치유’도 없다 부제: <피해와 생계 사이>⑤ 성폭력 이후, 나의 일상 찾기 발행일: 2019/11/27 / 작성: 나랑 링크: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8572</p> |
| 자료집 제작 |
| 5회 속기록을 엮은 자료집 1월 중 제작 예정 |

2) 성평등 촉진자 교육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교육)

- 사전신청 20명

| 차 | 일시/장소 | 내용 | 참여자 |
|---|-------------------------|--|-----|
| 1 | 5/14(화) 19-22시 이안젤라홀 | 교육 - 3 KEYWORD로 자기소개 -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의지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소개 진행 : 앞(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워크숍 - 이지혜 게임으로 주변인 역할극 하기 | 9명 |
| 2 | 5/21(화) 19-22시 이안젤라홀 | 교육 - 3 KEYWORD로 자기소개 - 한국성폭력상담소 연대사업/공대위 등 활동 소개 진행 : 앞(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토론 -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중 “1장 성폭력 폭로 이후의 새로운 문제, 피해자화를 넘어(권김현영)” 읽고 토론하기 | 12명 |
| 3 | 5/28(화) 19-22시 이안젤라홀 | 강의 : 여성주의 상담 원리로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강사 : 란(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 10명 |
| 4 | 6/7(금) 19-22시 이안젤라홀 | 좋은 인터뷰, 잘 기록하기 강사 : 강유가람(다큐멘터리 감독) | 8명 |

3) 대중캠페인

| ‘적극적 합의!’ 캠페인 부스 | |
|---|--|
| <p>1. 서울핑크닷 <귀여하게, 적극적 합의!> 일시 : 2019년 5월 31일(금) 17시-22시 장소 : 서울시청광장 서울핑크닷 내용 :</p> <p>1) <나의 적극적 합의 점수는 몇 점?> - 상호적 성적 행위를 할 때 나의 합의 방법을 포스트잇에 적기 - 나의 합의 방법이 몇 점(0~5점)인지 점수판에 붙이기 - 다른 참여자의 합의 방법을 읽어보고 점수 옮기기</p> <p>2) <귀여하게, 적극적 합의!> 홍보 명함 배포</p>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귀여하게, 적극적 합의!</p> <p>/ 명시적으로 노출 있는 옷차림? 우리 집에 왔으니까? No 말 또는 행동으로 명확하게!</p> <p>/ 의식이 있을 때 술, 약물에 취해 있거나 잠들었을 때? No 성적 행위를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p> <p>/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그루밍? 교묘하게 속여서? No 성적 행위의 성격을 이해하고!</p> <p>/ 평등하게 위력때문에? 그 밖에 어쩔 수 없이? No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p> <p>/ 모든 과정에서 항상 예전에 했던 사람이니까 오늘도? No</p> </div> | |

아까 합의했어도 중간에 멈추면 중단!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or.kr 문자후원 #2540-1991 후원 여성가족부

3) 적극적 합의 오답노트

적극적 합의

- 명시적으로
- 의식이 있을 때
-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 평등하게
- 모든 과정에서 항상

모든 성적 주체와 법·제도, 학교, 직장, 가정, 미디어, 언론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알고, 확인하고, 실천해야 할 상호적 성적 행위의 기준

적극적 합의 오답노트

| | | |
|----|-----------------------------|-----|
| 1 | 저항하지 않았다 | 스티커 |
| 2 | 노출 있는 옷차림이었다 | 스티커 |
| 3 | 술에 취했다 | 스티커 |
| 4 |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잤다 | 스티커 |
| 5 | 몰래 흥분제를 먹었다 | 스티커 |
| 6 | 그루밍(길들이기)을 했다 | 스티커 |
| 7 | 거부하면 보복할까 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 스티커 |
| 8 | 서로 평등하게 합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 스티커 |
| 9 | 예전에도 상대와 성적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스티커 |
| 10 | 당연히 상대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묻지 않았다 | 스티커 |

4)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활동 소개

5). 스티커, 팸플릿 등 배포

6) 안희정 성폭력 사건/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서명운동

2.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마켓 <페미답게, 적극적 합의!>

일시 : 2019년 8월 31일(토) 16시-21시

장소 : 문화비축기지 TO 문화마당

내용 :

- 1) <나의 적극적 합의 점수는 몇 점?> (내용 <귀여하게, 적극적 합의!>와 동일)
- 2) <페미답게, 적극적 합의!> 홍보 명함 배포 (내용 <귀여하게, 적극적 합의!>와 동일)
- 3) <영화 속 그녀들, 물려서지 않았던 장면>
 - 영화 속 여성 캐릭터가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거나, 맞서거나, 협상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장면을 포스트잇에 영화 제목과 함께 소개하기
- 4)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활동 소개
- 5). 스티커, 팸플릿 등 배포

3. 열림터 포럼 <보호의 심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및 후원의 밤 <우리들의 집을 찾아서> 의심에서 지지로 사업 홍보 부스

일시 : 2019년 10월 30일(수) 12시-22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B1 LG컨벤션홀

내용 :

1) <보통의, 적극적 합의!>, <의심에서 지지로, 적극적 합의!> 홍보 명함 배포(내용 <귀여하게, 적극적 합의!>와 동일)

2) ‘보통의 연대’ 릴레이 인터뷰 홍보

3) 보통의 연대 WORKSHOP <나와 성폭력 사이의 거리는 몇 M일까?> 홍보

4) 의심에서 지지로 Q&A 텀블벅 홍보

성폭력 주변인 릴레이 인터뷰 ‘보통의 연대’

1)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운영

활동 기간 : 2019년 5월~11월

활동 내용 : 성폭력 주변인 인터뷰, 인터뷰 자료 녹취 및 편집, 캠페인단 회의(총9회)

참여자 : 총 13명(사전신청 20명)

인터뷰 진행 : 10명(상근활동가 1명 포함)

권은서, 김민지, 김엘라별이, 문주희(외자), 박부영, 서다희, 전소울(울빵), 정은희, 황소영(이한)

캠페인단 회의 등 참여 : 2명 김수희, 김용선(이레네)

자료 녹취 및 영상 편집 : 1명 이정민(짚레)

2) 보통의 연대 인터뷰 연재(2019.12.1. 기준)

연재 기간 : 2019년 7월 31일~현재(주1회, 매주 목요일)

연재 방법 : 텍스트(17회)/영상(4명)

인터뷰 참여자 : 37명(17명분 연재, 1명 동의 철회)

활동보고회

보통의 연대 WORKSHOP <나와 성폭력 사이의 거리는 몇 M일까?>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오후 7시~9시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사회 : 울빵(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진행 순서:

| 진행순서 | 시간 | 내용 | 진행자/참여자 |
|------|--------|------------------|---------------|
| 1 | 7시 | 인사 | 울빵 |
| 2 | 7시 5분 | 활동 소개 및 보고 | 앓 |
| 3 | 7시 20분 |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코너 | 울빵/엘라, 외자 |
| 4 | 7시 35분 | 인터뷰 참여자 코너 | 울빵/태운, 지윤 |
| 5 | 7시 50분 | 쉬는 시간 | |
| 6 | 8시 | 조별 워크숍 |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
| 7 | 8시 50분 | 마무리 | 울빵 |
| 8 | 9시 | 행사 종료 후 뒤풀이 | |

참여 : 43명

- 참여자 19명(사전신청 29명, 현장접수 3명)
-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9명
- 상근활동가 3명

• 평가

1) 총평

-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장벽 밀기',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 함께 높이기', '더 많은 주체와 연대하고 성장하기', '평등한 공간, 조직, 사회와 좋은 삶 만들어가기'라는 활동목표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을 진행함. 특히 성폭력 생존자와 성폭력 주변인의 경험을 생생한 '말하기'를 통해 알렸고,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생계/생존', '적극적 합의', '성폭력 주변인' 등에 관한 담론을 만들어감
- 적은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세부 사업을 진행함.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지원기금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려 사업의 가짓수와 규모는 늘어남. 이로 인해 담당자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예상치 못한 예산 집행이 발생했음. 앞으로는 예산과 일정,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함

2)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전반적인 내용>

- 성폭력 생존자의 '생계'와 '생존'의 문제에 포커스를 새롭게 맞추었고, 다양한 권력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패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음. 4, 5회차의 경우 패널 한 분이 '중간말하기'라고 표현할 만큼 성폭력 생존자의 삶을 말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마련됨. 오픈된 행사이면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와는 다른 '성폭력 말하기'의 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됨
- 매 회 토론시간이 불충분 했음에도 해당 주제 및 패널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열띠게 참여하고 지지함
- 집담회 내용과 관점이 충분히 담긴 기사가 행사와 유기적으로 발행되어 내용을 널리 확산할 수 있었음

<준비 및 진행 과정>

- 다과(채식 가능), 공간(책상 배치, 필기 노트북 가능) 등에서 참가자 만족도 높임
- 1회차에서 공간의 다양성을 모색했으며(오네긴 하우스), 예산절감을 하여 문자통역을 보강하기로 하면서 2회차부터 이안젤라홀에서 진행함. 휠체어 접근, 문자통역을 통한 청각장애인 접근을 확보
- 여성가족부의 사전 기사자료 검토 지침에 대한 문제의식을 양평원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나 회신이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 판단으로 사전검토 없이 언론 기고 계획을 이행함
- 사전모임 1회를 잘 준비하여 당일 행사도 충분한 내용을 담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됨
- 한달에 한 회 개최되는 일정이었으나, 세부기획, 주제선정, 패널 섭외, 홍보, 행사 진행까지 어려움이 많아 5회 중 3회를 미루면서 변경함(그러나 목표한 월에 진행함). 사전에 세부적인 기획과 섭외를 완료해두지 않는 이상 집담회 진행 주기를 더 여유있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3) 성평등촉진자교육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교육)

-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장벽 밀기'라는 사업목적에 맞춰 캠페인을 기획하되, 성평등촉진자교육(캠페인단 교육)은 그와 더불어 '더 많은 주제들과 연대하고 성장하기'라는 목적하에 기획, 진행됨. 더 많은 사람과 반성폭력 운동가로 역량강화하기 위해 캠페인단을 구성하고 한 달간 교육을 진행함
- 캠페인단의 활동 목표 및 활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홍보하여 관심도가 높은 참여자들이 신청하였고, 캠페인 기획에 맞춰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캠페인 진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됨
-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워크숍, 토론, 실습 등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 나눴고 다양한 상황을 체험해보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됨.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성폭력 주변인이 왜 중요한지 직접 느껴보고, 본 캠페인의 필요성과 실무적인 방법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음.
- 신청자 대비 참여자 수가 다소 적었으나, 참여자들은 굉장히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참여율이 낮은 것은 무료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발생하는 현상으로, 참여율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원을 모집하거나 유료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도 있음

4) 대중캠페인('적극적 합의!' 캠페인 부스, 보통의 연대)

- 오프라인 캠페인 부스에서는 <적극적 합의 응답노트>, <나의 적극적 합의 점수는 몇점?>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 합의 개념을 알리고, 당일 상세한 후기 공유 등을 통해 더 많은 대중과 공유함. 참여자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았고, 참여자들이 자기 자신의 '합의' 방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됨
- '적극적 합의' 개념을 설명하는 'oooo, 적극적 합의!' 홍보 명함을 총 4개 시리즈로 제작하여 약 4,000매를 배포함. 오프라인 캠페인 부스, 연속 집담회 및 워크숍, 기타 행사 등에서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 교육 강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여 확산. '적극적 합의' 홍보 명함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문의가 있어 교육용으로 재편집한 추가 시리즈 제작·배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 주변인을 인터뷰하는 <보통의 연대>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이 성폭력과 관련하여 일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영향을 받는지 알림.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형태로 성폭력과 연결되고, 각자 다른 고민

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에 연대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를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의 열정적인 참여로 총 37명을 인터뷰하였고, 성문화운동팀 자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상담소 홈페이지에 인터뷰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음. <보통의 연대>는 2020년 상반기에도 계속 연재될 예정임. 성폭력 주변인에 관한 담론을 만드는 중요하고 유익한 자료이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대중에게 더 많이 알리고 노출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5) 활동보고회 (보통의 연대 워크숍)

-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활동을 마무리하고 ‘성폭력 주변인’ 개념과 ‘보통의 연대’ 캠페인을 다시 한번 알림. 특히 2부에서는 보드게임 형식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친숙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칸에서 제시하는 키워드를 통해 일상생활과 성폭력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깨닫고 스스로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사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더 많은 주체와 연대하고 성장하기’라는 목적에 맞게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이 직접 워크숍을 기획 및 진행하였고, 단순 보고회 형식이 아닌 워크숍 형식을 통해 참여자들도 성폭력 주변인에 관한 담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보드게임 형식으로 워크시트를 제작하여 성폭력 주변인에 관한 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해당 워크시트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 추가 배포 방법을 논의중임

1-2.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운동

- 배경/필요성 :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0년 <임신 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연대체 활동, 2012년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6년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 공동주최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지속 되어 왔다. 2017년에는 연대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폐지를 전면적으로 주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 2018년에는 낙태죄 폐지 및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3만명을 넘었고,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성단체 뿐 아니라 노동, 장애, 성소수자, 청소년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 목표 :
 -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을 폐지 또는 전면 개정하고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와 사회문화를 만들어나간다.
 -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여성의 경험과 다양한 사회 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형법 269조 “낙태의 죄”를 폐지하는데 대중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 담당 : 앵
- 방법 및 계획 :
 - 연대활동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 여성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동행동 테이블을 통해 임신중단 관련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응전략 논의 및 생산
- 진행내용 :

1)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주요 사업 | 활동 내용 |
|-------|-------|
|-------|-------|

| | |
|---|--|
| 회의 | 집행위원회 회의(1/18, 2/12, 3/4, 3/14, 4/4, 4/15, 5/10, 6/26, 7/11, 9/6, 10/23) 전체회의(2/19, 3/19, 4/24, 12/17) |
| 헌법재판소 선고 대응 내부 워크숍 | 일시 : 2019년 1월 31일 오후 2시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 :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16개 단체) |
|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 일시 : 2018년 11월 29일~2019년 4월 10일 주중 12-13시(총133일) 장소 : 헌법재판소 앞 방법 :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신청하면 2인 1조로 국영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진행(4월 2주차는 참여 인원 제한 없이 참가 신청받아서 진행함) 참여자 : 약 130명 |
| 111주년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해시태그 운동 | 해시태그 : #낙태죄폐지 일시 : 2019년 3월 7일~2019년 3월 8일 |
| 111주년 3.8 세계여성의날 헌법재판소 앞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 제목 :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1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div> 사회 및 경과보고 이유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성과재생산포럼) 발언 나영 (공동집행위원장, 성과재생산포럼) 노새 (공동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문설희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시민발언1 이예은 (경희대 페미니즘학회 ‘여행’) 시민발언2 남성아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기자회견문 낭독 향후 계획 발언 이유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성과재생산포럼) </div> |
| 집회 <카운트-다운: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 제목: <카운트-다운: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일시: 2019.3.30.(토) 오후3시30분~6시 장소: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주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이상 23개 단체 주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23개 단체) 및 (사)여성사회교육원, (사)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고려대학교 중앙 페미니즘 학회 ‘여정’,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한의사회, 문화연대,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믿는페미,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건의료학생 매듭, 서울대 경영대 여성주의 학회 ‘여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건강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인권운동더하기, 인천대학교 젠더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 ‘젠장’, 제주여민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행동하는이화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42개 단체) 총 65개 단체 공동주최 참여자: 1,500명(주최 측 추산) 사회자: 이유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성과재생산포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드레스코드: 검정/레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d>시간</td><td colspan="2">프로그램</td></tr><tr><td>3:00~3:30 (30분)</td><td>사전부스 &사전영상</td><td>부스: 피켓배포, 모금함 낙태죄 삭제퍼포먼스, 활동사진 슬라이드 등 사전영상 상영</td></tr><tr><td rowspan="7">3:30~4:30 (1시간)</td><td>오프닝영상</td><td>[영상] 낙태죄 폐지 운동 영상</td></tr><tr><td>개회선언</td><td>사회자인사 : 개회선언, 자유발언/ 안내, 모금함안내</td></tr><tr><td>발언 I (4~5인)</td><td>〈낙태죄 폐지 후, 우리가 바라는 세계〉 -수진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F:ACT) -권혜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집회참가자 자유발언</td></tr><tr><td>영상</td><td>국제연대영상 - Women Helps Women - 아르헨티나 노총(CTA-A) - 국제 엠네스티 각국 지부</td></tr><tr><td>발언 II (3~4인)</td><td>〈낙태죄 폐지 후, 우리가 바라는 세계〉 -포괄적 성교육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김민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집회참가자 자유발언</td></tr><tr><td>퍼포먼스</td><td>피켓 파도타기 퍼포먼스</td></tr><tr><td>영상</td><td>[영상] 영상 '이제 한국 차례!'</td></tr><tr><td>4:30~5:30 (1시간)</td><td>행진</td><td>[행진(3km)] : U턴지점(종로경찰서) 앞 간단한 퍼포먼스</td></tr><tr><td rowspan="2">5:30~6:00 (30분)</td><td>마무리집회</td><td>선언문 낭독</td></tr><tr><td colspan="2">폐회선언</td></tr></table> | | | 시간 | 프로그램 | | 3:00~3:30 (30분) | 사전부스 &사전영상 | 부스: 피켓배포, 모금함 낙태죄 삭제퍼포먼스, 활동사진 슬라이드 등 사전영상 상영 | 3:30~4:30 (1시간) | 오프닝영상 | [영상] 낙태죄 폐지 운동 영상 | 개회선언 | 사회자인사 : 개회선언, 자유발언/ 안내, 모금함안내 | 발언 I (4~5인) | 〈낙태죄 폐지 후, 우리가 바라는 세계〉 -수진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F:ACT) -권혜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집회참가자 자유발언 | 영상 | 국제연대영상 - Women Helps Women - 아르헨티나 노총(CTA-A) - 국제 엠네스티 각국 지부 | 발언 II (3~4인) | 〈낙태죄 폐지 후, 우리가 바라는 세계〉 -포괄적 성교육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김민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집회참가자 자유발언 | 퍼포먼스 | 피켓 파도타기 퍼포먼스 | 영상 | [영상] 영상 '이제 한국 차례!' | 4:30~5:30 (1시간) | 행진 | [행진(3km)] : U턴지점(종로경찰서) 앞 간단한 퍼포먼스 | 5:30~6:00 (30분) | 마무리집회 | 선언문 낭독 | 폐회선언 | |
| 시간 |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30 (30분) | 사전부스 &사전영상 | 부스: 피켓배포, 모금함 낙태죄 삭제퍼포먼스, 활동사진 슬라이드 등 사전영상 상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0~4:30 (1시간) | 오프닝영상 | [영상] 낙태죄 폐지 운동 영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회선언 | 사회자인사 : 개회선언, 자유발언/ 안내, 모금함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언 I (4~5인) | 〈낙태죄 폐지 후, 우리가 바라는 세계〉 -수진 (전남대학교 페미니스트 모임 F:ACT) -권혜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사서분과장)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집회참가자 자유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상 | 국제연대영상 - Women Helps Women - 아르헨티나 노총(CTA-A) - 국제 엠네스티 각국 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언 II (3~4인) | 〈낙태죄 폐지 후, 우리가 바라는 세계〉 -포괄적 성교육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김민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집회참가자 자유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퍼포먼스 | 피켓 파도타기 퍼포먼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상 | [영상] 영상 '이제 한국 차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0~5:30 (1시간) | 행진 | [행진(3km)] : U턴지점(종로경찰서) 앞 간단한 퍼포먼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0~6:00 (30분) | 마무리집회 | 선언문 낭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회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주요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전면 비범죄화②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 접근성 확대③ 유산유도제 도입을 통한 여성건강권 보장④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⑤ 낙인과 차별 없는 재생산권 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소셜펀치 모금 〈낙태죄 폐지 카운트다운〉 일시: 2019년 3월 6일~2019년 5월 6일 참여자: 82명</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공동주최 단위 평가회의 일시: 2019년 3월 30일 오후 3시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낙태죄 위헌결정 촉구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4월 11일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 | 내용 |
| | 9:00-9:40 | 청년학생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험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청년학생 기자회견> |
| | 9:40-10:20 | 종교계 기자회견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두를 위한 재생산권 보장하라! 아멘!> |
| | 10:20-11:00 | 청소년 기자회견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청소년 인권단체 기자회견> |
| | 11:00-11:40 | 성과재생산포럼 기자회견 |
| | 11:40-12:20 | 교수연구자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험이다!> |
| | 12:20-13:00 | 장애계 기자회견 <장애인의 생명, 장애인의 성적 권리,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낙태죄 폐지! 지금 당장!> |
| | 13:00-13:40 | 진보정당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험이다!> |
| | 13:40-14:20 | 의료계 기자회견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
| | | |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당일 입장발표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험이다!”> | <p>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 위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이종석의 합헌의견이 있다.</p> <p>제목 : “낙태죄는 위험이다!” 일시 : 2019년 4월 11일(목)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장소 : 헌법재판소 앞</p> <div> - 사회 : 이유림(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성과재생산포럼) - 발언 :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사회진보연대) 제이(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한국여성민우회)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성과재생산포럼) 김수정(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위헌소원 변호인단) </div> | |
|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영 집회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 <p>제목 :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일시 : 2019년 4월 11일(목) 오후 7시 장소 : 헌법재판소 인근(안국역 5번 출구 서울노인복지회관 앞) 주관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참여자 1,000명(주최 측 추산)</p> | |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모두를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 <p>제목 :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일시 :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2시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사회 : 앞(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한국성폭력상담소) 진행 순서 :</p> <div> <p>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에 관한 세부 입장과 향후계획 발표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과재생산포럼)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제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p> <p>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류민희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 대리인단,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p> <p>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의 보건의료 정책적 과제와 방향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산부인과전문인)</p> </div> | |

| | |
|--|--|
| | 질의응답 |
| 공개토론회 〈낙태죄 폐지, 2라운드〉 | <p>제목 : 낙태죄 폐지, 2라운드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오후 2시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사회 :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사회진보연대) 진행 순서 :</p> <div> <p>발제_ 낙태죄 폐지 이후,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라! 나영(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토론1_ 안전한 임신중지, 어떻게 할 것인가? 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토론2_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확대가 노동권에 끼치는 영향 김수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국장) 토론3_ 권리로 접근하는 포괄적 성교육 이현숙((사)탁틴내일 상임대표) 토론4_ 낙태죄가 폐지된 세상, 장애여성의 권리 배복주(장애여성공감 대표) 토론5_ 재생산 권리와 법적 과제 류민희(변호사) 플로어토론</p> </div> <p>참여자 : 약 70명</p> |
| 연대체 내부 상담 단위 비공개 간담회 | <p>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참여자 : 앓,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별, 혜진(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노새, 제이(한국여성민우회), 문예린(한국여성의전화), 유림(성과재생산포럼)</p> |
|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손피켓 인증샷 캠페인 | <p>손피켓 내용 : ○○○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ex. 보건복지부는, 전면 비범죄화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시태그 : #MyAbortionMyHealth 일시 : 2019년 9월 23일~2019년 9월 27일</p> |
|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p>제목 :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 오전 11시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사회 : 앓(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한국성폭력상담소) 진행 순서 :</p> <div> <p>사회 및 경과보고 앓(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발언 문설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진보연대) 노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한국여성민우회) 김성이 (보건의료연구원, 시민건강연구소)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p> </div> |
| 보건의료계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 <p>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저녁 7시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참여자 : 16명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회 : 나영, 문예린, 문설희, 노새, 제이, 앓 -산부인과 전문의 : 고경심, 전종관(서울대학병원), 윤정원, 최예훈,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최규진(인권위원회)</p> |

| | |
|------------|--|
| | -간호사 : 심현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이동근 -시민건강연구소 : 김성이, 서상희 |
| 성명/논평/입장 등 | [입장]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2/14) [보도자료배포] UN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한국 헌법재판소 낙태에 관한 형법의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발송(3/28) [보도자료배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 의사단체 Global Doctors for Choice 헌법재판소에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인공임신중절을 감소를 위해서라도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한다는 내용의 서한 제출.(4/2) [보도자료배포]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보건의료인’ 1,143명의 연명서 헌법재판소에 제출.(4/9) [성명]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4/16) [논평]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대검찰청의 임신 기간 12주 이내 임신중지 여성 기소유예 처분 처리기준에 대한 입장> (6/25) [질의서] <안전한 임신중지 및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경과 및 계획에 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질의서> (9/6) [성명]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9/27) [논평]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10/7) |

2) 한국여성단체연합 낙태죄 폐지 전략회의

- 2/28 1차 낙태죄 폐지 전략회의
- 3/25 2차 낙태죄 폐지 전략회의

3) 강의/토론/발제

- 5/16 정의당 토론회 패널 <낙태죄 위헌 결정의 의미와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처벌/허용’ 프레임에서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체계를 마련하라”
- 5/21 수원여성회 강의 <모두를 위한 성과 재생산 권리>
- 6/11 구로여성회 강의 <모두를 위한 성과 재생산 권리>

4) 국제교류협력

- 11/03~11/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영국(맨싱) 및 아일랜드 정부, 민간단체 및 관련 연구자 면담 및 임신중단 관련 법제도 현지 사례 조사> 자문 및 동행
- 평가
 -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장벽 밀기’라는 목표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저해하는 ‘낙태죄’라는 장벽을 폐지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함.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목표에 맞게 담당자가 직접 연대활동의 의미와 현행 이슈, 향후 쟁점 등을 알리는 후기를 정기적으로 작성·게시함.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재정을 담당함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연대체 활동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전략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대중 집회, 열린 토론회 등을 통해 대중과 호흡하며 헌법재판소 및 국회, 정부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연대체 내부 상담 단위 비공개 간담회, 보건의료계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담론을 만들어가고 각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2019년 4월 11일(목)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음. 이는 형법 제정 66년, 2012

합헌 결정 이후 7년만에 여성인권운동이 이뤄낸 성과임. 현재 결정에 따르면 임신중지는 여성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낙태죄’ 형사처벌은 실효성이 없음. 2020.12.31.까지 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법 269조 1항과 형법 270조 1항 중 의사 부분은 효력을 잃으므로 입법 개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만, 세부적인 쟁점을 살펴보면 각계각층의 이견이 존재하고, 대다수 대중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오해하고 있어 입법 개정 운동에 참여하는 동력이 기존보다 저조할 수 있어, 향후 대중적으로 입법 개정 관련 개입하고 공감대 형성해갈지 과제임

- 2019.04.15.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표 발의안을 시작으로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으나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주수 제한, 사유 제한, 의료인의 신념에 의한 거부, 상담의무 및 숙려기간제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보수 기독교와 혐오세력이 정당 토론회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제대로 된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기도 함.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 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여론 형성이 필요하며, 본격적인 입법 개정 논의는 2020년 총선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도 성·재생산권 운동에 적극 연대하여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캠페인 기간에는 활동가 전원이 손피켓 인종상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11월에는 담당 활동가가 국제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영국, 맨섬, 아일랜드에 현지 사례 조사를 다녀옴
- 헌법재판소 선고 대응을 앞두고 업무가 과중되어 고유사업과 연대사업을 병행해야 하는 담당자로서는 부담과 피로감이 컸으나,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투쟁한 경험과 1여 년간 헌법재판소 대응을 지속하고 얻어낸 승리의 경험은 활동가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됨

1-3. 반차별운동

- 배경/필요성
- : 2018년 사회 각계 성폭력, 채용 성차별, 충남인권조례 폐지(4개월 후 재제정), 후퇴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성소수자 영역 삭제, 지방선거 혐오 대응, 보수 기독교 세력의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인 혐오 선동, 제주 난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혐오, 가짜뉴스, 공영방송의 성소수자 차별 방송 등, 한국사회에 만연한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확인되었음.
- : 2018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차별금지법은 인권 기본법이자 이미 많은 국가에서 갖추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 되고 있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반차별 운동의 확산과, 차별금지법안의 실질적 입법 추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하여 활동해왔다.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이 비현실적인 법안이거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안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과 연관되고 차별에 대한 토론과 감수성을 확장하고 차별과 폭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활동이 함께해야함.
-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차별 당사자로서 의식화된 여성들이 어떠한 국면에서는 다른 소수자/약자를 차별하고 혐오의 논리로 여성인권과 페미니즘을 이야기 하였다. 젠더이분법적이고 생물학적인 성별규범에 저항하는 여성운동단체로서, 소수자 그룹의 경험이 단일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억압의 사유가 성별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반차별운동의 문제의식을 더 많은 주체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 1)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과 삶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촉진한다.
- 2) 한국사회의 지형을 살피며 반차별운동의 주장과 실천을 강화하고 현실에 개입한다.
- 3)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의원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제정 추진 의지를 조직한다.
- 4)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 담당 : 신아

• 방법 및 계획 :

- 연대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략조직팀에서 활동, 집행위 참여

• 진행내용 :

| 팀 | 팀별 주요 사업 | 세부 내용 |
|-----------|-------------------------------|--|
| 전략 조직팀 | 간담회 ‘똑똑똑 우리 지금 만나!!’ | 미조직 단위 위주로 진행 (3월~9월, 총 17회) <div> 3/1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27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3/27 인천 차제연 준비모임 4/18 정의당 4/19 충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4/22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4/24 인천 차제연 준비모임 4/27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4/2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 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4/29 한국레즈비언상담소 4/30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5/2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 5/3 서울대 로스쿨 인권법학회 5/23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5/25 아름다운재단 청소년배분위원 5/28 인천 차제연 준비모임 8/1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div> |
| | 온오프라인 캠페인 ‘차별잇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활동가 그룹 ‘빠띠’와 협력하여 온라인 플랫폼 제작 (https://sooda.govcraft.org/), - 차별 경험을 나누는 워크숍 톨킷(매뉴얼, 작업지, 스티커) 제작 - 워크숍 이کم이 파견 진행 - 워크숍 진행 가이드 영상 제작 및 배포 - 12/6 차별잇수다 보고 대회 진행 - 아래 단체에서 차별잇수다 워크숍 진행 (32회 이상) <div> 04/23 장애여성공감 05/02 한국성폭력상담소 05/0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잇수다 이کم이 워크숍 05/09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 05/28 인천 차제연 준비모임 세미나 06/01 서울퀴어문화축제 시민 참여 부스 06/08 경기수원지역반차별연대체 06/10 대구경북차제연 집행위 06/12 맑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회차 06/12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06/19 한부모 연합 06/21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06/29 대구퀴어문화축제 시민 참여 부스 07/19 한국레즈비언상담소 07/2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대회 07/25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7/31 오픈 차별잇수다 - 가족편 오픈 차별잇수다 08/01 이화여대 변태소녀하늘을 날다 08/08 한국자립센터생활협의회 08/10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div> |

| | | |
|-----------|----------|--|
| | | <p>08/16 한국여성민우회 08/22 맑은장애인자리생활센터 3회차 08/27 광주협오문화대응네트워크 09/06 장애여성공감 활동보조인 대상 09/23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심터 생활인 대상 09/24 서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워크숍 10/10 차별금지법제정 충북 연대 10/26 무지개행동 활동가 대회 11/06 오픈 차별잇수다 - 일터 괴롭힘편 11/11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워크숍 11/22 유니브페미 간담회 및 차별잇수다 12/04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워크숍</p> |
| 정책 담론팀 | 논평 활동 | <p>2/23 인종차별적인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철회하라 2/28 차별할 권리를 요구하는 대학은 필요없다 - 숭실대학교는 성소수자 차별을 중단하라 3/8 2019년 3.8. 세계여성의날 환영 성명 4/11 언론은 '에이즈 공포'선동을 멈춰라 4/12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4/20 4월20일,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5/1 2019년 세계 노동절 환영 성명 5/10 첫 번째 한부모 가족의 날을 축하하며 5/11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불허 이제 그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5/15 혐오세력의 손을 들어 준 경남도의회 규탄한다! 5/20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자멸한국당'임을 고백하라 5/24 대만, 동성결혼제헌제도 시행 1일차 6/19 황교안은 차별조장대행진 중단하라 6/20 세계 난민의 날 6/28 경현울 익산시장은 자신의 차별적 발언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뉘우쳐라 8/1360일, 지정생존자 13회에 부쳐 9/7 조국 후보가 이루려는 정의는 과연 모두를 위한 정의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단계론으로 회피하지 마라 9/18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10/22 "혐오에 지지 않을 우리에게" 11/12 "김문수 혐오발언 방지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11/13 "혼인평등,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국가인권위는 평등을 앞당길 책무를 다하라" 11/14 '성적지향' 삭제? 지워야 할 것은 국회에 만연한 혐오다 11/22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아무리 발의해도 대세는 평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재발의에 부쳐-</p> |
| | 자료집 발간 | 10월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대항 가이드북 <집회에서 만나요> 발간 |
| | 총선대응 | <p>4/15 총선 D-365 기자회견 7/17 오후 2시, 선거시기 혐오대응 방안모색 토론회</p> |
| | 월간평등업 발행 | <p>3월호 : 여성 (제목: 성평등한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 5월호 : 가족 (제목: 차별받는 가족, 차별로서의 가족) 7월호 : 재난 (제목: 사고를 재난으로 만드는 차별에 맞서)</p> |

| | | |
|-----------|-----------------|---|
| | | 9월호 : 괴롭힘 (제목: 괴롭힘을 만드는 차별의 구조에 맞서) 11월호: 양성평등 (제목: '양성평등'과 이별하자) |
| 입법 추진팀 | 20대 국회 입법 추진 | 1/10 발의 방향 상반기 전체회의 논의 "철회되지 않을 발의 조직" 4/18 정의당 정책위 미팅 5/8 집행위 논의 "차별금지사유 후퇴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사항은 정의당과 협의하며 20대 발의 추진해간다" 5/27 집행위 결정사항 정의당에 의견 공문 발송 5/28 정의당 정책위 미팅 6/24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미팅 7~8월 금태섭, 이철희, 박주민, 제윤경 의원 미팅 8/12 민중당 간담회 진행 9월초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2차 미팅 |
| 미디어팀 | 미디어 활동 | 차제연 활동 동영상 기록 촬영 평등행진 홍보 영상물 기획 제작 |
| TF 활동 | 평등행진 | - 평등행진 및 평등주간 선포 서울지역 기자회견 일시: 9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광장 남단 - 캠페인 대항적 말하기 구호 공모전, 나에게 평등은 ____ 인증샷 -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일시: 10월 19일 오후 2시 오후 2시, 사전대회 <우리가 말한다> (사회_오매) @파이낸스센터 앞 오후 3시, <평등행진> @종로->청와대 오후 5시, 마무리 집회 <우리는 원한다> @청와대 사랑채 앞 - 캠페인 #정당은응답하라 : 8개 정당 대표에게 질의서 보내고 이에 대한 응답 촉구하는 온라인 페이지 개설 : 각 정당 앞에서 응답 및 행동 촉구 행사 진행 10/17 더불어민주당 앞 10/24 민주평화당 앞 10/31 자유한국당 앞 |
| | 평등정책 | 평등정책 토론회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일시: 10월 23일 오후 2-5시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 공동 | 서울퀴어문화 축제 참여 | 5/30 서울퀴어문화축제 핑크닷 점등식 발언 (신아 참여) 5/31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퀴어퍼레이드 차량 행진 진행 |
| | 이슈대응 |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대응 연명조식 : 각 정당에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의 21대 총선 공천 배제 요구 1인시위 : 11/19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진행 기자회견 : 11/20 국회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 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

• 평가

- 상담소는 올 해 전략조직팀에서 활동하며 차별이수사와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여러 지역들의 현장 단체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반차별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림. 전략조직팀 활동뿐만 아니라, 서울 핑크닷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당자 신아 발언, 평등행진 사전대회에서 오매 사회 등으로 결합함
- 차제연 활동 대비, 제도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한 해였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소극성이 기사화된 바 있으며 정의당 법안 발의는 상반기 4월부터 논의가 되었으나 21

대 국회로 이월됨

- 차제연 회의 및 팀 구조가 세분화, 분업화되어 있다 보니 일상적인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전략조직팀 사업 이외의 다른 팀이나 차제연 전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전체회의나 집행위 회의를 통해 파악함

1-4. 성폭력생존자의 말하기와 #미투운동

- 배경/필요성 : 성폭력과 성차별 문화에 저항하며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는 #미투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성평등한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지망으로서의 시민대중의 폭을 넓혀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다진다.
- 목표 : 반성폭력운동으로서 #미투운동의 의미를 분석하고 확산시킨다.
- 담당 : 감이
- 방법 및 계획 :
 - 연대활동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 #미투 관련 법안의 재·개정과정 모니터링
 - : #미투 이후 생존자들의 법정투쟁에 연대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홍보
 - 진행내용 : 사무국 평가 참고
 - 평가
- 담당 활동가의 휴직으로 사무국 김혜정 부소장이 진행함

1-5. (신규)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텀블벅(사무국 협업)

- 배경/필요성 : 2018년 <의심에서 지지로, 함께 하는 성문화운동>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2019년 3월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를 더 많은 개인 또는 기관에 알리고 배포하고자 온라인 모금 사업을 진행한다.
- 목표 :
 - 1) 텀블벅 펀딩을 통해 자료집을 제작·배포할 예산을 마련하고, 대중에게 홍보한다.
 - 2) 한국성폭력상담소 마스코트를 활용한 텀블벅 리워드를 통해 상담소에 대한 역동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고 소속감을 높인다
- 담당 : 앞(성문화운동팀) / 뒷(사무국)
- 방법 및 계획 :
- 진행내용 :

|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자료집 발간 | |
|---|--|
| 제목 :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 |
| 부제 : 성폭력 통념에 대한 10문 10답, 성폭력 해결을 위한 10문 10답 | |
| 발행일 : 2019년 3월 31일 | |
| 글쓴이 : 김보화, 김신아, 김혜정, 노선이, 박아름, 유호정, 이미경, 전혜영, 정정희, 조은희, 최란(11명) | |
| 편집 : 박아름 | |
| 후원 : 한국여성재단, 365mc | |
| 지원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 목차 : | |
| - 들어가며_의심에서 지지로,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 |
| Q. 이런 것도 성폭력인가요? | |

Q. 성폭력, 판단 기준이 뭔가요?

- 1부. 성폭력 통념에 대한 10문 10답_왜 지지해야 할까요?

Q1. 모텔에 같이 들어갔으면 합의한 것 아닌가요?

Q2. 싫다고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Q3. 사실이라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Q4.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던데요?

Q5. 다른 목적으로 성폭력 공론화를 악용하는 것 아닌가요?

Q6. 증거도 없는데 한쪽 말만 듣고 믿었다가 무고면 어떡해요?

Q7. 성폭력과 무고를 예방하기 위해 '펜스룰'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Q8. 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있나요?

Q9. 동성 간에도 성폭력이 있을 수 있나요?

Q10.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 아닌가요?

- 2부. 성폭력 해결을 위한 10문 10답_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요?

Q1. 내 지인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내 지인이 가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우리 조직에 성폭력 관련 문제제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4. 성폭력 문제제기를 한 피해자와 지지자를 소문, 비난, 불이익 조치 등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5. 사법부가 성평등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6.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7. 성폭력 사건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Q8.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면 2차 가해인가요?

Q9.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10. 성폭력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통념과 해결을 묻는, <의심에서 지지로 Q&A> 텀블벅

사무국 평가 참고

• 평가

<자료집 발간>

-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자료집은 미투 운동 이후 사람들이 성폭력에 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2개를 선정하여 상담소 활동가들이 직접 답변한 내용으로 구성함. 모든 팀 및 부설기관에서 필진으로 참여하였으며, 가능한 한 어렵지 않게 내용을 전달하고 대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함
- 크게 성폭력 통념에 대한 10문 10답과 성폭력 해결을 위한 10문 10답으로 층위를 나누어, 1부에서는 흔한 성폭력 통념에 반박하고, 2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방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까지, 성폭력과 마주한 개인이 품게 되는 고민과 행동 방향, 실천 등을 폭넓게 다루었음

<텀블벅>

- 사무국 평가 참고(3-6. 온라인 모금 및 홍보)

목표 2. 성평등 / 반성폭력 감수성 함께 높이기

2-1.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연구 및 확산

• 배경/필요성 : 호신술이 아닌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2006년에 상담소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자기방어훈련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었다. 그동안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이 많은 단체들에 보급되었고 역량 있는 강사들이 등장하여 각자의 토대를 닦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방어훈련을 소개하는 서적을 발간하고 자기방어훈련 강사들의 네트워크를 다질 필요가 있다.

• 목표 :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대중화하기 위해 대중서를 출간하고 홍보한다.
- 자기방어훈련 강사들과 세미나를 진행하여 네트워크와 교육의 토대를 다진다.

• 담당 : 감이

• 방법 및 계획 :

- (1월 중) 자기방어훈련 강사들과 함께 세미나 진행
- (3월 내) 초고 완성 및 원고 수정 완료 후 상반기 내 출간
- 자기방어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북콘서트 개최

• 진행내용 :

1) 세미나 진행

- 3회 진행 (1/11, 18, 25)
- 참가자: 고재경, 임미화 (여성태권도문화원), 신율(상담소 회원, 자기방어훈련 기획자), 류운/김기태(ASAP 호신술), 데조로(전 살림의료사협 운동센터 다짐, 자기방어훈련강사), 감이, 앞, 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오매(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
- 세미나 텍스트 <Women's Self-defense & Safety: an Empowerment and Resiliency Model> 초벌 번역 :어정선 자원활동가

2) 단행본 제작

- 자기방어훈련 미완료 원고 합평 모임(2/25)
- 갈매나무 측에 초고 입고(9/2)
- 갈매나무와 사무국, 담당자 최종 미팅(9/18) 계약 해지 결정 및 계약금 반환 합의
- 필진 2인의 집필비 환급과 갈매나무 계약금 반환 완료(9월 중)
- 집필진(활동가 3인, 외부필자 2인, 일러스트레이터 1인)과 진행상황 공유(10/4)
- 최종파일 정리(11/4)

• 평가

- 활동가가 국제교류협력 활동이 상담소의 활동 자원으로, 한국의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네트워킹으로 이어졌음. 세 차례의 세미나 동안 국내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기본서의 필요성,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지도자간의 네트워킹의 필요성, 지도자들의 상담소에 대한 기대 등이 확인되는 자리였음
- 2017년 년진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하여 총 5명의 필자와 1명의 일러스트레이터가 참여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단행본은 당시 갈매나무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함. 필진들의 원고가 지연되어 원고 독촉이나 원고를 위한 휴가 사용 등을 해왔으나 미투운동 이후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원고 집필을 집중적으로 하기 어렵게 됨. 결국, 단행본 출간을 취소하게 되었고 북콘서트 등 사업도 미진행됨.
- 당초 기획은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의 취지와 의미를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마인드 세팅, 일러스트와 함께 하는 기본기 강의 배치였음. 그러나 그동안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이 대중화되었고, 그 의미와 방향에 대한 언어가 많이 알려져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였음
- 향후 상근활동가가 집필진이 되는 단행본 출판의 경우에는 세심한 기획과 단단한 집행, 대안 마련 등이 반드시 필요함

2-2. 여성주의 관점의 이슈 성명 및 논평

- 배경/필요성 : 성폭력은 성별규범과 가부장적 성문화, 권력관계가 사회구조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구조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 근절을 위해서는 성폭력 행위나 성폭력 사건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가 성평등하게 변화해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변화는 성폭력만 제거된 사회가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조건이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성폭력 현장단체로서의 경험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알림으로써 여성인권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더 나은 수준의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 목표 : 시시각각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여성주의 시각을 기반으로 한 상담소의 입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한국사회의 성문화를 성평등하게 바꾼다.
- 담당: 신아
- 방법 및 계획 :
 - <단호한 시선>
 - : 매 월 1회 이상 sns,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한다.
 - : 법제도, 사건 등 성문화와 관련되어 새롭게나 다시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슈들을 다룬다.
 - : 논평 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비평, 사진/그림/인터넷 텍스트 활용 등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상담소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연대성명 및 논평
 - : 여/성/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성명과 논평 등에 연대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카이빙하고 알린다.
 - 진행내용 :
 - 단호한 시선 7회, 그 외 논평 및 입장 활동 3회

| 월 | 구분 | 제목 | 작성 | 참여 | |
|----|-------|---|-----------|------|---|
| 1월 | 단호한시선 | 체육계 미투, 성평등을 훈련하라 (1/17) | 신아 | 페이스북 | 도달 2,093 참여 184 공유 16 좋아요 76 |
| | | | | 트위터 | 공유 14 |
| | | | | 홈페이지 | 조회 320 |
| | 단호한시선 | 그건 강간입니다 (1/31) | 신아 | 페이스북 | 도달 25,398 참여 1,129 공유 70 좋아요 298 |
| | | | | 트위터 | 공유 181 저장 39 |
| | | | | 홈페이지 | 조회 764 |
| 2월 | 미발행 | | | | |
| 3월 | 단호한시선 | 버닝썬 게이트, 지금 짚어야 할 다섯 가지 (3/22) | 신아, 닷별 | 페이스북 | 도달 14, 688 참여 2,861 공유 142 좋아요 332 |
| | | | | 트위터 | 공유 26 |
| | | | | 홈페이지 | 조회 357 |
| | 입장 | 만화가 윤서인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결과 및 지원자측의 입장을 알림 (3/29) | 신아 | 페이스북 | 도달 6,552 참여 1,438 공유 38 좋아요 182 |

| | | | | | |
|-----|-------|---|-------------|------|--|
| | | | | 트위터 | 공유 1700 저장 260 |
| | | | | 홈페이지 | 조회 751 |
| 4월 | 단호한시선 | [카드뉴스] 상담소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자들에 의한 집단 사이버성폭력 사건' A to Z(4/24) | 신 아 , 달별 | 페이스북 | 도달 13,458 참여 3,128 공유 77 좋아요 225 |
| | | | | 트위터 | 공유 13 |
| | | | | 홈페이지 | 조회 502 |
| 5월 | 미발행 | | | | |
| 6월 | 공지 | 상담소는 왜 쿼어문화축제와 함께 하나요? (6/1) | 얏 | 페이스북 | 도달 2,307 참여 283 공유 4 좋아요 132 |
| | | | | 트위터 | 저장 2 |
| | | | | 홈페이지 | - |
| | 공지 | 이희호 선생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6/11) | 오매 | 페이스북 | 도달 2,347 참여 312 공유 7 좋아요 160 |
| | | | | 트위터 | - |
| | | | | 홈페이지 | 조회 76 |
| 7월 | 단호한시선 | 소라넷, 몰수·추징 안 한다고? : 산업화된 성폭력, 범죄수익 몰수·추징 없이 해결 가능한가? | 얏 | 페이스북 | 도달 4,382 참여 418 공유 27 좋아요 151 |
| | | | | 트위터 | 공유 17 저장 5 |
| | | | | 홈페이지 | 조회 557 |
| 8월 | 단호한시선 | 페이스북, 성차별 플랫폼에서 성평등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할 때 | 신아 | 페이스북 | 도달 3,572 참여 316 공유 17 좋아요 79 |
| | | | | 트위터 | - |
| | | | | 홈페이지 | 조회 344 |
| 9월 | 미발행 | | | | |
| 10월 | 단호한시선 | [추모논평] 그녀는 우리다 - 고 최진리님을 추모하며 | 신아 | 페이스북 | 도달 18,094 참여 3,658 공유 120 좋아요 546 댓글 51개 |
| | | | | 트위터 | 공유 87 저장 64 |
| | | | | 홈페이지 | 조회 196 |
| 11월 | 미발행 | | | | |
| 12월 | 미발행 | | | | |

※ (참여: 좋아요+공유+클릭) 1~6월 : 단호한시선 6/25 기준, 기타 6/27 기준 작성

7~10월 : 12월 2일 기준

• 평가:

- 애초의 방향은 성명서 형식보다는 짧더라도 즉각적인 이슈대응에 초점을 맞추며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임. 상반기에는 논평 활동이 목표한 바대로 진행되었고 사안에 대한 상담소의 해석과 설명을 덧붙이다 보면 내용이 길어지긴 하였으나 사무국 홍보담당자 달별과 협업하여 이미지적으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었음. 반면 하반기에는 논평 대응해야 할 여러 판결과 이슈가 많았으나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단호한

시선 논평 활동 자체에 공백이 생김.

- 향후 담당자가 반드시 이슈 선정부터 논평 작성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판결과 이슈에 대해 상담소 내부 자체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논의를 촉발하고 그것이 논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고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다른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논평 작성 활동을 통해 상담소 자체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2-3. 여성인권연대활동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배경/필요성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27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으며 2015한일합의를 내세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운동의 결과 한일합의의 상징인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끌어가고 있으며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
- 목표 : 제국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여성폭력의 역사이자 끝나지 않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기 수요시위를 연 1회 주관함으로써, #미투운동을 비롯한 성폭력 사건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연결점을 찾아 알리고, 피해생존자의 말하기에 연대하여 변화를 만들어 낸다.
- 진행내용 :

| 구분 | 진행 | | | | | | | | | | | |
|--------------------------------------|--|--|---------------|------------------------------------|---------|-----------------|------------------|---------|--------------------------------------|-------------------|----------|----------------|
| 기획 | 1/11 1차 기획회의 (신아, 소망, 리아) 1/23 사전답사(소망, 리아, 여경) 1/28 웹 홍보물 게시 및 이00 할머니 조의 표현 1/30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장 조문 2/12 순서지 및 성명서 확정 2/12 퍼포먼스 준비물 제작 및 바위처럼 리허설 (신아, 소망, 앞, 주리, 유랑, 리아, 여경) | | | | | | | | | | | |
| 1374차 수요시위 | 제 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일시: 2019년 2월 14일(수) 12~13시 사회: 소망(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 <table><tr><td>· 여는 노래: 바위처럼</td><td>상담소(신아, 앞, 유랑, 주리) 한사성(리아, 여경, 여파)</td></tr><tr><td>· 경과보고:</td><td>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td></tr><tr><td>· 참가단체 소개 및 자유발언</td><td>한사성(여파)</td></tr><tr><td>· 문화공연 <One Billion Rising in Korea></td><td>상담소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td></tr><tr><td>· 성명서 낭독</td><td>상담소 선민, 한사성 리아</td></tr></table> | | · 여는 노래: 바위처럼 | 상담소(신아, 앞, 유랑, 주리) 한사성(리아, 여경, 여파) | · 경과보고: |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 · 참가단체 소개 및 자유발언 | 한사성(여파) | · 문화공연 <One Billion Rising in Korea> | 상담소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 · 성명서 낭독 | 상담소 선민, 한사성 리아 |
| · 여는 노래: 바위처럼 | 상담소(신아, 앞, 유랑, 주리) 한사성(리아, 여경, 여파) | | | | | | | | | | | |
| · 경과보고: | 정의기억연대 한경희 사무총장 | | | | | | | | | | | |
| · 참가단체 소개 및 자유발언 | 한사성(여파) | | | | | | | | | | | |
| · 문화공연 <One Billion Rising in Korea> | 상담소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 | | | | | | | | | | |
| · 성명서 낭독 | 상담소 선민, 한사성 리아 | | | | | | | | | | | |

• 평가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공동 주관함.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피해자화'하는 관점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성폭력', '미투', '생존자의 말하기'와 같은 키워드를 통해 접근하였음
- 2018년의 맥락에서 '미투'를 키워드로 수요시위에 접근함. 또한 '미투' 키워드를 통해 성폭력을 문제로 환기한 이들을 대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못했으나 다음 수요시위 기획에서 보완하고자 함.
-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을 함께 높이는 운동으로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연대하였으며, 이를 성명서, 집회내용, 공연, 발언, 홍보에 녹임

- 상담소에서 기획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one billion rising 공연을 선보였고, 이런 기획을 따라 수요시위에 참가한 사람들도 있었음
- 인턴활동가가 기획부터 실무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열림터 생활인들도 수요시위에 참여하였고, 상담소 활동가들이 함께 <바위처럼> 공연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상담소 구성원들이 함께 함.
- 집회 당일 두 주관단체가 고루 역할을 나눔. 상담소가 사회를 맡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자유발언을 함. 자유발언에서 상담소 발언을 추가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2) 3.8 세계여성의 날 여성대회

• 배경/필요성 :

-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로 한국에서는 한국여성연합단체의 주관으로 1985년부터 한국여성대회를 진행하여 왔다. 올해는 미투운동 이후 첫 3.8여성대회이니만큼 여성운동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공동의 포맷(문화행사, 기획캠페인 등)을 정해서 광화문광장 및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기념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ONE BILLION RISING 캠페인은 2012년부터 전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글로벌 캠페인이다. UN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여성 3명 중에 1명이 살면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그 수가 10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캠페인은 10억 명의 생존자의 삶과 힘을 표현하고, 폭력에 패배하지 않는 연대를 축하하고자 매년 2월 14일 전후로 춤을 춘다. 2019년에는 <캠페인에서 삶의 방식으로>라는 구호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뿐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이데올로기 영역에 존재하는 구조적 폭력 등 모든 형태의 폭력에 맞서 싸우고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목표 :

- 여성단체로서 연대의식을 확인하며 여성인권운동의 가치를 확산한다.
- ONE BILLION RISING 캠페인의 취지 및 내용을 한국에 소개하고 홍보, 확산하고, 생존자의 힘을 춤으로 표현하는 캠페인을 통해 즐겁고 역동적인 여성인권운동의 장을 만들며, 국제 연대에 동참하여 한국의 여성인권운동을 세계에 알린다.

• 방법 및 계획 :

- 한국여성대회 기획실행위원회로 참여하여 제35회 한국여성대회 기념행사 기획하고 실행한다.
- ONE BILLION RISING 글로벌 캠페인의 일환으로 생존자의 삶과 힘을 춤으로 승화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플래시몹을 진행한다.
- 플래시몹을 영상 편집하고 영어 자막 및 설명 등과 함께 SNS, 유튜브 등에 게시하여 국제적으로 홍보한다

• 진행내용 :

| 구분 | 내용 |
|----------------------|---|
| 3.8 여성대회 | |
| 3.8 여성대회 기획실행위 | 기획실행위 회의(1/22, 2/11, 2/16, 2/21, 2/28) 전국 공동 퍼포먼스용 후렴구 안무 설명 영상 제작 및 배포(2/16) 평가(3/18) |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 제목 :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오후 5시-9시 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 주최 :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 기획실행위원회 1) 시민난장 부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활동 소개 - 적극적 합의(내용 '의심에서 지지로' 참조) - 적극적합의 오답노트(내용 '의심에서 지지로' 참조) - 스티커, 팸플릿 등 배포 - 안희정 성폭력 사건/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서명운동 <p>2) 전국공동퍼포먼스 리허설 및 연습 / 본 공연 / 앵콜 공연</p> <p>3) 기획실행위 행사 진행 보조 행진 4번 현수막 (#미투_가해자 엄정 처벌, #미투_피해자 일상 회복) 행진 확성기 및 질서유지인</p> |
|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 |
| 1월 | <p>1/18 OBR 영상 감독 미팅</p> <p>1/18 OBR 안무가 미팅</p> <p>1/28 홍보 시작</p> |
| 2월 | <p>2/9 춤추는 토요일 첫 번째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이안젤라홀, 한국성폭력상담소 1층 주차장</p> <p>2/13 제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p> <p>2/16 춤추는 토요일 두 번째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이안젤라홀,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공원</p> <p>2/21, 2/25, 2/26 전국 공동 퍼포먼스 연습</p> |
| 3월 | <p>3/4, 3/7 전국 공동 퍼포먼스 연습</p> <p>3/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전국 공동 퍼포먼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전국 공동 퍼포먼스</p> <p>- 서울·경기 / 광주·전남 / 경남 / 대구 / 전북</p> </div> <p>3/18 영상 감독 회의</p> <p>3/21 영상 편집안 확정</p> |
| 4~5월 | <p>4/30 OBR 영상 편집 초안 확인</p> <p>5/23 OBR 영상 최종안 확정</p> <p>5/24 OBR 영상 공개 및 배포</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러닝타임 5:50</p> <p>제작_ 한국성폭력상담소</p> <p>안무_ Monique Kathryn Claiborne</p> <p>출연_ [싸우는여자가춤춘다] 팀</p> <p>Eleina Mayra Monique 감이 고혜란 권묘정 권이은정 김미란 김수희 김옥아 김해정 마미 백 목련 보라 선민 성지수 스머프 신아 얌 오지은 유랑 은서 이규리 이해경 재정 정은서 젠타 젤 리 조효은 짬레 쿤 평화 호주리 (총33명)</p> <p>2019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전국 공동 퍼포먼스 (광주·전남, 경남, 대구, 전 북) 팀</p> <p>춤춘 곳_</p> <p>한국성폭력상담소, 문화비축기지, 월드컵 공원, 제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 수요시위, 2019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서울·경기, 광주·전남, 경남, 대구, 전북)</p> <p>음악_ BREAK THE CHAIN(억압을 깨고)</p> <p>영상_ 시도필름</p> <p>ONE BILLION RISING 2019 × 한국성폭력상담소</p> </div> |

• 평가

1) 총평

- 전반적으로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 함께 높이기’,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라는 목표를 적용함
- 기획 당시에는 상담소 단독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플래시몹을 예정하였으나, 3.8 기획실행위의 요청으로 한국여성대회 전국공동퍼포먼스로 진행하게 되어 당초 예상보다 사업 규모가 훨씬 방대해짐
- 자부담으로 진행해야 하여 예산이 부족했으나, 영상감독 개인장비 무상 대여, 안무가 재능후원으로 안무 창작 및 교육을 해주어 사업을 진행함

3) 3.8 한국여성대회 및 시민난장 부스 평가

- 3.8 한국여성대회에서 기획실행위, 시민난장 부스, 전국공동퍼포먼스팀으로 2019년 한국여성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활동가들이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진행된 다양한 행사들(모낙페 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3시 스톱 집회 등)에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었으나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역할을 맡아 과부하가 됨
- 시민난장 부스로 ‘적극적 합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한 참여형 부스를 진행함. 버닝썬 사태에 맞춰 2015년 ‘그건 강간입니다’ 캠페인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안희정 성폭력 사건 및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부스를 운영함. 이에 부스 준비 시간부터 참여자가 줄을 이었고,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음

4)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진행/과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자원활동가, 회원뿐 아니라 열림터 입·퇴소인,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및 자원활동가, 경기여성단체연합 회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함, 안무가 모니크, 아프리카댄스컴퍼니 따그 권이은정, 콜렉티브 댄글 성지수, 제타, 여성연합 자타공인 댄싱퀸 김미란, 경기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자 댄스 강사 그룹 등 전문성이 있고 흥과 끼가 넘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 및 페미니스트 연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멋진 퍼포먼스가 진행됨. 특히 권이은정의 열정적인 디렉팅으로 퍼포먼스의 완성도가 높아짐
- 처음에는 상근활동가들이 ‘춤을 춰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참여에 소극적이었으나, 2/13 수요시위 문화공연을 본 이후로 강한 흥미를 보이며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함.
- 영상 감독의 개인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비대여비를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기기대여점을 이용할 경우만 생각하여 책정하지 못함. 향후 개선이 필요함
- 예상보다 사업 규모가 방대해진 점, 음악에 맞춰 여러 영상을 교차 편집하고 국/영문 자막을 제공하는 등의 작업 규모로 인해 뮤직비디오 공개 및 배포가 늦어짐. 원래 뮤직비디오에 2018년 여성인권운동의 6가지 핵심 의제와 2018년 활동 영상을 수록할 예정이었으나, 퍼포먼스 방영분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넣지 않음
- 사전에 공개된 안무 영상(원본 및 거울모드)의 조회수가 2천 8백여 회에 달함. 이는 뮤직비디오가 늦게 공개되어 해외에서 주로 안무 영상으로 한국의 캠페인 소식을 접한 점, 퍼포먼스 참여자 등 안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복 재생한 점 등의 영향으로 보임

5)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평가

- 세계 각국에서 7년째 진행하고 있는 ONE BILLION RISING 캠페인에 연대하고, 한국의 반성폭력 운동을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하였음. 안무가 모니크, 자원활동가 마이라와 엘레나 등이 참여하여 국제연대 사업으로서도 활약했고, 홍보 및 영상에 국/영문 자막과 설명문을 붙여 해외에서도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한국에도 해외에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반성폭력 운동을 소개.
- ONE BILLION RISING 캠페인의 공식 D-DAY(2월 14일) 전날에 제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문화공연을 진행함. 전시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문화공연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한다는 캠페인 취지와도 잘 맞았으며, 해당 공연 사진이 ONE BILLION RISING 캠페인 공식 사후 포스터에 실렸음
- 3.8 한국여성대회에서 전국공동퍼포먼스로 공연 및 촬영이 진행되어 전국의 여성들과 함께 춤을 추었고, 기록 영상을 역동적으로 편집한 뮤직비디오를 배포함. 춤을 매개로 한 퍼포먼스라서 좋았고 임파워됨.

몸으로 하는 퍼포먼스라서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전국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했고, 청중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았음. 동작이 많아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는 아니었으나, 자기방어훈련 동작을 활용한 생동감 있고 힘찬 안무로 춤추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고무적이었음

- 정의기억연대, 안양여성의전화 등에서 후속 공연 요청이 있었으나 공연 가능한 활동가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고사함.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회원 소모임으로 안무 강연 요청이 있었음. 수원여성의전화에서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으로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춤을 추는 자체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하고, 총3회 공연을 진행함. 광명여성의전화에서 여성인권영화제에서 퍼포먼스를 진행가능 문의함
- 2016년에 1년간 ONE BILLION RISING <평화를 춤추자>를 진행하였던 문화미라이프와 평화어머니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유감을 표하며, 사전에 연대 및 참여 제안을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 전달함. 이에 담당 활동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과거 한국에서 있었던 동 캠페인 활동을 소개하였고, 후기 등에 본 캠페인의 국내외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뤄 기존의 운동이 삭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함. 다음부터는 타 단체와 동종/유사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기획 및 소통에 더욱 유의해야 하겠음

2-4. 다양한 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이슈를 대중과 공유하고 확산시킨다.
- 목표 : 성폭력과 성차별을 양산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연대한다.
- 담당 : 감이
- 방법 및 계획 :

| 연대체 | 내용 | 담당 |
|-----------------------------------|--|----|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응한다. | 얏 |
|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네트워크 |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철회시키고, 포괄적 성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공론화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 신아 |
| 전환치료근절네트워크 | 전환치료의 문제를 알리고, 전환치료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한다. | 감이 |
|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 생리대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성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하며, 나아가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진다. | 신아 |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하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비롯한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맞서기 위한 여성단체 공동의 대응을 모색한다. | 감이 |

- 진행내용 :

| 연대체 | 내용 | 담당 |
|---------------------------------|---|----------|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 회의 (2/19, 5/15, 6/26, 7/26, 8/6, 9/8, 10/8, 11/15, 12/11)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집회 <무지개가 광:(光/狂)나는 밤, 평등과 안전이 빛나는 무지개 은하수를 놓아라!> 연대 발언(5/17) 헌법재판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심판 당해 사건 당사자 대리인단 간담회(11/28) | 얏 |
| 포괄적성교육 권리보장네트워크 | [간담회] 서울시 교육청 간담회 (10/15) [카드뉴스] 교육부는 시대착오적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 적극 추진하라 (11/12) | 얏/ 신아 |

| | | |
|--------------------------|---|----|
|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 <p>‘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5/21)</p> <p>-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발족을 위한 사전 모임 (5/23)</p> <p>‘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 (5/28)</p> <p>환경부 생리대 민관협의회(7/24)</p> <p>[회의]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운동본부 (4차 9/25)</p> <p>[성명] 서울시 구로구의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환영하며 (10/30)</p> <p>[성명] 서울시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결정을 환영한다 (11/29)</p> | 신아 |
| 인권운동더하기 | <p><2018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 내 해결을 둘러싼 고민과 질문을 나누는 인권운동더하기 내부 워크숍> 후속 모임 (5/27)</p> <p><우린 왜 미끄러지는 걸까_성폭력 사건의 공동체적 해결과정 곱씹기> (11/22) (불참)</p> | 신아 |

• 평가

- 활동가 1명이 부재하고 나머지 활동가가 각각 모나페 집행위와 차제연 전략조직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연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 특히 전환치료근절네트워크와 르노삼성 자동차직장내성희롱사건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은 담당자 휴직 이후 팔로우업이 이뤄지지 못함.
- 군성넷의 경우 2018년 하반기부터 연대 단위 담당자 대다수가 사실상 공백 상태였음. 올해 상반기에 연대체를 재정비하며 작년 평가를 진행하였고, 조직 안정화와 대중 홍보를 올해 목표로 정함. 담당 활동가들 대상으로 군성넷 및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운동의 역사를 교육하였으며, 헌법재판소 대리인단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됨.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에 이어 2019년 3월에 해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이 언론 보도되었으나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함.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하여 군성넷 계정으로도 홍보물을 공유하였으나, 연대 및 활동방식에 대한 평가 및 이견이 있어 합류하지 않음
- 2017년부터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심판이 접수되어 있고, 2020년에는 이에 대한 공개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헌법재판소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함. 오랜 운동의 역사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자료가 많고 헌법재판소 대리인단과 긴밀하게 소통·연대하고 있다는 점은 강점이나, 연대체에 참여하는 단위 자체가 많지 않아 향후 실무를 역할 분담할 수 있는 담당자 수가 한정적임
- 포성넷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과의 간담회 이후 국가성교육표준안의 실질적 폐기와 유네스코 기준의 성교육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담당자가 앞에서 신아로 변경되었음.
- 생리대행동은 유해 생리대 대응과 공공 생리대 지급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의당에서 제안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에 생리대행동 차원에서 결함. 상담소는 직접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이후 정의당 권수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청소년 월경 용품 보편 지급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안이 서울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함.
- 인권운동더하기의 경우, 2018 성폭력 사건의 공동체 내 해결을 둘러싼 고민과 질문을 나누는 내부 워크숍 진행 이후 후속모임에 참가하였으나, 워크숍 기획 및 진행 업무에는 다른 업무로 인해 참여하지 못함

2-5. (신규) 단편영화 <생존자의 자리> 배급

• 배경/필요성 :

- 2018년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생존자의 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영상 <생존자의 자리>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외화한다.

• 목표 :

- 영상 <생존자의 자리>를 영화제에 출품하고 더 많은 대중이 해당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담당 : 앞
- 방법 및 계획 :
- <생존자의 자리> 영상 공유 및 영화제 출품
- 진행내용 :
- 1월~10월 <생존자의 자리> 통합본 및 에피소드별 영상 유튜브 공개 및 홍보
- <생존자의 자리> 영화제 출품(총13개 영화제)
- <생존자의 자리> 단편영화 재편집
- 이나연 감독과 배급사 '퍼니콘' 간 배급 서비스 계약 검토 및 협력
- 결산:
- 평가
- 성폭력 생존자의 말하기와 이를 듣는 주변인의 태도에 대한 대안적 상상을 보여주는 영상 <생존자의 자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써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 함께 높이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당초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으나, 상담소 유튜브의 인지도 자체가 높지 않고 약 30분에 이르는 긴 분량으로 인해 영상 조회수는 많지 않았음. 올 10월부터 이나연 감독과 배급사 '퍼니콘' 간 배급 서비스 계약에 따라 유튜브 영상을 미공개로 전환하고, 배급 서비스 계약 기간에는 해당 영상을 내부 행사 및 교육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향후 <생존자의 자리>는 '퍼니콘' 배급 서비스로 국내외 영화제 출품 및 KT올레모바일, 왓챠, 네이버 N스토어 등 플랫폼 방영 및 제공, 방송 채널 방영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 이를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확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함
- 여성 및 인권 관련 영화제를 중심으로 <생존자의 자리>를 출품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음. 출품작이 이미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던 점, 각 에피소드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도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해 배급사 '퍼니콘'과의 계약에 따라 유튜브 영상 미공개 전환이 이뤄졌고, 이나연 감독의 제안으로 <생존자의 자리>를 영화제 출품용 단편영화로 재편집하는 과정을 거침. 내년에는 재편집된 영상으로 영화제 출품을 이어갈 예정임. 향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이나연 감독 간 영상물 제작 및 작품 사용에 관한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기간도 배급사 '퍼니콘'과의 계약 기간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목표3. 더 많은 주체들과 연대하고 성장하기

3-1. 자문회의

- 배경/필요성 : 성문화운동팀의 운동 방향, 사업내용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긴밀한 자문과 참여를 활성화한다.
- 목표 : 자문위원들의 익숙한 혹은 낯선 시선으로 성문화운동팀의 2019년 활동 방향을 점검한다.
- 담당 : 감이
- 방법 및 계획 :
- 상반기 내 1회 성문화운동 자문위원들과 대면/서면 자문회의 개최
- 진행내용 :
- 일시: 2019년 2월 15일(금) 저녁 7시
-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1층
- 안건: 1. 홍보 활동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의 건 2. 향후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운영에 관한 건

- 참석: (자문위원) 배은경, 김애라, 이산, 신상숙, 마도 (활동가) 지리산, 감, 오매, 앓, 신아/ 성문화운동팀
자문위원 15인 중 5인 참석
- 논의내용:
 - 1) 홍보 활동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의 건
 - : 홍보는 우리의 목소리와 운동 철학을 대중과 호흡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 최신의 온라인 채널 활용 트렌드 공유 (브이로그, 켄레디위드미, 자기노출, 계정의 고유 아이덴티티)
 - : 온라인 활동 자체를 하나의 프로젝트화 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임.
 - : 온라인에 이미 있는 스피커들과 접촉해서 협력하거나 닷페, 관심있는 유튜버 등과 자문회의 제안하는 등의 의견을 나눔.
 - 2) 향후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운영에 관한 건
 - : 말하기 대회는 듣기를 통해 연대의식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그것이 새롭게 등장한 말하기 공간과 다른 점임
 - : 미투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하니까’ 끝나는 것은 이름
 - : 말하기대회 역사성 놓지 말 것. 한번 놓으면 기억을 복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
 - : 전통의 무게, 잘 만들어야 한다는 활동가들의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 등의 의견을 나눔
- 평가
 - 일주일 전에 참석 요청 연락을 드림. 이후 자문회의시에 사전연락으로 참석을 제고해야 함
 - 활동가들의 구체적인 고민이 담긴 안건을 논의함. 온라인 활동 자체 사업의 필요, 홍보 분야(미디어 분야 등)에 자문위원 확보 등이 논의됨. 한편 현재 성문화운동팀 활동에서 홍보 비중과 역량을 높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고민해가야 할 과제임
 -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지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더 이상 ‘말하기’ 자체만으로 초창기와 같은 충격을 만들어낼 수 없는 현실에서 대회의 형식이나 무게감 등을 달리하라는 의견도 있음. 현장에서 활동가가 느끼는 고민과 외부에서 자문위원이 바라보는 말하기대회 사이에 다소 괴리가 있어, 양 측의 관점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여 향후 사업으로 연결할지 과제임
- 자문위원 재위촉 및 위촉장 발송 작업이 진행되지 못함

3-2. 온라인소통

- 배경/필요성 : 여성운동과 담론이 생성되고 확산되는 공간으로서 온라인 공간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자발적인 여성주체들이 활동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나 대중들도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고 있다. 세대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가 점점 더 다르게 발달해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상담소의 활동을 알리고 대중과 소통함으로써 반성폭력 및 여성인권 운동의 저변을 확장하고 지속적인 운동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목표 : 상담소의 활동을 꾸준히 전하여 회원 및 대중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회원배가로 상담소의 재정자립에 기여한다.
- 담당 : 감이/신아/앓
- 방법 및 계획 :
 -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상시적 관리와 업데이트
 - SNS 플랫폼을 활용한 스폰서 광고 시행
 - 문자(후원) 소통
- 진행내용 :
 - ①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의 상시적 관리와 업데이트

| | 게시물 수 | | 구독자 | | 방문자(월평균) | |
|------|------------|-----------|-------|-------|----------|------------|
| | 2018 | 2019 | 2018 | 2019 | 2018 | 2019 |
| 홈페이지 | | 417 | | | | 약 247,429명 |
| 블로그 | 126 | 123 | | | 11,358 | 8,247명 |
| 페이스북 | 444 | 481 | 6,357 | 7,569 | | |
| 트위터 | 4,268 (누계) | 5,756(누계) | 7,390 | 7,765 | | |
| 유튜브 | 3 | 10 | 미확인 | 109 | | |
| 인스타 | 18 | 64 | 285 | 476 | | |

② 월별 문자후원 건수

| 월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소계 |
|----|----|----|----|-----|----|----|----|----|----|-----|-----|-----|-----|
| 건수 | 7 | 70 | 22 | 101 | 4 | 7 | 4 | 4 | 2 | 3 | 7 | 21 | 252 |

• 평가

- 주로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소극적 이나 운영하고 있음. 특히 유튜브의 경우 <2019 ONE BILLION RISING>, <보통의 연대> 등 영상을 게 시하여 작년에 비해 활성화하였고 구독자도 꾸준히 증가함
- 사무국에 회원소통 담당 활동가가 생겨 페이스북 메시지 응답율이 약간 올랐으나, 트위터 DM은 때때로 확인을 놓치기도 함. 인스타그램 활용은 여전히 저조한 편. 해피빈 모금함 관리를 몇 년째 놓치고 있는 점도 검토가 필요.
- 문자후원 계약처의 홈페이지 리뉴얼이 3년째 지연됨. 이로 인해 문자후원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담 당자에게 매번 요청해서 내역을 받아야 하는데, 담당자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3회 이상 독촉해야 내역 을 보내주는 등 어려움이 있음. 문자후원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하였고, 2019년 8월에 약 1년치 후원금 1,243,281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았으며, 12월에는 5~9월분 58,149원 을 지급받음. 앞으로도 후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음. 2018년 내역은 1월에 정리하여 게시함
- 올해 문자후원 내역을 검토해보면 2월에는 안희정 2심 유죄 선고 축하 문자가 많았고, 전체 문자후원 건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4월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축하 문자가 80여 건, 한국성폭력상담소 생일 축하 문 자가 20여 건임 문자후원 내역이 대부분 특별한 이슈가 있는 날에 집중되어 있어, 일상적인 문자후원을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기획 필요함
- 올해는 사무국 회원/후보 담당자와 협업 체계로 온라인 소통이 이뤄졌는데, 내년부터는 주 담당팀 이월 및 업무분담을 논의 예정임

3-3. 이메일 소식지 발송 및 관리

- 배경/필요성 : 회원과 구독자 및 유관기관에 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온라인 매체 유입을 시도하여 상담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한다.
- 목표 : 상담소의 활동을 더 상세히 알리기 위해 뉴스레터와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
- 담당 : 앵
- 방법 및 계획 :
 - 발송호수 : 2019년 1~12월호 (총 12회)
 - 발송대상 : 상담소/열린터 회원 및 구독자그룹, 여성·시민사회단체, 성폭력상담소, 언론 등
 - 발송내용 : 주요 활동내용과 이슈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발행
- 진행내용 :

| 호수 | 발송일 | 제목 | 발송건수 | 오픈률 | 클릭률 |
|----|-----|----|------|-----|-----|
|----|-----|----|------|-----|-----|

| | | | | | |
|------|-------|--|--------|--------|-------|
| 1월호 | 1/2 | 페미 북 넘치는 2019년 맞이하기! | 1593건 | 22.65% | 3.55% |
| 2월호 | 1/31 | 2월은 연대의 달! 함께 지켜보고, 외치고, 춤추고, 바꿔요! | 1753건 | 19.45% | 3.3% |
| 3월호 | 2/28 | 싸우는 여자가 전국에서 춤춘다! 3.8 세계여성의날에 만나요 | 2,784건 | 25.3% | 3.5% |
| 4월호 | 4/1 | 봄이 온다, 강간문화 끝장내고 낙태죄를 폐지하자! | 2,814건 | 22.0% | 3.9% |
| 5월호 | 4/30 | 5월은 반성폭력 운동의 달, 캘린더 준비 됐나요? | 2,838건 | 20.2% | 4.1% |
| 6월호 | 5/31 | 성폭력 은폐·무마하는 검찰, 성폭력 카르텔 해체하라 | 2,924건 | 23.1% | 3.3% |
| 7월호 | 7/1 | [뭔다!상담소_7월호] 초여름, 이안젤라홀에서는 무슨 일이? | 2,976건 | 23.2% | 3.0% |
| 8월호 | 8/1 | [뭔다!상담소_8월호] 무더위에는 투쟁을, 광복절에는 여성해방을! | 2,979건 | 21.1% | 3.3% |
| 9월호 | 8/30 | [뭔다!상담소_9월호]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성폭력 패러다임을 바꾸자 | 3,025건 | 23.1% | 3.3% |
| 10월호 | 10/1 | [뭔다!상담소_10월호] 우리들의 '집'을 찾아서 | 3,033건 | 20.3% | 2.7% |
| 11월호 | 11/1 | [뭔다!상담소_11월호] 상담소도 텅블벅을? 후원에 힘입어 더 깊고 넓게! | 3,043건 | 20.0% | 3.4% |
| 12월호 | 11/29 | [뭔다!상담소_12월호] 그녀들의 싸움을 기억한다 | 3,062건 | 19.1% | 3.8% |

• 평가

- 총평 : 인터페이스 개편 및 유료 요금제 사용으로 안정적으로 발송되고 있음
- 인터페이스를 개편하여 사진 등을 더 많이 활용하여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였고, 모든 링크에 키워드가 포함된 ‘버튼’을 제공하여 더 쉽게 직관적으로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함.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해 도입되었던 문자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광고 이미지에 들어가야 하는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뉴스레터를 통해 더 구체적인 정보 전달 및 홍보를 할 수 있게 됨
- 스티비 요금제 이용으로 이메일 소식지의 안정성과 콘텐츠 활용도를 높임. 발송건수는 매월 증가 추세를 보이나 3월호에는 이례적으로 1,000건 이상 급증하였는바, 혹시 주소록 추출 방법이 달라졌는지 등 원인을 확인해야 함. 발송건수 이외에 매월 약 400건이 발송실패되고 있으므로 발송실패 대상 및 이유를 확인하여 이메일 주소록 점검이 필요함
- DMA의 <이메일 벤치마킹 보고서 2018>에 따르면 업종별 평균 이메일 오픈율은 비영리(21.8%), 클릭률은 비영리(2.7%)임. 이에 비하면 본 상담소 이메일 소식지의 평균 오픈율은 21.6%, 평균 클릭률은 3.4%로 오픈율은 비교적 낮고 클릭률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가됨. 오픈율은 제목을 통해 3.8여성대회의 전국 공동 퍼포먼스를 홍보하였던 3월이 25.3%로 가장 높았고, 클릭률은 사전신청을 받는 행사 홍보가 가장 많았던 5월이 4.1%로 가장 높았음
- 준비 및 편집, 발송 등이 훨씬 간편해져 작년 2명이 담당했던 업무를 올해는 1명이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발송 당일 업무 스트레스는 높은 편으로, 각 후기 담당자와 익월 행사 담당자의 적극적인 마감 엄수 및 협조가 요청됨

3-4. 나눔터 발간

- 배경/필요성 : 나눔터는 1991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개소 초기부터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이다. 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회원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0년 여름에 발행된 6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주기를 년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반성폭력이슈리포트를 새롭게 발간하면서 그 성격을 회원소식지로 더욱 분명하게 했다. 2017년에는 ‘생존자의 목소리’ 코너를 만들어, metoo운동으로 나온 성폭력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실어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 목표 : 상담소의 활동을 홍보하고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며, 회원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회원 소통 증진을 도모한다.
- 담당 : 신아, 사무국 달별
- 방법 및 계획 :
 - 나눔터기자단 Meka와 함께 <나눔터> 83호, 84호 발간, 85호 발간 준비
(발간시기 : 1월, 7월 / 발간부수 : 각 1,200부)
 - 진행

| 계획 | 세부계획 | 일정(발간 기준) |
|----------------|---|-----------|
| 나눔터기자단 Meka 모집 | - 온/오프라인 나눔터기자단 모집 | 4개월 전 |
| 기획회의 | - 기획팀 회의를 통한 코너 기획 및 필자 선정 - 나눔터기자단 Meka의 상담소 활동과 세미나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 유도 - 기획단과 Meka 내 글 배분 및 작성 | 3개월 전 |
| 원고청탁 및 집필 관리 | - 원고 청탁, 필자 관리 | 1개월 전 |
| 원고마감 및 수합 | - 원고 마감 및 수합 | |
| 편집 | - 내용 및 분량 조율, 윤문 및 화면교정 - 사진 및 이미지 관리 - 편집팀 원고 작성 | |
| 편집 디자인 | - 외주 제작(디자인 IS) 요청 및 소통 | |
| 교정 | - 1교~3교, 교정 | 2주 전 |
| 발간 및 발송 | - 발송주소관리 - DM사 발송 신청 및 대행 발송 - 발간인쇄물 수령 및 내용 점검 | 발간 시 |
| 감사 편지 발송 | - 감사편지 발송(투고자 등 외부 필자에 한함) | 직후 |
| 발간홍보 | - 뉴스레터 발간 홍보, 홈페이지 게재 | |
| 반송분 처리 | - 반송분 처리 및 주소록 업데이트 | 반송분 도착 시 |

• 진행내용 :

| 세부 사업 | 내용 | 세부 내용 |
|----------|----------------------|--|
| 메카 5기 운영 | 3/19 실무단 회의 (달별, 신아) | 메카 활동 정리(캠페인, 세미나, 취재) 세미나 주제 '남성성' 및 책 <그런 남자는 없다> 선정 일정 확정 |
| | 3/19 메카 홍보 및 모집 | 총 10명 모집 (기훈, 민지, 정화, 리나, 효원, 세정(중간탈퇴), 지민, 이한, 윤정) |
| | 4/4 메카 1차 모임 | 활동 안내,, <그런 남자는 없다> '들어가는 말' |
| | 4/18 메카 2차 모임 | <그런 남자는 없다> '남성의 불안과 우울을 대리하는 여성의 죄', '군인, 사나이, 그리고 여자들' |
| | 5/02 메카 3차 모임 | <그런 남자는 없다> '중년 남성의 육체라는 아카이브', '폐소공포증 시대의 남성성' |
| | 5/09 취재 활동 | 피해와생계사이 1회차 <노동은 정규, 성희롱은 비정규?> - 후기 업뎃 완료 |
| | 5/13 메카 4차 모임 | <그런 남자는 없다> '웃음과 폭력: 혐오 없는 웃음은 가능한가' - 캠페인 주제 논의 |

| | 5/30 메카 5차 모임 | <그런 남자는 없다> 브로맨스 vs ‘형제’ 로맨스 - 캠페인 주제 확정 (단톡방 내 성폭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0 메카 6차 모임 | - 캠페인 자료 조사 공유 및 캠페인 내용 구체화 (단톡방 십계명, 카톡 이모티콘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4 메카 7차 모임 | 캠페인 콘텐츠(단톡방 십계명) 구체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7 실무단 중간 평가 | 중간 평가 및 논의, 이후 역할 역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7 메카 8차 모임 | 캠페인 콘텐츠 제작 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눔터 84호 제작 | 4/19 기획단 회의 (신아, 달별, 백목련, 조은희, + 주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행일 : 2019년 7월 25일 제작부수 : 1,200부 발송부수 : 1,118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코너</th><th>내용</th><th>필진</th></tr><tr><td>표지</td><td>낙태죄폐지 사진</td><td>-</td></tr><tr><td>표지 안쪽</td><td>2019년 상반기에는...</td><td>신아</td></tr><tr><td>목차</td><td>-</td><td>신아</td></tr><tr><td>이렇게 활동했습니다</td><td>낙태죄폐지활동기 안희정사건공대위활동후기 강간죄개정운동</td><td>앓 오매 지리산</td></tr><tr><td>뭔다!상담소 (상반기)</td><td></td><td>신아</td></tr><tr><td>열린터 다이어리 (상반기)</td><td>- 열린터의 고민 (자기방어훈련 후기)</td><td>열린터</td></tr><tr><td>생존자의 목소리</td><td>투고(홍보) 기억 그 이후 피해자리더십(집단상담보조진행자) 젤리의자립기 일상회복 프로젝트 후기2</td><td>달별 푸른나비 가영 젤리 참가자</td></tr><tr><td>성문화읽기</td><td>캠페인글 육식문화와 성폭력</td><td>Meka 린</td></tr><tr><td>시끌시끌상담소</td><td>워크숍 후기 상담소 1년 활동 정리 (가)훈훈하지 않은 기부</td><td>주리 마이아 선민</td></tr><tr><td>아낌없이 주는 나무</td><td>후원회원 명단 후원방법 안내</td><td>달별</td></tr><tr><td>훈훈한 기부</td><td>명단</td><td>달별</td></tr><tr><td>뒷표지 안쪽</td><td>상담소 소개 및 홈페이지QR코드</td><td></td></tr><tr><td>뒷표지</td><td>발간자료 소개 (<의지로 자료집>, <미녀, 야수에 맞서다>)</td><td></td></tr></table> | | | | 코너 | 내용 | 필진 | 표지 | 낙태죄폐지 사진 | - | 표지 안쪽 | 2019년 상반기에는... | 신아 | 목차 | - | 신아 |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낙태죄폐지활동기 안희정사건공대위활동후기 강간죄개정운동 | 앓 오매 지리산 | 뭔다!상담소 (상반기) | | 신아 | 열린터 다이어리 (상반기) | - 열린터의 고민 (자기방어훈련 후기) | 열린터 | 생존자의 목소리 | 투고(홍보) 기억 그 이후 피해자리더십(집단상담보조진행자) 젤리의자립기 일상회복 프로젝트 후기2 | 달별 푸른나비 가영 젤리 참가자 | 성문화읽기 | 캠페인글 육식문화와 성폭력 | Meka 린 | 시끌시끌상담소 | 워크숍 후기 상담소 1년 활동 정리 (가)훈훈하지 않은 기부 | 주리 마이아 선민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후원회원 명단 후원방법 안내 | 달별 | 훈훈한 기부 | 명단 | 달별 | 뒷표지 안쪽 | 상담소 소개 및 홈페이지QR코드 | | 뒷표지 | 발간자료 소개 (<의지로 자료집>, <미녀, 야수에 맞서다>) | |
| | 코너 | 내용 | 필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지 | 낙태죄폐지 사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지 안쪽 | 2019년 상반기에는... | 신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차 | - | 신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낙태죄폐지활동기 안희정사건공대위활동후기 강간죄개정운동 | 앓 오매 지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뭔다!상담소 (상반기) | | 신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열린터 다이어리 (상반기) | - 열린터의 고민 (자기방어훈련 후기) | 열린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존자의 목소리 | 투고(홍보) 기억 그 이후 피해자리더십(집단상담보조진행자) 젤리의자립기 일상회복 프로젝트 후기2 | 달별 푸른나비 가영 젤리 참가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문화읽기 | 캠페인글 육식문화와 성폭력 | Meka 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끌시끌상담소 | 워크숍 후기 상담소 1년 활동 정리 (가)훈훈하지 않은 기부 | 주리 마이아 선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후원회원 명단 후원방법 안내 | 달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훈훈한 기부 | 명단 | 달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뒷표지 안쪽 | 상담소 소개 및 홈페이지QR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뒷표지 | 발간자료 소개 (<의지로 자료집>, <미녀, 야수에 맞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4 | | 외부 필진 글 13개 중 11개 수합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9 발행 완료 | | 온라인 발행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캠페인 | 단톡방 십계명 | 7/12 카드뉴스와 함께 온라인 배포 8/14 ‘당신의 단톡방은 깨끗한가요?’ 기사 발행(작성 메카5기 박효원(열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톡방 불편남 | 8/22 단톡방 불편남 이모티콘 제작, 활용에 관한 협의문 초안 작성, 디자인 작업한 민지님 비롯한 메카 공유 9/19 이모티콘 디자인 작업한 메카 민지님 협의문 서명 10/23 디자인 완료 11/26 상품명, 등록업체 확정 및 기안서 작성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존자의 목소리 | 여성신문 전제 | 게재일 | 제목 및 URL | 필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0 | ‘목소리를 초대하는 목소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043 | 감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7 | 기억 그 이후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254 | 푸른 나비 | 84 |
| | | 10/1 | 치유의 꽃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447 | 토란 | 82 |
| | | 10/12 | 행동할 권리(1) => 내 상처가 지겹다고 말하는 그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561 | 만두 | 82 |
| | | 10/21 | 행동할 권리(2) => 엄마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738 | 만두 | 82 & 83 |
| | | 10/26 | 행동할 권리(3) => 내 마음 속에 상처받은 어린 아이가 있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878 | 만두 | 83 |
| | | 11/1 | 나비 이야기 => 나비가 난다, 바람이 분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054 | 나비 | 83 |
| | | 11/8 | '지금'의 가영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179 | 가영 | 84 |
| | | 11/16 | 나를 위한 최선의 세계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317 | 김봄 | 83 |
| | | 11/25 | 젤리의 편지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455 | 젤리 | 84 |
| | | 11/29 | 변두리에서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625 | 김삼 | 82 |

• 평가

<메카 5기 활동>

○ 운영 및 예산

- 두 활동가가 담당함으로써 실무와 책임의 부담을 나누고 모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됨
- 나눔터 제작 예산안에 메카활동 비용이 책정되지 않음. 소모임 예산 10만원에서 캠페인과 회의비를 충당해야 했으며, 메카 활동 비용은 의지로 프로젝트비로 지출함. 예산에 맞게 캠페인 규모 설정도 필요함
- '남성성' 세미나 및 캠페인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나 캠페인 기획을 좁혀나가기에 주제가 넓었음.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메카와 함께 좁혀나갔다면 참가자들에게 부담이 덜했을 것임.
- 나눔터 제작과의 연관성을 <취재 활동>과 <메카 활동 후기 나눔터 게재>를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유기적으로 연결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음. 자율적 캠페인 소모임인지 나눔터 기자단인지 정체성을 확립하여 운영 계획을 세울 필요 있음. 기자단으로 활동한다면 블로그/뉴스레터 등에 들어가는 후기와 각종 콘텐츠 리뷰와 칼럼을 쓰는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이후 담당자와 메카 6기 활동 방향 논의 필요

○ 활동

- 캠페인의 주제가 시의성 있고 1회성 행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왔으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메카 참가자들이 캠페인 기획과 실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재미를 느끼며 참여하였고 후속 모임으로 <내가

반한 언니> 이어짐

- 활동 기간에 비해 많은 활동이 계획되었음(세미나, 취재, 캠페인). 취재 및 후기 작성 활동은 1회 진행되었고 세미나 진행 기간에 비해 캠페인 기획 진행 시간이 부족하였음
- 세미나를 통해 캠페인 기획을 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세미나에서 다룬 텍스트가 이론적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 논의 자체가 어려웠고 현실에 긴밀하게 접속해야 하는 캠페인과 다소 괴리가 발생함. 이는 텍스트를 다르게 선정하거나, 세미나 진행에 있어서 이야기를 펼쳐놓기보다는 진행자가 캠페인과 관련해서 생각을 발전할 수 있도록 틀을 정해서 정리하는 방식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캠페인 기획 진행 틀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나눔터 제작>

- 목표에 따라 상담소 상반기 활동을 충실하게 전달하였고 여러 코너에 거쳐 반성폭력 운동과 담론을 풍부하게 담음. 책자 제작에 있어서 상담소의 여러 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회원, 인턴, 자원활동가, 상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생존자가 함께 필진으로 참여함
- 발송 부수가 지난 호 965부에서 1,118로 153부 늘었으며, 84호의 페이지 수가 지난 호 48페이지보다 16페이지 증가하여 1권당 무게 증가로 (디자인 이즈에서 종이질을 높이면서 두꺼워지기도 함) 발송비 증대됨. 발송용역비의 경우, 발송 부수가 증가함에 따라 봉투 제작비도 증가함.
- 7월 발행이라는 제작 일정 준수함
- 나눔터 제작 예산안에 원고료가 책정되지 않아 추가 지출이 발생함. 원고 청탁한 외부 필진 세 명에게만 지급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생존자의 목소리 코너에 원고를 보내준 분들, 상담소 프로그램 참가자, 열린터 생활인에게는 원고료가 지급되지 않아 지급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난 83호에 이어서 주소록 오류가 재발생. 스마트레이저에 등록된 쿼리 통해 주소록 추출 후 우편물 수신거부 및 주소 확인 1회 더 진행하였으나 누락 및 우편물 수신거부자가 주소록에 포함됨. 후원회원 명단 누락자도 발생. 소식지를 받아보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불필요한 발송이 발생함. 스마트레이저 측에 쿼리 재요청하여 정비 및 다회 크로스체크가 필요함

<생존자의 목소리>

- 하반기 여성신문 측의 제안으로 나눔터의 [생존자의 목소리] 코너 원고들을 주 1회 전재. 각 필자들에게 여성신문 게재 동의 절차를 거쳐 나눔터에 수록된 원고를 거의 수정없이 올림. 여성신문 오피니언 코너에 수록되고, 종이신문에도 연재되었는데,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고 공유되면서 여성신문 측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생존자의 말하기가 더 확산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함. 9월에 시작된 전재는 차년도 1월 발행을 앞둔 85호에 투고한 필자들의 원고까지 포함하여 연말 연초에 마무리될 예정임

3-5. 회원참여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회원들이 상담소를 보다 친근하게 여기고,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목표 : 상담소의 문턱을 낮추어,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은 행사들을 소소하게 만들어, 상담소와의 스킨십을 높이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담당: 앞
- 방법 및 계획 :
 - 1) KSVRC 회원놀이터
- 연간 총 2회 진행 (3~11월 중)

- 영화 공동체 상영 및 토크 등 기획
- 뉴스레터, 홈페이지, SNS, 개별 연락으로 홍보

2) 회원소모임

| 소모임명 | 성격 | 담당 | 진행상황 |
|--------------|-------------------|----------|---------------------------|
| 강간페 | 여성주의 책읽기 모임 | 오매 | 책 마치고 다음 모임 보류 |
| Meka | 여성주의 세미나 및 캠페인 기획 | 신아 | 2019년 7월 11일로 종료 |
| 페미니스트아무말대잔치 | 페미니스트 수다모임 | 없 | 지속 |
| 소근육발달 | 손작업으로 다양한 소품 만들기 | 목련 | 소모임 외 활동으로 진행 |
| 상담자원활동가모임(가) | 전 상담자원활동가 친목모임 | 지리산, 조은희 | 지속 |
| 내가반한언니 | 페미니즘 콘텐츠 비평 소모임 | 신아, 달별 | 지속/ MEKA 5기 후속 모임으로 진행 |

• 진행내용 :

1) 회원놀이터

| 주요 사업 | 활동 내용 | | | | | | | | | | | | | | | |
|--|---|---|-------|----|-------|-----|-----|-------|-----|-------|------|-----|-------|--------------------|-----|-------|
| 공동체 상영 <청년 여성> | 제목 : 청년 여성 일시 : 2019년 8월 13일(화) 오후 7시 30분-10시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후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년여성 영상제작 공동체상영회 지원사업 상영 : | | | | | | | | | | | | | | | |
| | <table><tr><th>제목</th><th>감독</th><th>종류</th></tr><tr><td>영화학개론</td><td>최서윤</td><td>극영화</td></tr><tr><td>육체미소동</td><td>정서인</td><td>다큐멘터리</td></tr><tr><td>자밍아웃</td><td>김예지</td><td>다큐멘터리</td></tr><tr><td>나는 엄마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td><td>임지영</td><td>다큐멘터리</td></tr></table> | 제목 | 감독 | 종류 | 영화학개론 | 최서윤 | 극영화 | 육체미소동 | 정서인 | 다큐멘터리 | 자밍아웃 | 김예지 | 다큐멘터리 | 나는 엄마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 | 임지영 | 다큐멘터리 |
| | 제목 | 감독 | 종류 | | | | | | | | | | | | | |
| | 영화학개론 | 최서윤 | 극영화 | | | | | | | | | | | | | |
| | 육체미소동 | 정서인 | 다큐멘터리 | | | | | | | | | | | | | |
| 자밍아웃 | 김예지 | 다큐멘터리 | | | | | | | | | | | | | | |
| 나는 엄마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 | 임지영 | 다큐멘터리 | | | | | | | | | | | | | | |
| 초대손님 : 가현(불꽃페미엑션), 여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참여 : 29명(사전신청 37명) | | | | | | | | | | | | | | | | |
| <table><tr><td>페이스북 홍보물 삭제 사태 대응</td><td>8/1 페이스북 및 트위터, 뉴스레터 홍보 -> 페이스북 삭제 사태 발생 8/2 경향신문 인터뷰 8/5 [성명] 페이스북, 성차별 플랫폼에서 성평등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할 때 8/9 [기고] '여성 유두'라 삭제? 페이스북이 정작 해야 할 일은(프레시안)</td></tr></table> | 페이스북 홍보물 삭제 사태 대응 | 8/1 페이스북 및 트위터, 뉴스레터 홍보 -> 페이스북 삭제 사태 발생 8/2 경향신문 인터뷰 8/5 [성명] 페이스북, 성차별 플랫폼에서 성평등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할 때 8/9 [기고] '여성 유두'라 삭제? 페이스북이 정작 해야 할 일은(프레시안) | | | | | | | | | | | | | | |
| 페이스북 홍보물 삭제 사태 대응 | 8/1 페이스북 및 트위터, 뉴스레터 홍보 -> 페이스북 삭제 사태 발생 8/2 경향신문 인터뷰 8/5 [성명] 페이스북, 성차별 플랫폼에서 성평등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할 때 8/9 [기고] '여성 유두'라 삭제? 페이스북이 정작 해야 할 일은(프레시안) | | | | | | | | | | | | | | | |
| 아프리카 만딩댄스 원데이클래스 <춤으로 자유를 만끽하라> | 제목 : 춤으로 자유를 만끽하라 일시 : 2019년 11월 23일(토) 오전 10시- 오후 1시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강사 : 권이은정 참가비 : 5,000원(회원은 무료) 참여 : 총 18명 (사전신청 40명 중 회원 13명) 진행: 2인의 타악세션과 1인의 강사로 구성 안무 맛보기 / 만딩댄스 중 수수민족의 춤인 기네파레 설명 / 춤 배우기 / 이야기 나눔 | | | | | | | | | | | | | | | |

2) 회원소모임

| 일자 | 내용 | 참석 인원 | 담당 |
|----------------|----|----------|----|
|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 | | |

| | | | |
|-------------------------|--|---|----------|
| 1/31 | 여성주의 수다 모임 : 보드게임 <이지헤 게임> | 6 | 없 |
| 3/16 | 여성주의 수다 모임 : 이태원 섹스토이샵 나들이 | 5 | 없 |
| 5/2 | 여성주의 수다 모임 : 차별잇수다 워크숍 | 4 | 없 |
| 6/6 | 여성주의 수다 모임 : 쿼어영화제 감상 | 5 | 없 |
| 7/14 | 페미니즘 연극제 감상 : 연극 <너에게> | 6 | 없 |
| 8/15 | 광복절 기념 영화 “어폴로지” 함께 보기 | 2 | 없 |
| 10/31 | 여성주의 수다 모임 | 3 | 없 |
| (전) 상담자원활동가 모임 | | | |
| 2/25 | 영화 “임브레이스” 함께 보기 | 8 | 지리산, 조은희 |
| 5/27 | 영화 “거룩한 분노” 함께 보기 | 6 | 지리산, 조은희 |
| 9/30 | 영화 <톨리> 감상 | 6 | 지리산, 조은희 |
| 12/6 | 한해보내기 참여 | 3 | 지리산, 조은희 |
| MEKA 5기 | | | |
| 4/4 | 활동 소개, <그런 남자는 없다> 읽고 토론 | 9 | 신아, 달별 |
| 4/18 | <그런 남자는 없다> 읽고 토론 | 7 | 신아, 달별 |
| 5/2 | <그런 남자는 없다> 읽고 토론 | 9 | 신아, 달별 |
| 5/13 | <그런 남자는 없다> 읽고 토론, 캠페인 기획 | 6 | 신아, 달별 |
| 5/30 | <그런 남자는 없다> 읽고 토론, 캠페인 기획 | 6 | 신아, 달별 |
| 6/10 | 캠페인 자료 조사 공유 및 캠페인 내용 구체화 (단톡방 십계명, 카톡 이모티콘 제작) | 4 | 신아, 달별 |
| 6/14 | 캠페인 내용단톡방 십계명) 구체화 | 7 | 신아, 달별 |
| 6/27 | 캠페인 기획 - 단톡방 십계명 텍스트 확정 - 이모티콘 제작 목표, 캐릭터 컨셉, 텍스트 논의 | 6 | 신아, 달별 |
| 7/11 | 캠페인 기획 : 이모티콘 제목 및 텍스트 확정 | 7 | 신아, 달별 |
| 7/16 | 평가 및 후속 모임 논의 | 7 | 신아, 달별 |
| 페미니즘 콘텐츠 비평 모임 <내가반한언니> | | | |
| 8/22 | <미스 슬로운> 감상 | 5 | 신아, 달별 |
| 9/19 | 영화 <무지개 너머: 트랙퀸 마샤 존슨> 감상 | 4 | 신아, 달별 |
| 10/17 | 영화 <우리의 20세기> 감상 | 5 | 신아, 달별 |
| 11/15 | 연극 <두 줄> 감상 | 5 | 신아, 달별 |
| 2019 상담원 기본교육 후속 법정지원모임 | | | |
| 8/13 | 지원 사건 재판 모니터링 | 6 | 상담팀 |
| 10/8 | 상담소 사건지원절차 안내 및 불기소 이유서 읽고 의견 나누기 | 4 | 상담팀 |
| 10/24 | 법정 모니터링 및 공유 | 1 | 상담팀 |
| 11/12 | 공대위 사건 판결문 읽고 의견 나누기 | 3 | 상담팀 |
| 2019 상담원 기본교육 후속 독서모임 | | | |
| 9/17 | 모임 방향성 논의 | 3 | 상담팀 |
| 10/15 | 책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 읽기 | 3 | 상담팀 |

• 평가

〈회원놀이터〉

- 〈청년 여성〉 공동체상영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청년여성 영상제작 공동체상영회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어, 단편영화 4편을 함께 보고 청년여성 활동가 2명과 이야기 나누는 구성으로 진행됨. 데이트폭력, 여성의 몸, 여성 자위, 세대이해를 다루는 4편의 청년여성 단편 영화를 함께 보았고, 이를 통해 참여 여성의 시선으로 청년 여성의 이슈를 바라보고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짐
- 〈청년 여성〉 공동체상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여성의 유두’ 노출 금지 규정을 사유로 가현 활동가의 유두해방시위 사진이 포함된 홍보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상황이 반복됨. 이에 경고문 게시, 언론과의 인터뷰, 성명서 발표, 언론 기고 등으로 적극 대응하였으나 페이스북 측의 답변이나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함. 1) ‘여성의 유두’만을 성적 대상으로 규정하는 규정이 내포하는 이중적 성별 규범 2) 페이스북이라는 거대 플랫폼의 불통 3) 혐오, 차별, 편견 등을 학습하는 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함
- 〈춤으로 자유를 만끽하라〉는 기존에 회원놀이터가 주로 공동체 상영 위주로 되어온 것에서 변화를 시도 하면서 몸으로 직접 움직이며 시선에서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기획함. 불참비율을 낮추고 프로그램 참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아프리카원단으로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 참가비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불참비율을 효과적으로 낮추지는 못함 이는 토요일 오전이라는 시간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 됨. 단, 회원에게는 참가비를 받지 않아 회원 특전으로 하는 회원놀이터로 기획하였고, 전체 사전 참가신청자 중 30%가 회원으로, 회원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음
- 〈춤으로 자유를 만끽하라〉는 이안젤라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몸의 움직임을 통해 재미를 느끼면서도 몸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도 의미가 큼. 또한 평소 네트워크를 가진 문화예술영역의 여성예술인들과의 연대로도 긍정적인 작용을 했음. 〈춤으로 자유를 만끽하라〉는 상반기 회원놀이터 진행을 공동체상영회 지원사업을 활용한 덕분에 넉넉한 예산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 유사한 사업을 회원놀이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경우 납득할만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예산확보가 중요함

〈회원소모임〉

- 여성주의 수다 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이태원 섹스토포이샵, 쿼어영화제, 페미니즘 연극제 등 다양한 참여활동을 진행하였으나, 편안하게 수다 떨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아쉽다는 평도 있음. 후기 이외에 별도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아 신규 참여자 유입이 제한적이었는데, 내년에는 참여 인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대안이 필요함.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후기를 보고 타 기관에서 여성주의 모임 운영에 관한 자문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음
- 나눔터 기자단 〈MEKA〉 5기는 격주 모임으로 여성주의 세미나와 독자적인 캠페인 기획 및 실행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활동 종료 이후에는 페미니즘 콘텐츠 소모임 〈내가 반한 언니〉로 월 1회 모여 진행하고 있다. 메카5기의 후속모임인 〈내가반한언니〉는 월1회 정기적으로 만나 총 3편의 영화와 1편의 연극을 보았고, 매회 후기를 작성함. 여성주의 관점으로 콘텐츠와 캐릭터를 비평하면서 폭넓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유대도 돈독해졌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내년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임
- (전)상담자원활동가 모임 평가는 여성주의상담팀 자료 참고. 2019 성폭력전문상담원기본교육 후속 소모임으로 독서모임과 법정지원모임이 생겼으나 해당 교육 수강생을 중심으로 달린 모임으로 진행됨

목표4. 평등한 공간, 조직, 사회와 좋은 삶 만들어가기

4-1. 한해보내기

- 배경/필요성 : 상담소 1년 활동을 마무리 짓고 회원과 교류한다.
- 목표 : 회원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담당 : 주리(울림)/유랑(여성주의상담팀)
- 방법 및 계획 :

| 일정 | 계획 |
|--------|-----------------------------------|
| 10~11월 | - 세부내용 기획 |
| 11~12월 | - 뉴스레터, 홈페이지, 연락 등을 통한 홍보 및 행사 준비 |
| 12월 6일 | - 행사 진행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1층 / 인원: 60인 |
| 종료 후 | - 후기 게재(홈페이지, 블로그 등) |

- 진행내용 :

| 시기 | 추진내용 | | | | |
|-----|---|----|---|----|---|
|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 구성: 유랑, 주리, 채연, 민주, 짚레 / 사회: 수수, 달별 - 11/1, 11/6, 11/15, 11/22, 11/29에 인수인계(신아) 및 기획회의 진행 - 11월 15일부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홍보 시작 - 각 소모임 및 또우리 등 참여하도록 독려 - 11/18~22: 안젤라어워드 수상자 섭외 - 공연자 섭외 | | | | |
| 12월 | <p>행사명: 메리페미크리스마스 일시: 12월 6일(금) 오후 7시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참석인원: 55명 이상(활동가, 생활인 포함)</p> <table border="1"> <tr> <td>1부</td><td> ①환영인사 ②활동영상 ③축하공연: 캐시, 뚜꾸 ④안젤라어워드1,2: 강유가람, 진 ⑤소원을 말해봐 ⑥안젤라어워드3,4: 서희, 메카5기 ⑦축하공연: 이산 ⑧안젤라어워드5,6: 푸른나비, 의지로캠페인단 ⑨KSVRC 베스트드레서 '뽕뽕' ⑩안젤라어워드7,8: 조은희, 마이라/모니크 ⑪축하공연: One Billion Rising </td></tr> <tr> <td>2부</td><td> -캐시의 사주 부스, 앵의 타로 부스 운영(복채로 문자후원 받음) -자유롭게 술 마시고, 게임하기 </td></tr> </table> <p>-12월 27일 후기 게재</p> | 1부 | ①환영인사 ②활동영상 ③축하공연: 캐시, 뚜꾸 ④안젤라어워드1,2: 강유가람, 진 ⑤소원을 말해봐 ⑥안젤라어워드3,4: 서희, 메카5기 ⑦축하공연: 이산 ⑧안젤라어워드5,6: 푸른나비, 의지로캠페인단 ⑨KSVRC 베스트드레서 '뽕뽕' ⑩안젤라어워드7,8: 조은희, 마이라/모니크 ⑪축하공연: One Billion Rising | 2부 | -캐시의 사주 부스, 앵의 타로 부스 운영(복채로 문자후원 받음) -자유롭게 술 마시고, 게임하기 |
| 1부 | ①환영인사 ②활동영상 ③축하공연: 캐시, 뚜꾸 ④안젤라어워드1,2: 강유가람, 진 ⑤소원을 말해봐 ⑥안젤라어워드3,4: 서희, 메카5기 ⑦축하공연: 이산 ⑧안젤라어워드5,6: 푸른나비, 의지로캠페인단 ⑨KSVRC 베스트드레서 '뽕뽕' ⑩안젤라어워드7,8: 조은희, 마이라/모니크 ⑪축하공연: One Billion Rising | | | | |
| 2부 | -캐시의 사주 부스, 앵의 타로 부스 운영(복채로 문자후원 받음) -자유롭게 술 마시고, 게임하기 | | | | |

•평가

① 준비과정

- 웹자보, 진행PPT, 활동영상 제작 및 당일 준비를 자원활동가들이 도와주어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었음. 다만 자원활동가들의 실질적인 기획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여 준비회의를 진행했으나, 활동일수 제한 등으로 인해 자원활동가의 실질적인 역할이 한정됨
- 공연자 섭외: 담당자가 연중 한해보내기 준비를 의식하면서 상담소 활동과 연관 있는 공연자를 섭외하려고 노력함
- 회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안젤라어워드 수상자를 회원 위주로 구성하였으나 참석부도가 많았던 것은 아

쉬운 지점임. 다만 수상소감 영상, 글 등을 미리 받아 행사 진행이 매끄럽게 이어졌음. 추후 안젤라어워드 수상자에게는 더 빨리 연락할 필요 있음

- 정해진 예산 안에서 선물 구입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았음
- 작은말하기 송년회 물품을 미리 구입해서 한해보내기에서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약함

② 행사 당일

- 식사준비 및 음향세팅 관련해서 다른 활동가 도움 받음
- 담당자들이 안내데스크 준비를 꼼꼼하게 하지 못하여 당일 참여인원 집계 및 사전 프로그램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예상보다 참여인원이 많아서 의자가 부족하고 공간이 협소했음
-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 공연할 때 불편함이 있었음
- 베스트드레서 코너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드레스코드에 맞춘 것과 후보자들의 센스와 적극성을 통해 빛났던 코너였음
- 1부 마지막 코너인 원빌리언라이징의 경우 공간이 협소해 기획의도와 달리 참여자들이 함께 추지는 못했지만 의미있는 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
- 1부 종료 후 참여자들이 부스로 집중되어 이안젤라홀이 상대적으로 비었음. 열화와 같은 반응으로 계획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타로 및 사주를 봤고, 예정시간보다 길게 부스를 운영하게 됨. 앞으로 부스 운영시 계획한 시간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함. 또한 부스 운영 목적 및 형식을 참가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복채로 문자후원을 받아 소소하게 후원이 이루어짐

4-2. 자원활동가 모집 및 소통과 연계

- 배경/필요성 : 자원활동가는 상담소 활동의 적극적인 지지자/참여자/동료이자 외부의 시선에서 피드백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대중과 상담소의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속적으로 자원활동가를 모집함으로써 자원활동가 풀의 확대 및 잠재적 활동가/회원들과의 만남을 늘린다.
- 목표 : 자원활동가들로 하여금 반성폭력활동주체로서 상담소에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한다.
- 담당 : 신아
- 방법 및 계획 :
 - 홈페이지 <자원활동> 신청자를 중심으로 격월 1회 총 5회 (짝수달) 자원활동가 모임 진행
 - 프로젝트 및 일상업무에서 자원활동가의 수요가 있거나, 활동을 신청하는 자원활동가가 있는 경우 상황과 필요에 맞게 연계
- 진행내용 :

| | | | | | | | | | | | | | | | | |
|-----------------------------------|--------------|-----------------------------------|------------------------------|---|---|---|---|---|---|---|---|----|----|----|------------------|--|
| - 홈페이지와 이메일 통해 자원활동가 12인 모집 | | | | | | | | | | | | | | | | |
| - 자원활동가 모임 4회 진행 (2월, 5월, 7월, 9월) | | | | | | | | | | | | | | | | |
| 8개의 활동에 9인 연계 | | | | | | | | | | | | | | | | |
| | 활동 | 이름 | 업무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상세 일정 | |
| 1 | 3.8 여성대회 | 황성욱 | 부스 스텝 | | | | | | | | | | | | 03.08 | |
| 2 | 메카 5기 | 박 효 원 (열쥬), 양 세 정 (중도하차) | 남성성 세미나, 캠페인 기획 | | | | | | | | | | | | 04.04. ~07.11 | |
| 3 | 상담팀 사건 지원 | 박 효 원 (열쥬)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 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 | | | | | | | | | | | 03.12. | |

2019 열림터 활동 보고

| 활동목표 | | | |
|---|---|--|--|
|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장벽 밀기 |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 함께 높이기 | 더 많은 주체들과 연대하고 성장하기 | 평등한 공간, 조직, 사회 와 좋은 삶 만들어가기 |
| - 관련 법 개정 제언(보호시설에 대한 제한적 친권 부여/가족관계증 명서 열람제한 등) | - 생활인 지원통계 신규 양식 개발 - 홍보, 후원관리, 대외/ 연대활동 - 25주년 기념 포럼 | - 성인권교육 - 치료회복프로그램(성교 육/자기방어훈련/심신 회복캠프) - 퇴소자모임 -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및 소진예방 | - 생활인 일상생활지원 - 퇴소자 지원 - 생활인과 만드는 운영 규칙 - 환경·식생활·안전교육 |
| 2019년 우리의 움직임 | | | |
|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 | 지속가능한 운동 만들기 | |
| <p>: 전국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활동을 발판삼아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생활인들의 보호와 편의를 가로막는 관련 법률들을 개정한다.</p> <p>: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여러 활동의 생활인들 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활동 결과를 블로그 등 을 통해 외화한다.</p> <p>: 25주년 기념 포럼을 통해 여성주의 쉼터로서 열림터의 고민과 향후 과제를 관련 부처 및 연계 기관, 타 시설 등에 알리고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 원에 대한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p> <p>: 지원현황을 분석하는 새로운 틀을 개발하여 성폭 력 피해생존자 지원의 미래 비전을 모색한다.</p> <p>: 직접 후원 이외에도 해피빈, 강의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반성폭력 운동과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 에 대한 대중 참여를 독려한다.</p> | | <p>운영규칙을 수정, 보완할 때 생활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가시화하여 생활인들의 일상생 활 만족도를 향상한다.</p> <p>: 생활인들이 여성주의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확 강하여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 립, 당사자 운동의 필요성을 촉진한다.</p> <p>: 퇴소자모임을 정례화하여 퇴소 이후에도 열림터 전, 현 활동가 및 생활인들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퇴 소자간 자조와 지지의 연대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p> <p>: 여러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법을 훈련 하며 활동가들의 소진을 예방한다.</p> <p>: 활동가들의 휴가 사용과 교육 연수, 출장을 서로 적극 독려하여 쉼과 자기계발을 도모한다.</p> | |

총평

- 열림터 개소 25주년을 맞이하여 열림터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쉼터의 비전을 제시함. 포럼을 통해 열림터의 여성주의 운영방식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포럼 사전 준비와 진행을 통해 열림터를 알리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성평등/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나눔. 블로그 활동을 재개하며 열림터 활동, 생활인의 목소리, 활동가의 고민을 외화함
- 성인권교육 실시하고, 상담소 외부활동에 생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여성운동의 경험을 함께 함
- 열림터를 경유하는 주체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했음. 활동가의 역량강화 교육은 계획한 만큼 진행했음. 주거권 관련 연대단위와 결합하며 활동가 역량을 강화함. 소진예방을 위한

노력은 미진했음

- 퇴소자모임을 진행하여 퇴소자 지원의 다양한 방식을 모색함
- 법정책 변화를 위해 타 쉼터 시설들과 연대를 논의해보았으나 문제의식 공유에서 어려움이 있음. 지속적 으로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필요함
- 전시협 활동과 시설평가를 함께 하며 생활인 지원통계 신규양식을 제안하고자 노력함

목표1.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장벽 밀기

1-1. 성폭력 피해생존자 보호 및 편의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 개정 제안

• 배경/필요성 :

- ① 보호시설에 대한 제한적 친권 부여 : 열림터 생활인 대다수가 친족성폭력피해자인 상황에서 활동가는 휴대폰 개통이나 통장 개설, 입원 동의 등 친권자만 행사할 수 있는 분야의 지원이 불가능함. 이에 생활인의 불편 해소와 응급 상황 개입을 위해 보호시설장에게 입소기간 동안에 대한 제한적 권리 부여가 필요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제도 신설 : 가해자와 피해자 조력자가 친족인 경우 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본인 이외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어 가해자와의 분리 및 성폭력 피해생존자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열람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③ 시설관리번호 부여체계 변경 :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면 의료비 감면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시 성폭력 피해사실이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설관리번호(주민번호 이외의 13자리의 새로운 조합) 체계변경이 필요함.

• 목표: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보호와 편의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안 모니터링 후 개정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국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이하 전시협)와 협업하여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에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적극 제안하여 법제화를 이끌어 낸다.

• 방법 및 계획:

- 전시협,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대하여 장기 계획 수립
- 정기회의, 기관방문 등을 통해 이외의 개선 및 제정이 필요한 법안 검토
- 하반기 중 25주년 포럼이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상황을 외화
- 25주년 포럼이나 정책토론회 자료집 및 제안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관련 부처에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 기대효과:

- 친족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현 친권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한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불편사항을 관련 부처에 알려 개선방안을 찾게 함.

• 진행내용:

- 전시협 임원회의를 통해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연대의 방안을 찾고자 함
- 전년도에 법안 발의를 준비한 정춘숙국회의원실에 생활인 지원시 꼭 필요한 사항임을 전달함. 이후 관련 법안이 2019년 정기국회에 발의되었음.

• 평가:

- 현재 전시협의 정책이 중사자 처우개선에 주력하는 분위기여서 열림터의 문제의식 공유가 잘 되고 있지 않음. 지역마다 다른 욕구가 있고 현재의 내용에 만족한다는 의견, 제한적인 권리보다 보호시설의 책임을

낮추는 방법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임원회의에서 논의보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임. 이에 구체적으로 - 은행통장개설지원, 정신과병원 입원 지원, 휴대폰 사용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제한, 시설관리번호 부여체계의 개선-개선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연대하도록 추진하는 방법이 필요함

• 향후 계획:

- 열림터 단독의 활동보다는 전시협 차원에서 공동 마련 공동 대응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향후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목표2.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소통 높이기, 인프라 넓히기

2-1. 2019 지원통계 양식 개발

- 배경/필요성: 현 지원통계는 운영지침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실적 집계용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함. 열림터의 특성과 연도별, 시기별 지원 현황의 차이 등을 파악하여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이 의료화 되는 경향, 열림터와 타 보호시설과의 차별성 등이 드러날 수 있는 양식을 개발할 필요 있음.
- 목표: 이전의 지원통계양식을 보완하여 새로운 양식을 개발한다.
- 방법 및 계획:
 - 1~3월 중, 현재 지원통계양식 분석 및 부족한 부분 점검
 - 4~6월 중, 전시협 정기회의 및 관련 기관, 단체 기관방문을 통해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의 사각지대와 관련된 내용 수집
 - 상담팀 자문을 통해 상담소 지원통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설계
- 기대효과 :
 - 현재 생활인 지원 내용과 방식, 시기별 경향 등을 분석하여 보호시설에서의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의 새로운 상을 제시함
- 진행내용:

| 일정 | 구분 | 진행내용 |
|------|----------------------------------|---|
| 1/16 | 1차 임원회의 | 19년 정책토론회 주제 선정 /시설 운영실적 통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설의 특성과 지원 내용이 드러나는 통계 방식을 논의 |
| 4/5 | 2차 임원회의 | 생활시설의 지원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분류기준의 문제를 제기하고 시설마다 각각인 운영실적 분류기준을 정비하여 신뢰성을 높이기로 함. 각 시설의 고유한 지원 내용이 드러나도록 하여 향후 운영지침의 개선을 목표로 함. 권역별로 각 시설이 현재 입력하고 있는 운영 실적의 내용을 취합하여 재분류된 내용을 대표단에 전달하여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기로 함. |
| 4/25 | 운영실적 기준마련 정책토론회 (서울역 코레일 회의실)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 사무관에 위 내용을 종합하여 발표하고 권익지원과에 제안, 2020년 지침에 반영토록 함. |
| 6/18 | 3차 임원회의 | 정책토론회 평가/운영실적 기준을 정리하여 전 시설에 이 기준에 근거하여 입력토록 하고, 2020년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개정의견을 내기로 함 |

| | | |
|-------|---------|--|
| 11/12 | 4차 임원회의 | |
|-------|---------|--|

- 평가:
 - 현재 여가부에서 시설운영실적 입력 개선을 위한 연구 계획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는 하나 시기가 정해지지도 않고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임. 시설과 상담소가 지원의 영역이 다르다는 의견을 표했으나 전성협의 운영실적연구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고 함. 시설 운영지침의 개선을 위해 자문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설의 협조가 없었다고 함. 여가부에서는 운영지침과 관련해 복지부 시설과 차별성이 존재해야 하며 고유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해야만 한다는 입장임.
 - 2020년 지침 반영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함.
- 향후 계획:
 - 열림터의 지원 현황과 경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하고, 운영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시협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임

2-2. 홍보 및 후원관리

- 배경/필요성: ① 보호시설이 31개소로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입소한 생활인 개인에 대한 지원과 치유회복으로 한정되어 일반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 ② 가해자와 시급한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 중 보호시설에 대해 잘 모르거나 편견, 두려움 때문에 입소율이 떨어짐 ③ 시설 특성상 위치 노출에 대한 우려로 홍보나 후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후원금 규모가 작고 신규 회원 배가 속도도 낮음
- 목표: 여성주의 쉼터로서 열림터의 고민과 향후과제, 특성을 여러 채널을 통해 알린다.
- 방법 및 계획:
 - 블로그: ① 분기별 1회 이상 활동가들의 활동소감 및 현재 문제의식 등을 작성, ②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러 활동에 생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후기를 생활인의 동의를 구해 게시, ③ 퇴소생활인 인터뷰 내용을 반기 혹은 연간으로 1회 이상 게시
 - 이메일 소식지(열림터 편지): 생활인들의 글이나 활동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구독율을 높임
 - 해피빈 공기부하: 정부 지원이 어려운 퇴소자 지원을 위해 사례 발굴하여 퇴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원
- 기대효과 :
 - 1366이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연계기관에 열림터 특성과 기능을 상세히 알려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안정적인 후원회원 유치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퇴소자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 진행내용:
 - 블로그의 경우, yeolim.or.kr 도메인 등록하여,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열림터 블로그로 접근 가능해짐. 재개 이후 방문자 약 7배 상승하였고 방명록을 통한 현물 후원 문의 1건 있었음. 또한 활동가 숙직일기와 생활인 후기 등에 관심을 가진 댓글이 달린 경우가 있었음. 포스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월 | 포스팅 개수 | 내용 |
|----|-----------|--|
| 4월 | 8개 | 생존자의 목소리(나눔터 원고), 열림터 다이어리(나눔터 원고), 성인권교육 생활인 후기, 퇴소자모임 홍보(5월), 4월 열림터소식 |
| 5월 | 3개 | 숙직일기(1회), 생존자의 목소리(나눔터 원고), 퇴소자모임 활동가 후기 |
| 6월 | 1개 | 5월 열림터소식 |
| 7월 | 3개 | 6월 열림터소식, 퇴소자모임 홍보(7월), 숙직일기(2회) |

| | | |
|-----|----|--|
| 8월 | 4개 | 생존자의 목소리(나눔터 원고), 7월 열림터소식, 열림터 다이어리(나눔터), 열림터 생일잔치 홍보 |
| 9월 | 2개 | 8월 열림터 소식, 열림터 생일잔치 생활인 후기 |
| 10월 | 4개 | 9월 열림터 소식, 심신회복캠프 활동가 후기, 25주년 포럼 홍보, 25주년 후원의 밤 홍보 |
| 11월 | 2개 | 10월 열림터 소식, 세계여성심터대회 활동가 후기(1) |

- 이메일소식지 : 매월 말일에 한 달간 열림터 생활에 대해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공유함.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현장감을 높이는 사진이나 블로그 후기 등을 첨부하여 전달력을 높이고자 함
- 정기후원회원의 경우(2019년 11월말 기준), 신규 약정 55명 중 실후원 50명, 후원중단 16명으로 2018년(51명 약정 중 실기부 46명, 후원중단 31명)에 비해 약정과 실기부수가 소소하게 증가하였으며 후원중단 수는 비슷함.
- 해피빈 공기부함 : 퇴소자 중 특별후원금이 필요한 사례가 없어 진행하지 않음

• 결산

| 후원금수입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상반기 누적 |
|---------|-------|-------|-------|-------|-------|-------|--------|
| 신규증액 | 7 | 5 | 2 | 7 | 4 | 9 | 34 |
| 활동가 권유 | 2 | 0 | 0 | 5 | 1 | 0 | 8 |
| 중단·탈퇴 | 1 | 0 | 1 | 0 | 2 | 2 | 6 |
| 정기회원 | 150 | 157 | 155 | 157 | 167 | 166 | 952 |
| 정기회비 | 4,580 | 4,521 | 4,441 | 4,646 | 4,766 | 4,571 | 27,525 |
| 일사·평생회비 | 3,743 | 2,551 | 88 | 57 | 82 | 50 | 6,571 |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하반기 누적 |
| 신규증액 | 6 | 2 | 4 | 2 | 7 | | 21 |
| 활동가 권유 | 2 | 1 | 2 | 0 | 0 | | 5 |
| 중단·탈퇴 | 3 | 2 | 0 | 2 | 3 | | 10 |
| 정기회원 | 180 | 181 | 181 | 187 | 185 | | 914 |
| 정기회비 | 4,506 | 4,501 | 4,441 | 4,576 | 4,213 | | 22,237 |
| 일사·평생회비 | 30 | 30 | 148 | 236 | 4,301 | | 4,745 |

| 지출항목 | 내역 | 집행액(원) |
|----------------------|--------------|-----------|
| CMS 이용료 | 44,000원×12개월 | 528,000 |
| CMS 수수료 | | 373,600 |
| yeolim.or.kr 도메인 구입비 | 도메인 10년 등록 | 229,000 |
| 계 | | 1,130,600 |

• 평가:

- 블로그의 경우, 기존 열림터 관련 글은 상담소 블로그, 후원회원 개별 메일, 나눔터에 산발적으로 게시되었음. 열림터의 논의를 한 장소에 아카이빙한다는 점에서 블로그 활동 재개가 의미를 가짐. 열림터 홍보의 새로운 채널을 열어 더 많은 지지자와 후원인을 모집하는 단초를 마련함. 하지만 블로그 접속자 수가 적고, 블로그 자체의 홍보가 미진함. 상담소 블로그처럼 상담소 홈페이지에 후기를 게시하거나, 상담소처럼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블로그 글을 업로드 하는 등 새로운 홍보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하반기부터 미납 3/6개월마다 안내문자를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12월 중, 장기미납자(최근 2년간 미납회수 12회 이상) 4명을 후원 일시중단 처리하고 안내문자를 발송함

- 신규후원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고 기부감경 기사를 보고 후원을 결심한 계기가 있어 취재 등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음. 후원 신청 후 확인 전화를 할 때 기부자들이 진정한 후원자인지 감경을 목적으로 한 가해자인지 탐문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 같음. 가해자를 판별해 내지 못하면 기부감경을 받게 되는 책임이 담당자에 있는 것 같고 후원회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고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어렵게 느껴짐
- 일시후원 중, 계모임 디모스에서 열림터의 활동 내용과 후원금 사용처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 임팩트 투자를 받았음. 사전 미팅과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하여 열림터의 활동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단순 기부가 아니라 함께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향후 계획:
 - 블로그의 경우, 매달 최소 2개의 포스팅을 게시하여 기존 열림터 논의를 수집·정리하고 새로운 논의를 생산하고자 노력했음. 그러나 열림터 행사 홍보나 소식지 게시와 같은 포스팅이 다수를 차지함.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열림터 활동가들의 활동 기록(숙직일기)과 생활인 글을 독려하고자 함. 지속적인 포스팅을 통해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막연함을 해소하여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적절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외부 노출이 더 필요한 포스팅(생활인 글, 활동가 고민 글)의 경우 상담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안을 활용하고자 함
 - 상담소 사무국과 기부감경 사례 대응을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자 함
 - 언론 보도 이외에도 기존회원의 권유로 신규회원가입을 하거나 단체/현물후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잦아 대외활동 및 기존회원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함

2-3. 25주년 기념 포럼

- 배경/필요성 : 열림터는 최초의 여성주의 쉼터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서 전국적인 쉼터 개소로 전국에서 동일한 생활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음. 개소 25주년을 기념하여 그간 열림터에서 전개한 여성주의 쉼터 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현황을 바탕으로 여성주의 쉼터의 역할을 촘촘하게 정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여 쉼터 운동을 여성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견인하고자 함.
- 목표: 피해자 지원 현장의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운영방향을 모색하여 여성주의 쉼터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 방법 및 계획:
 - 일정: 세부 주제 선정(1~3월), 실행계획 수립(4~5월), 참여자 섭외 및 기획회의, 기관방문(6~9월), 포럼 진행(10월), 자료집 발간(11~12월)
 - 기관방문: ①폭력피해(여성)쉼터 : 수도권 지역 내 가정폭력쉼터, 청소년쉼터, 성매매쉼터 방문하여 각 시설별 역할들과 운영 상황을 파악함. ②연계기관: 주요 연계의뢰를 하고 있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쉼터 등을 방문하여 열림터에 대한 기대 및 건의사항, 문제의식 등을 확인함.
- 기대효과:
 - 개별적 지원에 치우치기 쉬운 열림터 활동이 상담소의 반성폭력운동과 연동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주의 쉼터의 고민과 지향점을 유사시설 및 연계기관과 공유하여 활동 영역 및 연대 범위의 확장을 꾀함.
- 진행내용:

| 일 정 | 주 요 내 용 | 세 부 추 진 내 용 |
|-------|---------|---|
| 3월 | 기획 | - 포럼 발표 주제 선정 및 전체 기획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및 입소연계 통계 정리 - 기관방문 인터뷰 질문 구체화 |
| 4월~8월 | 기관방문 | - 총 14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방문 |

| | | |
|---------|-------|--|
| 7월~8월 | 세부 기획 | - 발제 세부 기획 - 발제자 및 토론자 섭외 |
| 9월~10월 | 사전 준비 | - 열림터+사무국+연구소 회의를 통한 발표문 내용 검토 - 토론문 마감 - 자료집 편집 디자인 의뢰 및 인쇄 - 포럼 홍보 (회원 메일 및 문자, SNS, 전시협,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hrnet, 여성단체 메일링 등) - 보도자료 배포 |
| 10월 30일 | 포럼 진행 | |
| 11월 | 후속작업 | - 자료집 홈페이지 발행 - 전시협 소속 보호시설, 특별시설 자료집 우편발송 - 후기 발행 |

• 평가:

- 개소 25주년 기념 토론회에 84명 사전신청 중 46명 실참여, 현장접수 31명. 약 80여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추산함. 공간의 여유가 있었고, 적정 인원이 참여하여 행사 분위기가 쾌적했음. 상근활동가들이 모두 진행과정에 참여해 역할분담을 하여 원만하게 행사 진행을 할 수 있었음. 다만 후원의 밤과 연달아 행사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음.
- 기관방문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 각자 어떤 방식으로 시설 철학에 맞는 운영의 변화를 도모하는지 공유할 수 있었음. 각 시설마다 출산을 급감으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감소, 쉼터 내부운영규칙에 대한 반발, 공동 생활이 야기하는 주거불편감, 장기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 증가를 겪는 것을 파악함. 이에 ①내부운영규칙 자율화와, ②사생활을 보장하는 1인 공간 조성, ③퇴소 후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나눔.
- 열림터 활동가들의 고민을 녹여 낸 발표 자료를 생산함. ‘보호’가 통제가 되지 않고 상호돌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퇴소가 생존자 지원의 완료가 아니기에 퇴소 후 지원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큰 공감대를 얻었음. 이후 이 내용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피해지원 매뉴얼에 담음. 상담원의 자세 원고에는 보호의 관점에 관한 내용과, 퇴소인 지원 원고에는 퇴소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 발표와 토론의 유기성이 다소 미흡했음. 토론자 사전 미팅을 통해 발제와 토론 방향을 맞춰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음.
- 열림터 일상업무 와중에도 25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미래 방향 제시를 하며 열림터의 존재와 활동 방식을 알렸다는 의의가 큼.
- 참가자 평가 :

| 구성 | 내용 | 장소 | 시간 | 행사 인지 경로 (중복, 명) | | 참여 동기(중복, 명) | |
|------------|------------|------------|------------|------------------|----|----------------------|----|
| 4.6/ 5점 | 4.6/ 5점 | 4.6/ 5점 | 4.5/ 5점 | 홈페이지 | 4 | 시설지원과 활동방안을 고민하고 있어서 | 24 |
| | | | | 뭔다 소식지 | 4 | 열림터 활동이 궁금해서 | 12 |
| | | | | SNS | 15 | 상담소 행사를 신뢰해서 | 9 |
| | | | | 주변인 추천 | 19 |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 0 |
| | | | | 기타 | 13 | 기타 | 5 |

• 향후 계획:

1. 열림터 입퇴소인 통계 자료 정비 필요.
2. 포럼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연구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과제 발굴 필요. 적정 주거권, 의존하는 자립, 보호의 딜레마(시설과 시설화)와 같이 현재 다른 단체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주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2-4. 대외/연대활동, 국제교류

- 배경/필요성 : ① 열림터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특성상 홍보가 어려움. ② 열림터가 여성주의 쉼터로서의 활동 목표를 유관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대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열림터 활동을 대외적으로 확산하고 반성폭력 관련 단체 간 연대를 강화하여 반성폭력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한다. 정부 정책에 젠더감수성과 피해자관점 반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방법 및 계획: 강의, 자문, 토론, 인터뷰, 연대활동, 국제교류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열림터의 활동과 문제의식을 알린다.
- 진행내용 :

| 분 야 | 날 짜 | 내 용 |
|---------------------|-----------|---|
| 전국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 2/14 | 정기총회 |
| | 3/14-15 | 시설장역량강화워크샵 (노무교육) |
| | 4/5-11/12 | 협의회 임원회의 (1차-4차) |
| | 4/17 |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1주년토론회 |
| | 4/25 | 정책토론회 |
| | 8/8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업무매뉴얼기획회의 |
| | 8/22 |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평가위원교육 |
| | 11/26 | 협의회중사자인권교육 |
| 마포구지역 사회복지협의회 | 1/17 | 분과 회의 |
| | 3/21 | 분과 회의 |
| | 5/16 | 여성복지세미나「한부모여성의자립및자조」 |
| | 7/17 | 여성복지세미나「여성복지정책과현장의변화,그생생한 이야기」 |
| | 9/18 | 여성복지세미나「이주여성의자녀지원체계 패러다임변화」 |
| | 11/15 | 마포여성네트워크활동공유,마포여성정책에 대한 제안 및 평가 |
| 청소년주거권 네트워크 | 3/25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초동 모임 |
| | 4/22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주거권 역사 및 과제 탐색 |
| | 5/14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청소년 관련 법정책 탐색 |
| | 6/18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홀리스주거권 및 장애인탈시설 운동 청강 |
| | 7/23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청소년 주거 정책 현황 요약 및 공유 |
| | 9/23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청소년 주거 지원 실습 과제 공유 |
| | 10/22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해외 청소년 주거권 사례 공유 |
| | 11/26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청소년정책 의견 수렴 간담회, 현장연구 개괄 및 청소년 시설화에 대한 정의 |
| | 12/17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 국제교류 | 11/5-8 | 제4차 세계여성쉼터대회(전혜영, 류수민) |

• 평가 :

- 주거권 운동을 하고있는 다른 영역의 활동가들을 만나 문제의식이 맞는 지점과 청소년 주거권 운동의 특수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해외 사례를 탐색하면서 어떤 형태의 청소년 주거 정책을 제안할 것인지 계속 탐색하고 있으나 올해는 기본 지식을 쌓는 해로 큰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함
-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의 목적이 시설 전면 철폐나 시설의 다양화로 오해되고 있어 섬세하게 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하반기에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의 방향성을 정리함. 청소년에게 주거가 아니라 시설만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과 시설의 '시설화'에 문제제기하기로. 이에 '시설화'를 지양하는 시설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 등이 생산됨

- 25주년 포럼에서도 논의했던 ‘보호 시설’ 형태에서 가지게 되는 보호 권력과 여성주의 운동 사이의 딜레마를 정책·현실 차원에서 해결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연대활동이었음

목표3. 더 많은 주체들의 활동참여, 연대와 성장

3-1. 생활인 대상 성인권교육

- 배경/필요성: ①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주의 쉼터로서 열림터의 기능을 기대하는 생활인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②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가 발생한 맥락을 파악하여 향후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성인권 교육을 통해 생활인들이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한다.
- 방법 및 계획 :
 - 상/하반기 각 6주씩 강의를 담당한 활동가가 격주로 월요일 숙직 공부시간을 이용하여 강의,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생활인들의 참여를 높임
 - 마지막 회기는 1-5회기 내용을 정리, 평가하거나 생활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신규 주제 편성함
- 기대효과
 - 생활인들이 상담소의 반성폭력운동, 열림터 운영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됨.
 - 성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함.
 - 성폭력을 비롯한 위기상황에 대한 재피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상반기 진행내용

| 회기 | 일시 | 주제 | 강사 |
|-----|------|---------------------------------|-----|
| 1회기 | 1/21 | 상담소의 역사, 활동 | 지리산 |
| 2회기 | 1/28 | 우리 사회의 성문화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성문화 등) | 감이 |
| 3회기 | 2/11 | 여성주의 인식론의 이해 | 파이 |
| 중간 | 2/18 | 탈코르셋, 미러링 관련 난상토론 | 감이 |
| 4회기 | 2/25 | 성폭력 탐구(개념 및 유형, 통념 등) | 란 |
| 5회기 | 3/4 | 수사/재판과정, 피해자권리보장제도 | 조은희 |
| 6회기 | 3/10 | 정리 및 평가 | 사자 |

• 하반기 진행내용

| 회기 | 일시 | 주제 | 강사 |
|-----|-------|-------------|-----|
| 1회기 | 9/23 | 차별있수다 | 신아 |
| 2회기 | 9/30 | 섹슈얼리티 워크북 | 유랑 |
| 3회기 | 10/14 | 성소수자 이해하기 | 달별 |
| 4회기 | 10/21 | 보통의 연대 | 얌 |
| 5회기 | 11/11 | 상담소의 역사, 활동 | 지리산 |
| 6회기 | 12/15 | 정리 및 평가 | 사자 |

• 상반기 평가:

- 상담소의 반성폭력운동의 역사를 흥미 있게 들었으며 최근 미투 운동을 비롯하여 낙태죄 폐지 운동 등

상담소의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짐. 탈코르셋과 미러링 등 생활인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져 관심이 높았음

• 하반기 평가:

- 상반기 교육에 참여했던 생활인의 퇴소로 하반기에는 대부분 청소년인 생활인이 교육에 참여함. 상반기에는 생활인들의 성인권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면 하반기 생활인들은 다소 수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음. 참여의 적극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음. 개인적 경험을 반영하면서 의견 표현을 한 경우가 많았고, 각자의 궁금증과 의견을 활발하게 표현하기도 함

• 향후 계획:

- 기본 주제는 같게 하되 생활인구성에 따라 진행과 내용을 다르게 기획하여 진행하여야 함

3-2. 치료회복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①(성교육/자기방어훈련) 생활인들은 입소 전 장기적으로 피해에 노출되면서 위기상황 대처 능력 및 성에 대한 이해와 자기고민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음. ②(심신회복캠프) 공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동의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열림터 적응을 돕는 계기가 필요함.

- 목표: 성교육, 자기방어훈련, 심신회복캠프를 통해 생활인의 치유회복 및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 방법 및 계획:

- 성교육(호연/인권교육센터 들) : 교육 전, 후 회의로 각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생활인에게 맞는 성교육 제공
- 자기방어훈련(최하란/스쿨오브브먼트): 동일한 강사와 꾸준히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실습을 하면서 피해 경험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확인하고 재피해 위험을 감소시킴
- 심신회복캠프: 여행지와 숙소를 제외한 여행계획을 생활인들이 공모하여 여행에 대한 흥미 및 주체성을 높임
- 생활인들에게 프로그램 참가 후기 작성할 것을 독려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 의미 등을 스스로 정리하고 열림터 블로그를 통해 이를 외화함.

• 기대효과

- 성교육 및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피해로부터의 치유회복을 도모
- 캠프를 통해 공동의 즐거운 경험을 함으로써 소속감 및 친밀도를 높임

• 진행내용:

| 프로그램명 | 일시 | 내용 |
|--------|--------------------|--|
| 성교육 | 7.1.~12.31.(7명) | 참여자의 욕구 및 상황에 따라 젠더 및 섹슈얼리티의 이해, 친밀한 관계와 폭력, 몸에 대한 이해와 피임, 성지식 점검 등 성에 대한 자기고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 자기방어훈련 | 3.2.~6.22.(15회기) | 스트레칭과 건강관리 및 자기방어의 이론, 다양한 공격 방어 연습, 실제 상황 대비 연습 |
| 심신회복캠프 | 9.28.~9.29.(1박 2일) | 가평 일대에서 남이섬 관광, 레일바이크 등을 체험 |

• 평가 :

- 사업비 입금을 5월 초에 받아 자기방어훈련이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후인데다 입소 정원 감소 영향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음. 내년에는 사업비 산출할 때 프로그램 시작 시기를 뒤로 늦추거나 가수금 사용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후 사업비 입금 지연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성교육의 경우, 생활인 개별 사례에 맞게 적절히 주제와 내용을 구성하여 대부분 만족도가 높았으나 통념과 자기 정체성이 연결된 경우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하였음. 성교육 이외에도 성인지 감수성 및 평등에 대한 관점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기방어훈련의 경우, 안전한 공간에서 동일한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여 안정감이 있었음. 다만, 생활인 입 퇴소가 잦아 15회기 중 60% 이상(치료회복프로그램 이수 기준) 참석자는 전체 참석자 10명 중 4명임. 다양한 참가자가 자기방어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훈련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로 역량강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이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심신회복캠프의 경우, 생활인 참여형으로 2년째 기획하고 있으나 참여도가 매우 낮아 기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계획 :
 - 생활인들의 연령대와 상황, 요구 등을 종합하여 내년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3-3. 퇴소자모임

- 배경/필요성: ① 열림터 생활인의 대다수는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로 퇴소/자립 시 원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움. ②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대와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퇴소자들에게 제기되고 있음. ③ ②를 위해서는 열림터라는 물리적인 공간과 당시 함께 생활했던 활동가 및 생활인이 현재 열림터에 있는지가 중요한데 활동가 퇴사나 바쁜 일상 등으로 지속되기 어려웠음. ④ 상담소 작은말하기처럼 성폭력 피해생존자이자 열림터 퇴소자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상 및 고충, 피해경험 공유 등을 통해 퇴소자 간 지지와 연대 체계를 꾸릴 필요가 있음.
- 목표: 퇴소자들과 전·현 활동가들이 모여 퇴소자모임의 상을 기획하고 정례화한다.
- 방법 및 계획:
 - 작년 퇴소자 모임(6월 말, 1회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할 점 및 연간 일정 논의
 - 9월 퇴소자모임에서 25주년 생일잔치 함께 진행하여 생활인 및 퇴소자들과 열림터 생활 및 지원에 대한 평가, 열림터의 향후 역할에 대해 토론했을 예정
 - 전·현활동가 초기 기획 모임 및 첫 퇴소자모임에서 경제교육 등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 대비하여 강사진 구상 및 예산 산정
 - 일정
 - : 전·현 활동가 초기 기획 모임 (2월)
 - : 퇴소자모임 안내 (2, 4, 6, 8, 10월 말)
 - : 퇴소자모임 실행 (3월 ~ 11월/ 9월 열림터 25주년 생일잔치)
- 기대효과
 - 정기적인 열림터 퇴소자모임을 통해서 퇴소 이후 고립되지 않고 서로 지지와 연대가 가능해짐
 - 퇴사한 활동가나 전 활동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퇴소자들과 유대를 유지할 수 있음
 - 생활인들이 퇴소에 대해 느끼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감소할 수 있음
- 진행내용:

| 일시 | 장소 | 참석자 수 |
|----------|-----------|-------------------|
| 3/19(화) | 이안젤라홀 | 도우리 7인, 전 활동가 4명 |
| 5/24(금) | 상담소 인근 카페 | 도우리 16인, 전 활동가 3명 |
| 7/26(금) | 상담소 인근 카페 | 도우리 12명, 전 활동가 5명 |
| 9/21(토) | 이안젤라홀 | 도우리 16명, 전 활동가 5명 |
| 11/22(금) | 이안젤라홀 | 도우리 6명 |

- 평가:
 - 3월 간담회 형식, 5, 7월에는 고민상담, 9월에는 열림터 생일잔치, 11월에는 송년회 및 타임캡슐 만들기 등 시기에 맞게 적절히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음. 특히 고민상담의 경우, 열림터 퇴소자라는 공통의 정체성

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고민 상담을 하여 상황에 밀착된 조언을 주고 받을 수 있었음

- 7월 모임에서 모임명과 퇴소인들을 가리키는 명칭인 '도우리'('또 만나요, 우리'의 줄임말)를 정해 소속감을 높임
-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여 모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모임 안내 등을 통해 주기적인 연락이 가능하였음. 같은 기간에 생활하지 않았던 도우리들 간의 관계가 생겨 모임 이외에도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의 변화도 생겼음. 또한 주기적인 만남이 계획되니 개별상담 횟수가 줄어들었음
- 상세하게 기획하지 못해 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되었지만 전체 퇴소자지원 예산 안에서 감당 가능한 정도였음. 지출 중 생일잔치 비중이 전체 지출의 42%(1,520,385원)로 가장 컸음. 모임이 안정된 편이라 이안젤라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관료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는 올해 지출을 참고하여 예산안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계획:
 - 1월에 명절 모임을 계획하였으나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한 회기 쉼 뒤 3월부터 다시 진행하고자 함
 - 꾸준히 참석하는 도우리들의 비율이 높으므로 3월에 다시 의사를 수렴하여 연간 계획을 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4.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및 소진예방

- 배경/필요성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피해로 인한 자해자살 충동을 호소하거나 정신과 약물복용 중인 생활인이 다수 입소함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지원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기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활인 지원의 최적화를 도모한다. / 휴가 사용 및 교육 연수 참여, 출장 등을 통해 활동가의 소진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열림터 운영을 꾀한다.
- 방법 및 계획:
 - 연 6회 이상의 정신질환/트라우마/자해자살 사례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시행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함.
 - 생활인 사례연구를 통해 전문가 소견 및 상근활동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지원방향을 찾도록 함.
 - 전문교육: 아래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1~3회 진행하며 주제에 따라 생활인 지원사례 피드백을 받아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법에 대한 촘촘한 이해를 도모함.
 - 생활인 사례연구: 지원 방향 설정에 난항을 겪는 생활인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의 공백 및 보완점을 발견하여 생활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함. 열림터 지원의 경험 공유를 위해 상반기 여성주의 상담팀(6월, 종결사례연구), 하반기 열림터 1회로 진행(11월, 생활인사례연구)
 - 주간, 월간으로 숙직 일정을 검토하여 연속된 숙직 일정으로 인한 활동가 소진을 예방함
 - 휴가 사용 및 교육 연수, 출장 등을 서로 적극 격려하여 적절한 쉼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함
 - 활동가의 치유를 위한 아로마테라피
- 기대효과
 -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활동가들의 대리외상을 줄이고 문제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음
 - 최적의 생활인 지원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
- 진행내용:

| | 주제 | 강사 |
|---------------|-----------------------|--------------------|
| 8/7(수) 14:00 | PTSD 및 트라우마의 이해 | 주혜명 마음챙김 연구소장 |
| 4/18(목) 10:00 | 정신장애 생활인 지원 및 약물처방 이해 | 송지혜 해솔마음클리닉 신촌점 원장 |
| 3/26(화) 10:00 | 자해자살예방교육 | 채송희 더트리그룹 심리상담사 |

| | | |
|---------------|------------------|------------------|
| 8/22(목) 10:00 | 금융역량강화 | 한선경 관촬아요협동조합 이사장 |
| 7/1~2 | 열림터 MT | - |
| 11/27 12:00 | 생활인 사례연구 | |
| 12/11(수)18:30 | 활동가치유를 위한 아로마테라피 | 주혜명마음챙김 연구소장 |

• 평가:

- 8월까지 총 4회기 교육을 기획하여 시행 중임. 작년 활동에서 비롯된 고민을 바탕으로 교육을 기획하여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자해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위기상황 대처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었음
- 생활인들의 금전 문제가 다수 목격되어 생활인의 금전관련 욕구 및 지원 방향에 대한 강의를 1회 추가함
- 미리 휴가, 근무 일정 변경 등을 공유하여 적절하게 대체 숙직자를 구함.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결합을 통해 열림터 활동을 알리고, 다른 단체들과 고민을 나누는 등의 교류함. 시설이나 주거권 관련 자료, 정보를 알게 되는 등 활동가 역량을 강화함. 네트워크에서의 자료를 다른 활동가들과 어떻게 공유할지 추후 고민 필요함
- 전 활동가와 사례를 공유하여 지원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의 선결과제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향후 계획:

- 소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을 활동가의 요구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진행토록 함

3-5. 운영위원회 운영

- 배경/필요성 : 열림터 활동가들의 자원만으로는 생활인 지원 및 열림터 운영의 묘수를 다각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움. 다양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영위원들과 적극 소통하여 생활인 지원이나 향후 열림터 활동에 대한 의견, 정보들이 열림터 운영에 반영할 필요 있음. 또한 열림터의 쉼터 운동 방향이 운영위원들을 통해 외부로 확산되고 다양한 의견이 열림터로 환류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가 필요함.

- 목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영위원 및 전 활동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열림터 운영의 묘수를 찾고 안팎으로 여성주의 쉼터 운동의 원동력을 찾는다.

• 방법 및 계획:

- 상, 하반기 각 1회씩 진행(6/17, 11/18 월요일)
- 신규운영위원 위촉(1인 이상)
- 상시 자문 활성화: 전 활동가들의 경험과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소통함

• 기대효과

- 운영위원회의 방법을 다각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

• 진행내용:

| 일시 | 참석자 | 논의 내용 |
|------|-----------------------------------|---|
| 6/17 | 송미현, 문숙영, 이미경, 김의창, 류수민, 정정희 | - 열림터 상반기 운영 보고 - 열림터 생일잔치 (장소 : 이안젤라홀, 일시 : 2019년 9월 21일(토)) - 25주년 포럼 관련 준비 내용 공유함 |
| 9/4 | 송미현, 문숙영, 이어진, 이미경, 정정희, 류수민, 전해영 | - 25주년 후원의 밤 행사 안내 및 협조 요청 - 25주년 포럼 진행 관련 의견 참고 |

• 평가:

- 열림터 운영 전반에 관해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열림터 25주년 포럼, 후원의밤 행사 진행 방향과 방안에 대해 논의함

- 향후 계획: 신규운영위원을 1인 이상 위촉하여 운영위원회가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목표4. 평등한 공간, 조직, 사회와 좋은 삶 만들어 가기

4-1. 일상생활지원

- 배경/필요성 : 입소자가 갖은 열림터 특성상 생활인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이 매우 다름. 입소 이후 생활인의 욕구와 현재 필요한 지원 내용을 사정하여 지원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또한 생활인 간의 지원 편차를 줄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여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야 함.
- 목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야 할 생활인들에게 특성에 따른 개별적 지원을 함으로써 치유회복 및 자립계획 도움이 되도록 함.
- 계획:

| | |
|-----------------------|---|
| 입소의뢰 | 입소의뢰서 양식을 수정, 보완하여 향후 지원통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 |
| 입·퇴소 지원 | 연계기관에 대한 홍보 활발히 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성폭력 피해생존자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 퇴소 전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소 이후 가능한 지원 내용을 안내하여 열림터와 지속적인 교류할 수 있도록 독려 |
| 생활지원 | 용돈, 교통비, 미용비, 의류구입비, 문화생활비, 체력단련비 등 지급 외식(명절, 퇴소환송회 등) 입소사실확인서 등 필요서류 발급 주민센터, 은행 등 기관 동행 가족회의 |
| 생활상담지원 | 지원통계 양식에 맞춰 분석할 수 있도록 생활상담일지 양식 변경 |
| 심리치료지원 (성폭력피해자치료비) | 입소 후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으로 열림터 적응과 치유회복을 도움 사례별 반기 1회 팀미팅 |
| 법률지원 | 사례별 상황에 맞는 법률지원 |
| 의료지원 | 병원비, 약제비 지급/ 병의원 동행 등 상비약품 비치, 응급처치 등 |
| 학교·학습지원 | 사례별로 학교 전학 및 학교 생활 적응, 부족한 학습 지원 |
|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 사례별로 진로 및 자립계획을 구상하는데 조력 |
| 정서문화지원 | 생활인들의 문화생활비 신청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청 방법 간소화 정서문화지원과 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일상생활지원의 영역으로 일원화 |

• 기대효과

- 생활인들 개개인에 맞는 지원을 통해 열림터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심신회복에 도움이 됨

• 진행내용:

1. 입소 의뢰

- 진행내용: 총 54건. (입소의뢰서 21건, 실제 입소 10건, 단순 문의 14건, 시설거절 21건, 본인거절 9건)
- 시설 거절 사유 : 유아동 피해, 남아 동반 가족, 발달장애 2급-3급, 정신장애, 수면 중 자해증상, 자살 시도, 반려동물 동반, 연예 활동 → 연계기관 안내함

본인 거절 사유 : 쉼터 입소 거부, 당일 입소 원함, 심경변화

2. 입퇴소현황

| 전년말 인원 | 입소자 (10명) | | 퇴소자(12명) | | 퇴소 사유 | | | | | 현원 |
|--------|-----------|----|----------|----|-------|----|----|--------|--------|----|
| | 청소년 | 성인 | 청소년 | 성인 | 부적응 | 귀가 | 자립 | 주거지원시설 | 타시설 연계 | |
| 7 | 7 | 3 | 5 | 6 | 2 | 4 | 3 | 3 | 1 | 5 |

*부적응 2인 모두 귀가함. 1인은 위치노출로 타시설로 연계함

3. 지원 현황

| 상담 지원 | 생활 지원 | 법률 지원 | 의료 지원 | 학교·학 습지원 | 직업 훈련 지원 | 정서문 화지원 | 치료회복 프로그램 | 퇴소자 지원 | 합계(건) |
|-------|-------|-------|-------|----------|----------|---------|-----------|--------|-------|
| 192 | 433 | 75 | 401 | 197 | 48 | 230 | 107 | 272 | 1,955 |

• 평가:

- 당일 입소요구, 심각한 자해 경험/위험인 경우 입소를 거절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논의필요
-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식주 전반에 관한 다양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짐
- 생활 속 작은 규칙들을 위반했을 때 부여하는 벌점방식 축소로 생활인 만족도가 높아짐

• 향후 계획:

- 상·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와 내부 회의를 통해 생활인 개개인의 상황과 특성 고려하는 방안 모색

4-2. 생활인과 만드는 운영규칙

• 배경/필요성: 현재 생활규칙 및 지원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 생활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가족회의를 통한 문제제기 → 활동가 주간업무회의를 통해 논의 → 변경된 내용 가족회의 통해 공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생활인들이 적극성이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 수동적인 지원의 대상에서 적극적인 열림터 생활의 주인으로서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및 반영 과정을 가시화하려 함.

• 목표: 생활인들이 자기 권리를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방법 및 계획:

- 매주 가족회의를 직접 진행하면서 공동체의 규칙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나눔.
- 건의함을 통해 제안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규합, 점검하여 생활인 및 활동가들과 논의 과정을 거침
- 반기별로 개인면담(반기 이전 퇴소한 경우 퇴소인터뷰 활용)을 통해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규칙에 반영함

• 기대효과

-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경험하며 주인의식 및 책임감 함양, 공동생활에 따르는 갈등이 최소화됨

• 진행내용: 매주 가족회의를 진행.

- 6/12일 상반기, 12/16일 하반기 생활인 운영평가 실시

(생활환경, 열림터 운영, 열림터 지원 내용 - 상담, 학습, 취미여가, 자립지원, 열림터 내의 인권)

- 상반기 퇴소한 6인 중 4인의 퇴소 인터뷰 실시함

- 평가:

- 건의함 설치를 생활인이 제안했으나 설치 후 이용은 전무함. 가족회의가 목표했던 다양한 의견 표출의 장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생활환경과 열림터 운영에 대한 생활인 평가를 받으며 현 생활인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음. 열림터 내의 인권침해 사안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시설 환경을 보수하며, 폭력 상황에 대한 내년도 프로그램을 구상해보기도 함.

- 향후 계획:

- 운영평가 설문 설계를 계속 보완하며 생활인들의 의견나눔이 더욱 용이하게 만들. 운영평가 내용을 토대로 의견 수렴하고 소통함.

4-3. 환경식생활안전교육

- 배경/필요성 : ① 공동생활을 하는 열림터의 청결하고 건강한 환경 유지를 위해 개인위생의 영향과 필요성을 알고 실천하여 자신과 생활인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② 열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과 여성들은 주로 불규칙적인 식사, 과식, 편식 등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결핍요소가 많은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는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습관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자극이 부재하였음. ③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 내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 마련에 대한 생활인의 의지를 함양하고 건강한 식생활 및 안전한 생활공간 만든다.

- 방법 및 계획:

- 환경·식생활교육: 격월 1회 가족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시행, 2~3개의 주제를 정하여 PPT 자료 및 OX퀴즈 생활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
- 안전교육: 연간 2회(2, 8월) 보라매안전체험관 방문하여 재난체험(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 기대효과

- 공동생활에 필요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음
- 개인위생 및 식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실천하며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관리능력 향상.
-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 자신감을 키움

- 진행내용

- 환경·식생활교육 :

- 상반기 격월 1회에서 하반기에는 매월 1회로 변경하여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실시함. 현재 총 8회 실시되었음. (4월 활동가 MT, 9월 25주년 행사로 미실시)
- 개인위생, 식생활, 의생활, 보건에 관한 내용을 PPT자료 이용과 OX퀴즈, 이야기 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진행함
- 안전교육 : 격월로 안전교육 진행. 2월 2일, 8월 31일 2회 보라매안전체험관 방문하여 재난체험 진행(1회 9명, 2회 7명 참여)

- 평가

- 환경·식생활교육 : 생활인들이 성실하게 참여하였음. 생활교육의 목적이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관리능력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개별수준을 체크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인의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제약이 있었으나 하반기에 흥미와 적극적인 피드백이 증가하여 짧게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 보게 됨

- 안전교육 : 안전체험을 통해 지진, 화재, 수해 등의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며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시 대처방안을 배움. 연 2회(2월, 8월)에 실시되어 입소한 생활인들 대부분의 참여가 가능했음
- 향후 계획
- 환경·식생활교육 진행 시 개인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간을 더 배분하고자 함.
-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보라매안전체험관 방문하여 재난안전체험을 하고, 생활인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의 참여를 늘려가고자 함.

4-4. 퇴소 후 지원

- 배경/필요성 : 퇴소자모임과 필요성은 동일하지만 퇴소 이후에도 바로 온전한 자립이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생활상담이나 법률지원 등 상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퇴소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다.
- 방법 및 계획:
- 퇴소지원금: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은 미성년 시기에 입소하여 1년 이상 생활, 성년 시기에 퇴소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1년 이상 생활한 퇴소자에게도 일정의 퇴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1인 100만원).
- 자립물품지원: 퇴소 시 생활할 공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1인 최대 20만원)
- 개인면담: 필요 시
- 주거지원시설: 여성가족부/서울시에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공고 시 적극적으로 시설 물색하여 진행
- 기대효과: 꾸준한 지원을 통해 퇴소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열림터와의 관계를 유지함
- 진행내용:
- 심리 상담이 필요한 퇴소자에게 퇴소 후 3개월간 치료비지원(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예산에서 지출), 생활 상담이 필요한 퇴소자들과 지속적으로 전화 및 면담, 사건 진행 중 퇴소한 경우 지속 지원, 고소 관련 법률상담, 우편발송비, 퇴소시 물품 택배비 지원, 퇴소 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지급 등
- 평가:
- 인적, 물적·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퇴소인에 대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퇴소 이후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건강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게 지원하였음
- 물적 지원 이외에도 퇴소 후 나눔터나 열림터 블로그에 피해 경험이나 퇴소자모임 참가 후기, 자립 후기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나 입소 중 1인당 지원 한도(300만원)가 이미 초과한 경우가 대다수라 심리상담 및 정신과 약물처방 비용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년 이상 활동가가 증가함으로 지속적인 연락과 상담이 가능하게 되어 예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됨. 퇴소자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개인면담의 횟수가 줄어들어 예산 절감 및 활동가 부담이 줄어들
- 향후 계획:
- 퇴소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며 향후 새로운 지원 상황에 맞추어 저변을 확대할 예정임

2019 부설 연구소 올림 활동 보고

| 활동목표 | | | |
|--|---|--|--|
|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장벽 밀기 |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 함께 높이기 | 더 많은 주체들과 연대하고 성장하기 | 평등한 공간, 조직, 사회 와 좋은 삶 만들어가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피해 상담일지분석 연구포럼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3호 발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반성폭력 연구 동향 분석 - 상담일지분석을 통한 현장기반 반성폭력 운동 자료 축적 - 여성주의 연구활동 연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VRC 활동가 역량 '뽐뽐' 프로그램 - 연구소 자문위원 & 객원연구원 재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VRC '보라! 페미니즘 책방' 운영 - KSVRC 발간 및 참여 활동 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토대 다지기 |
| 2019년 우리의 움직임 | | | |
|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 | 지속가능한 운동 만들기 | |
| 연구 결과 담론화 | |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기회 만들기 | |

총평

- 연구포럼 개최 및 강의, 토론회 등의 외부활동 연대를 통해 상담일지분석 연구결과를 알리고 담론화하는 것에 노력함. 연구포럼의 경우 상담현장을 중심으로 2018년 미투운동을 언어화하고, 2019년에 진행되어야 할 현장중심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학술지 게재를 통해 논의의 장을 확대함
- 활동가교육 참여 뿐만 아니라 강의 모니터링 참여, 실전 투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외부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의 기초를 마련함. '뽐뽐'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활동가가 다양한 외부활동 참여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실제로 참여하면서 외부의 주체들과 연대하는 접촉면이 넓어짐
- '최협의설 폐지 및 강간죄 개정'을 주제로 한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발간을 통해 관련한 연구 및 쟁점을 정리하고, 상담소의 입장을 대중과 공유하는 한가지 통로로서 외화함
- 연구보고서 및 포럼의 연구결과에 기반한 강의 및 아시아여성학대회 참가 등을 통해 여성주의 연구활동에 연대함으로써 현장을 바탕으로 한 쟁점들을 알려냄
- 신진연구활동가 발굴을 통해 연구소와 교류 및 연대하는 연구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1층 서고 정리 및 소장자료 이용수칙 제정을 통해 자료이용규칙을 마련하여 자료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중요한 소장자료를 분실하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함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성평등도서관에 단체 아카이브 생성 및 도서 기증을 통해 상담소 발간 자료들을 외화하는 통로를 모색하였고, 내부자료 아카이빙하는 방법을 모색 중임

목표1.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장벽 밀기

1-1. 성폭력 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포럼

•배경/필요성 :

- 2018년 한국에서 미투운동이 촉발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누적되어 임계치를 넘어왔음을 의미함. 이는 그간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이 '폭행·협박'을 증명해야 하는 최협의설을 고수하고 있어 성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고, 피해자들의 문제제기를 각종 역고소의 형태로 '보복'하는 가해자와 이를 부추기는 변호사 시장과도 연결되어 있음. 언론에 언급된 미투운동은 가해자가 주로 유명인인 경우가 많았지만,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유명인이 아니지만, 미투를 언급하거나 영향을 받은 상담과 사건을 지원해 줌
- 이러한 배경에서 성폭력상담소에서 기록하는 상담일지는 피해자의 상담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자료로서, 한국사회의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역사적 사료일 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임. 상담일지 분석은 피해자들이 성폭력피해 이후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어떤 지원을 기대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함
- 이에 연구소는 지난 10여 년간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과 성폭력상담소 4개소의 1년간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성폭력 상담현장에서의 시급한 요구들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적, 제도적, 문화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2018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으로 "성폭력 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음
- 본 연구의 결과는 2018년 미투운동과 그를 둘러싼 한국사회 제반 조건들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며, 2019년 초, 연구포럼의 형식으로 전국의 성폭력상담소 및 일반대중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운동과 이론의 언어를 만들어나가는 데 활용될 필요가 있음

•목표: 미투운동이 지속되기 위한 제반 조건 분석의 이론화, 대중화

•방법 및 계획:

-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함께 공동 연구포럼 개최
- 포럼 개요
 - 포럼명 :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 -
 - 일시 및 장소 : '19.1.29.(화) 14시~17시 / 창비서교빌딩*
 -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2길7 (6호선 망원역 인근)
 - 예상인원 : 120명 내외
 - 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내용 : 성폭력 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결과 발표
 - 세부일정

| 시 간 | 구분 | 내 용 |
|-------------|-------|--|
| 14:00~14:10 | [사회]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 14:10~15:10 | [발제1] |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올림 책임연구원) '생존'의 말하기 : 성폭력피해 상담일지의 의미와 분석 - 1년간 전국 4개 성폭력상담소의 '미투',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역고소 사례를 중심으로 - |

| | | |
|-------------|---------|--|
| | [발제2] | 김미순(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 성폭력피해자의 말하기 이후 : 전국성폭력상담소 10년간 상담현황과 피해자 지원과정 |
| 15:10~15:30 | [쉬는 시간] | |
| 15:30~16:30 | [토론] |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추지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기범(경찰청 생활안전국 성폭력대책과 경정) 우옥영(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권혜은(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사무관) |
| 16:30~17:00 | [종합토론] | |

• 진행내용:

- 위 계획과 동일
- 참여인원: 142명(사전신청 181명, 현장신청 23명)
- 후속작업: 우옥영 검사의 토론문 중 “강간죄 유죄율 90%”의 출처에 대한 질문이 있어 이것의 출처를 확인하고 논평하는 글을 3월 21에 블로그(포럼 참석자들에게 문자로 전달), 5월 2일 전북여성단체연합 여성주의학교 및 6월 7일 인천장애인지원센터, 10월 10일 경기도 여성리더십 아카데미에서 동 주제로 강의

• 평가:

- 연구의 결과를 대중과 최대한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상담현장을 중심으로 2018년 미투운동을 언어화하고, 2019년에 진행되어야 할 현장중심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포럼 참여자들은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미투 이후 성폭력 말하기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는 평가를 해주었으나, 시간에 쫓기는 급박한 진행 및 짧은 토론시간, 비좁은 공간 등에 대해서 아쉬다는 평가도 있었음
- 연구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포럼 준비가 이루어지다보니, 연구보고서 중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포럼을 구성하고, 3시간의 행사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알차게 구성할지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음. 이는 행사의 시간 및 구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적으로 이어졌고, 특히 질의토론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정부기관과 공동주최 행사이다보니 준비 및 진행과정(예산선정 및 집행, 행사구성, 역할분담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음. 행사구성에 있어서는 토론자를 관례에 따라 맞추어야 하는 면이 있어 포럼의 메시지가 희석되고 전달하는 시간도 부족해짐.
- 여성가족부 측에서 하기로 한 언론홍보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축사도 당일 불참함. 토론자로 참석한 검사의 토론태도 및 내용에 문제제기가 있었음. 토론자 섭외시 내용구성 등에 대해 사전소통이 필요함.
- 후속사업에 대한 평가: 블로그는 포럼 이후 시간이 다소 지난 시점에 업로드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나, 업로드 이후 언론(민중의 소리)에 1차례 보도되었으며 현재 기소율, 유죄율, 유죄현황 등을 살펴보는 자료를 생산한 것에 의의가 있음. 동 주제로 전북여성단체연합 여성주의학교 및 인천장애인지원센터, 성반연 플랜삼일, 경기리더십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 진행함. 또한 2019년 2월 15일 kbs 9시 뉴스에 “53년 전 기억까지 불러와, 미투 이후 상담일지 살펴보니”라는 제목으로 연구 내용이 공유되었고, 해당 내용을 학회지 『페미니즘 연구』12권 2호에 “2018년 한국 미투성폭력 상담일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연구내용 대중화에 기여함

1-2.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3호 발간

• 배경/필요성 :

- 현재 국내에서 반성폭력 이슈와 쟁점, 논의를 담은 정기적 간행물은 부족한 상황임
- 최근의 반성폭력 이슈를 발굴하고, 담론화하기 위하여 일지분석, 연구동향, 주제별 리뷰 및 이론적 고민이 담긴 정기적인 이슈리포트가 필요함

• 목표: 반성폭력 이슈와 쟁점을 발굴하여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부 주제들을 외화, 담론화

• 방법 및 계획:

- 2018년 미투운동 분석과 법, 정책, 문화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구성
- 신진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하여, 필요시 필진 기획회의 등을 진행

• 진행내용 :

| 분류 | 주제 | 필자 |
|---------|--|-----|
| 목차 | 목차 | 연구소 |
| 기획특집 |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의 의미와 쟁점 | 이미경 |
| 쟁점과 입장 |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 : 최협의설의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 이호중 |
| | 강간죄인가, 준강간죄인가? : 분열된 법 규정과 피해경험의 왜곡 | 박아름 |
| | 미투운동 이후 담론 전략들의 쟁투와 반성폭력운동의 과제 : ‘안희정 사건’의 재판과정을 중심으로 | 김혜정 |
| 상담일지 분석 |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폭행·협박 없는 강간 사례 상담일지분석 | 장주리 |
| 연구동향 분석 | 성폭력 관련법 개정 및 성적 동의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 : 2017년~2019년 8월까지를 중심으로 | 김보화 |
| 기고 | 지역의 미투운동 : 함평·장성 ‘언니들’을 만나다 | 백영남 |
| | 고등군사법원이 질문해야 했던 것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쟁점 | 유호정 |
| | 낙태죄 폐지 이후,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방향 모색 | 박아름 |
| 서평 | 우리가 해일이다 : 『스스로 해일이 된 여자들』서평 | 한소망 |

- 디자인 업체 변경함

- 1500부 인쇄하여 시민사회단체 250개소, 해바라기센터 37개소, 대학교 상담센터 84개소, 회원 817명에게 발송

• 평가

1) 섭외 및 실무, 예산

- 디자인 업체를 변경하고 앞뒤 날개와 표지, 전체 디자인을 바꿈으로써 이전보다 가독성이 높고, 세련된 책이 만들어짐. 다만, 인쇄 상태가 균일하지 않았던 점은 아쉽고, 발행 전에 한 번 더 체크할 필요 있음
- DM 업체 결제 과정에서 연구소와 바로 연락이 되지 않아 다소 혼선이 있었음. 향후 미리 연락 주시기로 공유하였고, 연구소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단체 주소록 정리를 통해 반송 수를 많이 줄였고, 반성폭력 이슈리포트가 좀 더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 단체들을 선별할 수 있었음
- 이전 호보다 분량이 늘어나면서 인쇄비가 다소 추가되었으나 원고비 잔액이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음
- 해외연구 리뷰에서 인턴 활동가와의 협업이 도움이 되었음
- 전반적인 원고지연으로 인해 계획보다 발간이 늦어짐

2) 내용 및 구성

- 기획특집 : 강간죄 개정 운동의 역사와 활동, 쟁점에 대한 글로 13호 전체의 핵심주제를 여는 말로 의미 있었음
- 쟁점과 입장 : 이호중, 박아름의 강간죄의 법적 구성과 논점, 김혜정의 운동현장에서의 과제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음. 앞 부분에 제목과 목차가 다르게 인쇄된 점은 아쉬움
- 상담일지 분석 : 폭행·협박없는 성폭력을 주제로 함으로써 분석 대상의 분량 및 자료 선별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측면이 있음.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지점들을 수정/확장하여 보완하였고, 최협의설 폐지에 대한 현장의 현황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연구동향분석 : 강간죄 개정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정리함으로써 연구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또한 성적 동의에 대한 해외 논의의 지형을 파악함으로써 강간죄 개정 운동에서의 논쟁 지점들을 파악하고 스텔싱 등 국내 운동에 시사점을 마련할 수 있었음
- 기고 : 지역의 미투운동과 상담소에서 결합했던 공대위, 연대활동 내용의 이슈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됨
- 서평 : 영영 페미니스트의 탄생과 기록에 관한 신간 리뷰를 통해 새로운 페미니스트 그룹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었음

3) 총평

- 최협의설 폐지를 중심으로 한 강간죄 개정을 핵심 주제로 삼음으로써 강간죄 개정 운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론적 분석을 추가할 수 있었고, 이론적 연구에는 현장의 언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음
- 전체 내용 및 필자 구성 시 2019년 전체 상담소의 활동목표인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를 반영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그에 따라 상담소 활동가들의 글이 과반수를 넘게 되었음. 글의 내용은 좋았지만 향후 내부 원고는 좀 더 줄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최신 연구자 및 연구에 대한 소개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반성폭력 이슈리포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4) 향후 계획

- 부설연구소의 기관지 성격을 넘어 상담소 전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 읽기모임 일정 : 3월 4일 상근자회의에서 진행

목표2.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 함께 넓히기

2-1. 최신 반성폭력 연구동향 분석

- 배경/필요성 :
 - 반성폭력의 이슈와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신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2018년에는 미투, 역고소 등 연구주제들을 중심으로 동향분석이 이루어졌으나 반성폭력 이슈리포트로 외화하기는 어려웠음
 - 2019년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3호에는 “최협의설 폐지 및 강간죄 개정”을 핵심키워드로 하여 2017~2019.8월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리뷰함으로써, 반성폭력 연구활동의 저변을 넓히고자 함
- 목표: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반성폭력 연구활동의 시야를 확장한다.
- 방법 및 계획: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로 외화할 핵심 키워드 산출하고 2017~2019.8월까지 발간된 국/내외 연구동향 리뷰

- 해외 연구의 경우 인턴/자원활동가들과 협력하여 진행

• 진행내용:

- 국외연구

① 2월부터 6월까지, 자원활동가 마이라가 해외연구 및 각국의 강간죄 관련 법 검색 진행

| | |
|-------|--|
| 국외연구 | - consent/power(15건), me too(10건), sexual violence(13건) |
| 각국 법제 | - 미국, 볼리비아, 이집트, 인도, 니카라과, 필리핀, 아르메니아, 호주, 방글라데시, 벨리즈,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파키스탄, 도미니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잠비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북아일랜드, 페루, 러시아, 세네갈, 싱가포르, 스리랑카, 탄자니아, 태국, 터키, 영국, 우루과이, 베트남, 예멘 36개국 및 유럽, 북아프리카 |

② 8월부터 9월까지, 인턴 진님이 consent based rape legislation(23건), sexual consent(27건)를 키워드로 검색 및 간단 리뷰 진행

- 키워드별 국내/외 연구 리뷰 진행 내용

| | 국내 | 국외 |
|------------|--|--|
| 키워드 | - 성폭력 최협의설, 최협의설, 성폭력 판단기준, 위력 성폭력, 성폭력 우월적 지위, 위력에 의한 간음, 비동의간음(죄), 성적자기결정권, 권력형 성폭력 등 | - consent based rape legislation, sexual consent etc. |
| 검색기관 | DBPIA, RISS | - SAGE journals, HeinOnline Law Journal Library, Taylor&Francis Online, SCOPUS, Wiley Online Library, JSTOR, Cambridge Core, EBSCOhost, Oxford Academic, Wiley Online Library, International Bibliography of the Social Sciences(IBSS) |
| 검색내용 | - 최협의설의 타당성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해석론적·비교법적 연구 - 공동체 내 성폭력과 미투운동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연구 | -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여부와 동의 기준 - 자발적으로 취한 경우와 스텔싱 - 형법 외 공중보건법의 활용 - 적극적 동의 기준 확대 - 젠더화된 섹슈얼리티의 문화적 각본 |
| 분석에 반영된 연구 | 17편 | 15편 |

• 평가

- 외국인 자원활동가와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거나, 자원활동가와 상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
- 당초 '미투'를 중심으로 자원활동가에게 부탁한 뒤 이후에 반성폭력 이슈리포트의 주제가 바뀌면서 연구동향 검색의 키워드도 바뀌게 되었음. 앞으로 자원활동가 및 인턴에게 연구동향 검색을 부탁할 때에는 주제를 확정된 뒤에 부탁할 필요가 있음
- 인턴 활동가의 경우 검색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원본 파일 공유에 대해 사전에 전달하지 못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했음
- 세계 각국의 자료 접근성이 높은 인턴/자원활동가들이 해외연구 리뷰에 참여해주어 전반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음
- 기존에 연구동향분석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보니 내용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었고, 올해는 핵심 주

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향후에도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동향분석을 진행할 필요 있음

- 추후 수집된 원자료의 공유 및 활용처에 대해 고민할 필요 있음(자문위원 및 데이터서버에 공유)

2-2. 상담일지 분석을 통한 현장기반 반성폭력운동 자료 축적

• 배경/필요성 :

- 상담일지는 성폭력피해자의 경험과 요구가 직접적으로 담겨있는 자료로서 반성폭력 운동과 연구에 필수적인 1차 자료임. 연구소에서 기존에 계속 시도해왔던 것과 같이 연도별, 주제별 일지분석을 진행하여 현장의 언어가 대중의 인식과 법, 정책적 변화에 반영되도록 담론화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피해자 중심적 반성폭력 감수성을 외화한다.

• 방법 및 계획:

- 상담팀과 2019년 기획상담 키워드 논의 진행
- 기획상담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대상연도와 세부주제 선정
- 양적, 질적 방식의 일지분석 진행

• 진행내용: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의 주제를 “최협의설 폐지 및 강간죄 개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상담일지 분석 대상을 2018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강간)’ 사례로 정하였음. 2018년 전체상담 중 강간피해를 입은 사례는 355건이었는데(중복피해 포함), 이 가운데 친족성폭력, 장애인, 미성년자 사례 96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적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폭행·협박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또한 상담사례 중 강간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밝히지 않은 단순상담 71건, 폭행·협박이 동반된 피해사례 18건을 제외하고 총 170건을 분석하였음.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3호에 외화

• 평가

- 데이터서버상 최초상담일지에 지속일지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일회성 상담 및 지속지원 상담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정확한 데이터 축적을 위해 종이일지 뿐만 아니라 데이터서버상 상담일지에도 자료를 정확히 남길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연례 상담통계 분석체계상 과거에 지원했던 사건을 해당년도에 다시 지원하는 경우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정확한 지원규모 파악 및 피해와 그 대응의 연속선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속지원 상담의 규모가 매년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을 제안함
-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을 분석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행위까지를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상담소 내부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상담일지분석에 있어 파일럿 리뷰는 물론 필요하지만, 일지분석 세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지분석 작업을 시작하다보니 파일럿 리뷰가 다소 길어진 측면이 있음. 상반기 연구소의 인적 구조상 논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에 기인함. 연구설계의 초반 단계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일지분석 항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상담일지 상에서 구체적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 상담지원의 결과 및 법적 대응의 결과를 알기 어려운 것과 관련해 상담일지분석 연구를 진행함에 어려운 지점이 있음. 통계, 판결문 등 다른 자료를 연계하여 연구를 보충할 필요가 있음

2-3. 여성주의 연구활동 연대

- 배경/필요성 :
 - 연구소 올림은 여성주의 연구활동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슈의 쟁점을 발굴하고, 기존의 이슈들을 시대적 맥락에 따라 재해석해야 함
 -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연구사업을 올해의 연구, 발제, 학회지 게재, 강의, 인터뷰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알려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9년의 경우 특히 2018년에 진행한 상담일지 분석연구의 내용과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부활동 연대를 펼치면서 연구과제들을 담론화하고, 상담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함
- 목표: 여성주의 연구활동 연대를 통해 상담소/연구소를 알리고, 반성폭력운동의 과제와 쟁점을 담론화
- 방법 및 계획:
 - 학회, 토론회, 이슈 포럼, 자문, 강의, 연구활동 등에 연대
 - 많은 양의 활동보다는 그간의 연구결과들을 공유, 확장할 수 있는 공간과 내용을 중심으로 참여
- 진행내용:
 - * 강의 16회, 발표 및 토론 6회, 자문 14회, 원고투고 4회
 - * 내부 사업 협업(주리)
 - ①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기획 및 실무 참여
 - ② 2019 한해보내기 사업 기획 및 진행
 - ③ 텀블벅, 굿즈 제작 TF 참여
 - * 국제교류연대
 - ① 일본인 내방맞이(주리)

| 일시 | 방문자/방문단체 | 역할 |
|-------------|--|-------------------|
| 3/18 13:00 | 일본 희망씨앗기금 <한국의 #Me Too, #With You를 느끼는 여행(韓國の#Me Too, #With Youに触れる旅)> 방문단 | 상담소 활동 브리핑 및 질의응답 |
| 8/29 14:30 | 일본 <소수자의 사회 운동과 정책 이슈 형성 과정의 영역 횡단 비교 연구> 연구자 그룹 내방 | |
| 10/21 10:00 | 와세다봉사원 스터디투어팀 | |
| 12/20 15:00 | 일본 희망씨앗기금 한일청년교류스터디팀 | |

② [5th Congress of AAWS 2019] 참가

- 진행내용:
 - :홍보부스 운영 시간 : 12월 7~8일 토요일, 일요일 09-17시
 - :장소/위치 :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 홀 로비
 - :참석 인원 : 12월 7일 ~ 8일, 연구소 활동가 포함 총 11명의 활동가들이 돌아가면서 부스를 지킴
- 활동 내용
 - :상담소/연구소 현, 전 활동가의 영문초록 총 14개를 요약하여 소책자로 배포
 - :상담소/연구소/열린터를 소개하는 영문판넬을 통해 해외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임
 - :관심사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외적 운동/연구흐름의 시야를 넓힘
 - :반성폭력 13호, 미러카드를 배포하고 굿즈 및 번역서 판매와 회원가입을 진행함

- 평가
 - 상반기 책임연구원이 휴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강의 및 학술대회 토론에 참여하며 2018년에 진행한 상담일지분석연구의 내용과 시사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냄

- 장주리 연구원이 일본인 내방객을 맞이함으로써 일본과의 국제교류에 기여할 수 있었음
- 장주리 연구원이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기획 및 실무 참여, 2019 한해보내기 사업 기획 및 진행, 텀블벅, 굿즈 제작 TF 등을 진행함으로써 상담소 전체 사업에 기여함
- * 아시아여성학대회
 - 국제적인 여성학대회에서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하기 위해 상담소/연구소를 소개하였고, 아시아 여성운동 및 연구흐름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박진선님이 통역을 담당해주셔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였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가들이 함께 함으로써 실무와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음
 - 주최측에서 식사비, 참가비, 주차권 등을 지원해주어서 활동가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행사 진행에 도움이 되었음
 - 참가한 활동가들이 학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으나 대부분의 발표가 영어로 이루어짐으로써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다른 부스가 너무 없었고, 부스를 둘러보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
 - 대회 참가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 및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었음
 - 향후 국제교류시 이번에 제작한 영문 소책자, x배너, 판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향후 각종 학술대회 참여시 연구소를 알릴 방안을 더욱 모색할 필요가 있음(부스운영, 브로셔 배포 등)
 - 굿즈 키팅 약 10여만원 판매, 2명의 신입회원 가입 신청을 받음

목표3. 더 많은 주체들과 연대하고 성장하기

3-1. KSVRC 활동가 역량 ‘뽐뽐’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 상근활동가들에게는 강의, 토론, 발제, 인터뷰 등의 다양한 외부활동이 요구됨. 그러나 그간 적절한 트레인링 기회가 부족하였음
 - 외부활동 연대는 학위나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활동가들의 운동 경험, 상담소의 역사 속에 축적되어 있는 역량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기회로서 의미가 있으며 활동가 모두의 의무이기도 함
 - 역량강화 과정은 우리 상담소가 지향하는 여성주의적 인식론, 이념, 방법, 전략과 맞닿아 있으며, 이에 이론-기술-실전을 훈련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는 더 많은 반성폭력 운동주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지면을 넓힐 것이며, 상담소의 활동이 더 잘 보이고, 들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수 있음
- 목표: KSVRC 활동가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성장하고, 새로운 주체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한다.
- 방법 및 계획:
 - ① 1단계 : 고민 나누기
 - 여성주의 페다고지란?
 - 여성주의 연구방법론과 연구&상담 윤리
 - 강의/토론/발제 등 1:1 매칭 모니터링 팀 구성
 - 본인만의 핵심탐구 주제 선정
 - ② 2단계 : 준비하기

- 상담소 소장자료 및 활동자료 바로 알기
- 자료검색 방법(각종 도서관, 논문, 해외자료 찾기 등)
- 양적연구자료 검색 및 통계자료 읽는 법
- 판결문 찾기
- 강의 스킬 및 교수법, 강의안 잘 만드는 법
- 강의/토론/발제 등 1:1 매칭 팀 내 모니터링, 콘텐츠 공유

③ 3단계 : 실천연습

- 자기역량 SWOT analysis :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 (Threat) 등으로 주위 환경을 분석한 뒤 전략을 도출해내는 분석방법
- 인터뷰 대응법과 연습
- 특성에 따른 강의안 짜보고, 시강하기
- 실천 돌입!!
- 진행내용: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셀프디자인스쿨 사업 선정되어 예산 지원 받아 진행함
 - 월별 강의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차 | 일시 | 제목 | 추진내용 |
|----|-----------------------------|---|--|
| 1회 | 3월20일(수) 14:00 ~17:00 | 여성주의 상담윤리 및 강의/발제/토론 경험 및 고민 나누기 | [강사] 최란, 이미경, 김혜정, 정정희, 전해영 [내용] 여성주의 상담운동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발제 및 쟁점토론 강의/발제/토론 경험이 많은 활동가들이 강의할 때 주로 신경쓰는 것, 어려운 점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
| 2회 | 4월17일(수) 14:00 ~17:00 | 여성주의 방법론과 연구윤리 | [강사] 김주희(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내용] 강사의 현장기반 연구경험을 토대로 현장기반연구의 의미,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연구할 때 어떤 것들에 주의해야하는가 등에 대해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짐 |
| 3회 | 5월29일(수) 14:00 ~17:00 | 여성주의페다고지/ 모니터링중간발표 | [강사] 김보화 [내용] - 여성주의의 역사, 정의, 인식론, 방법론, 여성주의 페다고지의 정의, 방법론, 교육자의 역할에 대한 강의 - 모니터링 중간소감 나누기 및 나의 핵심탐구주제 선정, 토론 |
| 4회 | 6월12일(수) 14:00 ~17:00 | 국제 레짐의 종합적 이용방법 및 국내 판결문 검색방법 | [강사] 류민희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내용] 판결문, 생활법령정보, 법조계 중요소식, 양형기준, 국회 의안 등 국내의 입법/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검색 방법 운동의 수단으로서 국제인권메커니즘의 종합적 이용방법: 각 조약의 일반논평, UN 특별보고관, 유럽인권재판소 팩트시트, UNwomen, 국제단체 의견서 등 |
| 5회 | 8월14일(수) 14:00 ~17:00 | 활동지 제작 및 워크숍 진행법, 상담소 소장자료 찾고 활용하기 | [강사] 김신아, 김보화 [내용] 질문을 바꾸는 섹슈얼리티 워크북 제작 및 워크숍 진행 경험을 통해 활동지 제작 및 워크숍 진행 방법과 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점을 다룸 단행본, 논문, 정기간행물, 자료집 등 현재 상담소에서 소장하 |

| 회차 | 일시 | 제목 | 추진내용 |
|----|------------------------------------|---------------------------|---|
| | | | 고 있는 자료들의 발행시기별 맥락을 간단히 살펴보고 각 자료들의 보관위치를 익힌 뒤 각자 탐색주제를 설정해 관련자료를 살펴보고 간단히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짐 |
| 6회 | 9월25일(수) 14:00 ~17:00 | 평등한 조직문화만들기/ SWOT분석 | [강사] 김혜정, 김보화 [내용] -워크숍1: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워크숍 -워크숍2: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SWOT analysis |
| 7회 | 10월 11일(금) 14시-17시 | 강의력을 높이는 황금팁 | [강사] 황금명륜(교육협동조합 같이교육연구소 대표) [내용] 강사의 반성폭력 운동 경험 및 전업강사 활동에서 우려나오는 강의력 향상방법에 관한 강의. 강의현장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는지, 이 가운데 핵심적인 기본소양으로 갖춰야할 것은 무엇인지, 대상에 따라 교육을 어떻게 구조화해야하는지에 대해 배움 |
| 8회 | 11월 20일(수요일) 10:30- 12:30 | 결과나누기 | [강사] 장주리 [내용] - 모니터링 결과 및 피드백 나누기 - 평가지 작성하기 - 취업규칙 관련 논의하기 |

- 상반기(3-5월) 및 하반기(6-11월)로 나누어 2차례 강의 평가 설문 진행. 평가 설문 내용은 각 차시별로 강의 내용·형식·시간·섭외에 대한 만족도, 강의를 도움이 되었거나 기억에 남는 부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조사했고, 이외에도 활동가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더 듣고 싶은 강의, 2020년도 활동가 교육 구성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의견을 조사했음. 8차시의 경우 따로 강사 없이 1년 간의 활동가 교육을 마무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함
- 모니터링 진행: 활동가 모두 1회 이상 참여하였고, 평균적으로 2.3회 참여하였음

| 차시 | 선민 | 앞 | 김이 | 파이 | 주리 | 란 | 조은희 | 달별 | 박희 | 백두현 | 유랑 | 오매 | 신아 | 전소유 | 사자 | 수수 |
|----|----|---|----|----|----|---|-----|----|----|-----|----|----|----|-----|----|----|
| 1 | 5 | 3 | 1 | 1 | 3 | 1 | 4 | 3 | 3 | 1 | 2 | 2 | 2 | 3 | 2 | 2 |

• 평가

- 이 사업을 통해 강의, 토론, 발제, 인터뷰 등 다양한 외부활동에 모든 활동가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역량 강화의 기회들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상담소 내에 공유됨으로써 이전에 강의, 인터뷰 등의 경험이 없거나 적었던 활동가들에게도 의식적으로 외부활동이 배분되는 계기가 되었음
- 각 차시별 세부 평가는 다음과 같음. 각 내용은 평가 설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5점 척도 만족도)

| | 1차시 | 2차시 | 3차시 | 4차시 | 5차시 | 6차시 | 7차시 |
|----|-----|-----|-----|-----|-----|-----|-----|
| 내용 | 4.4 | 4.3 | 4.5 | 4.4 | 4.5 | 4.3 | 4.8 |
| 형식 | 4.2 | 4.6 | 4.5 | 4.4 | 4.6 | 4.2 | 4.8 |
| 시간 | 4.2 | 4.6 | 4.3 | 4.0 | 4.3 | 3.7 | 4.2 |
| 섭외 | 4.5 | 4.7 | 4.6 | 4.8 | - | - | 4.8 |
| 도움 | 4.3 | 4.7 | 4.4 | 4.2 | 4.6 | 4.3 | 4.6 |
| 총점 | 4.3 | 4.6 | 4.5 | 4.4 | 4.5 | 4.1 | 4.6 |

- 1차시(3월)의 경우 책임연구원 휴직으로 내용이 급하게 변경되면서 기획 및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

- 음. ‘여성주의 상담운동과 사건지원자의 태도’를 읽고 강의/발제 등 외부활동 경험이 많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획의도는 좋았으나 촘촘히 기획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2차시(4월)의 경우 강사의 연구/활동 경험을 듣고 연구자와 활동가의 관계나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은 유익했지만, 기획-섭외-실무의 업무들을 각각 나누어 하게 되면서 강의의 목표가 강사에게 긴밀하게 공유되지 못한 점이 있었음
 - 3차시(5월)의 경우 페다고지 등의 내용에 활동가들이 흥미를 느꼈으나 주어진 시간에 비해 강의 내용이 너무 방대했고, 워크샵까지 진행해야해서 3시간이 충분치 않았음. 주어진 시간에 적절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4차시(6월)의 경우 법률지식, 판결문 등 검색방법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여러 인권조약 등의 활용방법 및 사례를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었음. 그러나 주로 영어 사이트를 보면서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그 자리에서 잘 따라하거나 집중해서 강의를 듣기 어려웠음
 - 5차시(8월)의 경우 이 교육을 통해 상담소의 자료를 실제 활용하는 빈도가 많아졌다고 하는 평가가 있었음. 다만 한 차시에 두 가지 교육을 하면서 집중도가 분산된 측면이 있음
 - 6차시(9월)의 경우 조직문화워크샵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SWOT 분석의 경우 개념과 도구가 낯설다보니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마찬가지로 한 차시에 두 가지 교육을 동시에 하면서 어느 한 가지에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함
 - 7차시(10월)의 경우 강사로서 기본적 태도를 돌아보고 활동가로서 강의할 때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하는지 배울 수 있던 자리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스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강의는 아니었음
 - 8차시(11월) 교육에는 각자 모니터링 한 내용을 나누었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활동가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은 배울 수 있고, 모니터링을 받는 사람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이 시스템을 추후에 유지한다고 할 때에는 모니터링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활동가들을 의식적으로 강의 등에 배치하여 모니터링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한 차시에 두 가지 내용의 교육(강의+워크샵, 혹은 워크샵+워크샵)을 진행한 경우 하나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수행할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임. 한 가지 내용의 교육을 충실히 기획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시간 부족의 원인에는 전체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를 빌려서 공지, 의무교육, 논의의 자리로 활용하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특히 의무교육 등의 경우 사전에 활동가교육 체계 안에 사전에 배치하여 시간을 할애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능한 속기 등을 통해 각 차시별 강의 결과를 남기려고 했으나, 연구소에서 진행 및 속기를 모두 담당하기가 버거웠던 점, 속기를 담당하는 활동가가 강의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3차시부터 7차시까지의 별도의 강의 결과를 남기지 않음. 향후 속기는 필요성 및 교육 성격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셀프디자인스쿨의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이를 통해 내·외부 강사를 교육 내에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활동가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었음.

3-2. 연구소 자문위원 & 객원연구원 재정비

- 배경/필요성:
 - 연구소는 2016년 4월, 통합자문위원회를 진행하였고 2016년 8월, 연구소의 운영과 방향에 대한 좌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반성폭이슈리포트 10호에 수록한 바 있음

- 2017년과 2018년에는 성폭력역고소, 사이버성폭력, 상담일지분석 연구 등 해당시기 진행 사업들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를 진행하였으나 연구소 운영과 비전, 향후 연구과제 도출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하였음
- 2017년 위촉한 자문위원의 임기(2년)가 끝난 시점을 맞아 재위촉, 신규위촉할 자문위원들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그간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은 2013~4년 경 선임된 바 있고, 이후 사업별로 위촉하였으나, 연구소 운영의 안정화와 신진연구활동가 발굴을 위하여 객원연구원 풀을 확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자문위원과 객원연구원 리스트를 재정비하여, 연구소 활동의 저변을 확장한다.
 - 방법 및 계획:
 - 기존의 자문위원 재위촉 여부 확인, 신규위촉 및 위촉장 발송 진행
 - 최근 페미니즘, 여성폭력 관련 신진연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객원연구원으로 섭외하고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연속 기고 등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
 - 진행내용:
 - 반성폭력이슈리포트 필진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객원연구원 재정비 보류
 - 내년 초에 신진연구자 인큐베이팅/네트워킹 사업 예정
 - 평가:
 - 객원연구원의 경우 신진연구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하거나 그 외 연구활동가들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함. 내년 초의 행사를 시작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설립할 필요 있음
 - 자문위원의 경우도 성급하게 진행하기보다 상담소 30주년과 연구소 미래비전의 틀 안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목표4. 평등한 공간, 조직, 사회와 좋은 삶 만들어 가기

4-1. KSVRC '보라! 페미니즘 책방' 운영

- 배경/필요성 :
 - 상담소에는 현재까지 자료집 772권, 도서 730권, 논문 97권, 정기간행물 291권의 DB가 완료되어 있음. 그러나 소장자료 이용수칙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없고, 대여장부 관리가 부족하여 분실사고들이 발생함
 - 또한 각 층의 서고 공간이 부족하여, 신규 서적, 자료집 등의 보관이 여의치 않아, 대안마련이 필요함
 - 책방의 명칭을 신설하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상담소 소장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활동가 및 회원들의 역량을 확대할 필요있음
- 목표: KSVRC '보라! 페미니즘 책방' 운영을 통해 상담소 활동의 질적 향상을 만들어간다.
- 방법 및 계획:
 - 각층의 자료보관소 확장공사 진행
 - 자료보관장소를 'KSVRC '보라! 페미니즘 책방' 등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편리한 이용 공간을 마련
 - 책방 이용수칙 및 자료 대여 장부를 신설하고 철저히 관리
 - 구입하기 어려운 책이나 원서 등의 경우 제본하여 보관
 - 신간 페미니즘 도서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구입하고 DB화
 - 활동가들과 구입희망 도서 및 참석한 포럼 자료 등을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공유
- 진행내용:
 - 상담소 1층 서고의 단행본 정리 완료. 불필요한 서적 폐기 및 판매를 통해 100여권 처분하였으며, 현재

단행본 678권 DB 완료

- 8월 활동가교육을 준비하면서 자료집(내/외부) 및 정기간행물 역시 불필요한 서적은 폐기하여 현재 자료집 732권, 정기간행물 282권 DB 완료
- 상담소 소장 도서 목록은 상담소 네트워크의 “www책임연구원www책임연구원www2016년 2월부터www상담소 자료 목록 DBwww2019년” 및 1층 서고에 비치된 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소장자료 이용수칙 명문화 완료 및 자료이용내역 재배치. 이를 인턴 및 자원활동가 OT에서도 안내하여 수칙에 따라 대여하도록 하고 있음
- 활동가들로부터 구입희망도서를 상시적으로 신청받아 각 팀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페미니즘 관련 단행본을 비치할 수 있도록 했음
- 평가:
 - 1층 서고의 외서 단행본 DB화 필요. 1층/2층/3층에 산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집 등 통합적으로 관리 필요. 특히 3층에 있는 보관본 정리를 통해 3층 서고 공간을 확보할 예정
 - 사무국과 소통하여 1층 서고 공간을 정돈할 필요가 있음

4-2. KSVRC 발간 및 참여활동 자료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토대 다지기

- 배경/필요성 :
 - 지난 30여년 동안 상담소에서는 반성폭력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 및 도서들을 생산해왔으나, 온/오프라인에서의 보관과 공유가 활발하지 않았음
 - 또한 개별활동가들이 참여한 각종 발제, 토론 등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슈와 쟁점에 대한 입장들이 재생산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반성폭력 관련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를 위한 발간 및 활동자료 정리가 필요함
- 목표: 상담소 발간 및 외부활동 자료들을 아카이브하여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과제를 공유한다.
- 방법 및 계획:
 - 데이터서버에 연도별, 주제별로 발간자료 및 외부활동 참석자료를 정리하고,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유
 - 자료보존 및 폐기 원칙의 방향 논의
 - 쿼어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도서관, 한국여성의전화 등 자료아카이브가 진행되고 있는 기관들을 참고하여, KSVRC 자료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을 논의
- 진행내용:
 - 서울시 성평등도서관의 단체 아카이브(인터넷 홈페이지) 생성 및 도서 기증 완료
 - 자료보존 및 폐기원칙에 대한 논의를 상반기 평가/계획회의에서 제안했으나 결정되지 않음
- 평가:
 - 활동가들이 참여한 각종 발제, 토론 등의 자료가 아카이빙되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가가 이 자료를 상담소에 잘 공유해주는 것이 중요. 책임감을 갖고 책자 보관본과 pdf를 공유하고, 연구소에서도 이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자료보존 및 폐기원칙에 대해 논의 필요
 - 내/외부 자료 아카이빙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향후 정리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

2019 사무국 활동 보고

| 활동목표 | | | |
|--|--|---|---|
|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장벽 밀기 |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 함께 높이기 | 더 많은 주체들과 연대하고 성장하기 | 평등한 공간, 조직, 사회 와 좋은 삶 만들어가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을 성폭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최협 의설 타파 -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 반성폭력 성평등 정책 생산 활동 - 중앙·지방정부 정책 감시 및 제안 개선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포럼 반성폭력 ‘운동-장’ - 성평등한 반성폭력 시선과 목소리 : 외부 교육, 자문, 언론 대응 - 성평등 / 반성폭력 상시 연대 활동 - 반성폭력, 성평등 국제 연대 협력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 자원활동가 운영 - 후원회원 확대, 예우 및 소통 시스템 - 이사회, 자문위원, 회원 총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규정 도입 및 평등문화 정책 시행 - 일하기 좋은 조직 만들기 - 사무 업무 총괄 |
| 2019년 우리의 움직임 | | | |
|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 | 지속가능한 운동 만들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활동시 상담소 최근 사업, 연구, 활동 알리기 - 논의, 활동시 새로운 참여자 비율 확보하기 - 흩어져 있던 정책 생산 자료 아카이빙 하기, 언론 대응 선별적 SNS 공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목표 사업 중심으로 업무 가지치기 - 집중목표 사업에 대한 평가, 성장, 참여 등 선순환으로 중, 단기 목표 이루기 | |

총평

- 미투현장에서 다양한 방법(방송출연, SNS, 연구, 기고)으로 피해생존자지원 및 위력성폭력, 강간죄구성요건등의 담론을 수면위의 올리는 역할을 함
- 격월간 포럼 개최로 반성폭력운동의 고민과 언어를 구체화, 사건 대응 등에 활용함
- 정책생산 자료 아카이빙은 산발적으로 되고 있어 기본원칙을 정하고 모아내는 작업이 필요
- 활동가들의 잦은 야근 등 업무과다로 활동가 소진 등 문제의 해결책 모색 필요
-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연대활동으로 운동의 지형 및 방향성 찾아가기
- 전 활동가의 교육, 자문, 언론대응 등으로 활발한 시민교육, 홍보. 국내외 다양한 인력들의 인턴 및 자원활동 참여로 연대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긍정적인 자극과 성장을 경험
-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꾸려가려는 노력들로 전반적으로 상호 협력적인 문화와 분위기를 형성해 옴. 지난한 논의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역할분담이 개선됨

목표1.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장벽 밀기

1-1.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성폭력 판단기준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여부’ 로!

• 배경/필요성 :

- 2018년 혁명처럼 일어나 #미투운동은 우리사회가 성폭력을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드러냄.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형법 제297조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피해 당시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고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지를 요구하는 ‘최협의설’을 강간죄의 판단기준으로 고착화시켜왔음. 이러한 강간죄 판단기준은 성폭력 피해자를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로’ 이분화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의심하는 문화를 양산해옴.
- #미투운동 이후 국회에 상정된 법안만해도 150여개가 넘고 비동의간음죄 관련 법안도 10개이지만, 발의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고 있음.
- #미투운동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결국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성폭력의 의미구성을 바로 세워야 함. 즉,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더 이상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바꾸는 가열찬 운동이 필요함.
- 목표: 최협의설이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2017~8년의 성폭력 판례분석을 통해 그 폐해를 널리 알리고 대안을 찾아가는 운동 펼쳐가기

• 진행내용: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 강간죄개정연대회의의 결성 _ 참여단체 _ 209개 단체 및 전문가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벨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례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 전주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1) 회의

① 연대회의 전체회의(총 11회)

| 차수 | 일시 | 내 용 |
|----|---------|--|
| 1차 | 3/21(목) | 연대회의의 결성 : 활동 방향 논의 * 1/15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정책토론회에서 “#미투 이후, 성폭력관련법 개선 운동방향은?” 발제를 통해 연대회의의 활동을 제안함. 이어서 1/24 본 상담소 총회에서 올해의 주력활동으로 결정함 |
| 2차 | 3/28(목) |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로 명칭확정 및 분담금 논의 |

| | | |
|-----|----------|---|
| | | -보도자료 및 법사위원들에게 보낼 내용 합의 -투트랙으로 단기적으로는 '동의없이', 장기적으로는 형법 전반 개정 |
| 3차 | 4/18(목) | -국회에 상정된 9개의 법안 비교 검토 발제(장임다혜) -관련 연구자료 검토 및 내부 입장정리 방향 논의 |
| 4차 | 5/8(수) |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 9개와 민변안에 대한 평가 |
| 5차 | 6/12(수) | -전국성폭력상담소 통계수집과정 및 결과 내용 공유, 2차 의견서 및 토론회 기획 논의 |
| 6차 | 7/1(월) | -이호중 교수 면담 및 2차 의견서 내용 검토 |
| 7차 | 7/24(수)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주최 간담회 개최 후 BH에 의견 제출의 건 논의 -3차 의견서 내용 검토, 이후 대응 방향의 건 논의(페미시국광장, 기자회견, 토론회) |
| 8차 | 8/22(목) | -경찰수사정책위원회 관련 논의 -법안 발의해 줄 의원 섭외 및 국가위원회 의견서 요청 논의 -홍보팀 활동 내용 공유(동영상 제작 및 카드뉴스) |
| 9차 | 9/30(월) | -이전 활동내용 공유 및 분납금 추가 부담 결정 -개정 법안 발의 의원, 정치 동향 및 법사위 관련 논의 |
| 10차 | 10/16(수) | -'동의 여부'를 형법에 넣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의 -강간죄 홍보영상 적극적 활용방안 논의 |
| 11차 | 11/19(화) | 국회 토론회 평가 이후 방안 논의(다음 회의까지 각 단체별로 법안 관련 입장 사전 논의해오기로 함) |
| 12차 | 11/29(금) | 법안 관련 각 단체 의견 및 전문가회의 내용 공유 & 논의 추후 법안 발의 진행과정 논의 : 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의원이 하기로 함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의견서 보완 논의 : 과잉처벌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반론 보완 |

② 연대회의의 전문가회의(총 12회)

| 차수 | 일시 | 내 용 |
|----|---------|--|
| 1차 | 5/29(수) | -2차 의견서 작성의 건(폭행·협박 없는 사례 상담 통계 기반) -여론전 전략 및 민변 내 법안 관련 논의 |
| 2차 | 7/8(월) |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계획(19년 9월 정기국회 형법 개정안 제출 목표. 범위는 형법/성폭력특별법/아청법을 통합/포괄하는 형법 개정안) -2019년 실체법 중심의 개정안 발의 후 절차법/보호체계 등 관련 법 정비 개정안 발의 (2020년 21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 추진 목표) |
| 3차 | 7/22(월)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주최 간담회 개최 후 BH에 의견서 제출의 건 -해외입법례 관련 용어 및 세부내용 검토 후 3차 의견서 제출하기로 결정 -연대회의의 법안(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쟁점 논의 |
| 4차 | 8/5(월) |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간담회 기획안 내용 발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법안 제안 토론회 일정 논의 (10월 중순)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쟁점 논의 |
| 5차 | 8/26(월) |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007년 여성인권법연대 법안과 현행 형법 비교를 통해 본 쟁점 논의 (1) : 성적 침해의 죄, 성폭력특별법 및 아청법 처벌규정 흡수통합 방안 |
| 6차 | 9/9(월) |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007년 여성인권법연대 법안과 현행 형법 비교를 통해 본 쟁점 논의 (2) : 강제수단에 따른 구성요건 체계: 비동의/폭행·협박·위력/최협의의 3단계 |

| | | |
|-----|----------|--|
| | | 가중처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등 논의 |
| 7차 | 9/18(수) |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007년 여성인권법연대 법안과 현행 형법 비교를 통해 본 쟁점 논의 (3) -비동의 간음죄: 의사에 반하여/동의없이/명시적 동의없이 중 '동의 없이'로 규정하기로 -강제수단에 따른 구성요건 논의: 강간 1항은 비동의, 2항은 폭행·협박·위력+중강간 -강간과 추행의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 |
| 8차 | 9/25(목) | -[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007년 여성인권법연대 법안과 현행 형법 비교를 통해 본 쟁점 논의 (4) : 여성인권법연대의 가중처벌규정 보완 작업(형량은 추후 검토) -아청법의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규정 중 '공박'에 대한 내용은 304조로 조문화하여 논의하고, 19세 가중 규정은 두지 않기로 함. -장애인 관련 가중조항 유지하고 위계 포함하기로. 아청법 8조에 장애아동은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 장애인 준강간 검토 필요하다는 논의. -그 외 특수강도강간, 보호감독관계의 남용 규정 보완 |
| 9차 | 9/30(월) | -20190930 [성폭력 형법 개정안 초안] 내용 추가 논의 -용어와 개념(성적 수치심, 혐오감, 간음 등)의 해외 예시 소개 -미수범 처벌에 대한 논의 및 강도강간죄, 중강간(중한 성적 강요) 관련 논의 |
| 10차 | 10/7(월) | -[성폭력 형법 개정안 초안] 여성단체 의견 수렴 논의 -성폭법과의 관계: 306조의2, 3을 형법개정안에 포함시킬지 여부 논의 -아청법과의 관계: 의제강간연령상한 관련해 단체별로 의견이 상이. 따라서 302조와 306조를 내버려 둘지, 아청법 규정을 어디까지 가져올지에 대해 논의 -306조의4 정의규정(성적 행동, 성교의 개념): 306조의4 1항을 삭제하고 2항만 남기거나, 2항을 1항으로 올리고, 2항에 성적행동은 1항 이외의 성적 행동을 말한다고 바꾸기로 -용어 정리(공박한, 남용 등) 및 기타 의견(사이버 성폭력, 해상강간, 무기장역) 논의 |
| 11차 | 10/16(수) | -법안 내용 검토 및 수정의견 논의 -10/28 국회 공청회 안 논의 |
| 12차 | 10/22(화)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회의결과 공유 및 법안 논의 -이호중 선생님 참여의 건 논의 -10/28 공청회 11/13경으로 연기(발제자 섭외 등 점검) -형법 개정안 발의할 의원 섭외 등 진행관련 논의 |
| 13차 | 11/27(수) | 국회 토론회 평가 11차 연대회의(전체회의)에서 나온 쟁점 논의 및 법안 마무리 & 이후 전략 논의 |

(2) 의견서

| 차수 | 일시 | 내 용 |
|----|----------|---|
| 1차 | 3/30(토) | “형법 제297조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는 총괄적인 내용 |
| 2차 | 7/9(화) |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한다는 분석을 통해 ‘최협의설’의 피해를 지적 |
| 3차 | 8/13(화) |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에서의 강간죄 판단기준을 소개 |
| 4차 | 9/18(수) | 무고죄 역고소 과정에서의 ‘최협의설’의 문제점 지적 |
| 5차 | 11/11(월) | 무죄법률지원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 |

(3) 기자회견 및 집회

9/18(수)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국회 앞 기자회견

9/28(토)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

* 9/24 한겨레신문 3면에 걸쳐 강간죄 개정관련 기사

한겨레(2019. 9.24) [단독] 판검사 경찰 54% “강간죄 요건, 폭행·협박→동의로 바꿔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0633.html#csidxb72f9e500f978609ac902cae647444f>

한겨레(2019. 9. 24) [단독] “몸 눌러 옷 벗겼다”는데…법원은 왜 죄 아니라고 했을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0629.html?_fr=sr1#csid37625fed3ae5535813b6b2bb8d58b89

한겨레(2019. 9. 24)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하는 형법 개정돼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0630.html>

한겨레(2019. 9. 24), 66년간 한번도 안바뀐 ‘강간죄’ 요건…‘처벌 공백지대’ 방지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10635.html#csidxd1538c07e56b7079306615702d427e5>

(4)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9. 9. 27(금), 오후2시-4시. 정책기획위원회 대회의실(광화문 이마빌딩)
- 주 최: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 참석자: 정책위 포용사회분과 위원,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
- 주요내용

| 시 간 | 세 부 사 항 |
|----------------------------|--|
| 사회 : 이미경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 |
| 2:00-2:05 | ▶ 인사말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 2:05-2:20 | ▶ 패널발표 1: 미투운동 관련 정부정책의 성과와 과제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 2:20-2:35 | ▶ 패널발표 2: 강간죄 개정 필요성, 의미 및 방향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2:35-2:50 | ▶ 패널발표 3: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 -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 2:50-3:20 | ▶ 지정토론 : 법무부 형사법제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김경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 3:20-3:50 | ▶ 종합토론 |

(5) 토론회

- 제목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남인순 · 백혜련 · 권미혁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삼화(바른미래당),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209

개 단체)

• 내용 :

| 시 간 | 세 부 사 항 |
|----------------------------|---|
| 사회 : 위은진(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변호사) | |
| 2:00-2:15 | ▶ 인사말 : 국회의원 심상정·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남인순·백혜련·권미혁·정춘숙(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삼화(바른미래당) |
| 2:15-2:30 | ▶ 발제 1 : '강간죄' 개정운동의 배경 및 의미와 과제 -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 2:30-2:50 | ▶ 발제 2: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 이경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미투대응팀장 |
| 2:50-3:05 | ▶ 발제 3: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 - 장임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 3:05-3:35 | ▶ 지정토론 : 오승이 판사(인천지방법원), 박은정 검사(부장검사),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
| 3:35-4:00 | ▶ 종합토론 |

(6) 국회 및 정부대상 압박활동(주최: 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¹⁾

9/04(수) 오후2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면담

9/06(금) 오후 3시, 대검찰청 형사부장, 형사2과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면담

(* 예정되었던 검찰총장면담은 당일 취소됨)

9/17(화) 오전 11시10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면담

9/19(목)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면담

9/25(수)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방문 & 보좌관 면담(법안 발의 관련)

(7) 홍보 등 기타

7/09(화) 1차 카드뉴스 제작·홍보

<https://www.facebook.com/102101589879599/posts/2257034524386284?d=n&sfns=mo>

9/16(월) 홍보 동영상 출시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www.youtube.be/jhDexBtAZQ

11/01(금) 2차 카드뉴스 영상 제작·홍보

<https://www.facebook.com/ksvrc1991/videos/705476709864666?vh=e&d=n&sfns=mo>

• 평가:

-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여부가 아니라 동의여부로 보는 법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촉구함으로써 성폭력의 의미구성을 새롭게 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2차 피해 근절
- 평가 측정지표 : 각종 강의, 학회 발제, 방송출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최협의설 타파 관련 홍보
- . 최협의설 비판 관련 언론보도 흐름 파악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
- . 국회나 정부의 정책변화 모니터링, 적극적인 의견 개진, 로비활동, 압력 및 정책변화 촉구

1) 장학선 및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톨게이트 여성노동자 문제해결 등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 촉구

- 연대회의 법안을 완성해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이 발의하기로 하고 준비 중임. 이후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활동과 대국민 홍보 활동이 필요함
- 본 상담소에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사무국 역할수행하면서 반성폭력운동의 법제도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음

1-2. 성폭력 사안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배경/필요성

- : 2019년 2심 결과에 대응하고 대법원 상고심 지원을 통해 개선된 판결의 확정
- : 미투운동을 통해 공론화된 사건, 피해자, 여성운동에 대한 백래쉬의 가능성, 지속적 지지가 필요함
- : 2심 이후 사건에서의 의제화, 사회적 의미 확산 필요

• 목표 :

- : 해당 사건들이 의미있는 판결로 선고되고,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구호의 실현
- : 위력에 의한 피감독자 사건, 비정형화된 조직 내 성폭력 등에서 정책 공백 대안 도출

| | |
|--|---|
| <p>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준사무국, 피해자지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1/21, 2/7(긴급), 2/12, 2/21(긴급), 2/28, 3/7, 4/3, 5/2, 6/3, 6/21 외 안희정 공대위 회의 - 1/4 안희정 건 2심 공판 - 1/9 안희정 건 2심 결심공판 - 1/14 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을 판결을 중심으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p> <p>○일시 _ 2019년 1월 14일 오후 2시30분</p> <p>○장소 _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p> <p>○사회: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p> <p>○발제 1</p> <p>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1)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차혜령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p> <p>○발제 2</p> <p>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2)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박인숙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p> <p>○발제 3</p> <p>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관련 해외입법례 장응혁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p> <p>○토론 1</p> <p>업무상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에 대하여 : 안희정 1심판결 비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토론 2</p> <p>지위,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에서 '행위수단' 판단, 무엇이어야 하는가? 김혜정 활동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p> <p>청중토론</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단 면담(대법원 의견서 관련) - 2/1 2심 선고 : 유죄, 3년 6개월 징역, 40시간 이수 명령 (방청연대) - 2/1 2심 선고 기자회견 - 2/1 #설명절_1시간 늦게 출발하는 연대 #MeTOO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하는 집회 '위력 성폭력은 유죄다' @고등법원 근처 부림빌딩 앞 - 2/12 변호인단 기자회견단회 |
|--|---|

| | |
|--|---|
| | <div data-bbox="466 202 1200 479"> <p>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p> <p>○일시 _ 2019년 2월 12일(화) 10:30</p> <p>○장소 _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p> <p>○발표 _ 1심과 2심 판결 쟁점별 분석</p> <p>"1심과 항소심 판결이 달라진 이유"</p> <p>① 위력에 대한 판단 (김두나 변호사)</p> <p>② 피해자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김혜경 변호사)</p> <p>③ 피고인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최윤정 변호사)</p> <p>④ '성인지적 감수성' 관점 (서혜진 변호사)</p> </div> <div data-bbox="466 483 1200 647"> <p>- 2/14 피고인 배우자에 의한 2차 가해 글 게시 시작, 공대위 대응</p> <p>- 2/26 전문가 간담회 개최</p> <p>- 3/5 성명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고발 1년, "침묵을깨고 위력에맞서다"</p> <p>- 3/5-6/28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연서명 탄원서] 3,163명 참여</p> <p>- 3/13 수많은 안희정들에 맞선 워크숍</p> </div> <div data-bbox="466 653 1200 840"> <p>수많은 '안희정'에 맞선, 당신도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p> <p>○일시 _ 2019년 3월 13일 오후 2시~5시30</p> <p>○장소 _ 참가자들에게 추후 개별 공지(정동 프란치스코회관)</p> <p>- 2심 판결 쟁점분석 (김혜경 변호사), 질의응답</p> <p>- 공대위 향후 계획 공유 (김혜경 활동가), 질의응답</p> <p>- 함께하는 액션플랜 고민하기, 모둠활동 및 발표 (여세연 조혜민 화물가)</p> </div> <div data-bbox="466 846 1200 908"> <p>- 전문가의견서 제출 (김수아, 김정혜, 전문가 76명(양현아 대표집필) 의견서)</p> <p>- 5/4 여성신문사 마라톤 스티커 부착하기 광고</p> </div> <div data-bbox="466 913 1200 1043"> <p>타-사쓰에 스티카 붙이고 우리는 달린다,</p> <p>위력성폭력 끝장내는 우리의 '운동'</p> <p>○일시 _ 2019년 5월 4일(토) 오전 8시 30분</p> <p>○장소 _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p> </div> <div data-bbox="466 1049 1200 1078"> <p>- 6/18 전성협 X 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기자회견</p> </div> <div data-bbox="466 1083 1200 1304"> <p>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내 성폭력사건</p> <p>상고심 유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p> <p>○일시 _ 2019년 6월 18일(화) 12시</p> <p>○장소 _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앞 계단</p> <p>-발언1 : 김혜란 (울산동구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소장)</p> <p>-발언2 : 백영남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소장)</p> <p>-기자회견문 낭독</p> </div> <div data-bbox="466 1309 1200 1338"> <p>- 6/19 반성폭력운동장 공동주최 "군수와 도시자 - 위력성폭력에 맞서다"</p> </div> <div data-bbox="466 1344 1200 1564"> <p>한국성폭력상담소 X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p> <p>6월 반성폭력 운동-장 도지사와 군수의 위력 성폭력에 맞서다</p> <p>○일시 _ 2019. 6. 19(수) 늦은 7시</p> <p>○장소 _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서울 마포구 합정동)</p> <p>○맞서는 사람들</p> <p>백영남 _ 전 함평군수, 현 장성군수 사건 /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회장</p> <p>배복주 _ 전 충남도지사 사건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p> </div> <div data-bbox="466 1570 1200 1696"> <p>6/28 성차별 및 여성폭력대응 단체 실무자 1115명 177개 단체 의견서 제출</p> <p>7/3 외국인 56명의 탄원서 제출</p> <p>9/9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방청연대)</p> <p>9/9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p> </div> <div data-bbox="466 1702 1200 1734"> <p><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성폭력사건 상고심 판결 기자회견></p> </div> |
|--|---|

| | |
|---|---|
| | <p>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p> <p>○일시 _ 2019년 9월 9일(월) 오전 11시</p> <p>○장소 _ 대법원 경문앞 (서초역 5번출구)</p> <p>○주최 _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p> <p>○사회 _ 닷 (한국여성의전화)</p> <p>-경과보고 _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p> <p>-발언1. 보통의 김지은들이 일궈낸 승리 (김민문정_ 한국여성민우회,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p> <p>-발언2. 안희정 성폭력사건 법적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 (정혜선_피해자 변호인단)</p> <p>-발언3.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으로서 활동과 결의 (김경숙_ 용인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p> <p>-발언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로 (손영주_ 서울여성노동자회)</p> <p>-발언5.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이제 시작입니다 (김혜정_ 한국성폭력상담소)</p> <p>-발언6. 피해자 발언 (대독: 남성아_ 천주교성폭력상담소)</p> <p>-현장 자유발언</p> <p>-성명서 낭독_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p> <p>9/27-28 변호인단 공대위 평가 MT</p> <p>11/4 보통의 승리 _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쟁점과 의미 토론회</p> <div> <p>[토론회]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p> <p>○일시: 11월 4일(월) 18:00~21:00 (사전행사 18:00~19:00, 본행사 19:00~21:00)</p> <p>○장소: 창비서교빌딩 지하2층(6호선 망월역)</p> <p>○사회 : 오매(안희정성폭력사건공대위, 한국성폭력상담소)</p> <p>◎ 세션1. 사건 속으로</p> <p>-1심의 문제 분석 _ 차혜령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공감)</p> <p>-현실 속 위력의 법적 판단 _ 김두나(피해자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p> <p>-성인지감수성 이전에 진술이 있었다 _ 서혜진 (피해자 변호사,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p> <p>-직장 내 사건과 ‘증인들의 역할 _ 정혜선 (피해자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p> <p>◎ 세션2. 통념을 다시 쟁점으로</p> <p>-정치인 정무직의 노동 _ 이보라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현 보좌관)</p> <p>-언론에 의한 2차 피해 _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p> <p>◎ 세션3. 공대위 활동을 중심으로</p> <p>-피해자 지원, 동행 _ 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p> <p>-공대위역선, 시민참여 활동_ 닷(한국여성의전화)</p> <p>-감사한 분들에게</p> <p>◎ 세션4. 지금, 여기에서 토크쇼</p> <p>발표자들 다함께</p> <p>매이(트위터 안희정 성폭력사건 아카이브 운영진)</p> <p>진명선(한겨레 젠더미디어 슬랩 편집장)</p> </div> <p>10/7 피해자 지원 : 한국성폭(오매)담당, 피해자와 향후 지원 회의</p> |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책위 (* 사무국) | (* 상담팀 평가 참조) |
| 영화감독 김기덕사건 공동대책위 | <p>48개 단체 및 기관이 함께 한 공동대책위 활동의 마무리 작업</p> <p>- 형사사법절차 진행 결과</p> |

| | |
|--------------------------------|---|
| | ① 성폭력사건 : 불기소, ② 폭행 건 : 유죄(벌금 500만원) ③ 무고죄 역고소 : 불기소 1/9 공대위 회의 3/21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3억원 손배소 규탄 기자회견 유바리 영화제 김기덕 감독 개막작 진행 유감 표명 4/18 김기덕사건 공대위 기자회견 (민우회 3억, 피해자 & MBC PD수첩 10억 피소) 8/22 공대위 회의(* 추후 사안별 연대하기로 하고 공대위는 해산함) |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성폭력사건 대책위 (* 사무국) | - 공대위 활동 최종 정리작업 및 자료화(백서는 피해자 측의 부동의로 발간 안하기로 하고 공대위 활동 중심 내부 보관용 자료집 발간) 9/26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 11/28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 - 기각(환영!) |
| 조두순사건 (* 사무국) | <조두순 건 윤서인 작가에 의한 2차 피해 고소 건> 2018/2/23 윤서인의 미펜툰 웹툰 228회 작성, 미디어펜에 게시 5/18 나영이 아버님이 본상담소 및 이명숙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 5/21 긴급 대책위 구성(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 변호인단: 이명숙, 차미경, 최수영, 하희봉) 6/1 고소장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10/25 손해배상사건을 조정제 회부 12/23 강제조정(1천만원 손해배상금 등) 2019/3/6 조정회부 신청 3/21 임의조정 성립(2천만원 배상, 사과문 게재-페이스북, 미디어펜 초기화면 기사목록엔 게재, 기사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사과문 전송, 어떠한 경우에도 웹툰이나 동영상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위반시 배상금 지급키로 함) 3/27 관련 보도자료 및 성명서 발표 |

●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사무국)

(1) 고소 및 재판 과정

| 날짜 | 내용 |
|------------------------------|---|
| 2018. 2. 14. | 피해자 1명 SNS에 최초 피해사실 게재 |
| 2018. 2. 19. | 이윤택 감독 기자회견 열어 혐의 부인 |
| 2018. 2. 22. | 피해자들과 일부 변호사들 최초 면담 |
| 2018. 2. 26. | 공동변호인단 구성 |
| 2018. 2. 28. | 피해자 16명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고소 죄명: 상습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 등) |
| 2018. 3. 2. | 피해자들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
| 2018. 3. 5. |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서울지방법변호사회관 정의실) |
| 2018. 3. 14. | 피해자 1명 추가 고소장 접수 |
| 2018. 3. 8.~ 2018. 3. 16. | 피해자 17인에 대한 경찰조사 완료 |
| 2018. 3. 18. | 피고소인 이윤택 소환, 피의자 조사 완료 |
| 2018. 3. 21.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이윤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 2018. 3. 22. | 변호인단 기자회견 개최 (서울지방법변호사회관 정의실) |

| | |
|--------------|---|
| 2018. 3. 23. | 피해자 4명 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고소장 접수 |
| 2018. 3. 23.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운택 영장실질심사 진행 및 구속영장 발부 |
| 2018. 3. 27. | 피해자 1명 고소취소장 접수 |
| 2018. 3. 28.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 (해당일 기준 고소장 접수 피해자 총 21명) |
| 2018. 3. 29. | 서울중앙지검에 임사라변호사 고소 (고소 죄명 :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
| 2018. 9. 19. | 이운택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징역 6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취업제한) |
| 2019. 4. 9. | 이운택 서울고등법원 2심 선고 (징역 7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취업제한) |
| 2019. 4. 17. | 임사라변호사 대전지방법검찰청 기소유예 (죄명 :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
| 2019. 7. 24. | 이운택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 확정 (징역 7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취업제한) |

(2) 기자회견 & 보도자료

| | |
|--|--|
| 1차 기자회견 & 보도자료 | - 일시 : 2018. 3. 5.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지방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미투(#Me Too) 운동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한다!” |
| 이재령 입장글 건 보도자료 | - 일시 : 2018. 3. 26 - 내용 : 임사라 변호사의 왜곡된 글로 인해 피해자들의 2차가해 심각. 이재령 대표의 입장문 페이스북 게재 관련 |
| 임사라 고소 건 보도자료 | - 일시 : 2018. 3. 29 - 내용 : 임사라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보낸 녹음 파일은 일부 파일이며 해당내용과 피해자들의 금품요구는 무관. 공대위는 임사라 변호사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진행 중. |
| 2차 기자회견 & 보도자료 | 일시 : 2018. 9. 19. 오후3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그 예술은 바뀐다!”-연극연출가 이운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 |
| 3차 기자회견 & 보도자료 | 일시 : 2019. 4. 9. 오후 2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오래된 관행’이 아니다. 성폭력이다! 연극연출가 이운택 성폭력사건 항소심선고 기자회견 |
|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불기소처분 항고 보도자료 | 일시 : 2019. 5. 9. 내용 : 대전지방법검찰청의 임사라 변호사 불기소 판단에 대한 항고장 제출. |
| 임사라 변호사에 대한 경과 보도자료 | 일시 : 2019. 7. 18. 내용 : 이운택성폭력사건 관련 임사라변호사에 대한 소송현황 및 경과 보도요청 |
| 4차 기자회견 & 보도자료 | 일시 : 2019. 7. 24. 오후 5시. 내용 : “이운택 전 연극연출가 성폭력, 대법원의 원심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

(3) 긴급 집담회

| | |
|-----------------|---------------------------|
| 성폭력의 ‘상습성’ 입증방안 | |
| - 일시 : | 2018. 7. 23(월). 오후7시-9시 |
| - 장소 : | 나우리법률사무소 지하1층 회의실(교대역 근처) |
| - 주최 : | 이운택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 사회 : 이명숙변호사
- 발제
- 현행법상 성범죄 관련 상습범 처벌규정의 제 문제 최수영 · 장경아변호사
-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상습성 김현숙 연구원(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종합토론 다함께

(4)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의 탄원서 제출 : 연극인 및 관객 탄원인 총 98인

- 2018.7.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4부 제출 / - 2018.7.31. 우편으로 4부 추가 제출

(5) 전문가 의견서 제출

2018. 8. 20. 김현숙 박사(위력, 상습성해석), 김혜리 교수(발성지도 및 연기지도 주장 비판) 제출

(6) 피해자들 탄원서 제출

2018. 9. 7. 결심(구형)공판 때 제출

2019. 3. 26. 결심(구형)공판 때 제출

(7) 공대위 의견서 제출

201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에 제출

(8) 재판과정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사건번호 2018고합362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 | |
|------------------------------|---------------------------------------|
| - 1차 공판 : 2018. 5. 9. 10:00 | - 9차 공판 : 2018. 7. 23. 14:00 |
| - 2차 공판 : 2018. 5. 25. 14:00 | - 10차 공판 : 2018. 7. 27. 10:00 |
| - 3차 공판 : 2018. 6. 20. 10:00 | - 11차 공판 : 2018. 8. 13. 14:00 |
| - 4차 공판 : 2018. 6. 25. 10:00 | - 12차 공판 : 2018. 8. 27. 14:00 |
| - 5차 공판 : 2018. 7. 2. 10:00 | - 13차 공판 : 2018. 9. 7. 10:40 |
| - 6차 공판 : 2018. 7. 9. 10:00 | - 선고공판 : 2018. 9. 19. 오후2시(징역6년, 80시간 |
| - 7차 공판 : 2018. 7. 11. 15:30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취업제한) |
| - 8차 공판 : 2018. 7. 16. 10:00 | |

▶ 2심 :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나)/ 사건번호 2018노2658호

| | |
|-------------------------------|------------------------------|
| - 1차 공판 : 2018. 12. 4. 15:00 | - 5차 공판 : 2019. 2. 26. 17:30 |
| - 2차 공판 : 2018. 12. 18. 15:00 | - 6차 공판 : 2019. 3. 21. 14:10 |
| - 3차 공판 : 2019. 1. 8. 15:00 | - 7차 공판 : 2019. 3. 26. 10:30 |
| - 4차 공판 : 2019. 1. 22. 15:00 | - 선고공판 : 2019. 4. 9. 13:50 |

▶ 3심 : 대법원/ 사건번호 2018노2658호 : 2019. 7. 24. 오전 10시. “상고 기각”

(9) 공대위 회의

< 2018년 >

- 1차 회의(3/05.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서울지방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2차 회의(3/27. 오후10시-새벽 3시. 공대위 회의, 나우리 더노라카페)- 곡축 대응 건
- 3차 회의(3/29. 오후 3시-오후 5시. 공대위 회의, 나우리 더노라카페)- 공대위 명칭 개칭
- 4차 회의(6/28. 오후 7시-오후 9시. 공대위 회의, 나우리 더노라카페)- 재판모니터링 건
- 5차 회의(7/18. 오후 2시-오후 3시. 공대위 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탄원서 조직 건
- 6차 회의(7/23. 오후 7시-오후10시. 공대위 회의, 나우리 지하 교육장)- 집담회 진행
- 7차 회의(8/6. 오후 7시-오후10시. 공대위 회의, 나우리 지하 교육장)-결심공판 준비
- 8차 회의(9/14. 오전 8:30-9:30. 공대위 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선고공판 & 기자회견준비

< 2019년 >

9차 회의(2019년 4월 9일 오후 3시-5시)- 항소심 선고공판 & 기자회견 후 간단한 평가회의

10차 회의(2019년 8월 20일 오후 4시-5시 30분. 나우리 갤러리)-토론회 준비의 건, 백서 발간의 건

11차 회의(2019년 11월 1일 오후4시~6시) - 토론회 준비 및 백서 발간 관련 논의

(10) 토론회 : 이윤택 성폭력사건의 의미를 짚어보는 토론회

목적 : 고소인단의 목소리를 담아 본 사건의 의미를 짚어보고, 그동안의 공대위 활동 평가
및 위력을 이용한 상습성폭력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갖는 의미를 짚어보고자 함.

일시 : 2019. 11. 26(화). 오후1시 30분~4시

장소 : 예술가의 집(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3)

이윤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토론회 :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사회 : 이현숙(탁틴내일 대표)

- 발제 1 : 생존자들이 이끌고 공대위가 밀고 나아간 활동의 의미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발제 2 : 이윤택 사건 판결의 이해와 의미 서혜진·장경아(공동변호인단)
- 발제 3 : 2차 피해와의 전쟁, 피해자 권리와 일상 찾기 이명숙(공동변호인단)
- 발제 4 : 여성혐오와 위계의 공로를 깨는 피해생존자의 감각 이산(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 발제 5 : 생존자의 관점에서 만들어보는 연극계의 문화, 규정 김수희(공동고소인단)
- 발제 6 : 내가 지나온 수사재판과정, 그리고 정의 이재령(공동고소인단)
- 토론 :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평가

- 안희정, 이윤택 대표적인 미투운동으로 인해 촉발된 사건이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으로 큰 희망과 진전을 사회적 의미로 확장함. 공대위 활동, 기자회견, 토론회, 1인 시위, 전문가 및 피해자 집단 의견서 등 다양한 조직사업을 통해 사회적 목소리를 사법부에 강하게 전달하는 활동과 피해자, 변호인단과의 신뢰로운 연대와 협력이 주효하였음
- 위력, 상습 성폭력, 우월적 지위자, 피해자진술신빙성, 가해자 진술신빙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의미있는 논의를 이끌어내어 향후 진전에 기반이 됨
-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구호를 실현하는 과정을 시민들이 생생히 지켜보고 참여하였으며, 수많은 2차 가해 환경들에서 쉽지 않은 과제를 실현해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
- 조두순 사건 등 사건 진행 이후 발생한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공분을 모으며, 평소 연대를 활용함
- 주요 공대위에 상담소 대표단이 실무자로 참여하였음. 내부적으로는 사무국 업무 공백을 불러왔으며, 배움의 기회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도 발생함. 대응하는 규모와 정도가 큰 공대위 활동에서 상담소 내부 역할 분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실행과 평가에 기반한 변경 등을 하며 지속성과 확장성, 참여, 역량의 고른 성장을 도모해야 함

1-3. 반성폭력, 성평등 정책 생산 활동

• 배경/필요성

• 진행내용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1) 미투시민행동 운영 | | | |
|--------------|------|------------|--|
| (1) 전체회의 | | | |
| 차 | 일시 | 장소 | 논의내용 |
| 1 | 6/26 | 광화문 사랑의 열매 | - 정세분석 및 방향에 대한 논의 - #미투시민행동 하반기 활동계획(안) - 활동 기본 재정(안) |

| | | | |
|---|-------|-----------------|--|
| 2 | 8/19 | 한국YWCA연합회 2층 강당 | - #페미시국광장 대응전략 - 국회 압박 등 활동 계획 |
| 3 | 12/23 | 한국여성단체연합 청산홀 | - 2019년 평가 - 향후 미투시민행동 활동 방안 (마무리) - 토론회 개최의 건 |

(2) 공동대표단 회의

| 차시 | 일시 | 장소 | 논의 내용 |
|----|------|----------|--|
| 1 | 4/10 | 한국여성노동자회 | -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대응 방향 논의 - 5월 9일 토론회 개최 결정 및 역할 분담 논의 |
| 2 | 5/28 | 한국성폭력상담소 | - 0525 대검찰청 기습시위 평가 - 향후 대응을 위한 현황 공유, 여론화·국회 대응·검찰 대응 논의 - 5/29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등 사건 최종보고서 발표 후 행동 계획 논의 |
| 3 | 8/5 | 한국성폭력상담소 | 8/8 확대운영위에 국회 압박 관련 작업 추진(안) 마련 |
| 4 | 9/2 | 한국성폭력상담소 | 면담 주요 요구사항 정리 및 자료 정리(원내대표 및 검찰총장) |

(3) 확대운영위원회

| 차 | 일시 | 장소 | 논의 내용 |
|----|-------|------------|--|
| 1 | 2/22 | 여성미래센터 청산홀 | - 2019년 조직운영 방안 - 2019년 사업계획 |
| 2 | 5/17 | 광화문 변호사회관 |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3주기 대응 액션 논의 |
| 3 | 6/13 | 한국여성노동자회 | - 운영 및 회계보고 - 차기 활동기획 |
| 4 | 6/21 | 한국여성의전화 | - 차기 운영 및 활동기획 |
| 5 | 6/25 | 한국여성민우회 | - 차기 운영 및 활동기획 |
| 6 | 7/3 | 한국여성민우회 | - 페미시국광장 운영 및 기획 |
| 7 | 7/24 | 한국여성민우회 | - 1,2차 평가 및 추가 기획 관련 아이디어 공유 - 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탐블벅에 더하여...) - 차기 회의와 확대 운영위 회의 개최 필요여부 논의 |
| 8 | 8/8 | 한국여성민우회 | - 페미시국광장의 목적, 메시지, 요구 명확히 정하기 - 8월 23일부터 5회차 집회 기획 확정하기 - 국회압박 작업 등 다음 단계 액션플랜 |
| 9 | 8/19 | YWCA 강당 | - 향후 #페미시국광장 활동 계획 |
| 10 | 9/4 | 한국성폭력상담소 | - 고장자연사건, 김학의·윤중천사건에 대한 대응활동을 점검 및 향후 대응방식 논의 페미시국광장 홍보 |
| 11 | 11/1 | 한국성폭력상담소 | - 페미시국광장 평가 - 검찰개혁 관련, 강학선 대응 관련 |
| 12 | 11/19 | 한국여성의전화 | - 미투시민행동 활동기한 - 미투시민행동 또는 미투 운동 2년 평가 토론회 필요성 - 미투시민행동 활동자료 아카이빙 방식, 자원, 플랫폼, 역할 분담 |
| 13 | 11/26 | 한국성폭력상담소 | - 여성연예인 죽음과 관련한 시민들의 반응과 대응 운동의 방향 관련 토론 - 그녀들의 투쟁을 기억하는 애도와 말하기, 노래의 밤 진행 결정 |
| 14 | 12/2 | 한국성폭력상담소 | - 애도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밤 평가 - 미투시민행동 주최 토론회 방향, 일시 장소 등 준비 논의 |
| 15 | 12/23 | 한국여성단체연합 | - 미투시민행동 토론회 세부 기획 논의 |

| | | |
|---|-----|--|
| | 청산홀 | |
| <p>2) 집담회 및 토론회</p> <p>(1) 고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버닝썬 사건으로 드러난 성착취·성폭력 카르텔 분쇄를 위한 집담회</p> <p>- 일시: 2019.05.09.(목) 3시</p> <p>-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p> <p>발표</p> <p>① 사회: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p> <p>①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p> <p>②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p> <p>③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p> <p>④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p> <p>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p> <p>(2) 토론회 <젠더관점에서 본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p> <p>일시: 2019.11.11.(월) 오후 2시</p> <p>장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 강의실</p> <p>- 발표</p> <p>① 사회: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p> <p>① 여성인권 현장에서 마주한 검찰권력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p> <p>② 페미시국광장, 여성들이 쓰는 검찰개혁 :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p> <p>③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검찰개혁의 과제 : 최선희(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p> <p>④ 검찰조직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 인권이 없는 인권수호자 : 이연주(변호사)</p> <p>⑤ 검찰의 선별수사·기소의 문제점과 시민적 통제방안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p> <p>⑥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p> <p>-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p> <p>3) 기자회견</p> <p>(1) 정녕, 아무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인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을 규탄한다.</p> <p>- 일시 : 2019년 5월 22일(수) 오전11시</p> <p>-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p> <p>- 주최 : 총 1,043개 단체</p> <p>(2) '검찰이 공범이다'검찰규탄 긴급 기자회견 및 대검찰청 로비 기습 점거 시위</p> <p>- 일시 : 2019년 5월 24일(금) 14시</p> <p>- 장소 : 대검찰청 정문 앞 및 대검찰청 로비</p> <p>(3) 과거사 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규탄한다</p> <p>- 일시 : 2019년 5월 30일(목) 오전10시</p> <p>-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p> <p>- 주최 : 총 698개 단체</p> <p>(4)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p> <p>-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 오전11시</p> <p>-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p> <p>- 주최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p> | | |

4) 2019 페미시국광장

| 차 | 일정 | 상세내용 | 집행단위 |
|----|------|---|-------------------|
| 1 | 7/12 |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 | 한국여성민우회 |
| 2 | 7/19 |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 공조세력 검경을 갈아엎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
| 3 | 7/26 | ‘김학의 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 | 한국여성의전화 |
| 4 | 8/2 | 웹하드카르텔, 양진호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았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 5 | 8/9 |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개혁, 우리가 한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
| 6 | 8/23 | ‘검경개혁 여자들이 한다!’ 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 | 한국여성의전화 |
| 7 | 8/30 | ‘국산 아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 초범이라 기소유예, 반성해서 기소유예, 검찰을 규탄한다!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 8 | 9/6 | 일상의 남성카르텔, 우리가 부순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
| 9 | 9/20 | ‘성착취’ 카르텔 박살내자 | 전국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 10 | 9/28 |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

5) (강학선 등) 국회 압박 등 활동

(1) 국회 각 당 대표(원내 대표) 면담

9/4 정의당 심상정 대표, 9/17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9/19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면담 요청했으나 답 없음.

(2) 검찰총장 면담

9/6 검찰총장 접견실에서 (대검) 조상준 형사부장, 공분숙 형사과장, 김지연 양성평등담당관 배석하여, 면담 요청 했으나 무산됨. <성평등 검찰 개혁 및 여성폭력사건 정의로운 수사를 위한 요구사항> 전달하고, 서면답변 요청한 상태임.

(3) 고 장자연 배우 사건 TF 구성

① TF 구성 현황

(단체) 정미례(단장), 김영순, 이미경, 고미경, 김민문정
(변호인) 하승수, 정민영, 민변 윤지오 변호인단에 참여 요청

② 과거 장자연 사건 관련 과거 소송 기록 취합

③ 자료검토 및 1차 회의

: 2019년 12월 4일(수)

6) 추모행사 11/29 애도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밤

| |
|--|
| <p>애도하고, 말하고 노래하는 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녀들의 싸움을 기억한다 @홍대입구 7번출구앞 광장 <p>진행 _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p> <p>출연 _ 차연지, 미미시스터즈, 신승은, 이지구, 정민아, 안혜경, 안예은</p> <p>역할 _ 기획, 연출, 장소섭외, 대기실 설치 및 무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인원: 각 단체 활동가 포함 200명(추산) |
|--|

7) 기타

(1) 민주언론시민연합 제21회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 수상

: 시상식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7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평가 :

- 미투운동 2년차를 맞이하여, 개별 공동대책위원회나 영역별 신고체계 및 정책생산 등과 다르게 ‘미투시민 행동’의 정세분석과 실무력을 발휘하여 ‘장학썸’ 사건 및 경찰, 검찰 카르텔에 대한 정면 도전을 주제로 삼아 활동하였음. 전체적으로 동력이 적었으나 매우 심각한 한국사회의 남성연대를 고민하고 연구하며 연대회의의 집중력을 높이고 실행력을 가동함
- 미투시민행동의 활동은 이후 검찰개혁 과제 등으로 연결될 것이나, 향후 대응은 ‘미투운동’ 또는 ‘미투시민 행동’의 우산 외에 각 사안의 특성과 고유함을 담은 새로운 연대체를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공동의 평가를 나눔. 향후 사실상의 다른 연대체, 활동으로의 이동을 생각하며 토론회를 준비함
- 10월, 11월, 12월 미투시민행동 사무국을 맡아 사무국에서 토론회 준비, 전체 평가회의 개최 및 향후 운영 방안 논의, 긴급 추모행사 기획과 실행 등을 진행함. 전체 2년간의 미투시민행동 활동으로 연대력과 결행력이 높아졌으며 본 상담소 역시 그러했음

● “NGO 활동의 평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목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NGO활동! 그동안 우리의 활동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아왔는가? 앞으로 우리의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을 갖고 함께 여성운동 NGO 활동의 평가지표를 찾아가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 기간: 2018. 6. 10~7. 5
- 대상: 상담소 회원 및 시민, 여타 인권 시민 사회 단체
- 추진과정 및 활동내용:

1. 일 시 : 2018. 7. 5(금), 오후 2시 - 5시
 2.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3.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4. 제목 : “NGO 활동의 평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5. 프로그램
 사회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 제 1 : 호주 NGO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지표 Bronwen Dalton (호주 UTS대 교수)
 발 제 2 : 한국의 성폭력상담소 시설평가지표에 대한 고민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 김해정(섭외 중,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정경자(호주 UTS대 교수)
 종합토론 : 다함께
 * 순차통역 : 박진선 (파리정치대학 석사과정, 본 상담소 자원활동가)

• 평가 :

- 발제자는 평가 톨의 일련의 과정(산출-활동-투입-결과-영향)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하고, 증거기반 정책(evidence based policy)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함. 요즘은 정부기관, 국제기구, 기업을 막론하고 이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영향력과 정확한 지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기금을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함. 지금은 NGO 활동의 성공·실패를 지표로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요구받는 시대라고 함.
- 평가에 대한 거부감이나, 정부가 요구하는 결과 외에 NGO들이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의 과정에서 이런 측정도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함. 유념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어떤 활동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함.
- 한국에서의 시설평가의 목적은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투명성 평가, 서비스 전문성 강화,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이용자 인권보호 등 모든 시설평가에서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함.
- 참가자 질의·응답 및 평가에서 발제자가 소개한 톨박스 안에 여러 자료나 설문들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하고, 관련 사이트가 9월에 오픈되어서 오늘은 톨박스 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았음. 또한 개발한 툴박스에 한국어 및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 NGO활동가들의 접근성을 높힐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음.

- 소개된 평가 툴에 젠더에 관한 도메인이 없어서, 젠더 격차라던가, 커뮤니티의 가부장성이라던가 이런 걸 평가하고 싶으면 어떤 도메인을 찾아보면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현재 가정폭력, 장애인, 유아 등 10개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새로운 도메인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함.
- 평가지표를 연구한 호주의 연구자가 한국에 온 기회에 본 상담소에서 다소 급하게 마련한 토론회였으나, 많은 NGO활동가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함. 다만, 호주와 한국의 발표 내용이 서로 연관성을 갖지 못해 내용이 따로 따로인 아쉬움이 있었음.
- 이번 토론회는 우리 NGO가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운동성’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평가지표를 개발·적용·수정·보완해가면서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는 자리였음.

1-4. 중앙·지방정부 정책 감시 및 제안 개선 활동

- 배경/필요성 :
 -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자문위원 형태로 NGO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 상담소에서도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하여 성평등 및 젠더폭력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활동을 해오고 있음
 -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징적 참여’가 아니라 실제적인 민간위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위원회 활동의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NGO의 철학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 목표: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권적, 성평등적인 정책 마련 및 실행을 견인
- 진행내용:

| | |
|--|---|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17. 12~ 2019. 12.15 (임기 만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 전반에 관한 자문기능, 수시 정책현안과제 연구 및 제안 -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제안활동 및 ‘2030세대 젠더의식’ 설문조사 및 토론회 진행 - 2019년에는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정책 제언을 위해 관련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노력을 할 예정 - 임기 2년, 정기회의 월 1회(분과회의 수시 진행) <p> 1/4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1/10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30젠더의식조사TF회의 1/31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3/8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3/29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회의 4/5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회의(문정부 2주년 평가) 4/11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 -> 문정부 2주년 평가서(서면작업) 5/7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문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룸 7/26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회의 9/27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미투이후 법·정책 토론회 11/22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회의(강간죄 개정관련 의견서 검토 및 마무리회의) 12/10 ‘강간죄’ 개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 </p> |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2018. 9~ 2019. 12 (임기만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 자문, 제안 - 양성평등위원회 내 성폭력대책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 군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안찾기 위한 논의진행 예정 - 임기 2년, 정기회의 격월로 진행(분과회의 수시 진행) |

| | |
|--------------------------------|--|
| | <p>2/18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국방 양성평등정책 이행 현장 방문(공군, 공사 방문)</p> <p>3/6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대책 소위원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회의</p> <p>4/24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부산)해군작전사령부 방문 및 간담회</p> <p>4/30 국방FM라디오 생방송 출연</p> <p>5/2-5/3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대구)육군 제2작전사령부, (진해) 해군사관학교 & 진해 기지사령부 방문 및 간담회</p> <p>5/23 국방부,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 성범죄 사건 재조사 관련 서류검토 자문 회의 : 2차 피해중심으로 제안</p> <p>5/23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p> <p>5/23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회</p> <p>6/19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회의</p> <p>9/19 국방부, 현장방문 육군 보병학교(전남 장성 상무대)</p> <p>-주요 지휘관 현장 토론회 : 보병학교장, 기계화학교장, 화생방학교장 등 11명</p> <p>-3~7년차 여군간담회 :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10여명</p> <p>10/24 양성평등위원회 회의(공석인 양평위 위원장 후임으로 선임됨)</p> <p>11/9 '20-'22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 서면자문</p> <p>11/28 해군2함대(평태) 방문 및 간담회</p> <p>12/2 군 성고충상담원 개선방안 관련 연구 감수</p> <p>12/17 양성평등위원회 회의(* 1기 양평위 임기 만료)</p> |
|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2018. 9~2020.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의 수사정책 방안에 관한 정책자문 및 제안 -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수사 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2차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촘촘한 실태 파악 및 정책제언을 할 예정 - 임기 2년, 정기회의는 격월 1회 <p>1/18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p> <p>2/15 경찰 수사정책위원회</p> <p>4.19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p> <p>▲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근절 종합대책 :</p> <p>: 약물피해 의심 성폭력 등 집중수사(2/25-4/16. 마약류사범 1,429명 중 약물의 심 성범죄 24명, 불법촬영 유포 33명)</p> <p>:마약류 유통 단속 질문에 대해서는 검색담당인원 늘리고 AI 등을 이용한 검색방안 추진 중이라고 함.</p> <p>*GHB(이른바 '물뽕') 술과 타면 1시간 30분이내에 소변으로 배출되어 증거채취 안됨. 피해자의 기억은 전무.</p> <p>▲ 위원들 제언 : 약물피해를 일시적 정신상실상태로 봐서 강간치상으로 처벌, 동 영상 유포는 어느 흉기보다 더한 피해이므로 이를 가중처벌 하는 방안 모색 필요. 약물이용 성폭력 피해 조사 시 2차 피해방지(마수팀이 아닌 성폭력전담팀이 수사 진행), 외국인 가해자들 일단 출국하면 피해증명 안되는 문제 해결</p> <p>6/21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p> <p>▲ 경찰수사 비전 2020 발표 : 인권을 최우선으로/ 경찰수사에 절차적 정의 확립 / 모든 수사에 책임을 다하기 / 세계 최고의 수사 전문성 확보 / 현장·국민중심의 형사사법 구현</p> <p>▲ 현행 신상공개 제도 논의 : 피의자 신상공개의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 필요, 인 권침해 우려</p> <p>▲ 최근 여성범죄관련 현황 및 대책 : 경찰 발표내용(신종 여성폭력 비롯한 여성대상 범죄 지속 증가 / 여성대상 범죄 총력 대응체계 구축 등 여성안전 치안망 구축 / 여성대상 범죄 근절활동 강화 /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추진)은 현상 유지에 머문다는 평가 ==> GHB의 특성 연구 필요,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경찰 의견 개진 필요(다음 회의때까지 폭행·협박 없는 강간사례가 몇 건인지 통계를 내 서 관련 논의하기로</p> |

| | |
|---|---|
| | <p>9/20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p> <p>10/18 수사정책위원회 회의 : 경찰의 불기소 이유분석(2019년 1월 전국 경찰서 통계분석 - 경찰수사단계에서 70%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검찰은 46%기소)</p> <p>11/22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회의</p> <p>12/20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회의</p> |
| <p>범정부 성희롱·성폭력및 디지털성범죄 근절추진협의회 2018. 3~2019. 12 (임기 만료)</p> | <p>8/23 여가부, 7차 범정부 성폭력대책협의회</p> <p>▲ 정부 보고 및 추진계획 공유 : 부처별 이행실적 총 199개 과제 중 133개 (66.8%) 이행, 66개 추진 중</p> <p>- 특별 점검 및 사회 각 분야 실태조사(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피해자 신고 및 상담지원,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예방 및 인식개선, 추진체계 강화</p> <p>- 성희롱·성폭력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입법 노력, 대책 이행과정 모니터링,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p> <p>▲ 논의사항 :</p> <p>- 대책협의회 운영의 비체계성 및 위원회의 논의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가 없음에 대한 문제제기 등</p> <p>- 8개 부처에 성평등전담 직제 신설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p> <p>12/9 여가부, 8차 범정부 성폭력대책협의회</p> |
| <p>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2019.9~2021.8</p> | <p>대법원의 행정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 총 10명의 위원</p> <p>연4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임기 2년</p> <p>9/26 대법원, 1차 사법행정자문위원회</p> <p>: 사법농단 이후 개혁의지로 마련된 자문기구(원래 사법행정위원회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안되어서 임시적으로 자문회의 형식으로 출범- 자문위 자체 및 위원 구성 등에 대해 김명수대법원장의 셀프 개혁이라는 비판 많음!), 회의 규칙 논의(안전사전공개 및 회의록 공개여부 논의 - 회의록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함) 분과위 설치안 검토(재정·시설분과, 재판제도분과, 사법정책분과, 기타분과위), 상고제도 개편 논의 등</p> <p>12/12 대법원, 2차 사법행정자문위원회</p> |
| <p>대검찰청 양성평등위원회</p> | <p>- 2019년 3월 19일 최란 활동가 위촉</p> |
| <p>서울시 교육청</p> | <p>- 스쿨미투 시민조사관 운영위원 (김혜정 부소장 2019년 3월~)</p> |
| <p>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획위원회 2016. 12~2020. 12</p> | <p>-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p> <p>- 정기적인 회의 운영이 아니라, 연 2회만 개최되는 자문회의여서 자칫 상강성만 갖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제대로 된 문제파악 및 제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p> <p>- 연 2회 자문회의</p> |
| <p>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과정운영자문위원 2016. 3~2019. 2 (임기 만료)</p> | <p>-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자문</p> <p>- 보완할 교육의 내용과 효율적인 교육방법(소규모 토론회식 진행 등) 등 제언·논의</p> |
| <p>대한빙상경기연맹</p> | <p>- 교육자문위원회 (노선이 활동가)</p> |
| <p>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p> | <p>- 운영위원회 (김혜정 부소장)</p> <p>-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 (최란 팀장)</p> |

• 평가

- 정부와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을 적극 알려내고

- 있음.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와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등에서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자료 제출 및 자료 요청 등으로 강간죄 개정 의제의 논의를 확대함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육·해·공군 각 부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군대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등을 통해 군대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하였음. 다만, 양평위에서는 주로 여군에 대한 성폭력문제에 국한하고 있어서 50만이 넘는 남성군인들간의 성폭력·성평등 문제로 관심과 논의 범위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함. 9월부터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1기 위원회의 마무리 활동을 함.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및 범정부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근절추진협의회 위원활동은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으로서 역할이 부족하였음. 이들 위원회 활동에 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여가부의 범정부 대책위는 여가부의 의지가 아쉬웠음
 - 위원회 활동과정 및 결과를 아침나눔 및 상근활동가 회의에서 공유는 하고 있으나, 사전에 의견청취 및 논의과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어 차후 적극적 개선 필요
 - 올해 임기만료를 맞은 3개 위원회에서(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및 범정부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근절추진협의회 위원회, 국방부양성평등위원회) 성평등 및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NGO의 목소리를 냈음. 특히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위해 다른 단체와 연대해서 각 위원회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면서 활동에 반영한 유의미한 활동을 함 (예: 여성연합 단체 활동가들의 거버넌스 참여 현황 파악 및 검찰개혁 관련 법무·검찰개혁위 자료 공유 등)

목표2. 성평등/반성폭력 감수성·소통 높이기, 인프라 넓히기

2-1. 오프포럼 반성폭력 '운동-장'

• 배경/필요성

- :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그룹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언어와 방식이 생산되는 경로가 다양해 짐
- : 디지털 네이티브 Z세대 절반이 유튜브로 콘텐츠를 읽는 등 인지와 소통 경로가 달라져 옴
- : 기존 반성폭력 운동과 다양한 화자, 방식, 내용, 언어의 반성폭력 활동이 만나고 연대할 필요성

• 목표 : 다양한 방식, 화자, 매체, 메세지를 통해 반성폭력에 대한 감각, 감수성을 높이고 넓히기

기존 페미니즘 운동의 참여자 외에 친구나 지인을 초대할 수 있는 자리로 기능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 내용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질문, 논의 주제를 1개씩 제시

• 진행내용 :

| | | |
|----|---|-----------|
| 2월 | 반성폭력 운동-장 2월 포럼 _ 형법 297조 역사부터 개정까지 ○ 진행 _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일시 _ 2019년 2월 20일 3시-6시 ○ 이꿈이 _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학자), 장다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여성학자) ○ 사전 읽기 자료 _ 2018여성학논집 제35집2호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 :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1. 성적자기결정권과 성폭력 관련 형법 보호법익 관련 역사 / 성적자기결정권과 형법 용어('간음, 추행 등 2. 유형력을 중심으로 한 판단기준의 문제와 성폭력 개념 및 성적자기결정권 실현에 | 40명 참석 |
|----|---|-----------|

| | | |
|----|--|----------------------------------|
| | <p>미치는 왜곡</p> <p>3. 다른 패러다임을 위하여</p> <p>4. 청중과 질의응답 및 토론</p> | |
| 4월 | <p>여성학자X기자가 말한다</p> <p>#Metoo 시대의 시민들, '꽃뱀론'을 해체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학자 _ 권김현영 (<미투의정치학> 저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 기자 _ 전홍기혜 (프레시안 기자) ○ 말하는 시간_2019년 4월 17일(수) 오후 7시-9시반 ○ 말하는 장소_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 미리 읽어오시면 좋을 자료 _ <미투의 정치학> (2019, 교양인) - 대중문화와 사건을 통해서 본 '꽃뱀론'의 실체 : 기준과 원칙이 없음 - '꽃뱀론'의 기능과 역할 : 가해자의 피해자화, 피해자의 가해자화 - 남성섹슈얼리티와 자신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의 실체에 대한 불인정, 반발 - 프레시안 X 정봉주 사건을 통해서 본 그들의 대응방식과 전략 - 질의응답 | <p>55명 신청 50명 참석</p> |
| 5월 | <p>고소장을 든 페미니스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_ 2019년 5월 23일(목) 19시-21시30분 ○ 장소_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 고소장을 든 페미들_ <p>은하선 (섹스칼럼니스트, 2008년 클래식계 위력 성폭력 고발)</p> <p>실비아 (회사원, 2016년 대기업 직장내 성희롱 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겪은 사건과 그 과정에 대한 소개 : 여러 겹의 소송들이 이어지다 - 주변인들의 반응 : 가해자의 자장과 피해자/신고인에 대한 마타도어, 고립 방식 - 법적 소송에서의 과정 : 피해자의 말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어필되고 반박되는가 - 보다 개선된 사건 해결과정을 위한 제언 | <p>31명 신청 30명 참석</p> |
| 6월 | <p>한국성폭력상담소 X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p> <p>도지사 와 군수의 위력 성폭력에 맞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_ 2019. 6. 19(수) 늦은 7시 ○ 장소 _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서울 마포구 합정동) ○ 진행 _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오매 ○ 토크 _ <p>안희정 전충남도지사 사건을 지켜보는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p> <p>안병호 전함평군수 / 유두석 현장성군수 사건을 지켜보는 백영남 담양성폭력상담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희정 사건, 안병호 사건의 진행 과정 - 공대위 결성과정, 사건의 특성에 따른 (지역, 정치권) 상황 파악, 등장인물 파악 - 공대위 활동의 진행과 시기 마다의 판단과 액션 - 가장 어려운 점과 향후 과제 | <p>20명 참석</p> |

• 평가

- : 반성폭력운동에서 필요한 주제들을 긴급하에 선정하여 진행하여 시의성과 논의력을 높임
- : 형식상 발제문이 없는 발표 방식으로 보다 밀접한 논의가 진행됨. 자료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
- : 후기를 통해서 주요 논의된 인식론과 통찰 등을 워딩으로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했으나 미진함
- : 참가비 5,000원을 책정하여 자체 진행 사업의 적자를 줄였고, 참가자 중 10%~20%가 후원회원으로 참석함

2-2. 성평등한 반성폭력 시선과 목소리 : 외부 교육, 자문, 언론 대응

• 배경/필요성

-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의 고조, 백래시 등의 시기에 명료하면서도 핵심적인 언어 전달 필요
- 다양한 기관/공동체/단체에서의 교육 요청은 1회적보다 라포형성과 함께 예방교육과 사안 자문, 담당자 소통 등이 연계되어 연대하는 활동 필요. 활동가 별 교육 역할을 수행을 위해 단계별 준비 필요
- 토론, 자문 등 정책 형성의 장 참여에서는 상담소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흩어져있고, 내부 공유가 부족하여 한데 모으고 아카이빙할 필요성

• 평가

- 4명의 활동가가 강의를 시작하고, 기존 대비 2명의 활동가가 강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함
- 강의를 자주 하는 활동가에게 과다 집중되었던 2018년과 달리(지리산 34%, 오매 23%, 백목련 19%), 2019년에는 새로운 활동가의 등장으로 강의 수가 전반적으로 분산되었음(지리산 28%, 오매 18%, 파이 12%).
- 연구소에서 진행한 <활동가 교육 뽀뽀!>의 영향으로 활동가들이 강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 역량 및 자신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강의안은 활동가의 담당 활동에 대해 종합적,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전달하여 스스로의 활동에도 도움이 됨.
- 그러나 강의를 제외한 발표, 토론, 자문 등에서 소장, 부소장, 책임연구원의 책임 분량이 많음. 조금 더 다양한 활동가에게 외부연대활동의 기회를 분배하고, 외부 활동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3. 성평등 / 반성폭력 상시 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 미투운동의 공동활동을 위한 연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면서도 개별단체의 역사와 역할이 유실되지 않는 독립성이 공존하는 활동 필요
- 성폭력상담소의 목소리가 여성인권분야 혹은 거버넌스 분야에서 작다는 인식이 존재. 반성폭력 정책제안, 현장 상황 사회적 공유, 통계연구 결과 공유 등을 통해 위상 제고와 변화 도출을 위한 활동 필요
- 목표 : 여성운동/인권운동/성폭력상담소 운동에서 성평등한 방향과 활동을 위한 논의, 연대 높이기
- 진행내용 :

| 구분 | 활동내용 |
|-----------|---|
| 한국여성단체 연합 | 1) 총회참석 / 총회준비위원회 2) 이사회(연 4회), 실무임원회의(연 3회 정기회의 및 필요시 임시회의) 이미경 3)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연 4회) : 오매 4) 그 외 TF, 대책위원회, 논의, 기자회견 등 - 1/15 총회 / 정책토론회, “성폭력관련법, 무엇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발제) - 2/11 3.8세계여성의날기념 제35회 한국여성대회 기획실행위원회(2차) - 2/15 이사회 - 2/21 인권위원회(1차) . 강간죄개정, 여성폭력관련법 등은 연대단위별로 활동하기로 하고, 인권위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분야에 관심을 갖고 논의, 대응하기로 함 - 3/20 실무임원회의(1차) . 3.8한국여성대회 평가/ 21대 총선대응을 위한 ‘젠더정책 발굴 및 제안’ |

| | |
|-------------------------|---|
| | <p>4/10 여성연합, 미투시민행동 대표자 회의</p> <p>4/10 여성연합,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간담회</p> <p>4/23 여성단체연합, 여가부차관 간담회</p> <p>4/23 여성연합인권위원회 회의(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쟁점 / 가족관련제도와 이주여성 / · 한부모당사자 조직현황 및 한부모 가조정책 <p>- 5/7, 22 2020년 총선 젠더 정책 만들기 프로젝트 총선정책팀</p> <p>6/13 베이징+25주년 북경행동강령 주요분야 이행점검 사업 : 시민사회 보고서 검토 간담회</p> <p>6/13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간담회</p> <p>6/13 고 이희호선생님 추모식</p> <p>6/20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제정 추진의 방향과 쟁점(토론)</p> <p>6/26 실무임원회의(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정책수련회 프로그램 논의/ 총선 대응 전략 / 장학선 대응 논의 / · 여성사 구술아카이빙 프로젝트 <p>- 8/28-30 여성연합 정책수련회 / 여성연합 이사회</p> <p>○ 8/28(수) : 여성운동과 21대 총선 전략</p> <p>(1) 21대 총선 성평등 정책, 어떻게 가야하는가?</p> <p>- 새로운 젠더관계 기반 사회의 비전과 전략 만들기(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p> <p>(2) 21대 총선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쟁점</p> <p>2020 총선,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전략 모색(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p> <p>2020 총선, 새로운 담론과 프레임으로 준비하자(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p> <p>○ 8/29(목) : 미투운동 평가와 향후 방향 및 전략 논의</p> <p>미투운동 평가와 활동방향:입법, 추진체계, 미투시민행동 활동 리뷰(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p> <p>지역에서 미투 운동하기(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p> <p>'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운동의 의미·쟁점·과제(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p> <p>○ 8/30(금) : 소통과 연대(팀별로 바닷가를 산책하며 과제 수행 - 연대의 의미를 담아내는 사진 촬영 등)</p> <p>- 남녀동수제에서 동수는 숫자의 개념만이 아니라, 실천의과정에서 '동등'이라는 원래 의미.</p> <p>- 동수 요구는 민주주의 체제의 설명화된 특징을 드러내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작점(권수현)</p> <p>- 여성연합 활동가들의 발제를 통해 우리 운동의 고민을 함께 논의하는 장, 사자와 지리산 참석</p> <p>○ 11/1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도로교통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농성장 밥차 방문</p> <p>- 2020년 총선 젠더 정책 만들기</p> <p>정책TF참가 : 사무국 김혜정 부소장</p> <p>성·재생산, 젠더폭력, 친밀성·가족 부분 전략 집필중</p> <p>10/2 분야별 총선정책 제안 (성폭력, 사이버성폭력)</p> <p>10/8(14:00) 총선정책 워크숍 10/31(10:00) 총선정책 토론회</p> <p>11/20(14:00) 한국여성단체연합 21대 총선에 바란다 토론회 (젠더폭력 파트 발제)</p> |
| <p>전국성폭력 상담소협의회</p> | <p>총회 : 연 1회(1월) / 총회준비위원회 : 12월</p> <p>서울인권권역회의 : 연 4회 / 정책대응팀회의 및 이슈대응: 필요시</p> |

| | |
|---------|---|
| | <p>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 걸림돌 추천 및 시상</p> <p>- 전성협 정책 대응팀 : 회의 2/12, 3/28, 4/30</p> <p>- 전성협 서울인천권역회의 ○ 3/21 서울인천권역회의(1차) . 2019년 소진예방프로그램 논의 / 하태경 의원실 요구(상담소 종사자 자격관련 작성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동참결의 및 첫 연대회의 참여 ○ 6/20 서울인천권역회의(2차) - 처우개선연대활동 공유(4/17,5/23,6/14) / 무료법률구조사업 및 시민감시단활동 협조 - 국민참여예산사업 : 찾아가는 컨설팅 / 여가부 실적통계 가이드라인(7월초 PDF 배포) - 전국성폭력상담소 시설 평가 ○ 9/26 서울인천권역회의(3차) 여성가족부 국민참여예산, 신규 상담소 컨설팅/ 소진예방사업/통계매뉴얼/ 권역별 사례위크숍 서울시 전국체전 현장상담센터 : 전국체전에서 선수들에게 리플렛 배포 (5만부 제작) ○ 10/17~18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워크숍(상담팀) ○ 11/21 서울인천권역회의(4차 회의) : 한해 활동평가 및 차기 권역대표 선임(박윤숙선생님)</p> <p>- 전국성폭력상담소 시설평가 9/18(수) - 수원여성정의집, 화성미래꿈하우스 9/20(금) - 광주다솜누리, 광주샐터 9/24(화) - 김천무지개쉼터, 구미꿈나래 9/25(수) - 대전늘해랑, 나는봄쉼터 9/27(금) - 청주모듬잇돌 10/1(화) - 여수담쟁이, 목포 해늘 10/2(수) - 부산양지터, 사랑의집 9/23(월) - 김제성폭력예방치료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정읍성폭력예방치료센터 9/24(화) - 광주인구협회상담소 9/25(수)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10/1(화) - 전주새벽이슬장애인상담소, 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관(官)에서 목표량을 정한 '상담건수 맞추기'를 해야 했던 2018년 상담현장 지역에서 '운동하기'의 어려움 지역상황 및 장애 등을 고려한 지표로 변경할 필요 개인정보 이용 동의의 건 이후 상담소의 보완점 및 평가지표 해석에서 유의할 점 소장 인터뷰 12/4(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시설평가단 평가회의(*예정)</p> <p>- 수사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 걸림돌 추천 및 심사 : 12월 1일까지 총 13개 (디딤돌 5개, 걸림돌 8개) 추천 발송. : 13개 중 1개(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제외 12개가 재판부. : 12/16 시민감시단 디딤돌, 걸림돌 선정회의(* 예정)</p> |
| 인권운동더하기 | - 인권적 반성폭력 여성운동과, 여성주의적 인권운동의 외연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
| 여성환경연대 | - 윤리위원 |

• 평가 :

- 여성연합은 지난 4년간 인권위원장 역할을 올해 총회에서 마무리하고, 서기 및 이사회와 인권위, 실무임원위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비교적 무겁지 않게 회의에 참여함. 아쉬운 점은 다른 일정 과다로 제대

로 회의에 집중하지 못함.

- 그동안 여성연합의 활동이 상담소 지향점과 다른 지점(페모크라트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논쟁을 하기도 했지만, 특히 미투시민행동 활동 속에서 더욱 적극적인 연대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분위기. 또한 총선대응, 국제연대활동 등은 전적으로 여성연합의 노하우와 조직력의 도움을 받고 있음. 이후 활동가 역량강화, 거버넌스 등에 NGO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비판적이면서도 우호적인 연대를 기대함.
- 전성협은 작년부터 안희정사건의 사무국으로 큰 수고를 해옴. 상담소도 준사무국 역할 및 피해생존자 지원의 역할을 맡아 적극 연대하고 있음. 반면 전성협 행사, 정기 워크숍 등에 타 단체와 동등하게 성실히 참가해야 하는데 바쁜 일정을 핑계로 소홀하여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임하는 연대의 태도가 필요함. 또한 서울지역 상담소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정책대응팀의 활동에서 NGO의 독립성, 자율성을 위한 섬세하고 민감한 시각과 행동력이 필요함. 서울-인천권역회의에도 성실히 참여하지 못하여 향후 적극적 개선 필요
- 각 연대활동의 내용은 아침나눔이나 상근자회의에서 되도록 상세하게 나누려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활동 기록 및 공유에 좀 더 노력을 해야한다고 봄.
- 매3년마다 진행되는 전국성폭력상담소 시설평가단에 합류하여 전남, 전북지역 상담소를 방문하여 활동을 보고 들으며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였음. 관이 정한 실적에 맞추기 위해 상담통계가 부풀려지는 현실을 보면서 제도화가 양날의 칼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성폭력상담소가 NGO로서 정체성을 갖고 운동한다는 것이 실제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하였음. 결국 전성협이 얼마나 단단하게 연대하고 깊이있는 내용을 갖추는지가 관건임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됨. 따라서 전성협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상담소가 좀 더 충실히 논의를 제안하고 내용을 채워가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

2-4. 반성폭력, 성평등 국제 연대 협력 활동

• 배경/필요성

- : 아시아, 아프리카는 지속적인 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 방문을 통한 사례 연수 기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는 최근 흐름에 따른 정책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 상호 배울 점 등 나눌 필요
- : 일본의 경우, 한국과 지형은 다르지만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피해자 지원의 신중성, 급진적 논의 및 심화된 토론 등의 열정이 구조화되어 있어서 깊은 교류의 상호 배움 필요

• 목표 : 외국 활동가 및 관계자와 상호간의 반성폭력 정책, 활동, 법제도 정비 등의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임파워링

• 진행내용

| 분류 | 시기 | 내용 |
|------|---------|--|
| 국제회의 | 3/9~18 | UN 여성지위위원회 (CSW) 참석 : 박지희[국제교류협력], 이미경 활동가 |
| | 9/25-28 | 태국 방콕. 프로스페라 아시아태평양(Prospera Asia & the Pacific) 여성재단 회의 : 선민, 진(여성재단 위촉 통역업무) |
| | 12/6-8 | 제5회 아시아여성학대회(Facing New Challenges for Feminisms in Asia: Reiterations, Renewals, and Revisions) : 부스 운영 |
| 국제협약 | 4/8 | 국가인권위&법무부,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최종견해 이행상황 점검 간담회 |
| | 5-6월 | 베이징+25주년 북경행동강령 주요분야 이행점검 베이징 +25(2020년) 이행평가 여성단체NGO 워크숍 및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발송 : 5/19 6/13 시민사회 보고서 검토 간담회 |

| | | |
|-------|---------|---|
| 연구 | 11/3-1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중 “영국(맨섬) 및 아일랜드 정부, 민간단체 및 관련 연구자 면담 및 임신중단 관련 법제도 현지 사례 조사 출장” : 앞 (자문 겸 동행) |
| 내방/교류 | 1/10 | EGEP 오픈포럼 |
| | 3/13 | 중국 인권변호사단(신아, 앞, 달별, 사자, 목련, 유량) |
| | 3/18 | 일본 희망씨앗기금 방문 (오매, 주리, 달별, 수수) : 한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탐방 20명 방문 : 장주리 연구원 발표 및 질의응답 |
| | 3/26 | 일본 리츠메이칸대 마츠모토교수, 김성은 교수, 요시다 변호사 내방 |
| | 8/27 | 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노르웨이 인턴 내방 맞이 |
| | 8/29 | 일본연구자그룹 내방 |
| | 9/17 | 일본 리츠메이칸대 마츠모토교수, 요시다 변호사 내방 |
| | 10/21 | 와세다봉사원 한국스터디투어팀(주제:젠더평등, 미디어) |
| 자원활동 | 3/19 | Not ‘SexScandal’ But ‘Genderviolence’ : Mayra 활동가의 관점 전환 언론 소개 링크 |

• 평가

- 여성인권에 대한 UN을 비롯한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각 국의 관련 법제도 개선의 사례, 운동의 노하우, 시행착오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의 동력, 문화, 아이디어를 나눔으로써 길게 활동할 수 있는 시야를 활동가들이 확보
-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국제회의(2022년 UN CEDAW / 2020년 UN CSW, 베이징+25 / 2019년 8월 동북아 베이징 +25 사전회의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소 차원의 조직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
- 여성인권 관련 UN CEDAW 뿐만 아니라, 자유권, 주거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학습과 참여를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8년동안의 국제연대 활동의 기록이 블로그 형태로 소극적이고 산발적으로 기록, 보관되어오고 있음. 이후에는 각 국제연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자료화에 주력하고, 우리의 온·오프라인 활동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올 한해도 KOICA의 ODA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상담소에 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온 공무원 교육이 3회 정도 실시되었고, 외부에서 관련 강의도 3회, 관련 국제세미나 사회도 2회 정도 있었음. 이러한 기회에 우리 상담소 활동을 알릴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성폭력 관련 법·정책을 배우고 쟁점을 나누는 식의 노력이 필요함. 또한 추후 지속가능한 연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목표3. 더 많은 주체들의 활동참여, 연대와 성장

3-1. 인턴 자원활동가 운영

- 배경/필요성 : NGO 자원활동 프로그램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함.
개별 활동가들의 자원활동 / 인턴활동은 상호 간 오래 지속되는 경험이므로 정성 필요
자원활동/인턴 기록, 평가, OT 시스템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성

- 목표 : 상설 인턴,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계획 가능한 풍성한 자원활동가 프로그램 운영
- 진행내용

| | | | |
|-------------|--|---|---|
| 자원활동가 | 손예진, 김청 | 여름방학기간 매주 1회 | |
| | 이정민(짚레) | 하반기~ 매주 1회 | |
| | 김가림 | 이윤택 사건 공대위 백서 작업 강간죄 개정 연대회의 활동 | |
| | 아낀, 마이라 | 아낀(한국여성운동 연구자), 마이라(아시아재단 방문 연구자) | |
| | 김지은 | 매주 1회 (기간) | |
| 서울대인권센터 | 이민주, 김채연 | 9/6(금) OT 및 활동시작 열린터 25주년 후원의밤 기획, 준비 | |
| 인턴 | 박진선(진) | 6/17 ~ 9/20일까지 페미시국광장 준비 등 활동발표회 : 9/20(금) 오전 11시 / 이후 통역활동 | |
| 로스쿨 실무수습 | 강은희, 이하연, 박진선 이도경, 신준하, 성현진, 강예은 | 4/29 | 오후 5시 설명회 개최 (법률자문위원 신윤진, 양현아 선생님 홍보 협조요청) |
| | | 6/17-21 | 오리엔테이션 강간죄, 최협의설 문제 스터디, 토론 초벌 자료 수집 |
| | | 6/24-28 | 전체 팀 오리엔테이션 5개 분야 : 외국입법사례, 유럽재판소판례, 불기소 사례 분석, 강간죄 외 유형 판결에 미친 영향, 대법원 판례 분석, 반론과 재반론 |
| | | 7/1-5 | 종결사례포럼, 법률상담배석, 결과발표회 |
| | -서울대 법전원 4명 -이화여대 법전원 3명 -기타 | 2020년 2월 3일~2주간 | |
| | 경희citi NGO인턴 | | 2020년 1-2월 김채연, 박민아 활동가 |

- 사전 주요 활동 및 일상활동 명확히 오리엔테이션 진행
- 활동 후 활동 나눔회 진행 및 후기 공유
- 평가 :
- 상담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가풀 확대 및 활동가 성장.
- 새로운 활력으로 상담소 사무실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행 문화 활성화
- 홀에 자리가 없어서 1층 혹은 상담실에서 근무하게 될 때 상근활동가 소통 부족 상황 발생, 보완필요

3-2. 후원회원 확대, 예우 및 소통 시스템

- 배경 : 후원자 소통 예우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록 다양한 기부 및 참여 경로가 활성화 됨
감경을 위한 가해자 기부 문제에 대한 내부 대응방식을 적극 진행하여 근절
- 목표 : 신속하고 정확하고 절차 진행을 통해 신뢰 형성, 다양한 기부 참여

• 진행내용 :

| | | | | | | | |
|---|---|---|---|----------------|-----------|--------|--------|
| 상담소 28주년 생일맞이 떡 나눔 | 추진 과정 | - 진행내용 | | | | | |
| | | 시간 | 해야할 일 | 담당자 | | | |
| | | 오전 10시 | 1) 떡 스티커 붙이기 2) 떡 포장 3) 피켓 인쇄 | 선민, 달별, 람취, 감이 | | | |
| | | 오전 11시 ~ 12시 반 | 1) 떡 드리고 2) 피켓 고르게 한 다음 3) 피켓을 함께 들고 인증샷 찍기 4) 상담소 SNS에 업로드 예정임을 공지하기 | 각 팀 | | | |
| | | 지리산 팀 | 선민, 감이, 주리 팀 | 은희, 달별 팀 | 지희, 백목련 팀 | | |
| 앞마당 | 연세대학교 성평등상담소 청소년건강센터 나는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말과활아카데미 100주년기념교회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비온뒤무지개재단 인권재단사람 | 삼우아트 카피플러스 여성영상집단 움 | | | | |
| 평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기획 과정에서 사무국 내 행사에 대해 이해하는 상이 달라 차질이 있었음- 방문 전 사전 확인과 안내를 하여 직접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었던점- 각 팀에서 방문할 곳을 구글지도로 공유하여 좋았음- 떡 도착이 늦어져 점심시간에 걸려 전달이 어려운 곳도 있었음. 너무 먼 곳은 변동사항이 있어서 인근으로 제한하는 것도 좋겠음- 상근활동가들의 경우 바쁜 일정이 유동적이라 자원활동가 확보가 더욱 필요함- 행사 진행 포맷을 정하고 (피켓과 함께 인증샷찍기) 실시간으로 사진이나 영상이 업로드 되어 공유효과가 있었고, 상담소 생일 축하 홍보영상/카드뉴스 제작이 가능했음- 다음에는 단체 말고 인근 회원과의 만남, 방문도 계획해보면 좋겠음- 개인 회원들이 상담소를 방문하는 상담소 생일 행사도 향후 기획해볼 만함 | | | | | |
| 회원배가 참여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신규 및 증액 | 9 | 18 | 20 | 31 | 22 | 16 |
| | 활동가 권유 | 6 | 6 | 3 | 2 | 2 | 3 |
| | 중단 및 탈퇴 | 5 | 4 | 2 | 0 | 6 | 6 |
| | (정기)납입회원수 | 914 | 869 | 880 | 907 | 938 | 920 |
| | 정기후원회비 (천원) | 13,847 | 12,372 | 12,346 | 12,643 | 13,225 | 15,771 |
| | 일시·평생 후원금 | 310 | 370 | 18,919 | 3,542 | 4,140 | 2,682 |
| | 2019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신규 및 증액 | 33 | 29 | 21 | 17 | 22 | 24 |
| | 활동가 권유 | 2 | 3 | 5 | 2 | 2 | 2 |
| | 중단 및 탈퇴 | 8 | 26 | 5 | 7 | 2 | 5 |
| | (정기)납입회원수 | 959 | 967 | 1010 | 990 | 992 | 1041 |
| | 정기후원회비 (천원) | 13,518 | 13,661 | 16,941 | 16,719 | 16,687 | 17,419 |
| | 일시·평생 후원금 | 101 | 2,090 | 7,720 | 4,020 | 480 | 2,211 |
| 8월, 피해자가 가해자 합의금을 상담소로 기부하게 하여(월 250만원씩 12개월) 정기후원회비 대폭 증가. (~2020.08. 까지 납부) | | | | | | | |
| 사전 작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활동가 이메일 등 후원안내- SR 시스템 개선안 진행 | | | | | | |

| | | |
|---------|---------|--|
| 신규 회원 | 가입 및 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사무국 회원관리 담당 활동가 OT 관계로 가입동기 확인이 늦어졌음. - 현황: 정기회원 1121명(울림 포함), 납부회원 1041명(12월), 2019년 정기회원 신규 약정 262명, 평생회원 신규가입 8명, 일시후원 약정 254명. - 스마트레이저확인 및 개별 전화 소통 - 웰컴팩 발송 (소식지, 굿즈, 소모임안내서 등) |
| | 가해자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 프로토콜 진행 및 기록 - 카드결제 취소 및 반환 절차 진행 - 기록 기반 전성협, 언론 대응 등 - 홈페이지 메인 화면 계좌번호 삭제 - 모든 회원가입자 전화통화 및 통화 프로토콜 진행 후원금 반환/해지처리 한 가해자(추정 포함) 23명(12/1 기준). - 4/8 [카드뉴스] <Warning! 감경을 목적으로 기부하지 마시오!> 업로드 페이스북 도달 7,792회, 참여 2,176회, 트위터 조회수 공유 99회, 홈페이지 조회 399회 9/6 <!Warning! 경찰이 권유하는 감경후원> 카드뉴스 업로드. 불법촬영으로 수사과정 중에 있는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후원문의. 확인해 보니 경찰이 후원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서 카드뉴스화 함. 페이스북 조회수 3,314회, 트위터 2,129회, 인스타 228회 노출. |
| 기존회원 소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회원정보변경 안내 카드뉴스 제작 및 SNS 게시 (페이스북, 트위터, 홈페이지) - 주소변경 / 총회 정회원 안내 / 소모임 안내 그 외 소통 - 회원중단 시 멘트 안내 <p>8월에 나눔터 주소록 정리 겸 5년 이상 장기미납자 후원중단처리.</p> <p>후원금 미납자 관리를 위해 3개월/6개월 째 되는 달에 자동문자 설정. 6개월 이후 자동 후원 해지.</p> |
| 특별 후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아시아 내 외국기업 CSR 컨설턴트 루시아 미팅 - 11~2020년 1월 밴드 Bon Iver 2 A Billion 캠페인 서울콘서트 후원 지정 |

• 평가:

- 후원회원의 가입동기가 비슷한 점이 많아 가해추정인 식별 어려움. 후원 관련 이슈화로 인해 가해(추정)자의 가입동기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확인되지 않은 가해(추정)자 대응 방식을 새로 짜야 할 필요 있음. 후원회원 담당자가 확인전화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력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가해자에게 용인되는 다양한 양형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가져갈 필요성 제기됨.
- 2차례 이슈메이킹 목적의 카드뉴스 업로드(4월, 9월)로 성폭력 가해자의 감경후원에 대한 이슈메이킹이 되었음. 2018년 ~ 2019년 초 역고소 관련 연구와의 연결되는 지점도 있고, 언론의 주목도가 있어 관련 인터뷰, 기사 송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속 활동 진행됨. 감경 목적 후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초기 여론 형성에는 적합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됨. 차후 대법원 및 성폭력 가해자 변호 시장을 향한 다른 액션의 필요성 제기.
- 상담소 게시글 평균 조회수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높은 편이나, 4월 카드뉴스만큼 이슈가 되지는 않음. 가해자 변호사 시장과 가해자편향적 판결을 내는 법원을 향한 지속 액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향후 지속사업으로 가져갈 것인지 논의 필요.
-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담소 후원 후기글이 업로드되어 신규회원 대폭 증가. 2030 젊은 페미니스트들을 새로운 잠재후원자 집단으로 설정하여 맞춤형 후원 홍보를 진행할 필요 있음.
- 정기후원자는 매달 증가 추세. 일시후원-문자후원 등 다양한 후원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필요함.

3-3. 이사회

- 목표 : 논의 및 참여 활성화
- 진행내용

| | | |
|---------|--|---|
| 1월 22일 | 이명숙, 이미경, 변혜정, 이경환, 홍순기 이사(5명) @법무법인 나우리 | 총회 부의안건 심사 및 임원 후보 추천 처무규정 개정, 재정내규 개정 의결 1월 25일 총회 참석 신임이사(이윤상), 중임이사(이경환), 퇴임이사(최영애) 등기변경 완료 |
| 1월 25일 | 총회 | • 정기총회 : 1월 25일 이사회 참석 • 등기변경 : 신임이사(이윤상), 중임이사(이경환), 퇴임이사(최영애) 등기변경 완료 |
| 3월 19일 | 이명숙, 이미경, 변혜정, 배순희, 박부진, 이윤상, 장철우 이사 (7명) 정정희, 수수, 오매, 선민, 달별, 앞, 란, 주리 (8명) @한국성폭력상담소 | -상근활동가 이사 서로 소개하기 -활동보고 및 질의응답 (버닝썬 대응) -5월 엠티 대체 이사회 결정 |
| 5월 24일 | 이명숙, 박부진, 변혜정, 이경환, 이미경 이사(5명) @명우임상심리연구소 | -명우임상심리연구소 둘러보기 -활동보고, 비전 및 재정 TF 필요성 도출 -이공간인 약속, 평등문화 규정 공유 |
| 9월 17일 | 이명숙, 최보원, 박부진, 변혜정, 이미경, 이윤상, 홍순기 이사 (7명) @법무법인 나우리 | -열림터 25주년 후원의 밤 계획 승인 -30주년 TF계획 초벌 논의 |
| 11월 29일 | 이명숙, 박부진, 이경환, 이미경, 이윤상, 최보원 @법무법인 나우리 | -열림터 25주년기념 토론회 및 후원의밤 행사 공유 -2020년 총회 개최 의결 |
| 신임이사 OT | 대상 : 변혜정, 이윤상 이사 | 미 실시 |

- 이사회 의사록 공유 _ [회의록] bit.ly/ksvrc이사회

- 평가 :
- 정부부처 성평등기구, 낙태죄 위헌 이후 개정작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들과 해당 사안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정보 교류와 논의 지형 파악,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
- 긴급한 열림터 25주년 후원의밤 개최 제안과 이사회비 인상등 이사회가 앞장서는 재정마련 구조에서 이사들의 헌신과 깊은 숙고, 향후 30주년에서의 비전 논의 재정구조 분석 등 보다 근본적인 작업의 필요 제안 등 함께 하는 이사회였음
- 사임 이사와 신임 이사 등과 충분히 교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소개, 평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함

3-4. 정책, 운영, 국제협력 자문위원회

- 목표 : 상담소 운동방향, 사업내용에 대한 긴밀한 자문과 참여 활성화
- 진행내용 :
- 자문위원회 체계 및 분야 확정 정리 / 위촉장 발급 및 2년 갱신 제도 안내 > 진행못함
- 팀별 자문위원회 개최 : 성문화운동팀, 여성주의 상담팀
- 수시 자문위원 역할 도모 : 이슈별 대응기구 논의, 사업별 자문위원 활동, 조직운영 방안 자문

3-5.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

- 목표 : 논의하고 참여하는 총회, 정회원 활성화, 법인 행정변경
- 진행내용 :
 - 총회 안내, 홍보 : 2018월 12월 개최 공고, 1월 정회원 신규 신청, 재적수 확정 참석여부 확인
 - 정회원 활성화 : 정회원 가입 독려(신규 정회원 4명) 및 후원회원 전환(4명)
 - 중요 법인 변경 사항 : 변호사 공증 방식 변경(법무법인 원 원민경 변호사)
 - 감사 : 회계 감사 및 사업 감사(1월 17일)를 통한 감사 및 총회 보고
 - 논의하는 총회 : 2019년 주요 목표 공유, 인권 규정 논의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제28차 정기총회

- 개최선언 _ 이명숙 이사장
- 서기선출, 회순 승인
- 인사말 _ 이미경 소장
- 정회원 보고 및 성수보고 _ 총 70명 중 45명 출석 (참석 27명, 위임 18명)
- 전 회의록 승인
- 감사 보고 및 의견진술 _ 김미순 사업감사 / 배자하 회계감사
- 활동보고 _ 2018년 활동보고 (영상 / 팀별 올해의 장면)
- 안건
 - ❶ 2018 결산 승인
 - ❷ 2019년 사업계획 승인
 - ❸ 2019년 예산 승인
 - ❹ 임원 선출 및 퇴임 승인 _ 중임이사 이경환, 사임이사 최영애, 신임이사 이윤상
 - ❺ 규정 _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에 대한 규정(안) / 처무규정 변경
- 2018년 KSVRC 공로상 시상
 - 공로상 _ 이정선, 이호연, 단단
 - 감사패 _ 최영애, (유)체리츠
 - 용감한 반성폭력운동상 _ 김지은
 - 회원참여상 _ 정지은
- 공지사항 및 폐회

- 평가
 - 인권규정 및 처무규정 변경을 위한 2018년 하반기 규정TF 논의, 자문, 전체논의, 이사회 부의를 잘 거침
 - 새로 도입한 사업감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평가, 상담소 활동의 위상, 조정필요한 영역에 대한 조언 들음
 - 회계감사 1인 체제로 꼼꼼한 감사가 진행되었고, 총회에서 주요 회계처리 관련 쟁점을 공유함
 - 2019년 전체 목표를 수립하였음. 자문회의 논의 내용(‘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게’)등을 반영하여 수립. 다섯 개 팀 및 부설기관 공동목표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논의시간이 부족, 평가가 필요함
 - 회원참여상 신설, 용감한 반성폭력운동상 부활 등 보다 활성화된 총회를 위해 코너 마련됨
 - 처음으로 공증변호사 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예산 지출을 하여서 행정 편의는 높아졌으나, 회원참여율에 즉각 반영되지는 않았고 비용은 증가함

3-6. 온라인 모금 및 홍보

1)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텀블벅 (사무국 협업)

- 배경/필요성 : 2018년 <의심에서 지지로, 함께 하는 성문화운동> 사업의 후속 작업으로 2019년 3월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를 더 많은 개인 또는 기관에 알리고 배포하고자 온라인 모금 사업을 진행한다.

• 목표 :

- 1) 텀블벅 펀딩을 통해 자료집을 제작·배포할 예산을 마련하고, 대중에게 홍보한다.
- 2) 한국성폭력상담소 마스코트를 활용한 텀블벅 리워드를 통해 상담소에 대한 역동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를 만들고 소속감을 높인다.

• 담당 : 달별(사무국)/얏(성문화운동팀)

• 방법 및 계획 :

• 진행내용 :

〈자료집 발간〉

- 성문화운동팀 평가 참고(1-5.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텀블벅

〈텀블벅〉

| | |
|-----|--|
| 소개글 | <p>○ 텀블벅 홍보 :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p> <p>- 성폭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Q&A</p> <p>〈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는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에 힘을 더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자료집입니다. 사람들이 성폭력에 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이 답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부는 ‘왜 지지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성폭력 통념에 대한 10문 10답을 다루고, 2부는 ‘어떻게 지지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성폭력 해결을 위한 10문 10답을 다룹니다.</p> <p>Q. 성폭력, 판단 기준이 뭔가요?</p> <p>Q. 사실이라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요?</p> <p>Q. 우리 조직에 성폭력 관련 문제제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텀블벅 수수료와 실비를 공제한 수익은 전국 법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전국 검찰·경찰 성폭력 전담 부서, 전국 교육청 성폭력 신고센터 등에 이 자료집을 제작·발송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p> <p>- 한국성폭력상담소 마스코트로 반성폭력 운동에 연대하는 마음을 표현해보세요.</p> <p>○ 리워드</p> <p>1) 스티커</p> <p>크기: A5 사이즈(148*210) *전체 스티커 사이즈입니다</p> <p>사양: 아트지 90g/코팅/칼선 있음</p> <p>한국성폭력상담소의 마스코트인 마녀와 핑크표범을 이용한 스티커입니다. 친취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말하고, 설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동작으로 구성하였습니다.</p> <p>2) 엽서</p> <p>크기: 100mm*150mm (일반 우체국 엽서 사이즈)</p> <p>사양: 스노우지 250g</p> <p>엽서는 총 2종으로, 상담소 마스코트인 마녀와 핑크표범 일러스트가 예쁜 컬러와 함께 삽입되어 있습니다. 스티커에 사용된 일러스트 중 가장 멋진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스노우지를 사용하여 무광의 깔끔함을 살렸습니다. 뒷면은 엽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백이 많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p>3) 키링</p> <p>크기: 38mm*84mm</p> <p>사양: 금도금 일반칠</p> |
|-----|--|

| | <p>한국성폭력상담소의 마스코트, 마녀의 모자가 그려진 키링입니다. 연대하는 여성들을 형상화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심볼 마크도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홀로그램 pvc 미니스트랩을 함께 달아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아이템이에요!</p> <p>4) 기모후드 컬러: 모쿠그레이 사이즈: 아래 표 참조 (2XL까지 주문) 간절기와 겨울철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기모후드티입니다. 상담소 마스코트인 마녀가 짓궂게 웃고 있는 표정과 ‘의심에서 지지로’ 프로젝트의 영문타이틀인 ‘From doubt to Solidarity’가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에 코트/롱패딩 안에 입기에도 좋고, 간절기에 단독으로 입기도 좋은 밝은 그레이 컬러 후드티입니다.</p> <p>5) 보통의 연대: 주변인 체크리스트 책자 크기: 250mm*176mm (B5 2단 접지) 목표금액 150% 초과달성 기념 추가 리워드입니다. <2019 의지로 프로젝트_보통의 연대>에서 성폭력 주변인을 스스로 체크해보기 위해 만든 체크리스트를 편집하여 아주 작은 책자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32절지 크기로, 나와 성폭력 사이의 거리를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문항에 대답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체크리스트에 언급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p> <p>- 리워드 전체 일러스트 디자인 by. 이서희 - 리워드 구성</p> <table><tr><th>리워드</th><th>가격</th><th>자료집</th><th>스티커</th><th>엽서세트</th><th>키링</th><th>기모후드</th><th>배송비</th></tr><tr><td>1</td><td>9,000원</td><td>1권</td><td>-</td><td>-</td><td>-</td><td>-</td><td>포함</td></tr><tr><td>2</td><td>15,000원</td><td>1권</td><td>1장</td><td>1세트</td><td>-</td><td>-</td><td>포함</td></tr><tr><td>3</td><td>20,000원</td><td>2권</td><td>2장</td><td>2세트</td><td>-</td><td>-</td><td>포함</td></tr><tr><td>4</td><td>25,000원</td><td>3권</td><td>3장</td><td>3세트</td><td>-</td><td>-</td><td>포함</td></tr><tr><td>5</td><td>30,000원</td><td>1권</td><td>1장</td><td>1세트</td><td>1개</td><td>-</td><td>포함</td></tr><tr><td>6</td><td>45,000원</td><td>1권</td><td>1장</td><td>1세트</td><td>-</td><td>1장</td><td>포함</td></tr><tr><td>7</td><td>60,000원</td><td>1권</td><td>1장</td><td>1세트</td><td>1개</td><td>1장</td><td>포함</td></tr></table> <p>총 목표금액: 3,500,000원</p> <p>○ 목표금액 달성 공약</p> <p>100% 달성 시 전국 법원 성폭력 재판부, 검찰 성폭력 전담수사부, 경찰 성폭력 수사 관련 부처, 교육청 성폭력신고센터 등에 자료집을 배포</p> <p>150% 달성 시 2019 의지로 프로젝트, 보통의 연대에서 제작한 ‘성폭력 주변인 체크리스트’ 책자 버전을 모든 후원자에게 발송</p> <p>200% 달성 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중학교 5곳, 고등학교 5곳을 선정하여 총 170개의 학교에 자료집 배포</p> | 리워드 | 가격 | 자료집 | 스티커 | 엽서세트 | 키링 | 기모후드 | 배송비 | 1 | 9,000원 | 1권 | - | - | - | - | 포함 | 2 | 15,000원 | 1권 | 1장 | 1세트 | - | - | 포함 | 3 | 20,000원 | 2권 | 2장 | 2세트 | - | - | 포함 | 4 | 25,000원 | 3권 | 3장 | 3세트 | - | - | 포함 | 5 | 30,000원 | 1권 | 1장 | 1세트 | 1개 | - | 포함 | 6 | 45,000원 | 1권 | 1장 | 1세트 | - | 1장 | 포함 | 7 | 60,000원 | 1권 | 1장 | 1세트 | 1개 | 1장 | 포함 |
|--------|---|--------|-----------|--------|-----------|--------|-----------|--------|-----------------|--------|-----------------|--------|-----------|--------|-----------------|--------|-----------------|--------|-------------|--------|----------------------------|-----|---|---|----|---|---------|----|----|-----|---|---|----|---|---------|----|----|-----|---|---|----|---|---------|----|----|-----|----|---|----|---|---------|----|----|-----|---|----|----|---|---------|----|----|-----|----|----|----|
| 리워드 | 가격 | 자료집 | 스티커 | 엽서세트 | 키링 | 기모후드 | 배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000원 | 1권 | - | - | - | - |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15,000원 | 1권 | 1장 | 1세트 | - | - |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20,000원 | 2권 | 2장 | 2세트 | - | - |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25,000원 | 3권 | 3장 | 3세트 | - | - |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30,000원 | 1권 | 1장 | 1세트 | 1개 | - |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45,000원 | 1권 | 1장 | 1세트 | - | 1장 |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60,000원 | 1권 | 1장 | 1세트 | 1개 | 1장 |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행 일정 | <table><tr><td>03.28.</td><td>텀블벅 1차 회의</td></tr><tr><td>04.09.</td><td>텀블벅 2차 회의</td></tr><tr><td>05.03.</td><td>텀블벅 3차 회의</td></tr><tr><td>05.13.</td><td>텀블벅 굿즈 TF 1차 회의</td></tr><tr><td>05.24.</td><td>텀블벅 리워드 디자이너 미팅</td></tr><tr><td>06.07.</td><td>텀블벅 4차 회의</td></tr><tr><td>06.14.</td><td>텀블벅 굿즈 TF 2차 회의</td></tr><tr><td>06.19.</td><td>텀블벅 굿즈 TF 3차 회의</td></tr><tr><td>09.06.</td><td>텀블벅 업무조정 회의</td></tr><tr><td>10.21.</td><td><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텀블벅 오픈</td></tr></table> | 03.28. | 텀블벅 1차 회의 | 04.09. | 텀블벅 2차 회의 | 05.03. | 텀블벅 3차 회의 | 05.13. | 텀블벅 굿즈 TF 1차 회의 | 05.24. | 텀블벅 리워드 디자이너 미팅 | 06.07. | 텀블벅 4차 회의 | 06.14. | 텀블벅 굿즈 TF 2차 회의 | 06.19. | 텀블벅 굿즈 TF 3차 회의 | 09.06. | 텀블벅 업무조정 회의 | 10.21. |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텀블벅 오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3.28. | 텀블벅 1차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4.09. | 텀블벅 2차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03. | 텀블벅 3차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13. | 텀블벅 굿즈 TF 1차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5.24. | 텀블벅 리워드 디자이너 미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07. | 텀블벅 4차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14. | 텀블벅 굿즈 TF 2차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6.19. | 텀블벅 굿즈 TF 3차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06. | 텀블벅 업무조정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21. |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 텀블벅 오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01. | 리워드 샘플 촬영 및 텀블벅 업로드 |
| | 11.07. | 카드뉴스 1. “의심에서 지지로 Q&A 자료집, 대체 어쩌다 만든 거야?” 업로드 |
| | 11.08. | 텀블벅 홍보 회의 (with 자원활동가 채연, 민주) 목표금액 200% 초과달성 독려 SNS 공유 이벤트 시작 |
| | 11.11. | 카드뉴스 2. “의심에서 지지로 Q&A 자료집, 텀블벅 리워드 모아보기” 업로드 |
| | 11.19. | 카드뉴스 3.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A_성폭력 판단 기준이 뭔가요?” 업로드 |
| | 11.21. | 카드뉴스 3_ 페이스북 광고 삽입 |
| | 12.01. | 텀블벅 후원 마감 |
| | 12.02. | 후원자 결제 시작 |
| | 12.17. | 결제 대금 정산일 |
| | 12.23. | 텀블벅 리워드 배송 마감 |

• 평가

- 상담소 최초의 텀블벅 시도가 무사히 잘 마무리 됨. 의미와 내용있는 자료를 생산하였고 (의심에서지지로 QnA 자료집), 이를 홍보하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방안(전국 경찰, 법원 등 발송), 키템을 시장조사하여 제작하였고, 텀블벅에서 후원 및 리워드 시스템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시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함
- 목표금액 100% 달성 리워드에 공감하며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성폭력 주변인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도 구입하고 이 자료집의 내용을 꼭 읽어야 하는 대상에게 보내는 1+1 구매 개념으로 이해한 후원자가 다수임
- 상담소 마스코트를 디자인한 일러스트레이터와 다시 협업하여 퀄리티 있는 작업물을 받을 수 있었음. 좀 더 간결하고 강한 느낌으로 마스코트를 재디자인하여 앞으로의 상담소 홍보물에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됨.
- 적절한 가격설정과 리워드 물품 세트 배치로 많은 사람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였음.
- 사무국 신입활동가와 성문화팀 업무 사이에서의 협업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업무분배 및 기타 업무 과중 문제로 텀블벅 일정이 미루어졌고, 본래 일정보다 약 4개월 가량 늦어진 2019년 12 월에야 마무리됨
- 예정되지 않은 사업이라 당초 책정한 예산이 없어 사업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음.

2) 카드뉴스 및 홍보물 제작

- 목표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외화하고, 상담소와 관련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 | | | |
|------|------------|--------|------------------------------------|
| 카드뉴스 | 후원 감사인사 | 03.19. | 장정윤 회원 한라봉 후원 감사인사 |
| | | 04.15. | 상담소 생일맞이 28,000원 후원 감사인사 |
| | | 05.09. | 아트위켄드 X 이종혁 포토그래피 후원 감사인사 |
| | | 05.21. |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팬클럽 후원 감사인사 |
| | | 06.04. | EVE 피팬티 후원 감사인사 |
| | | 06.13. |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인권센터서포터즈 소중한대 후원 감사인사 |
| | | 11.04.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벽을깨고마주BORA>팀 후원 감사인사 |
| | 상담소 소식 | 04.01. | 후원회원 정보 수정방법 안내 |
| | | 04.12. | 한국성폭력상담소 28주년 생일떡 후기 |
| | | 04.24. | 한국성폭력상담소 워크샵 휴무 일정 안내 |
| | | 08.12. | 한국성폭력상담소 여름휴가로 인한 휴무 안내 |

| | | |
|-----------|--------|--|
| 이슈 파이팅 | 08.26.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보라! 자기방어훈련/따쿠르 프로그램 안내 |
| | 09.06. | 강유가람 감독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수상 축하 |
| | 04.08. | !WARNING! 감경후원금지 카드뉴스 |
| | 04.09. | 이윤택 2심 징역 7년 선고 |
| | 04.24. | 기자에 의한 집단 사이버성폭력사건 카드뉴스 |
| | 05.22.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 스케치 카드뉴스 |
| | 07.11. | KBS 기자에 의한 성폭력사건 무고죄 파기환송 축하 |
| | 07.19. | 5차 페미시국광장 배우 모집 카드뉴스(1) |
| | 07.30. | 페미시국광장 배우 모집 카드뉴스(2) |
| | 09.06. | !WARNING! 경찰이 권유하는 감경후원 카드뉴스 |
| | 09.11. | 미투시민행동 1차 카드뉴스 〈클럽 버닝썬, 대체 어떻게 된 거야?〉 |
| | 09.25. | 미투시민행동 2차 카드뉴스 〈그 많던 성폭력 사건들은 어디로 갔을까?〉 |
| 홍보물 | 03.19. | 나눔터 기자단 Meka 5기 모집 포스터 |
| | 04.30. | 제2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모집일정 안내 |
| | 05.02. |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기념 배너(페이스북, 트위터) |
| | 05.29. | 제29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모집 홍보 포스터 |
| | 06.07. | 6월 반성폭력 운동-장 홍보 포스터 |
| | 06.21. | NGO 활동의 평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포스터 |
| | 07.31. | 5차 페미시국광장 포스터 |
| | 08.07. | 5차페미시국광장 플랜카드 |
| | 09.24. | 미투시민행동 10차 페미시국광장 자원활동가 모집 포스터 |
| | 10.23. | 열림터 25주년 후원의 밤_스티커 4종 제작 (with 자원활동가 민주) |
| | 10.23. | 열림터 25주년 후원의 밤_무대 현수막 2종, 외벽 현수막 1종 제작 |
| | 11.21. | 이윤택성폭력사건 토론회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포스터 |

• 평가 :

- 일시후원자 후원예우로 후원 감사인사를 신설함. 프로젝트성 일시후원자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 있었음
- 상담소의 주요 이슈를 외화하여 감경을 위해 후원하는 가해자, 부추기는 변호사 시장·법원의 문제를 한국 사회에 환기하는 기회 제공
- 상담소 홍보물에 카드뉴스 도입, 한 눈에 보기 쉽게 소식 전달
- 손쉽게 저장하고 옮길 수 있는 이미지 형태의 게시글 증가하여 상담소 게시글이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 되는 경향 보임
- 어도비 전체 프로그램 이용 옵션을 결제하여 인디자인 등 상담소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증가하였음

3-7. 열림터 25주년 후원의밤 모금

• 목표 및 제안 배경

- 2019년 상반기 평가회의에서 재정상황(적자 및 적자해소 기대가 수행되지 않음) 점검 및 모금행사 개최 제안
- 이후 TF회의에서 열림터 25주년 모금에 대해 제기되는 필요성, 명의, 역할 분담 등의 문제를 논의

• 기획 및 준비 실무

| | | |
|------------|---------------|-----------------|
| 상근활동가 TF회의 | 7/4, 8/1, 9/9 | 열림터 25주년 모금 필요성 |
|------------|---------------|-----------------|

| | | |
|--|-----------------------------|--|
| (리산, 오매, 선민, 달별, 란 지희, 사자, (목련)) | | 지난 모금 행사 리뷰, 컨셉 및 제목 확정 장소 확정 및 답사 기획안 확정 (주요 프로그램), 섭외자 리스트 추출 식사 메뉴, 업체 선정, 기념품 1차 논의 |
| 상근활동가 회의 | 상반기평가회의 8/7, 10/2, 10/16 | 모금규모, 활동가 판매 액수 홍보일정, 기념품 2차 논의 상근활동가 공연 전체 프로그램 일람 및 D-1 OT |
| 티켓 배부 및 판매 (오매, 선민, 리산 + 전체) | | 티켓 배부, 우편 발송, 전화 확인 판매액수 확인, |
| 상근활동가 공연연습 (달별) | | 월, 수 공연 연습 및 리허설, 진행 |
| 세부 기획회의 (오매, 이리아봄, 채연, 민주) | | 세부프로그램 (3인 토크, 3인 컨셉), 인터뷰, 정리 |
| 실무회의 (오매, 김채연, 이민주 +봄, 달별, 사회자) (오매+수수) | | PPT 제작, 동선, 음향, 대본 홍보물, 스티커, 수건 등 디자인, 주문 포럼과 후원회밤 홍보-모집-실무 연동-물품 대여 등 |
| 출연자소통 (오매+출연진) | | 출연자 개별 소통 |

• 진행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내용 |
|-------|---------------------------------------|--------------------------------------|
| 18:50 | ① 사회자 (황금명륜, 오매) 등장 및 인사 (10') | 열린터와 사회자의 인연 스토리 소개 |
| 19:00 | ② 25주년 소개 인사 (이명숙, 지리산, 사자, 송미현)(10') | 열린터 문열기 / 제도만들기 / 공동체-생활인 문화 / 향후 과제 |
| 19:25 | ③ 우/리/들의 집을 찾아서 (봄, 순유, 주혜정) (10') | 활동가, 생활인, 후원자의 이야기 -글쓰기 + 말하기 |
| 19:45 | ④ 객석 토크 : 2030년, 내가 기다리는 열린터 뉴스 | 내가 바라는 2020년 열린터 뉴스 써보기 + 사회자 토크 |
| 20:00 | ⑤ 공연 : <이 얼음같은 세상을 깨고> (PPT) (10') | 노래부르기 |
| 20:10 | ⑥ 마무리 인사 + 후원자 PPT (봄 후원금 전달) | 후원자 명단, |

• 결산

: 참여자 210명 / 입금자 304명 40,440,000원 (현장 후원자 14명 1,550,000원 포함)

총 지출 8,861,730원 / 순수익 31,578,270원

• 평가

- 참여자평가 : (좋았던 점) 음식, 그냥 모든 게 다 좋았어요 힘받고 감 / 모두 / "무대" 컨셉, 구성 아이디어, 진행 / 열린터의 걸어온 세월에 대해 알 수 있어서 / 다 같은 마음의 합창 / 활동 소개와 3인 토크, 다른 참가 단체 소개 / 세상이 역동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모든 이
(아쉬운 점) 없음 / 음식(가성비 떨어지고 모자람) / 말하는 것과 화면 속도 안 맞음 / 텀블러 지참에 챙겼으나 티박스 옆 종이컵 무더기가 있어서 무심코 사용. 텀블러 사용하라는 현장 메모 있었더라면 / 사회자 음향 두개가 다름 / 2030년 뉴스 좋은 시간이었으나 스티커 발부에 충분한 설명 없어서 아쉬움

(기타) 페미니즘 만세 만세 만만세 감사 / 고맙다 / 2030뉴스: 체력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곳이야~! 열림터를 열고 지금까지 운영해주신 것에 감사 / 꼭 필요한 일을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의 의미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 / "생활인"의 참여, 고맙고 희망을 봄 / 열림터에 생활인 0명이 되는 그날이 오길

- 열림터 25주년 포럼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과 중간에 결정된 모금 사업에 대한 부담과 과부하를 활동가들이 많이 느꼈으며, 이것이 실무진행과 역할분담에 영향을 미쳐 일이 편중되어 늦어지는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였고, 현장에서의 완벽하지 못한 준비로 이어짐
- 열림터의 역사와 운영에서의 고민과 실천, 활동가-후원자-생활인의 생각과 삶 등을 펼친 내용을 통해 많은 이들이 열림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애정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생각보다 많은 참여인원으로 인해 열림터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느낄 수 있었고, 그에 비해 식사량 부족으로 접대가 소홀하여 아쉬움이 컸음
- 상근활동가 합창 준비를 통해 의미있는 협력의 시간을 보냄
- 티켓 판매 형식의 모금을 수행하여 부족한 재정을 완충하였음, 처음 티켓판매하는 활동가와 많이 판매하는 활동가 사이의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꾸준한 재정분석과 숙지, 모금에 대한 교육과 구상, 실천의 반복이 필요
- 사후 진행 사항
- 10/31 후원의밤 참여 감사문자 발송
- 11/5 기부내역 스마트레이저 입력 완료
- 11/18 기부금영수증 정보 입력 요청 문자 발송. 구글폼에 입력할 수 있도록 링크 첨부하여 발송.
- 후원의밤 후기 업로드

목표4. 평등한 공간, 조직, 사회와 좋은 삶 만들어 가기

4-1. 인권규정 도입 및 평등문화 정책 시행

목표: 규정 마련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신뢰를 높이고, 차별과 배제 없는 활동의 내실을 높여감

- 진행 내용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인권침해 예방 및 사안처리 규정 적용
 - : 홈페이지 및 블로그 게시
 - : 동료 상담제도 실시
 - >> 위원 선정 (상근활동가회의 무기명 추천 및 상위자 제안 및 선정 - 안선민, 김신아)
 - >> 진행 매뉴얼 : 초대 동료상담원 초안작성, 전체 회의 후 확정
 - : 발표 _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3월 14일(목)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토론회> 토론자 참석 신아 활동가
 - “규정 TF 활동 참여 과정 및 쟁점 소개”
- 이 공간의 약속 개정 및 운영 활성화
 - : 이 공간의 약속 개정 진행
 - : 이 공간의 약속 활용 - 홈페이지 게재, 활동가,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행사 및 교육 시작시 OT
- 상근활동가 동료상담원 선출 / 동료상담원 활동 방안 마련 (별첨)

• 상근활동가 동료상담원 운영중

• 9월 조직문화 워크숍 진행

• 취업규칙 및 처무규정 : 개정을 위한 상근활동가 TF (장기근속휴가, 안식년제도, 직장내 괴롭힘 조항 등

• 평가

: 동료상담은 총 3건 진행됨

- 동료상담원제도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방법을 논의하거나 갈등을 해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임 (현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라포형성의 특징으로도 보여짐 / 또한 문제해결의 기대가 없는 것인지도 고려 해볼 필요 있음) 이에 대한 활동가들의 평가 필요

- 동료상담이 많지 않다 보니 역할을 놓칠 수 있음 / 동료상담원 당사자는 이 부분 놓치지 않아야 함

- 하반기 규정 TF 운영으로 상담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지향을 반영한 규정을 제정

- 동료상담원 운영 매뉴얼 논의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필요한 조직적, 동료로부터의 지원과 실제 가능성을 타진

- 타 단체 및 기관에서 참고하고 활용하는 자료로 공유됨

-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꾸려가려는 노력들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문화 형성

4-2. 일하기 좋은 조직 만들기

• 급여인상 및 명절 상여금 상향 조정 : 이사회 검토 및 의결

• 건물보수 : 전층 화장실 공사 / 1층 주방공사(아일랜드 조리대, 식기세척기) / 외부 프레임 및 지하 페인트칠

• 상근활동가 워크숍 : 4월 27일-29일(목, 금, 토) @파주 초호쉼터

• 목표

: 15명의 상근활동가, 2명의 휴직자 - 서로 친해지고 산책하고 놀고 여행하고 웃는 시간

: 상근활동 하면서의 고민을 서로 듣고 나누고 연대하기

• 사전준비

: 사무국 초안논의, 장소답사 (4/2) 이후 워크숍 컨셉트 및 프로그램 초안마련, 전체 논의 후 확정진행

: 사무 및 상담전화 휴무 공지

• 일정 및 프로그램

: 2019년 4월 25일(목)~27일(토) / 파주 초리골 / 초호쉼터

| | 4/25(목) | 4/26(금) | 4/27(토) |
|-------------|---|---|---------------|
| 08:00-09:00 | | 아침식사 자유시간/휴식 | |
| 09:00-10:00 | | | 모듬여행 미션 제출 |
| 10:00-11:00 | 짐신키 / 출발 | | 워크숍 회고하기 / 나눔 |
| 11:00-12:00 | 11:20 도착 : 마을지도, 마을산책 | 여행모듬짜기 / 미션받기 | 짐신키, 출발 |
| 12:00-13:00 | 점심식사 (초리연) | KSVRC 모듬여행 평화를품은집 마장저수지출렁다리 (점심식사) | |
| 13:00-14:00 | KSVRC활동가 안녕하세요 _ 나의 안녕하세요 + 모듬모으기 _ 구석구석 이야기나눔 (차집, 할머니국수, 초호1 카페 등) | | |
| 14:00-15:00 | | | |
| 15:00-16:00 | | | |
| 16:00-17:00 | | | |
| 17:00-18:00 | 숙소정리, 씻기 등 | 숙소정리, 씻기 등 | |
| 18:00-19:00 | 저녁식사 : 바베큐 | 저녁식사 및 휴식 | |
| 19:00-20:00 | 모듬발표 | | |

| | | | |
|-------------|-----|--------------|--|
| 20:00-21:00 | | KSVRC상근자 청백전 | |
| 21:00-22:00 | 뒷풀이 | | |
| 22:00 이후 | | 뒷풀이 | |

• 목표평가
 1) 서로 친해지고 산책하고 놀고 여행하고 웃는 시간
 - 장소 및 환경 : 청결상태 걱정했으나 양호함 / 산책할 수 있는 조용한 마을, 비와서 운치가 좋음
 - 휴식, 놀이, 여행 : 많이 웃을 수 있었고, 놀 시간 필요했음 / 직접 취사하지 않았던 것 / 파주 여러 지역 가본 것 좋음, 국내 여행 즐거움이 부활 (마장저수지, 평화도서관)
 2) 상근활동 하면서의 고민을 서로 듣고 나누고 연대하기
 - 다른 활동가들 고민 들을 수 있었음 : 체력 및 건강상태 공유
 - 다른 성향과 문화의 차이를 알게 된 시간
 - 오래 활동한 활동가들에게 격려받고, 승리했던 시간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좋음
 3) 총평
 - 함께함 : 2박3일 하며 평소와 다른 모습과 감정들 교류 / 게임을 통해 새로운 모습과 팀워크, 시너지를 알게 됨 / 부딪쳐야 할 것들을 알고 도전하는 시간 / 팀워크가 좋을 때 더 깊이 연대해야 위기가 올 때 풀어가갈 수 있음
 - 아쉬움 : 체력이 부족하여 음주가무를 충분히 즐기지 못함 / 일정이 많아서 뒷풀이에 에너지 부족
 게임 등에서 승부욕을 낮추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종목 선택, 골고루 팀배치 등 고려 필요

• 한국성폭력상담소 근조기 도입

• 휴직 및 장기근속 휴가

: 육아휴직 / 병 휴직 / 출산휴가, 육아휴직

: 장기근속휴가 _ 선민(9월)

: 주 4일 출근자 - 김혜정 (대학원), 주 3일 출근자 - 김보화 (박사논문 집필)

• 활동가 면담 : 11월 ~ 12월 소장 면담 진행

• 12월 특별휴가 : 12월 24일~12월 31일 - 2인 근무 체계

• 평가

- 질병,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하는 활동가가 있었고, 학업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주 5일에서 3일, 4일로 조정하는 활동가가 있었으며, 상담활동가가 신설되어, 다양한 근무시간과 휴직이 공존하는 사무실을 지내옴. 팀별로 과부하가 걸렸음에도 이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더 나아가 예비적인 개입과 조치가 부족하였던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함.

- 연말 처무규정 개정 논의를 통해 상담소에서 도입이 필요한 신설 휴가와 안식년에 대한 개선 등을 논의하였음. 상담소의 평균 근속연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심, 인력의 성장과 지속성, 다른 동료들과의 공존 방식에 대한 서로의 필요와 상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됨

- 1층 점심모임의 형성, 부엌, 문짝, 주차장 외벽 등 보수공사, 컴퓨터 기기 업그레이드 등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건물을 지은 지 5년이 넘어, 지속적으로 청소를 통한 돌봄과 청결유지가 더욱 중요한 점을 실행해야 함

- 아침나눔 일정이 1회성으로 칠판에 적었다가 지움으로 인해 우리의 운동자료가 유실되고 있어 구글캘린더로 교체가 필요함

- 휴가의 3일전 신청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많은 활동가들의 야근과 외부 회의 및 행사 참여, 소모임과 교육 진행 등으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되어 당일 휴가로 이어지고 있음. 상담소 출근자의 일정 숫자 유지보다는 피로회복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되기도 하나, 사전 휴가 신청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일과 삶의 계획적인 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4-3. 사무국 업무 총괄

- 목표 : 상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관리한다
- 진행내용

| 분류 | 진행내용 및 평가 |
|--------------------------|---|
| 사무국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이월 : 부소장 - 안선민 사무팀장 - 백목련 활동가 • 팀회의 : 소장 이미경, 부소장 김혜정, 안선민, 달별 활동가 / 월2회 |
| 회의 체계 운용 | 아침 나눔 팀 회의 - 성문화팀(부소장), 상담팀(소장), 연구소(연간회의) 팀장회의 _ 월 1회 진행 평가 계획 회의 활동가 개별면담 : 11월 한달간 진행 |
| 주요공문과 상담소 내외 문건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 관련 문서 (각종 활동증명서, 경력관리, 수료증 등) |
| 지자체 지도·점검 등 행정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지도점검, 안전점검 • 시설평가 : 10월 7일 진행 - 현장감점 - 일일수퍼비전 기록지 누락, 내담자 개인정보수입 및 활용 동의서 누락 - 현장가점 - 활동가 안전 이슈 관련 : 2018년 작은말하기 이후 3차례 수퍼비전 교육 기록(총회 자료, 해당 문구 필요) - 향후 과제) : 분말형 소화기는 10년 사용기간이지만 자주 흔들어져서 굳히지 말아야 함 / 투척형 소화기 10~20 구매 : CCTV 위치 확인 및 저장기간 확인 : 상담팀 면접상담 신청서에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양시 도입 : 연간 의무교육 리스트업 및 진행 상황 확인 - 안전/ 개인정보보호/ 아동학대, 아청 성범죄 신고의무자 : 활동가 공격 방지 관련 : 감정노동자 응대시 경고 등 공지 (부착 혹은) 및 교육 필요 |
| 발송문서 검토, 주요 문서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문서 수발신 |
| 인사, 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 진행 (2월 : 달별, 수수, 12월 : 열림터 활동가) • 휴직 : 성문화운동팀 1인(육아), 연구소 1인(병휴직), 상담팀 1인(출산 육아) • 2월_ 회원소통 담당 연경활동가 이사로 사직, 한소망 활동가 홍보 활동 시작 • 12월_ 회계 및 사무팀장 선민 활동가 이사로 사직, 백목련 (전 열림터) 활동가 2020년 1월부터 근무 • 상담팀 : 노조선이 활동가 2019년 12월 4일부터 근무 (전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 신규채용 - 열림터 및 성문화운동팀 (12월 또는 1월 진행) |
| 공통메일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계정 유료화 |
| 경조사 등 | 근조기 제작 운영 : 운영방식 정리(발송 대상/ 발송환송방법) |
| 재정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 회계감사 - 기부금영수증:2018년도분 홈텍스업로드 - 2018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마포구청 - 2018년도 세입/세출 결과 보고 - 마포구청 • 2월 - 연말정산 - 2018년도 보수총액신고-사회보험EDI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상담소 홈페이지 게시 - 2018년 회계결산자료 상담소 홈페이지 게시 - 연간기부금모금활동실적명세서 제출 / 국세청 홈텍스 - 출연재산명세서 내역 도출 업로드 및 공익법인 결산자료 마포세무서 우편 제출 •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결산공시 / 국세청 홈텍스 신고 •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 신고제출 / 국세청홈텍스신고 •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충상반기지도점검 (6월 ~ 7월)상반기 평가 • 8월~12월 일상재정업무 및 각 프로젝트 자출등업무 •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평가 • 11월 당해연도 결산 평가준비 • 12월 다음연도 예산작업 및 회계 결산마감 작업 |
|--|---|

• 평가

- 연초 두 팀장의 휴직 등으로 인해 팀별 협업체계 마련 필요를 위해 시작한 팀장회의의 정례화(월 1회)가 불분명한 목표 설정, 책무와 권한의 비공식성 등으로 인해 평가를 통해서 당분간 폐지되었음. 연말 논의에서 '팀장은 필요할 수 있고, 팀 내에서 결정하고, 처무규정-재정내규상의 팀장 관련 근거조항은 그대로 두되, 팀장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 회계재정담당이 변경된 해였는데, 열림터 활동가가 상담소로 이동하여 신규 활동가가 아닌 기존 활동가가 회계 재정업무를 이어 받아 보다 안정적인 이월, 신선한 순환을 도모함

인권침해대응 및 평등문화 증진 활동 보고

○ 배경 및 경과

- 2016년 조직 내 인권침해 사안 발생 및 상근활동가 단위 논의
- 2016년 <이 공간의 약속> (ver. 2016) 시행 (교육, 홍보, 적용)
- 2017년 27차 총회 해당 사안의 경과, 진행과정, 향후 과제를 보고
- 2017년 향후 과제 중 조직 내 인권의식 실태조사 (외부연구용역) 진행
- 2017년 성평등교육 (직장내 성희롱 문제 및 문제해결과정) 진행
- 2017~2018년 <인권침해 처리규정> 구성 논의 : TF팀, 상근자회의 전체, 자문, 이사회
- 2018년 <이 공간의 약속> (ver. 2018) 시행 (교육, 홍보, 적용, 평가 및 논의)
- 2018년 성평등교육
- 2019년 28차 총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에 대한 규정> 승인
-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에 대한 규정> 홈페이지 게재 및 외부 발표
- 2019년 '동료상담원 제도' 시행, 초대 동료상담원 (2인) 선출, 동료상담원 운영매뉴얼 신설
- 2019년 성평등교육 (조직문화 워크숍)
- 2020년 29차 총회 '인권침해 대응 및 평등문화 증진 활동' 보고

○ 동료상담원 활동보고

| | | | |
|-------|--|------|----------------------------|
| 작성일 | 2020.01.20 | 활동기간 | 2019.04.01 - 2020.01.31 |
| 동료상담원 | 신아, 선민 | 상담건수 | 3 건 |
| 상담내용 | <p>업무 분장의 명확성이 모호하여 지속적인 감정 소모와 불편함이 발생했고 이에 대하여 동료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함</p> <p>동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절했는지에 대하여 동료상담원에게 상담을 요청함</p> <p>동료가 심정적으로 어렵고 업무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동료가 동료상담원의 개입을 요청함</p> | | |
| 활동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뿐만 아니라 개별 동료들이 관계 및 업무상에서 갖고 있는 고민이나 불편한 지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료상담원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동료상담원 2인을 연차 등에서 다르게 구성한 것이 실제 상담시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음. 동료가 동료상담원 2인의 연차와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여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였음 - 동료상담원 시행 첫 해이고 상담이 오랜 기간 들어오지 않다보니 상담원이 | | |

| | |
|--------|--|
| | 역할을 인지하지 못한 기간이 꽤 길었음 |
| 조직에 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상담원제도 이용에 대한 절차를 동료상담원은 물론, 동료들도 잘 숙지하여 비밀의무 등의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상담소 활동가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상담소에서 지내면서 서로에게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지냅니다. 반면 놀상 바쁘고 각자가 맡은 업무에서 높은 완성도를 충족할 것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세세한 역동들은 놓치거나 건너뛰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개인이 혼자 감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후배 활동가가 익숙해지거나 숙련되기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헌신하는 것이 문화가 되지 않도록, 동료의 속도나 동료가 처한 상황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여유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조직의 관리자들이 바쁘면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바빠지며 실제로 가장 바쁘게 일하는 동료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관리자들이 업무량을 줄여서 여유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

※ 인권침해 사안접수(문서 접수)는 2019년 0건임

○ 동료상담원 운영 매뉴얼 (2019.5.23. 상근활동가 회의 의결, 초안 작성 by 초대 동료상담원)

동료상담원의 태도

1. 동료상담원은 여성주의 및 성평등 관점을 견지한다.
2. 동료상담원은 동료 간 신뢰에 기반해 상담한다.
3. 동료상담원은 동료의 이야기를 동료의 조건과 맥락 위에서 이해한다.

동료 상담의 진행

4. 동료상담원에게 직접 구두로 또는 개인연락처로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한다.
5. 상담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진행한다.
6. 상담일시는 상담원과 동료의 일정을 조율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으로 정한다.
7. 동료 상담과 동료간 대화를 구분하기 위해 1회 상담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한다.
8. 비밀보장을 위해 장소는 외부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상담소 내부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9. 비밀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에 상담한다.

동료상담원 운영

10. 임기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11. 임기 시작 전, 동료상담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전 동료상담원과 사무국이 진행한다.
12. 동료상담원 2인은 서로 상담내용을 공유 및 의논한다. 단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
13. 동료상담원 2인이 동석하여 상담할 수 있다.

14. 상담 내용은 기록은 임기 종료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남기며, 신상이 특정되지 않는 정도로 유형화하여 임기 내 기록한다.

예산

15. 동료와 상담원은 상담시 1인 8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동료상담원 임기의 종료

16. 임기 종료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상근자 회의에서 보고한다.

17. 임기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 공간의 약속>

1. 우리는 나이, 상근여부, 직책, 활동기간, 지원-피지원 관계 이전에 동등한 사람이며 여성인권운동에 참여하는 주체이다
2.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외모표현, 신체조건, 피부색, 병력, 장애, 연애와 결혼여부 및 형태, 임신출산 여부 등에 관하여 '정상적, 이상적' 기준을 세워두고 판단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다양한 사람과 함께 활동함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4. 신체접촉 친숙도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며, 나의 접촉이 상대방에게 불편할 수 있음을 유의한다
5. 차별, 배제, 혐오표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자유롭게 문제제기하며, 제기받은 사람은 적극 시정한다
6. 모든 활동에서 구성원이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 도구, 음식 등을 준비한다
7.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의 태도로 함께 변화해간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에 대한 규정> 개정 (2020.1.31. 이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에 대한 규정

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 내 갈등 문제를 동료 및 조직관계에서 공동으로 해결해나가고, 인권침해 사안을 처리하는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평등문화를 지속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기본원칙)

- ① 상근활동가는 서로 연결된 동료로서 연대애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 ② 상근활동가는 갈등문제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데 상호 노력한다
- ③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갈등문제와 인권침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 확인, 개선, 재발방지를 도모한다

④문제나 인권침해를 겪은 사람에게 발생한 어려움을 고려하며, 그것이 복구되는 방향을 지향한다

3조(적용범위)

①발생 당시 상근활동가인 사람이 업무관계에서 겪은 일에 적용한다

②단, 8조 이하의 경우 피신고 대상자는 신고 당시 상근활동가인 자에 한한다

4조(정의)

①상근활동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며 상근활동가 정기회의의 결권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②갈등문제란 다양한 이유로 본연의 업무활동에 대한 의지 및 업무역량을 제한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③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아직 법률이나 조약, 관습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공공적 이해에 도달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개념을 포함한다.

④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통합성 및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⑤차별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언어, 인종, 피부색, 국적,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상황,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출신학교, 경제적 상황, 병력 또는 건강상태, 유전 형질,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업무관계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⑥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20.1.21. 개정)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5조(교육)

①(담당)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과 관련한 교육은 사무국에서 총괄하되, 상근활동가 회의에 따라 역할순환이나 배분할 수 있다.

②(정기교육) 평등문화, 성폭력 예방 및 인권감수성 교육은 의무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신입 활동가 및 리더 교육에서 필수로 진행한다.

③(동료상담원교육) 상담소는 동료상담원으로 위촉된 상담원에게 역할 수행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야 하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동료상담원제도 운영의 목적, 동료상담원의 역할, 의무, 인권침해 사안처리규정 등 관련된 전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료상담원은 임기 내 상시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를 지원한다.

④(사안처리 관련) 상담소는 신고 이후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권리와 책임,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사안처리 과정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의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변화를 도모한다

⑤(조사위원회교육) 조사위원회 구성 시 위촉된 조사위원 전원에게 역할, 의무,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를 지원한다.

6조(동료상담)

①(목적) 구성원 간의 갈등 및 구성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조직 내 평등문화를 확산한다.

②(동료상담원) 동료상담원은 2명이며 상근활동가 회의에서 선출한다.

③(임기) 동료상담원 임기는 1년이며 필요시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동료상담원의 역할 및 책임)

1. 동료 고충·갈등 및 인권침해 사항 경청
2. 동료의 신원과 상담내용의 비밀 보장
3.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는 정도로 유형화하여 기록, 임기내 보관
4. 임기 내 조직 내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제언
5. 조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의견 개진

⑤상담소는 동료상담 제도를 위하여 예산과 역량교육을 지원한다

7조(중재와 사과) 동료상담원은 요청에 의하여 중재할 수 있다. 중재는 직접 대면 및 제3자 소통을 통한 사과 또는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할 수 있다. 동료상담원은 해당 사안에 관해 상담소 문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언할 수 있다.

8조(신고) 신고인은 인권침해, 성폭력,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신고를 보고 받은 즉시 인권침해 사안 해결 절차를 시작한다. (신고 이메일 계정안내) (개정 2020.1.21.)

9조(신고 관련인의 권리 및 책임)

①신고 접수 직후 사무국에서는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조치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공지한다.

②신고인은 사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사무국은 신고인에게 이를 고지한다.

1. 조사시 신뢰관계인과 동석할 권리

2. 임시조치를 요청할 권리

3. 조사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동료상담원, 사무국, 조사위원은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④신고인, 피신고인, 조직은 공동체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피신고인이 된 상근활동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전 과정에 성실하게 임한다.

10조(임시조치)

①피신고인은 신고인이 원치 않는 연락이나 합의, 화해 중용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사무국은 직권 또는 신고인의 신청으로 공간분리, 임시휴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피신고인이 위 1, 2항을 위반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제재될 수 있다.

11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제8조에 의거 인권침해 사안이 공식 신고되면, 사무국은 10일 이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②조사위원은 3-5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사안에 맞는 적절한 인사여야 한다.

③조사위원장 1인은 조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대한 판단은 이사장이 한다. 이사장이 기피 대상일 경우 이사중 1인이 판단한다.

12조(조사위원회의 역할)

①조사위원회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 진술, 참고인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회의록 등 사건 조사과정 전반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③조사기간은 4주를 넘지 않는다. 단, 사안에 따라 1회에 한해 최대 2주를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를 토대로 가해자 징계, 피해자 권리보장, 조직문화 개선, 인권침해사안 공유 범위와 방법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13조(징계처분)

①이사회는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임시 이사회 등을 거쳐 2주 안에 의결해야 한다.

②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징계위원회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11조 4항을 준용한다

③이사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무규정에 따라 징계하며, 피신고인 또는 사무국에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치료, 상담,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및 손해배상금 지급 권고

2. 피해자에 대한 사과 권고

3. 가해자 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수강

4. 신고인과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5. 피해의 원상복구,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및 시정,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6. 이 외에 필요한 조치

③위 항에 따라 처분을 할 경우 이행주체, 이행기간, 이행확인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④사무국은 징계 및 처분 결과를 5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조(재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달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사유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제정 2019년 1월 21일 이사회 (1월 24일 총회)

개정 2020년 1월 21일 이사회 (1월 31일 총회)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전체 5권

| 제목 | 발행월 |
|---|-----|
| 자료집 | |
| 2019년 28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자료집 | 1월 |
| 성폭력, 의심에서 지지로 QnA 성폭력 통념에 대한 10문 10답, 성폭력 해결을 위한 10문 10답 | 3월 |
| [열림터 25주년 기념 포럼 자료집]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 10월 |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 |
| 나눔터 83호 | 8월 |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이슈리포트 | |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3호 | 12월 |

전체 120건 (전년 106건)

| 카테고리 | 월 | 일 | 제목 |
|---------------------|---|----|--|
| 상담소는 지금 (61건) | 1 | 2 | [12월 차별금지법제정 활동 후기] 세계인권선언 70주년과 성탄절의 메시지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 | 1 | 2 | [후기] 6차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 후기 |
| | 1 | 2 | [후기] 안희정 2심 첫 공판 옐로우카드 액션 "피고인에게 질문하라" |
| | 1 | 9 | [후기]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100일 간의 1인 시위 진행 중! |
| | 1 | 31 | [후기] 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
| | 1 | 31 | [기자회견후기]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 | 1 | 31 | [후기]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 - |
| | 1 | 31 | [후기] 2018 일상회복 프로젝트 이야기 |
| | 1 | 31 | 2019년 제28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
| | 2 | 27 | 제 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후기 |
| | 2 | 27 | 2018 성폭력 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 후기 |
| | 2 | 27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2호(2018년) 발행 후기 |
| | 2 | 28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에서 말한 것 |
| | 2 | 28 |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 |
| | 2 | 28 | 젠더X형법학자가 말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 역사부터 개정까지 |
| | 3 | 12 | [기자회견 후기] 영화감독 김기덕 3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탄 위한 긴급 기자회견 |
| | 3 | 12 | ['낙태죄' 위헌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
| | 3 | 12 | [후기] 2019년 3.8 세계여성의날 여성대회, 상담소는. |
| | 3 | 18 | [후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
| | 3 | 21 | '강간죄 유죄율 90%'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 - 후기) |
| | 4 | 1 | UN 여성지위위원회(CSW) 참가기 ; 세계 5,000 NGO 활동가들과 '성평등 사회'를 향해! |
| | 4 | 1 | [후기] 집회 <카운트다운 :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

| 카테고리 | 월 | 일 | 제목 |
|------|---|----|---|
| | 4 | 1 | 인권침해 문제해결 및 평등문화 증진규정 제정하기까지 |
| | 4 | 1 | [후기] '버닝썬'만의 문제가 아니다!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
| | 4 | 8 | [카드뉴스] ! WARNING ! 감경을 목적으로 기부하지 마시오 |
| | 4 | 18 | [후기] 4월 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그날의 기록, 그리고 그 이후…… |
| | 4 | 29 | [후기] 이운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기자회견 |
| | 4 | 30 | [카드뉴스] 상담소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자들에 의한 집단사이버성폭력사건', A to Z |
| | 4 | 30 | [후기] 메카 5기의 〈그런 남자는 없다〉 세미나 |
| | 4 | 30 | [후기] 2019.0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방청 후기 |
| | 4 | 30 | [후기] 한국여성학회 4월 긴급집담회 : 교환되는 여성의 몸: 디지털 시대의 성폭력, '성접대', 성매매 |
| | 5 | 23 | [후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은폐·조작 자행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 |
| | 5 | 30 | [후기] 검찰규탄 긴급 기자회견 및 점거농성 “검찰이 공범이다” |
| | 5 | 30 | [후기]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서울함공원을 통해 살펴보다 |
| | 5 | 30 | [후기] 연속 집담회 : 피해와 생계 사이 1회차 '노동은 비정규, 성희롱은 정규?' |
| | 6 | 20 | [후기] 5월 31일 서울퀴퍼닷 부스 〈퀴어하게, 적극적 합의!〉,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 |
| | 7 | 1 | [후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 | 7 | 1 | [후기] 군수와 도지사 - 위력 성폭력에 맞서다 : 6월 반성폭력 운동-장 |
| | 7 | 1 | [후기] 지도받을 권리, 지배받지 않을 권리 - 피해와생계사이 2회 집담회 |
| | 7 | 1 | [후기] 2019 ONE BILLION RISING IN KOREA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
| | 7 | 1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규탄 기자회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을 규탄한다!” |
| | 7 | 12 | [후기] NGO 활동의 평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 | 7 | 31 | [후기] 일상회복 프로젝트 후기 ① |
| | 8 | 1 | [후기] 일상회복 프로젝트 후기 ② |
| | 8 | 1 | [후기] 30기 성폭력상담원 기본교육을 마치며 - 통념에서 깨어나 나와 사회, 그리고 세상을 통찰하기 시작하다 |
| | 8 | 30 | [후기] 5차 페미시국광장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 개혁, 우리가 한다〉 |
| | 9 | 18 | [후기]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
| | 9 | 27 | [후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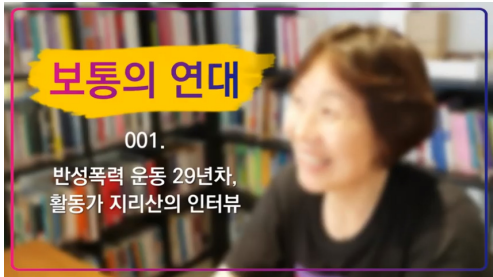
| 카테고리 | 월 | 일 | 제목 |
|----------------------|----|----|--|
| | 9 | 30 | [후기]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액션 #우리의임신중지를지지하라 #MyAbortionMyHealth |
| | 9 | 30 | [후기] 10차 페미시국광장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이제는 강간죄다.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
| | 10 | 1 | 안희정 성폭력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 기자회견 후기 9/9 |
| | 10 | 14 | [인턴활동기] 2019년 여름, 상담소에서 by 진 |
| | 11 | 1 | [후기] 2019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
| | 11 | 1 | [후기]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서울시 교육청과의 간담회 |
| | 11 | 1 | [후기] 2019 프로스페라 아시아태평양 지역통합회의 (Regional Convergence)를 다녀와서 |
| | 11 | 1 | [사진으로 다시보는] 열림터 25주년 포럼과 후원의밤 |
| | 11 | 20 | [후기]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 11 | 25 | [후기]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토론회 |
| | 11 | 26 | [후기] 보통의 연대 WORKSHOP <나와 성폭력 사이의 거리는 몇 M일까?> |
| | 11 | 29 | [후기]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판결문 다시 쓰다 |
| | 12 | 4 | [후기] 이윤택 성폭력사건 대응의 의의와 쟁점 토론회 <분노가 지나간 자리, 다시 무대에 서다> |
| | 12 | 27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3호(2019년) 발간 후기 |
| 시끌시끌 상담소 (29건) | 1 | 2 | [후기] 여성주의 수다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
| | 1 | 3 | [후기] Meka 4기 12월 세미나: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
| | 2 | 26 | [반성폭력 응원하는 10초의 실천, 문자후원] 2018년 결산 |
| | 3 | 28 | [후기] 일본 희망씨앗기금 <한국의 #Me Too, #With You를 느끼는 여행(韓國の#Me Too, #With Youに触れる旅)> 방문단 내방 |
| | 3 | 29 | 상담활동가 2월 소모임 |
| | 4 | 1 |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14회차 |
| | 4 | 15 | 한국성폭력상담소 28번째 생일맞이 떡 나눔의 날 |
| | 4 | 30 | 2019년 4월 작은말하기 후기 |
| | 4 | 30 | 2019 상근활동가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
| | 5 | 27 |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15회차 : 차별잇수다 오프라인 워크숍! |
| | 5 | 30 | [후기] 2019 '3년차 이하 여성단체 활동가 역량강화 캠프' |
| | 6 | 19 |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16회차 : 쿼어 영화제에 다녀왔어요~ |
| | 7 | 9 | [후기]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교육 : 보통의 연대 인터뷰어가 될 준비하기 |

| 카테고리 | 월 | 일 | 제목 |
|----------------------|----|----|---|
| | 7 | 23 | [후기] 상담소 인턴 활동_마이라의 편지(Mayra's letter) |
| | 8 | 27 | [후기] 광복절 이틀전, 여성해방 위해 그녀들이 온다! "청년여성" (부제:페이스북의 '여성의 유두' 노출 금지 규정에 항의하다) |
| | 8 | 29 |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18회차 : 광복절, 영화 "어폴로지" 함께 보기 |
| | 8 | 30 | [후기] 회원소모임 <내가 반한 언니> 첫 모임: 영화 '미스 슬로운' |
| | 8 | 30 | [후기] 8.29 일본 연구자그룹 내방 |
| | 11 | 1 | [후기] 와세다봉사원 스터디투어팀 내방 후기 |
| | 11 | 1 | [후기] 회원 모임 '내가 반한 언니' 두 번째 영화 <무지개 너머: 드래그 퀸 마샤 P 존슨> |
| | 11 | 1 | [후기] 회원 모임 '내가 반한 언니' 세 번째 영화 <우리의 20세기> |
| | 11 | 20 | [후기] 회원모임 '내가 반한 언니'의 네 번째 모임 <두 줄> |
| | 11 | 26 | [후기] 열림터 25주년 후원의 밤 : 우리들의 집을 찾아서 |
| | 11 | 27 | [후기]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열림터 25주년 기념 포럼을 열다! |
| | 11 | 28 | [사진으로 보는 후기] 아프리카 만델댄스 원데이클래스 - 춤으로 자유를 만끽하라 |
| | 12 | 23 | [후기] 2019 차별잇수다 보고회 <말하는 우리, 커지는 용기> |
| | 12 | 27 |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 말 대잔치" 20차 모임 : 페미말대잔치 시즌2 참여자 적극 모집중! |
| | 12 | 27 | [사진으로 보는 후기] 2019 한해보내기 <메리페미크리스마스> |
| | 12 | 30 | [후기] 자원활동가 민주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 4개월 |
| 이슈를 말하다 (1건) | 9 | 10 | [후기] 스스로 훼손한 명예에 대한 배상 소송 : 탁현민-여성신문사 항소심 공개변론 9/5 |
| 성폭력에 대해서 (28건) | 3 | 27 | 나눔터 83호 <생존자의 목소리 ①>#Metoo 엄마에게 (쓰는 편지) 후편 -리아 |
| | 3 | 27 | 나눔터 83호 <생존자의 목소리 ②>행동할 권리 하편 - 만두 |
| | 3 | 27 | 나눔터 83호 <생존자의 목소리 ③>나를 위한 최선의 세계- 김봄 |
| | 3 | 27 | 나눔터 83호 <생존자의 목소리 ④>나비 이야기 - 나비 |
| | 7 | 29 | 나눔터 84호 <생존자의 목소리①> 젤리의 편지 - 젤리 |
| | 7 | 29 | 나눔터 84호 <생존자의 목소리②> '지금'의 가영 - 가영 |
| | 7 | 29 | 나눔터 84호 <생존자의 목소리③> '나'에게 여행을 선물했어요 - 제주 |
| | 7 | 29 | 나눔터 84호 <생존자의 목소리④> 기억 그 이후 - 푸른나비 |
| | 7 | 31 | [보통의연대] 001. 반성폭력 운동 29년차, 활동가 지리산의 인터뷰 |
| | 8 | 8 | [보통의연대] 002. 늘 성폭력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름의 인터뷰 |
| | 8 | 14 | [보통의연대] 003. 가해에 가담했던 경험부터 |

| 카테고리 | 월 | 일 | 제목 |
|------|----|----|---|
| | | | 페미니스트가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핑크수박의 인터뷰 |
| | 8 | 22 | [보통의연대] 004. “성폭력예방교육 의무적으로 받았지만……” 익명의 남성 근로자의 인터뷰 |
| | 8 | 29 | [보통의연대] 005. 중력을 넘어서 대학 내 성평등으로, 유니브페미 진서의 인터뷰 |
| | 9 | 5 | [보통의연대] 006. 주변인으로서 스쿨미투에 연대하는 클루의 인터뷰 |
| | 9 | 19 | [보통의연대] 007.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꼬불맘의 인터뷰 |
| | 9 | 26 | [보통의연대] 008.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성폭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바다의 인터뷰 |
| | 10 | 2 | [보통의연대] 009. 아는 사람에게 피해 경험을 듣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예진의 인터뷰 |
| | 10 | 8 | [보통의 연대] 010. 조두순, 도가니, 이윤택 성폭력 사건 등 지원한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이명숙의 인터뷰 |
| | 10 | 17 | [보통의연대] 011. 성폭력 생존자이자 주변인으로서 ‘나’부터 바꾸기로 한 푸른나비의 인터뷰 |
| | 10 | 24 | [보통의연대] 012. “할머니, 수요시위 가보셨어요?” “태극기 집회는 친구 따라 한번 가봤는데……” 달빛노을의 인터뷰 |
| | 11 | 1 | [보통의연대] 013. 반성폭력 운동 나름대로 했지만 성폭력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파란 올빼미의 인터뷰 |
| | 11 | 7 | [보통의연대] 014. “다른 생각 이야기하면 2차 가해로 낙인 찍을까 두려워” 티소의 인터뷰 |
| | 11 | 14 | [보통의연대] 015.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고 한 남자친구?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유진의 인터뷰 |
| | 11 | 21 | [보통의연대] 016. 여자들한테 피해 안 주고 다니게 조심한다는 열여덟 살, 익명의 남고생의 인터뷰 |
| | 11 | 28 | [보통의연대] 017. 성폭력에 대항해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줄 힘을 갖게 되었다는 총열의 인터뷰 |
| | 12 | 5 | [보통의연대] 018. 내가 목격했던 사건 피해자를 몇 년 후 다른 사건 가해자로 다시 만났다? 호영의 인터뷰 |
| | 12 | 12 | [보통의연대] 019. 집필활동가로서 성폭력이 하나의 에피소드로만 여겨지지 않도록 고민하는 새벽의 인터뷰 |
| | 12 | 19 | [보통의연대] 020. “미투 운동은 시대의 흐름” 남성도 위계질서 속에서 종종 성폭력을 겪는다는 범기의 인터뷰 |

2019년 유튜브 '한국성폭력상담소' 동영상 목록

전체 10건

| 영상 제목 | 썸네일 | 분량 | 게시일 |
|--|--|-------|------|
| 2019 ONE BILLION RISING IN KOREA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안무 영상 (거울영상 별도 有) |  | 4:27 | 2.12 |
| 2019 ONE BILLION RISING IN KOREA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Teaser |  | 0:34 | 2.14 |
| 2019 ONE BILLION RISING IN KOREA [싸우는 여자가 춤춘다] |  | 5:50 | 5.23 |
| [보통의 연대] 001. 반성폭력 운동 29년차, 활동가 지리산의 인터뷰 |  | 10:22 | 7.31 |

| 영상 제목 | 썸네일 | 분량 | 게시일 |
|--|--|------|-------|
| <p>[보통의 연대]</p> <p>005. 중력을 넘어서 대학 내 성평등으로, 유니브페미 진서의 인터뷰</p> |  | 7:06 | 8.28 |
| <p>"내가 당한 강간은 강간이 아니라고 한다"</p> |  | 1:49 | 9.16 |
| <p>[보통의 연대]</p> <p>010. 조두순, 도가니, 이윤택 성폭력 사건 등 지원한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이명숙의 인터뷰</p> |  | 7:38 | 10.10 |
| <p>[보통의연대]</p> <p>015.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고 한 남자친구?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유진의 인터뷰</p> |  | 6:40 | 11.13 |
| <p>[보통의연대]</p> <p>020. "미투 운동은 시대의 흐름" 남성도 위계질서 속에서 종종 성폭력을 겪는다는 범기의 인터뷰</p> |  | 5:30 | 12.18 |

2019년 입장, 논평, 성명

전체 111건 (전년 114건)

| 월 | 일 | 제목 |
|---|----|--|
| 1 | 3 | [탄원서 연서명]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
| 1 | 8 | [성명] 해외연수에서도 ‘접대부, 보도’ 요구하는 반여성인권적 행태를 저지른 예천군 9명 의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
| 1 | 8 | [논평] 종교 교리가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대학들의 변화를 촉구한다 |
| 1 | 10 | [성명] 스포츠 미투가 들불처럼 일어나길.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
| 1 | 17 | [단호한 시선] 체육계 미투, 성평등을 훈련하라 |
| 1 | 23 | [성명] 인권권 악용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
| 1 | 29 | [입장] [기자회견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
| 1 | 31 | [단호한 시선] '그건 강간입니다' |
| 2 | 1 | [성명] [기자회견문] 위력의 존재가 곧 행사될 수 있음을 인정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
| 2 | 12 |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쟁점 분석 변호인단 기자회견 |
| 2 | 13 | [성명] 자유한국당의 5.18 민중항쟁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 제명하고,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
| 2 | 13 | [성명] 제 137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 2 | 14 | [입장]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
| 2 | 15 | [성명] 진실이 승리했다! 고은 성추행 폭로한 최영미 시인 승소! #미투가 이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를 중단하라! |
| 2 | 21 | [논평] 성평등한 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의미를 훼손하지 말라 :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둘러싼 논쟁에 부처 |
| 2 | 26 | [공대위성명] 가해자 주장 받아쓰기 그만하고 일상의 수많은 ‘안희정’을 향한 싸움에 언론도 동참하라 |
| 2 | 28 | [성명]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국민주권 2소분과의 ‘20대 남성지지를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v2]’ 현안보고서에 대한 입장 |
| 3 | 5 | [보도자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고발 1년, "침묵을 깨고 위력에 맞서다" |
| 3 | 7 | [성명] 영화감독 김기덕 3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탄 기자회견 |
| 3 | 7 | [성명] 남성권력 카르텔에 맞서 싸운 장자연들의 10년, 그리고 110년 |

| 월 | 일 | 제목 |
|---|----|--|
| 3 | 8 | [성명]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
| 3 | 8 | [성명] [2019년 3.8 여성선언]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
| 3 | 11 | [성명] 비례대표제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악안 발표한 자유한국당 강력 규탄한다! |
| 3 | 13 | [입장] [공동]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힘써라! |
| 3 | 14 | [성명]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이제는 끝장내자! 성범죄 온상과 공권력 유착이라니, 감경은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
| 3 | 15 | [성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
| 3 | 19 | [입장] Not 'sex scandal' But Gender and Sexual Assault |
| 3 | 21 | [단호한 시선] 버닝썬 게이트, 지금 짚어야 할 다섯 가지 |
| 3 | 21 | [성명]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
| 3 | 27 |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실태그룹, 헌법재판소에 한국 낙태죄에 관한 의견서 제출 |
| 3 | 29 | [입장] 만화가 윤서인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결과 및 입장 알림 |
| 3 | 30 | [성명] [선언문]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폐지 이후의 세계 : 우리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 |
| 3 | 30 | [입장]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
| 4 | 8 | [입장] [카드뉴스] ! WARNING ! 감경을 목적으로 기부하지 마시오 |
| 4 | 9 | [성명] 이운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오랜 관행’이 아니다. 성폭력이다. |
| 4 | 11 | [논평] 언론은 ‘에이즈 공포’ 선동을 멈춰라 |
| 4 | 11 | [입장]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
| 4 | 12 | [논평]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 4 | 12 | [입장]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
| 4 | 15 | [성명] 21대 총선 D-365, 혐오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
| 4 | 16 | [성명]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
| 4 | 20 | [논평] 4월20일,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
| 4 | 24 | [논평] [카드뉴스] 상담소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자들에 의한 집단 사이버성폭력 사건’ A to Z |
| 4 | 25 | [성명] 미투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 5 | 1 | [논평] 2019 세계 노동절 기념 논평 |
| 5 | 10 | [논평] 첫 번째 한부모 가족의 날 축하하며 |

| 월 | 일 | 제목 |
|---|----|--|
| 5 | 10 | [논평] 성별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가자 |
| 5 | 11 | [논평]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장소 불허 이제 그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
| 5 | 13 | [성명]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진상이 규명되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대한다 |
| 5 | 13 | [공동성명] 여성혐오와 낙인에 기댄 막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성인지감수성 무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
| 5 | 16 | [논평] 혐오세력의 손을 들어 준 경남도의회 규탄한다! |
| 5 | 17 | [성명] 우리는 더 이상 우연히 살아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한다. |
| 5 | 17 | [논평] 무지개 옷을 징계하던 시절과 이별하자 |
| 5 | 17 | [성명] <20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선언문>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과 안전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
| 5 | 20 | [논평]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자멸한국당'임을 고백하라 |
| 5 | 22 | [성명] [기자회견문] 정녕, 아무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
| 5 | 24 | [논평] 대만, 동성결혼제도 시행 1일차 사랑이 이깁니다. 모든 이의 차별 없는 사랑을 응원합니다. |
| 5 | 30 | [성명] 수사의 위법성은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
| 5 | 31 | [성명] 성범죄 피의자 조선일보와 그들의 경호원, 경찰을 규탄한다 |
| 6 | 5 | [논평] 검찰은 자정능력 상실하고 무능을 선택했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특검 실시하라 |
| 6 | 11 | [공지] 이희호 선생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
| 6 | 18 | [성명]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위력 성폭력은 유죄다! |
| 6 | 19 | [논평] 황교안은 차별조장대장정을 중단하라 |
| 6 | 20 | [논평] 19번째 세계 난민의 날 논평 |
| 6 | 25 | [성명] “여성의 자기 의사에 따른 모든 임신중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라!” |
| 6 | 27 | [논평]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은 여성착취를 바탕으로 한 권력층과 공권력의 비리와 부패이다! |
| 6 | 28 | [논평] 정현을 익산시장은 자신의 차별적 발언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뉘우쳐라 |
| 7 | 1 | [논평] 제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논평 |
| 7 | 8 | [성명]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을 규탄한다 |
| 7 | 9 | [입장]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2차 의견서] |
| 7 | 9 | [카드뉴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2차 의견서 -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71.4% |

| 월 | 일 | 제목 |
|----|----|--|
| 7 | 11 | [보도자료] 왜 여성 일자리를 공격하는가? :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 정규직전환 투쟁 지지와 연대를 위한 여성/여성노동자 합동기자회견 |
| 7 | 11 | [단호한 시선] 소라넷, 몰수·추징 안 한다고? : 산업화된 성폭력, 범죄수익 몰수·추징 없이 해결 가능한가? |
| 7 | 17 | [보도자료] 이윤택성폭력사건 관련 임사라변호사에 대한 경과 보도요청 |
| 7 | 24 | [논평] 이윤택 전 연극연출가 상습성폭력 7년형 상고심 확정을 환영한다. “성폭력·성착취는 처벌된다. 연극은 나아간다” |
| 8 | 1 | [성명] 경찰은 왜 성폭력 수사중인 박유천의 집에서 밥과 술을 제공받았는가? |
| 8 | 5 | [성명] 페이스북, 성차별 플랫폼에서 성평등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할 때 |
| 8 | 13 | [입장]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3차 의견서]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
| 8 | 13 | [논평]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 다음엔 사회면 기사의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
| 8 | 20 | [성명] [추모성명] 우리는故 윤정주님의 뜻을 이어 성평등한 미디어,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
| 8 | 22 | [성명]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 무죄판결로 집단성폭력 성산업 삭제시키는 재판부 용납할 수 없다. 고 장자연배우의 죽음을 헛되이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고 장자연배우사건을 진상규명하라! |
| 9 | 2 | [성명] [공동]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 계층별 위원 해촉을 철회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로 경사노위를 재편하라! |
| 9 | 4 | [입장]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에 관한 의견서 |
| 9 | 7 |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단계론으로 회피하지 마라 |
| 9 | 10 | [성명] 한국도로공사는 1,500명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하라! |
| 9 | 18 | [입장]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_4차 의견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
| 9 | 18 |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
| 9 | 18 | [논평]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
| 9 | 27 | [성명] “차별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 10 | 7 | [논평]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 |
| 10 | 16 | [논평] [추모 논평] 그녀는 우리다 - 故 최진리님을 추모하며 |
| 10 | 19 | [성명]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공동선언문 |
| 10 | 22 | [논평] 혐오에 지지 않을 우리 모두에게 |

| 월 | 일 | 제목 |
|----|----|--|
| 11 | 11 | [입장]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5차 의견서]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 11 | 12 | [입장]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11 | 13 | [논평] 국가인권위는 평등을 앞당길 책무를 다하라 |
| 11 | 14 | [논평] '성적지향' 삭제? 지워야 할 것은 국회에 만연한 혐오다 |
| 11 | 15 | [공동성명]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
| 11 | 20 | [논평] 국회는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하라! |
| 11 | 21 |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아무리 발의해도 대세는 평등이다 |
| 11 | 22 | [논평] 교육부는 시대착오적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라 |
| 11 | 29 | [성명] 서울시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결정을 환영한다 |
| 12 | 5 | [논평] 차별혐오표현이 낳는 인권 침해의 결과를 지적하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금지가 필요하다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합니다 |
| 12 | 6 | [성명] 웹하드카르텔을 고발한 건 여성들이다 양진호 회사 법무이사 D씨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의인상 수상에 반대한다 |
| 12 | 9 | [성명] 참여연대의 D-의인상 보류를 환영하며 '취소'의 확정과 입장을 촉구한다 |
| 12 | 10 | [논평] 세계인권선언 71주년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도는 만드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
| 12 | 11 | [성명]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싸움이 옳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전면 수용'으로 오늘 교섭에 임하라 |
| 12 | 12 |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 만들기의 출발! 미투운동에 응답하는 21대 국회 구성!” 후퇴 없는 선거제도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
| 12 | 17 | 그 평범을 깨고, 우리의 평범을 찾아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부터! |
| 12 | 19 | [논평] 계속되는 조례 전쟁, 우리 모두 지지 않기를 |
| 12 | 27 | [논평] 청소년의 차별없는 선거권 보장 첫 걸음 환영한다 |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외부 강의 활동

총 130회, 약 5,419명 대상 교육 (전년 153회, 약 5,352명)

| 월 | 일 | 의뢰기관 | 주제 |
|---|----|-------------------|-----------------------|
| 1 | 2 | 청소년평화꽃네트워크 | 교사 대상 성평등 교육 |
| 1 | 3 | 연세대학교 | 성폭력 현황과 실태 |
| 1 | 5 | 경원사회복지관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전망 |
| 1 | 8 |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 세계여성인권운동사 |
| 1 | 22 |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 |
| 1 | 24 | 성남여성의전화 | 성폭력의 주요 개념들 |
| 2 | 19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 성폭력예방교육 |
| 2 | 23 | 전주성폭력예방치료센터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전망 |
| 2 | 27 |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 안희정 사건 2심 의미 |
| 2 | 27 | 위밋업스포츠 | 성폭력 예방, 성평등 교육 |
| 3 | 4 | 시흥여성의전화 | 아동청소년성폭력과 피해자보호시설지원체계 |
| 3 | 4 | 행자부, 지방인재교육원 | 성폭력과 인권 |
| 3 | 5 | 속초성폭력상담소 | 성평등 감수성 |
| 3 | 5 | 경기탁틴 | 성폭력과 2차 피해, 통념 |
| 3 | 6 | 롯데인재개발원 | 직장내 성희롱 상담 |
| 3 | 6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
| 3 | 12 |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 아동청소년성폭력과 피해자보호시설지원체계 |
| 3 | 14 | 아산서원 | 성폭력예방교육 |
| 3 | 20 | 대검찰청 | 성폭력과 인권 |
| 3 | 21 | 한국여성의전화 |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
| 3 | 21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군대내 성폭력 실태 및 현황 |
| 3 | 22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
| 3 | 22 | 국가인권위, 대검찰청 | 성폭력과 인권 |
| 3 | 26 | 서울연구원 | 성폭력과 인권 |
| 3 | 27 | 롯데인재개발원 | 직장내 성희롱 상담 |
| 3 | 29 | 용인성폭력상담소 | 젠더감수성 |
| 3 | 30 | 대구여성의전화 | 친족성폭력의 이해, 시설지원체계의 이해 |

| 월 | 일 | 의뢰기관 | 주제 |
|---|----|------------------|-------------------------|
| 4 | 2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
| 4 | 9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
| 4 | 13 | 대상트스포츠험단 | 반성폭력교육 |
| 4 | 13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연구단체의 활동과 운영 |
| 4 | 16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
| 4 | 16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
| 4 | 19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행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교육전략 |
| 4 | 23 | 꽃피는학교 옥천학사 | 또래성폭력예방교육 |
| 4 | 24 | 미디어엑트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
| 4 | 29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국방부 | 반성폭력운동의 쟁점 |
| 5 | 2 | 전북여성단체연합 |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
| 5 | 4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한국 여성운동과 NGO |
| 5 | 7 | 인덕대학교 |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
| 5 | 9 |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젠더감수성 |
| 5 | 10 | 인천여성주의도서관 랄라 | 시대와 불화한 여자들 |
| 5 | 15 | 한국예술종합학교 | 젠더감수성으로 성폭력 바로보기 |
| 5 | 17 | 대검찰청 | 성폭력과 인권 |
| 5 | 17 |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 성폭력과 인권 |
| 5 | 21 | 수원여성회 | 모두를 위한 성과 재생산 권리 |
| 5 | 24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 |
| 5 | 24 | 성균관대 사회학과 소수자위원회 | 반성폭력 교육 |
| 5 | 29 | 서울이주여성센터 | 성인지감수성교육 |
| 5 | 31 | 수원여성의전화 | 여성의 몸과 자기방어훈련 |
| 6 | 4 | 구로여성회 | 성폭력과 인권 |
| 6 | 7 | 인천뇌병변협회 |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
| 6 | 11 | 연세대학교 | 성희롱 예방교육 |
| 6 | 11 | 구로여성회 | 성과 재생산권리 |
| 6 | 13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재무, 회계 |
| 6 | 17 | 연세대학교 | 성희롱 예방교육 |
| 6 | 18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성폭력 판단기준과 피해자다움 |
| 6 | 18 | 구로여성회 | 여성과 섹슈얼리티 |

| 월 | 일 | 의뢰기관 | 주제 |
|---|----|----------------|------------------------------|
| 6 | 21 | 역사문제연구소 | 여성폭력운동 현황과 대응 |
| 6 | 22 | 한국한부모연합 | 여성폭력운동 현황과 대응 |
| 6 | 24 | 정동극장 | 성평등하게 문화예술공연하기 |
| 6 | 24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
| 6 | 25 | 경찰청(본청) | 성폭력 예방교육 |
| 6 | 25 | 경찰청(본청) | 성폭력 예방교육 |
| 6 | 25 | 기술보증기금 | 고충상담의역할및 기술훈련 |
| 6 | 27 | 강서양천여성의전화 | 성폭력피해지원체계의 이해 |
| 6 | 29 | 한국젠더폭력예방네트워크 | 여성폭력운동 현황과 대응 |
| 6 | 30 | 제주여민회 돌페미 | 통합적인 나로 살아가기 |
| 7 | 1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
| 7 | 2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 미투운동과 인권 |
| 7 | 3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재무, 회계 |
| 7 | 6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사회변화와 젠더관점 |
| 7 | 8 | 한국성폭력상담소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
| 7 | 11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 데이트폭력, 스토킹피해 이해 |
| 7 | 11 | 강서양천여성의전화 | 아동, 친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이해 |
| 7 | 11 | 한국성폭력상담소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과 무고 |
| 7 | 13 | 경기자주여성연대 | 혐오문화와 여성혐오 |
| 7 | 23 | 한국성폭력상담소 |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
| 8 | 2 | 강서양천여성의전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과 지원체계 |
| 8 | 8 | 강서양천여성의전화 | 성폭력 2차 피해와 피해자중심주의 |
| 8 | 14 | 송파평화학교 | 미투와 젠더폭력, 인권 |
| 8 | 24 | 포항여성회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한국사회 성평등 패러다임 |
| 9 | 2 | 아산서원 | 성폭력 예방교육 |
| 9 | 2 |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 성희롱 예방교육 |
| 9 | 8 |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역할과 지원체계 |
| 9 | 9 | 성반연 플랜십일 | 여성의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한국사회의 강간문화 |
| 9 | 10 | 천안여성의전화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
| 9 | 17 | 의정부과학도서관 | 부모를 위한 자녀성교육 |
| 9 | 17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성폭력 2차피해의 이해와 실태 |

| 월 | 일 | 의뢰기관 | 주제 |
|----|----|------------------------------------|-------------------------|
| 9 | 17 | 안산YWCA성폭력상담소 | 미투운동과 인권 |
| 9 | 17 | KBS성평등센터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 9 | 18 | KBS성평등센터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 9 | 20 | 연세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 성평등 및 인권위원회 |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 |
| 9 | 24 | 인천여성가족재단 | 미디어의특성과 젠더폭력이슈 |
| 9 | 25 | 광주사회복지협회 | 미투운동과 인권 |
| 9 | 26 | 경희대문과대학 | 반성폭력교육 |
| 9 | 27 | 군인권센터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
| 9 | 28 | 탁틴내일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
| 9 | 30 | 서울시 교육청 | 스쿨미투와 2차피해 |
| 10 | 1 |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사건지원자와 공동체 내 해결 |
| 10 | 4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 #미투운동에의 응답, 성폭력과 인권 |
| 10 | 5 | 탁틴내일 | 통념에 더해지는 2차피해 |
| 10 | 7 | 서울시립대 인권센터 | <악어프로젝트>로 보는 인권 |
| 10 | 10 |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 미투운동을 통해 보는 우리사회의 성평등인식 |
| 10 | 11 |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 미투운동과 여성인권 |
| 10 | 15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 한국의 미투운동과 인권 |
| 10 | 25 | 연세대학교 교양학부 | 한국의 반성폭력운동, 과제와 전략 |
| 10 | 31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 한국의 미투운동과 인권 |
| 10 | 31 | 안양여성의전화 | 친족성폭력의이해와 쉼터의 역할 |
| 11 | 5 | 은평병원 | 성폭력과 인권 |
| 11 | 5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군대내 성폭력 실태 및 현황 |
| 11 | 7 | 이화리더십개발원 |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교육-필드워크 |
| 11 | 8 |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학교내 성평등교육 |
| 11 | 9 | 광주여성인권영화제 | 토크콘서트<아무도, 그러나 모두> |
| 11 | 11 | 서울이주여성상담지원센터 | 성폭력알기 |
| 11 | 11 | 이화여대 여성학과 | 여성단체 활동가와 연구자의 삶 |
| 11 | 16 | 탁틴내일 | 성폭력피해 성인지원 |
| 11 | 18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친족성폭력의 특성 |
| 11 | 18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성폭력과 인권 |
| 11 | 19 |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 한국의 반성폭력운동, 법, 정책 |

| 월 | 일 | 의뢰기관 | 주제 |
|----|----|---------------|-------------------|
| 11 | 21 | 인천사람연대 |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
| 11 | 22 |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 피해자 지원체계와 법률 |
| 11 | 30 | 젠더교육전문가그룹 청어람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
| 11 | 30 | 서울이주여성상담지원센터 | 성폭력예방교육 |
| 12 | 5 | 국방부 | 성폭력과 인권 |
| 12 | 10 | 성공회대학교 동아리연합회 | 공동체 내 성폭력의 이해와 특징 |
| 12 | 12 | 산마을고등학교 | 젠더감수성 및 데이트폭력의 이해 |
| 12 | 19 | 광주여성민우회 | 스쿨미투 사안 두텁게 읽기 |
| 12 | 26 | 국방부 | 성폭력과 인권 |
| 12 | 27 | 참여연대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 12 | 27 | 서울대학교인권센터 | 인턴/자원활동 2인 |

2019년 외부 자문 및 정책위원회 참여

전체 158건 (전년 97건)

| 월 | 일 | 주최기관 | 내용 |
|---|----|-------------|---|
| 1 | 4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포용분과 회의 |
| 1 | 11 | 여성가족부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협의회 |
| 1 | 18 | 경찰청 | 경찰수사정책위원회 |
| 1 | 31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포용분과 회의 |
| 1 | 31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연구자문(서면) |
| 2 | 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동향분석위원회 자문위원회 |
| 2 | 14 | 국가인권위원회 | 성평등포럼 |
| 2 | 14 | 국가인권위원회 | 성평등포럼 |
| 2 | 15 | 경찰청 | 경찰수사정책위원회 |
| 2 | 18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 군부대 방문조사 (충주 공군비행단, 청주 공군사관학교) |
| 2 | 22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포용분과 회의 |
| 2 | 22 | 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피해자지원 시스템 및 사건사례 자문회의 |
| 2 | 2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임연구원 면접심사 |
| 2 | 28 |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회의 |
| 3 | 5 | 여성가족부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대책협의회 |
| 3 | 6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 |
| 3 | 6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 |
| 3 | 6 |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음악만화패션분야 성폭력 예방 매뉴얼 감수 |
| 3 | 8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포용분과 회의 |
| 3 | 11 |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 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자문 |
| 3 | 26 | 서울시교육청 | 스쿨미투 시민조사관 운영위원회 회의 |
| 3 | 29 | 국방부 | 징계위원회 항고 |
| 3 | 29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포용분과 회의 |
| 4 | 5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문정부 2주년 평가회의(외부 전문가) |
| 4 | 10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시성평등캠퍼스자문회의 |
| 4 | 11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사례입력 가이드라인 FGI 회의 |
| 4 | 16 | 국가인권위원회 | 성평등포럼 |

| 월 | 일 | 주최기관 | 내용 |
|---|----|---------------|--|
| 4 | 16 | 국가인권위원회 | 성평등포럼 |
| 4 | 1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폭력 무고통계 분석연구 자문회의 |
| 4 | 19 | 경찰청 | 경찰수사정책위원회 |
| 4 | 22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자문회의 |
| 4 | 23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스마트 교안 개발 자문회의 |
| 4 | 23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운영위원회 |
| 4 | 24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 군부대 방문조사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
| 4 | 30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디지털 성폭력 정보통신 국민아이디어 및 RFP 공모전 심사 |
| 5 | 2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 군부대 방문조사 (대구 육군2작전사령부) |
| 5 | 3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 군부대 방문조사 (진해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
| 5 | 7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문재인정부 2주년 토론회 :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 |
| 5 | 7 |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0 총선 여성정책 준비 TF 회의 |
| 5 | 13 | 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사건 자문 |
| 5 | 21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 디지털 성폭력 정보통신 국민아이디어 및 RFP 공모전 최종심사 |
| 5 | 22 |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0 총선 여성정책 준비 TF 회의 |
| 5 | 23 | 국방부 | 최근 10년간 군장성 성폭력사건 수사상의 문제점 자문회의 |
| 5 | 23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 성폭력대책본과 소위원회 |
| 5 | 23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 제도개선본과 소위원회 |
| 5 | 28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성희롱성폭력 가이드 제작 자문 |
| 5 | 2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성폭력실태조사 설문지 자문 |
| 5 | 30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위드유센터 설립관련 자문회의 |
| 6 | 4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성희롱성폭력 가이드 제작 자문 |
| 6 | 4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서울시 사회협약 여성분야 공유회의 |
| 6 | 12 | 국방부 | 연구자 선정 심의위원회(서면 자문) |
| 6 | 13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 서울시 디지털성폭력 대중강좌 기획 자문회의 |
| 6 | 14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여성권익 조례개정 서면 자문 |
| 6 | 17 | 여성신문 | 신입기자와의 간담회 |
| 6 | 19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본회의) |
| 6 | 20 | 살림의료협동조합 | 자기방어훈련 강사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자문 |

| 월 | 일 | 주최기관 | 내용 |
|---|----|---------------|--|
| 6 | 21 | 구로여성회 | 성교육 키트 개발 자문 |
| 6 | 21 | 경찰청 | 경찰수사정책위원회 |
| 6 | 24 | 경기해바라기(분당차병원) | 슈퍼비전 |
| 6 | 26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2019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자료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
| 6 | 28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가이드 자문 |
| 7 | 2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내용없음 |
| 7 | 9 | 경찰청 | 고위공무원 채용면접위원 |
| 7 | 10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 제도개선분과회의 |
| 7 | 10 | 한국여성단체연합 | 여성운동 아카이브 자문회의 |
| 7 | 11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성평등기금 평가기준 자문(내방맞이) |
| 7 | 11 | 이화리더십개발원 | ngo 활동가 교육생 모듬별 기관방문-4명 |
| 7 | 15 | 한국노총 | 성희롱사건처리 자문 |
| 7 | 15 | 한국노총 | 성희롱사건처리 자문 |
| 7 | 17 | 경찰청 | 양성평등과 공무원 채용면접 |
| 7 | 18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채용면접위원(종일) |
| 7 | 18 | 중부해바라기센터 | 사례회의 |
| 7 | 23 | 국가인권위원회 | 스포츠인권침해특별조사단 스포츠인권캠페인 자문회의 |
| 7 | 25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기획위원회 |
| 7 | 26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포용사회분과 회의 |
| 7 | 30 | 국가인권위원회 | 혐오차별대응TF 가이드라인 자문회의 |
| 8 | 1 | 경찰청 | 여성가족과 친족성폭력의 이해 |
| 8 | 2 | 코이카(탁틴내일) | 베트남 성폭력상담소 관련 공무원 워크샵(종일) |
| 8 | 6 |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0 총선 여성정책 준비 TF 회의 |
| 8 | 7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공정사회 소분과회의(자체모임) |
| 8 | 7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경기도 체육계 성폭력실태조사 서면평가 |
| 8 | 9 | 중부해바라기센터 | 부소장 선발면접위원회 |
| 8 | 14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교육 평가목표 및 척도 개발 자문 |
| 8 | 16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포용분과 회의 |
| 8 | 20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슈퍼비전 |
| 8 | 2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단 회의 |
| 8 | 2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글로벌 여성의제 국내이행 점검 자문회의 |
| 8 | 2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단 회의 |

| 월 | 일 | 주최기관 | 내용 |
|----|----|--------------|--------------------------------------|
| 8 | 23 | 여성인권진흥원 | 구로가족과성상담소 컨설팅(1) |
| 8 | 23 | 여성가족부 | 제7차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대책협의회 |
| 8 | 26 | 꽃피는학교 | 옥천학사 성폭력사안처리 자문(8/26~9/20; 총 6회) |
| 9 | 4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사이버성폭력 문제해결의 역사 |
| 9 | 4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자문 |
| 9 | 1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1) : 수원여성의쉼터 |
| 9 | 1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2) : 화성미래꿈하우스 |
| 9 | 19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 군부대 현장방문 |
| 9 | 2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3) : 광주다솜누리 |
| 9 | 2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4) : 광주샛터장애인쉼터 |
| 9 | 20 | 경찰청 | 수사정책위원회 |
| 9 | 20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연구 (서면자문) |
| 9 | 2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1) : 김제성폭력상담소 |
| 9 | 2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2) : 군산성폭력상담소 |
| 9 | 2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3) : 정읍성폭력상담소 |
| 9 | 2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4) : 광주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 |
| 9 | 2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5) : 김천무지개쉼터 |
| 9 | 2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6) : 구미꿈나래그룹홈 |
| 9 | 2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5) : 광주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 9 | 2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6) : 광주여강연 성폭력상담소 |
| 9 | 2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7) : 대전늘해랑장애인쉼터 |
| 9 | 2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8) : 대전나는 봄 |
| 9 | 26 | 대법원 | 사법행정자문위원회(1) |
| 9 | 2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9) : 청주모퉁이돌장애인쉼터 |
| 9 | 27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포용사회분과회의 (미투운동 이후 법적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
| 10 | 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7) : 전주 새벽이슬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 10 | 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8) : 전주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 10 | 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9) : 익산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
| 10 | 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10) : 여수담쟁이 |
| 10 | 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11) : 목포해늘장애인쉼터 |
| 10 | 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12) : 부산양지터 |
| 10 | 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설평가(13) : 부산사랑의집장애인쉼터 |

| 월 | 일 | 주최기관 | 내용 |
|----|----|--------------|------------------------------------|
| 10 | 4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구로가족과성상담소 컨설팅(2) |
| 10 | 4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사이버성폭력 시민피해자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
| 10 | 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평가 |
| 10 | 9 |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0 총선 여성정책 준비 TF 회의 |
| 10 | 14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 시민사회수석과 시민단체 간담회 : 검찰개혁 |
| 10 | 1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젠더리뷰 발간 동향분석실무자문위원회 |
| 10 | 17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북부지역 사례슈퍼비전 |
| 10 | 17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시의회 <젠더폭력 기본조례> 재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
| 10 | 18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포용사회분과회의(노동정책 TF회의) |
| 10 | 18 | 경찰청 | 수사정책위원회 |
| 10 | 21 |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 사건.사례 자문 |
| 10 | 24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 |
| 10 | 31 |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선대응 워크숍 |
| 11 | 2 | 계명대 대학원 여성학과 | 성폭력.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강의시연 평가(종일) |
| 11 | 2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강원권역 사례슈퍼비전 |
| 11 | 1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평가 |
| 11 | 14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역량 강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의(자문회의) |
| 11 | 18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슈퍼비전 |
| 11 | 21 | 이화리더십개발원 | 안전사회 프로젝트 자문(서면) |
| 11 | 22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포용사회분과회의 |
| 11 | 22 | 경찰청 | 수사정책위원회 |
| 11 | 28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 군부대 방문 간담회 |
| 11 | 29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서면자문 |
| 12 | 1 | 국방부 | 군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 발전방안 연구 감수(1) |
| 12 | 2 | 한국여성연구원 | 서면자문 |
| 12 | 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현장평가를 통한 운영개선 방안 논의 |
| 12 | 5 | 서울관광재단 | 자문회의 |
| 12 | 8 | 국방부 | 2020~2022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자문 |
| 12 | 9 | 여성가족부 | 법정부 성희롱. 성폭력대책협의회 |
| 12 | 12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포용국가 여성가족.성평등정책 분과 포럼 |
| 12 | 12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 | 사법행정자문위원회(2) |
| 12 | 13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기획위원회 |

| 월 | 일 | 주최기관 | 내용 |
|----|----|-----------|-----------------------|
| 12 | 13 | 국가인권위원회 | 성평등포럼 |
| 12 | 1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젠더리뷰 발간자료 검토 |
| 12 | 17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4대폭력예방전문강사 선발위원회 |
| 12 | 17 | 국방부 |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
| 12 | 17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선발 심의위원회 |
| 12 | 27 | 우리원헬스케어병원 |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회의 |

2019년 발제, 발표, 토론, 사회

전체 24건 (전년 59건)

| 월 | 일 | 주최기관 | 토론회, 발표회 제목 | 사회, 발표자 |
|---|----|--------------|---|---------|
| 1 | 15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토론회(총회), "#미투이후, 성폭력관련법 개선 운동방향은?" | 이미경 |
| 1 | 16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체육계성폭력관련 긴급토론회, "인권침해가 가능했던 구조를 봐야" | 이미경 |
| 1 | 26 | 더불어민주당 | 성소수자인권포럼 '성소수자 인권운동(단체/커뮤니티)의 성평등 가치 다시 질문하기' | 김혜정 |
| 1 | 29 | 더불어민주당 | 녹색당 그린펀치 유튜브 방송 '안희정 사건 지켜본다 바꾼다 2심' | 김혜정 |
| 1 | 29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미투1년 좌담회 | 이미경 |
| 2 | 22 | 두잉 | 스스로 해일이 된 여자들 북토크 | 김보화 |
| 3 | 14 | 두잉 |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 | 김신아 |
| 4 | 5 | 이야기치료학회 | 이야기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 "세상을 바꾼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말하기" | 이미경 |
| 4 | 10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me_too 운동과 함께한 민주노총 1년 변화와 전망 | 김혜정 |
| 4 | 27 | 젠더법학회 춘계학술대회 | 피해자중심주의와 형사 사법에서의 2차피해 방지 | 김보화 |
| 4 | 29 | 한국여성학회 학술포럼 | 교환되는 여성의 몸 | 김보화 |
| 5 | 9 | 미투시민행동 | 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성폭력 성착취 카르텔 분쇄를 위한 집담회 | 김혜정 |
| 5 | 1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재인 정부 2년 성과와 평가 - 젠더폭력 정책을 중심으로 | 김혜정 |
| 5 | 16 | 정의당 | 낙태죄 위헌 결정 의미와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 박아름 |
| 5 | 25 | 법심리학회 | 춘계학술대회 '피해자보호방안' | 김혜정 |
| 6 | 20 | 한국여성단체연합 | 성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방향과 쟁점 토론회 | 이미경 |
| 7 | 6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혐오와 차별의 대학, 대학 내 성평등 퍼실리테이터 | 한소망 |
| 7 | 1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 김보화 |
| 8 | 12 | 한국여성단체연합 | 베이징+25주년 기념 베이징행동강령 주요분야 이행점검 국제여성포럼: from 베이징 to 서울 | 이미경 |

| 월 | 일 | 주최기관 | 토론회, 발표회 제목 | 사회, 발표자 |
|----|----|---------------------|---|---------|
| 8 | 29 | 한국여성단체연합 | '강간죄' 개정운동의 의미 쟁점, 과제 | 이미경 |
| 9 | 27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 #미투 이후 법.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이미경 |
| 9 | 27 | 수원미디어센터 | 나에겐 소중한 여성캐릭터 : 마리 앙투아네트 공동체상영 | 박아름 |
| 10 | 6 | 한국여성인권영화제 | 〈최강레드〉 피움톡톡 :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질문해야 할 시간 | 김혜정 |
| 10 | 10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불기소처분 사례로 본 '피해자다움' 해체 토론회 : '강간죄' 개정운동의 의미, 쟁점, 과제 | 이미경 |
| 10 | 22 | 정의당 여성본부 | 개혁 국면에서 '나중에'로 이야기되는 것들 : 전환의 얼굴은 여성을 대표하는가? | 김혜정 |
| 11 | 1 | 대구여성영화제 | 〈우리는 매일매일〉 상영 후 간담회 | 김혜정 |
| 11 | 8 |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 부산대, 여성안전과 성적자기결정권 사이, 페미니즘의 길 찾기 심포지움 : '강간죄' 개정운동의 의미, 쟁점, 과제 | 이미경 |
| 11 | 13 | 강간죄개정연대 국회의원6인 공동주최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이미경 |
| 11 | 15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제심포지움 | 이미경 |
| 11 | 20 | 한국여성단체연합 | 21대 국회에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정책 라운드테이블 | 김혜정 |
| 11 | 20 | 트랜스젠더인권단체조각보 | 트랜스젠더추모의날 촛불문화제 | 김신아 |
| 11 | 26 | 이윤택사건공동대책위원회 | 이윤택사건공동대위 토론회 | 이미경 |
| 11 | 27 |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 전남 #미투공동행동의 의미와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 이미경 |
| 12 | 10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의전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토론회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개발 프로젝트 - '당신 곁에 뷰티풀라이프' 3년의 기록> | 류수민 |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기고

전체 14건 (전년 24건)

| 월 | 일 | 제목 | 게재지 | 담당자 |
|----|----|--|-----------|-----|
| 1 | 5 | 스스로 해일이 된 여자들- 한 시대 페미니스트들의 탄생과 상처 그리고 힘의 기록 (추천사) | 서해문집 | 이미경 |
| 1 | 5 | 스스로 해일이 된 여자들- 한 시대 페미니스트들의 탄생과 상처 그리고 힘의 기록 | 서해문집 | 김보화 |
| 1 | 14 | 성폭력은 '구조'의 문제이다 | 경향신문 | 이미경 |
| 4 | 21 | UN 여성지위위원회(CSW) 참가기:여성폭력 근절 위한 세계여성들의 연대 | 여성신문 | 이미경 |
| 4 | | 아동성폭력, 막연한 두려움은 아무런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 | 월간법무사 | 김보화 |
| 6 | | '장학선'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가해자는 어디에 있는가. | 월간 YWCA | 김보화 |
| 9 | 11 | 김지은들이 실현해 낸 안희정의 정치 | 창비논평 | 김혜정 |
| 9 | | 누가 여성을 죽이는가 : 여성혐오와 페미니즘의 격발 | 돌베게 | 김보화 |
| 11 | 27 | 강간죄,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박아름 |
| 11 | | 미투운동 이후 담론 전략들의 쟁투와 반성폭력 운동의 과제 : 안희정 사건의 재판과정을 중심으로 | 페미니즘연구 | 김혜정 |
| 12 | 30 |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 여성학논집 | 이미경 |
| 12 |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업무 매뉴얼 중 상담자의 자세와 퇴소 이후 지원체계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정정희 |
| 12 | 30 | 한국의 미투 - 남은 것과 남긴 것 | 젠더리뷰 | 이미경 |
| 12 | 31 | 권두언 :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대책, 성평등 사회·문화 만들기 | 치안정책리뷰 | 이미경 |

2019년 언론에 난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 340건 (전년 607건)

| 월 | 일 | 언론사 | 보도 제목 |
|---|----|------------------|--|
| 1 | 7 | SBS TV 8시뉴스 | 성추행 유죄 받고도 '재연 반박'...조덕제 '2차 가해' 논란 |
| 1 | 9 | 헤럴드경제 | 성폭력에 떠는 선수들...“전수조사해야” |
| 1 | 9 | 뉴스핌 | [심석희 파문①] 체육계부터 다시 ‘미투’ 불붙나 |
| 1 | 11 | KBS TV | KBS신년 대토론회 - 혐오와 차별 |
| 1 | 12 | KBS TV (*생방송) | “2019 신년 대토론: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제2편 혐오와 차별>” |
| 1 | 14 | 경향신문 | 컬럼 : “성폭력은 ‘구조’의 문제이다” |
| 1 | 14 | 동아일보 | 폭행 아빠 용서? 선처편지 쓴 소녀는 마냥 울었다 |
| 1 | 16 | 공감신문 | [공감신문 생생국회] “체육계는 ‘미, 투’...개인 폭로가 ‘too’로 이어지지 못했다” |
| 1 | 16 | 머니투데이 | "10여년전과 똑같은 대책...‘스포츠=국위선양’ 의식 근본 바뀌야" |
| 1 | 16 | 참세상 | 3천억 혈세 투입되는 대한체육회, 성폭력 대응 메뉴얼 전무 |
| 1 | 16 | 경향신문 | “체육계 성폭력 뿌리 뽑을 마지막 기회” ‘체육계 성폭력’ 긴급토론회 열려 |
| 1 | 16 | KBS | [앵커의 눈] ‘미투 최다’ 국회...말로만 성폭력 근절, 피해는 ‘외면’ |
| 1 | 17 | 한겨레 | 성폭력 피해 10대 온갖 정보, 가해 교감에 넘겨준 ‘법’ |
| 1 | 17 | 미디어오늘 |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대책이 아니라 ‘의지’ |
| 1 | 17 | 시사위크 | [체육계 미투 후폭풍] 민주당 여성의원들도 팔 걷어 붙였다 |
| 1 | 17 | 여성신문 | "메달 보다 사람"... 폐쇄적 구조부터 진단하라 |
| 1 | 18 | 폴리뉴스 | 준강간죄, 술김에 일어난 일이라고 가볍게 처벌되지 않는다 |
| 1 | 18 | 여성신문 | 성폭력 사건, 여가부는 조사권한 없다 |
| 1 | 21 | 연합뉴스TV | 서울 여성 절반 "우리 사회 불안"...범죄 두려움 호소 |
| 1 | 25 | 서울신문 | [단독]"성폭행 처벌 못해도 외쳐야 했다"... 동네 체육관의 미투 절규 |
| 1 | 24 | 채널A | [단독]"성폭행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 3분 조사 |
| 1 | 28 | 한겨레신문 | 미투 1년, ‘피해자다움’ 굴레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
| 1 | 28 | 한겨레 | 김학순 할머니·권인숙·우 조교...‘미투 운동’ 밑거름 |
| 1 | 28 | 한겨레 | 성폭력 피해자 10명중 7명 일터 떠나...‘일상 복귀’ 지원 절실하다 |
| 1 | 29 | 국민일보 | 미투 사건 117건 중 실형 선고 6건 뿐, 여전히 높은 제도의 벽 |
| 1 | 29 | 경향신문 | “미투 ‘2차 가해’ 여전...모든 걸 불살라야 하는 비정상 끝나야” |
| 1 | 29 | 미디어오늘 | ‘미투 1년’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 부탁한 ‘이것’ |

| 월 | 일 | 언론사 | 보도 제목 |
|---|----|------------------|---|
| 1 | 29 | 시사위크 | [서지현 '미투' 1년] 우리사회는 과연 달라졌나 |
| 1 | 29 | KBS 시사기획 창 | 스포츠 성폭력 '침묵의 카르텔' |
| 1 | 29 | 문화저널21 | 2차가해 자행해온 '공동체'...서지현 "피해자다움 강요말라" 손가락질 하는 당신들도 가해자...“범죄자들이야 말로 범죄자다움 장착하시라” |
| 1 | 29 | 뉴스핍 | '나약한 피해자'에서 '강한 주체'로... 미투 1년이 바꾼 것 |
| 1 | 30 | jtbc 아침뉴스 (*생방송) | 각계에서 벌어진 '미투 운동' 1년..성과와 과제는 |
| 2 | 1 | MBC TV | 안희정 유죄 판결에 여성계 “당연한 결과...환영” |
| 2 | 1 | 한겨레 | 안희정 실형...시민단체 “여성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
| 2 | 2 | 세계일보 | "뜻밖의 판결 " VS "권력형 성폭행"... 낯뜨거운 공방 어디까지? |
| 2 | 2 | 서울신문 | ‘물뽕’ 구매 알아보니...10분 만에 “설날 특가 판매합니다” |
| 2 | 2 | 중앙 SUNDAY | 여성계 “미투운동의 거대한 사건...피해자들 희망 가질 것” |
| 2 | 7 | 한국일보 | 안희정 판결 파장... “동의 없는 성관계는 모두 성범죄” 목소리 |
| 2 | 12 | 이데일리 | "피고인 진술도 심판대에"...김지은 변호인단이 밝힌 안희정 항소심 판결 의미 |
| 2 | 12 | SBS | 김지은 씨 변호인단 "2심, 성인지감수성 반영...안희정 진술변복" |
| 2 | 13 | 오마이뉴스 | "다 빠져나올 수 있다" 성범죄 지식 공유 카페, 충격 실상 |
| 2 | 13 | JTBC | [뉴스원룸] 성인지 감수성으로 유·무죄를 가린다고? |
| 2 | 14 | 서울신문 | “과잉 규제” “당연한 일”... 양성갈등 불붙인 ‘야동 사이트’ 차단 |
| 2 | 15 | 여성신문 | [기고] 판결 부정하는 안희정 부인, 피해자 여론 재판 하자는 것인가 |
| 2 | 15 | 한겨레 | 안희정 부인의 “나는 피해자” 주장이 ‘성폭력 무죄’ 증명할 수 없는 이유 |
| 2 | 16 | KBS | “53년 전 기억까지 불러와”...‘미투’ 이후 상담일지 살펴보니 |
| 2 | 19 | KBS | “軍 여성인력 대상 성폭력 1년 새 16% 증가...지위 악용” |
| 2 | 19 | 한겨레21 | 위력, 간음시에만 없었다? |
| 2 | 19 | 국민일보 | “누구나 마약 성범죄 피해자 될 수 있다니” ‘제2의 해화역 시위’ 조짐 |
| 2 | 19 | 한국일보 | 마약·성범죄 의혹클럽 ‘버닝썬’-혹시 이 술에도? 버닝썬 탓 커지는 ‘악물 성범죄’ 공포 |
| 2 | 20 | 뉴스앤조이 | “어느 교회 성폭력상담전문가의 이중적 태도 : 피해자에게 지원센터 대표직 중용, 남편은 사무국장 자리에...C소장 ”전부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
| 2 | 21 | 한국경제 | 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 메시지 폭로...불륜 공방 재점화 |
| 2 | 22 | 서울경제 | 안희정 부인 ‘문자 폭로’에 김지은 “불륜 주장은 무죄 위한 도구” vs “감수성으로 재판” |
| 2 | 22 | 넥스트데일리 | 안희정 김지은 문자 공개, “멈추고 사과하길 바란다” |
| 2 | 22 | 헤럴드경제 |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자 검찰, 법률적 지원 방안 추진 |
| 2 | 23 | 경향신문 | 안희정 아내가 쏘아 올린 ‘여·적·여’ |

| 월 | 일 | 언론사 | 보도 제목 |
|---|----|------------------------------|---|
| 2 | 25 | 아시아경제 | “여성이라 당했다”...끝없는 시선폭력, 훔쳐보기, 성희롱 |
| 2 | 25 | 이데일리 | 여성단체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 해화역 시위에 응답한 것" |
| 2 | 26 | 한국일보 | 한국성폭력상담소 “#미투 이후 법적 지원 문의 늘었다” |
| 2 | 26 | 세계일보 | "성폭력 피해자 음주 여부, 사건 발생 3일까지 판별 가능해져" |
| 2 | 26 | 이뉴스투데이 | [형사전문변호사의 tip] #12. 직장내 성추행, 위력행위로 인한 성범죄 많아 |
| 2 | 27 | 한겨레 | #미투의 힘...성폭력 피해자 '법적 대응 지원' 요구 늘었다 |
| 3 | 3 | 머니투데이 | [빨간날]내가 보는 아동, '불법'일까? |
| 3 | 4 | 오마이뉴스 | 미투가 건넌 숙제, 반차별운동은 어떤 응답을? |
| 3 | 4 | 머니투데이 |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아동'은... |
| 3 | 5 | 민중의소리 | ‘폭행·협박 없는’ 성폭행은 ‘동의’한 성관계라고? 법원만 모르는 현실 성폭력 |
| 3 | 6 | 연합뉴스 |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개최...성폭력대책위 운영 등 논의” |
| 3 | 6 | 공감신문 | [공감신문 시사공감] 데이트 강간 약물? 약물 오남용과 사회규제 |
| 3 | 7 | 한국경제TV | "미투운동 백래시 중단하라" 여성단체가 김기덕 감독에 분노한 까닭 |
| 3 | 7 | 한겨레 | 여성민우회, 김기덕 '3억 역고소'에 "명예 훼손한 건 김기덕 자신" |
| 3 | 7 | 문화일보 | 내일 '세계여성의 날' 맞아 '미투 1년 활동' 되돌아보고... |
| 3 | 7 |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 #KoreaToo |
| 3 | 8 | 중앙일보 | 세계여성의 날 다시 거리로 나오는 '불꽃페미액션'..."클럽 내 성폭력 근절해야" |
| 3 | 8 | 참세상 |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직장 내 차별 원인, 성별 분업 타파하자" |
| 3 | 8 | 여성신문 | [3.8세계여성의날] 광화문서 춤 춘 '싸우는 여자들' |
| 3 | 10 | 머니투데이 | 성폭력 당한 뒤, 10년 넘어도 병원에... |
| 3 | 11 | MBN | 2년 새 두 배 급증...대책 없는 데이트폭력 |
| 3 | 12 | 노컷뉴스 | 승리 은퇴 선언, 끝내 피해자들은 지워졌다 |
| 3 | 12 | 한겨레 | “OOO 사진 볼 사람” 장난처럼 불법촬영물 돌려보는 남성들 |
| 3 | 12 | 미디어오늘 | 유일한 목격자, 장자연을 위한 13번의 증언 |
| 3 | 13 | 국방일보 | [양은숙 독자마당] 디지털 성폭력을 사라지게 하는 한마디 “Don't Look” |
| 3 | 13 | 중앙일보 | 강간인 것 같은데 강간 아닌...‘그런 성폭력’ 쏟아진다 |
| 3 | 14 | 노컷뉴스 | 장자연-승리-경준영, 10년 잇는 성착취 '카르텔' |
| 3 | 16 | 머니투데이 | 서울고대 '품평회' 논란...진실 공방으로 |
| 3 | 19 | 국민일보 | 사진작가 로타, 촬영 중 모델 '강제추행' 혐의 징역 1년 구형 |
| 3 | 19 | 매일경제 | 몰카 피해자 평생의 고통...촬영·유포자는 2%만 구속 |
| 3 | 21 | 여성경제신문 | "약물 성범죄, 사회적 인식 반드시 개선돼야" |
| 3 | 21 | 아시아경제 |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길바닥에 누워 주먹을 든 까닭 |

| 월 | 일 | 언론사 | 보도 제목 |
|---|----|-----------------|---|
| 3 | 22 | MBC 뉴스데스크 | "그러려고 클럽 갔잖아"...수사하며 '2차' 가해 |
| 3 | 23 | 뉴시스 | '제2의 정준영' 널렸다...불법촬영 범죄 98%는 남자 |
| 3 | 26 | jtbc 뉴스룸 | "우리는 피해자가 궁금하지 않다"...'2차 가해' 방지 촉구 |
| 3 | 28 | MBC 뉴스데스크 | [단독] 낄낄대며 돌려본 '14명'...'뿌러버릴까' 협박 모의 |
| 3 | 28 | 민중의소리 | "예방하는 척", '여성 가해자' 끼워 기계적 성평등 맞춘 데이트폭력 공익광고 |
| 3 | 28 | SBS | 여고 성폭력 고발했더니...가해 교사 '셀프 조사' 논란 |
| 3 | 29 | 데일리 굿뉴스 | "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교회 돌봄 필요하다" |
| 3 | 29 | 서울신문 | 생중계 후 대화방 폭파... '몰카 공유'의 진화 |
| 3 | 29 | 한겨레신문 | "[단독] 김기덕 감독, 미투 의혹 폭로자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 3 | 29 | 일요서울 | '제2의 정준영' 불법 촬영 판친다 |
| 3 | 29 | 한겨레 | 웹툰작가 윤서인, 조두순 성폭력 피해자에 사과하고 배상 |
| 3 | 29 | 경향신문 | '조두순 사건' 피해자 회화화...웹툰작가 윤서인, 2000만원 배상 |
| 3 | 30 | 파이낸셜뉴스 | 무고 아니냐고요? 성폭행 당하고 신고 못한 심정을 아시나요? |
| 3 | 31 | 한겨레 | 여성단체 "강간죄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
| 4 | 1 | 동아일보 | '조두순 사건 회화화' 윤서인 사과문, 진정성 논란..."억울하다는 뉘앙스" |
| 4 | 1 | 세계일보 | 불법촬영 가해자 절반은 애인..."피해자 삶, 사건 전으로 되돌릴 방법 없다" [일상특독 플러스] |
| 4 | 2 | MBC TV 생방송아침 | "거대권력과 맞서 싸운다! 영화 '노리개'" |
| 4 | 2 | 한겨레 | 고준희 캐스팅 불발...'승리-정준영 단독방' 루머에 애먼 피해 |
| 4 | 2 | 여성신문 | '조두순 사건 회화화' 윤서인 작가, 사과문 논란 |
| 4 | 3 | 서울경제신문 | "'軍' 성폭력상담소' 생긴다" |
| 4 | 3 | 프라임경제 | 복권기금, 성폭력 피해 여성 치료프로그램 지원 |
| 4 | 3 | 서울신문 | "고작 6명이 수만개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단속합니까" |
| 4 | 4 | 국민일보 | "저항했나→동의 받았나...·비동의 간음죄'로 이제 가해자에게 묻자"(인터뷰) |
| 4 | 4 | 헤럴드경제 | "성폭력 무죄·무혐의 돕는 전문 변호사 있어" 공분 |
| 4 | 4 | SBS CNBC | [제정임의 문답쇼 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 "성폭력 무죄·무혐의 돕는 전문 변호사 있어" |
| 4 | 4 | 서울신문 | 고작 6명이 수만개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단속합니까 |
| 4 | 5 | 국민일보 | "저항했나→동의 받았나...·비동의 간음죄'로 이제 가해자에게 묻자"(인터뷰) |
| 4 | 6 | 뉴스1 | [영상] 꽃다운 내 친구는 왜 베란다에서 몸을 던졌나? |
| 4 | 8 | 민중의소리 | '성범죄 유죄율 90%'에 감춰진 진실 |
| 4 | 9 | 뉴스핍 |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공대위 "당연한 결과" |

| 월 | 일 | 언론사 | 보도 제목 |
|---|----|----------------|--|
| 4 | 9 | 인천일보 | [보통사람의 글쓰기] 고통받는 이에게 전하는 용기…성폭력 생존자 은수연씨 |
| 4 | 10 | 뉴스1 | "노조, 일터 성폭력 드러내고 규명할 의무 있어" |
| 4 | 10 | MBN | 이운택 2심 징역 7년…1심보다 형량 더 무거워져 |
| 4 | 11 | 뉴스1 | 시민사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인권의 역사적 승리" |
| 4 | 11 | 민중의소리 | ‘성폭력 상담소 기부’가 성범죄 감형 요소?…“진정한 반성 아니다” |
| 4 | 11 | 오마이뉴스 | 미투 1년, 직장 내 성희롱 줄었지만 여성 기피도 늘었다 |
| 4 | 12 | 한겨레 | “임신중지 입법…기간·사유 제한으로 논의 좁히면 안 돼” |
| 4 | 12 | 경향신문 | “정부·국회, 낙태 가치 판단 멈추고 ‘필수 의료서비스’로 만들어야” |
| 4 | 12 | 서울신문 | “주수 제한 없이 낙태 허용해야”…“유산유도제 즉각 승인율” |
| 4 | 13 | 헤럴드경제 | 청소년 성범죄 의무신고자 범위 확대 법안 발의 |
| 4 | 14 | 광주드림 | 신창현 의원, “청소년 성보호 강화 법안 대표발의” |
| 4 | 14 | 여성신문 | "낙태 감소시킬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이 국가의 책임" |
| 4 | 16 | 경향신문 | 여성단체에 기부하는 성범죄자들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다고…” |
| 4 | 17 | 주간경향 | [만화로 본 세상]<27-10> 친족 성폭력 피해자도 말할 용기를 얻었다 |
| 4 | 17 | 주간조선 | [심층 취재] ‘버닝썬 사태’는 ‘불법촬영 스캔들’이다 |
| 4 | 17 | 경향신문 | “감형 받을 수 있더니…” 성범죄자들 공공이 기부 |
| 4 | 18 | 여성신문 | “5월 4일 양성평등 꿈꾸며 온 가족이 달려요” |
| 4 | 18 | 미디어오늘 | “잘못된 선거제도로는 정치가 여성 대표 못해” |
| 4 | 18 | jtbc |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93회, ‘황금폰’ 단독 공개 2탄! |
| 4 | 19 | 시민일보 | 기부천사 알고보니 성범죄자 형량 감형 노리고 '꼼수 기부' |
| 4 | 19 | 미디어오늘 | 기자 단체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 줌” |
| 4 | 19 | 여성신문 | "남성은 언제든 여성을 꽃병으로 만들 수 있다" |
| 4 | 19 | 여성신문 |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선거법·정당법 바뀌야" |
| 4 | 20 | 머니투데이 | “낙태죄 사라지든말든”...‘스텔상’ 거론하는 이들 |
| 4 | 20 | 중앙일보 | “정준영 대화방의 ‘마지막 의식’, ‘카톡 마사지’란…” |
| 4 | 20 | 미디어오늘 | 여성 피해자 장난감 취급한 기자들 |
| 4 | 21 | 여성신문 | [CSW Report] 여성폭력 근절 위한 세계여성들의 연대 |
| 4 | 22 | 미디어오늘 | 기자들 단독방 “성매매 업소 추천 줌” |
| 4 | 22 | 한겨레21 |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
| 4 | 26 |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 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은 그냥 회복되지 않는다 |
| 4 | 26 | 쿠키뉴스 | 여성단체, 임이자·문화상 논란에 “한국당, ‘성추행’ 프레임 멈춰라” |
| 4 | 28 | SBS 스포스뉴스 | SBS 스포스뉴스 - 성범죄자가 여성단체에 기부하는 이유 |
| 4 | 29 | 미디어오늘 | 기자 단독방에서 욕설대상 된 미투운동 |

| 월 | 일 | 언론사 | 보도 제목 |
|---|----|--------------|---|
| 4 | 29 | 한겨레 | 불법촬영물 고발 나오자 검색어가 '국노'→'몰래'→'중노'로 바뀌었다 |
| 4 | 29 | 아시아경제 | "친부에 성추행 알렸다" 의붓딸 살해father...친족성범죄 사실상 '암수범죄' |
| 4 | 30 | SBS | 7059회 모닝와이드 3부 모닝픽) 성범죄자들의 수상한 기부 |
| 4 | 30 | 국방라디오 | 국방 FM, '국방광장' <오늘의 인터뷰> |
| 5 | 1 | 아시아경제 | 쉽지 않은 사회적 합의...낙태법 개정 속도조절 |
| 5 | 2 |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사람>(2019년 5월호, vol.227), "인터뷰 人+人, "인권감수성,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
| 5 | 2 | 노컷뉴스 | 환자와 성적관계 탐닉하는 의사들, 왜 처벌받지 않나? |
| 5 | 2 | 여성신문 | 하루 2만명 찾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성매매 진원지' |
| 5 | 2 | 이데일리 | 아직 불법인데...낙태죄 위헌판결에 수술·임신중절약 되나 '혼란' |
| 5 | 3 | 노컷뉴스 | '기자 단톡방' 이후 우리는 언론을 믿을 수 있을까 |
| 5 | 4 | 여성신문 | [2019 여성마라톤대회] 손 잡고 달리며 성별임금격차 문제 알려요 |
| 5 | 6 | 연합뉴스TV | "빨리 영수증 끊어달라"...성범죄자 '꼼수기부'논란 |
| 5 | 6 | 여성신문 | 성관계 중 콘돔 빼는 '스텔싱'은 성폭력 범죄 |
| 5 | 7 | 오마이뉴스 | "천호동 성매매 업소 화재, 수사 결과 납득 못 해" |
| 5 | 7 | KBS | "천호동 성매매 업소 화재 수사 잘못됐다"...여성단체, 경찰 수사 규탄 |
| 5 | 9 | 오마이뉴스 | "성폭력 재판 받고 계신가요?" 후원자에게 묻는 이유 |
| 5 | 9 | KBS | "남자는 동물이라 다 그래"...'진각종 성추행' 2차가해 규탄 |
| 5 | 10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여성운동사 콘텐츠 |
| 5 | 13 | 세계일보 | 여성 34명 몰카 촬영한 제약사 2세... 일부 물지각 누리꾼 "부럽다" |
| 5 | 16 | 중도일보 | [인포그래픽] 아동 성폭행 '친족 가해' 가장 많다... 절반 넘는 56.6% |
| 5 | 16 | 노컷뉴스 | "장자연 사건은 반인륜적 범죄"...시민단체 검찰 재수사 촉구 |
| 5 | 17 | 한국일보 | 버닝썬 수사 끝났는데 "특검, 청문회 청원" 여론은 부글부글 |
| 5 | 17 | 여성신문 | ['강남역 사건' 3주기] "젠더폭력 근절" 앞장 선 문재인 정부, 가정폭력·성착취 문제 대응은 부족 |
| 5 | 22 | MBC | "본질은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철저한 재수사 촉구 |
| 5 | 22 | 뉴스한국 | "검찰은 공범인가 공권력인가" 여성단체,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
| 5 | 22 | 한겨레 | 여성단체 "검찰은 윤중천보다 앞에 나선 적이 없다" |
| 5 | 22 | 국민일보 | "성폭력이다, 수사하라" 여성단체, 故장자연·김학의 수사 규탄 |
| 5 | 23 | MBC뉴스데스크 | "男 대부분 성욕 느낀다"...경찰의 이상한 '성교육' |
| 5 | 23 | 아시아경제 | "아 좀 볼 수도 있지 뭐 어때"...설리 '시선 폭력' 논란 왜 |
| 5 | 24 | 민중의 소리 | 분노한 여성들 대검찰청 기습점거 "장자연·김학의 사건, 검찰도 '공범'이다" |
| 5 | 24 | 오마이뉴스 | 검찰 기습시위 여성들 "김학의·장자연 사건 은폐, 검찰도 공범" |

| 월 | 일 | 언론사 | 보도 제목 |
|---|----|-----------------|---|
| 5 | 29 | 한국기자협회 기자협회보 | “성범죄 제보영상 열람 등 엄격 관리”...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어 |
| 5 | 29 | 국민일보 | 짧은 치마 입고 늦게까지 술 마셔서?... 신림동 사건 2차가해 상황 |
| 5 | 30 | 국민일보 | “여성 환자 정신착취” 김현철 처벌 가능성 따져보니 |
| 6 | 3 | 세계일보 | “왜 안 만나줘” 살인 부르는 스토킹... 범칙금은 고작 8만원 [이슈&현장] |
| 6 | 4 | 국민일보 | 2007년 오피스텔 성폭행, 윤중천 걸리고 김학의 빠져나간 이유 |
| 6 | 5 | 서울신문 | [단독]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유명 상담사, 그루밍 성폭력 가해자였습니다” |
| 6 | 5 | 국민일보 | 김학의 성범죄, 폭행·협박 말고 위력 따져봐야 |
| 6 | 6 | 민중의소리 | ‘김학의 성범죄’ 면죄부 준 검찰 기소에서 드러난 문제점 |
| 6 | 7 | 아시아경제 | "내 집도 불안하다"...불법촬영 범죄에 떠는 대한민국 |
| 6 | 10 | 채널A | 국회서 낮잠 자는 ‘스토킹 처벌법’ 6건...3년째 계류 |
| 6 | 11 | 여성신문 | 여성단체들 “성평등 힘써오신 이희호 선생 뜻 이어 받겠다” |
| 6 | 11 | 노컷뉴스 | "성평등 연 1세대 여성운동가"故이희호 여사 기리는 여성·사회단체들 |
| 6 | 12 | 민중의소리 |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법정에도 못 갈 가능성 |
| 6 | 13 | 경향신문 | [단독]“스카이프 진술도 안된다, 징계 과정보도 알려줄 수 없다”... 피해자 울리는 서울대 ‘감감이 징계위’ |
| 6 | 17 | 여성신문 | 이번 주 여성 주요일정 : 격월간포럼 반성폭력운동장 - 도지사와 군수의 위력 성폭력에 맞서다 |
| 6 | 17 | 노컷뉴스 | 10세 아동 성범죄에도...폭행·협박 인정범위 '논란' |
| 6 | 19 | 국방일보 | 성고충전문상담관제 발전방안 논의 |
| 6 | 21 | 서울신문 | 성남시, 지자체 첫 ‘시민 성폭력 실태조사’ 착수 |
| 6 | 25 | 비즈니스포스트 | 서울대와 성신여대에서 교수의 성추행 ‘숨방망이 징계’에 학생들 반발 |
| 6 | 26 | 아시아경제 | “나는 사람 아닌 짐승을 죽였어요” 잔혹한 성폭력 트라우마 |
| 6 | 29 | 세계일보 | 경찰부터 의사까지...직업 불문 잇따르는 ‘몰카’ 범죄 |
| 7 | 1 | 여성신문 | 이번 주 여성 주요일정 : NGO활동의 평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 7 | 3 | 한국일보 | 타다 기사 ‘단독방 성희롱’ 간접고용 탓? 택시에서 발생해도 속수무책 |
| 7 | 4 | 여성경제신문 | ‘성추행 의혹’ 교수 연구실 점거학생들에 ‘반지성적’ 이라는 서울대 교수는 |
| 7 | 8 | 여성신문 | “반복 성추행 KBS 남성 기자 6개월 징적이 과한가?”... 여성단체, 서울지노위 규탄 |
| 7 | 9 | 연합뉴스 | "강간피해 71% 폭력·협박없이 발생...처벌 사각지대" |
| 7 | 9 | 시사주간 | "폭행 협박 없었다고 성폭력 아니다?" '강간죄' 개정 목소리 높아 |
| 7 | 9 | 국민일보 | 매주 금요일 저녁 광화문서 '페미시국광장' 열린다 |
| 7 | 10 |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 ‘지도’를 받고 ‘지배’는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라 |

| 월 | 일 | 언론사 | 보도 제목 |
|---|----|----------------|---|
| 7 | 11 | 민중의소리 |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지지한 여성 노동·시민단체,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이행하라” |
| 7 | 14 | mbc 뉴스데스크 | "얼마나 저항하고 맞아야"...조항을 바꿔야 |
| 7 | 15 | 머니투데이 | "남자도 괴롭다" vs "여성 차별"...여대가 불붙인 '펜스'를 |
| 7 | 16 | 노컷뉴스 | 성범죄, '디지털'과 결합해 일상을 위협하다 |
| 7 | 16 | 쿠키뉴스 | “왜 강지환 집까지 갔냐” 반복되는 여성 피해자 ‘청문회’ |
| 7 | 19 | 경향신문 | 강지환 "만취해 기억 없다"..성범죄자 '주취감형' 되풀이되나 |
| 7 | 19 | 경향신문 | 성폭력 가해자 '무고' 남발...10건 중 8건이 불기소 |
| 7 | 21 | 아시아경제 | '변태성욕 범죄' 정병국은 왜 길에서 음란행위를 했나 |
| 7 | 22 | 민중의소리 | ‘꽃뱀’ 물이는 그만! 검찰 통계로 입증된 ‘성폭력 무고’의 진실 |
| 7 | 25 | 국민일보 | 국민일보, [앵] 조두순이 출소하면 재범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영상) |
| 7 | 25 | 민중의소리 | “이윤택 7년형 환영...예수는 계속 나아갈 것” |
| 7 | 25 | 한겨레 | “장학선” 재조명 위해 ‘조선일보 폐간’ 시위 기획했죠” |
| 7 | 27 |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 성폭력 ‘무고’에 대한 통념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다 |
| 7 | 30 | 경향신문 | ‘궁박한 상태’ 기준 모호...개정 아청법 ‘빈틈’ 여전 |
| 7 | 30 | 한겨레21 | “오빠를 고소할 수 있나요?” |
| 7 | 31 | 쿠키뉴스 | “강간인형 말이 되냐” 리얼돌 수입 허용에 비판 쏟아져 |
| 8 | 1 | 노컷뉴스 | 리얼돌이 행복추구권? 여성 인격권은 목살하나 |
| 8 | 2 | 경향신문 | 페이스북, 또 ‘여성 유두’ 포함한 게시물 차단 “행사 홍보물인데...” |
| 8 | 2 | 여성신문 | 여성단체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성범죄자로 처벌하라" |
| 8 | 3 | 세계일보 | 여성들 ‘몰카포비아’ 시달리는데... 범죄 암시 초소형 카메라 버젓이 판매 |
| 8 | 6 | 이데일리 | ‘몰카·폭력 당할라’, ‘빈집 관촬을까’...휴가철이 두려운 여성들 |
| 8 | 6 | CBS 라디오 | 씨리얼 |
| 8 | 7 | 아시아경제 | 성관계 과시하는 단체특방...불법 음란물 유포로 변질될 수도 |
| 8 | 7 | 이데일리 | '어느 선까지 규제할까'....靑청원에 리얼돌 논란 2라운드 |
| 8 | 9 | 프레시안 | [기고] '여성 유두'라 삭제? 페이스북이 정작 해야 할 일은 |
| 8 | 10 | 여성신문 | 여성들은 외친다...“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검찰 개혁 우리가 한다” |
| 8 | 11 | 뉴시스 | 베이징행동강령 이행점검...한·중·일 여성활동가 300명 모인다 |
| 8 | 11 | 연합뉴스 | [인터랙티브] "성 상품화" vs "사생활"...계속되는 '리얼돌' 논란 |
| 8 | 11 | 프레시안 | "여성을 위한 검찰은 없다" |
| 8 | 13 | 경향신문 | 페이스북, '블루일베' 오명 언제까지...여성 유두 차단 지적 기사까지 차단 |
| 8 | 15 | 여성신문 | 당신의 단체방은 몇몇한가요? |
| 8 | 17 | 시선뉴스 | 육구 총족 대안 vs 성 상품화...팽팽히 맞서는 '리얼돌' 논란 [지식용어] |

| 월 | 일 | 언론사 | 보도 제목 |
|---|----|-------------|--|
| 8 | 18 | YTN 뉴스 | 여성 본뜬 '리얼돌'...'성 상품화' vs. "사생활", |
| 8 | 18 | 뉴스1 | "얼굴복제, 125cm 귀여운 스타일"...리얼돌 우려 현실화되나 |
| 8 | 18 | 경향신문 | [해보니] 리얼돌·성매매 게시물은 'OK', 가슴 시위 사진은 'NO'...페이스북의 이상한 규제 |
| 8 | 22 | 세계일보 | "나이 올리면 성범죄 해결될 거라는 낙관적 시각 경계" [탐사기획 - '은별이 사건' 그 후] |
| 8 | 23 | 민중의 소리 | 지상파 라디오서 "예쁜 아나운서" 타령하는 자유한국당 김학용 |
| 8 | 23 | 여성신문 | 도심 올려퍼진 여성들의 외침 "여성의 죽음을 멈춰라" |
| 8 | 23 | 서울경제 | [닷컴살롱] 성 평등 수업한 교사에게 '성범죄 매뉴얼' 적용한 교육청? |
| 8 | 27 | 한겨레21 | #오빠미투...작은 목소리라도 말해야 산다 |
| 8 | 30 | 서울경제 | [경찰팀 24/7] 순찰·비상벨·동행...'여성 밤길' 지키는 사람들 |
| 9 | 1 | 서울신문 | 성 비하 사과 대신 소송... 막말 교수, 끝까지 막장 |
| 9 | 2 | cbs 씨리얼 | "35년 전, 나는 성차별을 거부했다" |
| 9 | 2 | 아시아경제 | 딸 7년간 성폭행, 당구규대로 폭행도...유명 당구선수 파문, 친족 성폭력 왜 안없어지나 |
| 9 | 4 | 미디어 오늘 | 잊지 말자 '장자연·김학의·버닝썬' |
| 9 | 4 | 노컷뉴스 | [씨리얼] 무려 80년대에 여성학을 전공한 페미니스트 |
| 9 | 5 | 충청타임즈 | 불특정 다수 노린 성범죄 ... 일벌백계해야 한다 |
| 9 | 9 | KBS 뉴스 |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 자문기구 출범...오는 26일 첫 회의 |
| 9 | 9 | 아시아경제 | 여성계 "안희정 유죄 확정, 미투 운동 확대·성평등 문화 정착" 기대감 |
| 9 | 9 | 민중의소리 | 여성·시민단체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
| 9 | 9 | 한국일보 | 미투운동이 촉발시켰지만... '비동의 간음죄' 국회선 논의조차 없어 |
| 9 | 9 |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 "안희정 유죄" 대법원 최종 선고 의미와 남겨진 숙제들 |
| 9 | 10 | 허프포스트코리아 | 안희정 대법원 선고, 무엇을 바꿨나? |
| 9 | 10 | 한겨레 | 안희정 유죄 확정...'비동의 간음죄' 도입 급물살 타나 |
| 9 | 10 | 한겨레 |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한 안희정 상고심...'피해자다움 강요 안돼' 못박아 |
| 9 | 12 | 프레시안 | "'김지은들'이 이겼다. 다윗의 승리였다" |
| 9 | 12 | 오마이뉴스 | '피해자 정보' 건네준 고등군사법원, 이를 유출한 가해자들 |
| 9 | 18 | 한겨레 | 폭행 없으면 '강간죄' 아닌 현실...'동의 여부로 법 고쳐라' |
| 9 | 18 | 미디어오늘 | "강간죄 판단,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
| 9 | 19 | 여성신문 | 아내연인 살해한 남성, '전조 현상' 있다 |
| 9 | 20 | 여성신문 | [생존자의 목소리] '목소리를 초대하는 목소리' |
| 9 | 24 | 한겨레 | "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하는 형법 개정돼야" |

| 월 | 일 | 언론사 | 보도 제목 |
|----|----|----------------|---|
| 9 | 24 | 한겨레 | 66년간 한번도 안바뀐 '강간죄' 요건…'처벌 공백지대' 방치 |
| 9 | 26 | 연합뉴스 |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법관 외부평가 도입도 논의(종합) |
| 9 | 26 | 뉴스1 | 이미경 위원에게 임명장 건네는 김명수 대법원장 |
| 9 | 29 | 세계일보 | [단독] '은별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
| 9 | 29 | 여성신문 | "강간죄 요건, '폭행·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 바뀌야" |
| 9 | 29 | 세계일보 | '리얼돌' 놓고 찬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일상특독 플러스] |
| 10 | 1 | 인천신문 | [여성컬럼] 의제강간은 왜 감형되고 연령이 상향되지 못할까 |
| 10 | 3 | 여성신문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 위촉 |
| 10 | 3 | 뉴스토마토 | 강간 재판 연 1만건 넘었다…기소시 96.4% 유죄판결 |
| 10 | 10 | 참세상 | "여성 주거는 페미니즘 이슈" |
| 10 | 12 | 매일경제 | [여성이 안전한 사회 3부 ③] 가정폭력 목숨걸고 신고해도 2시간 뒤 훈방…이런것 고쳐야 |
| 10 | 16 | BBS NEWS | [뉴스인사이트] '신림동 CCTV 사건' 강간미수 무죄… "증거 부족" VS "가해자에게만 관대" |
| 10 | 17 |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 |
| 10 | 24 | 연합뉴스 | 국방부, 양성평등위 개최…이미경 민간위원장 선출 |
| 10 | 28 | SBS TV | "레깅스는 일상복" 몰래 촬영 '무죄'…뜨거운 논란 "레깅스 입은 젊은 여성, 성적 욕망 대상이라 할 수 없어" |
| 10 | 31 | 여성신문 | 레깅스 입은 여성 불법촬영 무죄 논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핵심 |
| 11 | 4 | 법률방송뉴스 | 수지·아이린 소주병 사라지나... 성 상품화, 음주 미화 논란 |
| 11 | 5 | 노컷뉴스 | 부산대 여성연구소, 8일 젠더폭력에 맞서는 우리시대 페미니즘 심포지엄 개최 |
| 11 | 6 | 프레시안 | '성인지감수성', 진술의 신빙성은 주관적이다? |
| 11 | 7 | MBN | [단독] "특정 부위 안 찍어서 무죄"…모호한 불법촬영 처벌 기준 |
| 11 | 8 | 아시아경제 | "동의 없으면 강간죄" 60년 만에 요건 바뀌나 |
| 11 | 9 | 서울신문 | [판깨스트] '레깅스 판결' 논란으로 본 몰카 속 '성적 수치심' |
| 11 | 10 | 여성신문 | [생존자의 목소리] ⑧ '지금'의 가영 |
| 11 | 10 | 이데일리 | 낙태죄 위헌판결 반년째 손놓은 국회…후속입법 없이 처벌만 |
| 11 | 13 | 스포츠헤럴드 | 강간죄 관련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토론회 열려 |
| 11 | 13 | 더팩트 | [TF이슈] 맨살을 찍어야 범죄라는 '레깅스 사법부' |
| 11 | 13 | 미디어 오늘 | 여야 3당 여성의원들 "강간죄 개정 마지막 기회" 5개 정당 '비동의간음죄' 발의했지만 입법 추진 안돼 |
| 11 | 19 | 더팩트 | [TF초점] 윤중천 성범죄 무죄…김학의도 혐의 벗어나 |
| 11 | 20 | 허핑턴코리아 | 성폭행으로 강제전학 판결 받은 가해 학생이 계속 학교에 재학 중인 이유 |
| 11 | 20 | 국민일보 | "성관계 할 때 명확하게 '하자'고 말을 해야하나" 강원 고교생 성폭행 사건 전말 |

| 월 | 일 | 언론사 | 보도 제목 |
|----|----|----------------|--|
| 11 | 23 | 경향신문 |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거동 못할 정도 돼야 ‘아프다’ 여겨” |
| 11 | 24 | 아시아경제 | "여성 몰래 따라가 사냥" 소름 돋는 스토킹 범죄, 처벌 언제 강화할까 |
| 11 | 25 | 여성신문 | [생존자의 목소리] ⑩ 젤리의 편지 |
| 11 | 25 | MBC | 창문 너머 '8번' 훑쳐봐도…혐의는 '주거침입'뿐 |
| 11 | 26 | 뉴데일리 | '별장 동영상 남성=김학의' 인정… 재판부 "그러나 대가성 입증 안됐다" |
| 11 | 26 | 노컷뉴스 | "구하라 죽음, 경기 관전하듯 방관한 사회 책임 크다" |
| 11 | 26 | 더팩트 | [TF초점] 구하라는 떠났지만 재판은 계속된다 |
| 11 | 27 | 뉴스한국 | 미투 최초 실형 '이윤택 사건'…눈물과 노래가 대변하는 연대의 힘 |
| 11 | 27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뉴스레터75호]<전문가칼럼> 강간죄,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 |
| 11 | 27 | Bloomberg | K-Pop Suicide Sparks a Reckoning on Revenge Porn, Sexual Assault |
| 11 | 30 | 세계일보 | 폭행·협박 없으면 처벌 못하는 강간죄… 국회 법 개정 '뒷짐' [뉴스 인사이드] |
| 11 | 30 | 머니투데이 | 스타강사·경찰…여전히 몰카찍는 '제2의 정준영' |
| 11 | 30 | sbs 그것이알고싶다 | (1193회) 부성애(父性愛)의 두얼굴- 나는 아버지를 고소합니다. |
| 12 | 3 | YTN TV | [와이파일] '5살 성폭력 파문' 방송으로는 전하지 못한 뒷이야기 |
| 12 | 4 | 아시아투데이 | “최근 3년간 하루 14건꼴…매년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 |
| 12 | 7 | 뉴스데일리 | "성남 어린이집, 성(性)적 일탈행위"… 또 '황당' 발언한 복지부장관 |
| 12 | 7 | 국민일보 | “성범죄 공범이 의인상” 반발..참여연대 '양진호 고발자' 수상 보류 |
| 12 | 13 | 머니투데이 | “1.333초” 결론까지 2년.. '곰탕집 성추행' 유죄 의미” |
| 12 | 13 | 여성신문 | [제17회 미지상] 반성폭력 싸움의 현장에 '오매'가 있다 |
| 12 | 13 | 여성신문 | 가해자가 어려도 ‘성인지 관점’ 필요하다 |
| 12 | 13 | 노컷뉴스 | "친족성폭력 가해자 가중처벌 조항 없어…공소시효 폐지해야" |
| 12 | 16 | 더팩트 | “[TF이슈] :유흥업소 여성은 '손님 마음대로'인가요” |
| 12 | 17 | 뉴스1 | 국방부, '양성평등위' 개최…현장중심 양성평등정책 마련 |
| 12 | 18 | 국민일보 |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성폭행 쫓값 물어야… 공수처 1호로” |
| 12 | 20 | CBS | 친족성폭력 |
| 12 | 21 | 오마이뉴스 | 말하기 운동이 왜 인권운동일까 |
| 12 | 23 | 한겨레21 | 우리의 평범을 찾을 때까지 |
| 12 | 26 | MBC 뉴스 | 여성 노리는 '마수의 손길'…CCTV 사각지대는 |
| 12 | 26 | 아유경제 | [아유경제_사회] 여성 동의 없이 콘돔 뺀 남성들… ‘스텔싱도 성범죄다’ |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2020. 1. 31 기준

| 팀 | 상근활동가 | 비고 |
|-------------------------------|--|--|
| 성문화운동팀 (1명) | 박아름(앓) 김신아(신아) | (전출) 감이 2019.12.4 |
| 여성주의상담팀 (3명) | 조은희 유호정(유랑) 노조선이(감이) (2019.12.4.~) | (육아휴직) 란 (전임) 감이 2019.12.4 |
| 사무국 (4명) | 이미경(지리산) (소장) 김혜정(오매) (부소장) 안분순(선민) (~2020.1.31.) 김연정 (~2019.2.28.) 한소망(달별) (2019.3.1.~) 백목련 (2020.1.1.~) | (퇴사) 연정 2019.2.18. (퇴사) 선민 2020.1.31. (입사) 달별 2019.3.1. (전임) 백목련 2020.1.1 |
| 부설기관 | 상근활동가 | 비고 |
| 연구소 울림 (2명) | 김보화(파이)(책임연구원) 장주리(연구원) | |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린터 (5명) | 정정희(사자) (원장) 박지희 전순유 류수민(수수) (2019.3.1.~) 김주아(낙타) (2020.1.1.~) | (입사) 수수 2019.3.1 (전출) 백목련 2020.1.1. (입사) 낙타 2020.1.1 |

사업 감사 보고

본인은 2020년 1월 17일에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부설 열림터의 2019년 팀별 사업보고서, 자료집 등의 성과물,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 내역, 활동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사업 감사를 실시하였다.

크게는 2019년의 슬로건인 ‘우리의 운동을 보이게, 들리게’가 활동에 녹아났는지, 세부적으로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외부에서의 연대, 성과물을 토대로 확인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전반적 운영에서 2018년까지는 각 팀별 활동 목표를 수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2019년에는 4가지의 전체 활동 목표 아래 팀별 연대를 통해 조직구성원 뿐만 아니라 외부 체계들과 연대하여 활동의 지향을 넓혀가려는 비전이 잘 실행되었다고 평가된다.

2019년도의 긍정적인 면은 그동안의 활동이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시작했던 낙태죄 폐지 운동의 결과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과 2018년 미투운동 피해자들에게 대한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많은 연대체들과 함께하여 결과를 이뤄낸 것은 오랜 시간 느슨하게, 팽팽하게를 번갈아 가며 의제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고, 모든 활동가들의 열정과 노고의 결과라고 평가된다.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각 팀별 사업운영 성과를 보면 사무국은 모든 팀들의 종합체로서 열림터 25주년 행사 및 미투운동 이후 개최된 포럼 등 행사에 모든 것들을 소수의 인력으로 연결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성문화운동팀의 경우 2019년에도 거리사업이 많았다. 2년째 지속사업인 ‘의심에서 지지로’ 활동은 물론 예측 불가능한 외부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도 SNS를 통해 신속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상담팀의 경우 자원상담이 2018년엔 1,200건(2,000회)이었는데 2019년에는 910건(1,400회)로 나타나 예년에 비해 건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9년은 2018년도의 연장선으로 각종 공대위를 꾸렸던 사건 및 해군대위 성폭력사건에 대한 재판과정 지원이 활발하였고 긍정적 결과를 추동하였다. 내부적으로 활동가 변동이 있었음에도 역량을 강화하여 통

합적 지원을 하였다.

연구소는 2018년도의 연구(성폭력피해 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2019년 1월 심포지움을 기획하여 미투와 ‘폭행, 협박 없는 성폭력’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상담소의 상담 결과물을 토대로 ‘폭행·협박 없는 상담일지 분석’,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등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정책수립이나 반성폭력 운동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열린터의 경우 25주년을 의미화하였다. 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연구자료집을 내고, 별도의 포럼 등의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님에도 미래 생활시설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자립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1호 생활시설로서 많은 생활시설과 연대하였지만 앞으로는 반성폭력운동과 거리감이 생긴 생활시설을 독려하여 발표된 포럼 발표 내용을 꾸준히 고민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추동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감사에서 우려되는 하나는 많은 업무량으로 인한 활동가들의 소진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량을 줄이기를 제안한다.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20건의 활동 소통, 111건의 논평, 130회의 반성폭력 운동 전문가 교육 활동, 158건의 정책제언, 24건의 토론회 참여, 14건의 기고, 340건의 언론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반성폭력 운동을 위해 1년 365일, 하루 평균 2.5회의 다양한 활동을 15명의 활동가가 외화한 것이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반성폭력운동은 시민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난한 과정이다. 10년을 활동하여 낙태죄를 폐지했고, 2006년부터 준비했던 형법상 강간죄의 최협의설을 폐지하는 법안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더딘 걸음일지라도 문제를 놓지 않았음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냈다. 2020년은 총선이 있다. 총선에서 반성폭력 의제에 대한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활동이 보이고, 들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17일

사업감사 김미순



2019년 예·결산 및 2020년 예산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수입지부 | 2019년 예산 | 2019년 결산 | 실행률(%) | 2020년 예산 |
|---------------|--------------------|--------------------|-------------|--------------------|
| 회비 | 12,000,000 | 13,136,000 | 109% | 13,000,000 |
| 후원회비 | 156,000,000 | 175,493,024 | 112% | 179,500,000 |
| 자료대금 | 3,000,000 | 2,429,863 | 81% | 2,500,000 |
| 모금캠페인(행사수입) | - | 40,640,000 | | 45,000,000 |
| 찾아가는홍보기부(강의) | 37,870,000 | 46,107,443 | 122% | 28,100,000 |
| 일반기부금 | 124,000,000 | 90,121,868 | 73% | 113,000,000 |
| 복권프로젝트수입 | 23,970,000 | 23,500,000 | 98% | 27,000,000 |
| 국고보조금 | 151,791,000 | 201,917,000 | 133% | 210,000,000 |
| 국고보조금(피해자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100% | 50,000,000 |
| 프로젝트수입 | 44,000,000 | 22,560,349 | 51% | 10,000,000 |
| 공동분담금모금액(모낙폐) | | 12,789,891 | | 1,000,000 |
| 여성재단건강지원사업지원비 | | 3,000,000 | | |
| 이자수익 | 2,000,000 | 2,349,107 | 117% | 2,300,000 |
| 선납세금 | - | 0 | | - |
| 잡이익 | - | 0 | | - |
| 소계 | 604,631,000 | 684,044,545 | 113% | 681,400,000 |
| 전기이월금 | 88,881,889 | 88,881,889 | 100% | 122,661,625 |
| 수입지부 계 | 693,512,889 | 772,926,434 | 111% | 804,061,625 |

2019년 예·결산 및 2020년 예산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지출지부 | 2019년 예산 | 2019년 결산 | 실행률(%) | 2020년 예산 |
|---------------|--------------------|--------------------|--------|--------------------|
| 급여(6인) | 230,000,000 | 189,941,020 | 83% | 180,000,000 |
| 사회보험부담금 (6인) | 20,500,000 | 17,784,130 | 87% | 17,000,000 |
| 퇴직적립금 (6인) | 19,500,000 | 15,827,533 | 81% | 17,500,000 |
| 복리후생비 | 12,600,000 | 10,192,450 | 81% | 11,800,000 |
| 관리비 | 14,000,000 | 13,724,250 | 98% | 11,000,000 |
| 사무비 | 2,900,000 | 1,899,451 | 65% | 2,900,000 |
| 대외협력사업비 | 4,600,000 | 2,462,200 | 54% | 4,600,000 |
| 사무국사업비 | 15,100,000 | 13,692,970 | 91% | 18,600,000 |
| 기획조직사업비 | 8,580,000 | 19,423,360 | 226% | 17,620,000 |
| 인권사업비 | 5,400,000 | 3,262,550 | 60% | 6,920,000 |
| 연구소 운영비 | 9,000,000 | 8,513,895 | 95% | 10,200,000 |
| 상담사업비 | 20,290,000 | 19,887,860 | 98% | 6,390,000 |
| 정책개발사업비 | 6,000,000 | 2,409,060 | 40% | 6,500,000 |
| 홍보출판비 | 7,700,000 | 6,951,670 | 90% | 7,960,000 |
| 온라인사업비 | 2,270,000 | 220,591 | 10% | 2,512,000 |
| 국고보조금(운영비)-3인 | 151,791,000 | 185,205,930 | 122% | 210,000,000 |
| 국고보조금(피해자의료비) | 50,000,000 | 50,000,000 | 100% | 50,000,000 |
| 복권프로젝트집행비 | 23,970,000 | 23,500,000 | 98% | 27,000,000 |
| 프로젝트집행비 | 39,000,000 | 22,789,567 | 58% | 10,000,000 |
| 파발마기금 | | 454,604 | | 5,000,000 |
| 공동분담금모금액(모낙페) | | 10,674,530 | | 1,000,000 |
| 여성재단건강지원사업지원비 | | 3,000,000 | | |
| 열린터보조비/법인전출금 | 5,000,000 | 5,000,000 | 100% | 5,000,000 |
| 특별회계 | 20,000,000 | | | 70,000,000 |
| 선납세금 | - | - | | - |
| 잡손실 | - | - | | - |
| 예비비 | - | 23,447,188 | | - |
| 소계 | 668,201,000 | 650,264,809 | 97% | 699,502,000 |
| 차기이월금 | 25,311,889 | 122,661,625 | | 104,559,625 |
| 지출지부 계 | 693,512,889 | 772,926,434 | 111% | 804,061,625 |

재무상태표

제 18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7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단위 : 원)

| 과 목 | 제18(당)기 | | 제17(전)기 | |
|-------------------|-------------|---------------|-------------|---------------|
| | 금 액 | | 금 액 | |
| 자 산 | | | | |
| Ⅰ . 유 동 자 산 | | 122,667,575 | | 89,328,219 |
| (1) 당 좌 자 산 | | 122,667,575 | | 89,328,219 |
| 현 금 | | 335,571 | | 231,181 |
| 보 통 예 금 | | 122,264,870 | | 88,125,016 |
| 정 기 예 . 적 금 | | 61,184 | | 61,184 |
| 퇴 직 적 립 예 금 | | 0 | | 464,508 |
| 미 수 금 | | 0 | | 440,000 |
| 선 납 세 금 | | 5,950 | | 6,330 |
| (2) 재 고 자 산 | | 0 | | 0 |
| Ⅱ . 비 유 동 자 산 | | 1,359,576,647 | | 1,392,106,386 |
| (1) 투 자 자 산 | | 184,932,329 | | 187,182,126 |
| 특 별 회 계 계 정 | | 184,932,329 | | 187,182,126 |
| (2) 유 형 자 산 | | 1,174,644,318 | | 1,204,924,260 |
| 토 지 | | 313,063,774 | | 313,063,774 |
| 건 물 | 953,483,600 | | 953,483,600 | |
| 감 가 상 각 누계액 | 103,217,600 | 850,266,000 | 79,380,510 | 874,103,090 |
| 비 품 | 113,349,840 | | 113,349,840 | |
| 감 가 상 각 누계액 | 106,435,881 | 6,913,959 | 100,721,631 | 12,628,209 |
| 시 설 장 치 | 23,413,297 | | 23,413,297 | |
| 감 가 상 각 누계액 | 19,012,712 | 4,400,585 | 18,284,110 | 5,129,187 |
| (3) 무 형 자 산 | | 0 | | 0 |
|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 | 0 | | 0 |
| 자 산 총 계 | | 1,482,244,222 | | 1,481,434,605 |
| 부 채 | | | | |
| Ⅰ . 유 동 부 채 | | 7,650,273 | | 15,747,404 |
| 예 수 금 | | 5,537,948 | | 5,814,968 |
| 가 수 금 | | 69,240 | | 4,650 |
| 선 수 금 | | 0 | | 7,500,000 |
| 상담소퇴직적립예수 | | 0 | | 413,207 |
| 미환급프로젝트예수 | | 92,504 | | 63,998 |
| 대외협력사업위탁금 | | 1,950,581 | | 1,950,581 |
| Ⅱ . 비 유 동 부 채 | | 0 | | 0 |
| 부 채 총 계 | | 7,650,273 | | 15,747,404 |
| 자 본 | | | | |
| Ⅰ . 자 본 금 | | 225,294,914 | | 225,294,914 |
| 보 통 기 금 | | 225,294,914 | | 225,294,914 |
| Ⅱ . 자 본 잉 여 금 | | 0 | | 0 |
| Ⅲ . 자 본 조 정 | | 0 | | 0 |
| Ⅳ . 기 타 포괄손익누계액 | | 0 | | 0 |

재 무 상 태 표

제 18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7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단위 : 원)

| 과 목 | 제18(당)기 | | 제17(전)기 | |
|---------------------------|---------|---------------|---------|---------------|
| | 금 액 | | 금 액 | |
| V .이 익 잉 여 금 | | 1,249,299,035 | | 1,240,392,287 |
| 미 처 분이이익잉여금 | | 1,249,299,035 | | 1,240,392,287 |
| (당 기 순 이 익) | | | | |
| 당기 : 8,906,748 원 | | | | |
| 전기 : 9,516,144 원 | | | | |
| 자 본 총 계 | | 1,474,593,949 | | 1,465,687,20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1,482,244,222 | | 1,481,434,605 |

손익계산서

제 18(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7(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단위 : 원)

| 과목 | 제18(당)기 | | 제17(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I. 매출액 | | 681,695,438 | | 668,372,314 |
| 복 권 프 로 젝 트 수 입 | 23,500,000 | | 13,000,000 | |
| 후 원 회 비 | 175,493,024 | | 148,848,521 | |
| 자 료 물 품 판 매 수 입 | 2,429,863 | | 3,749,243 | |
| 찾 아 가 는 홍 보 기부금 | 46,107,443 | | 33,269,554 | |
| 행 사 수 입 금 | 40,640,000 | | 49,090,000 | |
| 일 반 기 부 금 | 90,121,868 | | 119,247,985 | |
| 모 낙 폐 후 원 금 | 12,789,891 | | 12,375,011 | |
| 회 비 | 13,136,000 | | 12,001,000 | |
| 국 고 보 조 금 | 251,917,000 | | 241,791,000 | |
| 프 로 젝 트 수 입/의지로 | 15,060,349 | | 25,000,000 | |
| 프로젝트수입/섹슈얼리티강의 | 0 | | 10,000,000 | |
| 프 로 젝 트수입/일상회복 | 7,500,000 | | 0 | |
| 여성재단건강지원사업수입 | 3,000,000 | | 0 | |
| II. 매출원가 | | 0 | | 0 |
| III. 매출총이익 | | 681,695,438 | | 668,372,314 |
| IV. 판매비와관리비 | | 670,128,320 | | 657,842,895 |
| 급 여 | 185,941,020 | | 187,578,720 | |
| 사 회 보 험 부 담 금 | 17,784,130 | | 17,089,040 | |
| 상 여 금 | 4,000,000 | | 0 | |
| 퇴 직 적 립 금 | 15,827,533 | | 15,376,970 | |
| 복 리 후 생 비 | 10,192,450 | | 13,252,890 | |
| 관 리 비 | 13,724,250 | | 11,352,590 | |
| 사 무 비 | 1,899,451 | | 2,177,268 | |
| 감 가 상 각 비 | 30,279,942 | | 33,559,588 | |
| 대 외 협 력 사 업 비 | 2,462,200 | | 4,552,300 | |
| 사 무 국 사 업 비 | 13,692,970 | | 18,285,861 | |
| 상 담 사 업 비 | 20,342,464 | | 13,543,330 | |
| 온 라 인 사 업 비 | 220,591 | | 623,230 | |
| 인 권 사 업 비 | 3,262,550 | | 3,159,300 | |
| 기 획 조 직 사 업 비 | 19,423,360 | | 18,076,650 | |
| 정 책 개 발 사 업 비 | 2,409,060 | | 1,892,390 | |
| 홍 보 출 판 비 | 6,951,670 | | 4,580,450 | |
| 연 구 소 사 업 비 | 8,513,895 | | 5,624,610 | |
| G 상 담 소 급 여 | 137,864,000 | | 111,899,600 | |

손익계산서

제 18(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7(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단위 : 원)

| 과목 | 제18(당)기 | | 제17(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G 상 담 소 퇴 직 적 립금 | 11,488,510 | | 9,061,960 | |
| G 상 담 소 사 회 보 험료 | 13,518,020 | | 10,419,030 | |
| G 상 담 소 운 영 비 | 22,335,400 | | 16,381,970 | |
| G 상 담 피 해 자 치 료외 | 50,000,000 | | 90,000,000 | |
| 프 로젝트 집행비 | 22,789,567 | | 35,008,304 | |
| 프 로젝트 자 부 담 비 | 1,210,430 | | 500,000 | |
| 국 고 보 조 금 반 환 금 | 16,740,928 | | 8,896,864 | |
| 복 권 프 로젝트 집행비 | 23,500,000 | | 13,000,000 | |
| 피 해 자 치 료 비 반환금 | 8,421 | | 2,802 | |
| 프 로젝트 사 업 반환금 | 70,978 | | 9,248 | |
| 공 동분담금집행비/모낙페 | 10,674,530 | | 11,937,930 | |
| 건 강 지 원 사 업비/급여 | 3,000,000 | | 0 | |
| V. 영 업 이 익 | | 11,567,118 | | 10,529,419 |
| VI. 영 업 외 수 익 | | 2,339,900 | | 286,735 |
| 이 자 수 익 | 138,145 | | 132,036 | |
| 보 조 금 수 입 | 155 | | 121,519 | |
| 복 권 내 부 강 사 수 입 | 2,100,000 | | 0 | |
| 잡 이 익 | 101,600 | | 33,180 | |
| VII. 영 업 외 비 용 | | 5,000,270 | | 1,300,010 |
| 열 림 터 보 조 비 | 5,000,000 | | 1,300,000 | |
| 잡 손 실 | 270 | | 10 | |
|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 | 8,906,748 | | 9,516,144 |
| IX. 법 인 세 등 | | 0 | | 0 |
| X. 당 기 순 이 익 | | 8,906,748 | | 9,516,144 |

[주석기재]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구분 | 인력비용 | 시설비용 | 기타비용 | 합계 |
|-------------|-------------|------------|-------------|-------------|
| 1. 공익목적사업비용 | 389,423,213 | 45,903,643 | 239,801,734 | 675,128,590 |
| 사업수행비용 | 162,870,530 | | 228,319,455 | 391,189,985 |
| 일반관리비용 | 226,552,683 | 45,903,643 | 11,482,279 | 283,938,605 |
| 모금비용 | | | | |
| 2. 기타사업비용 | | | | |
| 합계 | 389,423,213 | 45,903,643 | 239,801,734 | 675,128,59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8(당)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제 17(전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0년 03월 31일 처분확정일 2019년 03월 31일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단위 : 원)

| 과 목 | 제 18(당)기 | | 제 17(전기) | |
|------------------------------|---------------|----------------------|---------------|----------------------|
| | 금 액 | | 금 액 | |
| I.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 | 1,249,299,035 | | 1,240,392,287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40,392,287 | | 1,230,876,143 | |
|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과 | 0 | | 0 | |
|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0 | | 0 | |
|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0 | | 0 | |
| 5. 중 간 배 당 금 | 0 | | 0 | |
| 6. 당 기 순 이 익 | 8,906,748 | | 9,516,144 | |
| II.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입액 | | 0 | | 0 |
| 1. | 0 | | 0 | |
| 2. | 0 | | 0 | |
| 합 계 | | 1,249,299,035 | | 1,240,392,287 |
|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 | 0 | | 0 |
| 1. 이 익 준 비 금 | 0 | | 0 | |
|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 0 | | 0 | |
| 3. 배 당 금 | 0 | | 0 | |
| 가. 현 금 배 당 | 0 | | 0 | |
| 나. 주 식 배 당 | 0 | | 0 | |
|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 0 | | 0 | |
| 5. 감 채 적 립 금 | 0 | | 0 | |
|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 0 | | 0 | |
| IV. 차 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1,249,299,035 | | 1,240,392,287 |

※ 본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11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0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특별

(단위 : 원)

| 과 목 | 제11(당)기 | | 제10(전)기 | |
|------------------|---------|-------------|---------|-------------|
| | 금 액 | | 금 액 | |
| 자 산 | | | | |
| Ⅰ .유 동 자 산 | | 190,361,730 | | 190,262,420 |
| (1)당 좌 자 산 | | 190,361,730 | | 190,262,420 |
| 정 기 예 . 적 금 | | 190,000,000 | | 190,000,000 |
| 선 납 세 금 | | 361,730 | | 262,420 |
| (2)재 고 자 산 | | 0 | | 0 |
| Ⅱ .비 유 동 자 산 | | 0 | | 0 |
| (1)투 자 자 산 | | 0 | | 0 |
| (2)유 형 자 산 | | 0 | | 0 |
| (3)무 형 자 산 | | 0 | | 0 |
| (4)기 타 비 유 동 자 산 | | 0 | | 0 |
| 자 산 총 계 | | 190,361,730 | | 190,262,420 |
| 부 채 | | | | |
| Ⅰ .유 동 부 채 | | 184,932,329 | | 187,182,126 |
| 상 담 소 계 정 | | 184,932,329 | | 187,182,126 |
| Ⅱ .비 유 동 부 채 | | 0 | | 0 |
| 부 채 총 계 | | 184,932,329 | | 187,182,126 |
| 자 본 | | | | |
| Ⅰ .자 본 금 | | 0 | | 0 |
| Ⅱ .자 본 잉 여 금 | | 0 | | 0 |
| Ⅲ .자 본 조 정 | | 0 | | 0 |
| Ⅳ .기 타 포괄손익누계액 | | 0 | | 0 |
| Ⅴ .이 익 잉 여 금 | | 5,429,401 | | 3,080,294 |
| 미 처 분이익잉여금 | | 5,429,401 | | 3,080,294 |
| (당 기 순 이 익) | | | | |
| 당기 : 2,349,107 원 | | | | |
| 전기 : 1,704,283 원 | | | | |
| 자 본 총 계 | | 5,429,401 | | 3,080,294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190,361,730 | | 190,262,420 |

손익계산서

제 11(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0(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특별

(단위 : 원)

| 과목 | 제11(당)기 | | 제10(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I. 매출액 | | 0 | | 0 |
| II. 매출원가 | | 0 | | 0 |
| III. 매출총이익 | | 0 | | 0 |
| IV. 판매비와관리비 | | 0 | | 0 |
| V. 영업이익 | | 0 | | 0 |
| VI. 영업외수익 | | 2,349,107 | | 1,704,283 |
| 이자수익 | 2,349,107 | | 1,704,283 | |
| VII. 영업외비용 | | 0 | | 0 |
|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 | 2,349,107 | | 1,704,283 |
| IX. 법인세등 | | 0 | | 0 |
| X. 당기순이익 | | 2,349,107 | | 1,704,28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1(당)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제 10(전)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0년 03월 31일 처분확정일 2019년 03월 31일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특별

(단위 : 원)

| 과 목 | 제 11(당)기 | | 제 10(전)기 | |
|------------------------------|-----------|-----------|-----------|-----------|
| | 금 액 | | 금 액 | |
| I.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 | 5,429,401 | | 3,080,294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080,294 | | 1,376,011 | |
|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과 | 0 | | 0 | |
|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0 | | 0 | |
|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0 | | 0 | |
| 5. 중 간 배 당 금 | 0 | | 0 | |
| 6. 당 기 순 이 익 | 2,349,107 | | 1,704,283 | |
| II.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입액 | | 0 | | 0 |
| 1. | 0 | | 0 | |
| 2. | 0 | | 0 | |
| 합 계 | | 5,429,401 | | 3,080,294 |
|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 | 0 | | 0 |
| 1. 이 익 준 비 금 | 0 | | 0 | |
|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 0 | | 0 | |
| 3. 배 당 금 | 0 | | 0 | |
| 가. 현 금 배 당 | 0 | | 0 | |
| 나. 주 식 배 당 | 0 | | 0 | |
|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 0 | | 0 | |
| 5. 감 채 적 립 금 | 0 | | 0 | |
|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 0 | | 0 | |
| IV. 차 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5,429,401 | | 3,080,294 |

※ 본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회 제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세제잉여금(안) 및 수지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 회계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세제잉여금(안) 및 수지계산서가 제반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정히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7일

감사 배 자 하

裴 滋 瑕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귀중

2019 예.결산 및 2020 예산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 수입지부 | 2019년 예산 | 2019년 결산 | 실행률(%) | 2020년 예산 |
|-----------------|--------------------|--------------------|------------|--------------------|
| 일반기부금 | 25,000,000 | 11,698,130 | 47% | 12,000,000 |
| 회비 | 45,000,000 | 48,959,000 | 109% | 50,000,000 |
| 현물기부금 | | 2,773,000 | | |
| 국고보조금(운영비) | 238,475,000 | 241,051,000 | 101% | 256,962,000 |
| 국고보조금(퇴소자자립금) | 10,000,000 | 10,000,000 | 100% | 5,000,000 |
| 국고보조금(기능보강비) | 4,000,000 | 5,200,000 | 130% | 0 |
| 국고보조금(생계비) | 23,000,000 | 16,511,410 | 72% | 20,000,000 |
| 국고보조금(피해자의료비) | 30,000,000 | 17,356,760 | 58% | 25,000,000 |
| 국고보조금(치료회복프로그램) | 12,935,000 | 12,935,000 | 100% | 12,000,000 |
| 국고보조금(구청지원금) | 1,200,000 | 1,550,000 | 129% | 1,550,000 |
| 국고보조금(특별위로금) | 300,000 | 30,000 | 10% | 0 |
| 찾아가는 홍보기부(강의) | 2,000,000 | 54,270 | 3% | 0 |
| 냉난방지원금 | 300,000 | 600,000 | 200% | 600,000 |
| 법인전입금 | 5,000,000 | 5,000,000 | 100% | 5,000,000 |
| 이자수익 | 800,000 | 858,945 | 107% | 1,000,000 |
| 기타수입 | 100,000 | 6,000 | 6% | 100,000 |
| 소계 | 398,110,000 | 374,583,515 | 94% | 389,212,000 |
| 전기이월금 | 92,649,048 | 92,043,209 | 99% | 124,106,498 |
| 수입지부 계 | 490,759,048 | 466,626,724 | 95% | 513,318,498 |
| 지출지부 | 2019년 예산 | 2019년 결산 | 실행률(%) | 2020년 예산 |
| 급여(사회보험료 등) | 32,000,000 | 10,603,000 | 33% | 15,000,000 |
| 복리후생비 | 5,000,000 | 1,936,000 | 39% | 5,000,000 |
| 시설관리운영비 | 6,500,000 | 5,145,381 | 79% | 6,000,000 |
| 사무비 | 5,000,000 | 5,784,675 | 116% | 6,000,000 |
| 냉난방지원비 | 300,000 | 865,599 | 289% | 634,460 |
| 생활인지원비 | 15,000,000 | 16,385,086 | 109% | 22,000,000 |
| 퇴소자지원비 | 10,000,000 | 8,735,345 | 87% | 7,000,000 |
| 풀짝기금 | | | | 5,000,000 |
| 국고보조금(운영비) | 238,475,000 | 241,051,000 | 101% | 256,962,000 |
| 국고보조금(퇴소자자립비) | 10,000,000 | 10,000,000 | 100% | 5,000,000 |
| 국고보조금(기능보강비) | 4,000,000 | 5,200,000 | 130% | 0 |
| 국고보조금(생계비) | 23,000,000 | 16,511,410 | 72% | 20,000,000 |
| 국고보조금(피해자의료비) | 30,000,000 | 17,356,760 | 58% | 25,000,000 |

| | | | | |
|-----------------|--------------------|--------------------|------------|--------------------|
| 국고보조금(치료회복프로그램) | 12,935,000 | 12,935,000 | 100% | 12,000,000 |
| 국고보조금(구청지원금) | 1,200,000 | 1,550,000 | 129% | 1,550,000 |
| 국고보조금(특별위로금) | 300,000 | 30,000 | 10% | 0 |
| 홍보사업비 | 2,809,201 | | 0% | |
| 25주년기념사업 | 3,190,799 | 1,759,880 | 55% | |
| 국고보조금반환금 | 50,000 | 33,517 | 67% | 50,000 |
| 특별회계 | | | | 39,394,161 |
| 차기이월금 | 90,999,048 | 110,744,071 | | 86,727,877 |
| 지출지부 계 | 490,759,048 | 466,626,724 | 95% | 513,318,498 |

특별회계(정기예적금)

| 수입지부 | 2019년 예산 | 2019년 결산 | 실행률(%) | 2020년 예산 |
|---------------|-------------------|-------------------|-------------|--------------------|
| 전기이월금 | 70,000,000 | 70,000,000 | 100% | 70,605,839 |
| 정기예적금 | | | | 39,394,161 |
| 이자수입 | | 605,839 | | |
| 수입지부 계 | 70,000,000 | 70,605,839 | 101% | 110,000,000 |
| 지출지부 | 2019년 예산 | 2019년 결산 | 실행률(%) | 2020년 예산 |
| 차기이월금 | 70,000,000 | 70,605,839 | 101% | 110,000,000 |
| 지출지부 계 | 70,000,000 | 70,605,839 | | 110,000,000 |

재무상태표

제 18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17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열린터

(단위 : 원)

| 과 목 | 제18(당)기 | | 제17(전)기 | |
|-------------------|-----------|-------------|---------|-------------|
| | 금 액 | | 금 액 | |
| 자 산 | | | | |
| Ⅰ.유 동 자 산 | | 194,905,797 | | 162,722,938 |
| (1)당 좌 자 산 | | 194,905,797 | | 162,722,938 |
| 현 금 | | 142,190 | | 123,470 |
| 보 통 예 금 | | 97,001,550 | | 78,943,906 |
| 정 기 예 . 적 금 | | 70,605,839 | | 70,000,000 |
| 퇴 직 적 립 예 금 | | 26,962,758 | | 13,581,672 |
| 미 수 금 | | 69,240 | | 4,650 |
| 선 납 세 금 | | 124,220 | | 69,240 |
| (2)재 고 자 산 | | 0 | | 0 |
| Ⅱ.비 유 동 자 산 | | 716,671 | | 231,329 |
| (1)투 자 자 산 | | 0 | | 0 |
| (2)유 형 자 산 | | 596,671 | | 111,329 |
| 비 품 | 1,585,800 | | 672,800 | |
| 감 가 상 각 누계액 | 989,129 | 596,671 | 561,471 | 111,329 |
| (3)무 형 자 산 | | 0 | | 0 |
| (4)기 타 비 유 동 자 산 | | 120,000 | | 120,000 |
| 기 타 보 증 금 | | 120,000 | | 120,000 |
| 자 산 총 계 | | 195,622,468 | | 162,954,267 |
| 부 채 | | | | |
| Ⅰ.유 동 부 채 | | 30,379,585 | | 18,007,088 |
| 예 수 금 | | 3,435,520 | | 2,686,920 |
| 퇴 직 적 립 예수금 | | 26,889,457 | | 13,668,107 |
| 미환급P/J,복권기금 | | 54,608 | | 49,561 |
| 복권내부강사비적립금 | | 0 | | 1,602,500 |
| Ⅱ.비 유 동 부 채 | | 0 | | 0 |
| 부 채 총 계 | | 30,379,585 | | 18,007,088 |
| 자 본 | | | | |
| Ⅰ.자 본 금 | | 0 | | 0 |
| Ⅱ.자 본 잉 여 금 | | 0 | | 0 |
| Ⅲ.자 본 조 정 | | 0 | | 0 |
| Ⅳ.기 타 포괄손익누계액 | | 0 | | 0 |
| Ⅴ.이 익 잉 여 금 | | 165,242,883 | | 144,947,179 |
| 미 처 분이익잉여금 | | 165,242,883 | | 144,947,179 |
| (당 기 순 이 익) | | | | |
| 당기 : 20,295,704 원 | | | | |
| 전기 : 30,478,127 원 | | | | |
| 자 본 총 계 | | 165,242,883 | | 144,947,179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195,622,468 | | 162,954,267 |

손익계산서

제 18(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7(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열린터

(단위 : 원)

| 과목 | 제18(당)기 | | 제17(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I. 매출액 | | 368,468,570 | | 354,087,801 |
| 프로젝트수입(복권) | 12,935,000 | | 22,000,000 | |
| 회비 | 48,959,000 | | 44,907,000 | |
| 일반기부금 | 11,698,130 | | 25,326,053 | |
| 현물기부금 | 2,773,000 | | 0 | |
| 국고보조 - G 운영비 | 241,051,000 | | 202,884,000 | |
| 국고보조 -G피해자치료 | 17,356,760 | | 28,811,350 | |
| 국고보조 -G퇴소자립금 | 10,000,000 | | 5,000,000 | |
| 국고보조 / 기능보강비 | 5,200,000 | | 0 | |
| 국고보조 / 특별위로금 | 30,000 | | 214,800 | |
| 국고보조/냉난방지원금 | 600,000 | | 300,000 | |
| 국고보조 - G 생계비 | 16,511,410 | | 21,546,740 | |
| 구청지원 / G 구청지원 | 1,210,000 | | 945,000 | |
| 구청지원 / G 김장비 | 90,000 | | 105,000 | |
| 기타수입 | 0 | | 34,100 | |
| 찾아가는홍보기부금 | 54,270 | | 2,013,758 | |
| II. 매출원가 | | 0 | | 0 |
| III. 매출총이익 | | 368,468,570 | | 354,087,801 |
| IV. 판매비와관리비 | | 356,060,311 | | 325,503,900 |
| 급여 | 8,414,370 | | 11,347,820 | |
| 사회보험료 | 1,487,400 | | 2,692,700 | |
| 퇴직적립금 | 701,230 | | 1,284,970 | |
| 복리후생비 | 1,936,000 | | 3,123,130 | |
| 시설관리운영비 | 5,145,381 | | 2,165,110 | |
| 사무비 | 5,784,675 | | 2,528,973 | |
| 감가상각비 | 427,658 | | 91,455 | |
| G 생계비 | 16,511,410 | | 21,546,740 | |
| G 운영비 | 26,341,715 | | 27,384,368 | |
| G 운영비 / 급여 | 151,925,090 | | 123,598,730 | |
| G 사회훈련비 | 3,600,000 | | 3,600,000 | |
| G 사회보험료 | 12,798,550 | | 9,889,550 | |
| G 퇴직적립금 | 12,660,120 | | 9,954,100 | |
| G 퇴소자자립비 | 10,000,000 | | 5,000,000 | |
| G 운영 / 사업비 | 26,907,345 | | 23,640,812 | |
| G 운영 / 프로그램비 | 6,818,180 | | 4,816,440 | |

손익계산서

제 18(당)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17(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열림터

(단위 : 원)

| 과목 | 제18(당)기 | | 제17(전)기 | |
|-----------------------|------------|------------|------------|------------|
| | 금 | 액 | 금 | 액 |
| G 특 별 위 로 금 | 30,000 | | 214,800 | |
| 프로젝트집행/공동모금냉난방 | 865,599 | | 0 | |
| 프로젝트집행/25주년기념사업비 | 1,400,080 | | 0 | |
| G 피 해 자 치 료 비 | 17,356,760 | | 28,811,350 | |
| G 기 능 보 강 비 | 5,200,000 | | 0 | |
| 복 권 기 금집행/문화체험 | 0 | | 2,295,000 | |
| 복권기금집행/심신회복캠프 | 2,616,950 | | 4,453,010 | |
| 복 권 기 금 집 행/성교육 | 5,424,050 | | 4,676,990 | |
| 복 권 기 금 집 행/즉흥극 | 0 | | 6,737,500 | |
| 복권기금집행/자기방어훈련 | 4,894,000 | | 0 | |
| 복 권 기 금집행/자립교육 | 0 | | 3,837,500 | |
| 퇴 소 자 지 원 비 | 8,735,345 | | 11,179,690 | |
| 연 구 사 업 비 | 359,800 | | 0 | |
| G 구 청 지 원 / 지 원 비 | 1,000,000 | | 600,000 | |
| G 구 청 지 원 / 김 장 비 | 90,000 | | 105,000 | |
| G 구 청 지 원 /춘계부식비 | 90,000 | | 105,000 | |
| G 구 청 지 원 /하계수련비 | 120,000 | | 240,000 | |
| 생 활 인 지 원 비 | 16,385,086 | | 9,554,718 | |
| 국 고 보 조 금 반 환 금 | 28,972 | | 20,783 | |
| 복 권 기 금 반 환 금 | 4,545 | | 7,661 | |
| V. 영 업 이 익 | | 12,408,259 | | 28,583,901 |
| VI. 영 업 외 수 익 | | 7,887,445 | | 1,894,226 |
| 이 자 수 익 | 858,945 | | 499,526 | |
| 상 담 소 보 조 금 | 5,000,000 | | 1,300,000 | |
| 복 권 내 부 강 사 수 입 | 2,022,500 | | 0 | |
| 잡 이 익 | 6,000 | | 94,700 | |
| VII. 영 업 외 비 용 | | 0 | | 0 |
|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 | 20,295,704 | | 30,478,127 |
| IX. 법 인 세 등 | | 0 | | 0 |
| X. 당 기 순 이 익 | | 20,295,704 | | 30,478,127 |

[주석기재]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운영성과표는 사업비용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성격별로 구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열린터

| 구분 | 인력비용 | 시설비용 | 기타비용 | 합계 |
|-------------|-------------|------------|-------------|-------------|
| 1. 공익목적사업비용 | 187,986,760 | 427,658 | 167,645,893 | 356,060,311 |
| 사업수행비용 | 177,383,760 | 0 | 154,779,837 | 332,163,597 |
| 일반관리비용 | 10,603,000 | 427,658 | 12,866,056 | 23,896,714 |
| 모금비용 | | | | |
| 2. 기타사업비용 | | | | |
| 합계 | 190,922,760 | 11,210,980 | 34,347,445 | 356,060,31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8(당)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제 17(전)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0년 03월 31일 처분확정일 2019년 03월 31일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열린터

(단위 : 원)

| 과 목 | 제 18(당)기 | | 제 17(전)기 | |
|------------------------------|-------------|--------------------|-------------|--------------------|
| | 금 액 | | 금 액 | |
| I.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 | 165,242,883 | | 144,947,179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44,947,179 | | 114,469,052 | |
|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과 | 0 | | 0 | |
|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0 | | 0 | |
|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0 | | 0 | |
| 5. 중 간 배 당 금 | 0 | | 0 | |
| 6. 당 기 순 이 익 | 20,295,704 | | 30,478,127 | |
| II. 임 의 적 립 금 등 의 이익액 | | 0 | | 0 |
| 1. | 0 | | 0 | |
| 2. | 0 | | 0 | |
| 합 계 | | 165,242,883 | | 144,947,179 |
| III.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 | 0 | | 0 |
| 1. 이 익 준 비 금 | 0 | | 0 | |
|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 0 | | 0 | |
| 3. 배 당 금 | 0 | | 0 | |
| 가. 현 금 배 당 | 0 | | 0 | |
| 나. 주 식 배 당 | 0 | | 0 | |
|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 0 | | 0 | |
| 5. 감 채 적 립 금 | 0 | | 0 | |
|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 0 | | 0 | |
| IV. 차 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165,242,883 | | 144,947,179 |

회 계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2019년 12월 31일 자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성과표, 세계잉여금(안) 및 수지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회계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일반회계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세계잉여금(안) 및 수지계산서가 제반 법령이나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적정히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7일

감사 배 자 하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귀중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 상담팀 업무를 체계화한다
- 내담자 지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 활동가 소진 예방에 중점을 둔다
- 우리가 만나는 성폭력 생존자와 주변인의 관점과 이야기를 다각도로 알린다
-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장기근속휴가, 대체휴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 열림터의 고민을 홍보 매체를 통해 외화하고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 역량강화교육과 개별상담을 통해 소진예방에 힘쓴다
- 퇴소 이후의 삶도 함께 살피고 연대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네트워킹과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발간, 단행본 발간 사업을 통해 상담소/연
구소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연대의 고리를 강화한다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가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성장하고, 팀별 활동의 역량과
이슈를 확장한다
- 모든 외부연대활동에서 소식, 후기, 내용 등을 상담소 계정에 공유하는 활동을 팀에서 함께한다
- 상담소 사람들, 조직문화, 사건과 사안에 대한 나누고픈 이야기를 주1회 짧게 공유하는 '활동스토
리'를 게재한다 (ex) 두 활동가의 '환갑휴가' : 규정 안내, 소감, 활동 지속성 등

세계 여성들과 호흡하고 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 Act Locally

-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체계를 세계의 페미니스트들과 공유한다
- 상담통계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폭력 이슈를 드러내고 알린다
- 활동가 국제교류협력의 기회를 팀활동과 연결하여 활성화 한다
- 임신중지 관련 해외 법제도 및 현황을 국내에 알리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2020.12.31.)을 앞두고 바쁘게 전개될 한국의 성과 재생산 권리 운동에 비판적으로 참고한다
- UN CSW(여성지위위원회, 뉴욕)와 Generation Equality Forum(파리)에 참가하여 북경여성대회 25주년을 맞은 기념비적인 2020년, 국제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살피고 미투운동, 기후위기 등의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 여성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탐색한다
- 2019 세계 4차 씬터 대회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열림터 활용에 반영한다
- 조직/공동체 내 성폭력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파악을 통해 연구활동의 시야를 확장한다
- 선행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해당 이슈와 쟁점에 대한 역사적 맥락들을 이해하고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후기 작성 및 발표에서 '적용해 볼 점' 코너를 신설하여 연대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 국제교류협력에서 상담소 및 한국에서의 활동을 발표, 공유한다 (공식, 비공식 발표 기회)
- 국제교류협력 비용 상향 현실화한다 (1인 200만원)

2020년 팀 · 부설기관 활동계획

여성주의 상담팀

1.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안정화를 도모한다
2.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여 상담 및 사건지원의 내실을 다진다
3. 통합적 생존자지원 방안을 모색/구축하여 생존자의 역량증진을 지원한다

성문화운동팀

1. 성폭력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상담소 자료를 활용 ·확산한다
2. 연대활동이 성폭력과 어떻게 연관되고, 상담소가 왜 참여하는지 알린다
3. 회원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성장한다

사무국

1. 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를 향한 진전과 연대
2. 상담소의 운동을 더 보이게, 더 지속되게
3. 더 많은 주체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
4. 평등한 문화와 공간 만들기, 좋은 삶 살아가기

부설 연구소 올림

1. 반성폭력 이론과 쟁점을 생산한다
2. 반성폭력운동의 자료를 축적하고 연대한다
3. 상담소/연구소의 활동역량을 강화한다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1. 다양하고 체계적 일상지원으로 치유회복을 도모하고, 역량강화, 자립지원을 한다
2. 퇴소 후 지원을 통해 삶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상호지지로 연대한다
3. 활동가 역량강화로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진예방에 힘쓴다
4. 반성폭력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주의 쉼터운동 연대를 강화한다

2020 여성주의 상담팀 활동 계획

| 전체 활동 슬로건 | |
|---|---|
|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팀 업무를 체계화한다 - 내담자 지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 활동가 소진 예방에 중점을 둔다 |
| 세계 여성들과 호흡하고 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 Act Locall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체계를 세계의 페미니스트들과 공유한다 - 상담통계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폭력 이슈를 드러내고 알린다 |
| 팀 활동 목표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안정화를 도모한다 2.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여 상담 및 사건지원의 내실을 다진다 3. 통합적 생존자지원 방안을 모색/구축하여 생존자 역량증진을 지원한다 | |

목표1. 여성주의 상담의 전문화와 안정화를 도모한다

1-1. 상담 부스 운영

- 배경/필요성 :
 - 변경된 상담 부스 운영 방식을 시도하면서 파악한 장단점을 바탕으로 상담활동가 1명을 충원하기로 함
 - 1차 상담의 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생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업무환경 확보
- 목표: 안정적인 상담 부스 운영 체계 정립
- 방법 및 계획 :
 - 상담부스 운영계획
 - : 상담팀 1일+상담활동가 3일+상근활동가 1일
 - : 상근활동가 매주 금요일 2타임(10:00~12:30/1:30~16:00)
 - 상담 끝난 후 일일수퍼비전 통해 상담 및 사건지원의 질 향상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
 - 상담 부스 및 사건 지원의 안정화

1-2. 반성폭력 의제 확산을 위한 상담일지 및 통계 분석

- 배경/필요성 :
 - 본 상담소는 초기상담이 많고 다양한 지역에서 상담 전화가 온다는 특성이 있음. 이에 상담일지와 통계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최근의 성폭력 유형과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함
 - 상담일지와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사회 이슈에 대응하고 반성폭력 의제를 확산하고자 함
- 목표: 상담일지와 상담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외화
- 방법 및 계획 :
 - 상담일지 읽기 모임
 - :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3월, 9월) 상근활동가 대상으로 상담일지 읽기 모임 진행
 - : 사례 공유 및 상담 현황 파악
 - 상담통계 분석
 - : 매달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상담의 흐름을 읽고 미완성된 상담 일지를 파악.
 - : “법적지원”을 키워드로 2020년 기획 상담
 - : 키워드 중심으로 한 해의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경향 파악하고 외부에 공유
 - : 이사회, 나눔터, 상하반기 평가회의 때 내부 통계 현황 공유
 - : 이슈 대응 시 통계 자료 활용
- 담당자: 유랑
- 기대효과 :
 - 언론, 교육을 통해 상담일지 분석자료를 외화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정책 제언
 - 2월 초 2019년 상담통계 보도 예정

1-3. 사건지원 및 공동대책위원회

- 배경/필요성 :
 - 개별 사건지원을 넘어 반성폭력 운동의 의제를 도출하고 법정책 제언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
 - 사건지원의 내실을 다져 사건지원의 체계를 공고히 하고 활동가별 지원 경험을 축적하고 확대
 - 타 단위와의 공동대응 경험을 통해 다각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건지원자로서의 역량 강화
- 목표: 상담 및 사건지원의 내실화를 통한 사건지원의 경험 축적, 확대
- 방법 및 계획 :
 - 개별 사건지원을 통한 반성폭력운동의 의제 도출
 - : 개별 사건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결되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개개의 사안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의제 및 지원 여부 논의 시 함께 검토
 - 사건지원의 내실화
 - : 사건지원은 격주 1회 팀 업무회의를 통해 사례 공유 후, 지원 여부를 논의함
 - : 사건지원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종결 및 지원자 변경 등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함.
 - : 활동가별 총 10 사례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연계
 - : 상담팀 외 활동가들도 사안에 따라 사건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언
 - 공판모니터링 소모임 활동
 - : 30기 성폭력전문상담원 후속모임 <법정모니터링>의 공판 참관 및 모니터링 지원
 -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활성화

- :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단위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할 사안의 경우, 팀 회의 및 상근활동가 회의를 통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지원 전략 논의
- : 활동가별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다각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와 연대활동을 경험
- 담당자: 조은희
- 기대효과 :
 - 사건지원 과정에서 피해생존자와 함께 지원자도 성장하였는지 평가하여 사건지원자로서의 역량 강화
 - 적절한 개별 사건지원 사례를 운용함으로써 사건지원의 질적 상승
 - 타 단위와의 공동대응을 통한 연대감 성취

1-4. 자문위원회 운영

- 배경/필요성 :
 -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들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상담팀 활동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음.
 - 자문위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배가할 수 있음.
 - 법률, 의료, 심리적인 자문뿐 아니라 상담소의 나아갈 방향도 함께 도모함.
- 목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며 자문위원들의 상담소에 대한 연대를 활성화함.
- 방법 및 계획 :
 - 법률, 의료, 상담 분야 자문위원의 통합자문위원회를 4월 중 개최
- : 위촉 기간 및 자문위원 자격에 대한 안내
- 상시 자문 활성화
- : 사건지원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자문을 활성화하여 사건지원의 질을 높이고 연대함.
- 담당자: 조은희
- 기대효과:
 - 활성화된 자문활동으로 상담소에 대한 애정과 관심, 자문위원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상담소와 연대함

1-5. 재충전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 조직에서는 상담 및 사건지원으로 개별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도록 1년차, 3년차에 재충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하고 있음.
 -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지원을 위해 상담팀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 예방을 진행함
- 목표: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
- 방법 및 계획 :
 - 3년차 활동에 해당하는 1인의 활동가가 재충전 및 소진 예방프로그램을 진행
- : 방법, 시기 등은 개별 활동가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되, 상근자 회의를 통해 사전 공유
- 담당자: 유량
- 기대효과:
 -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회복탄력성을 높임
 -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

목표2.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여 상담 및 사건지원의 내실을 다진다

2-1. 조직 내 성폭력 사건지원자 역량강화 교육 (심화교육)

• 배경/필요성 :

-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입할 수 있는 더 많은 사건지원자 양성 필요
- 반성폭력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 및 관련 법, 체계, 지원내용의 대중적 확산의 필요
- 대학, 공동체 등 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거나 해결 과정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커리큘럼으로 하여, 점처럼 흩어져있는 사건지원자들의 네트워크 연결

• 목표: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건지원자를 양성 및 인적 네트워크 연결

• 방법 및 계획 :

- 조직 내 성폭력 사건지원자 역량강화 교육

: 연구소 협업으로 7~8월 내에 주중 (10시-1시, 3시-6시) 30시간 진행

: 세부 커리큘럼 및 진행 관련한 기획은 기획팀에서 추후 논의하되, 이후 상담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까지 함께 고려 (사건지원자 활동, 추후 워크숍 등)

: 대상 -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지원해 본 경험을 가진 자, 조직 내 성폭력 사건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 (20명 내외)

: 커리큘럼(안)

| 교육일정 | 내용 | 방식 |
|------|----------------------------|-------------------------------|
| 1일차 |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 몸 움직임을 통한 아이스브레이킹과 네트워킹 |
| | 성폭력 사건지원자로서 나의 위치 찾기 | |
| 2일차 | 공동체적 해결, 왜 해야하나? | 강의 |
| | 공동체 규칙/규정/문화 점검하기 | 워크숍 |
| 3일차 | 여성주의 상담과 피해자 리더십 그리고 2차 피해 | 강의 |
| | 사건지원자의 역할과 권한 | 워크숍 |
| 4일차 | 공동체 내 사건지원의 지도 그리기 | 강의 |
| | 종결사례 동료슈퍼비전 | 워크숍 |
| 5일차 |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매뉴얼 | 강의 |
| | 수료식 | 워크숍 |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

- 여성주의 시각과 지원역량을 갖춘 독보적 사건지원자 양성
- 사건지원 활동을 함께 할 인적자원을 확보
- 대학 등 조직 내 사건지원자 네트워크 확보

2-2. 사건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 배경/필요성 :
 - 지원단체별 사건지원의 체계 운용의 방식과 지원 전략의 상이함. 타 상담소와의 슈퍼비전을 통해 지원단체별 지원 방식의 경험을 나누고 유대적 활동을 통해 연계망을 확대
 - 지원자 간의 고충을 나눔으로써 지속가능한 활동 토대를 마련
- 목표: 사건지원 방식의 경험을 나누고 사건지원자 역량을 강화
- 방법 및 계획:
 - 내담자 지원과 관련한 통합적 점검 (총 2회, 상하반기 각 1회)
 - : 사례에 따라 적절한 슈퍼바이저(여성주의상담, 정신분석학, 사건지원역량 등)를 섭외하여 총 2회 슈퍼비전 진행
 - 타 지원단체와의 동료 슈퍼비전 진행 (총 1회)
- 담당자: 유량
- 기대효과:
 - 사건지원 역량 강화
 - 활동 소진 예방 및 지역 연계체계 확대

2-3.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 배경 및 필요성
 - 전화상담과 사건지원을 통해 마주하는 사례 중에 지원자가 필요시 상근활동가가 함께 사례를 검토하고 고민하여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앞으로의 지원 과정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눔
 - 사례 나눔으로 전체 활동가의 역량 강화의 기회 제공
- 목표:
 - 지원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원 전략 도출 및 개별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체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함
- 방법 및 계획:
 - 지원 사례에 대한 집중 토론 시간 마련
 - : 사안에 따라 상근자 회의에서 안건논의로 진행
 - 상담팀 외의 활동가 지원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례회의
 - : 상담팀으로 접수되는 사례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접수되는 사례 등도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함께 나누어 활동가별 소진을 예방하고 지원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담당자: 조은희
- 기대효과
 - 다양한 의견과 전략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하며, 지원자 개인의 부담을 나누고 소진을 예방하고 타 활동가들도 지원에 대한 역량 강화

2-4. 종결 사례 포럼

- 배경/필요성 :
 - 개별 사안 초기부터 지원 종결 시까지의 지원 과정 및 체계에 대한 공유 및 평가를 통해 이후 지원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확인
 - 종결 사례 포럼을 통해 상담소 지원의 경험을 공유 확대
- 목표: 사건지원 전반적인 흐름을 평가, 공유하고 이후 지원에 대한 전략 나눔

- 방법 및 계획:
 - 종결사례 포럼 진행 (반기별 1회)
 - : 상반기 상담팀 1회(6월), 하반기 열림터 1회로 진행(11월)
 - : 종결된 사례를 초기 상담부터 종결까지 상담의 맥락과 전략을 정리하여 공유
 - : 전체 상근활동가 참여로 사건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청취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
 - 종결사례를 통해 시사점 도출
 - 사건지원 과정에서의 강점과 취약점 분석, 향후 지원 전략에서 보완책 마련

2-5. 월요법률상담

- 배경/필요성 :
 - 최근 무고와 역고소, 명예훼손 등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움츠러들게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음. 피해자들이 사건해결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법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상담소에서도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들과의 유대감 확장 및 연대의 필요성이 절실함.
- 목표: 월요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생존자들에게 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체계적인 법적지원을 제공함.
- 방법 및 계획:
 - 2월 중 홈페이지 홍보 및 지원자 확인
 - : 다양한 채널을 통해 법률자원활동 의사를 밝힌 신규변호사와 기존 변호사 매칭하여 실습 후 진행
 - : 신규변호사 진행 시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으로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도 높임
 - 3월~11월 법률상담 진행
 - : 월 2회, 1회당 2건의 상담 진행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에 대한 갈증 해소
 - 사건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법적 지원을 함

목표3. 통합적 생존자지원 방안을 모색/구축하여 생존자의 역량증진을 지원한다

3-1. 개별프로그램

1)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지원

- 배경/필요성 :
 - 성폭력은 여성의 건강권과 연결됨. 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제안이 필요
 - 성폭력피해자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정신적, 신체적 치유를 위한 접근성 향상
- 목표: 치료비 지원을 통한 성폭력 생존자의 의료적, 심리적 안정 도모
- 방법 및 계획:
 - 1인 6개월 이내 300만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
 - 팀 내 상시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결정

-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 및 상담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례를 충실히 관리
- 담당자: 조은희
- 기대효과 :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도모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의료지원 욕구를 확인하고 의료지원체계 파악

2) 개별상담 (복권기금)

- 배경/필요성 :
- 미투운동 등 피해생존자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호소는 증가하였으나 의료, 법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기존 의료비 지원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피해생존자들에게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목표: 피해생존자로서 공식적인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예외적인 치유과정이 필요한 내담자를 지원
- 방법 및 계획:
- 전화 상담을 통해 수시 지원자 확보
- 정신분석센터 ○○, ○○○마인드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피해자 연계
- : 기관별 5명 총 10명에 대하여 10회기의 개별상담 진행
- 담당자: 유량
- 기대효과 :
- 의료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소외되기 쉬운 피해생존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

3-2. 집단프로그램

1) 작은말하기 (복권기금)

- 배경/필요성:
- 상담소에는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와 구별하여 더욱 가까운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인 성폭력피해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가 있음
- 최근에는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말하기(speak out)의 힘과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음. 작은 말하기는 본인의 피해 경험을 재해석하고 피해자 간 연대가 가능한 일상적인 말하기 공간으로서 중요성을 가짐
- 목표: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피해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 마련
- 방법 및 계획:
-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회 성폭력 피해생존자 자조 모임 진행
- : 매달 참가신청을 받아 모집
- :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장소를 대관하여 자유로운 말하기 진행
- : 12월에는 한 해 모임을 마무리하는 행사 진행
- 담당자: 조은희
- 기대효과:
- 피해경험을 말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생존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다.
- 작은말하기 공간을 통해 피해생존자 간 지지망 구축

2) 집단상담

• 배경/필요성 :

-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현재 자신을 확인하고 성폭력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원을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

• 목표: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회복과 일상생활의 적응을 원활하게 함

• 방법 및 계획 :

- 3월 중 홈페이지 홍보를 통해 지원자 모집 및 선정
- : 사건 개별 인터뷰 및 상담 진행, 집단상담 참여자 적절 여부 판단
- 5~7월 총 10회기 1단계 집단상담 진행
- : 사전 개인상담(1단계 시작 1주 이전) 및 후속 개인상담(1단계 종결 2주 이후) 진행
- : 9~10월 총 5회기 2단계 집단상담 진행
- 기획안

1단계 : 상처를 힘으로 전환시키는 안전하게 말하기

| 회차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
| 1 | 오리엔테이션 -여성으로서 나의 삶 | 3 | 오리엔테이션(안정에 집중) 프로그램 소개 1. 집단프로그램 구조화, 집단규칙 정하기 2. 자기소개와 집단상담의 목표 3. 타로카드로 이해하는 나의 심리 |
| 2 | 안전하게 서로 말하기 1 - 성폭력 피해경험과 지금 | 3 | 1. 지금 여기의 나, 자원 찾기 - 내적자원, 외적자원 10가지 2. 나의 삶 이야기 : - 과거를 돌아보며 삶의 패턴 발견하기 |
| 3 | | 3 | 성폭력피해 “경험”과 “지금” 1. 성폭력 피해 이후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겪고 있는가? - 성격(생각, 감정)/가족관계/행동/대인관계/일 변화 2.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주 된 감정은 ? |
| 4 | 안전하게 서로 말하기 2 - 과거와 현재에 동시에 발달기 | 3 | 피해경험과 관련한 감정 인식 및 표현 - 피해경험 말하기 |
| 5 | | 3 | - 피해경험과 관련된 생각, 감정, 행동, 몸 느낌 접촉 |
| 6 | | 3 | - 가해자, 주요 타인에게 받았던 상처 접촉하기 |
| 7 | 자원찾기와 자기돌봄 -권력분석, 감정 접촉 및 | 3 | 성폭력 피해경험을 권력분석으로 이해하기 1. 문제와 관련한 권력의 위치, 무력의 위치 탐색 2. 관련하여 발달한 심리 탐색 3. 자기돌봄 목록 작성 |

| 회차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
| 8 | 표현 | 3 | 가해자, 비보호적 부모, 2차 가해자 등에게 편지 쓰기 - 가해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 - 피해경험을 수용해주지 못한 타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 |
| 9 | 상처를 힘으로 전환하기 | 3 | 변화와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권력 찾기 1. 이야기 바꾸기와 대안적 선택 탐색하기 2. 충족되지 않은 필요와 욕구 탐색 3.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4. 목표 실현을 위해 어떤 권력이 필요한지 탐색 |
| 10 | | 3 | 1. 변화의 선물 만나기 : 내 안의 페르세포네와 트리플 여신 만나기 2. 아마테라스와 우즈메 만나기 : 지지자 찾기 3. 집단참여의 목표와 현재의 나 평가 |

2단계 : 지금 여기의 반짝이는 삶

| 회차 | 프로그램 | 시간 | 내용 |
|----------|----------------|----|----------------------------------|
| 1 | 자신과의 화해 | 3 | - 자기 욕구와 주도성 - 실수를 감내하고 나아가기 |
| 2 | 다른 사람과 연결하기 | 3 | - 관계 속 자아 - 친밀한 관계, 안전하게 연결하기 |
| 3 | 지금 여기를 살기 | 3 | - 나의 발달 과제 만나기 - 지금 여기 반짝이는 삶 |
| 4~ 5회 | 나만의 서사 완결하기 | 4 | - 피해경험이 남긴 유산 - 나의 여성영웅 신화 쓰기 |

• 기대효과:

- 성폭력피해경험과 자신이 위치한 현실을 직시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힘을 갖게 됨.
- 집단상담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원을 확보

3-3. 파발마 기금 운영

- 배경/필요성 : 지역에 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원활한 사건지원을 위해 기부된 지정기부금 [파발마 기금]의 적극적 운영 필요
- 목표: 지역의 내담자들 지원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 방법 및 계획:
 - 사건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 내담자/지원자의 교통편 및 숙박 시설 비용 지급 (1인당 50만원)
 - 지정후원자에게 기금 지출 내역 보고
- 담당자: 유량
- 기대효과 : 비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건지원과 활동 참여를 담보할 수 있음.

2020 성문화운동팀 활동 계획

| 전체 활동 슬로건 | |
|--|---|
|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만나는 성폭력 생존자와 주변인의 관점과 이야기를 다 각도로 알린다 -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장기근속휴가, 대체휴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
| 세계 여성들과 호흡하고 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 Act Locall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국제교류협력의 기회를 팀활동과 연결하여 활성화한다 - 임신중지 관련 해외 법제도 및 현황을 국내에 알리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2020.12.31.)을 앞두고 바쁘게 전개될 한국의 성과 재생산 권리 운동에 비판적으로 참고한다 - UN CSW(여성지위위원회)와 Generation Equality Forum(파리)에 참가하여 북경여성대회 25주년을 맞은 기념비적인 2020년, 국제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살피고 미투운동, 기후위기 등의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 여성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탐색한다 |
| 팀 활동 목표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담소가 발행해온 자료를 활용·확산한다 2. 연대활동이 성폭력과 어떻게 연관되고, 상담소가 왜 참여하는지 알린다 3. 회원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성장한다 | |

목표1. 성폭력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담소가 발행해온 자료를 활용·확산한다

1-1.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 모니터링

- 배경/필요성 : 2006-2007년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2015-2017년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 사업’ 등은 그동안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피해자의 경험을 배제해온 법과 판결을 분석·비판해왔다. 2018년 미투 운동 전후로 성폭력 관련 판례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고, 성폭력 관련 법의 기본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없음’으로 개정하기 위한 담론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 목표:

- 성폭력 생존자와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참여자/동료들이 참고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한국 반성폭력

-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성폭력 판결을 정리·기록하고 자료화한다.
- 성폭력 판단 기준으로서 ‘동의’란 무엇 의미하는지 대중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든다.
- 방법 및 계획:
 -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 2> 발간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 모니터링, 필요 시 이슈대응 활동으로 연결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사무국과 협업)
- 담당자: 앞
- 기대효과 :
 -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이뤄낸 성폭력 판례 변화를 대중에게 알리고 성폭력 생존자, 사건 지원자, 법률 전문가, 연구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공유한다.
 - 성폭력 관련 법·정책·판례를 지속해서 대중과 공유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으로서 ‘동의’, ‘적극적 합의’ 개념에 관한 담론을 확산하며 대중 인식을 개선한다.

1-2.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 배경/필요성 :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2006년 시작한 이래로 그 필요성은 계속 있어왔다. 성폭력 통념과 젠더 규범이 몸을 통해 작동하고 있으며 ‘몸’을 바꾸는 여성주의 대항운동이자 성폭력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고 체화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상담소는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경험과 자료, 형성해온 지도자 네트워크를 통해 ‘일회적 체험’에 그치지 않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2017 단편영화 <아이캔디펜스>, 2018 단행본 <미친놈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 (이회림), 연재기사 <최하란 No woman No cry> 등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자기방어훈련 콘텐츠가 많아졌다. 동시에 여전히 여성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운동 종목은 젠더화되어 있으며 여성들이 이에 자유롭게 무술 도장이나 자기방어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찾기 쉽지 않다. 상담소만의 특성화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19년은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는 한 해였다. 2018년부터 이어져온 미투운동에 이어서 화장실 버스 등 일상 속 불법촬영, 신림동 주거 침입 사건 등을 통해 일상에 만연한 성폭력을 재확인 하였고 수사재판부는 성폭력 통념으로 인해 가해자를 적법하게 처벌하지 못했고 피해를 구제하지 못했다. 또 한 미투운동으로 정당한 법적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었으나 장학선 사건 등에 있어서는 아무 변화도 없었으며 연이은 여성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은 많은 여성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남겼다.

2019년 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에서 생존자의 일상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생존자들의 싸움은 법정에서만, 사건해결과정에서만 그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한 일상에서 생존자들이 일상을 둘러싼 무기력, 불안, 고립감 등을 몸 훈련을 통해 해소하고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 위험과 안전을 재사고하고 안전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계기, 능동적으로 문제해결로 나아갈 수 있는 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핵심 키워드: 성폭력, 생존자, 일상, 활기, 움직임, 체력강화)
- 목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피해 생존자의 일상의 변화를 모색하고 역량 강화한다.
- 방법 및 계획:
 - 성폭력 생존자를 참여 대상으로 15~20인 모집
 - 매 회 다른 주제 및 상황별 워크숍을 8회 진행 (5-6월)
 - 주 강사로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제에 따라 다른 강사진을 통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
 - 마무리 캠프 1회 진행 (9월)

- 자원활동, 인턴이 프로그램 실무 보조로 1인 참여
- 담당자: 신아
- 기대효과 : 몸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의 체력이 강화되고 서로 연대감을 구축한다. 프로그램 이후 운동을 이어가거나 시작한다. 자기방어훈련을 통해 성폭력 통념과 여성성 규범에 균열을 가한다.

1-3. 여성주의 관점의 이슈 대응

- 배경/필요성 : 성폭력은 성별규범과 가부장적 성문화, 권력관계가 사회구조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구조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행위나 사건만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가 성평등하게 변화해야 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변화는 성폭력만 제거된 사회가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조건이 함께 만들어진 사회이다.
- 목표: 시시각각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반성폭력 현장 단체로서의 경험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지속해서 알림으로써 여성인권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더 나은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간다.
- 방법 및 계획:
 - 단호한 시선 : 한국성폭력상담소 단독 성명/논평, 카드뉴스 등으로 법제도, 사건 등 성문화와 관련된 새롭거나 다시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슈들을 다룬다.
 - 연대 성명 및 논평 : 여성/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성명 및 논평에 연명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카이빙하고 알린다.
 - 온/오프라인 이슈 대응 활동 : (특히 성폭력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이나 토론이 필요한 이슈가 있을 시에는 상황에 따라 캠페인, 기자회견, 퍼포먼스, 긴급집담회 등을 추진한다.
- 담당자: 앞/신아
- 기대효과 : 법·제도·문화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상담소의 관점을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대중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낸다. 정해진 사업 외의 이슈나 사안들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 활동을 함으로써 활동가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성문화운동의 빈 공간을 채운다.

1-4. [피해와 생계 사이, 성폭력을 말하다] 단행본 출간

- 배경/필요성 : 2019년 연속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는 피해 생존자가 마주한 ‘생계’와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며 성폭력이 발생하는 권력 구조와 피해자가 처해있는 상황과 맥락을 알렸다. 이 때 생산한 이야기를 대중적인 단행본으로 출간하여 성폭력에 대한 관점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 목표: <피해와 생계 사이>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확산
- 방법 및 계획:
 - 성폭력, 여성주의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출판사 선정
 - 집담회 출연자들의 ‘안전한 말하기’가 될 수 있도록 계약, 편집, 홍보 등의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
 - 출간시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
- 담당자: 신아
- 기대효과 : 대회, 집담회, 자조모임에서 나아가 ‘대중서 발간’을 통해 ‘성폭력 피해 말하기’의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폭력 생존자의 이야기를 알린다.

1-5. 성폭력 주변인 릴레이 인터뷰 [보통의 연대] 연재

- 배경/필요성 : 성폭력 주변인 릴레이 인터뷰 <보통의 연대>는 2019년 <의심에서 지지로> 프로젝트 중 대중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과 함께 진행되었고, 약 40여 명의 성폭력 주변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 또는 영상 콘텐츠로 편집하여 2019년 7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연재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까지 남은 연재분을 꾸준히 게시하고, ‘성폭력 주변인’ 개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 목표: 평범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경험과 역할, 고민을 나누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연대해야 하는 주체임을 느끼도록 한다.
- 방법 및 계획:
 - <보통의 연대> 릴레이 인터뷰 연재(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게시 및 SNS,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 <보통의 연대> 체크리스트 및 워크시트 활용-배포
- 담당자: 앎
- 기대효과 : 성폭력이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일상과 연결된 문제임을 알리고, 사회 전반이 성폭력 문제해결에 참여하도록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반성폭력 담론을 확장한다.

목표2. 연대활동이 성폭력과 어떻게 연관되고, 상담소가 왜 참여하는지 알린다

2-1. 여성 인권 연대활동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배경/필요성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1월부터 28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정부에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곱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 여전히 2015한일합의를 내세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일합의의 상징인 화해-치유재단이 2019년에 공식 해산되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관점으로 정기 수요시위를 연 1회 주관함으로써, 일본군 성노예제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여성폭력의 역사이자 끝나지 않은 문제임을 밝히고, 특히 ‘전시 성폭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제제기한다.
- 방법 및 계획: 제142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관
- 김채연, 박민아 인턴활동가(씨타-경희 NGO인턴십) 주도의 기획 및 실무

제142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일시 : 2020년 2월 12일(목) 오후 12-13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전체 순서
- : 여는 노래 <바위 처럼>
- : 경과 보고(정의기억연대)
- : 참가 단체 소개
- : 문화공연
- : 연대 발언
- : 성명서 낭독

• 담당자: 앞

- 기대효과 : 평소 다루지 않는 '전시 성폭력'을 주요 키워드로 다뤄 일본군 성노예제에 관한 대중의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환기한다.

2)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여성대회

• 배경/필요성

- :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로 전세계 여성들이 연대하는 날이다. 한국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관으로 1985년부터 한국여성대회를 진행하여 왔다.
- : 2019년 기사 단톡방 사건, 교대 학생 단톡방, 남성 연예인 단톡방 사건 등 소위 단톡방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메신저 공간에서의 성폭력이 문제화되었기에, 단톡방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성폭력 문화에 대응하고 반성폭력 규범을 정립할 수 있는 '단톡방 불편냥'과 '단톡방 십계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 2019년 보통의 연대 사업을 통해 '성폭력 주변인'의 지지적 역할을 강조하고 반성폭력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주변인 체크리스트, 워크시트를 만들었으며 이를 더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목표: 여성단체로서 연대의식을 확인하며 여성인권운동의 가치를 확산한다.

• 방법 및 계획:

- 컨셉은 '상당소 창고대방출'로, 2019년 만들어진 자료들을 적극 확산한다.
- <단톡방 십계명> 포스터, <주변인 워크시트>, <의지로 Q&A자료집>, <키링>을 판매한다.
- <불편냥 이모티콘>을 홍보하고 <주변인 체크리스트>를 확산한다.

• 담당자: 신아

- 기대효과 : 2018-2019년에 생산한 유의미한 콘텐츠를 확산하여 일상에서 성폭력 없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한다.

2-2.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운동

- 배경/필요성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10년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연대체 활동, 2012년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2016년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 공동주최 등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2017년에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연대체를 발족하고,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폐지를 전면적으로 주장하면서,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노동, 장애, 성소수자, 청소년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로 ‘낙태죄 폐지’라는 의제를 확산하고 대중적 공감대를 만들어왔다. 마침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선고하였다.

• 목표: 입법 모니터링 및 대응을 통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를 보장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제공·상담·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또한, 꾸준한 대중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임신중지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사회 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간다.

- 방법 및 계획: 연대활동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 입법 모니터링 및 적극적 의견 개진(주요 의제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유산유도제 도입, 급여화, 의료인 교육·훈련, 포괄적 성교육 등)
- 시의성 있는 이슈 대응 및 대중 인식 개선 활동
-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 구축, 입법 이후의 의료서비스제공·상담·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장 마련
- 참고할 만한 해외 입법례 공유 등
- 담당자: 얌
- 기대효과 : 수많은 여성/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여 이뤄낸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식적인 선고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책을 모색한다.

2-3. 반차별운동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배경/필요성
-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경기 지역 성평등조례 개정 시도 등을 통해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 여성에 대한 채용 성차별, 익산시장에 의한 인종주의적 발언 등을 통해 한국사회에 만연한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확인되었다.
- : 2018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차별금지법은 인권 기본법이자 이미 많은 국가에서 갖추고 있으며 국제인권 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 되고 있다.
- : 2020 총선에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유의미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내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 : 2019년 젠더이분법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여성’을 규정하고, 트랜스젠더와 같이 성별이분법에 벗어난 소수자를 혐오하는 페미니스트들과 직접적인 갈등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음. 소수자 그룹의 경험이 단일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억압의 사유가 성별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반차별운동의 문제의식을 더 많은 주체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 목표: 반차별 감수성 확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한다.
- 방법 및 계획: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
- 담당자: 신아
- 기대효과 : 반차별 감수성이 확산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유의미한 토론이 있으며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다

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배경/필요성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8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연대체를 함께 발족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대응해왔다. 군형법 제92조의6(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은 사실상 동성 간 합의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사회적으로 동성에 혐오와 이성애중심주의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왔고, 그동안 적용 사례를 보더라도 수사·재판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및 인권침해를 자행하거나, 성폭력 가해자를 축소 처벌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왔다. 그동안 3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고(2002년, 2011년, 2016년), 2차례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2014년, 2017년)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전후로 대중 여론에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었으나, 2019년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은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선고 의견 중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는 표현을 주요 근거로 인용함으로써 여전히 군형법상 '추행'죄가 동성애 혐오·차별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네 번째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공개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목표: 군형법상 '추행'죄가 어떻게 왜곡된 성문화·인식을 만들고 성소수자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으로써 대중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 방법 및 계획: 연대 활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헌법재판소 모니터링 및 대응(군형법 제92조의6 위헌·폐지 촉구, 변호인단과의 긴밀한 소통 및 연대 등)
- 국회 모니터링 및 대응(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법안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 예정)
-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및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대중과 시민사회 연대·조직
- 담당자: 얏
- 기대효과 : 대중과 시민사회가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조직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3) 서울퀴어문화축제

- 배경/필요성 :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되지 20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매 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역퀴어문화축제로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혐오세력의 목소리와 제도권의 차별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에 함께 목소리 내어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 목표: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연대하고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에게 연대의 메시지와 상담소 활동을 전한다.
- 방법 및 계획:
 - 서울퀴어문화축제 행진 피켓 등 메시지 제작하여 참여 및 온/오프라인에서 메시지 확산
 - 자원활동가 및 인턴 모집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군성넷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
- 담당자: 신아
- 기대효과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함께 목소리내고 자긍심을 높인다.

2-4. 다양한 연대활동

- 배경/필요성 :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이슈를 대중과 공유하고 확산시킨다.
- 목표: 성폭력과 성차별을 양산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연대한다.
- 방법 및 계획:
 - 기대효과 :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폭을 넓혀, 구조적 변화를 위한 힘을

모아내는 경험을 쌓는다.

| 연대체 | 내용 | 담당 |
|-----------------------------------|---|-----|
|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네트워크 |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철회시키고, 포괄적 성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공론화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 백목련 |
| 전환치료근절네트워크 | 전환치료의 문제를 알리고, 전환치료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한다. | 앎 |
|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 생리대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성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촉구하며, 나아가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진다. | 신아 |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하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비롯한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맞서기 위한 여성단체 공동의 대응을 모색한다. | 감이 |

목표3. 회원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성장한다

3-1. 이메일 소식지 발송 및 관리

- 배경/필요성 :
 - 목표: 회원과 이메일 소식지 구독자 및 유관기관에 상담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상담소 활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한다.
 - 방법 및 계획:
 - 월 1회 이메일 소식지 발행(2019년 1월호~12월호, 총12회)
 - 발송 대상 : 상담소/열린터 회원 및 구독자, 여성·시민사회단체, 성폭력상담소, 언론 등
 - 발송 내용 : 주요 활동 홍보 및 이슈 전달
 - 담당자: 신아
 - 기대효과 : 인터페이스 개편 및 유료 요금제 사용으로 안정적으로 발송한다.

3-2. 나눔터 발간

- 배경/필요성 : 나눔터는 1991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개소 초기부터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이다. 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회원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2010년 여름에 발행된 6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주기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회원소식지로서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했다. 2017년부터 신설한 ‘생존자의 목소리’ 코너는 상담소가 만나는 성폭력 생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어 전하는 창구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2019년에는 ‘여성신문’에 전제되기도 하였다.
- 목표: 상담소의 활동을 기록·홍보하고, 회원 및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참여자/동료들에게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전하며, 회원 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회원 소통 증진을 도모한다.
- 방법 및 계획:

- 나눔터 86호 발간, 87호 발간 (발간시기 : 1월, 7월)
- : 기획 회의를 통한 내용 구성 및 필자 선정
- : 원고 청탁 및 수합
- : 편집 및 편집 디자인(외주 제작), 교정
- : 발간 및 홍보, 발송·배포
- : 반송분 처리
 - 담당자: 신아/얏
 - 기대효과 :
- 상담소의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람들(상근/자원/인턴 활동가, 회원, 비회원 등)의 목소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상담소에 친숙함을 느끼게 한다.
- 더 많은 사람들이 성폭력 생존자의 경험과 일상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부수 1,200부에서 1,400부로 증쇄하여 시민참여부스, 행사 등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3-3. 회원 참여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회원 및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참여자/동료들이 상담소를 보다 친근하게 여기고,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목표: 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작은 행사들을 소소하게 만들어, 상담소와의 접점을 늘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방법 및 계획:
 - 1) 회원 놀이터(연 2회)
 - 상반기 4월, 하반기 11월 진행한다.
 - 2) 회원소모임(연중)

| 소모임명 | 성격 | 담당 |
|---------------|---------------------------|-------|
| 페미니스트 아무말 대잔치 | 여성주의 수다 모임 | 얏 |
| 내가 반한 언니 | 페미니즘 콘텐츠 비평 모임 | 신아/달별 |
| (전)상담자원활동가모임 | 전 상담자원활동가 친목 모임 | 상담팀 |
| | 2019년 집단상담 후속 책 읽기 모임 | 상담팀 |
| | 2019년 기본교육 후속 법정 모니터링 소모임 | 상담팀 |
| | 2019년 기본교육 후속 책 읽기 모임 | 상담팀 |

- 담당자: 신아/얏
- 기대효과 :
- 상담소에 소속감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은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회원들은 후원회원 가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3-4. 자원활동가 모집 및 소통과 연계

- 배경/필요성 : 자원활동가는 상담소 활동의 적극적인 지지자/참여자/동료이자 외부의 시선에서 피드백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대중과 상담소의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속적으로 자원활동가를 모집함으로써 자원활동가를 확대하고 잠재적 활동가 및 회원들과의 만남을 늘린다.

- 목표: 자원활동가들이 반성폭력 활동 주체로서 상담소에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한다.
- 방법 및 계획:
 - 홈페이지를 통한 자원활동 신청자를 중심으로 격월 1회(총5회) ‘자원활동 신청자 모임’ 진행
 - 프로젝트 및 일상 업무에서 자원활동가의 수요가 있거나, 활동을 신청하는 자원활동가가 있는 경우에 상황과 필요에 맞게 연계
- 담당자: 얏
- 기대효과 :
 - 자원활동가들이 상담소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소속감과 친숙감을 느끼도록 하며, 다양한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자원활동 신청자 모임을 통해 상담소 자원활동가로서 숙지해야 할 ‘이 공간의 약속’, ‘비밀유지 의무’ 등을 안내·교육하고, 각 자원활동가가 스스로 상담소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실행한다.

3-5. 자문 회의

- 배경/필요성: 자문위원들의 익숙하거나 낯선 시선으로 2020년 성문화운동팀의 활동 방향,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고, 상시적인 자문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자문 회의를 진행한다.
- 목표: 자문 회의를 통해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구하고, 자문위원들이 상담소의 활동을 더 긴밀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및 계획:
 - 상반기 내 1회 성문화운동 자문위원들과 대면/서면 자문회의 개최
- 담당자: 신아/얏
- 기대효과: 성문화운동팀은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문화운동팀 활동 및 운영에 참고할 실질적인 조언을 얻고, 자문위원들은 상호 간 소통을 통해 각 영역에서의 성문화 운동을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2020 열림터 활동 계획

| 전체 활동 슬로건 | |
|--|--|
| <p>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림터의 고민을 홍보 매체를 통해 외화하고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가 역량강화교육과 개별상담을 통해 소진예방에 힘쓴다 - 퇴소 이후의 삶도 함께 살피고 연대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 |
| <p>세계 여성들과 호흡하고 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 Act Locally</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세계 4차 씬터 대회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열림터 활동에 반영한다 |
| 팀 활동 목표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하고 체계적 일상지원으로 치유회복을 도모하고, 역량강화, 자립지원을 한다 2. 퇴소 후 지원을 통해 삶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상호지지로 연대한다 3. 활동가 역량강화로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진예방에 힘쓴다 4. 반성폭력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주의 씬터운동 연대를 강화한다 | |

목표1. 다양하고 체계적 일상지원으로 치유회복을 도모하고, 역량강화, 자립지원을 한다

1-1. 일상생활지원

- 배경/필요성 : 입퇴소가 잦은 열림터 특성상 각 생활인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법이 매우 다름. 입소 이후 생활인의 욕구와 현재 필요한 지원 내용을 사정하여 지원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또한 생활인 간의 지원 편차를 줄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여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야 함.
- 목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야 할 생활인들에게 특성에 따른 개별적 지원을 함으로써 치유회복 및 자립계획 도움이 되도록 한다.
- 계획:

| | |
|------|--|
| 입소의뢰 | 의뢰 단계에서부터 연계기관에 열림터의 생활규칙과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여 적절한 입소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함 |
|------|--|

| | |
|-----------------------|--|
| 입·퇴소 지원 | 입소 단계를 최소화하여 입소인의 편의를 도모함 퇴소 전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소 이후 가능한 지원 내용을 안내하여 열림터와 지속적인 교류할 수 있도록 함 |
| 생활지원 | 용돈, 교통비, 미용비, 의류구입비, 문화생활비, 체력단련비 등 지급 외식(명절, 퇴소환송회 등) 입소사실확인서 등 필요서류 발급 주민센터, 은행 등 기관 동행 가족회의 |
| 생활상담지원 | 열림터 생활 과정에서 비롯되는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적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생활인별 개인 상담 진행 |
| 심리치료지원 (성폭력피해자치료비) | 입소 후 종합심리검사 및 심리상담으로 열림터 적응과 치유회복을 도움 사례별 반기 1회 팀미팅 진행 |
| 법률지원 | 사례별 상황에 맞는 법률지원 |
| 의료지원 | 병원비, 약제비 지급/ 병의원 동행 등 상비약품 비치, 응급처치 등 |
| 학교·학습지원 | 사례별로 학교 전학 및 학교 생활 적응, 부족한 학습 지원 |
|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 사례별로 진로 및 자립계획을 구상하는데 노력 |
| 정서문화지원 | 생활인들의 문화생활비 신청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신청 방법 간소화 문화누리카드 신청으로 문화생활비 사용 범위 확장 |

• 기대효과

- 생활인들 개개인에 맞는 지원을 통해 열림터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심신회복에 도움이 됨.
-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개인의 역량강화를 도움.

1-2. 치료회복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① (성교육/자기방어훈련) 생활인들은 입소 전 장기적으로 피해에 노출되면서 위기상황 대처 능력 및 성에 대한 이해와 자기고민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음. ② (심신회복캠프) 공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공동의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열림터 적응을 돕는 계기가 필요함.
- 목표: 성교육, 자기방어훈련, 심신회복캠프를 통해 생활인의 치유회복 및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 방법 및 계획:
 - 성교육(호연/인권교육센터 등) : 교육 전, 후 회의로 각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생활인에게 맞는 성교육 제공
 - 글쓰기(은유/『글쓰기의 최전선』 작가) :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서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심신회복캠프: 생활인들이 여행계획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사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행에 대한 흥미 및 주체성을 높임.
 - 생활인들에게 프로그램 참가 후기 작성할 것을 독려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 의미 등을 스스로 정리하고 열림터 블로그를 통해 이를 외화함.

1-3. 생활인수다모음집 발간

- 배경/필요성: ① 열림터는 생활인들이 피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격려하는 공간임. ② 생활인들은 성폭력 피해 이외에도 가족·연애·자립형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열림터 생활을 통

해 공동으로 나누며 주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기에 이를 공적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음. ③ 생활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시설에 거주하는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통념 해체와도 연결되기에 외화가 필요함.

- 목표: 생활인수다모음집 발간을 통해 해당 시기 생활인들이 공동으로 당면한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여 외화한다.
- 방법 및 계획:
 - 세부 기획회의 후 주제 선정.
 - 열림터생활인수다회 개최.
 - 내용에 따라 공개범위 설정 및 편집 후 발간.
- 기대효과
 - 생활인들이 당면한 고민과 그 해결의 과정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누어 역량강화함.
 - 시설에 거주하는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통념 해체에 일조함.

1-4. 생활인 대상 성인권교육

- 배경/필요성: ① 생활인들이 폭력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열림터 공간에서 언어, 정서적, 신체적 폭력 발생을 예방하게 함. ②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주의 쉼터로서 열림터의 기능을 기대하는 생활인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③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가 발생한 맥락을 파악하여 향후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국이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성인권 교육을 통해 생활인들이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한다. 생활인간의 사생활 존중과 폭력 발생을 억제한다.
- 방법 및 계획 : 상반기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공간의 약속」을 열림터에 맞게 새로이 해석할 수 있도록 워크샵을 진행한다. 한 줄 한 줄 생활인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 열림터 공간에서 공통의 약속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하반기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역사와 최근의 운동 내용에 대한 강의를 통해 상담소 활동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성폭력 바로 알기 강의를 들은 후 토론과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 상반기일정

| 회기 | 주제 | 강사 |
|-----|-------------------|----|
| 1회기 | ‘이 공간의 약속’ 워크샵 1회 | 앓 |
| 2회기 | ‘이 공간의 약속’ 워크샵 2회 | 오매 |
| 3회기 | ‘이 공간의 약속’ 워크샵 3회 | 신아 |
| 4회기 | ‘이 공간의 약속’ 워크샵 4회 | 유량 |
| 5회기 | ‘이 공간의 약속’ 워크샵 5회 | 목련 |

- 하반기일정

| 회기 | 주제 | 강사 |
|-----|--------------------------------|-----|
| 1회기 | 상담소의 역사, 활동 | 지리산 |
| 2회기 |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성문화 등) | 감이 |
| 3회기 | 여성주의 인식론의 이해 | 파이 |
| 4회기 | 성폭력 탐구(개념 및 유형, 통념 등) | 은희 |
| 5회기 | 정리 및 평가 | 사자 |

- 기대효과

- 일상의 폭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열림터 안에서 폭력발생을 예방
- 생활인들이 상담소의 반성폭력운동, 열림터 운영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됨
- 성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함

1-5. 환경식생활안전교육

- 배경/필요성 : ① 공동생활을 하는 열림터의 청결하고 건강한 환경 유지를 위해 개인위생의 영향과 필요성을 알고 실천하여 자신과 생활인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② 열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과 여성들은 주로 불규칙적인 식사, 과식, 편식 등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결핍요소가 많은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는 영양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습관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자극이 부재하였음. ③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 내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 마련에 대한 생활인의 의지를 함양하고 건강한 식생활 및 안전한 생활공간 만든다.
- 방법 및 계획:
 - 환경·식생활교육: 격월 1회 가족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시행, 2~3개의 주제를 정하여 PPT 자료 및 OX퀴즈 생활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
 - 안전교육: 연간 2회(2, 8월) 보라매안전체험관 방문하여 재난체험(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 화재예방교육 : 격월 1회 반복 시행.
- 기대효과
 - 공동생활에 필요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음
 - 개인위생 및 식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실천하며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관리능력을 향상함
 -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 자신감을 키움

1-6. 생활인과 만드는 운영규칙

- 배경/필요성: ① 치유회복과 공동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규칙과 지원내용 규정에 생활인 당사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음. ② 생활인들이 수동적인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열림터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 개진 및 반영 과정을 가시화할 필요 있음.
- 목표: 생활인들이 자기 권리를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방법 및 계획:
 - 매주 가족회의를 직접 진행하면서 공동체의 규칙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가짐.
 - 반기별로 생활인 대상 열림터 운영평가를 진행하여 생활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규칙에 반영함. 반기 이전 퇴소한 경우 퇴소인터뷰를 활용함.
- 기대효과
 -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책임감을 함양하며 생활인들의 주체성과 권한을 강화함
 - 공동생활에 따르는 갈등이 최소화 됨

목표2. 퇴소 후 지원을 통해 삶을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상호지지로 연대한다

2-1. 퇴소자지원

- 배경/필요성 : 퇴소자 모임과 필요성은 동일하지만 퇴소 이후에도 바로 온전한 자립이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생활상담이나 법률지원 등 상시적인 지원이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퇴소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다.
- 방법 및 계획:
 - 퇴소지원금: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은 미성년 시기에 입소하여 1년 이상 생활, 성년 시기에 퇴소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1년 이상 생활한 퇴소자에게도 일정의 퇴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1인 100만원).
 - 자립물품지원: 퇴소 시 생활할 공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1인 최대 20만원)
 - 개인면담: 필요 시
 - 주거지원시설: 여성가족부/서울시에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공고 시 관내의 무상임대주택을 2호(지원 인원 4인)임대하여 시범 운영해 봄.
- 기대효과
 - 꾸준한 지원을 통해 퇴소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열림터와의 관계를 유지함

2-2. 또우리모임

- 배경/필요성: ① 열림터 생활인의 대다수는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로 퇴소/자립 시 원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움
②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대와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퇴소자들에게 제기되고 있음. ③ ②를 위해서는 열림터라는 물리적인 공간과 당시 함께 생활했던 활동가 및 생활인이 현재 열림터에 있는지가 중요한데 활동가 퇴사나 바쁜 일상 등으로 지속되기 어려웠음. ④ 상담소 작은말하기처럼 성폭력 피해생존자이자 열림터 퇴소자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상 및 고충, 피해경험 공유 등을 통해 퇴소자 간 지지와 연대 체계를 꾸릴 필요가 있음.
- 목표: 또우리모임이 자조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 및 계획:
 - 3월 1차 모임에서 또우리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친목뿐 아니라 또우리모임에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수렴함.
- 일정
 - : 또우리모임 안내 (2, 4, 6, 8, 10월 말)
 - : 또우리모임 실행 (3월, 5월, 7월, 9월, 11월 평가·계획 모임)
- 기대효과
 - 정기적인 열림터 퇴소자모임을 통해서 퇴소 이후 고립되지 않고 서로 지지와 연대가 가능해짐
 - 퇴사한 활동가나 현 활동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퇴소자들과 유대를 유지할 수 있음
 - 생활인들이 퇴소에 대해 느끼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감소할 수 있음

2-3. 퇴소자지원금 “또우리풀썩기금” 운영

- 배경/필요성: ① 한국 사회에서 혈연가정은 개인의 정서적·경제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② 열림터 생활인의 대다수는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이거나 원가정에 의한 2차 피해를 경험하기에 퇴소/자립 시 원가정에서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③ 새로운 삶의 준비를 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긴급한 상황일 때, 기대어 볼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존재는 삶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목표:

- 퇴소자지원기금을 통해 또우리들의 정서적·경제적 지지처를 형성하고 삶의 안정성을 높여 일상 회복에 기여함.
- 퇴소자지원기금의 마련 및 시행을 통해 퇴소자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초석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열림터 연간 후원금액의 약 10%인 총 500만원을 기금 예산으로 설정.
- 열림터 퇴소인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연간 10명을 대상으로 기금 집행. 1회 지원선정 시 다음 해 지원대상에서 제외. 최대 2회 지원선정 가능.
- 기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선정. 기금 신청서는 지원자의 빈곤함이나 긴급함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 활용 방안과 해당 경제적 자원이 나에게 갖는 의미를 위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
- 선정 이후, 사전 인터뷰를 1회 진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 이는 ① 기금이 또우리 본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휘발되어버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자, ② 또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열림터와 후원인들과 공유하는 장의 마련, ③ 내·외부적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인 지원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함임.
- 기금 집행 이후 결과 및 평가 인터뷰를 1회 진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
- 일정
 - : 또우리풀짝기금 홍보 및 모집 (~3월 말)
 - : 2020 또우리풀짝기금 지원대상 발표 (4월 초)
 - : 신청인 사전인터뷰 (4월~5월) → 기금 집행 (5월 말) → 영수증빙서류마감(9월) → 평가인터뷰(10월)
- 기대효과
 -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또우리들에게 퇴소자지원기금이 난관을 풀짝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되기를 기대함.
 - 퇴소 이후에 열림터가 또우리의 사회적 지지처의 역할을 하며, 또우리들에게 사회적 안전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구축함.
 - 퇴소자지원의 필요를 수집하고 선례를 만들어 퇴소자지원체계의 마중물 역할을 함.

목표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진예방에 힘쓴다

3-1.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 배경/필요성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피해로 인한 자해·자살 충동을 호소하거나 정신과 약물복용 중인 생활인이 다수 입소함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지원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
경계선장애가 있는 생존자의 입소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생활인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목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기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활인 지원의 최적화를 도모한다. / 특히 장애가 있는 생존자가 입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생활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수성을 유지한다.

• 방법 및 계획:

- 연 4회 이상 발달장애성폭력피해생존자이해/개인정보보호/자해자살 사례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시행하여 생활인 지원 전문성 강화함.
- 전문교육: 아래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1~3회 진행하며 주제에 따라 생활인 지원사례 피드백을 받아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원방법에 대한 촘촘한 이해를 도모
- 지원과정에서 생활인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함.

| 주제 | 강사 |
|--------------------|---------------------------|
| 발달장애성폭력피해생존자 이해 2회 |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정신과전문의(미정) |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 1회 | 진보넷 활동가 |
| 자해 예방교육 2회 | 미정 |

• 기대효과

-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활동가들의 대리외상을 줄이고 문제대처능력을 향상할 수 있음
- 최적의 생활인 지원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

3-2. 활동가 재충전 및 소진 예방

• 배경/필요성 :

- 직무규정에 의거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상근활동가는 업무담당 1년차, 3년차, 5년차가 된 시점에 상담 등 상담원으로서의 내적치유와 회복을 위한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목표: 내적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함.

• 방법 및 계획:

- 활동가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만 1년차 ,만 3년차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 예방 활동을 지원함.
- 만 1, 3년차 활동에 해당하는 3인의 활동가 각자 자체적으로 진행함.
- 주간, 월간으로 숙직 일정을 검토하여 연속된 숙직 일정으로 인한 활동가 소진을 예방함
- 휴가 사용 및 교육 연수, 출장 등을 서로 적극 격려하여 적절한 쉼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함

• 기대효과

- 상담등 여러 활동을 통해 상담원으로서의 내적 치유와 회복을 도모.
- 재충전과 소진예방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

3-3. 생활인 사례연구

• 배경/필요성 : 생활인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 방향과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함.

• 목표: 생활인의 자립을 돕고 다양한 주변자원과의 연계를 위해 생활인 중 선별된 사례에 대해 상근활동가 들과 사례연구를 진행.

• 방법 및 계획:

- 생활인 사례연구: 지원 방향 설정에 난항을 겪는 생활인 사례를 중심으로 지원의 공백 및 보완점을 발견하여 생활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처함.
- 생활인 사례연구를 통해 전문가 소견 및 상근활동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지원방향을 찾도록 함. 열림 터 지원의 경험 공유를 위해 상반기 여성주의 상담팀(6월, 종결사례연구), 하반기 열림터 1회로 진행(11월,

생활인사례연구)

- 기대효과
- 열림터 및 상담소 활동가와 사례연구를 통해 생활인에 대한 최적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가능한 주변 자원을 연계하여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함.

3-4. 친족·아동성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교육안 스터디

- 배경/필요성 : 친족·아동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활동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역량강화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상반기 이후 모든 열림터 활동가들이 친족·아동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관련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스터디하며 강의안을 개발한다
- 방법 및 계획:
 - 상반기 4회동안 기존 열림터 교육안을 스터디하며 기존 교육 내용을 파악함.
 - 하반기 4회 스터디를 진행하며 활동가 각자의 교육안을 개발하고 교육활동을 시작함.
- 기대효과
- 열림터 활동가들이 서로의 역량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조직의 성장을 도모함

목표4. 반성폭력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주의 쉼터운동 연대를 강화한다

4-1.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과 생활의 편의를 위한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배경/필요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미성년 생활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시협과 함께 회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성가족부에 제안하고, 개별 의원들에게 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으나 변화의 움직임이 없음.
필요성 : 보건복지부수년동안 전시협과 함께 하면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안발의 의원실에 제출했으나 해당 법안은 2018년에는 상정되지 못했고 2019년에도 불투명한 상황임.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제한 또한 주민등록발급제한과 관계없이 생존자의 주소지와 변경된 주민번호까지 드러나는 상황임. 퇴소자립지원금은 여성폭력피해생존자를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나뉘어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목표:
- 방법 및 계획:
 - 해당 의원실에서 법률개정 발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림터 사례뿐 아니라 전시협의 사례를 모아 개정건의서를 전달함. 법안발의가 가능한 국회의원과 연계를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쉼터 등과도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함.
 - 퇴소자립지원금의 차등지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하도록 전시협 대표단과 권익지원과 방문 및 의견서 제출
- 기대효과 : 친족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현 친권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한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불편사항을 관련 부처에 알려 개선방안을 찾게 하고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4-2. 홍보 및 후원관리

- 배경/필요성: ① 보호시설이 00개소로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성폭력 피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입소한 생활인 개인에 대한 지원과 치유회복으로 한정되어 일반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음 ② 가해자와 시급한 분리 및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 중 보호시설에 대해 잘 모르거나 편견, 두려움 때문에 입소율이 떨어짐 ③ 시설 특성상 위치 노출에 대한 우려로 홍보나 후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후원금 규모가 작고 신규 회원 배가 속도도 낮음.
- 목표: 여성주의 쉼터로서 열림터의 고민과 향후과제, 특성을 여러 채널을 통해 알린다.
- 방법 및 계획:
 - 블로그: ① 분기별 1회 이상 활동가들의 활동소감 및 현재 문제의식 등을 작성, ②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러 활동에 생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후기를 생활인의 동의를 구해 게시, ③ 퇴소생활인 인터뷰 내용을 반기 혹은 연간으로 1회 이상 게시, ④ 열림터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아카이브하며 홍보
 - 이메일 소식지(열림터 편지): 생활인들의 글이나 활동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구독율을 높임
 - 해피빈 공기부함: 정부 지원이 어려운 퇴소자 지원을 위해 사례 발굴하여 퇴소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원
 - 대외활동: 강의 및 연계기관 자문회의에서 열림터의 문제의식을 적극 공유함
- 기대효과 :
 - 1366이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연계기관에 열림터 특성과 기능을 상세히 알려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안정적인 후원회원 유치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퇴소자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4-3. 대외·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쉼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유관 단체들과 유사한 문제상황들을 인식하고 공유함으로써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목표: 대외적인 홍보가 어려운 열림터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관단체에 열림터를 알리고 열림터의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연대의 힘을 키워나간다.
- 방법 및 계획: 전국시설협의회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열림터의 의견을 드러내고 각 단체들의 다양한 운동과 연결되는 지점을 찾는다.

4-4. 운영위원회 운영

- 배경/필요성 : 열림터 활동가들의 자원만으로는 생활인 지원 및 열림터 운영의 묘수를 다각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움. 다양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영위원들과 적극 소통하여 생활인 지원이나 향후 열림터 활동에 대한 의견, 정보들이 열림터 운영에 반영할 필요 있음. 또한 열림터의 쉼터 운동 방향이 운영위원들을 통해 외부로 확산되고 다양한 의견이 열림터로 환류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가 필요함.
- 목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영위원 및 전 활동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열림터 운영의 묘수를 찾고 안팎으로 여성주의 쉼터 운동의 원동력을 찾는다.
- 방법 및 계획:
 - 사전회의 :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향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함.
 - 또우리모임에서 활동을 원하는 1인을 신규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열림터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봄.
 - 상, 하반기 각 1회씩 진행
- 기대효과

- 운영위원회의 방법을 다각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

4-5. 열림터 자료 정리, 전산화

- 배경/필요성 : ① 활동가의 잦은 드나듦으로 인해 생활인 관련 통계(총 입소인원, 나이, 가해자 관계, 피해 유형, 퇴소 이유 등)의 정확성이 떨어짐. ② 25주년 포럼을 통해 열림터가 기존의 보호 담론에서 벗어날 것을 선언하였고, 그와 연계하여 상담일지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생활인 특성과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다음 연구 질문을 모색해볼 필요 있음.
- 목표: 열림터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향후 연구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하고 생활인 관련 변화 양상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 방법 및 계획:
 - 흩어져 있는 자료를 모아 통일된 방식으로 분류
 - 자료 입력 방식의 통일, 입력항목의 선정을 위한 기획회의
 - 최근 3년간 생활인 일지 분석
- 기대효과 :
 - 목표를 토대로 열림터의 향후 연구 주제를 찾아보고 열림터 운영의 방향을 설정함

2020 부설 연구소 올림 활동 계획

| 전체 활동 슬로건 | |
|--|--|
|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네트워크와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발간, 단행본 발간 사업을 통해 상담소/연구소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연대의 고리를 강화한다 -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가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성장하고, 팀별 활동의 역량과 이슈를 확장한다 |
| 세계 여성들과 호흡하고 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 Act Locall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공동체 내 성폭력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파악을 통해 연구활동의 시야를 확장한다 - 선행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해당 이슈와 쟁점에 대한 역사적 맥락들을 이해하고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 팀 활동 목표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성폭력 이론과 쟁점을 생산한다 2. 반성폭력운동의 자료를 축적하고 연대한다 3. 상담소/연구소의 활동역량을 강화한다 | |

목표1. 반성폭력 이론과 쟁점을 생산한다

1-1.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4호 발간

- 배경/필요성 :
 - 국내에서 반성폭력 이슈와 쟁점, 논의를 담은 정기적 간행물이 부족한 상황으로, 반성폭력 이슈들을 생산하고 담론화하기 위하여 일지분석, 연구동향, 주제별 리뷰 및 이론적 고민이 담긴 정기적인 이슈리포트가 필요함
- 목표 : 반성폭력운동과 이론에서의 쟁점을 발굴하고 대중적으로 외화한다.
- 방법 및 계획:
 - 핵심 주제 : 조직/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과 의미 분석(2017~2019)
 - 조직/공동체 내 성폭력 처리 과정 및 사건 해결의 한계와 의의 등을 미투 전후의 지형과 연결하여 분석
 - 조직/공동체 내 성고충 상담원 시스템,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조직내 성희롱 관련 판결 분석, 대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쟁점 등 살펴보기
 - 피해자 인터뷰, 판결문, 정부, 국회, 대학 보고서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진행

- 예상 목차
 - : 쟁점과 입장 - 직장내 성희롱/대학내 성폭력/조직내 성폭력 피해 이후의 경험 관련 글
 - : 일지분석 - 2017~2019년 조직/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상담일지 분석
 - : 동향분석 - 조직/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연구들
 - : 기고 - 친족성폭력에서 사건 해결의 의미 관련 글, 기타 원고들은 추후 논의
- 추진계획

| 일정 | 주요내용 | 세부추진내용 |
|------|--------|-----------------------|
| 3월 | 기획 | 전체 컨셉 및 원고 섭외 진행 |
| 4~6월 | 연구 진행 | 상담일지 분석, 연구동향 등 연구 진행 |
| 7~8월 | 교정, 교열 | 내/외부 원고 취합, 교정, 교열 |
| 9월 | 인쇄, 배포 | 9월 경 |

- 기대효과 :
 - 반성폭력운동에서의 고민과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중 및 학계에 공유함

1-2. 반성폭력 연구동향 분석

- 배경/필요성 :
 - 반성폭력의 이슈와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2020년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14호와 연결하여 조직/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을 바탕으로 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리뷰함으로써, 반성폭력 연구활동의 관점을 넓힐 필요가 있음
- 목표 : 조직/공동체 내 성폭력 관련 연구 동향 파악을 통해 연구활동의 시야를 확장한다.
- 방법 및 계획:
 - 국내/외 연구 리뷰를 통해 조직/공동체 내 성폭력 관련 핵심 키워드 산출
 - 산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2019년까지의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 예산안 : 연구소 도서관입비 및 인쇄비 활용
- 기대효과:
 - 연구 결과를 반성폭력 14호로 외화하여 반성폭력 연구의 저변을 확장함
 - 상담팀의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한 심화교육 기획과 내용 구성에 참고될 수 있음

1-3. 단행본 발간사업

- 배경/필요성 :
 - 2006년에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가 발간된 이후, 국내외적으로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어 왔음. 섹슈얼리티 및 성폭력과 관련된 최근의 다양한 이슈와 논쟁을 정리하고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함
 - 상담소 30주년에 맞춰 발간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상담소 운동의 역사와 섹슈얼리티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운동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 섹슈얼리티 및 성폭력 관련 이슈들에 관한 공론장을 만들어 논의를 확장한다.
- 방법 및 계획
 - 상반기에 주제발굴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구체화
 - 활동가 및 외부 저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주제와 논점에 대한 방향을 기획

- 차별금지법, 낙태죄, 피해여성 심터운동, 대학내 여성운동, 래디컬 페미니즘 운동 등 과거 섹슈얼리티 강의 단행본 주제들과 연결 지점을 고민하면서 최근의 새로운 이슈들을 도출
- 2021년 상담소 30주년에 맞춰 출간 및 북토크 등의 행사 기획
- 추진계획

| 일정 | 주요내용 | 세부추진내용 |
|-----------|---------|--|
| 3월~8월 | 세미나 진행 | - 주제 발굴을 위한 세미나 및 기획회의 진행 6회 - 출판사 컨택 |
| 9월~12월 | 세부기획 확정 | - 주제 확정, 저자섭외 등 기획회의 3회 - 출판사 계약 완료 |
| 2021년 상반기 | 발간과 홍보 | - 교정, 교열 및 발간 - 북토크 등 홍보 |

- 기대효과 :
- 섹슈얼리티 및 젠더폭력 이론에 관한 이슈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목표2. 반성폭력운동의 자료를 축적하고 연대한다

2-1. 상담일지 분석을 통한 현장기반 반성폭력운동 자료 축적

- 배경/필요성 :
 - 상담일지는 성폭력피해자의 경험과 요구가 직접적으로 담겨있는 자료로서 반성폭력 운동과 연구에 필수적인 1차 자료임. 연구소에서 기존에 진행해왔던 것과 같이 연도별, 주제별 일지분석을 진행하여 현장의 언어가 대중의 인식과 법, 정책적 변화에 반영되도록 담론화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현장에 기반한 반성폭력 이론을 공유한다.
- 방법 및 계획:
 - 2017~2019년 조직/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 해결 관련 일지 분석
 - 양적, 질적 방식의 일지분석 진행
 - 필요 시 피해자 인터뷰 등 진행
- 기대효과 :
 - 반성폭력 이슈리포트를 비롯하여 각종 포럼 및 연구, 강의, 인터뷰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상담소의 상담운동의 과제와 이슈를 발굴하여 운동의 활로를 모색한다.

2-2. 여성주의 연구활동 연대

- 배경/필요성 :
 - 연구소는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슈의 쟁점을 발굴하고, 기존의 이슈들을 시대적 맥락에 따라 재해석해야 함
 - 상담소/연구소 활동의 결과를 발제, 학회지 게재, 강의, 인터뷰, 학회 참여 등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알려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대활동을 통해 국내/외 반성폭력운동과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동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음

- 목표 : 상담소/연구소에 축적된 연구와 활동들을 알리고 연대의 고리를 강화한다.
- 방법 및 계획:
 - 학회, 토론회, 이슈 포럼, 자문, 강의, 해외연구자/활동가 교류, 연구활동 등에 연대한다.
 -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자료를 축적한다.
- 기대효과 :
 - 반성폭력운동 현장의 과제와 경험들을 언어화하여, 상담소의 연구/활동을 알린다.
 - 국내/외의 최신 연구와 운동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활동의 시야를 넓힌다.

목표3. 상담소/연구소의 활동역량 강화한다

3-1. 반성폭력 연구활동가 네트워크 포럼 : ‘책을 뚫고 나온 페미니스트’

- 배경/필요성
 - 여성학계에서 젠더폭력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자생적으로 생산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소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론과 현장의 순환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신진연구자들을 모으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생산할 필요가 있음
 - 연구활동가 및 젠더폭력에 관심이 있는 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천학문으로서 여성학과 여성운동의 미래 모색’의 내용에 관한 포럼을 열고자 함
 - 이론과 현장의 공통점 및 차이점, 서로 어떤 전략 속에서 함께 하고 있으며 함께 해야하는지, 아카데미 페미니즘에 대한 성찰, 현장연구의 중요성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목표 :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상담소/연구소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새로운 주체들을 발굴한다.
- 방법 및 계획:
 - * 포럼 프로그램
 - 2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 이안젤라홀에서 진행

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김보화

15:00~15:10 여는 말 및 행사안내

<1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학의 만남, 그리고 현재

| | | |
|-------------|---------------------------------------|----------------------------|
| 15:10~15:20 | 여성학과 여성운동, “마르지 않는 샘물”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 15:20~15:30 | 현장기반 연구의 현황과 의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 장주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연구원 |

-연구활동가 발표 세션1

| | | |
|-------------|-------------------------|------------------------|
| 15:30~15:45 | 그루밍 성폭력 사건 관련 미디어 담론 연구 | 김민주, 성공회대 실천여성학 12기 석사 |
| 15:45~16:00 | 가족주의를 통해 부정되는 성폭력: ‘가해자 | 남승현,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과 |

| | | |
|----------------------|--|----------------------|
| | 아내' 발화의 효과를 중심으로 | 정 |
| 16:00~16:15 | 젠더 폭력의 (탈)피해자화: 국가와 페미니즘 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주현, 버클리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
| 16:15~16:30 쉬는 시간 | | |
| - 연구활동가 발표 세션2 | | |
| 16:30~16:45 | HPV 백신의 젠더화와 십대 여성의 섹슈얼리티 | 김보영,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
| 16:45~17:00 | 2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의 '페미니즘'과 그 의미: 페미니즘'들' 속에서 '나의 페미니즘' 만들기 | 오혜진,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석사 |
| 17:00~17:10 전체 질의응답 | | |
| <2부> | | |
| 17:10~17:50 주제별 모듬토론 | | |
| 17:50~18:00 공유 및 마무리 | | |

• 기대효과 :

- 상담소와 연구소 사업 등에 상시적으로 연대하여 새로운 주체들을 발굴하고 서로의 성장을 도모함
- 상담소/연구소 활동의 저변을 확장하고 연구소의 미래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3-2. KSVRC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 모니터링하는 것뿐 아니라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넓혀 외부활동 역량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상담소 각 팀별 전문성 및 실무적 역량을 함께 공유할 필요가 필요함
- 외부 강사 교육을 통해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넓은 이해를 도모해야 함
- 목표 : 활동가 교육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성장하고, 팀별 활동의 역량과 이슈를 확장한다.

• 방법 및 계획:

- 시기 : 3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총 9회
- 6월 경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우리동네 젠더스쿨 지원하기
- 모니터링 시스템 보완 : 모니터링 하기 2회 의무(사전/사후 포함), 모니터링 받기 1회 의무, 강의 기회 없을 경우 활동가 시강으로 대체, 피드백 받은 후 보고서 쓰고 나누기
- 달력 일정표 작성은 상담소 구글 캘린더 연계
- 강의 및 토론 : 정책/이슈 및 팀별 활동 내용과 고민들을 바탕으로 팀별로 준비
- 약 2~3회경 외부강사 섭외
- 월별추진계획(가안)

| 일정 | 담당팀 | 주요내용 | 세부추진내용 |
|----|--------|-----------------|--|
| 3월 | 성문화운동팀 | 연대 활동 및 이슈 토론 | - 차별금지법/모낙페 등 연대활동 내용 공유 및 총선 관련 이슈 논의, 토론 |
| 4월 | 사무국 | 2020 KSVRC 재정분석 | - 2020년 상담소 재정 공유 및 분석 - 2020년 재정 확보 방안 |
| 5월 | 연구소 | 여성학 기본 교육 | - 여성과 노동/가족 강의 - 이슈 발굴을 위한 토론 |

| | | | |
|-----|-------------|--------------------------------------|--|
| 6월 | 여성주의 상담팀 | 법적 지원 절차 교육(가) | - 피해자 법적 지원 과정 및 절차 교육 - 법적 지원 과정 관련 이슈 논의 - 기타 공대위 활동 소개 및 논의 |
| 7월 | 사무국 | 조직문화 점검교육 | - 조직내 소통 및 평등문화 교육 |
| 8월 | 열림터 | 여성주의 쉼터 운동의 현황과 과제 | - 2019년 포럼 내용 발표 - 해외 연수 자료 등 쉼터운동 이슈 공유 - 이슈 발굴을 위한 토론 |
| 9월 | 연구소 | 말 잘하기 강습 | - 말 잘하기 위한 바른 발음, 발성법, 표현 법 익히기 (성우 섭외 예정) |
| 10월 | 연구소 | 1.인권과 페미니즘 2.장애인/이주여성/디지털성폭력 등 | - 인권과 페미니즘 및 특정 성폭력 영역에 대한 심화 탐구와 토론 (외부 강사 섭외) |
| 11월 | 연구소 | 함께 나누기 | - 모니터링 피드백 - 성명서/의견서/논평 쓰기 및 발표 - 활동 평가 |

• 기대효과 :

- 반성폭력운동 활동가로서 자신감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기반을 만든다.
-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공유하고, 개인 및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3-3. KSVRC ‘보라! 페미니즘 책방’ 운영 및 발간자료 정리

• 배경/필요성 :

- 각 층의 서고 공간이 부족하여, 신규 서적, 자료집 등의 보관 마련을 위한 빠른 재정비가 필요함
- 개별활동가들이 참여한 각종 발제, 토론 등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온/오프라인에서의 보관과 공유가 활발하지 않았음

• 목표 : 선행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해당 이슈와 쟁점에 대한 역사적 맥락들을 이해하고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 방법 및 계획:

- 각층의 자료보관소 확장공사 진행 및 공간 정돈
- 내부 발간 자료의 데이터서버 및 홈페이지 공유
- 구입하기 어려운 책이나 원서 등의 경우 제본하여 보관
- 활동가들과 구입희망 도서 및 참석한 포럼 자료 등을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공유

• 기대효과 :

- 각층 자료보관소 정돈을 통해 활동가들이 더욱 간편하게 신규 서적 및 자료집 등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내부 자료의 데이터서버 아카이빙으로 활동가들의 자료 접근성을 높여 상담소의 활동과 입장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
- 홈페이지 공유를 통해 반성폭력 이슈와 상담소의 활동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음
- 상담소의 활동과 역사를 보관, 기록,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

3-4. 연구소 자문위원 위촉 준비

• 배경/필요성 :

- 연구소는 그간 해당시기 진행 사업들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를 진행하였으나 연구소에서 위촉한 자문위원이 부재함
- 2017년 통합자문위원회에서 법/정책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한 이후 연구소 운영과 비전, 향후 연구과제 도출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하였음
- 상담소 30주년 전에 연구소 자문위원 풀을 재정비할 필요 있음
 - 목표: 자문위원 리스트를 재정비하여, 연구소의 인적 자원을 확대한다.
 - 방법 및 계획:
 - 연구소 자문위원의 역할과 위상 정립
 - 다른 팀 자문위원에서 모셔올 분 및 새로운 자문위원 모색
 - 올해 안에 정리하여 30주년부터 멤버십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
 - 기대효과 :
 - 자문위원 리스트 재정비를 통해 전문가 풀을 확장하여 연구소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2020 사무국 활동 계획

| 전체 활동 슬로건 | |
|--|--|
| 우리의 운동이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부연대활동에서 소식, 후기, 내용 등을 상담소 계정에 공유하는 활동을 팀에서 함께한다 - 상담소 사람들, 조직문화, 사건과 사안에 대한 나누고픈 이야기를 주1회 짧게 공유하는 ‘활동스토리’ 를 게재한다 (ex) 두 활동가의 ‘환갑휴가’ : 규정 안내, 소감, 활동 지속성 등)) |
| 세계 여성들과 호흡하고 Think Globally 한국의 맥락에서 운동하겠습니다 Act Locall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 작성 및 발표에서 ‘적용해 볼 점’ 코너를 신설하여 연대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 국제교류협력에서 상담소 및 한국에서의 활동을 발표, 공유 (공식, 비공식 프로그램에 제안, 마련)한다 - 국제교류협력 비용 상향 현실화한다 (1인 200만원) |
| 팀 활동 목표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를 향한 진전과 연대 2. 상담소의 운동을 더 보이게, 더 지속되게 3. 더 많은 주체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 4. 평등한 문화와 공간 만들기, 좋은 삶 살아가기 | |

목표1. 성폭력 없는 성평등 사회를 향한 진전과 연대

1-1. 성폭력 판단기준 ‘ 폭행과 협박 ’ 아닌 ‘동의여부’ 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활동

- 배경/필요성 :
 - 2019년 전국 209개 여성인권단체들과 <‘강간죄’ 개정 연대회의>를 결성하여 법개정의 필요성을 다양한 형태로(기자회견 및 토론회, 의원실 방문 설명, 정부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거버넌스 활동,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 등) 활동 해왔음. 본 상담소가 연대회의의 사무국을 맡아 진행하고 있음.
 - 연대회의의 내에 법학자, 교수,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조직하여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을 제안함. 현재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실에서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음.
 - 법개정을 위한 국회 압박활동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임.
 - 법개정 활동과 함께 #미투운동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결국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 문제의 근원을 밝히고 성폭력의 의미구성을 바로 세워야 함. 이를

위해 “동의”의 개념,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넓고 깊게 펼쳐갈 필요가 있음.

• 목표:

- (1) 현재 발의된 ‘강간죄’ 구성요건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한 홍보 및 국회 압박활동
- (2) ‘동의’의 개념과 판단기준 관련 논의 장 마련
 - 형법학자, 여성학자 등과 ‘동의’ 개념 논의를 진행하는 TF 구성하여 연구 및 토론회 개최
 - 동의여부로 법제화된 해외의 사례 비교·분석
 -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점에 대한 반론
- (3) 총선대응 전략
- (4) 포괄적인 형법개정안 연구(장기 계획)

1-2.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배경/필요성 : 2018년부터 시작된 미투시민행동의 활동 마무리 작업 및 이후 총선 시기 한국사회 변화 과제 도출 및 연결 필요
- 목표 : 미투운동에서 도출된 과제를 총선시기 과제 제안 및 실천 세력화로 연결되게 함
- 활동내용
 - 미투시민행동 2020년 마무리 활동 관련 전체 대표자 회의 개최 (12월 및 이후)
 - 2월 22일로 예정된 “미투 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가제)” 토론회 진행 사무국 활동
 - 이후 미투시민행동 아카이빙 TF 구성 및 실무 이월
- 예산
 - 공동 예산 운영
 - 분담금 추가 200,000만원

1-3. 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배경/필요성
 - : 사회적 자원의 연결과 연대가 필요한 사건에서 힘을 모으고, 사회적 의미와 변화 형성 필요
- 목표 :
 - :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구호의 실현
 - : 위력에 의한 피감독자 사건, 비정형화된 조직 내 성폭력 등에서 정책 대안 및 사회적 의미 도출

| | | |
|--------------------------------|----------|------------------------------|
|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피해자지원 단체 | -피해자 지원 -백서 발간 및 후속 정리 활동 |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책위 | 사무국 | (* 상담팀 계획 참조) |
|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대위 | 사무국 | - 백서 등 후속 정리 활동 |
|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성폭력사건 대책위 | 사무국 | - 민사사건 지원 및 백서 등 후속 정리 활동 |
| 조두순사건 | 사무국 | - 2차 피해 등 후속 지원활동 |
| 밀양집단성폭력사건 | 피해자 지원단체 | - 후속 지원활동 |

1-4. 반성폭력, 성평등 정책 생산 활동

- 배경/필요성

: 성폭력 양형기준, 판단기준, 공소시효 문제, 피해자 지원 정책 등에서 미비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필요

: 피해자 비난, 가해자 중심적 논리의 확산 등 백래시 국면에 대한 전략 논의 및 면밀한 대응 필요

- 목표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대응이 필요한 의제를 선정하고, 해당 의제의 사회적 개선을 위한 방식에 따른 유동적인 활동 수립 및 진행

- 활동내용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 등 다른 조직된 활동이 미비한 사안에 대한 활동 계획 및 활동 지원, 견인
-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학계, 운동계, 정책, 법 관련자들을 유입하여 토론, 발제, 정책 제안, 국정 감사 등으로 해당 과제 활동 진행

1-5. 성평등 / 반성폭력 상시 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 공동연대활동을 통해 한국사회 2020년 필요한 성평등 과제, 전략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활동 전개

: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들의 활동 목표 및 운영 과제를 함께 점검하여, 위기를 줄이고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 목표 : 여성운동/인권운동/성폭력상담소 운동에서 성평등한 방향과 활동을 위한 논의, 연대 높이기

- 진행내용 :

| 구분 | 활동내용 |
|-------------|---|
| 한국여성단체연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 연 1회(1월) / 총회준비위원회(3회) - 이사회(연 4회) : 이미경 -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연 4회) : 오매 - 정책수련회(연1회) 참여 및 필요 시 TF, 대책위원회, 논의, 기자회견 등 |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 연 1회(1월) - 서울인권역회의 : 연 4회 / 정책대응팀회의 및 이슈대응: 필요시 -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 후원, 기부에 의한 감경 중단 대응 -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 걸림돌 추천 및 심사 |
| 인권운동더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적 반성폭력 여성운동과, 여성주의적 인권운동의 외연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

- 논의사항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과제들 : 대표단 변경 이후 안정화, 디딤돌 걸림돌 시민감시단 사업의 15주년 이후 아카이빙, 심사단 차기 활동계획 등 향후 비전 수립, 전국성폭력상담소의 운영 및 통계 등 실력의 제고 및 자체 점검을 향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역할

1-6. 반성폭력 성평등 국제연대 협력 활동

- 목표 :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각국의 성평등/반성폭력 정책과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의 폭을 넓히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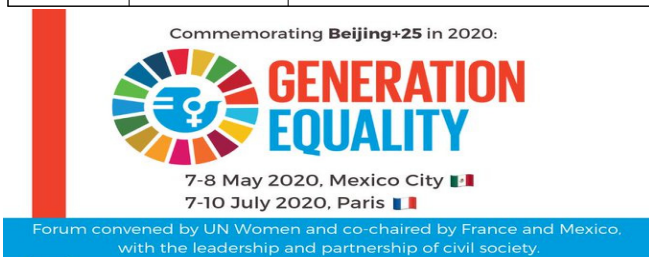
- 배경/필요성 : 2020년은 베이징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BPfA) 도입

25주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도입 20주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도입 5주년 및 UN WOMEN 설립 10주년의 해임. 또한 국제여성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도입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함. 이에 따라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베이징행동강령의 이행성과, 한계와 과리, 향후 과제들을 지역별(local), 국가별(national), 대륙별(regional), 글로벌(global) 차원에서 다양한 글로벌 여성인권메커니즘과 연계하여 점검하고, 평등과 정의, 평화의 가치를 실현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연대의 장이 2020년까지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임. 따라서 다양한 국제교류의 기회가 열려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계획 및 진행내용

- 국제교류협력 2020년 해당 활동가를 중심으로 : 백목련, 김신아 + 김혜정
- 국제연대를 종류별 분화하여 활동가들이 자기 전망과 연결하여 전문적 활동을 쌓아갈 수 있도록 배분

| 분류 | 시기/장소 | 내용 |
|-------------------|-------------------|---|
| 국제회의 | 3/9~20 뉴욕 UN본부 | UN 여성지위위원회 64차 회의 (CSW) 1946년에 창립한 CSW는 성평등과 여성 임파워먼트를 위한 유엔 경제 사회이사회 산하 정부 간 기구로, 국제적인 정책협의 및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약속 및 그 이행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는 역할. |
| | 5/7~8 멕시코 | Generation Equality Forum(UN WOMEN 주최, 프랑스와 멕시코 정부가 공동의장,글로벌시민사회 협력) 다양한 세대와 영역, 의제가 교차하는 글로벌 논의의 장으로써, 페미니스트 운동의 연대와 영 페미니스트들의 리더십에 주요 초점을 맞춰 전개될 예정 |
| | 7/7~10 파리 | Generation Equality Forum(UN WOMEN 주최, 프랑스와 멕시코 정부가 공동의장,글로벌시민사회 협력) 다양한 세대와 영역, 의제가 교차하는 글로벌 논의의 장으로써, 페미니스트 운동의 연대와 영 페미니스트들의 리더십에 주요 초점을 맞춰 전개될 예정 |
| 국제협약 | | |
| 연구/ 해외학회 발표 | 3/20-22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nnual Meeting(AAS Boston) *발표 |
| 내방/교류 | | 수시 |
| 자원활동 | | |
| 외국인 교육 | 4/13 | 휴먼아시아, 동아시아 인권활동가 워크숍(EAST ASIA YOUNG ACTIVISTS NETWORKING PROGRAM) |
| | 수시 | KOICA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공무원 교육 |



- 기대효과 : 법제도 개선의 사례, 시행착오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의 동력, 문화, 아이디어

어를 나눔으로써 길게 활동할 수 있는 시야를 활동가들이 확보.

1-6. 반성폭력 정책 거버넌스

- 배경/필요성 :
 -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의 자문위원 형태로 NGO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고, 우리 상담소에서도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하여 성평등 및 젠더폭력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제언활동을 해오고 있음
 -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징적 참여’가 아니라 실제적인 민간위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위원회 활동의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NGO의 철학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 목표: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권적, 성평등적인 정책 마련 및 실행을 견인
 - 예산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에 배분하고 적용
 - 정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위기에 대한 포착 및 이를 여성운동 내에서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대응
- 방법 및 계획:

| | |
|---|--|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2019.9~2021.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의 행정 전반에 관한 자문 역할 : 사법농단 이후 개혁의지로 마련된 자문기구(원래 사법행정위원회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안되어서 임시적으로 자문회의 형식으로 출범).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6인, 민간인 4인으로 총 10인의 위원으로 구성. - 연4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성평등 의제를 분과위원회(현재 재정·시설분과, 재판제도분과, 사법정책분과, 기타분과위)로 제안하여 성평등 정책마련 및 실행을 견인하고자 함 - 1/2(3차회의), 3/12(4차 회의 예정) |
|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2018. 9~2020.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수사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정책제안을 하는 위원회로 법학자, 변호사, NGO 활동가, 경찰청차장 및 수사관련 국장 등 총 20인으로 구성. -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한 밀도있는 정책리뷰 및 모니터링, 제언활동 - 성평등 전반에 대한 정책제언 및 성폭력 등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 수사에서의 피해자 관점 존중과 2차 피해 없는 수사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기획위원회 (2016. 12~2020. 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 정기적인 회의 운영이 아니라, 연 2회만 개최되는 자문회의여서 자칫 상징성만 갖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제대로 된 문제파악 및 제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연 2회 자문회의 |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 (2019. 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활동의 안정화 및 확산 지원 - 새로운 페미니스트 그룹과 기존 단체 활동 지원, 기획과 예산의 배분에서의 의견 개진 |

- 기대효과 :
 - 거버넌스 과정에 NGO의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한 정책 제언을 통해 정부 정책이 성평등 및 인권존중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

목표2. 상담소의 운동을 더 보이게, 들리게, 지속되게

2-1. 성폭력 재판, 양형기준을 바꾸자! 성폭력 가해자 감경후원 고발 액션

• 배경/필요성 : 2017년 가해자 감경후원 고발액션 이후에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목적으로 기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감형 목적으로 기부하는 사례만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2019년 한 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3건이 적발되었고, 그 외에도 심증은 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례까지 하면 수십 건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액이어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기부하라'는 팁을 보고 정기후원을 신청했다가 재판 이후 해지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감형 목적의 후원은 단순히 가해자들의 전략으로서만 이용되지 않는다. 성범죄 가해자 변호사 시장에서 유리한 재판의 고지로 이용된다. 단순히 감형 목적의 후원만이 유효한 전력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가해자 카페(성전카페)에는 최근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실제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반성문 모음집 380p 분량을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가 하면, 불법촬영으로 인한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범죄에서 반드시 시도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 회사와 연결하여주기도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 은폐 및 사건 축소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반성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재판 과정은 누구보다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가해자를 출발선에 서게 하는 과정조차 어렵다. 가해자 변호사 시장이 가해자의 '억울함'에 적극 동조하고, 경찰·검찰·재판부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이제는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을 바꿔야 한다. 가해자 사정 참작해주는 양형기준 대신, 피해자 시점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 목표 : 성폭력 관련 재판 양형기준 현황 파악 및 분석, 피해자 중심적 양형기준으로의 이행

• 담당 : 닷벌

• 방법 및 계획:

- 2019년 한 해 동안 성폭력상담소에 집계된 감형 목적 후원 사례 수집
: 2020년 전성협 총회에 사례 수집 제안
 - 인턴, 로스쿨 실무수습 인원 참여하여 (연간 10명) 2019년 하급심(1, 2심) 판결문의 감경인자 집중분석
: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이용등촬영, 아청법 등 성폭력 관련 재판 전체 설정
 - 성폭력 가해자 커뮤니티, 성범죄 가해자 전문변호로펌, 책 등 자료 검색
 - 양형기준 판단 요인에 대한 언론 보도 기획
 - 감형 목적 후원이 양형기준 판단 내부로 들어가는 현황 짚는 토론회 개최
: 타 기관과 공동주최하여 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토론회 참석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문 발송
- 기대효과 : 성폭력 재판 시 후원을 감경 요인에서 제외

2-2.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 돌아보기, 나아가기

• 배경/필요성 :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펼쳐온 반성폭력운동의 색깔, 결, 지향, 정치성 등에 대하여 공유하고 정리하고, 적용하고 논의의 밑바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여성폭력 사안에 대한 시각 등이 재현될 사회적 환경에서 상담소라는 거점의 위치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역할 가능성

및 구체적인 실천을 논의할 필요

• 목표 :

-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30주년을 맞아 상담소의 내부 돌아보기 및 외부에서의 위상 및 역할 점검
- 2021년 30주년 해에 진행할 외화 사업의 내용을 마련하고 내부 논의 진행

• 활동계획 :

❶ <활동하는 사람들> 상담소 기록정리 및 사무-스마트워크 (2-5월)

○ 상담소 기록정리

- 1) 이사, 감사, 상근활동가, 자원활동가, 자문위원 등 : 인력 관련 기록 정리
 - 2) 연혁정리 - 폴버전 제작 홈페이지
 - 3) 발간자료 정리 및 PDF 공유 - 알라딘 이북
- 상담소 스마트워크 진입 (참여 활동가 + 전문가 자문)
- 1) 공동일정표 : 개개인 구글아이디 연동
 - 2) 휴가신청 및 관리 (별도 캘린더)
 - 3) 상근활동가 회의 구글문서화
 - 4) 사진 및 영상 구글 포토

>> <활동하는 사람들> 분야 30주년 생산물 기획안

❷ <상담소에 참여하기> 상담소 홍보 계획, 재정분석 및 후원의 밤 (5-9월)

○ 상담소 홍보

- 브로셔 재제작 문구 및 디자인 논의, 홈페이지 문구 변경 논의
- 자문위원, 이사, 전문위원용 상담소 OT 자료 제작

○ 상담소 재정분석

- 재정분석 전문회의 : 선민, 회계감사, 회계사 자문 1회 (활동가교육)
- 회원분석 : 다양한 각도의 회원분석 1회

○ 상담소 모금행사 기획

- 모금 TF와 앞서 진행 논의

>> <상담소에 참여하기> 분야 30주년 생산물 기획안

❸ <상담소의 비전> 상담소 비전 논의 (3-12월)

○ 비전 설정 및 선언

- 비전 설정하는 도구 관련된 스터디 및 자문 : 책자 1개 스터디
- 상담소 내부 회의 : 상담소의 향후 활동은 어떠해야 할까 관련 <상담소의 질문> 선정하기 회의
- 외부 위원 자문 토론 1회 : 전성협, 여연, 인권운동더하기
- 자문위원 및 이사회 토론 : 상담소의 질문 내부 전체 토론
- 향후 해나갈 운동에 대한 원칙, 지향, 가치 등 구체적인 언어로 도출 : 비전선언문 초안 및 향후 계획

○ 중장기 활동계획 논의

- 5년 활동계획 : 팀별, 부설기관 비전 논의
- 향후 사업분야 관련 재투자 논의

>> <상담소의 비전> 분야 30주년 생산물 기획안

2-3. 상시 모금 및 특별 모금 사업(일시후원)

- 배경/필요성 : 제도화 과정에서 NGO로서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의 안정성 확보하여야 함.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외부 기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불필요한 서류 업무 등에 인력을 소모하게 하여 고유사업에 더 집중하기 위해 안정적인 사업비 마련이 필요함.
- 목표 : 상담소 활동, 사업과 참여-모금을 연결하고, 후원의 필요성과 효과를 공유하여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 방법 및 계획

<상시모금>

- 기업후원 미팅 및 상세 진행
- 텀블벅 등 온라인 모금 제안 검토 및 미팅, 진행 및 후속작업
- 팬클럽 등 소규모 시민 그룹 후원 - 검토 및 리뷰드, 후속 작업

<특별모금 - 후원의밤>

- TF 수립(3월 초; 순수익 3,500만원)
- 계획 실행(3~9월)
- 후원의 밤(9/4 금요일 저녁 예정)
- 기대효과 :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활동기반 마련

2-4. 후원회원 확대, 예우(정기후원)

- 배경/필요성
- : 회원예우에 공을 들일수록, 후원회원과의 정기적으로 소통할수록 후원회원이 느끼는 효능감이 커진다. 반성폭력 운동의 영역으로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결과 소통이 필요하다.
- 목표:
- 정확한 절차 진행을 통해 후원회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 후원회원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다양한 방식의 후원을 유도한다.
- 담당: 달별
- 방법 및 계획:
- 1) 신규회원 관리
- 스마트레이저 확인 및 개별 전화 소통
- 신규회원 가입 감사 굿즈 발송 (나눔터 최신호, 상담소 굿즈 1개 이상, 가입감사편지)
- 특별후원회원 스토리 SNS 게시
- 기대효과 : 상담소 신규회원 및 인지도 증가

2) 기존회원 관리

- 목표: 후원중단율을 낮추고 반성폭력 운동의 지지자 확대
- 방법 및 계획:
- 회원정보 수정 매뉴얼 홍보
-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등에 후원 안내
- 미납 알림 및 장기미납회원 관리
- 총회 정회원 안내 및 소통

- 소모임 홍보 및 참여 독려
- 기대효과 : 상담소와의 거리감을 허물고 상담소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회원 증가

3) 가해자대응

- 목표: 감형 목적 후원자를 걸러내고 기록하여 데이터를 축적한다.
- 방법 및 계획:
 - 모든 회원가입자 전화통화 및 후원동기 확인
 - 가해자 후원 적발 시 후원중단 및 반환 절차 진행
 - 대응 과정 기록 및 가해자 전략 탐색

4) 상담소 생일 축하

- 목표: 상담소 역사를 알리고 후원회원과 유기적 관계 형성
- 방법 및 계획:
 - 생일 떡 나눔
 - 상담소 29주년 생일맞이 문자후원 이벤트 개최
 - 기대효과 : 후원회원과의 만남 및 상담소 SNS 활성화

5) 문자후원

- 배경/필요성: 전통적 후원방식인 정기후원에 부담을 느끼는 후원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일회성으로, 여윌 돈이 생겼을 때 몰아서 후원하는 방식도 낯선 사람들에게 가벼우면서 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후원이 필요하다.
- 목표: 주기적인 문자 내역 체크 및 홍보를 통한 문자후원 빈도수 증가
- 방법 및 계획:
 - 특정 기념일이나 상담소 행사에 문자후원 홍보
 - 문자후원 이벤트 진행
 - 기대효과 : 상담소 인지도 및 모금액수 증가

2-5. 온라인 소통 및 홍보

- 배경/필요성
 - : 모든 사람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 지금,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이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역시 온라인 공간을 의견 교류의 장이자 새로운 담론 습득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양한 의제가 오가는 온라인 공간에서 반성폭력 운동의 저변을 넓히고 다양한 주체를 만나야 한다.
- 목표
 -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외화하고, 상담소와 관련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 담당: 닷별
- 방법 및 계획:
 - 1) 상담소 활동스토리 발굴
 - : 뉴스레터, 나눔터 등에 담기에는 사소하지만 상담소 회원 및 잠재적 후원회원이 궁금해할 만한 소식을 발굴하여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
 - : 2020년 3월 ~ 2020년 12월까지 매달 1회 게재 (총 10회)

2) SNS 상시 관리 및 활성화

-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상시 관리
- 카드뉴스, 영상형 카드뉴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 및 반성폭력 담론 외화
- 기대효과 :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상담소 활동을 널리 알려 잠재적 후원회원을 확보한다.

목표3. 더 많은 주체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

3-1. 인턴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 배경/필요성 : 개별 활동가들의 인턴 및 자원활동은 상호 간 오래 지속되는 경험으로 인력 양성을 위한 정성을 들여야 함. 인턴 및 자원활동 기록, 평가, OT 시스템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여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속성을 도모하여야 함.
- 목표 : 상시적으로 인턴 및 자원활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며 계획가능하고 풍성한 인턴 및 자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 방법 및 계획
 - 학기 중 : 서울대학교(하반기)/고려대학교(상/하반기) 인권센터 학생-인권단체 자원활동 연계 프로그램
 - 방학 중 : 씨티은행-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겨울), 로스쿨 실무수습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 1365 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자 모집
 - 기타 개별 실습 및 연구, 정책 자원활동 신청자 면담 및 활동 배치
 - 사전에 주요 활동 및 일상활동 명확히 오리엔테이션 진행
 - 활동 종료 시 활동나눔회 진행 및 후기 공유
- 기대효과 : 상담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활동가풀 확대 및 활동가 성장, 새로운 활력으로 상담소 사무실의 다양한 아이디어, 실행 문화 활성화

3-2. 로스쿨 법률 실무수습

- 배경/필요성 : 여성주의자 법률가 풀을 확장해야 하는 상담소와, 비영리공익단체 및 여성운동단체, 성폭력 등 문제해결의 법정책 과정 및 지원 체계 배움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예비 법률가들의 욕구와 필요가 존재하며, 이를 매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존재. 그 외에도 직접 신청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법조인들의 존재
- 목표 : 반성폭력 운동과 법정책에 개입하는 운동의 역사, 개념, 방법을 이해하고 - 지속되어온 과제에 대한 좀더 새롭고 필요한 접근과 소정의 성취를 함께 일구어 냄, 향후 활동의 기반이 됨
- 방법 및 계획
 - 2월 : 2/3(월)부터 이화여대 로스쿨 80시간 (3명), 서울대 법전문 40시간 (4명)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용
내용 - 상담소 법정책 운동의 역사와 쟁점, 팀별 활동 (교육)
지난 3년간 하급심 판결에서 성폭력 가해자 감경 및 가중 요인 분석
작업 발표, 피드백 및 토론, 외화 작업 (발제 또는 기고)
2-1. 감경분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
 - 여름 : 이화여대 로스쿨, 서울대 법전문, 그 외 개인 참여자들에게 여름 방학 프로그램을 알리고 적정 규

모 (최대 10명)을 접수, 심사, 결과 발표하여 프로그램 진행

3-3.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

- 목표 : 논의하고 참여하는 총회, 정회원 활성화, 법인 행정변경
- 계획 :
 - 총회 안내, 홍보 : 2019월 12월 개최 공고, 1월 정회원 신규 신청, 재적수 확정 참석여부 확인
 - 정회원 활성화 : 정회원 가입 독려 조직, 정회원 활동 어려운 회원 상호 의사확인, 명부 재정리
 - 이사회 구성 : 신규 이사 제안, 이사회 승인, 임기 만료예정 이사의 활동 지속 확인
 - 감사 : 회계 감사 및 사업 감사 운영
 - 주요 사항 논의
 - : 주요 사업계획, 반성폭력 활동방향, 집중해야 할 이슈 등 공유 및 논의
 - : 2020년 주요 목표 도출, 공유, 확산
 - 공증 : 변호사 공증 방식

3-4. 이사회

- 목표 : 논의 및 참여 활성화
- 계획 :
 - 신임 이사 선출 / 상담소 내방 오리엔테이션 진행
 - 퇴임 인사 등기 변경 및 인사, 평가
 - 연간 5회 이사회 : 저녁 시간 진행으로 참석 및 논의 내실화
 - 논의 및 협력 활성화 : 소식 나눔, 전문가 네트워크, 엠티(논의하여 시기 결정)

3-5. 한해보내기

- 목표: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상담소와의 친밀도를 키운다.
- 방법 및 계획:

| 일정 | 계획 |
|-----|--|
| 10월 | 행사 전체 기획 |
| 11월 | 세부기획 마무리 및 행사 홍보 |
| 12월 | 행사 진행 (담당 : 달별, 수수, 지리산, 사자)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인원: 50인 |

- 기대효과 : 상담소의 1년 정리 및 주체 간의 연결 강화
- 향후 신입활동가 두 명의 담당진행이 아닌 팀별 담당 등의 방식으로 전환 논의하기로 함

3-6. 정책, 운영, 국제협력 자문위원회

- 목표 : 상담소 운동방향, 사업내용에 대한 긴밀한 자문과 참여 활성화
- 계획 :
 - 자문위원회 체계 및 분야 확정 정리
 - 위촉장 발급 및 2년 갱신 제도 안내

- 연간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팀별 (상담팀, 성문화팀, 연구소, 사무국) 자문위원회 개최
- 수시 자문위원 역할 도모 : 이슈별 대응기구 논의, 사업별 자문위원 활동, 조직운영 방안 자문
- 30주년 준비 작업과 함께 연동

목표4. 평등한 문화와 공간 만들기, 좋은 삶 살아가기

4-1. 전체 논의 및 팀별 회의 지원

- 목표 : 팀별 안정화, 2021년을 향한 핵심목표 설정과 수행지원
- 계획 :
 - 팀별 인원충원 및 변동에 따른 안정화
 - 신규활동가 채용 및 교육 연수
 - 주3일 활동가 업무체계 및 근무규정 마련 진행
 - 팀별 회의 참석 및 팀간 협력
 - 2021년을 향한 팀별 핵심목표 수립 및 수행 지원
 - 프로젝트 및 자체 기금 마련 사업 수립 및 수행 지원
 - 상근활동가 회의 내실화 : 격주 1회 수요일 오후 2-5시간 회의 체계로 변동
팀간 소통, 주요 사업 협력, 이슈 공유 및 논의활성화, 더 좋은 조직문화
 - 평가 계획회의 : 1월 계획회의, 7월, 8월 평가회의 및 하반기 계획회의, 12월 평가회의, 계획회의 진행

4-2. 인권규정 평등문화 정책 시행

- 목표: 인권규정마련 및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신뢰를 높이고, 차별과 배제 없는 활동의 내실을 높여감
- 방식 및 계획: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인권침해 예방 및 사안처리 규정 적용
: 홈페이지 공고 논의 및 진행
: 동료 상담제도 실시 (위원 선정 및 교육 등)
 - 인권 및 성평등 의무교육 진행 활성화
 - 이 공간의 약속 운영 활성화
: 이 공간의 약속 개정 진행
: 이 공간의 약속 활용 - 홈페이지 게재, 활동가,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행사 및 교육 시작시 OT
 - 제 규정 점검 및 운영

4-3. 일하기 좋은 조직 만들기

- 계획 :
 - 처무규정 개정 논의 : 표준취업규칙과 휴가 및 돌봄, 안식년 등 규정의 신설 및 도입(11-1월)
 - 상근활동가 워크숍 :
 - :: 워크숍 준비위원회 : 준비위원 모집하여 전체 프로그램 및 역할 분담 등 구상
 - :: 워크숍 진행 : 2박 3일 진행(7/16-18 예정)

- 공통업무 : 분담표의 적절한 배분 검토 및 수행
- 사무실 대청소 : 매월 마지막 상근자 회의가 있는 날 오전 : 본인 책상, 구석 쓸기 닦기, 창틀, 1층 곳곳, 냉장고 정리 등
- 월별 나눔업무 이월 확인 : 9시 출근 / 쓰레기배출 담당 / 월말 이월 수행, 확인
- 급여 기본급 : 이사회 검토 및 의결
- 쾌적하고 대안적인 점심시간
- 휴가운용 : 월차, 연차 사용확인 및 독려 / 야간 휴일 근무에 따른 출근시간 조정 성실히행

4-4. 사무국 문서 기록 및 행정 총괄

- 목표: 상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관리한다
- 계획 :
 - 〈각종 기록 관리〉
 - 발송문서 검토
 - 주요 기록 문서 관리
 - 상담소 발간물
 - 〈건물 관리 및 안전 점검〉
 - 공간 및 시설 운영 : 관리 및 지속가능한 건물 돌봄 / - 안전점검 및 구청 보고
 - 안전매뉴얼 및 장치 점검 (소화기, 대피로 등)
 - 〈행정 처리〉
 - 2020년 운영지침 확인 및 내부 검토 / - 주요공문과 상담소 내외 문건 검토 및 총괄
 - 지자체 각종 서류 제출, 지도·점검 대응 등 행정업무 사항 총괄
 - 주요 의무 교육 진행 및 관리
 - 〈재정 및 회계〉 : - 재정 총괄
 - 〈각종 요청 사항〉 : - 공통메일 관리 / - 강의 요청 및 자료 요청 응대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예산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수입지부 | | | |
|---------------------|---------------------------|-------------|-------------|
| 회비 | | | 13,000,000 |
| | 정회원 (CMS 월1,000,000*12개월) | 13,000,000 | |
| 후원회비 | | | 179,500,000 |
| | 후원회원 | 170,000,000 | |
| | 자동이체 | 8,000,000 | |
| | 문자후원 | 1,500,000 | |
| 자료판매수입 | | 2,500,000 | 2,500,000 |
| 모금캠페인(후원의밤) | | | 45,000,000 |
| 찾아가는홍보기부(강의등) | | | 28,100,000 |
| | 찾아가는홍보기부-강의 등 | 25,000,000 | |
| | 사건지원심화교육 | 2,800,000 | |
| | 특강(각종세미나,집담회등 참가)-성문화팀 | 300,000 | |
| 일반기부금 | | | 113,000,000 |
| | 일반기부금 | 100,000,000 | |
| | 기업후원금 | 10,000,000 | |
| | 온라인후원금(텀블벅 등) | 3,000,000 | |
| 복권프로젝트수입 | | 27,000,000 | 27,000,000 |
| 국고보조금 | | | 260,000,000 |
| | 운영비 | 210,000,000 | |
| | 피해자의료비 | 50,000,000 | |
| 프로젝트수입 | | | 10,000,000 |
| | 자기방어훈련/성문화팀 | 10,000,000 | |
| | 파발마기금 | - | |
| 공동분담금(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운동) | | 1,000,000 | 1,000,000 |
| 이자수입 | | 2,300,000 | 2,300,000 |
| | | | - |
| | | - | |
| 전기이월금 | | | 122,661,625 |
| 수입지부 계 | | | 804,061,625 |

2020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예산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지출지부 <1> | | |
|-----------------------|-----------|-------------|
| 급여 (10인) | | 180,000,000 |
| 사회보험부담금 | | 17,000,000 |
| 퇴직적립금 | | 17,500,000 |
| 복리후생비 | | 11,800,000 |
| 야근식비 | 2,500,000 | |
| 교육문화비 (30만원X 11명) | 3,300,000 | |
| 일상소모품비 | 1,500,000 | |
| 경조사비 (축의금,부의금, 송별회 등) | 1,500,000 | |
| 중식지원비 | 2,500,000 | |
| 기타 | 500,000 | |
| 관리비 | | 11,000,000 |
| 기기운영관리비 및 기기류 수선비 | 2,500,000 | |
| 건물관리비(청소용역+외벽청소등) | 5,200,000 | |
| 전기료 | 1,000,000 | |
| 가스료 | - | |
| 제세공과금(화재보험료) | - | |
| 상하수도료 | - | |
| 건물보수비 | 2,000,000 | |
| 기타 | 300,000 | |
| 사무비 | | 2,900,000 |
| 사무용품비 | 1,000,000 | |
| 통신전화료 | 500,000 | |
| 우송비(우편료 등) | 600,000 | |
| 수수료 | 300,000 | |
| 기타 (신문대금,명함 등) | 500,000 | |
| 대외협력사업비 | | 4,600,000 |
| 연대단위 연회비 및 회의참가비 | 1,600,000 | |
| 연대활동 공동분담금 | 1,100,000 | |
| 단체후원 및 티켓구입비 | 1,600,000 | |
| 기타 (참관장소 선물비) | 300,000 | |
| 사무국사업비 | | 18,600,000 |
| 사무국 회의비(중무회의/평가계획회의비) | 1,500,000 | |
| 활동가워크숍/2박3일 | 3,000,000 | |
| 활동가국제연대사업비/2명 | 6,000,000 | |
| 정기총회비 | 2,500,000 | |
| 자문위원회 회의비(사무국) | 200,000 | |
| 팀별MT비 | 600,000 | |

| | | |
|--------------------------|------------|-------------------|
| 이사회 운영비(회의비/MT 등) | 1,000,000 | |
| 출장여비 | 500,000 | |
| 세무회계비 (공익법인세무회계, 감사2인선물) | 3,000,000 | |
| 기타(대청소 등) | 300,000 | |
| 기획조직사업비 | | 17,620,000 |
| 회원참여행사 | 2,400,000 | |
| 후원의밤 진행비 | 10,000,000 | |
| 한해보내기 | 1,000,000 | |
| 회원예우-회원가입캠페인등 | 1,000,000 | |
| 자원활동가 관련 | 320,000 | |
| CMS(회비인출)이용료 | 2,800,000 | |
| 예비비 | 100,000 |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 지출지부 <2> | | |
|-----------------------|-----------|-------------------|
| 인권사업비 | | 6,920,000 |
| 3.8 여성대회 | 1,260,000 | |
| 수요시위 | 300,000 | |
| 서울퀴어문화축제 | 260,000 | |
| 연대활동 | 600,000 | |
| 이슈대응사업비 | 2,500,000 | |
| 중요한판결시리즈2발간 | 1,500,000 | |
| 피해와생계사이자료집제작(회의) | 200,000 | |
| 자문회의비(성문화운동팀) | 200,000 | |
| 예비비 | 100,000 | |
| 연구소운영비 | | 10,200,000 |
| 출판홍보비(반성폭력12호+13호) | 6,500,000 | |
| 연구사업비_연구활동가 네트워크 | 1,050,000 | |
| 연구사업비_활동가교육 | 1,000,000 | |
| 연구사업비_단행본 발간사업 | 300,000 | |
| 연구사업비_정책개발사업비 | 200,000 | |
| 연구소활동비_도서구입비 | 500,000 | |
| 연구소활동비_사무비 | 350,000 | |
| 연구소활동비_발간자료정리 | 200,000 | |
| 예비비 | 100,000 | |
| 상담사업비 | | 6,390,000 |
| 내담자지원비 | 1,200,000 | |
| 상담원지원비 | 1,200,000 | |
| 심화교육비 | 2,800,000 | |
| 시스템자문비 | 200,000 | |
| 월요법률상담비 | 90,000 | |
| 상담팀자문위원회회의비 | 200,000 | |
| 공대위활동비 | 600,000 | |
| 예비비 | 100,000 | |

| | | |
|----------------------|-------------|-------------|
| 정책개발사업비 | | 6,500,000 |
| 가해자감경기준액선 | 2,000,000 | |
| 정책개발사업비 | 3,000,000 | |
| 30주년기념사업 | 1,500,000 | |
| 홍보출판비 | | 7,960,000 |
| 나눔터 제작비 (2회) | 7,460,000 | |
| 브로슈어제작비 | 500,000 | |
| 온라인사업비 | | 2,512,000 |
| 홈페이지운영비 | 1,000,000 | |
| 회원관리프로그램유지비 | 500,000 | |
| 이메일소식지발송 및 관리 | 312,000 | |
| SNS광고비 | 200,000 | |
| 상담소소식발굴 | 200,000 | |
| 기타(도메인/포스트맨/천리안) | 300,000 | |
| 국고보조금 | | 260,000,000 |
| 운영비(인건비5인포함+운영비) | 210,000,000 | |
| 피해자의료비 | 50,000,000 | |
| 복권프로젝트집행 | 27,000,000 | 27,000,000 |
| 프로젝트집행 | | 10,000,000 |
| 자기방어훈련 | 10,000,000 | |
| 파발마기금 | 5,000,000 | 5,000,000 |
| 열린터보조비/법인전출금 | | 5,000,000 |
| 공동분담금-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 | 1,000,000 |
| 특 별 회 계 | | 70,000,000 |
| 차기이월금 | | 104,559,625 |
| 지출지부 계 | | 804,061,625 |

임원 소개 및 선출 / 변동 임원 후보

■ 사임 이사

- _ 장철우 이사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남북)
- _ 변혜정 이사 (여성학자,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 신임 이사 후보

- _ 장임다혜 (법여성학자,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 연구위원)

이사

이명숙, 박부진, 배순희, 이경환, 이미경, 이운상, 최보원, 홍순기 (8명)

감사

사업감사 _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전 소장,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회계감사 _ 배자하 (세무사, 배자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소장

소장 _ 이미경/지리산 (임기 2015.2.1.~ 연임 2018.2.1.~)
부소장 _ 김혜정/오매 (임기 2017.4.3.~)

부설 열림터 원장

원장 _ 정정희/사자 (임기 2018.4.1.~)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공로상 및 감사패

감사패 : 장철우 이사

장철우님은 1993년부터 본 상담소 법률 자문 위원으로, 1995년부터는 토요일법률상담 변호사로, 2002년부터는 이사로 활동하시며 상담소의 역사를 함께 써오셨습니다. 그동안 상담소가 새로운 법담론을 만들고, 성폭력 법·제도를 개선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확장해 오는 데에는 장철우 이사의 기탄없는 의견, 적극적인 참여와 든든한 응원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상담소의 반성폭력운동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감사패 : 김의창 열림터 운영위원

김의창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토요일법률상담의 자문변호사로 시작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의 운영위원으로 십오 년의 기간 동안 함께 활동해 오셨습니다. 열림터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동안 법적인 자문뿐만 아니라 법조인을 꿈꾸는 열림터 생활인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도 마련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변함없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열림터의 활동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김의창님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공로상 : 황금명륜

젠더폭력을 없애고 갈등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황금명륜님은 차별, 폭력, 갈등, 긍정역량에 관한 사람들의 '이야기' 책 『같이의 가치』 인세 수익을 기부하셨습니다. '파발마기금'은 전국 곳곳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담, 사건진행, 치유의 이동과 여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의 소식을 서로에게 전하는 이동의 힘을 믿으며, 그 힘을 전해 주시는 황금명륜님께 공로상을 드립니다.

공로상 : 활동가 선민

선민님은 2014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로서 재직하였습니다. 든든하고 살뜰한 재정담당자이자, 언제나 손 내밀고 구석구석 살피는 동료로, 상담소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품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회원과 거래처를 만나는 상근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민활동가의 성실한 애정, 유쾌한 보살핌, 균형 있는 배움과 성장을 상담소에서 풍성히 익혀 열매로 맺고자 하며, 이에 공로상을 드립니다.

2019년 안젤라 어워드

※ 안젤라어워드는 한 해동안 상담소와 연결되어 활약한 분들께 <한해보내기>에서 드리는 상입니다.
2019년 안젤라어워드는 2019년 12월 6일 수여되었습니다.

용감한생존자상 : 푸른나비

푸른나비님은 올해,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10차 폐미시국광장에서 강간죄 개정에 대해 발언하는 등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올림 있는 말하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통해 생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용감한 생존자, 푸른나비님께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푸른나비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더욱더 크게 울려퍼지기를 응원하며 블루투스 마이크 드립니다.

도시농부상 : 조은희

여성주의상담팀 조은희 활동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날씨를 가리지 않고 옥상텃밭을 열심히 관리해주시고 계십니다. 조은희 활동가의 노고 덕분에 올해도 활동가들의 식탁은 푸릇푸릇하고 풍성하게, 활동가들의 마음은 싱글싱글하고 따뜻하게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조은희 활동가에게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도 함께 옥상텃밭을 경영해나가자는 다짐의 마음을 전하며 이 상을 드립니다.

*부상으로는 앞으로도 도시농부로 활약해주시길 바라며 도시농부키트(밀짚모자, 갈고리장갑)를 선물로 드립니다.

We Make Rising상 : 마이라/모니크

마이라와 모니크는 상담소와 함께 3월 8일 한국여성대회 One Billion Rising 무대를 빛내주었습니다. One Billion Rising은 여성폭력에 저항하는 춤을 추는 캠페인입니다. 모니크는 직접 안무를 만들어 춤을 가르쳐주었고 마이라는 캠페인 기획부터 함께 참여하며 전국의 여성들이 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안무 영상을 찍었습니다. 3월 8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혁명을 기억하며 큰 공을 세운 두 분께 이 상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장갑을 드립니다.

보통이아닌캠페인상 :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은 성폭력 주변인을 인터뷰하는 <보통의 연대>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이 이 성폭력과 관련하여 일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영향을 받는지 알리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하며 <보통의 연대>를 만들기 위해 '보통이 아닌' 공력을 들여주시며 성폭력 없는 세상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한 용기와 실천을 보여주신 캠페인단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 부상으로는 겨울철 비타민 보충을 위한 황금향을 드립니다.

내일도 통역해요 상 : 진

진님은 올해 6월 17일부터 상담소에서 인턴활동을 하면서 <NGO 활동의 평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통역 업무를 맡아주셨습니다. 처음 맡으시는 통역 업무임에도 흔쾌히 수락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인턴활동기간 동안 여러 번역 업무에도 참여해주셨을 뿐 아니라, 인턴 활동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프로스페라 아시아태평양 지역통합회의 동행, 아시아여성학대회 통역 업무 등을 맡아주시며 상담소가 여러 나라의 더 많은 운동 주체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상담소와 깊고 끈끈한 연대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 부상으로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중흥무진할 진 님을 위해 항공담요와 수면안대를 드립니다.

단독방수호대 상: <메카 5기> 기자단

<메카 5기> 기자단은 나눔터에 수록될 콘텐츠를 고민하는 것 뿐만 아니라 “0부터 시작하는 단독방 십계명”, “단독방 불편냥 이모티콘” 제작 등을 통해 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단독방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메카 5기>의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단독방 역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바뀌어야할 공간이라는 메시지가 눈에 담기 쉬운 매체의 형태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0부터 시작하는 단독방 십계명”, “단독방 불편냥 이모티콘”이 더 날개를 달고 여러 단독방 구석구석에 전달될 그날까지 상담소와 함께 하기를 바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부상으로는 겨울철 비타민 보충을 위한 황금향을 드립니다.

디자인리부트상: 서희

서희님은 상담소 25주년을 맞아 마스코트 캐릭터인 마녀와 핑범이를 새로 그려주신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올해는 상담소에서 처음 시작한 텀블벅 리워드로 마스코트 캐릭터를 활용한 스티커, 엽서, 키링, 후드티를 디자인해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와 생계 사이> 웹자보와 책자를 디자인하는 등 상담소의 디자인 퀄리티를 한껏 올려주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을 하기에 목련 활동가가 특별 제작한 손목 찜질 팔주머니를 드립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사용 가능!

앞으로도매일매일상: 강유가람

강유가람 감독님은 영페미들의 성장과 삶, 연대를 담은 다큐멘터리 <우리는 매일매일>을 제작하여 많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상담소의 역사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유가람님은 상담소 자원활동부터 시작해 10대 성적자기결정권 교육을 위한 영상 제작, ‘모모씨 법정에 가다’ 교육영상물 연출 등으로 여성운동 현장에서 연대하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페미니스트들과 연대하며 들숨에 재력, 날숨에 명예가 함께 하길 바라며 이 상을 드립니다.

*부상으로는 카메라 렌즈 클리너를 드립니다.

[부록]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② 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로 하고 약칭은 KSVRC로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에 둔다.

제3조 (목적) 법인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확보와 성평등 사회의 정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상담·지원 활동
- ②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③ 연구소 운영
- ④ 인권 활동
- ⑤ 교육 활동
- ⑥ 홍보출판 활동
- ⑦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와 연대 활동
- ⑧ 부동산 임대
- ⑨ 기타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회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본회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1)본 상담소의 발기인, 이사, 상근활동가, 자문위원, 전·현직 자원활동가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016. 1. 28. 개정>
- 2)후원회원으로 1년이상 의무를 다했고, 원하는 경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후원회원 가입신청한 자로 한다.
3. 평생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016. 1. 28. 개정>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여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야 한다.

③후원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약정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모든 회원은 본 상담소 자료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탈퇴,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이사장 1인

②상임이사 1인

③소장 1인, 부소장 2인 이하

④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⑤감사 2인

⑥부설기관의 장

제10조 (임원의 자격) 본 법인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혹은 성폭력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본 법인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소장, 부소장, 이사, 부설기관의 장 및 감사는 이사회 혹은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선임의 제한) 법인은 임원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임원의 수는 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 (감사선임의 제한) 법인은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2조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등) ①법인의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부소장 및 부설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이사장 : 법인을 대표한다.
- ②상임이사 :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소장 : 상담소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 ④부소장 : 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⑥부설기관의 장 : 부설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법인의 재정과 회계의 감사
- ②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③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의 그 시정을 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 ④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의 소집 요구
- ⑤법인의 재정, 총회 또는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서의 의견 진술

제17조 (겸직 금지) 감사는 법인의 이사 또는 소장 및 상근활동가를 겸할 수 없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종류와 소집기일, 방법 등) 총회에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가 있다.

- ①정기총회는 연1회, 1월 중에 개최한다.
- ②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이사장, 소장, 감사 또는 이사 중 3분의 2이상이 발의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개최한다.
- ③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사업계획의 승인
- ③예산, 결산의 승인
- ④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정관개정
- ⑥법인의 해산
- ⑦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①회원의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2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소장은 직무상 이사를 겸직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제24조 (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4 회 개최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사업계획 수립
- ②예산, 결산서의 작성
- ③상근활동가의 선임
- ④재산관리
- ⑤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⑥총회에 부의(附議)할 안건의 작성
- ⑦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정관의 변경사항의 작성
- ⑨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정

제6장 재정(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정) ①법인의 재정은 회비, 후원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법인설립 이후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9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016. 1. 28. 개정>

제3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세입, 세출예산)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 (결산) ①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담당자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의2 (후원금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31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장 상근활동가

제33조 (상근활동가)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활동가를 둔다.

②상근활동가의 임면 및 징계는 운영규정의 처무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상근활동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 (정관변경)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하여야 하며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다.

제35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설기관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36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삭제 2008. 1. 24>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 | | |
|------------------|------------------|------------------|------------------|
| 1993.3.27 제정 | 1993.10.5 1차 개정 | 1996.2.10 2차 개정 | 1998.11.12 3차 개정 |
| 1999.5.28 4차 개정 | 2000.2.12 5차 개정 | 2002.2.7 6차 개정 | 2003.2.6 7차 개정 |
| 2006.1.20 8차 개정 | 2007.1.25 9차 개정 | 2008.1.24 10차 개정 | 2008.4.8 11차 개정 |
| 2009.1.31 12차 개정 | 2013.1.30 13차 개정 | 2014.1.24 14차 개정 | 2014.8.5 15차 개정 |
| 2015.7.21 16차 개정 | 2016.1.28 17차 개정 | | |

[부록] 2019년 성명 논평 입장 55선

[탄원서 연서명]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이제, 다른 결론이 필요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0쪽이 넘는 판결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이 '존재'하지만 그 위력이 '행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유지한 것이 '피해자답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개로 해석하는 현실 비틀기를 통해, 또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대한 증명을 피해자에게만 떠넘김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습니다. 피고인 안희정은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권후보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과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임명, 징계, 해고 등 모든 것이 피고인에 의해 결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자, 일 시작하지 한달도 채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의 사·공간의 명확한 구분 없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넘나들며 24시간 대기한 채 일했던 것이 수행비서 업무 특성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력이 존재만 하고 행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 '유죄'를 선고한 다른 판결들을 보면 안희정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은 임의적인 잣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거부/저항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NO'라고 할 때도 'YES'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해당 업무의 '기준'이었습니다. '평등한 소통/합의/동의'라는 전제가 애초에 불가능한 업무였고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합의된 관계'나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합의된 성관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나 합의에 대한 증거 없이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위력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측은 성폭력 이후 피해자의 충실한 업무 태도가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때로는 피해상황에서 즉각적이고 명확한 거부의사와 저항을 하는 모습을 말하고, 때로는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즉각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 수개월 수년이 지나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똑같이 묻는다면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피해자에 대한 재판으로 바꾸어버리는, 가해자 중심사회의 병폐일 뿐입니다.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상태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버티고 견디고 참고 목소리 냈다가 목살당하고 다른 도움을 찾아보며 살아갑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 심리적인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성폭력 범죄를 판단할 때 지녀야 하는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여 내키지 않는 업무도 꼭 참아가며 해내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업무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때 이렇게 말하고 거절할 것'이라고 한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상의 위력을 견디며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모두 스스로 동의하고 합의해서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한 행동입니까.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권력 앞에 침묵하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은 이번 사건에서 동일합니다. 강력한 업무상의 위계, 사회적 지위의 격차, 젠더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편적 약자/피해자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했던 질문에서 벗어나 피고인 안희정에게 사건에 대해 심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수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8월 14일 안희정에게 무죄가 판결되던 날의 충격과 좌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위력의 영향력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 드러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무죄판결은 우리 사회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용인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악용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2심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고 고소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악성댓글, 개인정보와 허위정보가 유포되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측 증인들의 증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그 전까지는 동료들도 인정했던 피해자의 성실한 직장생활과 강한 신념이 갑자기 피고인을 ‘좋은 이유’로 둔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만 왜곡되고 성적으로 이미지화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평범하게 일했으나 직장내 성폭력 사건 신고 이후 평소 업무능력까지 왜곡/짜깁기되는 것은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의 심각한 현상입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치적 생명력을 잃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전가가 더욱 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심각한 상태이며,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과 고립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결론으로 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피고인 안희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및 시민 일동

[탄원서 연서명] 2019. 1. 3부터 ~ 1. 21까지

* 총 6,750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탄원서는 2019년 1월 25일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성명] 스포츠 미투가 들불처럼 일어나길.

조재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재범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게 자행한 성폭력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져있다. 상습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는 이제 성폭력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심석희 선수가 직접 재판에 나와 엄벌을 호소했던 지난 12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추가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심 선수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2014년부터 올림픽 직전까지 4년 간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돌아보면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여제자 성추행 사건이 터졌고 바로 그 빈 자리에 조재범 코치가 장비 담당 코치로 선임되었다. 우리는 성추행 사건으로 생긴 빈 자리에 선임된 그가 동일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체육계 성폭력이 조재범이라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동안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학습된 소위 침묵의 카르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16세에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하고 2014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각종 국제대회에서 21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세계최고 기량의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한의 공포에 시달릴 정도로 끔찍한 폭행을 당해도 “폭행 사실을 알리면 선수생활 끝이다.”라는 협박에 국가대표 선수로서 삶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아무도 심석희 선수를 도와주지 못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체육계다.

지난 해 사회 전 영역에서 미투의 광풍이 몰아칠 때 유독 스포츠 분야는 조용했다. 선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코치와 감독,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된 폐쇄적인 합숙소와 훈련장,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묵인, 방조 심지어 공조하는 침묵의 카르텔까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에 최적화된 체육계 관행과 성문화가 오히려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지금까지 스포츠계의 미투에는 무수한 미(Me)만 존재하고 연대하고 지지하는 투(too)가 없었던 까닭이다.

어렵게 용기를 낸 심석희 선수의 고발이 스포츠계 미투로 들불처럼 번져 체육계에 더 이상 이러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뿌리 뽑아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조재범 성폭력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독립/외부기관이 주도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병상연맹,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를 방관, 방조해 온 기관의 책임자들은 사퇴하라!

하나. 실효성 없는 감사와 조사, 신고체계를 개혁하라! ‘스포츠비전 2030’에서 밝힌 국무총리 산하 <체육단체공정위원회> 설립, ‘문화비전 2030’에서 밝힌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을 제대로 추진하라!

우리 체육, 문화시민운동, 여성, 노동, 법률 단체들은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발이 체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병폐인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는, 늦었지만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10일 심석희 선수의 용기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연대의 뜻을 전하며.

문화연대, 성폭력반대 연극인행동, 스포츠문화연구소, 여성문화예술연합(WACA), 젊은빙상인연대, 체육시민연대, 체조협회임원 김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사)100인의 여성체육인,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단호한 시선] 체육계 미투, 성평등을 훈련하라

“싸움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여성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은 여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은 이 훈련의 가치를 배우는 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여성이 비가시화되거나 부상을 입는 등, 훈련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많다.”

- Peace Over Violence(2013), 『여성의 자기방어훈련과 안전: 임파워먼트와 회복 모델 (Women's Self-Defense & Safety: An Empowerment And Resiliency Model)』

쇼트트랙, 유도, 레슬링 등 체육계 전반에서 성폭력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미투를 마음을 다해 지지합니다.

우리는 스포츠/운동/체육을 여성들이 왜 관두는지, 왜 접근하기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성별이분법적 고정관념과 관습이 초중고등학교 체육시간에도, 동네 태권도장에도,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체육계 안팎의 성찰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1.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피해 선수들이 2차피해 없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3. 조사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적 체계가 있어야 한다.
4. 성별고정관념을 넘어 체육계 내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5. 선수선발, 출전권, 대학진학 등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2019. 1. 17.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기자회견문]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지난 2018년, 보통군사법원 1심은 같은 함정에 근무한 소령과 함장 대령(당시 중령)이 직속 부하인 여군에게 가한 성폭력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형, 8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중형을 선고받은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후에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지한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는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고등군사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함정 내 150명 정원 중 5~10명 미만의 여군이 배치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적은 여군의 위치와 배를 타고 장기간 항해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문화에서 낮은 계급의 여군이 직속 상관, 나아가 함장에게 거부하거나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다. 피해자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감을 지키며 스스로 군인이기를 선택했기에 바로 신고하거나 조직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놓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17직권0001600, 17진정0457800 (병합))’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군대 내 여군 성폭력 피해 여군 중 부사관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약 58%로 나타났다. 특히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하사’가 피해자인 경우가 2014년 76%, 2015년도 84%, 2016년도 86%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당시 대응에 대한 질문에서는 ‘저항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응답자 34명 중 19명, 55.8%)으로 나타났고, 피해 상황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답변(응답자 42명 중 26명, 15.3%,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군 내 조직문화와 외부 사회로부터 일정 부분 단절된 환경 속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서도 피해를 알리거나 사건화하기를 ‘포기’하기도 한다. 이 사건의 피해 여군 또한 자신의 평정에 영향을 주는 직속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겪고도 장기복무를 희망하여 피해 당시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해 호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들에게 무죄판결로 면죄부를 주며, 군 복무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당시, 성폭력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피해자에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저항했어야 한다’고 강요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2심을 심리하면서, 가해자들이 요청한 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전 의무기록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상 2차 피해를 조장하였다. 가해자들은 무죄판결에 관한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 조정신청을 하며, 피해자의 사적 정보가 담긴 자료를 포함하였고, 더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로 확보한 이 사건과 무관한 의무기록의 상세내용까지 적시하여 추가피해를 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가해자들의 심각한 추가적인 가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판단 기준을 강조하였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우리는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례가 고등군사법원의 오판을 바로잡는 상식적인 판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법 상식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린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수십 대의 경쟁률을 뚫고 스스로 군인이 된 1만여 명의 여군들에게 부당한 인권침해에 당당히 맞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상식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이 사건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며 집단적인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29일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젊은여군포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의전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기지원센터 명동,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 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단호한 시선] '그건 강간입니다'

최근 술과 약물을 이용하여 일어난 강간사건이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술과 약물을 이용하여 하는 강간을 자랑하는 남성들, 강간 용도의 약물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 이용을 조장·방관하는 공모자들, 이들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는 강간문화가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강간문화는 피해자를 타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 늦은 시간에 클럽은 왜 갔는지,
- 술은 왜 마셨는지,
- 왜 취했는지,
- 노출이 많은 옷은 왜 입었는지.

이는 가해자와 공모자를 숨기는 질문입니다.

소라넷 같은 플랫폼에서 남성연대에 의한 범죄모의와 공동실행이 드러난 이후, 분노한 페미니스트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일부 사이트는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라넷 공동운영자는 고작 징역 6년 벌금 14년에 그쳤고, 유사 사이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적극적인 공모자였습니다. 경찰은 시민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를 단속해야 합니다. 유흥가 구역 담당 경찰은 남성 시민들의 강간할 자유와 강간모의형 업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설 요원입니까?

술과 약물을 이용한 준강간은 제대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특히 심신미약 가능성을 알고 의도한 경우 양형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또한 포르노 및 불법촬영 유통 사이트는 강간모의 및 실행을 위한 도구와 죄음제를 유통하는 영업장이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법원은 추가 범죄가 속출하는 이 현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반드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건 강간입니다

#rape_is_rape

● 2016년 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준강간캠페인 이미지와 자료집을 함께 첨부합니다.

#그건 강간입니다 :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최종발표회 자료집

링크:<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310.view&cate1=발간물&cate2=A03&page=3&idx=189>

2019년 1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기자회견문] 위력의 존재가 곧 행사일 수 있음을 인정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2019년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한 2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를 환영하며 동시에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던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는 물론 수많은 여성들의 공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위력의 행사 행위가 없더라도 무형적 위력의 존재만으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선고결과가 3심에서도 당연히 유지되어 자신의 지위, 권세,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더 철저히 감시하고, 권력의 오남용이 묵과되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시는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론을 통해서만 피해를 고발하지 않아도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오늘의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추행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직권을 남용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유죄판결에 이어 위력의 좁은 해석과 엄격한 판단기준으로 처벌의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을 기억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등 여타 성폭력 사건들에서도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법부의 역할만으로 지독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위력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피해자를 꽃뱀으로, 거짓말쟁이로 모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잔혹한 공동체는 더 이상 안 된다. 가해자의 말을 받아쓰기하며 피해자 비난을 강화하는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직장이라는 공적 장소가 얼마나 남성중심적인지, 중요 지위를 누가 독점하고 있는지, 비정규직 내 성별비율, 성별 임금격차 등 성별이 곧 차별과 취약함이 되는 현실에서 따로 불러내기, 요구하기, 불이익주기, 압력 넣기, 괴롭히기는 얼마나 의도된 일상적 차별이자 폭력일 수 있는지를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은 변화할 수 없다. 지난 1년간 문화예술, 체육, 종교, 학교, 공공기관, 군대, 정치 등등 모든 영역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났고 용기 있는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그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미투에 응답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미투운동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미투운동에 함께 한 여성들은 누가 뭐래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이들과 함께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성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2월 1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제 137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수요시위는 성폭력 말하기와 같습니다. 91년 김학순 님의 국내 첫 증언을 시작으로, 2019년인 지금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은 피해경험과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말해왔습니다. 용기 있는 첫 증언 이후 ‘나도 너였다’고 뒤이어 일어난 사람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240명. 2차 세계 대전 당시의 경험을 말하는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는 왠지 어제 진행했던 상담에서 들었던 소리와 닮아 있습니다. 어쩌면 수요시위는 1374번째 계속되어온 미투운동 일지도 모릅니다.

피해생존자들이 천 번 넘게 말하는 동안, 세상의 어떤 부분은 지독할 만큼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제국주의와 남성중심적인 국가권력, 여성을 도구화 하는 여성혐오적 문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MeToo 해시태그를 달고 말하기 시작한 여성들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것과 같은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거짓말이다’, ‘돈을 노리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게 왜 거부하지 않았는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결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이 맞는가? 모든 비난에 맞서 ‘인정할 만한 피해자됨’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자 답게 구는지 판별하는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생존자들이 천 번 넘게 말하는 동안, 세상의 어떤 부분은 놀랄만큼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은 ‘할머니’나 ‘소녀상’으로 표상되는 존재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에서 전쟁과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세계 각지의 여성들과 연대하고, 다른 피해를 지원하고, 싸움을 멈추지 않는 강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삶으로 인해 우리는 전과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말하기에서 전쟁의 현실이 드러났으며, 피해생존자의 관점에서 인권은 다시 쓰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해의 원인은 가해자’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이에 따른 공식적인 사과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과에는 잘못에 대한 인정과, 폭력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공식사과, 진상규명,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의 회복, 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정부와 한국 정부는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2015 한일합의’라는 외교수장들의 담합으로 답하였습니다.

피해생존자들과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발표된 것처럼, 결국 우리의 연대로 정의로운 문제해결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 회복의 과정에 필수적인 ‘듣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생존자가 혼자 외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외침이 되고자 합니다. 제 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배상하라!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 대한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라!

한국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고 피해자중심적 문제해결을 추진하라!

양국정부는 피해생존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즉시 행동하라!

2019년 2월 13일

제137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 및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동

[입장]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도입을 요구하는 23만 명의 청와대 청원 요청으로 시작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2018년)가 오늘 발표되었다. 해당 연구는 인공임신중절 경험 및 인식과 관련하여 1만명에 대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약 5만 건)으로 추정되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은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여성들의 요구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을 갖춘 연구진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촉구해왔다. 연구의 과정에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연구의 결과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해당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범 정부 부처가 어떤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다양한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75.4%로 매우 높다는 점과,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존치로 인해 여성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하거나, 의료적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낙태죄 폐지 요구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가 궁극적으로 인공임신중절률이 낮아지는 방향에 기여하며,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다.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형법 개정 요구 75.4%! 낙태죄 폐지는 시대의 요구이다

해당 연구 결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10,000명)의 75.4%이며,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도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10,000명) 중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하였다.

75.4%의 여성이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요구임을 드러낸다. 사실 한국은 형법상 낙태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가 주도하여 낙태 버스를 운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강제 단종을 시행하는 등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에 개입해온 역사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에 만들어진 낙태죄는 여전히 형법에 남아 여성의 판단을 범죄화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은 수차례 형법상 낙태죄가 오히려 악용되고 있는 현실과 여성의 판단을 국가가 범죄로 지정하고, 처벌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왔으며, 이러한 입장의 타당성은 23만명의 청와대 청원,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시사점으로 여전히 임신중지 합법화를 통한 예방과 안전 보장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조건 하에서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 강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대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결론은 정부에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 실질적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

여전히 게다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서도 여전히 ‘출산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저출산”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여성에게 인구가 많을 때는 ‘낳지 말라’며 가족계획을 실시하였고, 이제와 인구가 부족해지자 ‘낳으라’며 낙태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나선다. 이러한 기만적인 프레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조사 항목 중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개선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우생학적 관점을 담고 있는 제14조 1항과 2항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현행 모자보건법이 장애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드러내었다.

정부와 의회는 형법 개정을 통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보장, 보험 적용, 성교육과 피임의 체계적 확대, 상담과 사후관리 등의 의료적 보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으로서 고려하고,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2) 임신중지 합법화와 의료적, 사회경제적 여건 보장이 필요하다. 성과 재생산 권리, 여성의 건강권 보장하라.

이번 조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은 그 연령대와 사유를 특정할 수 없으며, 모든 여성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고 그 조건도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17세에서 44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임신중지 경험이 있고, 비혼 여성과 기혼 여성의 임신중지 비율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여성 46.9%, 사실상 포함 기혼여성 51.9% / 별거, 이혼, 사별까지 포함한 기혼여성 53.1%) 임신중지 사유 역시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과 '경제상태', '자녀계획'이 비등한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연구 결과에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46.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근간에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인 조건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을 줄이고 싶다면 모든 이가 자신의 모성과 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공임신중절은 결코 처벌이나 범죄화, 사유의 제한 등을 통해서 그 발생이 낮아질 수 없다.

오히려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는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인공임신중절이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관리가 되지 않고,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선의 의료적 해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의료 정보를 얻기 또한 어려워지며, 의료인과 당사자 모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 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당시 필요했던 정보(복수응답, 2가지)의 경우,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71.9%가 이며, 인공임신중절 비용,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부작용 및 후유증도 각각 57.9%, 40.2%이다.

한국은 진보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국가의 의료 시설과 제도, 이를 지탱하는 수많은 보건 의료 정책과 시스템 안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의료의 질과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이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 정부 부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지역은 주거지 근처가 64.7%, 주거지와 가까운 타 시도 25.1%, 주거지와 먼 타 시도 9.9%, 해외 0.3%로 상당한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의 불법화로 인해 의료 기관과의 거리적 접근성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사후관리나 병원 재방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중절 이후 적절한 휴식을 취했다는 응답이 절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현재의 법적 조건이 여성들의 건강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의 8.5%가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이 중 43.8%만이 치료를 받았고, 54.6%가 정신적 증상을 경험하였으나 14% 정도만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임신중지가 불법인 상황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렵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지리적·비용적으로 접근성 높은 의료기관을 제공해야 할 의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를 통해 임신중지 합법화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의 확대, 정보접근성의 확대, 건강보험 적용, 사회경제적 여건 보장, 성차별 정책의 확대, 사회적 낙인 제거 등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한다.

3) 제대로 된 피임법의 교육과 접근성 확대 시급, 포괄적 성교육 시행하라

연구 결과에서는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로(1순위)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이 나타났다.

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절감한다. 제대로 된 성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는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이다.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공허한 말 말고 "어떤 성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꾸준히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피임실천율이 2011년 대비 12.4%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임신중지 경험에서 피임하지 않은 비율 40.2%로 매우 높고, 피임실천을 하였더라도 질외사정 등 피임법으로 볼 수 없는 피임방법 사용이 47.1%이며, 콘돔 등을 사용하였더라도 사실상 피임에 실패한 비율이 12.7%로 드러나, 정확하고 안전한 피임실천율을 높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피임실천율을 높이는 것과 별개로 100%완전한 피임법이 없으므로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피임실천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도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하와 20대에서는 파트너가 아니라 본인이 피임했다는 비율이 더 높고, 피임 지식과 정보를 대부분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서 습득했다는 응답이 높다. 이는 실질적인 성교육의 부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지점이다.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피임에 대한 접근권과 보험 적용 등 사회적 보장 확대, 정보 확산과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강화해야 한다.

4) 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과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라

이번 연구에서 약물적 유산유도제에 대한 연구 접근 방식은 매우 문제가 많다.

현재 인공임신중절이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고, 비용 마련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법화된 의료적 시술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약물적 유산유도제를 사용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연유산유도약이나 유사약 사용자로 지인·구매대행(22.6%), 온라인(15.3%)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위계양에 사용되는 약물(싸이토텍 등 자궁수축유발) 등을 의사처방(62.1%)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현재의 법적 현실 때문에 약을 개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유통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안전하지 못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분석하지 않고, 약물적 인공임신중절 자체가 위험성을 강조하는 연구 결과는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약물적 유산유도제 복용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는 의료진 역시도 약물적 유산유도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히, 임신초기의 인공유산은 병원에서도 수술이 아닌 약물 사용이 더 안전하며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WHO가 발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에 따르면 임신 초기(~12주)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medication abortion)을 권고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유도약의 이용 실태는 약물을 이용한 인공유산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는 현재의 법적 현실과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임신중지 합법화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도 약물 사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며, 의료진 보수 교육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통한 인공임신중절의 전면 비범죄화, 그리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실질적인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 행동>의 요구를 덧붙인다.

-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 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2019년 2월 14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민주노총,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공대위성명] 가해자 주장 받아쓰기 그만하고
일상의 수많은 ‘안희정’을 향한 싸움에 언론도 동참하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된 안희정 전 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의 2심 판결이 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가해자 가족의 SNS 글로 촉발되어 해당 사건 관련 왜곡된 정보, 편향한 ‘피해자 다움’에 대한 이미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에 치우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13일, 20일 가해자 안희정과 피해자가 ‘불륜’ 관계였으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메신저 대화 일부 등과 함께 가해자의 배우자의 SNS계정에 게시되었다. 이에 수많은 언론이 ‘피해자일리 없다’는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떠나르고 있다.

언론의 영향력으로 인해, 가해자 가족의 주장은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확산되고, 새로운 사실이 등장한 것처럼 많은 시민들을 헛갈리게 했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일방적 주장을 옮기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원색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다. 언론이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은 맥락이 삭제된 짜깁기이며, '피해자다움'을 앞에 내세운 사실 왜곡이다.

검찰 기소, 1심, 2심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및 중요 쟁점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사는 소수일 뿐이다. 대개는 가십거리로 소비되기 쉬운 제목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2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성관계 내지 신체접촉을 할 사적관계라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되풀이하는 가해자측 주장을 보도하는 행태는 언론이 여론재판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수행비서직의 업무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피해자가 일한 조직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메시지 전후 맥락은 어떠했는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된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위력이 무엇인지, 위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며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지, 우리가 사회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 제기된 위력성폭력 이슈에 대해 2심 판결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할 점들이 여전히 많다. 언론은 성폭력 이슈를 두고 사회정의에 대한 풍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논의의 장 펼칠 책임이 있다.

2심 유죄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짚고 공유할 책임을 방기하며 조회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선정주의적 보도만을 계속하는 언론에게 묻고 싶다. 2018년부터 미투 운동을 통해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변화를 위해 외친 목소리를 구태의 꽃땀신화로 덮으려는가.

얼마 전 검찰 내 성폭력사건을 증언한 서지현 검사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폭력 피해를 증언한 피해자를 꽃땀이라 부르면서 손가락질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 잔인한 공동체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잔인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언론 본연의 역할을 성찰하길 촉구한다.

작년 11월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에서 함께 쓰는 기자회견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안희정의 1심 '무죄' 판결이 난 그날도 상사의 성희롱을 참으며 점심밥을 삼켜야 했다"며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왜 주목하고 분노하는지를 말했다. 우리 일상 가까이 존재하며 동시에 행사되는 그 위력에 대해 여성들은 "일상의 수많은 '안희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연대의 마음을 밝혔다.

이 싸움은 수많은 '안희정'에 대한 것이며,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작동되어온 위력과 위력에 의한 성적 침해에 대한 집단적 고발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다시 이 사건의 본질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할 때다.

2019년 2월 26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고발 1년, "침묵을 깨고 위력에 맞서다"

2019년 3월 5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 알린 지 1주년
오늘 20시부터 안희정 성폭력 사건 상고심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명운동 시작

1. 2018년 3월 5일 월요일 저녁 8시, 언론사 생방송 뉴스를 통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 시민들은 피해자가 온 몸으로 드러내는 그동안의 압박감, 불안 등을 보고 또 들으며 공감과 지지, 분노와 우려를 SNS에 쏟아냈다. 당일 늦은 밤 안희정 전 지사는 인정하며 사의를 표했고, 민주당에서는 해당자를 제명했다. 오늘은 그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다.

2. 피해자가 침묵을 깨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이유는 안희정 전 지사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멈추기 위함이었다. 피해자는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 비서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공과 사의 구분 없이 24시간을 대기하고 지시를 받아 밀접하게 수행하는 일을 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사였음은 물론, 당시 도지사이자 '차기 유력 대

권후보'로 갖고 있던 위력은 피해자의 커리어와 삶을 손쉽게 좌우할 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업무 시작 후부터 8개월 동안 수차례의 성폭력 피해가 있었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미투 운동에 동참한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걸고 용기를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미투 운동을 운운하면서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을 때,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걸고 침묵을 깨기로 한 것이다.

3. 그러나 성폭력 피해를 알린 후 하루 만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복사·붙여넣기로 카톡방, 커뮤니티 게시판, SNS에 급속도로 유포된 것은 이 사건의 특수한 모습이었다. 피해자는 자필편지를 통해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어줄 것,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했으며,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 후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에 대해 잘 모르는 채 비방성, 허위 내용과 욕설을 댓글에 단 사람들은 현재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되어 있다. “별 생각이 없이 썼다”, “다른 곳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쓴 것이고 선처를 바란다” 등의 답변을 하고 있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 이 때 유통, 유포된 바 있던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짜라시’ 형태는, 2심 이후 피고인 측의 왜곡된 짜깁기 주장 등과 계속 유포되고 있다.

4.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 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공대위는 16차례 성명발표, 전문가 간담회, 법률가 간담회, 기자회견 및 집회 개최, 1만 6천여 명 시민들의 연명 탄원서 제출, 20여 명의 전문가 의견서 제출, 시민들의 탄원서 제출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고발하고 진행하겠다’는 뜻에 따라 모든 최선을 법정 진술, 자료 제출 등에 다해왔고, 9명의 피해자 변호사들은 이를 조력해왔다. 1심 무죄 선고를 뒤집어 항소심에서는 3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5. 향후, 공대위는 항소심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는 상고심 재판에도 제출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문화에 맞서 본 사건과 관련된 2차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전형적인 ‘가해자의 변명’을 드러내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사례도 수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한다.

6. 1년 전 김지은 씨가 침묵을 깨고 위력에 맞서서 ‘성폭력’에 대한 화두를 던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새로운 1년을 시작하며 ‘성폭력 가해자 안희정은 유죄다’라는 외침을 다시 한 번 모아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오늘 저녁 8시부터 상고심의 유죄 확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발표하고 시민들의 연명을 받을 예정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란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남성권력 카르텔에 맞서 싸운 장자연씨의 죽음 10년, 그리고 110년

모두가 소모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고 장자연씨의 죽음 10주기.

고 장자연씨는 연예인 ‘성상납’에 대해 드러내는 문건을 남기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10년 전 오늘 2009년 3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성접대’나 ‘성상납’ 강요 문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면서 4개월 만에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여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이는 문건이나 참고인이 진술했던 대상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누락한 조선일보 사주 박에 대해 여성, 시민단체, 경당이 기자회견을 열자 조선일보는 참석 활동가들을 고소하여 소송은 7년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드라마 PD,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를 고인에 대한 폭행·협박, 전 매니저 유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

을 뿐입니다. 이 모든 '수사들'의 결과는 기획사 대표였던 김 모 씨만 '폭행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로 끝났습니다.

2011년 3월 6일 SBS가 특종으로 장자연씨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 50통과 여기서 언급한 리스트 31명에 대해 보도했지만, 경찰은 3월 16일 국과수 감정결과 "친필 아닌 조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론은 감정결과가 실제적 진실을 막는 것은 아니라며 특검 요구를 이어갔지만, 국회는 결의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여성단체들은 시민법정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7년말 2018년 초 검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하는 단체는 외국에서 방문한 증인의 비공개 법정 증언을 지원하는 등 해오고 있지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 어떤 '결과'를 낼 예정입니까. 또 다른 재조사 사건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상납' 사건'에 대해 경찰과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책임자가 없고 변죽만 크게 울리는 여성폭력 사건임을 확인합니다. 고 장자연씨가 살아있었을 때는 모두가 '가담자'였고, 장자연씨가 죽음으로써 폭로하자 모두가 서로를 소환할 뿐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한 여성 배우는 남성권력 카르텔에 의해 소비되고 있습니다.

남성권력 카르텔, 10년간 더 커온 한국 사회 적폐

드라마 PD,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이 엮인 '남성 카르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 왔습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은 성매매, 성폭력이 어떤 세계에서는 '문화'였음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 4월 부산지역의 J씨가 검찰과 법무부 검사 및 고위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수년에 걸쳐 접대, 향응제공 및 뇌물공여, 성매매알선 등 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여성단체는 해당 검사장과 검사를 고발하고, 법무부장관 여성부장관 등을 만나고 특검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향응 접대 의혹이 있던 10명을 징계요구했을 뿐, 단순한 친분관계였다며 법적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검찰은 대한민국 미투 운동의 첫 발생지가 되었습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에 대해 수없이 내부 감사를 제기하고, 고발했던 여성검사는 언론과 국민에게 아직도 검찰 내 카르텔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젠더 폭력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갈등도, 1:1의 진실게임도 아니며,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사회체계가 엮여 유지되는 한국사회 가장 오랫동안 병폐, 가장 뿌리깊은 적폐입니다.

경찰, 현직 판사, 공무원 등 일상의 수많은 '불법촬영'자들은 여성의 몸을 찍고, 웹하드 회사는 그것을 유통시켜 번 돈으로 정부의 4차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발안'하고,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함께 거래된 물병은 강남 클럽에서 성폭력의 도구로 중계되며, 성형외과는 브로커가 소개한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경찰은 뇌물을 공여하다가 중계업자가 되고, 강남의 변호사 업계는 고소된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고, 성폭력으로 고발된 사람들은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2차 가해를 퍼붓고 역고소를 하고, 여성들의 분노와 싸움으로 이에 대해 제재하자, 남성들은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정권'에 불만을 접수하고, 교수와 언론과 고위 정부 관계자는 '여성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남성권력 카르텔에 맞서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고 거세지만, 이를 외면하고 변명하고 가두고, 소리들리고, 막고, 여론 재판하고, 신상 털기하는 남성권력 카르텔의 힘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성평등한 세계를 향한 전 세계 여성들의 싸움, 내일도 한 걸음

내일은 110년간 전 세계에서 열리는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입니다. 전국에서 성평등을 위한, 폭력과 착취에 맞선 활동이 열립니다. 서울에서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성별임금격차 및 노동 성차별 해소를 위한 집회, 대학 내 페미니즘 백래쉬 및 탄압에 맞선 집회 및 행진, 성범죄가 유흥이 되는 강간문화에 맞선 강남 클럽 일대 행진, 2018 성평등 디딤돌 결림돌을 발표하고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성평등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싸움이 없던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100년 전 싸움으로 지금 우리가, 10년 전 싸움으로 지금 우리가, 1년 전 싸움으로 현재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과 착취를 저지하고, 젠더 편향이라는 남성주의적 질서를 고발하고,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작용과 소수자에 대한 불이익과 배제를 드러내고, 권력자에게 친화적인 법과 제도를 보편적 안전망으로 만들기 위해 막고, 하나의 사건이 잠재한 수많은 경험의 미래의 다른 표지가 되기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 단 하루도 없던 적 없는 싸움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오늘과 내일도 계속되는 현재의 폭력과, 권력과 카르텔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백래쉬와 저항은 여전히 악취를 풍기며 탄압하겠지만,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 나와 이웃들이 사는 세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UNwomen에서 발표한 젠더기반여성폭력방지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를 위한 5가지 행동입니다.

- #가해자가 문제임을 알게하라 : 젠더기반 여성폭력은 여성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 #현장에서 말하라 : 여성이 해를 당하는 것을 보거나 알게 되면 중단을 요구하라
- #문화를 바꾸라 : 여성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남성성이 새로운 남성의 기준(#NewNormal)이 되도록 문화를 바꾸라
- #피해자를 지원하라 :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에 자원봉사와 재정후원을 하라
- #문제해결을 위해 공부하라 : 차별과 불평등이 여성폭력의 근본원인임을 공부하라, 여성단체에 자료는 많다

2019년 3월 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서울터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덧붙임]

2011년 장자연 편지에 대한 보도는 SBS가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절망감이 2011년 분노로 다시 살아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1년 당시 여성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친필 메모라고 국과수가 확인한 2009년 메모로는 왜 수사를 제대로 안했냐'고 비판했고요, 2011년 여러 활동이 이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women21.or.kr/rights/4448>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남성권력 카르텔에 맞서 싸운 장자연들의 사건 연대기-----

2009년 3월 18일

故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문화미래이프, 서울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009년 3월 30일

경찰은故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녹장 수사와 뒷북 수사를 중단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라

문화미래이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없는세상이름,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09년 4월 3일

강희락 경찰청장은 불법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없는세상이름'

2009년 4월 8일

故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고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여성, 언론, 인권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1세기여성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성매매없는세상 이름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환경운동연합 경기민연 한국청년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년 4월 20일

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적반하장식 고소남발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적반하장’·‘오만방자’,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민변여성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사월혁명회, 언론소비자국민주권캠페인,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진보신당

2009년 4월 24일

故 장자연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기도경찰청은 책임을 져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09년 5월~ 故 장자연 씨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할말많은 UCC행동단>

http://blog.jinbo.net/ucc_action

2009년 5월 22일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토론회 및 선언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의전화)

2009년 6월 25일

경찰은 고 장자연 씨 죽음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언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2009년 7월 17일 6회 방길되찾기 시위 _ 고 장자연씨 사건 규탄발언과 공연, 행진

2009년 8월 21일

故 장자연 씨 죽음의 진실을 은폐, 축소한 검찰을 규탄한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2009년 11월 4일 고 장자연씨의 추모곳

침묵아사 주최, 중요무형문화재 72호 진도씻김굿 보존회 진행

2010년 4월 21일

성상납과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찰? 부끄럽다!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0년 4월 22일, 23일, 29일

‘검사의 뇌물.성매매 비리’ 진상조사 및 성매매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법무부

장관 긴급 면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10년 4월 27일

여성단체,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등 공동 고발인 57명

2010년 5월 26일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개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운영)

연예인이 기획사,제작사,스폰서 등으로부터 성접대강요, 성희롱, 성폭력, 노동권 침해 등을 당한 사례에 대해 상담과 법률 자문을 지원

2010년 6월 9일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송방망이 처벌을 권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2011년 3월 8일

故 장자연씨 사건을 재수사 하여 진실을 밝혀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의전화.

2011년 3월 16일

[故장자연씨 친필편지 관련 국과수의 발표에 대한 논평] 장자연은 살아있다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침묵을깨는아름다운사람들

2011년 6월 8일 '故 장자연 사건' 시민법정 <분노의 목소리> (홍대 걷고싶은거리)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침묵을깨는아름다운사람들

2017년 12월 27일

진실은 더 이상 은폐될 수 없다. 억울한 죽음 너머의 진실을 밝히길 촉구한다

-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2018년 1월 27일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라!”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 단체) 및

故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8년 12월 7일(금)

검찰 과거사위원회 남은 활동 기간 25일,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일동

[성명] “‘낙태죄’ 폐지!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111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낙태죄' 위한 촉구 1인 시위 100일 맞이 기자회견

2019년 3월 8일, 111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고, 범죄화 하는 형법 '낙태죄'는 여전히 남아 우리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3년, 피임법도 제대로 없던 시절부터 여성의 낙태는 범죄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법으로는 인공임신중절을 엄격하게 금지

해 놓고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가는 가족 계획 정책을 통해 경제 개발을 목표로 때에는 안전하지 못한 피임 장치를 보급하고,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임신 중절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실질적인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외면한 채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갈피 없는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몸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건강과 삶을 위협받아왔다. 이제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인구를 줄이거나, 늘리기 위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방치하고 갈피 없는 역사를 써내려온 시간을 종결해야 할 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거부한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의 인구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안에서 인공임신중절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겠다.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사유를 검사받길 요구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건강에 대한 고려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여성의 판단을 처벌하겠다는 국가에서 여성이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임신중절에 대한 비범죄화를 기초로 구체적인 의료적 보장과 사회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 곁의 수많은 동료 시민들이 이 싸움에 함께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 촉구 청원과 서명, '낙태죄' 폐지 집회 현장,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100일간의 1인 시위의 자리를 기꺼이 채워주었다.

헌법 재판소는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로 답하라. '낙태죄'가 만들어진 인권 침해의 역사를 직시하라.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낙태죄'가 국가주도의 출산 통제, 인구 관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 임신중단의 결정에 허용사유를 두지 않고 합법적으로 진료와 시술을 보장하고 있는 75개국의 사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학계, 의료계, 국제 인권 기구에서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답을 알고 있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형법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헌법 재판소의 형법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3월 8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녹색당, 민주노총,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명]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이제는 끝장내자!

성범죄 온상과 공권력 유착이라니, 검·경은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지난해 말 촉발된 ‘클럽 버닝썬 폭력 사건’이 클럽 내 성폭력, 불법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공권력과의 유착이라는 ‘버닝썬 게이트’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정준영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포렌식 업체에 ‘복원불가 확인서’를 요구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가수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됐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청탁해 무마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경찰 고위직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남성들의 강간문화, 그를 이용한 거대하고 불법적인 성산업, 이에 대한 공권력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여성들은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

클럽 버닝썬은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이어 다시 한 번 남성들의 강간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비즈니스를 위해 ‘성상납’을 자행하고, 약물강간이 횡행하며, 불법촬영물이 버젓이 소바 유통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였다. 정준영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모의·기획되고 범죄 현장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드러난 피해자만 10여명에 이를 정도로 정준영을 비롯한 대화방의 인물들은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실행하고 공유하는 범죄집단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이 범죄의 공간에 경찰이 유착되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를 ‘놀이’로, ‘유흥거리’로 치부하며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하며 폭력을 서슴치 않는 강고한 남성카르텔에 공권력 또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여성 연예인 혹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상납’에 이용하는 등 여성연예인을 착취하는 일부 연예산업과 공권력

의 유착 의혹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왜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할 수 없는지, 신고하고도 왜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지, 법치국가에서 왜 여성들이 사법시스템이 아닌 거리에서 피해를 고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성들은 이번 게이트를 통해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미투운동 속에서 여성들이 외쳤던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외침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공권력과 유착관계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각종 범죄들, 여성을 착취하는 강간문화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는 강고한 카르텔을 이제는 깨뜨려야 한다.

대규모 인력으로 내사에 착수한 경찰과 국민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와 책임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 여성을 성적 유희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하며, 이러한 범죄들을 방관하고 묵인한 남성들의 ‘강간문화’를 외면한 채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임기응변으로 변죽만 울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불법촬영물을 생산, 소비, 유통한 모든 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한 해 수 십 만 여성들의 외침으로 불법 촬영물의 소비와 유통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었다. 국가는 그 외침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버닝썬으로 시작된 범죄의 전말과 이와 관련된 카르텔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2019년 3월 1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단호한 시선] 버닝썬 게이트, 지금 짚어야 할 다섯 가지

이 사건은 특정 연예인 개인의 불법행위로만 여겨져서는 안된다. 연예인 사업가 등 재력을 가진 남성들 간에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이자 놀이이자 유흥 문화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이에 공권력이 방관, 협조함으로써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하나의 카르텔을 이루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공동의 이해를 도모한 것이다. 가해자들은 “카톡 내용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죄인 아닌가”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린 겁 니다”고 말했다. 이 문제의 근원인 ‘남성연대’에 호소하며 이해받기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 불법적인 연대에 어떠한 변명도 허용될 수 없다.

버닝썬 클럽과 경찰의 유착관계, 승리 등의 연예인과 경찰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현재 현직 경찰 총경을 비롯한 수사관들이 이와 관련해 입건 이 된 상황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고 수사 인력을 대규모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성에 대한 대책을 보이지 않는 경찰도, 김학의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검찰도 신뢰할 수 없다. 권력기관이 개입된 범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

GHB, 속칭 ‘물뽕’ 이라 불리는 이 약물은 무색·무취·무맛으로, 주변 사람은 피해자의 이상을 눈치챌 수 없지만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성폭력의 도구로 이용된다. 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약물이지만 구하기 어렵지 않다.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고, 오픈카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실제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GHB를 구할 수 있다. 당연히 “여자들이 뽕 가는 약물” 등 강간을 부추기는 마케팅이 만연하다. GHB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불법이었지만 단 한번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된 적이 없다. 식약처에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2007년에 내놓은 대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더 이상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방관할 수 없다. 단순 유통망을 잡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약물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대책까지 촘촘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골뱅이”, “물게”, “홍란”, “인형뽑기”, “물뽕”, “레이디 킬러” 모두 클럽에서 사용되는 은어들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을 이르는 말이다. 여성을 폭력 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한 은어로 그치지 않는다. 여성은 클럽 운영과 마케팅 기법으로도 이용된다. 여성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성 손님을 남성 손님이 강간할 수 있도록 약물을 사용하고, 비동의 성적 촬영물을 불법촬영하며 유포하기도 한다. 버닝썬 대표가 ‘그

런 일은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전 클럽 MD들, 클럽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클럽 산업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를 촉구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보다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등 자 신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법정싸움에 불리할까봐 하는 사과는 절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 가해자가 진심을 다해 사과해야 할 대상은 국민 이전에 피해자들이다.

2019년 3월 2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입장] 만화가 윤서인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결과 및 입장 알림

1. 지난 3월 21일 만화가 윤서인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사건 경과 및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의 입장을 전합니다.

2.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2018.02.23 |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소재로 한 컷 만화 작성, 미디어펜에 게재 |
| 2018.05.31 | 피해자측,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와 함께 만화가 윤서인, 인터넷 신문사 미디어펜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
| 2018.10.25 |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 조정에 회부 |
| 2018.12.23 | 강제 조정 |
| 2019.03.06 | 조정회부 신청 |
| 2019.03.21 | 임의조정 성립 |

3. 조정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펜은 2019. 3. 31.까지 "윤서인 작가는 2018. 2. 23.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을 그렸고, 미디어펜은 본지에 웹툰 게시를 허락하였습니다. 웹툰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미디어펜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사과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피고들은 미디어펜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사과문을 전송한다.
2. 윤서인은 2019. 3. 31.까지 "윤서인 작가는 2018. 2. 23.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을 그려 해당 웹툰이 인터넷신문 미디어펜에 게시되었습니다. 웹툰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표시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유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윤서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웹툰이나 동영상 등 여하한 방법으로도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4. 피고들은 2019. 3. 31.까지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한다.

3. 이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의 입장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공동변호인단: 이명숙, 차미경, 최수영, 하희봉)

[입장] 만화가 윤서인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손해배상 조정 결과에 부처

악의적인 2차 피해 일으킨 만화가 윤서인은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배상을 하라!

만화가 윤서인은 2018년 2월 23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한 컷 만화를 그려 미디어펜에 게재했다. 해당 한 컷 만화에는 피해자 아버지가 출소한 가해자를 피해자에게 데려와 인 사시키자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뒷모습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2차 가해자로 허위로 묘사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모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가 성폭력 사건을 조롱하는 콘텐츠를 공공연하게 퍼뜨렸다.

이 사건 웹툰이 게재된 후 만화가 윤서인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했고 게재 당일 윤서인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해 불과 9일 만에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청원인 20만 명을 돌파하였다.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지만 윤서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태가 커지고 나서야 윤서인은 이 사건 웹툰에 대해 사과하면서 천안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하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과 피해 사실 간에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 굳이 그러한 비판을 위해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과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다시 헤집고 들쭉서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만 화가의 해명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공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설령 그러한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 해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희화화하는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용 인될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과도 무관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와 함께 2018년 5월 31일 만화가 윤서인과 해 당 만화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 미디어펜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또한 위의 한컷만화 게재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 수하였다.

2019년 3월 21일, 만화가 윤서인과 인터넷 신문사 미디어펜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조정 결과가 성립되었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조정 결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하였다. 성폭 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싫은 표현"과 같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개인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문제이다.

만화가 윤서인의 피해자 비난, 조롱, 악의적 명예훼손의 오랜 행위 역시 바로잡히길 바란다. 성폭력 사건을 소재 로 삼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던 만화가와 언론사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이해받거나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상식이며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법원의 조정 결과가 윤서인의 한 컷 만화로 인해 10년 전의 피해 순간의 고통을 다시 겪어야 했 던 피해자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었기를 바란다. 윤서인과 미디어펜의 조정사항 성실한 이행 및 재발 방지를 촉구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연대하고 힘을 낼 것이다.

2019. 3. 29.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공동변호인단: 이명숙, 차미경, 최수영, 하희봉)

[선언문] ‘낙태죄폐지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폐지 이후의 세계
: 우리는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은 통제하고, 징벌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해온 역사를 종결할 것이다. 국가가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강제 낙태’와 불임시술을 강요하다가, 다시 저출산 해소라는 명목으로 임신 중지를 여성을 비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기만적인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할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들은 더 이상 요구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며,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직접 그러한 사회로 변화시켜나가고자 한다. 헌법재판소와 정부, 국회는 이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하나.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여성의 판단을 의심하고, 훼손하며, 처벌하는 사회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삶에 대한 결정은 늘 한 사회의 사회구조적인 조건들 안에서 이뤄진다.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상태, 국적, 이주상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우리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성평등 사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65년간 존치되어온 악법인 낙태죄 폐지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다.

둘. 포괄적 성교육을 보장하고 피임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다. 피임의 접근성과 성교육의 필요성이 오직 임신을 중지하는 여성을 비난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사회, 실질적인 의료접근성과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 여부가 탁상공론에만 머무르는 사회에 중지부를 찍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 중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재생산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비과학적이고 차별적 내용의 성교육을 시행하며 모두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포괄적인 성교육이 표준이 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낙인 없이 자신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건강을 보장받는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다.

셋. 약물적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여성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임신중지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은 앞장서서 안전한 임신중지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최신지견의 의료 기술에 대한 의료인 교육을 제도화하고, 약물적 유산유도제를 지금 당장 도입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약품처방과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더욱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넷.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인권 억압의 역사를 청산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은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법이었다. 그 법 아래, 국가가 나서서 특정한 생명을 선별하고, 누군가의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고,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인구만을 늘리겠다는 끔찍한 사고방식으로 자행된 수많은 국가 폭력이 존재한다.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이라는 치욕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임신중지 사유를 허락받고, 증명해야 하는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임신중지에 대한 합법화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섯.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두의 재생산권이 보장되는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 아래, 임신과 임신중지를 모든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 있게 판단하리라는 것을 사회가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사회,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제도를 통해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사회를 요구한다.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인권 존중의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다. 우리는 한 사회가 다음 세대를 재생산해나가는 과정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 사회 부정의에 대항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낙태가 죄가 되는 어제와 같은 세상에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2019년, 낙태죄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다.

2019년 3월 30일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참가자 일동

[입장]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2018년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 올렸다. 수많은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세상에 말하였고, 성폭력이 일상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밝혔다. 현행법과 판례가 피해자 인권보장,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의 역할을 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저항 유무, 과거 성이력을 묻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키고 보복성 역고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하거나 비동의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8개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해당 형법 개정안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괄 심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1.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강간죄 규정과 ‘최협의설’은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성범죄로 포괄하지 못하고 성폭력의 법적 처벌 공백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최협의설’에 근거하여 성폭력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왔다. 과거 성폭력의 보호법익을 여성의 ‘정조’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만한 여성’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여성’으로 구분했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구시대적 관행의 잔재이다. 오늘날 형법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1953)’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1995)’로 개정되었고, 대법원 판례는 성폭력의 보호법익을 ‘성적자기결정권’이라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얼마나 심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둔 ‘최협의설’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는지 세상에 알렸다. 이는 그동안 여성계가 꾸준히 ‘최협의설’을 비판하고 형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상담 분석 및 피해자 지원방안 연구(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개의 성폭력상담소의 1년간 상담일지 중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에 대한 상담 516건을 분석하여 보니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권력관계나 속임수, 가해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등의 다양한 가해자의 전략전술에 의해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한다. 이어서 보고서는 “저항하거나 저항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저항과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만 기존의 성폭력 신화 및 피해자 비난 문화에 기대어 면책받고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점에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은 악랄하고도 비열한 범죄”이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더 나쁜 경우 무고의 피의자로 의심되거나 처벌받은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대검찰청(2017:226-7)의 『범죄분석』을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성폭력 사건은 총 27,248건이 고소되었고 이 중 11,401건이 기소되어, 성폭력의 기소율은 41.8%에 불과하다. 성폭력은 신고율이 1.9%(여성가족부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 불과하여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라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현행법 규정과 ‘최협의설’에 따른 수사재판 관행이 만들어낸 성폭력의 법적 처벌 공백은 그 규모를 가능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따라서 강간죄를 개정하여 성폭력의 법적 처벌 공백을 없애고,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한 제대로 된 수사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반드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부동의 의사에 반하여/명백한 거부 의사 표

시에 반하여' 등과 같이 구성요건을 규정할 경우 다시금 성폭력 피해자에게 '얼마나 저항했는가', '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하는 화살이 돌아와 사실상 '최협의설'을 유지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의사에 반하여'로 구성요건을 규정할 경우 현행법보다 해석을 넓게 할 여지는 있으나 '상대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쟁점이 생긴다. 따라서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로 폭넓게 해석하지 않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거부 여부를 묻는 화살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동의 없이' 또는 '명백한 동의 없이' 등으로 '동의' 여부에 초점을 둔 구성요건을 두어 피의자/피고인에게 '어떻게 동의를 구하였는가', '무엇을 근거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였는가' 질문하도록 형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성폭력의 주요한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보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2017년에 일반권고 제19호를 업데이트하여 일반권고 제35호(e)에 "강간을 포함하여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온전성(integrity)에의 권리에 반하는 범죄로 특정짓고, 부부강간, 지인강간, 데이트 강간을 포함하여, 성범죄의 정의가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에 기반을 둔 강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후,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Based Violence)' 분야 7가지 권고 내용 중 첫 번째로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재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이라고 권고하기도 하였다.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이미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동의가 있었으나 폭행협박, 위계위력,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연령, 장애, 음주, 약물복용 등)를 이용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는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며, 가해자가 동의 여부를 부주의하게 판단하거나 과실로 잘못 판단한 경우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는 국제적 기준 및 권고에 맞게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구체적인 법 조항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더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처벌 공백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면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2019. 3. 30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벨벳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네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례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벨벳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례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넷 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이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들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경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전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여성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댐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폭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폭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 성가폭상담소, 하동성가폭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밀양시성가폭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공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원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총 209개 단체)

[입장] [카드뉴스] ! WARNING ! 감경을 목적으로 기부하지 마시오

어느 날 상담소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전화를 받은 활동가는 얼굴을 찌푸리고 말았는데, 대체 무슨 전화였을까요? 전화의 정체는 바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의 감경 목적 후원 전화였습니다. 사실, 감경을 목적으로 한 기부 문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성폭력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 101건 (전성협 사례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양형기준 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2017년 9월 14일 중앙지방법원 앞)을 한 바 있습니다.

“몇몇 가해자 변호사는 책까지 출판하며, 여성단체나 성폭력상담소에 후원을 해서라도 감형을 받으라고 유도하고 있다.”
-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재판부가 ‘후원/기부’만으로 감형해주는 것은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재판의 공정성과 정의와도 멀다.”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기자회견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도, 감형을 목적으로 상담소에 후원하는 가해자는 매달 5건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성폭력 가해자로 재판 중인데요.”
“감형 받으려고 후원하려고요.”*

감경을 목적으로 기부하지 마세요!

후원을 통한 감형을 고민하기 전에, 진심어린 반성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 절대 아닙니다.

가해자를 사랑하는 가족/친지/주변인이자면 진심어린 반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경요인으로 후원을 고려하지 마세요.

진심어린 사과 없는 보여주기식 후원은 재범 방지가 아닌 재범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사/로펌

범람하는 온오프 광고 규제

변호사 윤리 내부 제재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변호사 파워링크 77개? (2018.09.15. 한겨레)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2019. 4. 8.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이윤택 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오랜 관행’이 아니다. 성폭력이다.

2018년 2월 한국사회를 뒤흔든 #미투운동의 시작점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있는 고발로 2018년 9월 19일, 연극 연출가 이윤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오늘, 1심 선고 결과에 뒤이은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1심 재판 당시 피고인 이윤택은 증인으로 진술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가림막 뒤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할 때마다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고, 본인이 한 행동은 ‘오랜 관행’으로, 결코 성폭력이 아니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듯 당당하고도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에서마저 ‘오랜 관행’이었던 연기지도가 새로운 시기에 와서 ‘젊은’ 친구들에 의해 성폭력으로 명명되고 자신의 책임이 되었다며, 오히려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리고 위력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 하였다.

우리는 피고인 이윤택의 법정 진술을 통해 연극계에서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가 ‘관행’으로 묵과되었던 현실과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피고인 이윤택이 가진 ‘위력’을 다시금 직시하게 되었다. 연극 연출가 이윤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이를 수사재판과정에서 다투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총 23명이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성폭력 피해 고발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동안 연극계에서 관행으로 묵과되었던 성폭력 피해가 실제 존재하는 피해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그동안 누가 어떤 피해를 경험했는지조차 피해자들 내에서도 공유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이윤택이 가진 위력이 강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력은 피고인 이윤택을 지지하고 보호하려는 그래서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고도 피해자 편에 서지 않았던 수많은 방관자, 동조자들에 의해 관행으로, 연기지도로 둔갑되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미투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연극계 내에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성폭력 또한 이제는 성폭력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오늘의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도 연극계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성폭력임이 분명해졌다.

피고인 이윤택은 이제라도 연기지도를 핑계 삼아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하려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하기를 바란다. 자신의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멈추고 자숙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그것은 오랜 관행이 아니라 성폭력이다. 이제 우리는 피해생존자들이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가해자를 합당하게 처벌하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그래서 각계 영역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던 성폭력을 뿌리뽑고, 그것이 가능토록 사회 문화의 변화를 만들어낸 피해생존자들과 굳건히 연대하며 일상의 불평등과 성차별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4월 9일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141개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단체 : 전국성폭력상담소(130개소)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벨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

폭력상담소, 한국여성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가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 여성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성의전화 부설 가정·성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팽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외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들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평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 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모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댕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경북여성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여성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오대천구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여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여성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천안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여성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여성연대 부설 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여성상담소, 대구여성장애여성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여성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여성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여성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여성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여성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여성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미술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사)천주교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 (사)한국여성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성의전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의로운 미투 생존자들의 익명모임,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 공동변호인단(104명) 강연재, 강영훈, 고승우, 곽향기, 길인영, 김 건, 김기옥, 김동현, 김민아, 김보람, 김연진, 김영미, 김영옥, 김예나, 김용정, 김재희, 김정성, 김지현, 김태환, 김형일, 김혜경, 나지수, 노종언, 류미선, 문혜영, 박근우, 박보경, 박미혜, 박선영, 박선영, 박소현, 박순철, 박승기, 박영현, 박경현, 박진현, 박현화, 방지영, 백승재, 부성연, 서혜진, 설은주, 성기택, 신고운, 신민정, 신은영, 신지후, 신현식, 신현정, 신현호, 안귀옥, 안미영, 안미혜, 안서연, 안지희, 양정숙, 엄다솜, 오빛나라, 오지원, 윤재희, 원경주, 윤경록, 이경환, 이남주, 이득규, 이명숙, 이보람, 이소아, 이승재, 이은초, 이주경, 이지은, 이현주, 이현진, 임계란, 임유정, 장경아, 장수혁, 장윤미, 장철우, 정경옥, 정수경, 정호진, 정희경, 조현옥, 조혜인, 차미경, 차미경, 차연화, 천경아, 최경진, 최수영, 최주영, 최현희, 태지영, 하희봉, 한승미, 한주현, 현지현, 홍지혜, 황다연, 황수철, 황혜란

[입장]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회와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 여성의 존엄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다.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국가가 발전주의를 앞세워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로써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 또한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그동안 국가는 모자보건법상 허용한계를 넘는 경우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써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왔다. 이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명백한 통제이자 폭력이었다.

이러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들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과 낙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임신중단이라는 자신들의 경험을 인권의 문제로, 정치적·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낸 수많은 여성들의 외침과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여성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논의 프레임의 한계 속에서도 재생산권 보장의 관점에서 임신중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논의 구도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만들어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

한 여성들의 분투의 성과이자 여성운동의 역사적 진전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또 한걸음을 내딛는다. 이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닌,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재생산권은 성적자기결정권 및 출산의 선택권을 포함하고 그 결정에 있어서 성평등 권리까지 포함한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은 물론 공동체와 국가에게도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성연합이 지난 개헌 논의에서 재생산권을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국회와 정부는 젠더 관점의 성과 재생산 교육을 포함해 안전하게 성적 권리를 누리고 피임,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정보와 보건 의료 시스템에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관련정보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불합치라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 국가는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019년 4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입장]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입장

4월 11일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낸 날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하여 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대한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위헌결정으로 완전히 입장을 모으지 못하고 다시 입법자들에게 변화의 책임을 넘긴 것은 아쉬우나, 그럼에도 이번 결정에서 단순위헌 의견 재판관 세 명,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 네 명의 의견으로 압도적인 위헌 의견이 제시된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부여한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요구와 함께 지난 수년에 걸쳐 낙태죄 폐지를 외쳐 온 우리는, 그동안 경제개발과 인구관리의 목적에 맞추어 여성들의 몸을 통제하고 우생학적 목적에 따라 생명을 선별하며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 처벌로써 전가해 온 역사가 바로, 낙태죄의 역사임을 폭로해 왔다.

집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거리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이 없었다면 이번 결정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역사적 변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제 우리는 결코 과거와 같은 처벌의 역사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의미]

더 이상 현행 형법상의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은 유효하지 않다.

이번 결정으로 66년 만에 한국 형법상의 ‘낙태죄’는 그 의미를 상실했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허용한계를 규정해 온 모자보건법 제14조도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이 존속될 이유가 없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

였으나, 이번 결정으로서 낙태죄의 위헌성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 조항은 이후 누구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과거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 구도를 넘어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헌법재판관 세 명의 단순위헌 의견, 네 명의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모두 2012년 결정의 구도를 분명히 넘어섰다는 점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익으로 두고 이를 태아와 여성의 권리 충돌로 판단하였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그와 같은 구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의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그 대립관계는 단순하지 않다. 태아는 엄연히 모와는 별개의 생명체이지만, 모의 신체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전적으로 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중략)…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국가가 태아와 여성의 권리를 대립 구도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임신중지의 책임을 여성에게 처벌로서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한 책임을 이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 점을 정부와 국회, 사회적으로도 명확히 인식하여 임신중지의 문제를 더 이상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의 문제로 다루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야 할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달린 문제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실효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 단순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은 모두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실효성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단순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은 결정문에서

“임신한 여성이 낙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태아에 대한 애착, 태아의 생명 박탈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출산 후 양육을 담당하면서 부담해야 할 막대한 사회적/경제적/신체적/정서적 책임과 태어날 아이의 미래의 삶을 종합적으로 깊이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러한 결정은 임신한 여성이 자신과 태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중압감 속에서 자신과 태아의 미래의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고민에 기반하여 내려지므로, 그 결정의 무게에 비추어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위와 같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낙태를 처벌하는 국가에 비하여 낙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있을 뿐이다. 또한 그간의 낙태죄 처벌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입법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해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신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이 병원에서 낙태를 한 후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할 때 상대 남성이 자기낙태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낙태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고 언급함

으로써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임신중지를 예방하는 실효성은 없는 반면 성적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악용되어 온 영향이 크다고 보았다.

임신중지의 예방에 처벌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증명되어 온 바이다. 전 세계적 추이를 볼 때 임신중지를 폭넓게 합법화하거나 완전 비범죄화 한 국가에서 임신중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신중지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임신당사자가 처한 개인의 신체적, 건강상의 여건과 사회경제적 조건, 파트너와의 관계, 양육 환경 등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변화와 보장에 사회적 역량을 기울이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앞으로 임신중지의 보장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 조건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필요한 것은 성교육,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유지, 임신중지,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보장체계와 성평등의 조건을 만드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적 권리로써 분명히 확인했다.

이번 결정의 또 하나의 역사적 의미는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상에 보장된 여성의 인격권으로서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이다.

단순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아 형성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한 뒤 임신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며,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어서

“임신, 출산 및 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분명히 짚었다. 나아가,

“임신 유지 여부의 결정은 진공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그 당시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무게가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임신중단이라는 선택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여성의 삶은 황폐해지고 인격이 손상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임신한 여성의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성의 인격권의 핵심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또한 임신 유지에 관한 여성의 결정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할 자기결정권임을 확인하면서

“자기결정권의 근거이자 동시에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라는 판단으로 현행 ‘낙태죄’의 위헌성을 분명히 확인했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상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향후 정부와 국회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 정리]

- 주수는 논쟁 대상인가? 여성의 판단이 우선이다!

"한편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및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여성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그 변경가능 여부를 파악하며, 국가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의 상담과 조언을 얻어 숙고한 끝에, 만약 낙태하겠다고 결정한 경우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거쳐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7p)"

○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수에 대한 헌법적 이해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과 동시에 여성이 자신의 주변적 환경을 점검하고, 판단하고,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하게 함께 검토되었다. 임신중지라는 사건을 "시간적 사건"으로 해석한 것은 인상적인 부분이다. 여성이 임신을 인지하고,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탐색하며, 이를 숙고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며 이를 도식적으로 구분하고, 주수 간에 차등을 두는 것보다는 임신 22주 내에서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으로 제시된 임신 22주 내에서는 "특정한 사유를 국가가 지정하거나 선별하지 않고" 여성의 결정과 요청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상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헌법불합치 의견에 따르면 임신 22주까지를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의 판단과 요청이 전적으로 존중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파악한다.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은 여성과 판단과 요청을 근간으로 한 입법적 방향성을 이미 제시하고 있으며, 입법 재량은 이를 넘어설 수 없다.

"태아는 임신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발달되어 간다. 태아는 일정 시기 이후가 되면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시기는 가변적일 수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임신 22주라고 하고 있고, 산부인과 학계도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로기술과 의료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 시기 이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32-33p)"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다르지 않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터 잡아 형성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숙고한 뒤 임신의 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임신한 여성에게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자신의 몸을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8p)"

○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의 단순위헌 의견은 임신 22주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임신중지를 제한할 수 있으나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 기준을 두어 임신 22주 이후에도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요청한다. 재판관 3인의 단순위헌 의견은 임신 22주 이후에도 임신중지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인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유를 두어서 이후의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입법자들이 간과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 재판관 3인의 단순위헌의견의 여성이 자신의 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적시한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중絶에 관하여 한 전인격적인 결정은 그 자체가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되어야(30p)"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입법자들은 특정한 주수를 우선적 기준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이 임신 전 기간에서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법적 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더 이상 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다는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민사 분쟁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자신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이 병원에서 낙태를 한 후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할 때 상대 남성이 자기낙태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낙태에 대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 (22p)"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여 낙태가 증가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낙태를 처벌하는 국가에 비하여 낙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적 결과가 있을 뿐이다. 또한 그간의 낙태죄 처벌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입법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헌법불합치이견이 밝힌 것처럼 자기낙태죄 조항은 종종 헤어진 연인, 남편 등의 복수 혹은 괴롭힘의 수단이나 가사·민사 분쟁에서의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었다.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기소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위와 같은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은 낙태를 예방하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위 조항들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미미하며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대부분이 본래의 입법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등으로 형벌조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40p)."

○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영진의 헌법불합치 의견은 자기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사실상 임신을 중지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성과 함께 법적 악용의 지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형법 낙태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의 입법 재량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넘어서 수 없다.

○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의 단순위헌 의견에서 살펴본바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를 처벌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그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적으로 어떤 형벌 조항이나 형사처벌 조항은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형법적 효과를 악용되는 사례를 통해 반인권적인 법으로 기능했음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입법재량 역시 임신중지를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처벌 가능성을 탐색하는 등의 입법 방향을 채택할 수 없다.

○ 처벌의 내용과 한계를 형법적 처벌로만 한정하여서 볼 수도 없다. 상담의무제, 숙려의무제 등의 해외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의료급여제한, 벌금형 등 여성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예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반인권적인 입법 방향이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임신중지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그 내용에서 어떠한 '처벌성'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이다.

가) 낙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로서 여성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임신 한 여성의 낙태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 또한 낙태 문제에서 실질적이고 중요한 과제가 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안전한 임신중절을 시기적절하게 받는 것을 방해하는 절차적·제도적 장벽들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 낙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낙태 당시 태아의 발달 정도(임신 기간), 의료인의 숙련도, 의료 환경, 낙태 이후의 돌봄과 관리, 낙태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등이 거론된다. 낙태 비용도 낙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낙태 비용이 높을 경우 소득이 없거나 낮은 여성들이 낙태를 망설이게 되어 결국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32p).

○ 또한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재판관 3인의 단순위헌 의견 모두 임신중지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을 여성의 "건강"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의 "어떻게 임신중지를 제한하고, 절차를 만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어떻게 여성의 건강을 더욱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서구의 입법례에서 나타나는 사유의 선별, 상담의무제, 숙려의무제 등은 이미 임신중지의 실행 과정을 더욱 어렵게 하며 궁극적으로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음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간과할 수 없다.

○ 입법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적 요지는 임신을

중지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판단과 결정이며, 임신중지에서 여성의 결정이 존중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입법자들의 과제로 제시한다. 입법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에 따른 입법 방향을 가져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처벌을 담보로 한 총족조건 입법은 입법 재량을 넘어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장애,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지역적 조건, 혼인 여부, 교육 수준, 가족상태, 국적, 이주상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여성을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성평등 사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 임신 당사자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범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형법상 임신중지 처벌 조항을 전면 폐지하라.
- 빠른 시기에, 어디서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즉각 승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라. 또한 누구나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어디에서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련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라.
- 정부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장애 정책, 이주 정책, 보건 의료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의 보장, 성적 건강과 재생산 권리 보장이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라.
- 정부와 국회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과 제도,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2019. 04. 12.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21대 총선 D-365, 혐오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

선거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촉구하는 시민 선언

4월의 꽃 향기에도 혐오의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쓰듯 혐오를 피하고 싶으면 귀 닫고 눈 감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귀 닫고 눈 감아도 혐오라는 폭력은 피해를 남긴다. 게다가 선거 때가 되면 귀 닫고 눈 감을 수도 없다. 우리는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투표로 드러내고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만약 우리가 귀 닫고 눈 감아야 한다면 그것은 참정권의 부당한 제한일 뿐이다.

우리는 2018년 지방선거를 기억한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의 성차별적 발언과 동성애 비하, 보수교육감 후보를 자처하는 이들의 '동성애 반대' 공보물과 현수막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다.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로는 모두 61건의 혐오 표현 제보가 접수되었다. 동성 연인과 거리를 지나다가 "동성애는 죄이고 몰아내야" 한다는 유세를 들었고 "그 장소에 있기 곤란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신고된 혐오표현의 80.3%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한 정당의 여성 후보 포스터가 노골적으로 훼손되는 범죄도 있었다. 거침없는 혐오는 성소수자나 여성, 이주민 등이 동등한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정된다고 확신하기 어렵게 만든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시키고 차별을 조장하거나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은 소수자들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혐오의 대상으로 공격당하는 집단의 성원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지며 공론장은 결국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잔치가 될 뿐이다. 선거에서의 혐오 표현은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 선거공보물 등이 모든 국민에게 전달되고 후보들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작지 않은 등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선거라는 이유로 후보의 발언에 면죄부가 주어진다. 선거제도는 마치 후보의 자유를 지고의 가치로 보호하는 제도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시민의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위해 존재한다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후보 간 비방은 안되지만 후보가 시민을 비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모순을 그대로 둘 것인

가. 선거는 혐오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 시기 혐오표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한 제도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어렵다며 발을 뺐다. 그러나 방법이 없다면 찾아내고 제도가 없다면 만드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다. 시민들을 모욕하는 선거,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마치 시민권이 없다는 듯 공공연히 추방을 선동하는 선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 당시에는 미처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제는 더이상 그런 변명이 통할 수 없다. 1년이 남았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각 정당과 후보들이 깨닫고 폭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동성애 반대', '이주민 추방'과 같이 소수자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이 구호로 사용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수도 있다. 무엇이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때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우리 역시 선거가 혐오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혐오와 차별에 맞설 더 많은 방법을 찾아갈 것이다.

2019년 4월 15일 선언에 동참하는 70개 단체 및 355명의 사람들

[단체] 2ne1 쿼어&엘라이 모임 큐페이드/A&A/NCCK 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경기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VIK(Queer Value in Kyonggi)/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페미니즘 소모임 추진모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난민인권센터/남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QUING)/논모노플래닛/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다소니자립생활센터/대구경북치별금지법제정연대/대학·청년 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쟁가방꾼/무지개예수/문화나눔다가치/반성매매인권행동이름/부산퀴어문화축제/블랙핑크 쿼어&엘라이 모임 BLINQ/빅밴 쿼어&엘라이 모임 큐라운/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복지연구소 물결/사회적협동조합 사람아름/서강퀴어자치연대 춘추논Q/서울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SWUQ/서울인권영화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성소수자부모모임/성신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rystal/섹슈얼리티활성화연구소/신비와저항/연세대학교/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퓨터대/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위너 쿼어&엘라이 모임 rainbow circle/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인문학공동체 이음/인천대학교 성 소수자 동아리 포커스/장애여성공감/장애해방열사 단/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경태수열사추모사업회/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포혜/차별금지법제정총북연대/참교육학부모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톨립연대(준)/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포항공과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LINQ/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큐텍/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청소년청년가임인커뮤니티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홀리스행동(총 70개 단체)

[개인] 강민진(주리)/강선화/강수연/강슬기/강유민/강윤지/고은지/고차원/권명보/권수민/권수현/권영한/권유경/권지우/규민/기선/김가람/김가영/김가은/김가희/김결/김경삼/김광원/김광이/김규리/김기호/김기훈/김난/김다은/김다인/김다정/김덕자/김도진/김도현/김동우/김동윤/김만성/김문정/김민석/김민수/김민영/김민정/김민준/김병용/김보미/김보미/김성미/김성재/김수빈/김신아/김영선/김영숙/김영준/김영철/김용국/김우/김유빈/김유주/김은석/김일웅/김재왕/김재곤/김정모/김정은/김정훈/김종환/김주영/김지선/김지수/김지윤/김지현/김진수/김찬영/김태규/김현석/김현수/김형진/김희선/김희수/나영정/남기영/남정인/남준현/남혜민/노다혜/노새/노시우/달별(한소양)/대연/두인/랑희/문아경/문이채린/문채윤/문해일/문현철/미류/민들레/민선/밍/박도형/박미영/박복순/박서재/박선민/박소윤/박순화/박아름/박아름/박양희/박예휘/박우석/박유철/박의빈/박자람/박재순/박정미/박정아/박정희/박종은/박종일/박준선/박지현/박진/박진석/박찬서/박철현/박해인/박훈준/방규환/방영석/배민정/배복주/배세영/백가윤/백경재/백승주/백정민/사월/삼사라/서정현/서준익/서지원/서지현/서진석/서진원/서태성/서한솔/석옥남/석원진/선승희/선지혜/성영모/세운/세정/소성욱/소유/손민지/손순희/손하린/손혜영/송단/신동훈/신민규/신승훈/신유정/신한나/신현정/심가용/심영미/심지선/아샤/아진/안규백/안보금/안봉혜/안중선/양현지/양혜진/여름/연지/열린/염경석/영은/영주/예니/오선미/오소리/오승재/오은영/오은지/오준석/오현주/왕복근/원성민/위선영/유나/유리/유재영/유정연/유희/윤성은/윤영학/윤우/윤원정/윤화/은선/음명희/이건민/이경아/이경연/이기쁨/이다희/이도준/이동우/이동윤/이상희/이선경/이선영/이성민/이세영/이소영/이소중/이슬메/이수정/이승휘/이영/이예진/이원식/이윤경/이은경/이은심/이은영/이은재/이은정/이은정/이은진/이의섭/이정남/이정은/이종걸/이종원/이주영/이준호/이진화/이진희/이한길/이해지/이형규/이혜민/이혜영/이혜은/인경/인정/임보라/임소연/임신규/임주희/임진규/장규진/장미영/장미영/장석용/장선영/장성실/장예정/장은희/장주리/장지윤/장형석/장형진/전미연/전병영/전숙석/전재우/전지윤/전혜령/전혜연/정광수/정기완/정민서/정영숙/정영우/정우/정은애/정정아/정정행/정주연/정태영/제갈슬/조경미/조삼숙/조성빈/조세영/조윤희/조은지/조현서/조혜진/주승섭/준윤/지민/지오/진경/진성선/진소영/장구/채희창/천상진/천정남/최고은/최그린/최나은/최대식/최문수/최미숙/최민/최선린/최여름/최예슬/최완욱/최원석/최은이/최임수/최지원/최지현/최진이/최하은/최해인/최호린/크리스/트란/푸푸/피아/하정연/한성진/한수연/한주영/한지유/한지희/함정민/허준/허창영/헤만/호아/홍경욱/홍정선/황병준/황승원/황시영/황연주/황정목/황지현/황혜정

[성명] 여성의 기본권 훼손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존치시키는
정의당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한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규탄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4월 1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외 9명 (김중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추혜선 (정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바른미래당) 손혜원 (무소속))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미 천명된 여성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 이제 국회가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자평했지만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에도 한참 미달하는 법안이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해외 사례들만을 단편적으로 참고하여 형식적으로 법 개정에만 나설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형법상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이 통제해 온 인구정책과 성적 통제의 역사를 성찰하고, 성관계와 피임, 임신의 유지와 중지, 출산,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의 정책과 법·제도,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 낙인의 조건들을 검토하여 권리 보장의 틀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와 같은 검토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빠르게 ‘최초발의’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또다시 제약하는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전히 임신중지를 법의 틀에 따라 ‘제한’하고 ‘징벌’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임신 14주를 경과한 임신중지의 경우 태아의 건강, 성폭력, 근친상간, 사회·경제적 곤란함이나 임신의 유지로 인한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또다시 증명하고 허락받아야 한다. 그마저도 임신 22주 이후에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 외에는 임신 당사자가 임신 후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쳐온 개인적, 사회적 맥락을 전혀 고려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인이나 임신중지를 도운 시술자에게 과태료(의사 등 500만원, 비의료인 200만원)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취지에도 거스르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요구해 온 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여성의 임신중지에는 그 어떤 허락도 처벌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왔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특정한 주수를 우선적 기준으로 검토하는 구시대적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해 왔으며, 여성의 임신중지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건강과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입법방향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유지하면서 제한적 허용조건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제약한다는 우려 역시 밝혔다. 필요한 것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개인의 곤란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 사회·경제적 여건의 보장 방향이다. 특히, 이와 같은 방향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임신중지의 결정 시기를 놓치고, 더 열악하거나 위험한 조건에 놓이게 되는 이들은 가장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우생학적 사유’를 반드시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할 것과 유산유도제의 즉각적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그간의 우려와 요구들을 도외시한 채 정의당은 또다시 우리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법적 제약의 틀 안에 가두는 퇴보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행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한 3인의 재판관들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 기준을 두어 임신 22주 이후에도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요청했다. 또한 여성이 자신의 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적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4인의 재판관들 역시 임신 22주 내에서는 “특정한 사유를 국가가 지정하거나 선별하지 않고” 여성의 자기 결정과 요청에 기반하여 임신중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헌법상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여성의 판단과 요청을 근간으로 한 입법적 방향성을 이미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성의 결정을 제한하고 국가의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징벌하는 정의당의 발의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마저도 한참이나 후퇴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닌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장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향후 법안개정은 여성의 현실을 바탕으로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숙고하고 토론하는 사회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판결 불과 며칠 후 진보적 정당을 자임하는 정의당이 이러한 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법안을 발의한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태아생명권 대 여성결정권’이 아닌 ‘성과 재생산의 권리보장’에 대한 제대로 된 사회적 토론의 장을 만드는 역할에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했다.

이제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는 끝났다. 이 분명한 사실을 이제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역행할 수 없다! 낙태죄 폐지와 성과 재생산의 권리 보장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해온 우리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계속하여 전진할 것이다!

- 국회는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법과 제도,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제대로 된 성교육을 포함한 교육정책, 고용 및 노동정책, 가족 정책, 청소년 정책, 장애 정책, 이주 정책, 보건 의료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의 보장, 성적 건강과 재생산 권리 보장이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라.
- 빠른 시기에, 어디서나,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즉각 승인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 건강관리를 보장하라.
-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어디에서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련된 안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라.

2019년 4월 16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카드뉴스] 상담소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기자들에 의한 집단 사이버성폭력 사건' A to Z

1.기자 단톡방의 사이버 성폭력, 폭로되다

지난 4월 19일, 20일, 22일 기자들의 '정보 카톡방'에서 파생된 오픈채팅방에서 암암리에 묵인되어온 기자들의 사이버성폭력이 폭로되었다.

불법촬영 관련 기사가 뜰 때마다 영상을 재유포, 요청하거나, 성매매 업소를 추천하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조롱, 비난 등 2차 가해를 했다.

2.보도 이후, 그들의 행보

<미디어오늘>의 보도 이후, 이 사건은 어떤 국면을 맞았을까?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업로드 된 이후, 사이버성폭력이 온상이었던 '문학방'의 모체였던 '정보방'이 공중분해되었다. 왜?

'정보방' 기자들은 자기들은 되려 피해를 입었다며 몹시 억울해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정말로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을까?

'정보방'의 가입 조건은 몹시 까다롭다.

- 1) '블라인드' 앱에 직장 메일계정(언론사 계정)을 인증하고
- 2) 언론인만 들어갈 수 있는 '언론인 라운지'에 들어가
- 3) 오픈톡방 관리자가 올린 홍보글에 가입신청 댓글을 달면
- 4) 가입 신청자의 매체/부서명을 관리자가 먼저 확인한 후
- 5) 방장의 승인을 거쳐 오픈 카카오톡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문학방'은 '정보방'에서 파생된 방이다. '문학방' 가입을 위한 비밀번호도 '정보방' 내에서 공유되었다.

결국 지난 22일,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방'을 탄생시킨 '정보방' 기자들은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터뜨린 언론만 탓하고 있다.

누군가가 말했다. “** 때문에 이 고생이네.”

하지만 성폭력이 ** 때문에 발생했다고?

틀렸다. 집단의 문화가 성폭력을 용인해 온 것이다.

**이 말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인식할 기회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

3. 지금, 기자들과 언론사가 할 일

기자들과 언론사가 할 일은 이것이다.

언론인 얼굴에 먹칠한 것은 가해자들이다. 보도한 매체 탓하지 말고 반성하라!

‘기자 집단 사이버성폭력 사건’ 언론이 보도를 멈췄다. 내부 문제 덮지 말고 취재, 보도하라!

어떠한 해명도, 설명도 전무한 상황. 각 언론사는 이 사건에 대해 입장/대책을 밝혀라!

4.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

우리는 알고 있다. 모든 기자가 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이 사건은 기자들이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적 시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기자들은 지금이라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기자의 소명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2019. 4. 24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진상이 규명되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대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의 대표적인 여성인권 사안인 故 장자연씨 사건,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13개월 동안의 조사가 마무리 된다고 한다. 과거사위는 이를 심의한 뒤 검찰에 재수사 등 권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3월 힘없고 나약한 신인 여성 배우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리한 문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故 장자연씨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의혹, 외압 등 수많은 문제를 제대로 규명해야 할 사안이었다.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재수사를 촉구했고, 2018년 3월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촉구가 이어졌다.

결국 2018년 4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술접대 등 강요가 실제 있었는지와 부실수사 및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같은 해 7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본 조사를 권고했다. 9년 만에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길이 열린 대표적인 사안으로, 부실수사 문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의혹을 밝히길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만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 그동안 ‘침묵의 카르텔’에 묶여 있었던 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검찰은 문건에 있었던 언론사 대표와 중소기업 사장 등 10명을 조사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문건에 적힌 ‘술접대 강요’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였다. 장자연 씨의 동료가 당시 법정에서 원하지 않았지만 술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 술접대 강요에 대한 관련자 진술은 수사기록 곳곳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이어지고 있다.

또한 KBS의 보도(“과거사 진상조사단,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종승, 위증 혐의로 수사해야”, 4월 22일)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2019. 4. 22.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 관련 ‘위증 및 성폭력 부분 중간보고’를 진행하였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수사 권고를 의결하지 않고, 다음 달 발표하게 될 최종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상의 불법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볼 때,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게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재차 권고하고, 폭행 뿐 아니라 강요, 성폭력 피해 의혹과 관련한 위증의 점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3차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진행된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대상의 방대함이나 ‘기간이 오래된 9년 전 사건’이 아닌 수사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조사단 활동의 한계 또한 과제로 남은 문제이긴 하지만, 진상조사단이 관련자들을 불러 수차례 조사한 과정을 통해 충분히 증언의 입증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진상조사단의 ‘내부 갈등’이나 ‘증언자에 대한 신빙성 의혹 및 의심’의 보도들은 본질을 흐도하면서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2009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문제는 이미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외압과 은폐 의혹, 언론 권력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권력 외압의 문제는 제대로 다시 검토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은 어떤 문제와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해명하고 규명해야 한다.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되도록 하는 것은 공익적 행위이다. 공소시효에 얽매어 여기서 멈춘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 다시 과거사와 의문사건이 되는 잘못을 되풀이 할 수 있다. 상징적인 과거 ‘의혹’사건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범죄 행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故 장자연씨 사건은 단순히 과거사로만 남겨질 사안이 아닌 현재형 사건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대다수 관련자들이 면죄부를 받아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야말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피해자와 주변인, 증언자들까지도 현재까지 고통받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인권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故 장자연씨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남성권력 카르텔에 의해 유지되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인 가해자들의 실체를 밝혀 제대로 처벌하는 과정이고,故 장자연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공정과 정의를 이루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한번 진상조사단 활동결과에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내용이 담길길 기대하고 과거사위는故 장자연씨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여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할 것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 재발방지 등에 대한 확실한 권고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9년 5월 13일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새울터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센터[보다]), 한국여성의전화(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명] 우리는 더 이상 우연히 살아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한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째인 오늘, 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여성들을 추모하며 우리 사회를 돌아본다.

만 19세 이상 여성의 최소 21.3%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고, 49.2%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데이트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여성의 61.6%가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사회, 여성 10명 중 3명이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사회, 한 해 동안 최소 85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회, 흉악 강력범죄의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4.6%에 달하는 사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은 여성들이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남역엔 연일 추모 물결이 이어졌고, 이후 여성들은 더 이상의 혐오와 차별,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며 ‘#00게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2018년의 미투 운동으로 각계각층의 성폭력, 불법촬영 및 편파수사, 성별임금격차 등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성폭력과 성차별을 고발하였다. 치안 수준이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는 한국에서, 여성들이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강남역이었다.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직후 수사기관과 국가는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며 사건의 본질을 외면했고, 여전히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각종 법안이 쏟아졌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여성들의 말하기’로 고발된 가해자는 수십,

수백 명에 이르지만, 몇몇을 제외하고 이들의 처벌 여부는 제대로 밝혀진 바 없다. 언론은 여전히 여성들의 피해 경험을 선정적으로 소비하거나, 가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침묵은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우연히 살아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한다. 너무도 당연한 권리를 찾기까지 여성들은 얼마나 더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성별을 이유로 한 죽음과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세상, 성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05.17.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통계출처: 2013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6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여성가족부),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한국여성의전화, 2016), 분노의 게이지(한국여성의전화, 2017), 2018 범죄분석(대검찰청, 2018)

[성명] <20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선언문>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과 안전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새로운 나라에 혐오가 설 자리는 없다. 지난 2017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촛불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는 현실에서 기대와 열망, 결의를 담은 선언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물음을 던진다. 성소수자는 현재 어떤 사회를 살고 있는가.

누구나 차별과 혐오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는 균형법 제92조의6 추행죄가 존재하고, 자금심을 드러내는 축제의 장면이 혐오에 의해 훼손되며, 성소수자, HIV/AIDS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공론장에서 퍼지는 현실 앞에서 성소수자의 안전한 삶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혐오를 선동해온 반성소수자 단체들, 그리고 NAP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인권조례를 개악, 폐지하며 게이 커뮤니티의 역사성을 지우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등 혐오를 묵인 내지 조장한 국가와 지자체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안전이라는 가치가 성별이분법을 공고히 하고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를 배제하는 혐오의 언어로 왜곡되는 것마저 마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혐오와 차별의 현실 속에서도, 점점 더 많은 성소수자들이 저항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20년 전 서울에서 시작된 퀴어문화축제는 이제 전국 각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고 다양한 정체성, 의제별 운동단위들이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있으며, 폭넓은 연대를 통해 성소수자 운동은 시민사회의 확고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성소수자들은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부당한 위협에 맞서 권리를 쟁취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해가고 있다.

그렇기에 5월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모인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부수기 위해 더 많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안전이 아닌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의 평등과 안전의 가치를 함께 확인하고 확장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다짐을 담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모든 사람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성특징 등에 무관하게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우리 모두는 위협을 알고 이에 맞서 행동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들이다.

하나, 평등이야말로 안전의 기초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안전을 이유로 성소수자, HIV감염인 등 소수자를 문제로 지목하고 배제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며, 평등이야말로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길임을 재차 강조한다.

하나, 국가와 지자체는 평등과 안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균형법 추행죄의 폐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증오범죄, 젠더폭력의 근절, 성소수자의 교육, 건강, 노동권 등의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밤하늘을 무지개언하수로 수놓으며 행진을 시작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무지개빛으로 밝혀진 밤하늘처럼, 평등과 안전이 빛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끝없는 실천을 지속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자.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과 안전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2019. 5. 17. 20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총 24단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 성적소수 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언니네트워킹,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땃동,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총 24단위)

단체(총 116개 단체)

2ne1 쿼어&엘라이 팬 연합 큐페이드, GALAXY, HAFS Spectrum, KAIST 이클, 가죽구성권연구소, 가톨릭관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 관성, 건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여기저기, 경기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큐빅, 경남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경성대 페미니즘 동아리 파워페미니즘, 경희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아쿠아리움,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페미니즘 소모임 추진모임, 고려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민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Rookie, 남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UING, 녹색당 소수자인권특위, 녹색당 여성특위, 노모노플래닛,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소니자립생활센터,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성소수자 모임 아롱다롱, 답쟁이, 대전녹색당,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인권Q (의대협 인권Q),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덕성여자대학교 성소수자소모임 Be.B, 동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쿨, 동덕여대 성소수자 인권모임 코트캔디, 드림킹스소년소녀합창단, 미래당, 미래당(우리미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중당 인권위원회, 바나나몽키스퍼너,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백설기, 보건의료학생 매듭, 부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용사길드, 부산대 비거니즘 모임 비모, 부산반빈곤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서강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서강퀴어자치연대 촛불은Q,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큰따옴표,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SWUQ,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인권동아리 Knock on the Q,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스가르드,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쿼어홀릭, 성소수자 인권단체 무지개려레,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신여자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rystal,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섹슈얼리티활성화연구소, 소금보다 후추, 숙명대학 성소수자 인권모임 무럭무럭, 속명여대 쿼어모임 쿼웃, 안산 정의당,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AYYU, 에브리마인드 심리상담센터,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유비쿼, 이은자,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포커스, 인천애니멀메이트, 인천인권영화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모임 AIQU, 일렉트로닉 레이블 LetzRatz, 정의당,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정의당 교통동호회 - 정가다,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안산시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섹슈얼리티 연구소 숨,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선대 페미니즘 동아리 여인, 중앙대학교 성소수자모임 레인보우피쉬,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총복연대, 청년정당 미래당(우리미래), 청년지식공동체 청년담론, 충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강충강충,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대학교 성소수자 별별행동 2:30, 쿼어여성세이이 렛세이, 크리스찬퀴어단체 라온하계, 톨립들과 고목나무,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 포항공과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LINQ, 한국기독교육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큐택, 한국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경의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홍익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흥대인비하하는사랑

개인(총 438명)

148, 2A, ceaweed, Charlotte, Jamie, Jinu Konda Kim, Marina Otsu, MIN_GYU, Mr. OK, SATTVA, Sean, 감자, 강민진 (쥬리), 강병재, 강수경, 강예지, 강희성, 거니, 경희대 언론정보 영화비평학회 20기 기장 유승재, 고광현, 고상균, 고재필, 곽선우, 곽태림, 권수경, 권수현, 권은숙, 권이민수, 권창섭, 규민, 금경연, 기선, 기종민, 김경주, 김관필, 김광백, 김광석, 김기영, 김기훈, 김나루, 김나현, 김난, 김다연, 김대연, 김대현, 김도영, 김도하, 김동건, 김로사, 김명희, 김모도, 김모은, 김미정, 김민수, 김민수, 김민숙, 김민아, 김병철, 김상아, 김선일, 김선주, 김성록, 김소연, 김소연, 김소유, 김소희, 김수정, 김승섭, 김시운, 김시원, 김영민, 김용진, 김윤희, 김이음, 김재석, 김경범, 김경빈, 김정은, 김정영, 김경혜, 김주영, 김주영, 김주원, 김준범, 김준태, 김지림, 김지영, 김지우, 김지윤, 김지혜, 김진옥, 김태사, 김하나, 김하나, 김하정, 김한울, 김해주, 김한미, 김현주, 김호영, 김효주, 김훈녕, 꼬개, 나경, 나원영, 나카노 카즈미, 남궁식, 남기윤, 남웅, 남준규, 네로, 노정희, 녹차얀, 닛, 니니, 니모, 다영, 다은, 담, 대운, 도라, 도터, 돌배, 동백, 두인, 띠나, 라라, 라온, 랑희, 레고, 루카, 류은결, 류텐, 리안, 릴리안느, 마루, 말랑, 먼지, 모래성, 목소, 문상훈, 뭉렐, 민영, 민철식, 바다, 박규민, 박보은, 박상희, 박신희, 박세미, 박순, 박시경, 박시경, 박예리, 박예희, 박유빈, 박윤철, 박정원, 박준용, 박찬서, 박혜은, 박과공, 박미나(들소), 배민주, 백소윤, 백승목, 백조연, 바세, 버드, 베일리, 보통, 비비새시, 비비안, 빈, 빈즈, 빌리, 상지인, 새벽, 서보금, 서태성, 서한솔, 선승희, 선아, 섬, 세운, 소란, 소리예신, 소혜연, 손승호, 손유미, 손정민, 송지현, 송하정, 수림, 수영, 수현, 술라, 스님, 스머프, 스카이워커, 술아, 시나, 시은, 시민연대 함께, 시안, 시은, 시진, 신나리, 신동현, 신동환, 신동훈, 신우리, 신유정, 신은영, 신해관, 심기용, 심재홍, 선, 아가토, 아민, 아진, 아현, 안선민, 안주영, 안지민, 아웅, 양석진, 양우주, 양은오, 양준호, 예디, 예밀리, 엔진, 여수진, 연수, 연예은, 열종, 예윤해, 예정, 오소리, 오수환, 오유경, 오진주, 용자, 우영, 유경, 유경숙, 유기태, 유서현, 유세영, 유자, 유준현, 유지우, 유지원, 유철수, 윤리, 윤선미, 윤수진, 윤은옥, 윤정옥, 윤지희, 윤하영, 윤하나, 은설, 이규원, 이나선, 이리, 이미진, 이삭, 이상문, 이상민, 이상아, 이상은, 이서누, 이서영, 이선영, 이성규, 이성원(미묘), 이성주, 이슬기, 이승현, 이예슬, 이예은, 이예진, 이용림, 이유민, 이유진, 이유진, 이인철, 이자람, 이장영, 이재우, 이종걸, 이종민, 이종수, 이종원, 이지수, 이지연, 이지하, 이진희, 이하린, 이현규, 이현정, 이혜연, 이호림, 이희훈, 이희운, 임보라, 임종숙, 임준희, 임지영, 임지영, 임형택, 임호빈, 잇을, 장길만, 장문익, 장창영, 장종인, 장형석, 전경이, 전나환, 전솔기, 전지윤, 전혜은, 전효영, 정경재, 정근와, 정다루, 정미영, 정민우, 정상인, 정상광, 정수인, 정양희, 정예진, 정와, 정우, 정유선, 정유진, 정은숙, 정의당 이지은, 정재연, 정주원, 정호용, 제갈삼, 제이스, 제이크, 조경래, 조경미, 조문주, 조미연, 조미연, 조성순, 조성연, 조수미, 조수하, 조이, 조지영, 조창성, 조태준, 조현철, 조형기, 주창욱, 준서,

지민, 지오, 진남, 진보경, 진솔, 찰리, 창구, 채영, 채윤주, 채리, 페퍼, 최도영, 최두순, 최명선, 최서윤, 최승환, 최신영, 최영현, 최원석, 최원석, 최윤석, 최이루, 최이형순, 최재원, 최지윤, 최한솔, 최효재, 추경호, 칠성, 카페리, 캔디.D, 케빈, 코스모스 슈퍼스타, 코이즈, 콘딕, 클라, 키크라, 토리, 톰, 편주현, 하루고을, 하윤수, 하정은, 하진권, 한예선, 한유림, 한준희, 한지우, 한채윤, 함지혜, 해경, 허재연, 현수, 현승민, 현용주, 현주, 형섭, 해만, 해진, 호두, 홍기욱, 홍대림, 홍예진, 홍원기, 황승원, 황연주, 황지유, 황혜주, 후니, 휘귀, 혼,

**[논평] 대만, 동성결혼제도 시행 1일차 사랑이 이깁니다.
모든 이의 차별 없는 사랑을 응원합니다.**

대만, 동성결혼제도 시행 1일차
사랑이 이깁니다.
모든 이의 차별 없는 사랑을 응원합니다.

2019.05.2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수사의 위법성은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과거사 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규탄한다

어제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송치 죄명에만 국한된 부실수사, 봐주기수사를 하였고,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지목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권고 했으며, 원주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 파악,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 '일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검찰 출신의 주요 가해자와 조직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은폐한 검찰권 남용 사안이다. 여기 모인 여성·시민 사회단체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함께하며 사건의 본질이 성폭력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조사팀을 변경하고, 제대로 된 조사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을 이끌어낸 것은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성폭력 범죄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고 간절한 목소리 덕분이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성인자 감수성 차원에서 여성들이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무색하게도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결과에서 성인자 감수성은 찾아볼 수 없다.

당시 수사의 위법성은 '성범죄'만 수사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과거사 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경찰이 송치 의견을 낸 '성범죄 혐의'에만 국한된 부실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이다. 그러나 송치 의견을 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점임을 과거사 위원회는 간과하고 있다.

과거사 위원회가 밝혔듯이 당시 검찰은 윤중천, 김학의와 여성들을 대결 구도로 몰아 피해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김학의 등에 대해 혐의 없다는 결론을 쉽게 만들어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서로를 탄핵하는 진술을 하게 유도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들을 추가로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들은 자신의 진술이 왜곡되어 다른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자신이 제출한 증거가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데 쓰일지

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조사에 임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과거사 위원회는 ‘여성들의 진술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사정을 부각하는 데만 진력하여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기에는 이와 반대되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 및 진술 증거가 있었다’고 하여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또한, 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동일한 가해자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짜 성폭력 피해자 찾기’를 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 혐의를 너무 쉽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 위원회 심의 결과에 언급된 성폭력 피해 여성 3명 중 진상조사단이 실제 조사를 한 피해자는 1명에 불과하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했던 수사의 기록 외에 과연 무엇을 추가로 조사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인가.

과거사 위원회는 당시 검찰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어쩌서 스스로는 왜곡된 검찰의 수사기록만으로 ‘무고’를 운운하는 심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과인가.

수많은 가해자가 존재하지만,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

원주별장에서는 ‘성접대’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성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수없이 저질러졌으며, 이에 가담한 사람은 김학의, 윤중천뿐이 아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명시적으로 밝힌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 외에도, 대학교수, 유명 화가, 호텔 사장, 건설업자, 대기업 회장, 고급 호텔 사장, 대형병원 원장 등 수 많은 권력층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이들 중 그 누구도 처벌받은 사람은 없으며, 특별 수사단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그들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는 여전히 김학의, 윤중천, 단 두 명뿐이다.

누구의 경험과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번 과거사 위원회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식에 따라 성폭력 범죄가 완전히 왜곡되고 은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를 무혐의 처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검찰이 선택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피해자의 진술이 곧잘 유일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 수사에 있어 수사 기관의 ‘의도’와 ‘인식’에 따라 성폭력 범죄가 얼마나 쉽게 왜곡, 은폐될 수 있는가를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성접대’와 ‘성폭력’을 구분할 수 있다는, 구분해내고야 말겠다는 과거사 위원회를 위시한 우리 사회의 기만을 확인했다. ‘원주별장’은 누군가에게는 각자의 이익을 좇아 ‘향응’을 제공받고, ‘유흥’을 즐기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강간, 폭행, 협박, 위협, 강요, 약물 피해, 불법 촬영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었으며, 철저히 ‘물화’되고 인권이 말살되는 공간이었으며, 이름이 아닌 ‘성기’와 ‘숫자’로 불리는 공간이었다. 누구의 경험과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겠는가.

검찰은 잘못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가

부실수사, 봐주기수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사람도, 사과를 권하는 사람도 없다. 기나긴 시간 동안 공권력을 믿고 협조해온 피해자가 들은 소리라고는 ‘진짜 피해자’를 잘 가려내라고 수사를 촉구했다는 사실뿐이다.

“왜 나는 계속 ‘시작’만 해야 하나요?”

2013년, 2014년 2차례 불기소 처분을 지나 2018년 초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진상조사단 조사팀의 문제적인 조사 태도로 인해 조사팀이 변경되면서 피해자가 한 말이다. 요란했던 과거사 위원회는 알맹이 없이 종료되었고, 공은 다시 검찰 특별수사단으로 넘어갔다. 피해자는 또다시 ‘시작’ 앞에 섰다. 검찰은 피해자의 또 다른 ‘시작’에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검찰은 잘못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가. 아니, 잘

못을 인정할 능력이 있는가. 검찰은 성폭력 피해를 공권력이 구제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에 대답할 능력이 있는가.

검찰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로에 있다. 검찰은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앞으로의 검찰의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본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5월 30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여성,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동주최: 총 698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꽃페미액션,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수원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새움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울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울산여성회,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총19개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인권중심사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실태협의회(32개소), 정의당 여성위원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함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39개 단체)

[공지] 이회호 선생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회호 선생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당신은 성평등, 민주주의, 평화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역사를 새롭게 쓰셨습니다. 고단하셨지만 의미있는 삶을 펼쳐주셔서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걸음을 이어 페미니즘을 말하고 실천하며 세상을 저희들이 함께 더 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히 쉬소서.

2019. 6. 11.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회호 선생님 살아오신 길 관련 기사 _

[이회호 여사 별세] 여성운동가로 민주화 투사로, 평화 전도사로 신산한 삶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97363.html

[성명]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위력 성폭력은 유죄다!

미투운동이 일어난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흔들렸다. 성폭력이 법과 제도로 금지되고 정기적 예방교육이 체계화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력구조는 자신만의 형태로 따리를 틀고, 위계와 운영방식을 활용하여 취약한 자에게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가하고, 책임을 개인화하고 감추어왔다. 미투 증언자들이 용기있게

고발한 것은 특정인의 '성스캔들'이 아니며, 은밀하고 개인적인 피해도 아니다. 증언자들은 각 소속 영역에서 노동권, 안전권, 평등권, 참여권, 학습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고 권력이 제한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7년 7월 출근 한 지 한달이 안된 비서에게 외국 출장지에서 처음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8개월에 걸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총 10건의 행위로 기소되었고, 2심에서 9건의 행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 되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논의해왔다. 1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위력'의 문제를 인식했다.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 제정당시부터 있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단계별로 판단 지연하여 권력의 행사를 희석하고 증발시켰다. 또한 피해자의 표정과 동작을 단위별로 쪼개어 '행실'로 도마에 올려 평가하고, 결국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주는 '피해자다움' 기준을 실시하여, 오래된 피해자다움 잣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실은 왜 질문되지 않는지 목소리가 높았으며, 결국 피고인이 진술했고 그 결과 유죄가 선고되었다.

재임 시절 인권의식 있고, 젠더의식 있는 대안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던 안희정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던 2018년 3월 6일로부터 한참 멀어져, 현재 우리 사회가 하나씩 힘겹게 쌓아올린 안전망의 원칙과 절차를 넘 어뜨리고 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 판사 출신, 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그들은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여전히 의견서를 내고 집중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은 1심 때부터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없는 상상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름이 뜨고 임신을 표제로 건 가짜 뉴스 영상들이 올라와 10만뷰를 찍으면 사라지는 등 돈벌이도 횡행한다. 인권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만들어 낸 현대의 2차 가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흐름을 구시대적으로, 해악적으로 휘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위력에 대해 설시해왔고, 성폭력 행위에서 폭행 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을 넓혀왔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피고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요구를 판례로 만들어왔다. 우리는 취약한 몸과 존재들이 요구하는 위계, 폭력, 권력 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의 법의 취지를 살펴 판결로써 확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한다. 더불어 위력을 일으켜 뒤끝과 보복과 전 직원과 그의 조력자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전 정치인 안희정과 그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라.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불륜(不倫)이다.

2019년 6월 18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논평]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은 여성착취를 바탕으로 한 권력층과 공권력의 비리와 부패이다!

성매매알선, 약물강간, 마약, 경찰유착, 뇌물, 탈세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었던 클럽 '버닝썬 게이트'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핵심인물인 승리를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로, 윤모 총경의 유착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6월 25일 일괄 송치함으로써 일단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미 중간수사 결과에서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각종 범죄와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경찰의 명운이 다했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경찰의 대대적인 인력과 오랜 기간의 수사치고는 문제의 핵심을 비껴 간 초라한 결과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 이후에야 YG 기획사 양현석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극장 수사와 꼬리자르기에 급급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수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이 이 거대한 비리 게이트에 동원되고 착취된 여성 17명을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경각 처벌해야 할 세력에게 봐주기로 일관하고 핵심 성매매알선의 피해자로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처벌하여 입을 막겠다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규탄한다!

'버닝썬 게이트'는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불법적 사업 수익을 위해 여성을 매수하고, 접대에 동원하고, 착취하고, 경찰 공권력이 이를 눈감아주고 비호하기까지 한 사건이다. 그 핵심은 경찰 등 공권력의 유착비리와 악물강간, 여성착취에 기반한 성산업 구조다.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범죄집단의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이용된 여성들로 동의나 자발성과 상관없는 성착취 피해자이다. 여성들의 진술이 이 파렴치한 성산업착취구조의 카르텔을 파헤치는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수사결과라니 실로 놀라울 뿐이다.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강간 카르텔 유착수사와 '버닝썬 게이트'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버닝썬 게이트'로 표면화된 뿌리 깊은 여성착취산업, 남성강간카르텔에 저항해 왔다. 가출 청소년, 악물 강간 피해자, '성접대'에 동원된 성착취 피해자 등 이 모든 여성들에 대한 착취와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알선자, 구매자, 유착경찰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버닝썬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 여성착취산업의 몸통을 해체하고 유착비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경찰수사의 결과가 결국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과 드러난 몸통의 극히 일부만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강남의 유흥업소는 오랫동안 거대한 알선체계로 여성을 착취하고 '성접대'에 동원하기까지 해왔다. 거기에 자본과 권력을 행사하는 성구매자들은 일상적으로 여성을 거래하고, 착취하고, 강간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강남 유흥업소에서 벌어지는 온갖 범죄와 착취행위를 방치하면서 유착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경찰은 자신의 명운을 17명의 가장 취약하고 착취에 내몰린 '접대에 동원된' 여성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강력 항의하며 이들을 견제할 공권력에도 그 책임을 묻는다.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어떻게 행사될지 법원과 정치권이 어떤 주문을 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성착취를 바탕으로 부당한 불법적 이득을 취해 거대 권력층이 된 집단, 성착취 조직과 유착되어 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공권력, '버닝썬 게이트'의 실체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청이다. 더 늦기 전에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2019년 6월27일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기독교여성회/대구여성회/대전여성회/부산성폭력상담소/새움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수원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울산여성회/제주여성회/제주여성인권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천안여성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학자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함께하는주부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대구여성인권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수원여성의전화/새움터/대전여성인권티움/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인천인권희망강강술래/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제주여성인권연대/여성인권센터[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입장]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 전체 71.4%

: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 2019.1-3. 상담사례 분석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2차 의견서]

1.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폭력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아닌 지위와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2.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하고,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28.6%(2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신고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고, 현행 수사·재판기관에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해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로 처벌 가능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28.6%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3. 현재 국회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로 변경하거나 비동의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개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208개의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여 성폭력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행위수단 | 장애인 | 비장애인 | | | 미상 | 합계 |
|--------------------|------------|----------------|-----------------|----------------|-----------|-------------|
| | | 성인 (19~64세) | 미성년자 (19세미만) | 고령자 (65세이상) | | |
| 직접적 폭행·협박 있음 | 82 (26.0) | 165 (31.6) | 40 (23.7) | 3 (37.5) | 5 (31.2) | 295 (28.6) |
| 직접적 폭행·협박 없음 | 233 (73.9) | 357 (68.4) | 129 (76.4) | 5 (62.5) | 11 (68.7) | 735 (71.4) |
| 합계 | 315 (100) | 522 (100) | 169 (100) | 8 (100) | 16 (100) | 1,030 (100) |

4. 현행 형법상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성폭력 행위 당시에 가해자가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 당시에 가해자가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사례는 전체 사례 중 28.6%에 지나지 않았다. 20세에서 64세인 성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각각 31.6%, 37.5%였으나,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각각 23.7%, 26.0%로,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한 성폭력 사례의 비율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다.

5. 성폭력 행위 당시에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던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는 전체 사례 중 무려 71.4%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담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로, 가해자가 성폭력 행위 당시에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저항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다. 상습적으로 신체적인 위협을 가해온 남자친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입원 중에 의료인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여행지에서 가이드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담사례에 의하면,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힘 또는 권력의 차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 상습적인 학대에 노출된 경험 등에 따라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둘째로, 가해자가 성폭력 행위 당시에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다.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일 때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록 준강간죄 등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구성요건은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준하는 매우 협소한 경우에만 성립이 인정되고 있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성폭력 상담사례 중 대부분은 준강간죄 등으로 포섭될 수 없다.

6. 가장 최근의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성폭력 상담사례가 전체 사례 중 71.4%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 형법상 강간죄 등 성폭력 법률로는 이러한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할 수 없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중 대부분이 한국의 현재 법률에서는 처벌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없이” 또는 “명백한 동의 없이” 등으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 전반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8.3.9.)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며 세계적 흐름이다.

7. 독일이나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또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를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 개념으로 변경하였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강간죄로 규정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을 피해자의 동의 없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입법 변화를 고려하여 형법상 강간죄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는 한국의 법 현실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8.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 2005년에 결성된 <여성인권법연대>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 없는 성적 행동 등” 죄로 규정하고 성폭력 관련 법률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2007년 형법 개정안」을 제안해 임종인의원이 발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8개의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2019. 07. 09.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8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보도자료] 왜 여성 일자리를 공격하는가? : 톨게이트 요금수납 여성노동자
정규직전환 투쟁 지지와 연대를 위한 여성/여성노동자 합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한국도로공사에서 대량 해고된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도 과거에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 3213번. ‘수금 및 관련 사무원’으로 분류되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은 1998년 정리해고법으로 점차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2007년 파견법 제정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직종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의 구조조정에 이어 2009년 이명박 정권 시절에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전원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어, 현재 각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354개 외주업체에 6500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인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외주화 시킨 이유는 2년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기에 고용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었고 우리는 믿었으나,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겠다고 말을 바꾸었다. 이에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2013년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 529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도 있고 대법원 판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법원에서조차 부당하게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의 지위를 원래대로 복귀하라고 했으나, 도로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자회사 전환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하루 아침에 이를 거부한 1500명을 해고해 버리고, 이낙연 총리는 공공기관 지정 운운하며 해고된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있다.

우리 여성들이 해고된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는 이유는 지금의 투쟁이 이전의 정권과 다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저항하는 것이며, 동시에 현 시기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바꾸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2007년 파견법 제정으로 파견 가능한 업종을 명시하면서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음식조리, 소매 판매, 보험영업, 정규교육 이외 준 교육 전문가, 개인정보 취급, 간병, 보육 등 개인 보호, 전화 판매, 건물 청소, 창작 및 공연 예술... 연령과 학력에 구분 없이 여성들이 주로 하던 일자리 대부분은 파견 허용 업종이 되었고, 비정규직이 된 여성일자리의 고용불안은 여성일자리의 특징이 되었다.

또한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여성의 저임금을 낳았다.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비교가 가능한 정규직도, 남성도 부족하기에 근기법이 보장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임금 인상 효과도 없이 매년 최저임금만큼만 유지되고 있다. 100대 64,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임금격차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이 사회에 살아가는 여성시민으로서 절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희망적인 투쟁의 경험이 있다. 지난 7월 1일. 홈플러스에서는 무기계약직 사원 1만4천283명을 정규직으로 발령함으로써 전체 임직원 2만3천여명 중 99%인 2만2천900여명이 정규직이 됐다. 홈플러스의 정규직 전환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경영진의 결단이 아니다. 2007년,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비정규직이 된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지난한 투쟁과 노조 조직화로 12년이 지나 전원 정규직 전환이라는 결실을 만들어 낸 것이다. 2007년 이후 이랜드 투쟁은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상징이 되어 ‘여성은 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사회적으로 던졌다면, 지금시기 해고된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무늬만 정규직. 온갖 꼼수를 부리는 문재인 정부와 기업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을 여성들의 투쟁으로 돌파하는. 여성이 시작하고 여성이 끝을 내는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미투 위드유 운동으로 자매애를 다지며 투쟁해 왔다. 이제 그 투쟁은 페이 미투, 평등한 일터를 향한 투쟁으로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해고자가 되어 거리로 나온 1500명 한국도로공사 소속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그들 대부분은 여성이다. 때로는 어머니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여겨지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강요받았지만 이제 그 굴레를 스스로 깨트릴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이름을 당당하게 되찾고 정규직 전환, 저임금 타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미투 운동을 통해 바꾸고자 싶어 했던 성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일터를 향한 사회로의 큰 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성, 여성노동자들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완전한 정규직 쟁취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며 또다른 위드유 운동으로 연대의 힘을 키워나갈 것을 알리는 바이다.

- 자회사 필요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 고용 이행하라
- 청와대가 주범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도로공사 뒤에 숨지 말고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켜라
- 왜 여성 일자리를 공격하는가? 양질의 여성일자리 여성들이 쟁취하자
- 자회사, 공공기관 지정 필요 없다. 직접 고용 쟁취하자
- 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페이 미투(평등 임금)다. 직접 고용 쟁취하자

2019년 7월 11일 여성/여성노동자 합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1] : 여성 비정규직 양산하는 성차별적 조치는 미투에 대한 역행이다 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노동은 비정규, 성희롱은 정규. 여성들의 노동은 비정규이지만, 여성에 대한 직장내성희롱은 정상적인 질서처럼 공고하게 퍼져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집담회 제목이었습니다.

집담회 패널로 모셨던 여성 노동자는 직장의 권력 구조가 성폭력의 구조임을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에는 관심이 없는 원청 임원 출신인 남성 사장, 원청에서 온 소수의 남성 정규직 관리자 그리고 다수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계 구조. 성별화되어 있는 이 위계 구조에서 소수의 남성 관리자들이 관리와 통제의 이름으로 인권침해와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간접 고용과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지위는 회식자리에서 동료를 성희롱하는 남성 관리자에게 ‘그만하시라’고 대응 했을 때 모욕과 보복성 괴롭힘을 겪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문제해결에 적

극적으로 나서자 고용미승계 라는 합법적인 형태의, 사실상의 해고를 당해야하는 이유였습니다.

노동은 비정규, 성희롱은 정규 집담회 패널로 모셨었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미고용승계에 맞서 4년 1개월간 싸운 끝에 복직했다는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눈 것도 잠시, 한국도로공사는 '간접 고용 형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은 시대를 거둬갈수록 악화되어 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였지만 현재 354개 외주업체에 6500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3년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도로공사에 소속된 노동자가 맞다는 사실이 1심, 2심에서 확인되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무색하게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모순적인 입장에 기대어 '직접고용의 방법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근거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과 톨게이트를 점차 없애는 스마트톨링이 국정 과제로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외주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원청의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고,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은퇴한 남성 임원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정관예우를 통해 유지되는 자회사, 그 자회사의 정규직 수납원이 되라(간접고용 노동자가 되어라)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실상이었습니까? 이낙연 총리는 "(도로공사) 자회사는 종전보다 임금을 평균 30% 인상하고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등 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만적인 말장난일 뿐입니다.

미투 운동의 많은 목소리들은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남성 상사, 사장, 관리자였고, 피해자들은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 수습사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상사의 평가에 따라 재계약, 정규직 전환과 같은 안정적으로 조직에서 살아남는 문제가 달려있었고 이 취약성을 가해자는 이용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여성이 '성폭력을 말할 권리' '안전하게 문제제기할 권리' '정의롭게 문제해결할 권리' 역시 보장될 수 없습니다. 여성노동자의 지위가 열악할 때, 침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는 계속됩니다. 회사가 여성 노동자 간접 고용을 통해 유지하는 이익은 단지 회사의 경제적인 이익 뿐만 아니라 공고한 남성연대의 유지에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비용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의 지위를 악화시키는 시도들은 결과적으로 남성중심적 경제 권력을 공고하게 만드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 비용 절감이 성차별과 성폭력의 토대였습니다.

미투 이후, 성폭력은 권력관계의 문제이며 성별권력관계가 변화해야 한다고 외쳐왔고 정부는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여성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퇴행과 역행에 비추어 볼 때 정부도 공공기관도 성폭력, 성차별, 성평등에 대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악화시키는 역사는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노동자들의 미투에 제대로 응답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단호한 시선] 소라넷, 몰수·추징 안 한다고?
: 산업화된 성폭력, 범죄수익 몰수·추징 없이 해결 가능한가?**

지난 7월 9일, 불법 사이트 "소라넷"의 공동운영자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소라넷" 개발에 관여했고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 명의로 된 계좌도 수십 개 제공하는 등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범죄수익에 대한 입증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이 명령했던 14억 1천만 원의 추징은 파기했다.

"소라넷"은 1999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7년 동안 운영되었던 불법·유해 사이트로, 불법촬영물 유통, 강간 모의, 성매매 알선 등 각종 성폭력 범죄를 전사·조장하며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으고 도박사이트, 성매매업소 등 불법 광고를 통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취해온 곳이다. 이처럼 막대한 수익 규모를 보더라도 불법·유해 사이트 운영은 단순히 음란물 제작·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만 설명될 수 없는 범죄다. 그 자체가 여성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와 성폭력을 산업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을 양산하는 주범이다. 설령 불법·유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더라도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몰수·추징할 수 없다면, 과연 이 비대해진 '성폭력 산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8년에는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수익을 올리는 웹하드 업체와 웹하드에 게시되는 불법 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해주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운영권자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통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알려진 양진호 회장의 자산은 1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양진호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수강간, 성폭행, 강요, 대마, 동물학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양진호 회장의 각종 범죄행위가 '슈퍼갑질', '엠포행각' 등으로 보도되면서, '웹하드 카르텔' 고발을 통해 드러났던 산업화된 성폭력의 문제는 마치 양진호 회장이라는 '괴물' 개인의 문제처럼 호도되었다. 검찰은 양진호 회장이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여 동결하였고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 산업'은 비단 "소라넷" 공동운영자나 양진호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청은 2018년 8월 '사이버성폭력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하여 총 3,660명을 검거하고 그중 133명을 구속하였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상반기에 1·2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이버성폭력사범특별단속'으로는 웹하드 업체 총55개(누계)를 단속하고, 운영자 112명(구속 8명), 해비업로더 647명(구속 17명)을 검거하였다. 그밖에도 불법촬영물을 촬영하는 자, 유포·재유포하는 자, 소비하는 자, 명백한 성폭력의 증거를 '진정성 있는' '국산 아동'으로 합리화하는 자 등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세워진 이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다. 경찰청은 1·2차 사이버성폭력사범특별단속 시 확인된 범죄수익 중 116억 원에 대하여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였고, 1,823억 원에 대하여 세금신고 누락여부 등 과세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즉, 산업화된 성폭력을 통해 움직이는 돈은 수백억 원을 넘어 수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현실임에도 단지 개인의 도덕성이나 범죄력 때문에 불법음란물이 유통된다고 생각할 건가?

판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음란물을 유포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중략)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중략) 그 사이트에 음란물이 아닌 내용도 함께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창원지방법원, 2018.08.10. 선고 2018고단1054 판결 참조), 심지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라 하더라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이 사건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원하는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면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0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그에 비해 '성폭력 산업'을 노골적으로 주도해온 "소라넷" 공동운영자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은 얼마나 무능하고 안이한가. 범죄수익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역할이었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특정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은 재판부의 역할이었다. 수사·재판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가 이번 2심의 추징금 파기 선고이다.

이 순간에도 "소라넷"의 수익구조를 본뜬 불법·유해 사이트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누군가는 왜곡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수지타산이 맞는 산업이라고 계산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직적이고 산업화된 성폭력을 멈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찰은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와 성폭력을 산업화하는 불법·유해 사이트, 웹하드, P2P 등을 엄중히 단속·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양진호 회장을 비롯해 '성폭력 산업'과 관련된 자들을 기소하고, 산업화된 성폭력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입증하라

하나, 법원은 산업화된 성폭력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성폭력을 산업화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적, 산업적으로 이뤄진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

2019. 07. 11. 한국성폭력상담소

[논평] 이운택 전 연극연출가 상습성폭력 7년형 상고심 확정을 환영한다.

“성폭력·성착취는 처벌된다. 연극은 나아간다”

오늘 대법원은 이운택 전 연극연출가가 행해온 상습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에 대해 징역 7년,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2월 14일 첫 #MeToo 글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발한 지 526일 만이다.

연극계 무소불위의 권위자로 살아온 가해자는 18년간 자행해 온 성폭력과 성착취를 연극의 일종, 예술의 일환으로 주장해왔다. 가해자는 본인의 행위가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나쁜 형태의 일”이고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억제할 수 없었던 더러운 욕망”이었다며 “도덕적 차원에서 반성하면 될 일로 한정했다. 반면 법정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 ”연극에 대한 열정이나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으로, ”연극인의 성/몸에 대한 감각은 달라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으며 ”오랜 관행인데 젊은 친구들이 성폭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술과 연극을 ‘특수화’하고 ‘특수한 권위자’의 위치에서 성폭력을 정당화해왔다.

‘예술’에 대한 이러한 권력적, 일방적, 자의적 해석이야말로 연극을 가로막고 연극인들을 가두어왔다. 예술감독의 힘은 무소불위가 되어 이운택 전 감독의 상습폭행으로 누군가의 고막이 파열되고, 여성단원의 머리카락은 가위로 등성등성 잘리고, 극단을 떠난 단원은 다른 오디션에서 막말을 들으며 내쫓겼다고 한다. 십수 년간 자행된 성폭력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것은 2010년~2016년, 62건의 사건 중 25건, 25명 달하는 고소인 중 10명이 겪은 성폭력뿐이었다. 이러한 현실이 ‘오랜 관행’이라면, 그 연극은 계속될 수 없다.

오랜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말하고, 고발하고, 증언하고, 맞서 싸워온 피해자들은,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정당화된 성적 착취를 폭로함으로써 새로운 연극과 예술을 불러오고 있다. 미투운동은 문화예술, 교육, 정치, 스포츠, 행정, 종교 등 사회 곳곳의 ‘미명’들을 부수고, 본연의 의미를 되찾아내고 있다. 피해자들은 연극계, 스포츠계, 종교계, 정치계, 노동계의 생산자이자 주역들로서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만들어가며 서로 연대하고 치유하고 회복해가고 있다. 미투운동 이후 문화예술계에서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없는 현장을 위한 조사, 포럼, 프로그램을 꾸리고, 관객들은 그에 화답하고 있으며, 성폭력을 단절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건언하고 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내온 모든 피해자들, 열과 성을 다해온 변호인단, 힘과 분노를 담은 탄원서 한장 한장을 써주신 98명의 연극인과 관객, 그 연극은 틀렸음을 논증해주신 전문가들, 상습적 성폭력의 특성에 머리를 맞댄 법률전문가들, 미투운동의 힘과 지혜를 모은 전국의 여성운동단체, 활동가와 여성, 시민들은 오늘을 당연하게 환영한다. 삶은 계속될 것이고, 예술은 더 나아갈 것이다.

2019년 7월 24일 이운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단체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벨벳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타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가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림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팽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외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들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선대안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시부 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도마루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북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경음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래,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템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폭력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

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 성폭력 통합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장애여성공감, (사)탁틴내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 공동변호인단(104명)

강연재, 강영훈, 고승우, 곽항기, 길인영, 김 건, 김기옥, 김동현, 김민아, 김보람, 김연진, 김영미, 김영옥, 김예니, 김용경, 김재희, 김경선, 김지현, 김태환, 김형일, 김혜경, 나지수, 노종언, 류미선, 문혜영, 박근우, 박보경, 박미혜, 박선영, 박소현, 박소철, 박승기, 박영현, 박정현, 박진현, 박현화, 방지영, 백승재, 부성연, 서혜진, 설은주, 성기택, 신고은, 신민정, 신은영, 신지후, 신현식, 신현경, 신현경, 신현호, 안귀옥, 안미영, 안미현, 안서연, 안지희, 양정숙, 엄다솜, 오빛나라, 오지원, 온채희, 원경주, 윤경록, 이경환, 이남주, 이동규, 이명숙, 이보람, 이소아, 이승재, 이은춘, 이주경, 이지은, 이현주, 이현진, 임계완, 임유정, 장경아, 장수혁, 장윤미, 장철우, 정경옥, 정수경, 정호진, 정희경, 조현옥, 조혜인, 차미경, 차미희, 차연화, 천경아, 최경진, 최수영, 최주영, 최현희, 태지영, 하희봉, 한승미, 한주현, 현지현, 홍지혜, 황다연, 황수철, 황혜란

[성명] 페이스북, 성차별 플랫폼에서 성평등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할 때

페이스북은 지난 8월 1일부터 4일 사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 행사 홍보와 관련된 총 4개의 게시글과 2개의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삭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규정 위반 경고와 삭제를 통보받았고, 삭제·복원 조치가 일관성 없이 반복되었으며, 위반 횟수가 누적되면 페이스북 페이지 공개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페이지 관리자는 3일간 게시글 및 댓글 작성이 금지되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상담소는 페이스북의 규정과 적용이 성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방적, 강제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페이스북을 규탄한다.

페이스북이 8월 1일부터 4일까지 상담소의 <청년 여성> 공동체상영 게시글과 관련해 취했던 조치는 다음과 같다.

타임라인

| | |
|--------------|---|
| 8월 1일 오전 | 공동체상영 <청년여성> 홍보글 게시 *게시글1 |
| 8월 1일 오전 | 게시글1 규정 위반으로 경고 및 삭제 |
| 8월 1일 오후 | 삭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홍보글 재게시 *게시글2 |
| 8월 1일 | 게시글2와 게시글2의 이미지, 규정 위반으로 각각 경고 및 삭제 |
| 8월 2일 오전 | 삭제된 게시글 1, 2 검토요청 및 고객센터에 항의 메일 발송 |
| 8월 2일 오후 | 게시글2와 게시글2의 이미지 규정 준수 확인 및 복원 (게시글1은 위반 및 삭제 조치 유지) |
| 8월 2일 | 경향신문 기사 "페이스북, 또 '여성 유두' 포함한 게시물 차단 "행사 홍보물인데.." 공유 *게시글3 |
| 8월 2일 오후 2시경 | 게시글2를 위반 사유에 대한 알림 없이 재삭제 |
| 8월 2일 오후 | 규정상 "시위 행위와 관련된 사진"임을 명기하여 홍보글 재게시 *게시글4 |
| 8월 2일 오후 | 게시글 4의 이미지 규정 위반으로 경고 및 삭제 (게시글 4는 유지) |
| 8월 2일 오후 | 삭제된 게시글 4의 이미지 검토요청 및 고객센터에 항의 메일 발송 (검토 결과 위반 및 삭제 조치 유지) |
| 8월 4일 오후 | 게시물 3, 게시물 4 규정 위반으로 각각 경고 및 삭제 (검토 결과 위반 및 삭제 조치 유지) |

1. 성차별적인 이중 기준(Sexist Double Standards)을 바꿔라

페이스북이 상담소의 게시글이 위반했다고 설명하는 규정은 불쾌한 콘텐츠 규정 중 성인 나체 이미지 및 성적 행위 규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가려지지 않은 여성의 유두”를 게시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 전반의 적용과 관련해 페이스북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우리는 나체 이미지가 시위의 한 형태, 특정 사안에 대한 인지도 향상, 교육 또는 의학적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공유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명백한 경우 나체 콘텐츠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두가 포함된 여성의 가슴 이미지는 일부 제한되지만, 시위 행위를 묘사하거나, 직접 모유를 수유하거나 유방 절제 수술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은 허용됩니다. 나체 상태의 인체를 묘사하는 그림, 조각 및 기타 예술 작품의 사진도 허용됩니다” 또한 직접적인 규정과 관련해서는 가려지지 않은 여성의 유두라도, “모유 수유, 출산 및 출산 직후 장면, 유방 절제 수술 후, 유방암 식별, 성 확정 수술 등 건강 또는 시위 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해당 규정 설명에서 사람의 나체가 “다양한 이유로 공유”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성적 대상화되거나 착취된 이미지가 아닐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삭제된 이미지는 불꽃페미액션의 ‘찌찌해방’ 시위의 사진 가운데에서 가져온 것이며, 광복절 이틀 전날 두 청년여성 페미니스트가 여성해방을 위해 온다는 메시지에 맞춰 해당 사진이 사용되었다. 행사 홍보글의 어떤 부분이, 사진 어떤 부분에서 이미지가 허용되는 맥락을 벗어났는가? 페이스북은 ‘여성의 유두’가 들어간 가슴 사진을 무맥락적으로 삭제한 것이다.

우리는 무맥락적인 규정 적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게시하면 안되는 내용”에 ‘여성의 유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규탄한다. 이 규정은 여성의 유두가 그 자체로 성적인 신체 부위라는 시선을 전제한다. 그러나 문제는 성별이나 신체 자체가 아니라 성적으로 ‘대상화’, ‘도구화’되는 신체이며, 누가 그것을 규정하고 누가 무엇을 착취하고 무엇을 통제하는가이다. 이미 ‘유두’만 가린, 혹은 ‘일부 신체’만 가린 성적대상화된 포르노적인 이미지는 현실에 차고 넘친다. 이 규정은 성적대상화의 맥락과 현실을 제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성차별주의자들이 효과적으로 (법·제도적으로) 규제를 피하게 하고, 여성을 효과적으로 (문화·규범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한다. 여성의 유두 그 자체가 음란물이라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기준이며 성차별적 이중잣대다.

2. 페이스북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보도되었던 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기술 회사이다보니 게시물을 검토하는 인공지능(AI) 정확도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라고 했다고 한다. AI 기술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려면 여성의 유두만 골라내야 하고, 수천만 사람들의 제각기 다른 가슴 모양을 남성의 유두와 여성의 유두로, 성별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학습시켜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효율인가.

또한, 여성의 유두를 골라내는 데에 정확도가 높아진다 한들, AI는 게시글이 성적으로 소비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분별하지 못한 채 기본값으로 ‘삭제’한다. 삭제처리와 근거 규정을 문제 삼자 AI가 하는 일이라는 페이스북 측의 답변은 문제적이다. AI가 규정을 수행하도록 코딩하고, 개발하고, 삭제할 이미지를 규정하고, 이를 편리하게 골라내고자 한 것은 페이스북 측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AI에게 돌리는 것은 기술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착각을 확산시키고, 이용자나 관리자가 복잡한 알고리즘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왜곡시키는 기술에 대한 우민화 발상이다.

상담소는 페이스북의 성차별적인 규정과 무맥락적인 조치에 대하여 우리의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했지만, 책임자가 누구인지 어떤 과정으로 삭제 및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페이스북은 소통 창구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해당 조치에 대해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의 경고 메시지 하단에 붙어있는 검토 요청을 누르거나 ‘본 메시지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클릭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고객센터에 보낸 항의 메일은 답장이 없으며 담당자에게 전달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삭제된 홍보글을 항의 내용과 함께 다시 게재하거나 언론에 인터뷰를 한 뒤 기사를 공유하는 등, 페이스북의 해당 조치에 대한 우리의 항의 표현은 ‘게시 금지’와 ‘페이지 공개 취소 경고’ 메시지로 돌아왔다.

우리가 겪은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그동안 불꽃페미액션을 비롯해 해외의 단체 및 개인들은 여성의 유두 사진은 무맥락적으로 삭제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혐오 표현 등은 유지하는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이중 기준(Sexist Double Standards)**에 대해 문제제기 해왔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교류를 전제로 하면서 발언권과 교류할 권리를 일방적, 강제적으로 빼앗는 일련의 조치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알고리즘/규정 안에서만 자유롭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 맺으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규정이 성차별과 성폭력을 확산하든 말든,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든 말든 말이다. 온라인에서의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페이스북은 국가를 넘나들며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플랫폼 기업이 되고 있다. 우리는 단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페이스북이 국내/국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규정 자체를 바꾸고, 성차별과 성착취와 성적 대상화와 관련해 더 면밀히 맥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경향신문, [단독] 페이스북, 또 '여성 유두' 포함한 게시물 차단 "행사 홍보물인데...", 2019.08.02.

** METRO, "Woman accuses Facebook of 'sexism' for removing photo of mastectomy scars", 2018.12.11.

2019. 8. 5 한국성폭력상담소

[입장]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3차 의견서] 국제법 및 해외입법례,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1. 2018년 #미투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던 성폭력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비해, 현실의 성폭력은 지위나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해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으로서 발생하고 있어, 현재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모든 피해자가 법적으로 적절한 구제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제와 현실간의 괴리로 인해 성폭력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공백이 생겨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강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저항 유무, 과거 성이력 등이 질문되는 등의 2차 피해가 일어나거나,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역고소가 비일비재해지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8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바, 본 의견서에서는 국제법 및 해외 입법례와 같은 국제적 기준이 강간을 판단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그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우리 형법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러 합니다.

3. 우선 국제법상의 기준을 살펴보자면,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재판소들은 모두 ‘동의’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동의의 부재’를 강간 성립 여부 판단의 주안점으로 둡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폭행 및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판단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을 확인하면서, 유럽인권협약에 의하여 국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엔 역시 각국이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0년 유엔 여성지위향상국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입법권고안을 담은 핸드북을 발행하여, 각국 형법이 유형력 또는 폭행의 행사를 강간의 구성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명백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강간 판단의 기준으로 삼거나, ‘강압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강간이라고 보되 ‘강압적인 상황’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여러 결정을 통해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이 정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 2017년에는 일반권고 제35호 제29조 (e)에서 성범죄는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강압적인 상황 하였던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한 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여 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5. 이외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이스탄불 협약, 2011년)은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는 범죄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협약은 유럽의 34개국이 비준, 46개국이 서명하였습니다.

6. 해외 각국의 구체적인 입법례를 보더라도 영국,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미국(11개 주) 등의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또는 동의 없는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폭행 및 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동의가 있다고 보이나 폭행·협박, 위계·위력, 피해자의 취약성(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음주, 약물 복용, 무의식, 수면, 공포 등)을 이용한 경우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동의의 부재를 간주하여 처벌하는 입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스웨덴은 가해자가 심각한 부주의로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국제 기준보다도 좀더 진일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 각국의 입법례를 국가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모든 구성국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본 강간죄 조항을 2000년대 들어 개정하면서 동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합리성을 중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잉글랜드는 동의 없는 성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가해자가 합리적으로 믿지 않았을 경우 강간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의는 부당한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와 지식을 갖추어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자의 동의만이 유효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동의의 부재를 간주됩니다.

8. 스웨덴은 2018년 형법을 개정하여 자발적 참여 없는 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였고, 폭행 및 협박의 존재를 자발적 참여가 없는 상태로 간주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발성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언동 및 행위는 특히 고려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경우, 피해자가 무의식, 수면, 공포, 음주, 약물, 질병, 상해, 심신미약 등으로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있고 가해자가 그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는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더하여 스웨덴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를 '과실에 의한 강간'으로 처벌합니다.

9. 독일은 2016년부터 성적 침해 규정을 신설하여 '타인의 인식가능한 의사(묵시적 의사표시 포함)에 반하는 성적 행동'을 범죄화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협박이 있거나, 피해자가 반대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있지 않는 상황,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의사의 형성과 표현이 중대하게 제한된 상황, 놀란 상황, 저항할 경우 중대한 해악의 협박이 이루어질 상황을 가해자가 이용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10. 아일랜드는 1981년부터 강간을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의 부재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미필적 고의(reckless)를 가지고 있던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2017년 동의에 대한 정의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정의조항에 따르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동의가 인정됩니다.

11. 캐나다는 1992년부터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규정하기 시작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가졌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무시한 경우(recklessness or willful blindness),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승낙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규율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언동 또는 행위를 통해 비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도중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피해자 아닌 제3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 가해자가 신뢰관계·권력·권위를 남용한 경우는 비동의가 간주됩니다. 캐나다 법원은 더 나아가 피해자가 수동적이고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고, 문제되는 성행위에 대한 계속적, 의식적, 현재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후에 일어날 성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2. 호주의 모든 구성 주들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판단하며, 이중 특히 태즈메이니아 주는 가장 엄격하게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를 강간의 구성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미국은 주마다 입법례가 다르나,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2년부터 범죄 통계에서 강간을 ‘동의 없이 신체 또는 물건을 질, 항문, 또는 구강에 삽입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1개 주(캘리포니아, 하와이, 워싱턴 D.C.,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네소타, 몬타나, 뉴햄프셔, 뉴저지, 워싱턴, 위스콘신)에서 법문 또는 판례상으로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 또는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경우를 강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형법은 동의를 “자유의지의 행사에 따른, 행위 또는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협력”이라고 규정하며, 동의는 행위의 성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또는 과거에 상대방과 혼인관계 혹은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은 동의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피해자가 무의식 또는 수면상태인 경우, 가해자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행위의 주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음주·약물 복용으로 인해 성행위를 거부할 수 없음을 가해자가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법과 선진적인 해외 입법례는 모두 강간을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표1〉 국제법과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강간죄 구성요건 참조). 이에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국회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여, 국제적 기준 및 권고에 우리 형법이 부합하도록 할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법적 처벌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 표 1 〉 국제법과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강간죄 구성요건

| 분류 | 주요 내용 |
|--|--|
| 국제형사재판소 | ‘동의의 부재’를 강간 성립 여부 판단의 주안점 |
| 유럽인권재판소 | ‘폭행 및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판단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을 확인하면서, 유럽인권협약에 의하여 국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행위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
| UN 여성지위향상국 (2010) |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입법권고안을 담은 핸드북을 발행하여, 각국 형법이 유형력 또는 폭행의 행사를 강간의 구성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건을 삭제할 것을 요청. 아울러 ‘명백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강간 판단의 기준으로 삼거나, ‘강압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강간이라고 보되 ‘강압적인 상황’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 |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7. 2018) | 제35호 제29조(e)에서 성범죄는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강압적인 상황 하였던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2017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한 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를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여야 한다고 권고(2018년) |
|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이스탄불 협약, 2011) |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는 범죄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협약은 유럽의 34개국 이 비준, 46개국이 서명함 |
| 영국 |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모든 구성국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본 강간죄 조항을 2000년대 들어 개정함. 그중 대표적으로 잉글랜드는 동의 없는 성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가해자가 합리적으로 믿지 않았을 경우 강간이 성립한다고 규정. 이때 동의는 부당한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와 지식을 갖추어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자의 동의만이 유효. |
| 스웨덴 | 스웨덴은 2018년 형법을 개정하여 자발적 참여 없는 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성관계를 |

| | |
|------|--|
| | 강간으로 규정하였고, 폭행 및 협박의 존재를 자발적 참여가 없는 상태로 간주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였음. 또한 자발성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언동 및 행위는 특히 고려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경우, 피해자가 무의식, 수면, 공포, 음주, 약물, 질병, 상해, 심신미약 등으로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있고 가해자가 그를 이용하였을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는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규정. 가해자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를 '과실에 의한 강간'으로 처벌. |
| 독일 | 독일은 2016년부터 성적 침해 규정을 신설하여 '타인의 인식이능한 의사(목시적 의사표시 포함)에 반하는 성적 행동'을 범죄화함. 또한 가해자의 협박이 있거나,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있지 않는 상황,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의사의 형성과 표현이 중대하게 제한된 상황, 놀란 상황, 저항할 경우 중대한 해악의 협박이 이루어질 상황을 가해자가 이용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
|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1981년부터 강간을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의 부재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미필적 고의(reckless)를 가지고 있던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2017년 동의에 대한 정의조항을 추가함. 정의조항에 따르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동의가 인정됨. |
| 캐나다 | 캐나다는 1992년부터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에 따라 강간을 규정하기 시작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가졌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무시한 경우(recklessness or willful blindness),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승낙의 항변을 할 수 없다고 규율. 또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언동 또는 행위를 통해 비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도중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피해자 아닌 제3자가 동의를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 가해자가 신뢰관계·권력·권위를 남용한 경우는 비동의가 간주됨. 캐나다 법원은 더 나아가 피해자가 수동적이고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고, 문제되는 성행위에 대한 계속적, 의식적, 현재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후에 일어날 성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
| 호주 | 호주의 모든 구성 주들은 자유롭게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을 판단하며, 이중 특히 태즈메이니아 주는 가장 엄격하게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를 강간의 구성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음. |
| 미국 | 미국은 주마다 입법례가 다르나,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2년부터 범죄 통계에서 강간을 '동의 없이 신체 또는 물건을 질, 항문, 또는 구강에 삽입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현재 11개 주(캘리포니아, 하와이, 워싱턴 D.C.,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네소타, 몬타나, 뉴햄프셔, 뉴저지, 워싱턴, 위스콘신)에서 법문 또는 판례상으로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 또는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경우를 강간으로 파악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형법은 동의를 "자유의지의 행사에 따른, 행위 또는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협력"이라고 규정하며, 동의는 행위의 성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또는 과거에 상대방과 혼인관계 혹은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은 동의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피해자가 무의식 또는 수면상태인 경우, 가해자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행위의 주요부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음주·약물 복용으로 인해 성행위를 거부할 수 없음을 가해자가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2019. 8. 13.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8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벨엘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례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조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벨엘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례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넷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안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안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안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안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안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팽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이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 행복돌상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정선아라리가죽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원인대한국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시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여성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래,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댕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의전화 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센터 부설 공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여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산상상담소, 충남장애여성복지회합회 부설 천안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여성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여성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여성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성명] [추모성명] 우리는 **故 윤정주**님의 뜻을 이어
성평등한 미디어,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故 윤정주 님은 1999년부터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활동하면서 성평등한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케이블 오락채널들이 우후죽순 설립되던 시기에는 방대한 유료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면서 성차별적인 프로그램을 퇴출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수많은 사회적 국면에서 주요 언론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바른 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성연예인의 인권을 위해 싸워왔으며,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지상파의 공적역할을 더 푸르게 만들고 싶었던 활동가이기도 하다.

또한 방송심의 현장에서 성평등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성평등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한 심의와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방송프로그램에 성평등 가치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성평등 방송심의회에 양적·질적 변화를 이끌어왔다. 또한 방심위 내부에서 젠더문제 상담을 담당하는 등 양성평등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8일 고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그 수많은 꿈들을 뒤로 하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추모의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왜곡하여 고인의 활동을 편파식으로 매도한 이의 SNS의 내용을 접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해당 사안이 확대재생산 된 것은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논란 그 자체만을 키운 언론의 책임도 크며, 우리는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

“수용자주권의 확보와 평화를 향한 여성주의적 시각이 미디어 속에 충분히 담기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소중한 걸음걸음에 미디어가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미디어에 ‘더 많은’ 페미니즘을 이라고 외치기에는, 미디어에 페미니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0년 뒤, 20년 뒤에는 미디어에 더욱 더 많은 페미니즘을 발견하고 요구할 수 있는 날들이 오기를 기대한다.”

고인이 몸담았던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발족선언문과 20주년기념사에 담긴 내용이다. 여기에故 윤정주님이 꿈꾸던 세상이 담겨 있다. 우리는故 윤정주님의 꿈을 함께 채워나갈 것이다. 그가 만들고자 하였던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고인이 꿈꾸었던 가치이며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이기 때문이다.

2019년 8월 20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 무죄판결로

집단성폭력 성산업 삭제시키는 재판부 용납할 수 없다.

고 장자연배우의 죽음을 헛되이 한 재판부를 규탄한다. 고 장자연배우사건을 진상규명하라!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법원은 오늘, 고 장자연씨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조선일보 전 기자 조희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희천의 강제추행 및 접대강요 행위는 이미 2009년 사건 당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증인의 일관적인 사건 진술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기소 처분 하였다. 이에 2019년 5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의 진술을 배제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재수사를 진행하였고 수차례 진행된 재판과정을 통해 조희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곳에서의 강제추행은 가능하기 어렵다”, “성추행이 있었으면 생일파티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라는 식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 근거를 들어 오늘 조희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당시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 대표와 중소기업 사장 등 10명이 모두 무혐의로 풀려나고 기획사 대표만이 ‘폭행죄’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착취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말도 안되는 결과에 온 국민이 분노했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처벌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고 장자연씨 사건은 과거사위에서 지적하듯이 수많은 수사위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바로 조희천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희천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존재하는 피해자를 부정하는 일이자 여론에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이다.

직접적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고 장자연씨의 피해에 대한 명예를 되찾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무참히 무너뜨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질 수밖에 없다.

고 장자연씨 사건의 본질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권력층의 진실 조작 및 은폐이다. ‘힘없고 나약한 신인 여성 배우’에게 가해진 술집매 및 ‘성상납’ 강요 등 우리사회 권력층이 여성을 어떻게 도구화하고 수단으로서 ‘사용’ 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2009년 당시 감·경찰에 의한 부실수사가 밝혀졌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된 권력자들은 증언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여성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권력층의 행태를 온 대중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정의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고 장자연씨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며, 남성권력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한 발을 내딛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8월22일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성명] 한국도로공사는 1,500명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하라!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직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는 서둘러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로 고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1,500명을 해고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의 직고용 방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직고용 방침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요금수납업무를 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직고용으로 하게 되면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 환경경비 업무를 주겠다고 했다.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노동자에게 직고용 시 다른 업무를 주겠다는 것은 고용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 사회 정의와 질서를 수호하는 본 대법원 판단의 유린이다.

같은 결과가 뻔한 여러 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혀 무분별하게 비용을 낭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기초적인 사실 대부분은 원고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통일적으로 운영, 관리할 필요성을 들어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사실상 소송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또한 '공사 또는 자회사 근무 등에 대한 고용의사를 사전 확인하여 개인 자유의사 존중'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직고용 판결을 한 요금수납원들을 고용하기 위한 자회사는 지금 시점에서는 폐쇄하는 것이 맞다. 자회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 한국도로공사는 엄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치졸한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10일 오전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본부를 점거하고 경찰이 손대지 못 하도록 상의탈의를 했다. 같은 이유로 나체시위를 했던 76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겹쳐진다. 그로부터 40년이 넘었지만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이토록 처절한 방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가. 게다가 경찰은 이 여성노동자들을 채증이라는 명목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은 진보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이 현실에 너무나도 분노한다.

공공기관은 모범사용자여야 하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기 이를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가장 치졸한 사기업이 쓰는 방식으로 요금수납원 여성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듯 악질적인 방식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런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1,500명 여성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방침대로 한국도로공사에 요금수납원 1,500명 여성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을 지시하라!

2019. 9. 10

한국여성노동자회·서울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노동자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회·전북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평화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여성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한부모연합

[입장]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_4차 의견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하겠다고 위협하게 하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협박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행위만을 강간죄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 폭행, 협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을 이용한 경우라야 강간죄에 해당됩니다.

현행 형법 하에서 비장애성인에 대한 성적 침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준강간뿐입니다. 즉,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신을 잃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폭행, 협박을 사용한 강간은, 업무상 위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법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되는 상담 사례의 70% 이상이 직접적 폭행, 협박이 없는 사례였던 데서도 드러나듯,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수준의 폭행, 협박이 없었더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상대방이 억지로 한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입니다. 지금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때, 이를 성폭력 피해로 경험하고, 형법이 개입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형법은 이러한 일반인의 법감정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형법의 처벌 범위 사이의 간극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법이 개입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을 피의자의 지위에 서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성폭력 무고 혐의를 씌우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발표된 성폭력 무고죄 검찰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무고 고소 중에서 82.6%는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성폭력 무고 고소로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이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중에서 실제로 성폭력 무고로 밝혀진 사건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성폭력으로 무고를 당했다는 고소 중에서는, 진정한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보다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억지로 했으면서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가해를 인정하기는커녕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법에서 성폭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좁아서 범죄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래 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라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성폭력과 같이 범죄가 인정되는 범위는 좁고 피해자에 대한 의심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에서 무고 혐의를 받고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되는 문제가 드물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가해자 측에서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폭력 무고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법이 성폭력의 성립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는 점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역고소를 하겠다는 성폭력 가해자의 위협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 피해라고 생각 하더라도 우리 법이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이용한 행위에만 강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형법의 태도는 일반인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기준으로서,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 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을 신고했다가 역고소를 당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무고 가해자로 몰린 성폭력 피해자가 결국에는 불기소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가 도리어 무고죄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며, 우리 사회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침묵하도록 만듭니다.

성폭력의 입증이 어렵고 성폭력 성립 범위가 좁을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

부'로 전환하여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형법 안으로 수용하고,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여 겪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체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 09. 18.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8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벨벳케어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이례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구가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3개소/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벨벳케어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이례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휴넷 가정폭력성폭력통합운영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광명YWCA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하남YWCA 부설 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김포여성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 가족성상담센터, 연천행복돌상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속초여성인권센터 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 부설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 부설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경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가정울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공성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법원대안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성상담지원센터, 로댐나무상담지원센터,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홍성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충주생명원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당진 가족성통합 상담센터,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바램,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구미여성종합상담소, 로댐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포항여성회 부설경북여성성폭력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한마음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창원성 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함안 성가족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기장열린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 부설 공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성명]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어느덧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을 밝히며 임신과 출산, 그에 따른 양육 책임이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필요한 것은 처벌과 낙인이 아닌 권리 보장임을 확실히 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차별이나 불평등과도 연관되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낙태죄 관련 수사와 기소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간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산유도제 도입을 비롯하여 가능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부터 시행해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여성들의 건강권은 침해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여성들일수록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 환경에서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국회는 그 무엇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현실에 손을 놓고만 있을 것인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의 여성들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아래의 요구들을 실현하라!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우리는 정부에 시급히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상 수술적 방법 외에 약물적 유산 관련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회피하고만 있다. 그러는 사이 언론에서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산유도제를 복용하고 부작용을 겪은 여성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유산유도제는 이미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필수약품으로 지정되어 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로 인해 한국의 여성들은 안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채 건강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유산유도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과 약국을 통해 안전한 약물의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의 관련 상담, 의료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더 이상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것인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정부는 즉각 나서야 한다.

안전한 임신중지와 의료접근성을 위한 보장 체계를 마련하라

우리는 그간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제반의 정책 마련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지난 9월 6일에는 이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법의 개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의 사용과 의료 조치, 임신중지 전후 상담에 관한 최신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 연령, 언어, 국적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 조건을 개선하고 최선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66년 동안 존속해 온 ‘낙태죄’와 오로지 출산율의 관리에만 관심을 두었던 국가의 인구정책으로 인해 현재까지 임신중지에 관한 상담과 보건 의료 체계는 비공식적이고 상당 부분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보건 의료, 상담 체계에서는 충분한 접근성과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 의료 전달 체계와 보험 적용을 비롯한 구체적인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임접근성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확대하라

피임 접근성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에서 떨어질 수 없는 과제이다.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확한 피임 정보를 알고 필요한 피임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지식 차원을 넘어 성과 사회에 관한 비판적 판단 역량과 상호 존중의 관계, 협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편협한 정보 전달과 보호주의, 성역할의 강화는 불평등한 성관계와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을 높일 뿐이다. 우리는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함께 피임접근성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교육, 상담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전면 비범죄화만이 답이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그 위헌성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남겨져야 한다. 임신 중의 특정 시기나 사유를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는 여성들을 더욱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해왔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확인되어 온 지 오래다. 세계보건기구, 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령 맨 섬과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처벌의 기준이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법과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2020년 12월 이전에 새롭게 개정되어야 할 법의 내용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적 권리, 재산권 권리의 보장을 위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처벌 기준의 변화가 아니라 처벌과 낙인의 완전한 철폐이다. 우리는 그 목표가 실현되는 날까지 전 세계의 여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안전한 의료접근권 보장과 의료인 교육훈련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피임접근권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으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 My Abortion My Health!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2019년 9월 27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건강과대안, 노동당, 녹색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성과재생산포럼,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의로 실현청년한사회, 탁틴내일,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추모 논평] 그녀는 우릴다 - 故 최진리님을 추모하며

평범하든 평범하지 않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감시와 평가가 붙어 있습니다. 옷차림, 표정, 말투, 행동이 선을 넘었는지 아닌지, '여성다움' 기준을 벗어났는지 감시하고 비난하고 교정하려 합니다. 그 선의 테두리는 가부장적인 사회이며, 그들이 세우는 모델은 '정상여성'으로 불립니다.

이 폭력적인 세상, 여성혐오의 세상에서 자기 다움을 잃지 않으려 한 사람, 그들의 잣대와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으로 우리는 고 최진리님을 기억하려 합니다.

저항하고 길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먼저 떠나야 했던 수 많은 여성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회와 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9.10.16.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 201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평등을 말하라!' 공동선언문

[공동선언문1] 변화를 위한 도전- 평등을 말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요구하고 실천하는 이들의 염원이자 누구라도 자신의 존엄을 이야기하기 위한 기본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항상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변명 아래 나중으로 밀려났다. 정치인들이 인권을 그저 자

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소모하는 사이,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낙인찍고 혐오를 선동하는 이들의 타깃이 되었다.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 법안들이 잇달아 개악, 철회되었고 국가기관들이 앞장서서 인권을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차별금지법이 계속해서 밀려나는 지금의 상황은 오랜 시간 힘겹게 쌓아온 인권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다. 성평등의 요구가 거리에 가득하지만 남성 권력의 카르텔은 여전히 공고하다. 위험을 외주화하는 노동 환경은 재난의 도화선이 된지 오래다. 존재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찬반을 가르며 혐오를 선동하는 사회 구조는 부당한 죽음을 양산한다. 파국의 연속은 '인권은 목숨'이라는 오랜 구호가 여전히 절실함을 보여준다.

취약한 삶으로 밀려난 이들의 필사적인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인을 착취하고 대상화하며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엄과 평등을 요구하는 저항이 일어난다. 변화의 염원 속에 평등의 외침은 울해도 거리에 나왔다.

평등행진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지만 평등의 외침은 하나의 구호로 수렴하지 않는다. 평등 주간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등을 향한 갈망을 모아냈다. 평등은 국민과 비국민,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며 등급을 나누는 불평등의 제도들을 뿌리 뽑자는 요구이다. 평등은 안전을 보장받고 삶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평등은 타인에 대한 불편함으로부터 환대와 변화를 모색해나가는 전환점이다. 평등은 끝없는 돌출과 불화로부터 서로의 취약한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우치는 과정이다. 그 역사는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 평등을 이야기하고 제도로부터 배제되는 존재를 포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타인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 또한 사회 변화를 요구하며 스스로 변화한다. 평등의 언어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행동으로 서로를 결속하고 공동의 미래를 갈망한다.

국가는 혐오와 차별로 국민과 비국민,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짓고 통제하지 말라.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도의 테두리로부터 인권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확장해갈 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에 대한 약속이다. 그것은 오랜 혐오와 낙인에 저항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도전이다. 하지만 평등의 조류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다.

이제 우리는 평등을 외치며 행진을 시작한다. 행진의 대오는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며 한국사회의 평등을 향한 열망을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평등을 말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행진의 외침은 정부와 국회를 향하지만 평등의 외침은 여전히 삶의 터전에서, 삶조차 박탈된 자리 위에서 계속될 것이다. 함께 다짐하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라도 인권을 요구하며 불온한 이들의 취약한 삶으로부터 평등을 실천할 것이다. 평등을 말하는 우리의 언어는 공동의 외침으로 확장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과 배제의 벽을 넘어 소란스럽고 활기 넘치는 우리의 몸짓과 외침을 들어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평등을 말하라!!

2019. 10. 19 2019 평등행진 참가단

[입장]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5차 의견서
강간 피해는 폭행 협박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 무료법률지원 사건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

지금까지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자 행위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수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례는 최협의설을 반영하여 왔습니다. 최협의설이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행사가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서는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우리 형법이 피해자의 현실과 경험을 반영하여 강간을 판단함에 있어 '동의' 여부를 그 기준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서는 전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신청한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지원 사건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들 자료를 살펴보면 강간죄 구성요건의 최협의설이 현재 형사사법절차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 2016~18년 판례 유·무죄 및 불기소 처분 판단 근거

아래 <표1>에서 보듯이 폭행·협박이 명확하고, ‘피해자다움’이 “잘 입증된” 경우에만 유죄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무죄판결 혹은 불기소처분은 표면상 폭행·협박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억압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거나, 폭행·협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맥락보다도, 왜 사전에 피해자가 미리 조심하지 않았는지, 왜 피해 당시 “더욱 강하게” 저항하고 도망가지 않았는지, 왜 다소 시간이 경과 된 후에 고소를 했는지, 사건 전후 가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다른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쉽게 극복할만한 것이 아니기에” 사건 직후에 학교나 직장 등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성폭력 “피해자가 보일 모습이 아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표1> 2016~18년 유·무죄 판결 및 불기소 처분 판단 근거

| 유죄판단의 근거 | 무죄판단/불기소 처분의 근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항의 정도(상해, 찰과상, 멍 자국 등 객관적 증거) 입증 - 피해 직후 항의 및 도움요청(친구, 다이어리, 가해자 사과요구), 즉시 신고함 - 사후 대처(산부인과 진료, 정신과 치료, 상담 의뢰)의 증거 - 상습, 반복, 다수의 피해자 존재함 - 피해 직후 심리적, 신체적으로 정상상태가 아님이 입증됨(정신과 진료, 학업·직업유지의 어려움, 은둔, 분노 우울 등 심리적 고통, 소화불량, 두통 등 신체적 증상)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타당성 있음 - 목격자의 증언 있음 - 객관적으로 위계·위력이 인정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협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부족함 - 그 정도는 위협으로 볼 수 없어 강제가 아님 - 저항의 정도를 입증할 수 없음 - 서로 좋은 감정으로 같이 있었고,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음 - 피·가해자 집,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감 - 학업·직업 등 일상유지가 됨 - 주변인이 피해로 불만한 점을 눈치채지 못함 -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 - 피해 후에도 가해자와의 관계가 유지됨 - 주변에서 보기에 평소와 다르지 않음 |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경험자의 진술은 가장 명확한 증거임에도 폭행·협박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거나, 폭행·협박이 있었다라도 “피해자가 더 강하게 저항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폭력이라는 이유로 범죄 회피와 입증책임마저 피해자의 몫으로 전가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배척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최협의설은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의 극심한 폭행으로 제대로 저항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거나, 너무 두려운 나머지 “더 이상의 저항을 할 수 없을 지경”일 정도의 협박을 당했는지,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고 강경하게 거절의 의사 표시를 했는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준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근거

준강간은 대부분 음주 후 취한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폭행·협박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기소 처분결과를 보면 강간 당시 가해자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어떠한 저항행위를 하지 않다가 강간 이후 현장을 벗어나서야 가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가 아닌 합의된 관계라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유지, 강화시켜주는 지점입니다.

3. 위계 위력에 의한 사건 불기소 처분 근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것으로 폭행·협박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곧 “위력”이므로 실제 가해자 본인이 유형력을 행사했음을 인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퇴사를 결심하거나, 퇴사 이후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이기

도 합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직급이 높은 상사라면, 문제제기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업무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억압될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친밀한 관계라서, 친구라서, 직장동료라서, 선배나 상사라서, 교수라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성폭력이라 명명하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법률/판례상 위력 또한 이러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4. '피해자다운 피해자 상'에 의한 처분 근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강간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 데에는 최협의설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전후에 걸쳐 얼마만큼 '보호할만한 피해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와 같은 사회적 통념이 깊숙이 작동되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다운 피해자'라는 통념은, "성폭력 피해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라면 당연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단일한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을 상정할 때 작동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غم뻣한' 피해 이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야 하며, 주변 사람이 이상한 점을 바로 눈치 챌 수 있고, 피해 후 즉시 신고를 하거나 가해자와 관계를 바로 단절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은 피해자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며, 치유의 과정조차 상이하다는 점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전형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의심부터 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즉시 신고나 주변에 도움 요청을 망설이기도 하고, 자신이 겪은 일을 성폭력이라 인지하기까지 극도의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법적 해결을 고민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5.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여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들의 경험과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성폭력 피해여부는 폭행이나 협박 유무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선택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 받았는지, 선택 후 다른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는지 등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 비율이 높고, 기소 후 재판결과에서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판단이 내려지는 현실 속에서 기소율을 높이고 가해행위에 부합하는 판결결과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언어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하는 판단을 넘는 새로운 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국회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여,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여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련의 성적 행위'로 성폭력을 재개념화하고 강간죄 판단에 있어서 '동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 11. 11.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

[성명]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

- 우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내년 21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

지난 11월 12일 자유한국당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 40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에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명백한 부인이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의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정의를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축소하여 현존하는 다양한 성차별을 지우는 물상식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키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인권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여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하였다. 이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번 20대 국회가 이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등 40인) - 발의의원 명단**

안상수(자유한국당) 강석호(자유한국당) 강효상(자유한국당) 김경진(무소속)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영우(자유한국당) 김진태(자유한국당) 김태홍(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박덕홍(자유한국당) 박맹우(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언석(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윤상현(자유한국당) 윤재옥(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이만희(자유한국당) 이명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이현승(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정갑윤(자유한국당) 정우택(자유한국당) 정유섭(자유한국당) 정점식(자유한국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조원진(우리공화당) 주광덕(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홍문종(우리공화당) 홍문표(자유한국당) 황주홍(민주평화당)

2019년 11월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차별없는 경기도민행동

**[논평] 국회는 성소수자 혐오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하라!**

지난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악안이 발의되었다. 뒤늦게 민주당 의원 두 명이 이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일단 철회하고 재발의하는 번거로움까지 감수하고 개악안을 추진하며 성소수자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개악안의 주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2008년에 있었던 균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의견 중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 부분이다. 이 의견은 이후 헌법재판소의 균형법상 '추행'죄 합헌 결정에도 인용되었다. 10년도 더 된 고리타분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기반한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여전히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만큼 재판관들에게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책임 있는 의견 제시가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해묵은 관습을 버리고 인권의 목소리를 내는 재판관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설문항목에 '그렇다'는 대답이 과반을 넘어섰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일 뿐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2017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균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에는 균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황이며, 이번이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4차 심리에 해당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 국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 균형법상 '추행'죄를 하루빨리 폐지하라.

2019년 11월 20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논평] 교육부는 시대착오적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라**

4년 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이고 성소수자 배제적인 내용으로 인권·여성·청소년·성소수자 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왔습니다. 교육부가 구성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또한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포괄적 관점의 성교육을 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 28일).

* "[기자회견] 교육부는 성소수자 배제하고 성차별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하라!". 2017.08.30.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19350>

* '초등학교에서 자위행위 언급 금지, 중학교에서 아동 언급 금지, 중고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이 바탕, 다양한 가족 배제,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지도 허용되지 않음' (2015년 학교성교육표준안 전달 연수)

그러나 2019년 현재, 아직까지도 학교 성교육은 '2015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비판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내용 수정과 개편을 시도했지만, 개편 작업은 중단된 채 올해 일선 학교에 '기존 표준안에 따르라'는 지침이 전달된 것입니다. 결국 동성애와 같은 '민감한 주제'는 교육에서 '다루지 말라'는 것이 현행 성교육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유일한 언급인 상황입니다.

* "성차별 가르치는 '학교 성교육' 언제 바꾸나". 2019.07.1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71805080120>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는 교실과 학교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를 묵인하게 만들고, 이는 성교육이 혐오를 조장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으로는 학교 현장의 심각한 성차별과 성폭력,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에서 대한민국 교육부는 성교육에 성소수자를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추가 질의> (질의 1) 알도세리 "성교육에 LGBT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가?"
<추가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 "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 기록
(<https://m.blog.naver.com/childrights/221661175709>)

인권에 대해 알 권리도 인권입니다. 우리는 성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알 권리,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성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혐오세력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인 섹슈얼리티를 자유롭게 평등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포괄적 성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다”. 2019.09.19.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https://ahacenter.tistory.com/658>

-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와 사)탁틴네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 58개소), 한국여성민우회, 장애여성공감, 청소년 성소수자지원센터 핑통, 한국다양성연구소, 무지개행동(22개소), 초록상상,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인천여성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성명] 웹하드카르텔을 고발한 건 여성들이다 양진호 회사 법무이사 D씨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의인상 수상에 반대한다

12/3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센터는 올해 의인상 중 1인으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를 제보한 D씨’를 선정했다. 심사총평은 “사회적 영향력으로 은폐될 수 있는 (중략)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내”었다는 것. 그런데 웹하드카르텔의 실체를 밝혀낸 것은 D가 아니라 여성들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의 노력과 분투가 지워지고 가로채지며, D는 웹하드카르텔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인물임에도 공익제보자, 수상자가 되고 있다. 이 상황은 웹하드-카르텔의 또 다른 이면을 생각하게 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수상에 강력히 반대한다.

1. 여성들의 웹하드카르텔에 맞선 싸움과 D의 제보시기의 관계

“제보자 D씨는 2018년 9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로리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사찰,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을 뉴스타파, 설록, 프레시안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도 공익신고했다.” (참여연대 12/3 보도자료)

D는 2018년 9월 세 언론에 제보하고 공익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웹하드카르텔이 D씨로 인해 드러났을까? 9월까지 불법촬영 및 웹하드카르텔 관련 여성들이 한 일을 살펴보자.

- 소라넷 폐지, 2017.9.26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정부 종합대책 도출 등 과정은 생략
- 2018.2 웹하드카르텔에 대해 경찰 고발
 - 경기남부경찰청에 위디스크와 파일로리 등 웹하드 업체가 필터링 업체들과 유착관계 고발
 -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로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행위
 - 분식회계, 탈세 의혹 고발
 - 고발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선희 감독
- 2018.5.19 해화역시위 1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반대시위) (*불편한 용기 주최, 그 외 단체와 무관)
- 2018.6.3 <얼굴 그 맞은편> 다큐 프리미어 상영
 - 사이버성폭력 대응 활동기, 웹하드카르텔 추적, 이선희 감독
- 2018.6.8 해화역시위 2차
- 2018.7.7 해화역시위 3차
- 2018.7.28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
 - 웹하드에서 관리받은 ‘헤비업로더’ 인터뷰 : 경찰 수사시 웹하드 업체로부터 보호받음
 -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체가 실소유주 같은 정황
 - 주 제보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선희 감독
- 2018.7.28 청와대 국민청원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시작
 - 2009년 양진호 음란물 유포 1차 구속 및 처벌 시점 위디스크와 파일로리는 (주)뮤레가 DNA 필터링 도입

- 이후에도 계속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유통하여 2011년 2차 구속 및 처벌
 - 2011년 이후에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불법 음란 영상물과 불법 피해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유통
 - 2010년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에도 DNA 필터링 시스템 형식적 도입, 우회, 삭제요청 응대 안함
 - 2012년 양진호 업로더 회사 차린 혐의로 구속된 적 있음. 이미 불법피해 영상물 배포, 판매해 옴
 - 청원신청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2018.8.4 해화역시위 4차
 - 2018.8.13 경찰,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선포
 - 2018.8.28 청와대 국민청원 208,543명 참여로 마감
 - 2018.8.28 기자회견 <청와대 청원 20만, 이제 응답만 남았다 :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 특별수사하라!>
 - 주최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페이머즈, 짝는 페미, with 20만 청원 시민
 - 연명단체 :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카이스트 대학교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이화여성위원회, 성균관대여성주의 소모임 나은, 여성예술창작집단 말보라단, 백석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도담, 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라-본, 국민대 여성주의 모임 느릿느릿,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페미당당
 - 2018.9.27 민갑룡 경찰청장 웹하드 카르텔 국민청원 답변
- “9월 26일 기준 한 달 반 동안 총 1012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으며 그동안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도 51곳을 단속해 35명을 붙잡았고 14명을 구속했다”며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대표 5명을 검거하고 해비업로더 82명을 검거해 역시 5명을 구속했다.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통자 420명을 각각 붙잡아 16명, 27명을 구속했고,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민 경찰청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물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제청 통보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

이러한 시점이 된 2018년 9월, D는 뉴스타파, 설록, 프레시안 세 언론(공동보도) 세 언론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하여 형사책임 면탈이 되는 '공익제보자'가 되었다. 참여연대 보도자료처럼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자료를 외부로 고발하는 것이 내부고발이며 공익을 위해 매우 용기있고 고된 결단이다.

그러나 D가 '공익제보'했다는 시점 2018년 9월은 이미 여성들의 신고, 청원, 방송제보, 기자회견, 집회 등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웹하드카르텔 수사를 하고 있던 시점이며, 법무이사였던 D도 그 대상이었다.

2. D의 제보는 '웹하드카르텔' 이 맞았는가?

D의 제보는 웹하드 카르텔이었는가, 아니면 양진호 개인이었는가. 이에 대해 세가지 짚어볼 점이 있다.

첫번째, 뉴스타파, 설록, 프레시안 세 언론은 2018년 10월부터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시리즈로 양진호에 대해 보도했는데 그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1) 사무실서 前 직원 무차별 폭행 2018.10.30
- (2) 폭행 피해자 “인생 망가져” 2018.10.30
- (3) 무차별 폭행 ‘충격과 공포’ 2018.10.30
- (4) 성범죄 영상이 주요 돈줄 2018.11.1
- (5) 양진호 ‘집단린치’ 피해교수 육성증언 “가래침, 구두 핏게 했다” 2018.11.2
- (6) 양진호 전 측근 육성증언 “대포폰 사용, 증거 인멸했다” (2018.11.7)
- (7) 양진호, 직원 휴대폰 무차별 해킹... 통화, 문자만 6만건 털어 (2018.11.8)
- (8) “차명회사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2018.11.13)

위 보도들은 대부분 비자금, 대포폰, 동물 살해, 폭행, 집단린치..... 에 대한 것이다. 뉴스타파, 설록은 당시 스스로 '양진호 회장의 직원 무차별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 이라고 부르고 있다. 양진호 구속 이후에 이어진 제보들은 (양진호에 의한) 검경로비 경찰, 여직원 신체 낙서, 아내 청부살인 혐의, 직원인사보복, 횡령 등이다.

이 제보들은 웹하드 업계의 카르텔과, 그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피해자를 지속된 피해 상태에 놓이게 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제보들이기 보다는 ‘업기 행각’ 양진호 1인에 대한 제보라고 보는 편이 맞다.

둘째, 위 제보에 의한 보도 중 불법촬영 성범죄 동영상 유포 관련 기사는 단 1개이다. 그런데 무엇을 제보했는가? (4)성범죄영상이 주요 돈줄(뉴스타파 2018.11.) 기사 내용을 살펴보자.

1) 양진호 회사에서 주수입원이 ‘저작권 없는 불법음란물’ (비제휴동영상, 90%이 음란물)

: 업계 1위 위디스크 지난 3년 간 매출액 624억, 순이익 170억, 2위 파일노리 지난 3년 간 매출액 476억, 순이익 212억. (금감원 기업공시자료)

2) 위디스크가 비밀리에 외부에 서버를 두고, 직접 많은 음란물 영상 파일을 올리는 조직을 회사 내부에 만들고, 음란물을 직접 관리하면서 유통

3) 증거자료 : 성범죄 동영상 유통되고 있는 위디스크 홈페이지 캡처화면

위 세 가지 중 1)의 수익은 양진호에 대한 고발인가, 아니면 웹하드 업체에 대한 고발인가. 전자와 후자는 뗄 수 없고, 후자는 전체 임직원이 누려온 수익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제보라고 보아야 할지, 양심선언이라고 보아야 할지는 어느 쪽이 합리적인가. 2)의 경우 이미 7월 28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회사로부터 관리받는 해비업로더가 해당 내용을 인터뷰 한 바 있으며, 양진호는 2012년 업로더 회사를 차렸다가 구속된 바가 있음을 청와대 청원문이 7월 28일 밝혀, 내부 고발이 아니라면 알 수 없었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웹하드 홈페이지에서 불법동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다는 캡처는 사이버성폭력 반대운동가들이 계속 해오고, 제발 삭제하라고 업체에 메일 발송하던 내용이다. 그 때 응답하지 않고 이 시점에 성범죄 동영상 업로드 목록 캡처본을 증거자료라며 ‘제보’하는 것은 어떤 둔갑인가.

셋째, 참여연대 보도자료는 D의 제보가 웹하드 카르텔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했다며 웹하드 카르텔을 ‘웹하드업체 · 필터링업체 · 디지털강의사업체로 구성된 카르텔’이라고 서술했다. 바로 이 지점은 국가가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해도, 필터링 업체까지 카르텔을 맺거나 직접 소유하면서 국가의 법제도를 우롱하던 현실을 드러내고 있어서, 그것이 알고싶다 제보, 경찰 제보, 청와대 청원, 특별수사 요청에서 반-사이버성폭력운동가들이 강조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D는 2018.11.13 기자회견에서 양회장이 필터링 업체 ‘유레카’와 삭제업체 ‘나를 찾아줘’를 지배하며 불법 촬영물 유통을 해왔다는 ‘카르텔’ 의혹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유레카가 기술을 불법적으로 악용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내부 시스템과 직원 조사를 철저히 했으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18.11.13일자)

D는 ‘웹하드카르텔’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제보한 것이 맞는가?

3. D가 공범이 아니라 의인이면, ‘성범죄동영상 산업’은 사라지고 ‘양진호’만 남는다

경찰은 2018.11.26 양진호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진호 다른 범죄에 가담한 임직원 10명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D는 2018.11.13 기자회견에서 “면책될 순 없지만 이렇게라도 디지털 성범죄를 막으려 했다는 건 이해받고 싶다. 불법촬영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하며, D는 공익제보자가 되었고, 형사책임이 면탈되었으며, 공익제보자의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정작 웹하드카르텔 척결을 위해 밤을 새가며 추적하고 싸워온 여성들은 그 흔적도 남지 않게 된 자리에서 D가 상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성범죄동영상 - 사이버성폭력 산업’이라는 공공 의제는 사라지고 ‘양진호’라는 업기적 과물만 남는다는 뜻이다.

양진호만의 문제가 아니며, 수년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려온 웹하드 회사의 직원들은 수사에 협조해야 하며, 임원이었던 D는 피의자여야 하고, 부당 이익은 몰수, 추징, 배상되어야 하고, 반드시 끝까지 처벌되고, 전체 산업이 특별 수사로 대대적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이버성폭력과 맞서 싸워온 사람들의 명확하고, 지속적이고, 간절한 요청이었다. 그것은 이 의제가 ‘양진호’ 수사가 아닌 ‘웹하드카르텔’ 수사, 처벌, ‘디지털성범죄 종식’이라는 과

제이기 때문이다.

- 웹하드 카르텔 핵심인물 긴급 구속하라

웹하드 카르텔 문제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장 내 폭력, 양진호 개인 도덕성 문제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웹하드 업체 대표 임원들의 구속수사와 웹하드 카르텔 유착 관계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총 25개 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남부해바라기거점센터, 김포여성상담센터, 불꽃페미액션, 서울동 북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초등성평등연구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11.6 기자회견)

- 직원들의 책임

“사이버성폭력을 통해서 축적한 자본이 있었던 거고 또 그를 통해서 구축하게 된 웹하드 카르텔이 다 있었다는 거고 그 사실을 근무자가 모를 수가 없다. 사내 복지 중의 하나가 리벤지 포르노를 싸게 볼 수 있다는 식으로 글을 써서 올린 전 직원도 있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인터뷰 11.5)

- D 법무이사로서의 역할과 책임

D는 2009년 (주)한국네트워크기술원에 입사한 후 2013년 유레카 법무이사로 승진했었음

D씨는 위디스크나 파일노리에 어떤 경찰이나 법망이 걸리는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일을 해결했던 사람이었다고 복수의 사람들이 제보. 2011년 경찰의 위디스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불법촬영 영상물을 다른 곳에 옮기는 작업도 D씨가 직접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도 했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11.17 입장문)

웹하드 카르텔의 문제를 조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여성들이다. 그러나 어떤 언론, 어떤 웹하드 회사 임직원, 어떤 단체는 양진호를 거액으로 만들고 나머지의 책임과 구조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그동안 싸워왔던 여성들, 사이버성폭력의 피해자와 지지활동가들에게 할 수 있는 응답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웹하드카르텔을 고발한 건 여성들이다.

양진호 회사 법무이사 D씨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의인상 수상을 이대로 구경하고, 묵과할 수가 없다.

2019년 12월 6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추신]

뉴스타파는 여성들의 노력 가로채기, 지우기를 멈추고 웹하드카르텔을 적시하라

참여연대 2019년 의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용진(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로 되어 있다.

D의 제보를 특종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곳은 뉴스타파(설록, 프레시안과 공동)이었다. 그런데 2018년 10월 11월 집중 첫 보도 당시 ‘양진호 회장의 직원 무차별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 이라고 칭하던 뉴스타파는 점점 ‘웹하드 카르텔’ 보도의 주역으로 스스로를 서술했다.

“3개 매체의 ‘공동보도’로 폭행과 각종 엽기행각이 드러난 뒤, 양진호 회장은 구속됐다. 우리 사회가 외면해 왔던 이른바 ‘웹하드카르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정책이 바뀌고 법개정이 추진됐다. 언론의 협업이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 뉴스타파, ‘박상규 기자가 말하는 다윗들의 ‘협업 공간’, 한상진기자, 2019.1.25.

“양 씨의 ‘웹하드카르텔’ 문제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설록-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이하 공동취재팀)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 뉴스타파, “‘웹하드카르텔’ 혐의 양진호 추가기소... 뉴스타파 보도 수사로 확인”, 2019.7.30.

뉴스타파는 ‘웹하드카르텔’ 문제를 처음 알린 언론이 아니며, 위 두 뉴스타파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잘못되었다.

웹하드카르텔 문제를 누가 어떻게 알려왔는지 수많은 기자회견, 청원, 보도, 방송 등이 기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기사를 쓰는 것은 가능한가? 뉴스타파의 그간 보도도 '웹하드카르텔'이 아니라 '양진호'에 가까웠다. 뉴스타파는 이 글 1에서 서술한 여성들의 싸움과 노력을 가로채고 있으며, 지우고 있다. 뉴스타파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와 소명, 경정보도를 요청한다. 그리고 성폭력 문제의 구조와 웹하드카르텔의 문제를 직시하여 정론직필하기 요청한다.

[성명] 참여연대의 D-의인상 보류를 환영하며 '취소'의 확정과 입장을 촉구한다

지난 12/6일(금) 시상식 직전, 참여연대는 양진호 회사 임원 D의 의인상 시상을 보류했다. D와 다른 공익제보자들이 함께 수상소감을 말하고 사진찍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참여연대의 뒤늦은 긴급한 판단을 환영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임시보류를 '취소' 결정으로 발표하길 참여연대에 요청한다. 이에는 설명과 입장이 필요하다. D의 수상 취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익'을 한국사회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선 자리와 생각, 즉 입장이다. D의 의인상 후보 발표된 후 여성운동가들은 참여연대에 전화를 걸고, 항의방문했는데 참여연대의 답변은 "알지만 바꿀 수 없다", "안희정 사건 피해자를 의인상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은 많다" 였다. 이는 다 옳다는 양시론, 다 이견이 있다는 양비론처럼 일견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양쪽'의 논란이 아니라 참여연대의 젠더 관점의 부재, 미투운동과 여성들의 싸움과 목소리에 대한 몰이해, 신뢰성을 형성하는 경로에 대한 편향이 원인 아닌가. D-의인상 선정은 D가 언제 무엇을 제보한 것인지 꼼꼼히 파악하지 않고도 이루어졌다. 수상 보류하며 참여연대는 "사실관계와 수사 상황에 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전날까지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반면 이번 수상자 중 한명인 안희정 사건 신고/피해자는 작년 2018년 의인상 후보로를 추천했지만 각하된 바 있다. 올해 수상자로 다시 선정된 연유를 문의하자 "재판중이라 보류했었다"고 답변했다. D는 양진호가 1심 재판 중임에도 수상자로 결정되었는데, '최종재판 이후'라는 기준은 그렇다면 성폭력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무엇이 공익인가, 누가 의인인가

무엇이 공익인가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의 자료, 논의 내용과 결정이 달라진다. 참여연대는 성폭력 사건과 미투 말하기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 의존했던 것은 아닌가. 안희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합리적' 사회적 논란으로 고려했던 것은 아닌가. 반면 D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은 간과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과물같고 엽기적인 최고악을 격리하면 다른 젠더폭력 성착취 구조와 작동은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불평등과 위계, 권력의 사회적 구조를 깨나가며 발화하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 깨나가야 할 사회구조에 성차별, 성착취가 있다. 성평등 관점과 사안을 알고 고려하는 것이 이 시대 의인을 만나고 연대하는 '입장'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 공익을 만들고 있는 참여연대의 D에 대한 최종 취소 결정과 입장을 기다린다.

2019년 12월 9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 만들기의 출발! 미투운동에 응답하는 21대 국회 구성!"
후퇴 없는 선거제도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 발언1 : 안선민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55.5세 41억 83% 남성 국회. 정치가 제일 안 바뀌고 있다.
어제 일어난 젠더폭력 사안을 대책 논의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 핏줄 같이 흐르는 성폭력, 젠더에 기반한 괴롭힘, 위계, 차별을 평범한 목소리들이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한국 트위터 1위 단어는 ‘스쿨미투’였습니다. 한국 연극계 1인자, 차기 대권주자 이윤택, 안희정이 성폭력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불법촬영과 온라인성폭력은 동료시민 남성에게 의한 위협과 모욕이 얼마나 일상적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남자의대생 카톡방 사건은 기자 단독방을 거쳐 남자초등학생 카톡방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불법촬영 유포, 성매매, 집단성폭력은 우리나라 최고 연예기획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연예인들은 존엄한 삶을 살고자 분투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가해자와 연루되어 있고, 검찰은 내부 성폭력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0년간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피해자가 드러난 것만 88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55.5세. 1인당 평균 재산 41억원, 남성 83%인 국회. 이런 국회는 우리 현실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성이 인구 중 49%인데 국회에는 17%만 들어갔습니다. 여성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남성평균의 67.2%인 229만원인데 국회의원 재산 평균이 41억입니다. 국회는 올 한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형법상 낙태죄 폐지는 커녕, 형법상 강간죄 개정 논의도 못했고, 성폭력 민사소송 시효 연장 하나도 통과 못 시켰습니다. 국회는 장애인, 이주여성, 성소수자를 대변하기는 커녕 이들을 혐오하는 주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총리로 일부 기독교계의 대변자로 종교세 징수를 미뤄오고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지속해온 70대 남성 정치인을 지목했습니다.

이대로는 정치도, 우리들의 삶도 망해갈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다니는 우리 모습이 국회에 있어야 합니다. 16세와 18세 여성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법안으로 논의하고, 2-30대 여성들이 성별격차를 예산안에서 찾아 바꾸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를 국정 감사에서 질의하며, 소수자들이 가족 구성권과 사회보장제도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래의 국회의 모습이고, 정치의 역할입니다. 후퇴없는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상정 및 통과는 최소한의 책임이고 염치입니다.

■ 기자회견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회 만들기의 출발! 미투운동에 응답하는 21대 국회 구성!”

후퇴 없는 선거제도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지난 12월 8일, 핀란드에서는 역대 그리고 전 세계 최연소의 34세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신임 총리 산나 마린 의원은 레즈비언 부부 사이에서 자랐으며, 노동자 계급 집안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5개 정당 대표는 모두 여성이며, 이 중 네 명은 30대 청년이다. 또한 19명의 내각 구성원 중 12명이 여성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성평등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18세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 의석이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대로 배분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와 정반대 상황이다.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김진표 의원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공공연히 탄압하고, 보수 개신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앞섰던 72세의 인물이다. 더욱이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후퇴와 퇴행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촛불혁명 이후 그리고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감사의 JTBC 인터뷰 이후 한국 사회는 그 전과 다른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 변화를 강하게 부정하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이다.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국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안희정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에도 강간죄 구성 요소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 하나는행과 서울메트로 등 여성에 대한 고용 성차별이 공공연하게 폭로된 이후에도 성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성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극우 보수 개신교가 성평등을 널뛰기 삼아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시도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초지일관 성평등을 금기어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집권은 20대 여성의 투표에 빚을 지고 있으나 20대 남

성에 숨어 페미니스트 운동과 최대한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는 이성애, 비장애인,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특정직업 등 특권층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다. 평균 55.5세 남성의 얼굴을 한 국회는 자신들의 '성착취 카르텔'을 공고화하고 있을 뿐, 성폭력·불법촬영·스토킹 등으로 부터 안전한 일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중년 남성의 얼굴을 한 정치는 여성뿐만 아니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주지 못한다.

시민의 한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정치인들을 과연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여성들의 목소리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며, 논의조차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과연 대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도 거부하고 차별금지법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과연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시민 다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특권을 가진 소수의 이익집단만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인은 여성에게도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필요 없다.

이따위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페미니스트 의제는 거대 양당의 더러운 정치적 공학에서 삭제되고 묻혀 버린다는 것을 20대 국회는 너무도 명약관화하게 보여줬다. 이보다 나은 정치, 다양한 국회의 얼굴, 책임 있는 정치,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과제는, 비록 부족하지만, 현재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도 통과해야 그나마 실현될 수 있다. 양당정치의 구도를 깨야 페미니스트 정치가 탄생할 수 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난 4월 18일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요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8개월이 흘렀음에도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발전하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다. 더 이상의 후퇴는 두고 볼 수 없다. 남성지배의 양당정치 구도를 깨고 성평등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들과 페미니스트들은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요구할 것이며,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정치인들을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유니브페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그 평범을 깨고, 우리의 평범을 찾자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1193회)의 “충격”시선이
친족성폭력을 ‘몰라도 되게’ 만든다

우리는 말한다
그것은 평/범/한/가/족에서 일어났다
그 '평범'을 깨고, 우리의 평범을 찾자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부터 폐지하자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가 친족성폭력 편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피해생존자들이 기대했다. 〈그알〉은 파급력이 큰 프로그램이라 이 문제가 쟁쟁한 사회적 의제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겐 희망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알〉 '부성애의 두 얼굴' 제작팀은 제작과정에서 친족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휘둘렀다. 우리는 〈그알〉의 시선이 친족성폭력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몰라도 되게' 만드는 전형적 방식이라 생각한다.

* 제작팀과 소통했던 당사자들과 방영분을 모니터링한 이들의 의견이다.

☞ 친족성폭력은 '충격적'인가?

〈그알〉은 “이 파렴치한 남자는 ... 의 친아버지였다” “미투운동 이후 오빠, 남동생, 친척은 있었지만 친아버지라는

것은 좀처럼 접해보지 못한 일이다. 믿고 싶지 않은 일”, “어쩌면 오늘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채널을 돌리는 분 있을 것이다” 등을 멘트로 썼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불법촬영 문제를 다룰 때도 이런 멘트를 쓰는가? ‘충격적’ ‘믿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반응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매번 ‘원점’으로 만든다. 구조나 원인을 짚지 않고, 일상성과 평범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 경찰통계상 친족성폭력은 매년 6-700건이며,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서 25년 이상 매년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제일 많은 가해자가 ‘친부’다. 친족성폭력을 ‘충격’으로 여기는 건 대중들이 아니라 30년째 ‘충격’만 반복하는 방송이다.

㉮ 친족성폭력은 ‘소재’일 뿐인가?

〈그알〉 출연을 타진했던 친족성폭력 피해당사자는 제작팀과의 첫번째 갑작스런 통화에서 “그러니까 어떤 행위였냐, 삽입이었냐 OO이었냐?”는 질문을 받았다. 해당자는 결국 〈그알〉에 못/안나갔다. 〈그알〉은 방영분에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2차 피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객관적인 확인과 판단을 해야 했다.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들여보야 했다. 여러분도 함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라며 밤 시간 피해장소로 피해자와 갔다. 다른 사례자는 (인터뷰 도중 ‘행위’를 떠올리다가 자리를 피하자)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다. 잠시 후 감정을 추스리고 해준 이야기는 방송에 공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알은 그 ‘행위’들이 알고 싶은가? 그런데 정작 들으면 공개할 수도, 직면할 수도 없는가? 정작 알고자 하거나 듣고자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행위는 ‘판단해야 할 행위’로 파헤치고, 어떤 행위는 ‘공개조차 할 수 없는’ 행위로 금기를 설정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인가, 모르고 싶은 것인가.

㉮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특정 ‘이미지’일 뿐인가?

당사자들은 〈그알〉 제작팀의 인터뷰 요청에 방송기획안이나 사전질문지를 메일로 요청했다. 그러나 제작팀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사전질문지를 줄 수 없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기 위해 그런 것은 드리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제작팀은 출연여부를 타진하는 소통 과정에서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다 힘들게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그렇지 않다고 하자 그럼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가, 결국 그 사람이 겪은 사건이 자 극적이기 때문에 출연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알〉의 “파괴된 삶이냐? 극복한 삶이냐?”라는 이분법적 질문은 틀렸다. 두 부류의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시선의 방송이 있을 따름이다.

제작팀은 친족성폭력의 ‘일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은 일상을 유지시키는 사회적 기본 단위로 기능하고 상징한다. 〈그알〉 방영분에는 외국으로 이주한 상태의 피해당사자가 주로 나왔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사회체계는 생애주기를 따라 다니며 일상에 부착된다. 친족성폭력의 해악성은 파괴된 듯 보이는 어떤 피해자를 찾아 다녀도, 극복한 듯한 피해자를 찾아도, 그 둘을 비교해도 결코 찾을 수 없다. 친족성폭력의 해악성은 가족이라는 사회적 기능과 상징이 한 개인의 생애 대소사를 부당하게 좌우하는 사회에서 발생하고 지속, 은폐된다. 피해자를 믿고 싶지 않은 성적 충격을 경험한 몸으로만 보고자 한 〈그알〉의 시선이 안타깝다. 가족의 권력, 위계, 차별, 폭력을 고발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피해생존자들의 목소리를 힘있게 들지도, 담지도 못한 〈그알〉이 안타깝다.

우리는 말하고 싶다.

그것은 평/범/한/가/족 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평/범/한/가/족 에서 일어난다.

그 ‘평범’이 친족성폭력을 은폐하고 지속시켜 왔다.

그 ‘평범’이 유지되는 한, 친족성폭력은 지속된다.

그 평범을 깨고, 우리의 평범을 찾자.

평범한 우리들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부터 없애겠다

[논평] 청소년의 차별없는 선거권 보장 첫 걸음 환영한다

청소년의 차별없는 선거권 보장 첫 걸음 환영한다
더 많은 이의 평등한 참정권 보장으로 나아가자!

2019년 12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0년 제29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 자 료 집

발행일 _ 2020년 1월 31일
발행처 _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발행인 _ 이미경
편집책임 _ 김혜정
실무도움 _ 김채연, 박민아
만든이 _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들
인쇄 _ 카피플러스 마포점